2-ШЎЪБА
БУЮК ИПАК ЙЎЛИ ХАЛҚЛАРИ АДАБИЁТИ ВА АДАБИЁТШУНОСЛИГИ

CORRELATION BETWEEN WOMEN'S EXPERIENCE SPACE EXPANSION AND EXTENTION OF THEIR CONSCIOUSNESS IN'NAEBANG-GASA'

Lee, Jeong-ok (Uiduk University, Korea)

Having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women's experience of space varied depending on the types of *naebang-gasa,* this paper seeks to find out whether their consciousness was changed too,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ir activity and experience space.

Naebang-gasa is a genre of lyrical songs written, mostly, by women of the aristocratic class from the late Choson dynasty up to the present day. The tradition depended on the way of transcription or recitation. In general, the lyrical songs written by the aristocratic male were called *gasa*, and those written by the male commoners were called *pyeongmin-gasa* or *seomin-gasa* (commoners' song). Unlike those, the lyrical songs written and enjoyed by women were called *naebang-gasa,* a term having a connotation of space, as '*naebang*' was the poet's own living space, space of creation and entertainment, and space that often became the background or the subject of her works. In addition, that space demonstrated her aristocratic status and an intimate space of her own. It is a convincing argument that applying the meaning of space to naming this genre signified the fact that the space for women's living and their presence was extremely closed, and the scope of their spatial experience was limited. Nonetheless, it is a dangerous prejudice to assume that the women's experience space in *naebang-gasa* was limited to their boudoir, i.e., *naebang,* strictlIn the Choson era when women's presence in public places was strictly prohibited by the law, the only place women were allowed to go once out of their own parents' home was the house of their husband, or in-laws. In the husband's or in-law's house, the only places they were allowed to enter were sewing room and reception room for guests, where they could never even imagine falling asleep, and kitchen, although they were sometimes allowed to visit the relatives' or close neighbors' rather freely.

In sum, women's activity was allowed within the limited and confined spaces. *Naebang* was not only the exclusive living space for women, but also a model space complying with the sex segregation law.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a further discussion would be necessary to examine the inner structure of the songs, the authors' pattern of expressing their consciousness, the perspective of space and experience presented during socialization in both men and women respectively, and the relationship of this genre to the social aspect of the time.

In the Choson era, boudoir was probably the most representative closed space in which women could express themselves freely. In the archaic term *naebang-gasa*, *naebang* meant women's living room or residential space. The space was limited to women almost exclusively, as it was the custom of the time to restrict female activity and the scope of their movement. The common structure of Choson aristocrats' houses, however small and shabby they must have been, separated women and men in different rooms, and this shows such rigid segregation between the sexes in the Choson culture.

The women's experience spaces represented in the didactic or moral instruction type songs were limited to *naebang* when they were young, and the husband's house and the inner wing of their own parents' house after they were married.

Once the girls turned ten years' old, they were told to stay in the innermost part of the house and keep indoors. Reading the didactic literature, such as *Yeolnyojeon* or *Naecheukpyun,* and learning the lady's etiquette was regarded as a model life.

내방가사를통해본여성의경험공간과의식확대의상관관계

1. 서론

현재전하는내방가사중작자가분명히밝혀진작품수는많지않다. 가장오래된작품으로허난설헌(1563~1589)의규원가를꼽을수있지만작자의신빙성에논란의여지가있다. 그후오랫동안창작의기미가없었다가 1746년안동권씨(1718~1789)의<반조화전가>가전하고있으며, 경북달성전의이씨의<절명사>(1748), 경북안동연안이씨의<쌍벽가>(1794), <부여노정기>(1802) 등으로미루어내방가사는조선후기 18세기중엽이후창작의전승이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그후경북에서는폭발적으로창작되고유통되었으며, 현재도활발하게전승되고있다.

현전내방가사의정확한작품수는헤아릴수없으나 [1] 작품의유형분류는가능하다. 계녀가류, 탄식가류, 화전가류, 유람가류, 가문세덕가류, 종교가사등으로분류된다.

본고에서는내방가사의유형에따라여성들의경험공간이달라짐에착목하였다. 여성의활동및유희공간의변화에따라그들의의식또한변전되고있음을확인하고자한다.

2. 계녀가류 : 폐쇄된주거공간, 그리고가사노동의굴레

여성의경험공간중먼저폐쇄공간으로서의내방을들수있다. 내방가사에 ‘내방’은공간적의미로서여성의거주및생활공간이다. 그공간범주는여성에게는한없이제한적이었다. 이는조선시대여성의행동반경을관습적으로제한한탓이다. 아무리좁고누추한집일지라도안방과사랑방을남녀의거주공간으로분류해놓은조선시대양반가의가옥구조에서 이와같은내외관습은쉽게확인된다. 교훈·도덕류의가사에나타난여성의경험공간은어려서는 ‘규방’, 결혼후에도시집또는친정집의안채로제한된다.

어와우리동뉴규중의집이안ㅈ、
ㄴ、ㅣ측편이공정이오열여절니ㅅ、업이라
열살부터불츌문의유슌ㅎ、믈덕을ㅅ、아<규방정훈>

여성은열살부터깊고깊은내방에들어앉아문밖출입을하지않아야했다. ≪열녀전≫이나 ≪내측편≫ 등과같은부녀교훈서를읽는것을비롯하여부녀자수업을받는것이최고의덕목이었다. 이러한내외관습이데올로기를강화하는유교원리중의하나가음양원리였다. 조선조의지배이념의핵심인유교와특히우주의원리를설명한주역은종교적성격을띤철학사상으로서그근본을음양의원리에두고있다.[2]원칙적으로음양은상대적이며동등한것이다. 그러나조선에서는주역의음양논리가유교적가족제도형성에영향을미쳤으며, 단순한남녀구별을넘어권력이집중화되고지배/피지배의관계로조직화되고다시위계서열적남존여비의이념으로굳혀져내외관습이되고가옥의구조에까지영향을미쳐안채와바깥채라는공간적구분이생겼다.[3]

친정을하직ㅎ、고싀가로드러가니
네ㅁ、음엇더ㅎ、랴ㄴ、ㅣ、심ㅅ、갈발업다
ㅂ、ㅣ마의짐을실고금안을구지미、고
문밧긔보닐적의경계ㅎ、ㄹ말하고만타<권본계녀가>

내외법에의해외부출입이엄격히통제되었던조선시대의여성이 ‘친정’의 ‘문밖’을나서보아야가야할곳은 ‘싀가’일뿐이다. 또한시가에서여성에게허여된공간영역은 ‘단ㅈ、’을이루기도어려운방, ‘봉제ㅅ、’와 ‘접빈객’을위한공간과 ‘정쥬(부엌)’ 외에는 ‘무름없이(스스럼없이)’는갈수도없는집이라곤가까운일가친척집이나이웃이있을뿐이다.

남녀로소분별하니나의례절받자오ㄴ、ㅣ
남자는밧게있고여자는안에잇서
여공에매인일을난낫치비、와ㄴ、ㅣ리<행실교훈기、라>
밧그로맛튼일을안으로간여말고
안으로맛튼일을밧그로밋지마라
가장이구죵커던우스면ㄷ、ㅣ답ㅎ、면
공경은부족ㅎ、다화슌키난ㅎ、나니라<훈시가>

남성의영역과여성의영역은공간적으로엄격히분할되어있었고, 그각각의고유역할도구분되어있었다. 남성의역할이바깥에서이루어지는중요하고공적이며사회적인것임에비하여여성의경우는주로집안에서이루어지는 ‘여공’이었다. 이를테면, 침선방적과같은가사노동에해당되는사적인노동영역에해당하는것들을의미한다. 이렇듯남성과여성의역할은뚜렷이구분되어있으므로각자의고유역할에대한관심과간섭또한금기시되었다. <훈시가>의경우여성이남성의바깥일에대한관심은철저히배제되었으나남성의여성의일에대한간섭은허용되어있으며, 여성의잘못을남성은꾸중할수도있었으며, 그경우여성은웃으며대답하여부부간의불화를일으키지는말라고훈계하고있다. 남성과여성의구별은 ‘밖/안’의공간구분의차원을넘어남성과여성의 ‘지배/복종’의상하신분질서까지도엄연한시대상을제시하고있다.

여성의이동공간의범위도자연결혼하여평생살아야할공간으로서의시집과이따금말미내어출가외의신분으로방문하게되는친정집으로제한된다. <사친가>형과<회혼가>형의가사들은대부분친정을그리워하거나친정의경사로운행사에참가한여성들의가사라할수있다.

---

1 10만 부를 넘을 것이라는 최근의 보고도 있는데, 그 이유는 내방가사만의 특별한 전승방법인 필사와 암송 등에 기인한다.

2 이하 음양원리에 관한 논의는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 문학과 지성사, 1990, pp.73-74. 참조.

3 박용옥(1985) 참조.

3. 화전가류 : 일년에단하루만허락된소풍

화전(花煎)놀이는부녀자들이중심이되어청명절(양력4월4, 5일경)을전후하여베풀진여성의놀이다. 한해최초로꽃피는시절인춘삼월에날을잡아동네사람들이무리를이루어하루를즐겁게노는것으로화유(花遊)놀이라고도하고, 꽃달임[4]이라고하는지역도있다.

화전놀이는단순히화전을지져먹는것이아니라부녀자들이모여노래하고춤도추며가사짓기를하고즐기는것이다. 화전놀이의기원은신라까지거슬러올라갈수있다.[5]조선시대궁중에서삼짇날중전을모시고비원에나가옥류천가에서화전놀이를하였다는기록이있다.

일반민가에서는화전놀이날을잡으면주로중년층의부녀자들이중심이되어상(喪)중이거나특별히큰일을앞둔사람들외에는모두참가한다. 대외적으로인정받은여성들의놀이문화였다.

현재안동을비롯한영남지역에서는문중단위로여전히이놀이가성한편이다.

영남안동지역중에서도특히하회마을에서사랑을받았다고한다.

화전놀이의절정은가사를지어초성이좋은사람이낭송하는것이다.

화전놀이에서지어진가사를<화전가>라고하는데영남안동지역에서는유달리화전가를잘짓는여인들이많았다. 이는안동으로시집온부녀들은대개명문가에서자라규중에서내방가사를익혔음은물론규중교육을충분히받은경우가많았기때문이다.

그래서여인들은자신의친정가문의명예를추락시키지않기위해서<화전가>를짓는데도열심이었을것이다.

또한<화전가>는개인만의문화가아니다. <화전가>에대한대답으로청자들은 "우리어맴은참초성이좋으셨니더", "우째초성이저래좋노"라고응답하며그흥을돋운다.

이처럼그순간을즐기는집단문화이기도하다.

하지만이러한문화에대한남성들의시각이모두옹호적인것은아니었다.

봉화지역에전해지는홍원당의<조화전가>를살펴보면 "규방의부녀들이풍류남자들이나하는산수유람에빠졌으니세상이거꾸로돌아가는것이아니냐"며화전놀이를하는부녀자들을조롱하고있다.

이러한일부남성들의조롱에맞서는가사도있었으니바로안동권씨부인의<반조화전가>이다.

≪언셔족보≫의기록에의하면안동권씨부인은봉화의진성이씨집안에출가한여인으로당시전형적인양반사대부의모습을보여주고있다.

<반조화전가>는홍원당의<조화전가>에대한반박으로<조화전가>에서조롱하는항목을조목조목따지고있다.

그녀는화전놀이는예부터있어온여성들의놀이이며화전놀이가단청놀이에불과하다는조롱을사서삼경과≪제가백가≫를읽어사람의도리를배우고도행하지못하니결국남자들의책읽기가단청놀이에불과하다며반박하고있다. 이는여성문화에대한자부심의표현이아닌가한다.

전근대사회에서화전놀이에소요되는시간은일반적으로겨우여덟시간내외였다고한다.

여성들에게있어서화전놀이는유일한비일상적인축제의시간이었다.

화전놀이를가는날은전통사회의엄격한유교원리에얽매여집안살림에만급급해서바깥세상과동떨어진생활을할수밖에없었던부녀자들에게단조롭고답답한일상에서벗어나는활력을주는민속놀이이다. 봄날하루, 그녀들의유쾌한일탈은봄햇살보다찬란하게빛났다.

놀이를거듭하고화전가를여러차례짓다보니같은말을되풀이하지않을수없지만, 다시짓고읽으면즐거웠다.

경상북도영양지방에서지은<평남산화전가>에서는놀이에참여한동류들의모습을하나씩익살스럽게그려내기까지했다.

광대같은대구댁은
사냥개를닮았는가? 어이그리시끄러운가?
부덕좋은교동댁은
말소리를볼작시면기생사촌닮았는가?
춤잘추는방전댁은
하는이력볼작시면거만하기그지않다.
토곡댁을볼작시면
수나비를닮았는가? 하는짓도분별없다.

그러나여자로서할수있는놀이도제한되어있거니와그나마도마음대로하지못한다. 멀거나가까우나출입조차제한되어있으니어찌한탄스럽지않으랴? 그저규방에갇혀서,

---

[4]"꽃전을 부치고 화채를 타고 생선국을 끓이고 담백한 꽃달임이 소담하게 벌어졌다." 박종화 <다정불심>

[5]"김씨 집안의 재매부인이 죽어, 청연 상곡에 장사지내고 이를 노래로 지어 재매곡이라고 불렀다. 매년 봄이면 온 집안의 안녀자들이 그 골짜기 남쪽 시내에 모여 잔치를 벌였다. 그때가 되면 온갖 꽃이 피어나고 소나무꽃가루가 온 골짜기와 숲에 가득 날렸다. 그래서 골짜기 어귀에 암자를 짓고 송화방이라고 했다. 원찰로 삼아 전해온다."≪삼국유사≫ 권1, <김유신조>.

자유분방하게돌아다니는남편의의복해대기에오히려바쁠지경이니더욱한탄스럽기만하여자연히남편에대한원망이분출된다. 천지만물생겨날때비록남녀가유별하나인생이가장귀하니춘삼월호시절에, 놀기좋은때에마음놓고놀수없는여자의신세를한탄하고남자됨을부러워하다가우리부녀자들도규방에만묻혀있지말고화전놀음으로하루를보내자고하면서가까운산으로놀러갔다지은가사이다. 그러나하루해는짧기만하다. 여자의몸으로마음놓고늦게까지놀수가없으니후일을기약하고바삐귀가해야하는것은시집살이를하는여성들은다시괴로움의일삼을체념적으로받아들여야한다.

조선후기사회에접어들면서여성들의출입이다소허용되기시작했는데그중심은화전놀이가된다. 집안여성이나딸네혹은그들의혼성이된화류계를통한여성들의경험공간이확대된다. 이경험공간의확대는곧여성의식의변화를동반하였다.

4. 유람가류 : 놀이공간의확대와새로운문명경험

<유람가>형가사에서는그경험공간의영역이대폭적으로개방되고이동확대되는양상을보인다. 비록친정과시가에얽매여살수밖에없는여성들에게일년에한번또는그이상의이동을허용하는기회가주어지게된것을이들유형의가사에서확인할수있다. 비록내방가사라할지라도여성의경험공간은 ‘내방’만은아니었으며, 그경험공간은가사의소재와주제의다양화와함께개방과확대와이동이불가피하게된다. <유람가>형의내방가사작품에나타는여성경험공간의확대폭은가히괄목할만하다. 여성의경험공간의확대에기여한유람가형내방가사의분석해보았다.[6]

내방가사는작자를정확히알수있는작품이드물다. 대부분의여성작자들이그이름을밝히지않기때문이다. 비록이름은아니더라도택호를이름대신으로하는경우도있으나이역시드물다. 또한연구자들이그동안자료를수집하는과정에서원작자에대한충분한검증을하지않은이유도크다. 기행가사의경우도예외가아니다. 작자명이명기된작품은모두 6편뿐이며, 그중에서도 2편은택호로기명되어있어정확한작자명은알수없다. 그러므로내방가사의경우에는작자규명에대한지나친관심은별의미가없다. 특히필사와낭송이라는구비전승적전파성을가지고있는내방가사는오히려여성일반이라고하는다중적작자관을허용할필요가있다.[7]

내방가사작품은그제작시기를알수없는작품이대부분이다. 전승과정에서수많은독자와필자를만나면서또한수많은첨삭의과정을거쳤기때문이다. 그러나기행가사의경우는여행한해와날짜를가사내용중에는확인할수있는경우가많다.

가장이른시기의작품은연안이씨의<부여노정기>이다. 1815년이전의작품이며, 유일한 19세기작품이다. 그외의작품은모두일제시대, 혹은최근세에지어진것들이다. 이분석의결과는 ‘내방가사의제작시기의현재성’을밝히는중요한자료가된다. 여행지는작자가거주하여살고있는곳에서멀지않은명산이나, 경주, 부여등지의고적지나관광지가대부분이었다. 여성의여행반경은남성에비해상대적으로좁다.

혼자보다는여럿이, 또는단체로가는여행의방법이대부분이었다. 행선지가멀수록, 또는여행의목적이유람그자체인경우는대부분단체여행이었다. 도보로여행하는경우가많지않는것은여성이여러날을낯선곳에서묵어가면서이루어지는여행인경우는거의없으며, 단하룻밤이라도친척들의집이라도있어야가능하리라는사회적통념때문일것이다. 여성들의여행교통수단의이용이특히두드러진다는특징을보인다. 이것은또한여성특유의필치로그려낸여행지에서의여정과아울러숙박지에서의감회가많은부분서술된다는특이한양상을보이기도한다.

여성의경험공간의확대에가장적극적으로기여한것은놀이공간의확대다. 남성들의기행가사가공무로인해부임한임지의관내순시또는유배지에서의기행그렇지않으면스스로수신의방식으로명승지를찾아유람하면서견문을넓히려는목적에서이루어지는것과는달리내방가사의경우놀이에대한욕구그자체가여성들에게는집안이라는폐쇄공간으로부터의탈출을의미하였다. 그러다보니, 최근작으로올수록여행지가관광지나온천이되고여행의견문보다는여행과정의유희와인물묘사에더욱치중하는경향이나타난다. 그러다보니남성의경우, 여행목적과방법이개인적으로이루어지는데비하여내방가사의경우대부분단체로, 타의에의해조성된경우에이루어진다. 이역시여행의목적이유희적놀이이기때문이다.

우리의여자습관으로규중에침복하여
<u>한류람못한것이평생에여한이라</u>
전생의무삼죄로여자몸되엿든고

---

6 7부의 자료집 36편의 자료 중 분석 대상 작품 총 36편 중 남성의 작품임이 확실한 6편과, 실제 여행이 수행되지 않은 3편의 작품은 분석 자료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부여노정긔>는 ≪규방가사≫ 1과 ≪안동의 가사≫에 중복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실제 분석대상 작품은 모두 26편이다.

7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논의의 필요성이 있다.

경오년사월달은우리일행모집되여
억만근심하마하고주왕류람가게되니
슬프다우리단체구경이느젓구나<쥬왕유람가>
세상사람웃지마소지금은옛과달라
남존여비구별업서규중에여자몸도
자유를부를짖저이십세계우리들도
객지소풍여사라래<계묘년여행기>
요ㅈ、유행원고향은사람마닥여ㅅ、로다
이리져리싀월사셔일평보니ㅈ、관니라
오십연즁산역ㅅ、역역히기록ㅎ、며
고락도허다ㅎ、고심흉도무슈ㅎ、다
이세ㅅ、ㅇ사람드라심흉고락졍츄니라
내혼자만나거든ㅎ、탄ㅎ、리안니로다<슈곡가라>
화란춘셩만화방창때는조화삼촌가졀이라
갑진년에유람가서신라서울구경하고
노름신이나와잇어<유람가>

경북예천군용문면의부녀자들은신라의수도인경주를구경한갑진년(1964년)에이어백제의수도인부여를관광하는것이맞는도리라고하면서후기에서내년을기약하는하면서(<유람기록가>)실지로부여를관광한이듬해인을사년에위에인용한유람가를짓기도하였다.

5. 여성의여행경험과의식의확대

여성의자유로운여행(문밖출입)이허용된시기로부터여성의신분적자유가확대신장되기시작하였고이를통한사회화의과정이내방가사의내용의폭과질이확대되는매우중요한계기가된것이다.
여성들의경험공간의확대를통해여성의의식도확장되면서, 사회화과정도동반한다.

이상의논의들과결과를바탕으로한작품내적구조와작자의식의표출양상이나그사회화과정에서나타난남녀간의공간관이나경험관, 그리고사회상과의관계에본격적인논의가과제로남아있다.

ХАЛҚ АРДОҒИДАГИ ИЖОДКОР

ф.ф.д., проф. Жуманазаров У. (ЖДПИ)

Бутун дунё тарихида жаҳон оламига машҳур шундай улуғ зотлар учрайдики, уларнинг қобилиятига, қилган ишларига, халқ ҳурматига сазовор бўла олган фаолиятига қойил қоласан киши. Биз бундай кишиларга катта ҳурмат, зўр эҳтиром ва чексиз муҳаббат билан қараймиз. Хазрат Мир Алишер Навоий ҳам ана шундай улуғ зотлар жумласига киради.

Маънавиятимиз гултожи, ғазал мулкининг султони бўлмиш бобомиз Алишер Навоий ўз номи ва хизматлари билан Шаркда ҳам, Ғарбда ҳам жуда катта обрўга эга, жаҳон адабиётининг хазинасида ўзига хос ва мос муносиб ўрин олган.

Туркий тилимизда ўнлаб улуғ ва умри боқий асарлар ёзган бобокалонимизнинг ҳаёти ва ижодий фаолияти ҳақида ўз юритганда дастлаб қуйидаги фазилатлари кўз ўнгимиздан бирма-бир ўтади: фозил ва оқил давлат арбоби; ўзбек адабий тилининг асосчиси; мумтоз адабиётимизни янги юксак тарақиёт босқичига кўтарган сўз санъаткори, қомусчи аллома; ўз даврининг илм-фан, санъат ва адабиёт аҳлларининг ҳомийси ва устози; ажойиб боғ-роғлар ва обидалар яратган, ободончилик ишларига раҳбарлик қилган, ўзаро уруш-жанжалларнинг олдини олган тадбиркор халқ фарзанди сифатида эл назарига тушди, ижодкор ва бағри кенг халқ қалбидан жой олди.

Унинг ибратли ҳаёт ива нодир ижоди ўз замонасидаёқ бутун Хуросон ҳамда Мовароуннаҳр аҳлини ўзига мафтун этиб олган эди. Шунинг учун ҳам бу табаррук зотнинг ҳаёт ива фаолияти ҳақида кўплаб ҳикоялар, ривоятлар яратилган. Бундай асарларнинг баъзилари бевосита шоир ҳаётлигида яратилган бўлса, баъзилари унинг вафотидан анча кейин юзага келган.

Қандай бўлмасин, Алишер Навоий ҳақида яратилган бундай асарлар шоир ҳаётининг турли қирраларини ёритишга бағишланган. Уларда шоирнинг юксак одамийлиги, илмпарварлиги, ҳалол ва ҳақгўйилиги, оддий ва меҳнатсеварлиги характерланган. Бундай асарлар аллома бобомиз таваллудининг 550 йиллиги нишонланган 1968 йилда «Доно Алишер» номи билан алоҳида тўплам ҳолида чоп этилган. Бироқ тўпловчилар негадир тўпламга киритилган асарларни афсона деб белгилашган. Аслида тўпламга бир неча ривоят ва бир эртак (Зиёд ботир) киритилган, холос.

Тўпламдаги материаллар характери, уларда Навоий образининг тарихий ишончлилиги шундан далолат берадики, улар афсона эмас, балки тарихий ривоятнинг гўзал намуналари ҳисобланади. Мустақилликнинг дастлабки давридаёқ Ҳазрат Мир Алишер Навоий ҳақидаги халқ ривоятларининг тўла намуналари фольклоршунос олим М.Жўраев томонидан тайёрланган. «Эл деса Навоийни» (1991) тўпламида эълон қилинди. Ушбу мажмуа бобомиз таваллудининг 550 йиллигига тўёна сифатида тайёрланган бўлиб, унинг «Алишер билан булбул» номли биринчи бўлимига 54 та ривоят намуналари берилган бўлса, «Хозиржавоб Мирали» бўлимида Алишер Навоий – Мирали ҳақидаги туркман халқ ривоятларидан ўзбек тилига ўгирилган 10 та намунаси илова қилинади. Тўпламнинг «Саодатли амирнинг сифатлари қисмидаги ҳикоятлар улуғ тарихчи бобомиз Хондамир қаламига мансуб «Макоримул ахлоқ» («Яхши хулқлар») асарининг 1968 йилги нашридан саралаб олинган.

Ривоятлардан бирида Алишер Навоийнинг доно ва тадбиркор вазир сифатидаги образи тасвирланган. Унда Навоий Хуросон ҳукмдори, дўсти Хусайн Бойқаронинг ҳар бир ҳаракати ва ишорасини англаб, унга тўғри йўл-йўриқ кўрсата оладиган вазир қиёфасида берилган. Айтилишича, Алишер Навоий Хуросон ҳокими Хусайн Бойқаро саройида бош вазир экан. Подшо ҳамма вақт Навоийнинг маслаҳатларига қулоқ соларкан.

Кунлардан бир куни Хусайн Бойқаро эрталаб саройга кириш олдидан Навоийга кўриниш берибди-да, кўрсаткич бармоғи билан бошини кўрсатибди. навоий ҳам худди шу бармоғи билан тилини кўрсатибди.

Хусайн Бойқаро бошини чайқабдида, саройга кирмай изига қайтибди.

Воқеани кузатиб турган Навоийнинг шогирдлари бу имо-ишораларнинг сабабини суриштирибдилар. Навоий бу жумбоқни ечишни уларнинг ўзларига хавола қилибди. Шогирдлари ўйлаб-ўйлаб топишолмабди. Шогирдлардан бири Навоийни гапга солиш мақсадида сиёҳдонини ағдариб юборибди.

Шунда Навоий:

-Абдулатиф, хаёлингиз нега бунча паришон бўлиб қолди, сиёхдон ағдарилди-ку, -дебди.

-Кечиринг устоз, -узр сўраб абдулатиф, - ҳалиги муаммони сабабини ўйлаб, хаёлим қочибди.

Навоий бояги имо-ишора маъносини айтишни мажбур деб билибди:

-Хусайн «бошга балони нима келтиради?» -деб сўраб эди, «тил» деб жавоб қилдим.

Шогирдлар Навоийнинг зийраклигига қойил қолишибди.

Ривоят мазмунидан кўриниб турибдики, навоийнинг вазир сифатида давлатни идора этиш ишларида, шунингдек дўсти Хусайн Бойқаро доно маслаҳатлар бериш билан тўғри йўлга бошқаришда хизматлари беқиёс.дарҳақиқат, тарихан олиб қаралганда ҳам Алишер Навоий Хусайн Бойқаро ҳаётида катта роль ўйнаган шахс. Ўз навбатида Хусайн Бойқаро ҳам Навоий фаолиятида ҳам дўст, ҳам ҳомий ҳукмдор, ҳам шоир сифатида чуқур из қолдирган. Мана шу тарихий ҳақиқат реал тарихий образлар воситасида уйдирма сюжетлар қобиғида берилган. Демак, тарихий ривоятда сюжет реал воқеалардан ташкил топиши шар эмас. Энг муҳими, сюжет асосидаги ғоя ва унда иштирок этувчи персонажлар тарихан ҳаққоний бўлиши шарт. Бу жиҳатдан «Навоий билан мардикор» ривояти характерлидир. Мазкур ривоятда тасвирланган воқеа характеридан келиб чиқиб айтиш мумкинки, ривоят ҳаётий уйдирма асосида юзага келган. Шунга қарамай унда ифодаланган ғоя Алишер Навоийнинг ҳаётий принципларини тугал ифодалаши билан реал тарихийлик касб этади. Дарҳақиқат, Алишер Навоий эл-юртга фойдаси тегмайдиган, дин ва шариатни пеш қилиб, ўз тирикчилигини ўйлайдиган шайхларни, зоҳидларни бутун ижодида қаттиқ қоралайди. Бу нарсани унинг ғазал ва рубоийларида, машҳур «Ҳамса»сида ва ниҳоят «Маҳбубул-қулуб» номли фалсафий-дидактик асарида ҳам кўриш мумкин.

Алишер Навоий ҳақидаги ривоятларнинг тарихийлиги улардан аксариятининг реал ҳаётда юз берганлиги, уларнинг турли тарихий манбалар орқали халқ орасида кенг оммалашиши ҳам тасдиқлайди. Ана шундай тарихий манбалардан бири Хондамирнинг «Макоримул ахлоқ» асари ҳисобланади. Унда Алишер Навоий ҳаёти ва ижодига оид реал маълумотлар, хотиралар ҳамда эшитишган ҳабарлар анчагина. «Навоий ва Осафий» ҳақидаги ривоят бунинг ёрқин мисоли бўла олади.

Унда айтилишича, бир куни соф кўнгилли Амир феофат ва зарофат бобида замон шоирларининг пешқадами Хожа Осафийга насихат қилиш учун муборак тилини баёнга келтириб айтади:

-Мен хайрон бўламанки, ўткир зеҳнингиз ва баланд таъбингиз бўлатуриб, шеър айтиш билан кам шуғулланасиз, ҳамма вақтингизни фойдасиз ишларга сарф қиласиз.

У:

-Ҳозирги фурсатда борган сари кўпроқ шеър айтишга машғул бўлаётирман. Масалан, ўтган кеча икки пуллик шамъ ёниб битгунча икки юз байт айтдим, -деди.

Олий хазрат деди:

-Демак, у тизмаларнинг юз байти бир пул экан-да!

Мазкур ривоят ўзининг ўткир мазмуни, ижод кишиларининг ўз ишларига маъсулият билан қарашлари, шеърдек покиза гавҳарни зўрма-зўраки ёзмаслик, унинг реал воқелик таассуроти остида табиий туғилиши лозимлиги, ҳақиқий туғилган шеърнинг қимматини эса ҳеч нарса билан ўлчаб бўлмаслиги каби улкан ғояни ифодалаши билан диққатга сазовор. Унда нозик социал ҳажв йирик ибратомуз моҳият касб этган. Мана шунинг учун ҳам бу асар халқ орасида тез тарқалиб кенг вариантлашган. Демак, у халқ ўртасида аллақачон меморат доирасидан чиқиб, фабулат даражасига етган, яъни соф тарихий ривоятга айланган.

Хуллас, Алишер Навоий ҳақидаги ўзбек тарихий ривоятларининг манбаларида ва поэтик эволюциясини кузатиш натижалари бизнинг бу борадаги қуйидаги хулосалар чиқаришимизга олиб келди:

1. Халқимиз орасида улуғ шоир Алишер Навоий ҳақида хилма-хил ривоятлар кенг тарқалган. Бу асарларни тўплаб оммалаштириш ва ўрганиш билан шуғулланган кўпгина тадқиқотчилар (М.Афзалов, М.Муродов, Н.Абдуллаев, Н.Собиров, Н.Ахмедов ва бошқалар) уларни «афсона», «ҳикоят», «нақл» каби атамалар билан номлашган. Бизнингча, аниқ тарихий шахс–Навоий тўғрисидаги оғзаки ҳикояларнинг ғайриоддий муболағали тасвирий воситалар, фантастик талқинлардан ҳоли бўлгани учун ўзбек халқ прозасининг тарихий ривоят жанрига мансуб деб ҳисоблаш зарур.

2. Алишер Навоий ҳақида халқ тарихий ривоятларининг пайдо бўлишига асос, биринчи манба бевосита шоирнинг ҳаёт йўли, ҳақиқатан ҳам, унинг бошидан кечирган воқеаларидир. Шоирни кўрган, билган унинг дилбар суҳбатидан баҳраманд бўлган кишиларнинг мароқли ҳикоялари аста-секин ривоятларга айланиб кетган. Навоий тўғрисидаги халқ ривоятларида бадиийлик билан тарихийлик уйғунлашиб кетган. Ривоятлар сюжетнинг тузилишига асос бўлган айрим воқеалар тасвири шоир ҳаётлик вақтидаёқ яратилган тарихий-бадиий манбалар талқини билан ҳамоҳангдир. Навоий билан Султон Ҳусайн, Навоий билан вазирлар, Навоий билан Биноий ўртасида бўлиб ўтган бахслар аслида қандай бўлса, ривоятларда ҳам шундайлигича тасвирланган. Замирида тарихий ҳақиқат учқунлари яширинган оғзаки ҳикояларни поэтик табиати ва жанр белгиларига кўра ривоят деб аташ мақсадга мувофиқдир.

3. Навоий ҳақидаги халқ ривоятларининг яратилишига асос бўлган иккинчи манба анъанавий халқ ижоди материалларидир. Тарихий ривоятларнинг дастлабки типлари шоир ҳаётлик вақтидаёқ яратилган ва Хондамир, Восифий, Али Сафий каби муаллифларнинг асарларига киритилган. Шоир ҳаётида бўлган воқеаларни бўрттириб тасвирлаш, шунингдек, азалдан халқ орасида айтилиб юрган эртак ва нақлларнинг айрим мавзуларини Навоий номи билан боғлаб талқин қилишдан янги ривоятлар яратилган. Бу ҳикоялар аста-секин халқ севган ривоятларга, Навоий эса тарихий сиймодан бадиий образга айланиб кетган. Халқ оғзаки ижоди анъаналари асосида асрлар давомида такомиллашиб бадиий жиҳатдан сайқалланиб келган ривоятларда Навоий идеал қаҳрамон, донолик ва адолат тимсоли сифатидаталқин қилинади.

Алишер Навоий ҳақидаги тарихий ривоятлар тарқалиш ареалига кўра қуйидаги тўрт гуруҳга: ўзбек, туркман, форс-тожик ва шунингдек, ўзбек-туркман-тожик фольклори учун муштарак бўлган туркман ривоятларига бўлинади. Улуғ аллома тўғрисидаги халқ тарихий ривоятларининг пайдо бўлиши ва поэтик тараққиётини ўрганиш қуйидаги масалаларни қамраб олганлигини алоҳида таъкидлаш зарур:

а) Алишер Навоий номи билан боғлиқ халқ ривоятларининг манбалари, етакчи сюжетлар таснифи ва типларини аниқлаш;

б) Алишер Навоий тўғрисидаги ривоятларнинг образлар системаси ғоявий-бадиий хусусиятлари поэтик қурилиши ва семантик тузилишининг тарихий фольклорий жараёни эволюцияси натижасида ўзгариб боришини асослаб бериш;

в) Алишер Навоий ҳақидаги ўзбек, туркман, форс-тожик ривоятларининг пайдо бўлиши ва такомиллашувида анъанавий фольклор намуналари – афсона, эртак, нақл, латифа, лоф, кулгу-ҳикояларнинг ўрни ва ролини белгилаш;

г) Алишер Навоий ҳақидаги адабий-бадиий манбаларда келтирилган ҳикоялар билан халқ ривоятларини қиёсий таҳлил қилиш орқали шоир образининг бадиий такомилини аниқлаш ва бошқалар. Албатта, ушбу масалаларнинг ҳар бирини алоҳида-алоҳида, илмий маърифий, ижтимоий-сиёсий жиҳатдан бугунги мустақиллик мафкураси талаблари асосида жиддий ўрганиш, қолаверса,

улуғ аллома ҳақидаги ривоятларнинг сюжетини қиёсий-типологик йўсинда махсус тадқиқ қилиш галдаги муҳим тадқиқотлар объекти бўлиб қолишига шубҳа йўқ.

FOLK SONG ACCOMMODATION AND ITS MEANING OF LEE UN-YEONG GASA(歌辭)

Yang, Jung-hwa (Sungkyunkwan Univ, Korea)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look around the discourse aspect and its meaning of the text, centering on the aspect related with the folksongs accommodated in Lee Un-yeong(李運永: 1722~1794)'s Gasa created in the 18th century. In the 18th century the expression aspect of affectivity discourse like 'affection(情)' geared with text-centered enjoyment practice and various genres came to negotiate. It is noteworthy that each text functioned as cultural discourse entity and led the mass culture discourse of the day. Each text as well as the socio-cultural communication aspect between genres extensively visited the enjoyment cultural areas and contributed much to widen the cultural span.

The six works of Lee Un-yeong mentioned in this treatise are Gasa included in『Eonsa(諺詞)』 that are <Chakjeongga(鑿井歌; digging well song)>, <Sunchangga(淳昌歌)>, <Surojocheonhaengseongok (水路朝天行船曲)>, <Chohonsa(招魂詞)>, <Sejanga(說場歌)> and <Yimcheonbyeolgok (林川別曲)>. Noting that the discourse domain of 18th century Lee Un-yeong Gasa expanded on the basis of these works, we will look around the socio-cultural basis where Yeohang-sijeong(civil town) discourse was possible. Concretely, we will look around how the folksong emotion is formalized through Lee's work text and what are the discourse characteristics. It is a work to analyse how natural eruption of human temperament and pursuit of human nature is realized in Lee Un-yeong's Gasa works, who were from calpital Seoul official family.

The various aspects exposed in the 18th century Lee's Gasa works centered on the Yeohang-sijeong(civil town) space that was a specific cultural space, and exposed various discourse strata. The changing aspect of Gasa(歌辭) genre and various expression aesthetics is exposed. His works express Yeohang-sijeong(civil town) discourse and will be a cornerstone to elucidate the other genre accommodation aspect of the Gasa genre that is folklores to become Gasas. The Gasa genre that started from the upper cultural circle accommodated the Yeohang-sijeong(civil town) cultural discourse and flexibly included nearby genres and expanded the span of the genre management. This shall be a chance to understand the dynamic side of 'Gasa' genre to secure popularity and seek pr

이운영 가사의 민요 수용과 그 의미

본 연구의 목적은 18세기에 창작된 이운영(李運永:1722~1794)의 가사에 수용된 민요와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텍스트의 담론 양상과 그 의미를 살피는 데 있다. 18세기에 이르면 '정(情)'을 위시한 정감담론의 표현 양상이 텍스트 중심의 향유 관행과 맞물려 다양한 장르가 교섭하게 되었다. 이때, 각각의 텍스트는 문화담론체로서 기능하며 텍스트가 실현되는 환경에 따라 당대의 대중문화담론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필요로 한다. 각각의 텍스트는 물론이거니와 장르 간의 사회문화적 소통 양상은 향유문화권을 폭넓게 넘나들며 문화적 편폭을 넓히는데 많은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8]

18세기를 전후하여 발견한 자유분방하고 천진스러운 감성의 가치는 도시적 유흥풍의 풍류를 다채롭게 하는 뒷받침이 되었다. 이를테면, 당대 중간층의 시인 김천택과 김수장 등이 유흥풍의 양식을 직접 창작하거나 향유하며 만횡청류를 가집에 넣은 것도 그러한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도시적 유흥풍의 기류는 자연스럽게 가사작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유흥풍의 분위기를 담은 애정가사가 창작되었으며, 그 정도가 지나친 도시적 일탈군상들을 계도[9]하려는 작품 양상이 출현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이 시기는 경화사족층을 중심으로 우리의 민족어로 된 노래, 즉 시조나 가사, 민요 등과 같은 국문시가의 가치에 대한 인식과 그에 관한 가치를 발견하려는 일련의 노력이 뒤따르던 시기였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이전 시기와는 달리 가사 장르가 다양한 문화권으로 수용되며 폭넓은 향유층을 확보했다는 말이다.

이운영의 가사 작품은 가사 장르의 변화상이나 다양한 표현 미학이 드러나며 여항-시정문화를

---

[8] 양정화,「18세기 유배가사와 시조의 사회문화적 소통 양상-『만언사』와 '만횡청류'의 비교를 중심으로」, 시조학논총 제 49집, 한국시조학회, 2018.

[9] 김학성,「서민가사의 담론 기반과 미학적 특성」, 『한국 시가의 담론과 미학』, 2004, 190~191쪽.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가사 장르의 타 장르 수용 양상, 즉 민요의 '가사화' 해명까지도 밝힐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조선후기 가사 장르의 변화(가사가 지닌 대중 지향적 성격)에 대한 이해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담론 연구의 필요성- 가사의 타 장르 수용과 관련하여

본고에서 다루려는 옥국재 이운영은 당대 저잣거리에서 흔히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 소재를 '가사'라는 장르를 통해 적극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애초에 사대부문화권에서 주로 창작·향유함으로써 성리학적 세계관을 드러내기에 용이했던 가사 장르가, 당대에 부각된 인간본성의 추구라는 사회-문화적 분위기 및 가치관과 맞물려 문학의 세속화 경향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이러한 면모는 이운영의 가사 작품에 서민 취향이나 일상적 구어체의 정감담론의 형태로 반영되어 있다.

그의 가사 작품은 동일한 언어공동체에 기반한 민요방식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작품을 생산하는 방식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이를 담론 층위에서 분석하는 작업은 '가사'라는 장르가 역사적으로 사회문화적 기류를 얼마나 유연하게 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단서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인접 장르(민요)로까지 그 수용의 폭을 확대·확장함으로써 폭넓은 향유층(대중 지향성)을 확보하면서 구축한 미적 세련성까지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운영의 가사 작품이 주목을 받아온 것은 그의 작품세계가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작품에 대한 구조나 서술 양상, 서민적 어법이나 서민적 취향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작품은 신분계층에 한정하여 작품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 경향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예컨대, <임천별곡>과 같은 작품을 서민계층과 사대부계층 간의 대립적인 관계로 파악하여 이해한 연구[10]도 있었다. 이는 18세기를 전후하여 여항-시정 문화가 형성되는 문화담론을 중심으로, 텍스트의 담론화 양상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방법론적 시각이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항-시정의 저잣거리에서 소재를 취해서 텍스트화된 당대 작품들은 신분과 계급을 초월하여 향유되었기에, 텍스트에 투영된 의식이나 사고, 어법 등을 토대로 그 작자의 신분계층을 추정한다는 것은 판단의 오류를 가져올 가능성이 클 수밖에 있다. 즉 텍스트의 표면적(표현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계층성을 파악하는 일은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당대에 산출된(창작·유통·소비) 여항-시정문화 담론과 연관된 일련의 가사 작품을 타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접근법을 마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여항-시정가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텍스트에 표현된 언어를 단어의 의미 차원이나 순수하게 발화상황과 관련시키는 화용론적 층위의 '담화'차원이 아닌 사회문화적 실천 층위의 '담론'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담론 연구에서는 언어가 순수하게 사회적, 제도적, 이데올로기적 맥락을 내재하지 않은 채로 소통되지는 않으며 항상 이러한 맥락들의 개입 속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즉, 담론들이 형성되는 제도와 사회적 실천의 종류에 의해,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과 그들이 말을 하는 상대의 위치(position)에 따라 모습을 달리 한다는 것[11]이다. 또한 다른 담론은 다른 체계를 형성하는데, 이때 의미의 가능성은 담론이 만들어지는 사회적·제도적 위치에 의해 고정되고 명확한 의미가 되며 말, 표현, 명제 등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위치에 따라 그 의미를 달리하게 되는 것[12]이다.

따라서 18세기 이운영의 가사 작품에서 드러나는 담론 층위를 살피려면, 담론을 어떤 사상(事象)을 의미하는 '언어'와 대비되는 하나의 '행위' 개념으로 받아들여, 의미를 만들고 재생산하는 사회적 과정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담론에 참여하는 개인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실천하게 만드는 '실천의 양태'와 '실천을 강제하는 규칙'이란 개념으로 담론을 이해하면 18세기 이운영의 가사 작품들이 생성되고 향유된 맥락 위에서 그 의미의 다양화와 역동적인 기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1) 연구방법

본고에서 다루려는 이운영의 작품은 『언사(諺詞)』에 수록된 가사 <착정가(鑿井歌)>, <순창가(淳昌歌)>, <수로조천행선곡(水路朝天行船曲)>, <초혼사(招魂詞)>, <세장가(說場歌)>, <임천별곡(林川別曲)> 등 여섯 작품[13]이다. 이 작품들을 토대로 18세기 이운영 가사의 담론 영역이 확장되었음에 주목하여, 여항-시정 담론이 가능했던 사회-문화적 기반을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이운영의 작품 텍스트를 통해 민요적 정서가 어떠한 방식으로 형상화되고, 그 담론 특성은 무엇인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인간 성정의 자연스러운 분출 내지는 인간본성의 추구가 경화사족이었던 이운영의

---

10 고순희,「인유와해학의미학」,『이화어문논집』제15집, 이화어문학회; 1997김희정,「옥국재 이운영 가사의 서사적 성격 연구- <임천별곡>, <순창가>, <착정가>를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승복,「<임천별곡>의 창작 배경과 갈등의 성격」,『고전문학과 교육』 제18집,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09.

11 다이안 맥도넬(임상훈 역),『담론이란 무엇인가』, 한울, 2002, 14쪽.

12 같은 책, 26쪽.

13「언사」에 소재한 이운영의 가사는 소재영에 의해 학계에 소개되었다(소재영,「諺詞」研究,『민족문화연구』 제21집,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가사작품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고 가능하였는지를 분석해 나가는 작업이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사의 담론화(談論化)는 가사 장르가 지닌 양식적 본질을 기반으로 하면서 다양한 사회문화적 실천행위로 구체화된다는 점에 주목하여 가사의 장르적 특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가사 장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18세기 이운영의 가사 작품이 생성된 창작기반과 텍스트 내적 담화방식에 의한 담론의 구체적 실상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문학은 언어를 표현수단으로 하여 각 시대의 사회문화적 상황과 변화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형성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는 구체적 '실현태'로 텍스트에 존재하는 담화방식과 그러한 담화가 가능했던 사회적, 문화적, 제도적, 이념적 측면이 어떠한 방식으로 맞물려 담론화했었지를 살펴봄으로써, 18세기 가사의 특징적인 면모(가사 장르의 대중 지향적 성격)를 파악할 수 있음을 방증한다.

연구의 진행 과정을 간략하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가사 장르와 18세기 이운영 가사의 특징 검토
대상 작품의 분석방법 제시
대상 작품의 기본 서지사항과 창작 배경 검토
18세기 이운영 가사 작품의 유형 분류 시도

⇩⇩⇩

②텍스트의 담론 기반 연구
서술 대상에 따른 담론화 분석
텍스트의 서술 특성에 따른 담론 파악
민요와 가사의 비교 분석 시도
여항-시정문화 공간의 향유 기반과 상호텍스트성 탐색

2) 연구내용

이운영의 가사 작품은 경화사족층이 주도한 천기론과 민족어문학론에 힘입어 여항-시정의 일상어를 주로 구사하여 인간의 본성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있다. 그는 '가사'라는 장르를 통해 우리말 문체로 토속화된 '정(情)'의 진정성, 즉 보편적 정서에 기댄 대중 취향적 문화담론을 이끌었다. 이는 가사 장르의 대중 지향적 성격에 대한 이해는 물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가사 장르의 역동적인 시각과 그 문학사적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단서가 된다.

이운영은 여항간에 떠도는 풍류가객들의 이야기들과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모아 <영미편(潁尾編)>이란 잡기류의 책을 2권 펴내기도 하였다.[14] 상여 노래를 끌어와 임진왜란 때 죽은 칠백의총의 혼을 달래는 <초혼사>, 민간의 뱃노래를 끌어와 명나라 사행길을 상상적으로 서술한 <수로조천행선곡>, 아이를 어를 때 부르는 민요를 끌어와 <세장가>를 짓기도 하였고, 서울의 서대문 지역에 새로 판 우물에 얽힌 서민들의 생활을 읊은 <착정가> 등 여항-시정 공간의 서민 정취를 담은 작품을 지었다. 특히 여항-시정의 문화담론을 여실히 드러내는 작품 가운데 세속화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임천별곡>은 81세의 서민 할머니와 70세의 양반 할아범과의 사랑 싸움의 우스개 일화를 다루어 사대부 작가인 이운영이 '속(俗)'의 미학-특히 해학미-의 절정을 보여준 것으로 이해[15]되어 왔다.

하지만 "작자의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는 서민을 해코지하는 양반 할아범의 행위를 풍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늙은이들 사이에 있었던 하룻밤에 일어난 재미난 사건을 해학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다고 보여진다. 사건의 해학적 표출을 위해 해학과 풍자를 즐긴다"[16]라고 하여 해학과 함께 '풍자'와의 관련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풍자와는 무관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허세를 부리는 양반 할아범의 행위를 풍자로 이해하기에는 그가 너무나 늙은 약자이기 때문에 연민 어린 따스한 시선이 느껴질 뿐 약자의 위치에 있는 인물에 대한 싸늘한 시선의 풍자를 느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17] 여기서 인간의 본성을 자연스럽게 추구하며 서민의 어법으로 서술한 <임천별곡>은 노년의 웃음거리로 한가함을 달래기 위해 지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처럼 여항-시정 담론에 익숙한 경화사족층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향유하는 '세속화 경향'을 보였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여항간의 담론을 기반으로 세속화된 '볼 거리'로서 향유했을 것이며, 훈계하기보다는 단순히 텍스트를 즐기고자 하는 '재미'나 '흥미'가 중심을 이루게 된 것에 가깝다. 할멈과 할아범의

14 고순희, 앞의 논문,353~362쪽.

15 김학성, 앞의 논문, 202~203쪽.

16 고순희, 앞의 논문, 381쪽.

17 김학성, 앞의 논문, 203쪽.

'대화'라는, 사실적이고 흥미로운 서술기법을 활용하여 조선조 후기 가사의 서술미학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요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작품의 서술 표현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인접 장르인 민요에까지 그 관심과 수용의 폭을 넓히고 있다는 점에서 이운영의 가사 작품들은 담론 차원에서의 분석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4.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방안(전망)

18세기 이운영의 가사 작품들에서 드러나는 다채로운 양상은 여항-시정 공간이라는 특수한 문화적 공간을 중심으로 여항-시정의 다양한 담론 층위를 드러낸다. 가사 장르의 변화상이나 다양한 표현 미학이 드러나며 여항-시정문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여항-시정 담론을 담아내어, 그의 작품은 가사 장르의 타 장르 수용 양상, 즉 민요의 '가사화' 해명까지도 밝힐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상층문화권에서 출발한 가사 장르는 여항시정의 문화담론을 수용하면서 인접 장르까지 포용하는 유연성을 발휘하여 장르 운용의 폭을 넓혀 나아갔다. 이는 '가사' 장르에 대한 역동적인 측면, 즉 대중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사의 장르적 성격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그 현재적 가능성까지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화론적 접근방법으로서의 담론 분석에 의한 작품 해석은 해당 작품이 생성·향유되었던 시·공간의 사회적, 문화적, 이념적, 제도적 특성과 결부하여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곧 개별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시각을 넓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기 때문이다. 즉 경화사족의 일원인 이운영이 '가사'라는 장르에 기대어 우리말 문체로 토속화된 '정(情)'의 진정성, 즉 보편적 정서에 기댄 대중 취향적 문화담론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가사 장르의 대중 지향적 성격에 대한 이해를 마련해줄 것이다. 더불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가사 장르의 역동적인 시각-해마다 열리는 담양지역의 '가사창작제' 등-과 그 문학사적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КУВАЙТ АДИБИ СУЛАЙМОН ШОТИЙ АСАРЛАРИДА ТАСВИРЛАНИШИ

ф.ф.н., Аҳмедова Ш., ТДШИ

Annotation. This article notes that the Persian Gulf (Khaleej in Arabic) has its political, economic importance at the international political level since ancient times, and its geographical location is also of strategic importance. It is also a trade route linking East and West, a branch of the Great Silk Road that stretches along the Persian Gulf and serves as a trade route on the shores of Arab countries. On the one hand, it is devoted to the ships passing through the Gulf, and on the other hand, a camel caravan loaded with goods on a deserted road adjacent to the shore. The article also shows that SuleymanShotiy, a brilliant representative of Kuwaiti literature from the Arabian Gulf countries, associated images in his works, primarily, with wildlife, a camel, a bay and the coastal world, which found their artistic expression in the stories "Rudder", "News", "Inner Feeling" and "Camel."

Keywords: Great Silk Road, the Persian Gulf, Suleiman Shotiy, Kuwait, desert, sea, "Camel", east and west, national values, trade road.

Форс кўрфазининг ғарбий соҳилларида қатор араб давлатлари жойлашган бўлиб, уларШимолда Кувайтдан, жанубда то Уммонгача боради. Бу ерларда Кўрфаз Араб денгизини Ҳинд океани билан бирлаштиради.

Бутун араб оламида аҳолиси иқтисодий ва моддий томондан яхши таъминланган, ривож топган мамлакатлардан бўлган Кувайт, Баҳрайн, Қатар, Уммон, Бирлашган Араб Амирлиги каби араб мамлакатлари Арабистон ярим оролида жойлашган бўлиб, соҳиллари Форс кўрфазидан чиқади. Шунинг учун мазкур давлатларни Форс кўрфази атрофида жойлашган араб мамлакатлари деб номлашади, лекин араблар бу номни тан олмасдан, "ал-Халиж (Кўрфаз)" мамлакатлари деб аташади.

Мазкур минтақа кўп қисмларга бўлинишга қарамай жуғрофий, диний ва тарихий бирликни ташкил қилади. Шунинг билан бирга уларнинг ҳаётида маънавий-маданий бирлик ҳам кузатилади.

Тадқиқотчилар ва олимлар мана шу яхлитликни яхши англаб ва утарихий ҳодиса сифатида ўзаро боғланган яхлитлик эканини тушуниб унга **"маданий кўл"** номини беришган.

Сиёсий, жуғрофий томондан Халиж қадимдан халқаро сиёсий, иқтисодий мезонда катта аҳамиятга эга бўлиб келган. Унинг жўғрофий нуктаи назардан жойлашиши стратегик аҳамиятга эга, чунки у Шарқ ва Ғарбни боғловчи савдо йўли бўлиб келган. Биз бу тўғрисида, замонавий Кўрфаз адиблари ижодида кўп маълумотларни кузатганмиз.

Халиж араб мамлакатларидан бири бўлган Кувайт адабиётининг ёрқин намояндаси Сулаймон Шотийасарларининг образлар дунёси ҳам бой ва кўп маънолидир. Улар, энг аввало, саҳро,туя, денгиз ва соҳилбўйи дунёси билан боғлиқ ҳаётнинг бадиий ифодасидир.

Унинг ёзиш маҳорати ўнга яқин ҳикоялар тўпламларида намоён бўлди, булар , Рул (دقة) (1962) "Бўғиқ овоз"(**الاصوت الخافت**) (1970) , "Юқори мартабага эришган одам"(دجل الرف العالى) (1982) ва "Мен ...бошқа" (1995) (انا الاخر) каби ҳикоялар тўпламидир.

Сулаймон Шотий замонавий Кувайт ҳикоянависларининг иккинчи авлодидир. У адабиётга 70-йилларда кириб келди ва ўзининг кувайтликлар ҳаётининг турли жабҳаларини тасвирловчи реалистик ҳикоялари билан тезда танилди. Сулаймон Шотий туғма истеъдод эгаси бўлгани учун унинг ҳикоялари бошидан анча сайқалланган, конкретлашган бўлиб яратилди. Ёзувчининг бадиий маҳорати замон ўзгаришларини илғаб олишда ва нозик дид билан асарда ғоявий-эстетикмақсадга кўра ифода этишда билинди. Унинг дастлабкиёзилган ҳикояси "Рул" (دقة)деб номланиб, 1962 йили "Савт Халиж" журналида нашр қилинди. Бу ҳикоя истеъдодли ҳикоянавис дунёга келганлиги тўғрисида башорат қилган эди. "Рул" ҳикояси юк ташийдиган кемада сузувчи денгизчиларнинг меҳнатини тасвирлайди. Бўронда қолган кема туғён ураётган тўлқинлар орасидан келаётганда туби қояга тегиб тешилади ва сув киришини тўхтатиш мақсадида кемадаги денгизчилар жасурона курашиб бир амаллаб тешикни ёпишади. Бу 20 соатлик курашда рул бир одам қўлида - ёш йигит Абу Аҳмадда қолиб кетади. Бир қадам ҳам рулдан силжимаган ва уни қўлдан қўймаган Абу Аҳмад бор кучини кемани бошқаришга қаратиб, охири совуқда қотиб қолади ва вафот этади. Денгиз навбатдаги қурбони жасадини ютади. Ўша кеманинг денгизчилари бошқалар учун жонини фидо қилган дўстларини доимо ёдга оладилар. Бу ҳикоя оддий денгизчилар хотирасига бағишланиб, уларнинг қаҳрамонона жасоратини тараннум этади.

Денгиз кувайтликларга балиқ, марварид ва бошқа тирикчиликка ярайдиган неъматлар берган, аммо қанча-қанча умрларга завол ҳам бўлган. Денгиз соҳилида яшаш ҳам осон бўлмаган. Энг катта муаммо бу ичиш учун сувнинг йўқлиги. Ичимлик сувини Халиж орқали бошқа жойлардан кемаларда етказишади.

Баъзида кемалар ҳалокатга учраб, юкидан мосуво бўлишади, соҳилдагилар сувсиз қолади. Мана шу муаммо Сулаймон Шотийнинг "Янгилик" ҳикоясида юз берган. Соҳилда жойлашган қишлоқдаги одамлар умид билан денгизга тикилишмоқда, узоқдан сув ортилган елканли кема яқинлашмоқда. Аммо кема сув остидаги қояга урилиб, ағдарилади. Сувли идишлар қулаб тушиб чўкади. Одамларнинг умиди сўнади. Ёзувчи персонажларни нутқлари, ҳаракатлари, ўзаро муносабатлари орқали вазиятга худди моҳир рассомдек сўз билан чизиб чиқади. Бу ҳикоя орқали китобхонга ер юзида шундай жойлар борлиги, яъниунда бир қатра ичимлик сув қиймати бебаҳо эканлигиаён бўлади. Ҳикояни мутолаа қилган ўқувчи асар қаҳрамонлари билан биргаликда гўё ўзини сувга ташна бўлгандек ҳис қилади ва "олдингдан оққан сувни қадри йўқ" мақоли қанчалик халқ тажрибасиданкелиб чиққанини тушунади ва сувнинг қадри тўғрисида мулоҳаза қилади. Ҳикоя ниҳоясида ёзувчи умидга жой қолдиради - узоқдан сув ташувчи бошқа кема елканлари кўринади, бу янгилик қишлоқдагиларга янги умид бағишлайди.

Сулаймон Шотийнинг охирги иккита ҳикоялар тўплами орқали "Юқори мартабага эришган одам" ва "Мен ...бошқа" асарларидан Кувайт ҳикоянавислигида ва нафақат Кувайт, балкибутун араб ҳикоянавислигини кузатувчиси, Шотийни ўзи учун ўзига хос янги услуб яратганини кўради, бу услуб уни бошқа ҳикоянавислардан ажратиб туради. Унинг услуби анча мураккаб бўлиб у ҳикоянависликда янги шаклларни қўллади. У таянган асосий ёзиш техникаси бу ёзувчини ҳозирдан ўтмиш майдонига кириб бориши ва бу ҳозирги давр ўшаўтмиш сирларини очишга калит бўлиб хизмат қилади. Ҳозирги кун (давр) унда чегарланган ҳикояни бир лавҳасини ташкил қилади ва ўтмишга қаратилиб эсдаликларга йўл очади.Ёзувчи фрагментарлик ва ассоциатив боғлаш усуллари техникасини ишлатиб, ҳозирги кундаги баъзи вазиятларга жуда қисқа тўхтаб ўтмиш билан боғлиқ асарнинг мақсадини очиб беришга ҳаракат қилади.

Масалан, адибнинг "Мен...бошқа" (انا الاخر) ҳикоялар тўпламиниолсак, бу ерда ҳам шубҳасиз ўша техникани кўрамиз. Мазкур тўпламдан ўрин олган "Туя" (جمل) номли ҳикояда ҳозирги бўлаётган вазиятда бемор отанинг муолажаси учун туя сути даво сифатида таъкидланади, аммо ота негадир туя билан она туяни олибкелишга кескин норози бўлади. Туя билан боғлиқ образ, отанинг эсдаликларини очиб беради ва ҳикояни бутун сатҳини эгаллайди.

Сулаймон Шотийнинг"Туя" ҳикоясида икки макон кўринишини -саҳро ва денгиз муҳитиникузатса бўлади. Ҳикояда ота саҳрони эслайди, бу хотиралар унинг юрагига жуда яқин ва азиздир. Чунки, саҳрода катта бўлгани учун ўша муҳитни яхши билади. Ҳикоя қилувчи ота саҳронинг ошиғи эканлиги, у тўғрисидасўзлаётганида ҳаяжонланиб, жунбушга келишида билинади. Ёзувчи диёри аҳолисини ўтмишдаги ҳаёти тўғрисида шундай дейди:

"*Халижлик инсон ҳаёти мобайнида, саҳро билан курашади. Денгиз Халижлик учун кўпроқ саҳро машаққатларидан ҳоли қилувчи макон, лекин денгиз ҳам хавфсизмакон эмас. Дарҳақиқат, Халижлик*

инсон сув ва саҳро орасида анча машаққатли драматик ҳолатда яшаган бўлиб,бу икки олам билануларнинг ҳаёти ва мамоти масаласи боғланган. Аммо саҳрода ўлим топиш очиқроқ ва сукунатда ўтади. Денгиз билан эса, алоқаси билим ва ҳаракатга асосланган эди."[Сулаймон Шотий: 92-93]

Шундай қилиб, Сулаймон Шотий учун саҳро хавфли бўлса ҳам одатий табиий муҳит, унда ҳамма нарса аёндир. Лекин ёзувчи шаҳарга нисбатан бошқача фикрда.

Сулаймон Шотийнинг мазкур "Туя" ҳикояси қаҳрамони – отада - шаҳарга нисбатан маъюслик аломатини кўрамиз. У шаҳарда кўп қадриятлар йўқолишини ва одамлар орасида тарқоқликни борлигини таъкидлайди, эркинлик чегараланишини, шаҳар одамларидабаракасизликни кўради (сайлов номзодлари қилмишлари, сафсатабозлик ва ҳ.к.).

"*Сенга айтсам, шаҳарда йиллаб низо тўс-тўполон бўлмайди, лекин у кенгайиб эриб бормоқда, шакли йўқолиб бир хиллик ҳукм сурмоқда*" [Сулаймон Шотий:95]

Умуман олганда Халиж адиблари шаҳар билан мураккаб муносабатда - бир томондан ундаги ўзгаришларни, кенгайишларни, безатилишларни кўриб ажабланадилар, иккинчи томондан унда кўп иллатларни кўришади ва қишлоқ ҳаётини, олдинги кунларни қўмсаб, хотираларга берилишади ва кўпинча бу нарса ретроспектива орқали ўз ифодасини топади.

Аммо буни романтик кайфият намойиши десак ҳам бўлади, чунки ўтмишдаги халижликни қишлоқдаги оғир ҳаётга ҳақиқатдан қайтиши, назаримизда ҳеч кимни ақлига келмайди. Эски саҳровий ҳаётга сиғиниш катта шаҳардаги рўй берадиган ёлғизлик, тарқоқлик ва бошқа шаҳарга хос иллатларга норозиликдан бошқа нарса эмас.

Хулоса қилиб шуни айтишимиз мумкинки, Халиж араб мамлакатлари ҳикоянавислиги шаклларининг янгиланиши, мавзулар доирасининг кенгайиши, саҳро, туя, денгиз ва соҳилбўйи дунёси билан боғлиқ образлар ва ифода воситаларининг изчиллашувида Сулаймон Шотий миллий ижтимоий ҳолатларнигина эмас, балки, умуминсоний қадриятлар асосида инсонни идрок этишда ўзига хос янги қарашлар олиб кираётганини кузатишимиз мумкин.

Адабиётлар:

1. Абдуллоҳ Аҳмад Шубат."Форс кўрфазидаги араб мамлакатлари адиблари"**.** Кувайт, 1986.
2. Иброҳим Абдуллоҳ Ғалум."Форс кўрфазидаги араб мамлакатларида қисқа ҳикоя. Кувайт ва Баҳрайн".Бағдод, 1981
3. Муҳаммад Ёсир Шараф."Форс кўрфазидаги араб мамлакатлари қисқа ҳикояси. Қироат"**.** Кувайт,1994
4. Сулаймон Шотий. "Мен ва бошқа". Ҳикоялар тўплами. Кувайт, 1995.

SIJO'S TRANSITION PHRASE EXPECTATION AND IMAGINARY ESTHETICS

Choi, han-sun (Jeonnam state univ. Korea).

This paper specific goal is investigate Sijo's(a kind of korean traditional poet form in Cho sun dynasty)form principle and purpose to creation, appreciate and understanding well to modern Sijo.

In generally speaking, korean traditional poetry's form have syngeneic number 3 and 6. for example, in the Shinar era Ten lines poem(10구체), Hyang ga's Three-Gu Six-Myeong(3구 6명) and Sijo's Three Jang Six Gu(3장 6구). I think, that granted, number 3 and 6 is very affinity in korean poetry form from old era to modern period.

So then, where is derive from the number 3 and 6 ? What is that number's meaning? What's imply to composition modern Sijo. I think that those the numbers are originated from Heaven-Earth-Man's 3 Jae(천지인 3재)and Ju yeok's (China classic book) 6 Hyo(6효). Ju yeok is organized 3 Jae, each Jae is organized 2 Hyo. Hyo symbolize two means, Yum(음) and Yang(양). Yum's meaning is earth, gentleness, benevolence, etc. Yang's meaning is heaven, sturdiness, righteousness, etc. so, Ju yeok, at last, is consisted of 6 Hyo called one Guae (괘). Among 6 Hyo the most important are the Second and the Fifth Hyo.

like this in Hyang ga and Sijo's the Fifth GU is very important. I call the Fifth GU transition or change phrase. that's role is change in deployed contents and thoughts, forewarning finish, etc. In the manner now described number 3 and 6, since the dawn korean poem, time-honored two elements in composition poetry.

now, I make a submission that in composition of modern Sijo, emphasize on the Second and the Fifth phrase. in this case poet writer arrange the opposite word in thoughts and meaning. Because of Sijo's

titillation depend on incongruity the Second and the Fifth phrase. especillay the Fifth phrase role change so-called turning point. so that is not exaggeration Sijo's beauty rely on the Fifth phrase's angle and bulk. Readers listening to Sijo will have an expectation of how we finish the ceremony in the past. In other words, readers are interested in the first word of finishing.

In conclusion, in the creation of modern Sijo, the larger the angle of change, impression and resonance are great between the Second and the Fifth phrase.

시조 전곡어轉曲語의 기대지평과 상상의 미학

이글은 시조 형식의 형성 구명과 시조 창작에 도움을 주기 위한 의도로 작성되었는데 이는 「주역」 大成卦의 6爻가 天·地·人 삼재三才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두 번째와 다섯 번째 爻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그런 생각의 근저에는 「주역」의 3才 6爻와 시조의 3章 6句와의 관련성이 있을 것 같다는 추측 때문이었다. 3과 6의 숫자는 우리 시가사의 어떤 원형과 관련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바, 10행 향가의 경우 3句와 6名으로 구성된다는 점으로 곧 10行 향가의 경우 4行이 두 번 앞에 오고, 차사嗟辭가 중간에 온 다음, 마지막 2行으로 마무리 되는, 이른바 처음-중간-나중의 3단 형식이다.

또한 '차사'는 앞의 4행과 다음 4행에서 전제된 시상을 미약하게나마 轉換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시의 마무리를 豫告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行이 합해지면 하나의 명名이 되는데 차사의 경우 한 단어가 2行의 몫을 하여 결국 여섯 개의 명名이 10행의 향가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완성기 10행의 향가에서 보듯 3과 6은 우리 시가사의 원형적 시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시조의 3장 6구 또한 이런 원형적인 것의 후대적 변용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특히 시조의 3장 6구 가운데 종장의 첫 음보(첫 마디)인 3과 「주역」 대성괘 6개 효 중 다섯 번째 효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시조의 경우에는 그 것이 앞의 초장과 중장을 잇거나, 그렇지 않으면서 전환轉換에 따른 기대의 지평과 상상을 통한 창조적 미감 세계를 열어주는 반면, 「주역」 대성괘 6효의 경우에는 예측의 정확성을 높여 준다는 점이 서로 상이하다. 이는 한시 작법인 기-승-전-결의 구성에서 전轉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역할이 매우 크다는 사실과도 무관치 않다.

2. 한국 시가와 숫자 3과 6

1) 향가의 3句 6名

한국 시가에서 숫자 3과 6은 매우 친숙하면서 오랜 역사를 가진다. 3과 6의 숫자가 시가와 관련하여 첫 선을 보인 것은 「균여전」의 第七 <가행화세분 歌行化世分>에 나오는 "시구당사마탁어오언칠자(詩構唐辭磨琢於五言七字)가배향어절차어삼구육명(字歌排鄕語切磋於三句六名)"이다. 여기 나오는 3구와 6명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있어 왔으나 정기호 교수 등에 따르면, 3구 6명은 10행시에 한정하여 3句-嗟辭-전·후절을 지닌 사뇌형 시형을 말하며, 이는 곧 한국 시가의 원형이라는 것이다. (화경고전문학연구회편, 「향가문학연구」, 일지사, 1993, 44-45면)

다시 말해서 10행의 향가는 3구로 구성되며 각 구는 다시 전·후 절로 분할할 수 있으며, 각 절의 2행씩을 1명名이라 한다는 것이다. (정기호, 위의 책, 같은 곳)

이렇게 볼 때 10행의 향가는 1행-4행: 1句/ 5행-8행: 1句/(嗟辭)/ 9행-10행: 1句/ 등의 3개 句로 구성된 형식이 된다. 또한 1행-2행: 1名/ 3행-4행: 1名/ 5행-6행: 1名/ 7행-8행: 1名/ 嗟辭: 1名/ 9행-10행: 1名/등 6개 名의 구성을 가진다.

결국, 향가에서 말하는 3句 6名은 가형歌型의 형식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는데 (정기호, 앞의 책, 43면) 여기서 주목 되는 것은 '嗟辭'를 한 개의 명名으로 보면서 그 존재 가치를 중요하게 본 것이다. 여기에서 嗟辭의 역할과 전체 시상과의 관계는 주목을 요한다.

2) 시조의 3章 6句

시조는 초장, 중장, 종장의 3章 형식을 가지며, 각 장은 2句로 구성되므로 시조 전체는 6구로 구성된 정형시다. 이러한 시조에 대해 김학성 교수는 시조는 초장, 중장의 반복과 종장의 첫 음보에서 전환轉換의 미적 구조를 최대한 살리는 3章의 완결구조로 이루어졌다고 했다.(김학성, 「현대시조의 이론과 비평」, 보고사, 2015, 278-280면.)

이는 달리, 시조는 3章의 형식을 가지며 각 장은 두 句로 구성된, 전체 6句의 정형시라는 말이다. 그런데 종장은 바로 시상의 결론으로 내달리지 않고, 맨 앞 음보에 3음절 한 마디로 전환轉換이라는 미적 장치를 두고 있음에 주목을 요한다.

3) 「주역」 대성괘의 괘상卦象과 3才 6爻

「주역」의 64개 괘들은 天, 地, 人을 상징하는 3劃으로 구성된다. 이 3劃을 두 개 겹쳐 6개 획으로 64괘를 만드는데, 이 6개 劃을 달리 6爻라 부른다. 이때 64괘를 이루는 6개 爻는 각기 2개씩 묶여져 천, 지, 인의 삼재三才를 상징한다.(김상섭, 「내 눈으로 읽은 주역」 (역전·하), 지호, 2011, 928-929면.)

대성괘의 6개 효는 처음(初), 셋째(三), 다섯째(五)는 陽의 자리요, 둘째(二), 넷째(四), 꼭대기(上)은 陰의 자리다. 이는 달리 하늘의 도를 세워 음陰과 양陽이라 하고, 땅의 도를 세워 유柔와 강剛이라 하며, 사람의 도를 세워 인仁과 의義라 한다는 <說卦傳> (제2장)의 말과 통한다. 다시 말해서 한 괘를 이루는 6개의 효는

음·양의 天, 유·강의 地, 인·의의 人의 의미를 상징한다다. 이처럼 6효는 그 자체 음·양, 강·유, 인·의의 속성을 지님과 동시에 그 位置하는 자리(位)에 따라 성격이 크게 변하며 의미도 달라진다.

다시 말해서 양(-) 효는 구九·양陽·강剛, 음(--) 효는 육六, 음陰, 유柔의 속성 외에도, 초 初, 삼三, 오五의 자리는 양위陽位로서 기수奇數를, 이二, 사四, 상上의 자리는 음위陰位로서 우수偶數를 상징한다. 이런 6개의 효들은 위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의미와 기능(德)을 가진다. 이제 6개의 효와 시조 6구와의 관계를 살피기 위하여 6효의 구성 몇 예를 들기로 한다.

㉠ 정正과 부정不正

陽爻가 陽位(양효:-가 1,3,5의 위치에 옴)에 오거나 陰爻가 陰位(음효:--가 2,4,6의 위치에 옴)에 오면, 제자리를 얻었다 하여 정正이라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부정不正이라 하여 좋지 못하게 여긴다. 좋지 못하다는 것은 길흉뿐만 아니라 능력이나 기능 곧 德이 많지 많다는 뜻인데 이를 시조의 경우에 대입해보면, 감흥이나 긴장감 등이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6개 효의 배열은 어쩌면 한시나 시조 등에서 말하는 리듬 생성 방법을 말함과 동시에 의미 창출의 모티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송순의 시조 "풍상이 섞어친 날에(1)/ 갓피온 황국화를(2)// 금분에 가득 담아(3)/ 옥당에 보내오니(4)// 도리야 꽃이온 냥 말아라(5)/ 님의 뜻을 알괘라(6)//"에서 풍상이 섞어친 날에(1)와 금분에 가득 담아(3) 도리야 꽃이온 냥 말아라(5)는 각기 다른 성향을 지닌 것으로 제 자리를 얻었으므로 正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갓피온 황국화를(2), 옥당에 보내오니(4), 님의 뜻을 알괘라(6)는 그 성격이나 성향이 相似하므로 제 자리를 얻지 못했다. 따라서 이 대목은 不正이다.

㉡ 중中과 부중不中

6개 효는 아래서부터 3개를 內卦(下卦), 다른 3개를 外卦(上卦)라 하는데 이 때는 아래서부터 두 번째 효인 二와 다섯 번째인 五의 효를 귀하게 여긴다. 곧 아래서부터 두 번째 2와 다섯 번째 5의 효에 주목하는 바, 二가 우수(음위)이거나 五가 기수(양위)이면, 중中이라 하여 매우 좋게 여긴다. 그렇지 못하면 부중不中이라 하여 좋지 못하게 여긴다. 효의 자리 배치에있어 앞서 말한 정正과 여기서 말하는 중中을 얻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게 여긴다. 이는 시조 창작에서 참고할만한 귀한 선례라 여겨진다. 가령 앞서 보인 송순의 시조 "풍상이 섞어친 날에(1)/ 갓피온 황국화를(2)// 금분에 가득 담아(3)/ 옥당에 보내오니(4)// 도리야 꽃이온 냥 말아라(5)/ 님의 뜻을 알괘라(6)//"에서 두 번째 '갓피온 황국화를'과 여섯 번째 '도리야 꽃이온 냥 말아라'는 황국화와 도리가 전혀 다른 성격의 꽃이므로 中을 얻은 것이 된다. 독자는 황국화에서 도리로의 대 전환을 통하여 시상 마무리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한껏 크게 갖게 된다.

㉢ 비比와 응應

6개 효의 위치 중에 인접하는 것끼리 (첫째와 둘째, 셋째와 넷째 등) 음·양이 반대되는 것을 비比라 하며, 상·하(初와 四 등) 효끼리 음·양이 반대되는 것을 응應이라 하여 좋게 여긴다. 그렇지 못한 것을 각각 불비不比, 불응不應이라 하며 좋지 않게 여긴다. 이 역시 시조 등 시문 창작에서 의미 생성과 감흥 등의 유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위 송순의 시조 "풍상이 섞어친 날에(1)/ 갓피온 황국화를(2)// 금분에 가득 담아(3)/ 옥당에 보내오니(4)// 도리야 꽃이온 냥 말아라(5)/ 님의 뜻을 알괘라(6)//"에서 '풍상이 섞어친 날에(1)'와 '갓피온 황국화를(2)'은 성격이나 성향이 상사하다. 그래서 비를 얻지 못해 不比지만, 처음 '풍상이 섞어친 날에(1)'와 네 번째 '옥당에 보내오니(4)'는 서로 관련이 없거나 성격이 다른 것이므로 應을 얻은 것이 된다.

㉣ 괘의 주인主因

각 괘에는 그 괘를 성립시키는 주인主因이 되는 효가 있는데 이를 성괘주成掛主라 하고, 괘의 중심이 되는 효는 주괘주主掛主라 하여 다섯 번째 효를 가리킨다. 6개의 효 가운에서 이 다섯 번째 효를 가장 중하게 친다.(우현민, 「주역」 신역(-), 박영사, 1989, 19-25면) 이는 흔히 말하는 시조나 시의 시안詩眼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도 무방할 것인데 위 시조의 경우 '도리야 꽃이온 냥 말아라(5)'가 여기에 해단한다. 앞에서 '황국화'를 말해놓고 뒤에서 그와 상반의 성격과 성향을 지닌 '도리'를 들고 나왔으니 그 다음이 어떻게 이어질지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 효의 승乘과 승承

위의 효가 아래 효와 음·양을 달리하여(반대로) 올라탈 경우, 이를 승乘이라 하는데, 아래 효의 입장에서 보면 위의 효를 받들어 모시는 격이므로 승承이 된다. 이는 조화와 순리의 덕을 지닌다. 이 역시 시행 배열에 따른 리듬이나 미감 생성은 물론 말 부림 효과 등과 관련하여 참고할 사항이다. 위 송순의 시조 "풍상이 섞어친 날에(1)/ 갓피온 황국화를(2)// 금분에 가득 담아(3)/ 옥당에 보내오니(4)// 도리야 꽃이온 냥 말아라(5)/ 님의 뜻을 알괘라(6)//"에서 '풍상이 섞어친 날에(1)'는 '갓피온 황국화를(2)' 떠받들고 있는 격이어서 承이 되는데 이는 음보의 친밀성과 관련시켜 말 할 수 있다. 또한 그 반대로 '갓피온 황국화를(2)'이 '풍상이 섞어친 날에(1)'를 타고 있어서 이는 乘이 되는데 이 역시 시어의 배열에 있어서 긴밀성이나 친연성을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

4) 시조의 3章 6句와 「주역」의 6爻

사실 발표자는 시조의 3장 6구와 「주역」의 3才 6爻와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해 온 지 꽤 오래다. 다시 말해서 시조의 3장을 천·지·인 三才 사상과 관련하여 풀이해 본다거나, 시조의 6구를 「주역」의 6효와 관련하여 따져본 것 등이 그 것이다. 또한 시조의 句와 行의 구성에서 시적 긴장감을 갖기 위하여 구와 행의

배치에 고심하는 것과 그에 따른 미감의 차이를, 「주역」 대성괘 6효의 위치와 그에 따른 상이한 덕이 빚어내는 여러 의미 생성과의 관계를 究明해 보고픈 생각이 그 것이었다. 다음에서 그런 생각을 몇 가지로 보여본다.

㉠ 괘의 명칭과 시조의 제목

「주역」의 64괘는 각기 그 명칭이 있으며, 각 괘들은 나름의 상징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는 가람의 <난초>처럼 현대시조가 題目을 갖고 있음과 다르지 않다. 시조의 제목은 곧 괘의 이름이 卦辭를 일일이 살피지 않아도 大義를 알아볼 수 있는 것처럼, 시조의 제목을 통하여 독자는 그 시조의 大義를 짐작하고 나름의 기대지평과 상상의 나래를 편다.

㉡ 6효의 구성과 시조 6구의 구조

64괘, 곧 대성괘는 각기 6개의 효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효들은 인접하는 효끼리 음·양의 반대인 비比(1,2,3,4,5,6) 와 상하(1,4/2,5/3,6) 상응되는 효끼리 음·양의 반대인 응應의 관계를 중시한다. 이 경우 아래서부터 다섯 번째의 효는 강剛, 유柔, 정正, 중中으로부터 덕이라 일컬어진 능력(힘)의 頂點으로 높이 친다.(우현민, 앞의 책, 24면)

이는 6구로 구성된 시조의 경우에서도 종장의 첫 음보인 다섯 번째 구가 전환과 함께 시상의 마무리는 물론 미감의 발산이나 기대지평, 울림의 크기 등에서 매우 중요한 임무를 가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 전곡어轉曲語와 상상의 의경意境 창출

시조 종장 첫 음보, 석자는 독자를 설레게 한다. 그래서 시인은 앞서 펼친 시상의 전환을 통한 시상을 마무리하는 말을 이 자리에 배치한다. 여기에 배치된 말을 발표자는 전곡어轉曲語라 부르거니와 이는 초장과 중장에서 전개한 시상을 반전反轉 또는 전환轉換시키는 역할과 시상을 마무리하는 임무 등에 기여함은 앞서 말한 바와 같다.

따라서 시조를 대하는 독자들은 이 전곡어를 통하여 초장에서 일어나고 중장이 이어받은 시상이 어떻게 마무리 될 것인가에 대해 잔뜩 기대를 하게 된다. 곧 마무리의 첫 단계인 전곡어에 관심을 갖는다. 그 기대는 커다란 호기심과 더불어 무한한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데 독자의 상상과 시인의 마무리가 일치될 경우, 곧 기대지평에 부합될 때, 그 미감의 크기는 극대화 된다.

따라서 시조의 감흥은 전곡의 각도 크기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곡의 각도가 크다는 것은 6효가 정正과 중中, 그리고 비比와 응應의 관계를 두루 만족하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생각을 시조를 통하여 구체화, 나아가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인가? 이는 시조의 창작이나 감상 등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МУНТАХАБ АТ- ТАВОРИХ" ГЕОГРАФИК АДАБИЁТИНИНГ САРГУЗАШТ-САЁҲАТ ЖАНРИГА ОИД НОДИР МАНБА

Абдукаримов Ж.А., Хужанд ДУ.

Annotation: In the article, the word is about Muntahab at-tavarikh, written by MuhammedHakimkhan in the early 40s of the XIXth century, which is a rare historic work. The book is especiallydedicated to the history of the Kokand khanate and the emirate of Bukhara.Muntahab at- tavarikh is a rare geographical piece of work that highlights the writers journey to Russia, Turkey, Egypt, Syria, Palestine, Saudi Arabia, Iran and Afghanistan. The information presented here is an artificial resource for studying not only Central Asia, but also the history and geography of the world.

Keywords: Muhammed Hakimkhan, Muntahab at- tavarikh, H.Khasanov, Central Asia, Madalikhan, Russia, Turkey, Syria, Palestine.

Муҳаммад Ҳакимхоннинг "Мунтахабат-таворих" номли асари Қўқон хонлиги ва Бухоро амирлиги тарихига оид нодир манба ҳисобланади. Мазкур асар беш боб, ўн икки тоифадан (фаслдан) иборат бўлиб, унинг хронологик ҳудуди "олимнинг яратилишидан" то XIX асрнинг 40 – йилларигача бўлган даврни ўзичига олади.

"Мунтахаб ат-таворих" ўзига хос уч хил йўналишни мужассамлаштирган: жаҳон тарихи, локал (маҳаллий) тарих ва мемуар (эсдаликлар). Қўқон тарихчиларининг асарлари форсий-туркий исломий тарихнавислиги услуби асосида шаклланган бўлиб, уларда ушбу услуб – умумжаҳон ва локал тарихга бағишлаб ёзилган асарлар учрайда. "Мунтахаб ат-таворих" асари умумжаҳон тарихига бағишлангани боис, муаллиф тарихни олам ва одам яратилишидан бошлаб, XIX асрнинг ўрталаригача баён қилган. Мазкур асарнинг асосий қисми Бухоро манғитлар тарихи, Қўқонда ҳукмронлик қилган минглар сулоласи, ҳамда, муаллифнинг чет элларга саёҳати баёни бўйича тақсимланиб, бу маълумотларнинг барчаси Муҳаммад Ҳакимхоннинг ўз қаламига мансуб қимматлиман баҳисобланади.

«Мунтахаб ат-таворих» - да нодир тарихий, адабий, жуғрофик маълумотлар жамланган бўлиб, асар шу маънода энсиклопедик характерга эга. Шунинг учун ҳам, мазкур нодир асар бир қатор соҳа

мутахассислари этиборини жалбқилиб келмоқда. Муҳаммад Ҳакимхон асарида келтирган маълумотлар тарихшунослар, адабиётшунослар, географлар томонидан мазкур соҳагаоидасарларяратишдакенгфойдаланилган.

“Мунтахаб ат-таворих” нодир географик асар ҳамҳисобланиб, машҳур ўзбек олими Ҳамидулло Ҳасанов Муҳаммад Ҳакимхон асари маълумотлари, хусусан муаллифнинг саёҳати ҳақидаги эсдаликларидан фойдаланган. Ҳ. Ҳасановнинг “Фарғоналик сайёҳ” [Ҳасанов 1963: 38-39] номли илмий мақоласи эълон қилиниб, кейинчалик “Ўрта осиёлик географ ва сайёҳлар” [Ҳасанов 1963: 213-219] номли асар нашр эттирилди. Ҳ. Ҳасанов таъкидлашича Муҳаммад Ҳакимхоннинг “Мунтахаб ат-таворих” асари ҳақиқатдан ҳам Ўрта Осиё маънавий маданиятининг, Фарғона ёзма анъанасининг дурдоналаридан бири ҳисобланади.

Қўқондаги таниқли саидлар оилада тавллуд топган Муҳаммад Ҳакимхон, она томонидан Қўқон ҳокими Норбўтабийга (1770- 1798) невараваунинг вориси Олимхонга (1798- 1810) жиян эди. У ёшлигида Қўқоннинг бўлғуси ҳокими Муҳаммад Алихон (1822- 1842) билан бирга ўсди ва тарбияланди. Унинг бобоси Ҳакимхонтўра ўз даврининг нуфузли ва билимдон кишиларидан бўлган. Ҳакимхоннинг отаси Маъсумхон Олимхоннинг синглисига уйланган эди. Лекин, Муҳаммад Алихон тахтга ўтиргач, бу оиланинг тинчлиги бузилди. Мадалихон ҳукмронлиги даврида қирғин ва қатоғонлар бошланиб кетди. Биринчилар қаторида Ҳакимхоннинг отаси Маъсумхон Қўқондан чиқариб юборилди. Тахтга ўтирганига 8 кун бўлгач Мадалихон Муҳаммад Ҳакимхонни ҳам ҳаж сафари баҳонасида Қўқондан чиқариб юборди. Шундан кейин унинг чет эллардаги сайёҳати ва саргардонлиги бошланди.

Муҳаммад Алихон даврида Ҳакимхонтўра аввал Тўрақўрғон, сўнгра Намангон ва Косонга ҳоким қилиб тайинланган эди, аммо кейинчалик хоннинг ғазабига дучор бўлиб хонликдан ҳайдалиб Маккага ҳажга жўнатилган. У ўзининг сафарини Россия ўлкасидан бошлади. [Абдукаримов 2013: 12]. 1824 йилда Ҳакимхонтўра Оренбургда рус императори Александр 1 билан учрашган эди. Бу учрашув ҳақида муаллиф асарда батафсил маълумот берган. Муаллиф Россиядан кейин Туркия, Миср, Сурия, Фаластин, орқали Маккава Мадинага борган [Ромодин 1960: 8].

Муҳаммад Ҳакимхон саёҳати жараёнида гоҳ араб иҳроми, гоҳ турк бўркини, гоҳ эрони либосини, гоҳ миллий чопонини кийи бюрган, бир неча марта жуда хатарли ҳолларни бошидан кечирган, қамоққа тушган, турмадан қон билан хат ёзган, қочган: пинҳон равишда подшо саройига ҳам кирган, маликалар, амалдорлар билан сўҳбатда бўлган, бетоб бўлиб, беҳушётган, неча бор ўғрилар қўлига тушган, “қазога тан бериб” юрган, чўлда сув ичиб қаноатланган, ибтидоий одамлар ҳолини сурган [Ҳасанов 1963: 213-219].

Муҳаммад Ҳакимхоннинг “Мунтахаб ат- таворих” асари олимлар томонидан кенг ўрганилиб, унингилмийаҳамиятига юксак баҳоберилмоқда. География илми нуқтаи назаридан эса, бу китоб Ўрта Осиё географик адабиётининг саргузашт-саёҳат жанрига мувофиқ келадиган асарига яққол мисолбўлаолади. Шу билан бирга, асарда тилга олинган жуда кўп жой номлари – автор ўзи қадам босган шаҳар ва кичикроқ аҳоли манзиллари, денгиз, дарё, тоғ, чўл ва даштлар ҳамда автор бошқалардан эшитган топонимик, этник маълумотлар - Булғор, Қозон, Мақрия, Петербург, Фарингистон, Искандария, Судон, “Ўрусия вилояти”, “Қазоқия” – каби тушунчалар Ҳакимхоннинг кузатувчан, доно ва зукко инсон ва олим бўлганлигини исботлайди [Ҳасанов 1963: 39].

Муҳаммад Ҳакимхон асарининг яна бир муҳим жиҳати шундан иборатки, асарда муаллиф, ўз даврининг ижтимой-сиёсй ва жуғрофик ўзгаришларини кузатиб боради ва у ҳақда маълумот беради. Масалан, Муҳаммад Ҳакимхон 1823 йили бутун Фарғонада юз берган фожиали зилзила офатини ўзикўрган. Унинг таърифлашича, зилзила шу қадар дахшатли бўлганки, ҳеч замон бу сингари ер қимирлашни одамлар кўрмаганлар ва эшитмаганлар. Зилзила натижасида, кўпгина уйлар вайрон этилган, талай кишиларни том ва девор босиб қолган. Натижада, аҳоли қамишдан чайлалар қилиб туришга мажбур бўлган. Зилзила шу даражада кучли бўлганки, натижада, атрофдаги тоғларда кўп оилаларни ер ютган. Ер ёрилиб, унинг орасидан гувулаб қорабуғ отилиб чиққан, сойларнинг суви биқирлаб қайнаган. Бу ҳолат олти ой мобайнида давом этган [Ҳасанов 1963: 219].

“Мунтахаб ут - таворих” асари муаллифи ўзининг саёҳати жараёнида Волга дарёсидан кечиб, Аштархон ва шимолий Кавказдан ўтиб Қора денгизга етади ва унга Шўр деб ном беради. Муҳаммад Ҳакимхон денгизда сузиб, йўл таассуротларини қуйдагича тасвирлайди: “... Айтибдурларки, Рум султонларининг бири дарёнинг қаърини билурға фармонайладики, таноб этсунлар. Чун таноб солиб, лангарни қўйиб юбордилар, минг беш юз газ таноб эрди, ерга етмади” [Хуршут 1987: 29]. Яъни Туркия султонлари Қора денгиз чуқурлигини ўлчаб қўрмоқчи бўлганлар, арқонга лангар бойлаб туширганлар, 1500 газ (тахминан 1200 метр) тушурилган арқон, денгиз тубига етмаган.

Бундан ташқари Муҳаммад Ҳакимхон сафари жараёнида Қора денгиз маҳобатини шундай тасвирлайди: “қоп- қоронғу бир тунда қаттиқ шамол туриб, денгизда Нўҳ алаҳиссалом тўфони ва Самуд шамолини эслатувчи талотум қўзғалди. Доно маллоҳлар шамол кирмайдиган машъал ёқилган ҳужрага кирганча хариталарини олдиларига ёйиб қўйиб, роса тикилишарди. Харита деганим бир тахта қоғоз бўлиб, унга Шўр денгизининг барча тасвири чизилган эди. Масалан, денгизда нечта орол бор, кемага хавф туғдирувчи нечта тоғ бор ва ҳоказо. Катта бир компасни олдиларига қўйишган ва шунга қараб, қарор қабул қилишар эди” [Воҳидов 2010: 558].

“Мунтахабут-таворих” асарида муаллиф сафар қилган мамлакатлар табиати, ҳайвонот олами ҳақида ҳам кўплаб маълумотлар олиш мумкин. Масалан, Муҳаммад Ҳакимхон Нил дарёси соҳилларида сафари чоғида бир куни зарофани кўриб қолади ва шундай тасвирлайда: “Ҳабаш вилоятидин бир азим зарофа деган бир ҳайвон келтирурларки ани борасида уштар, гов, фаланг (форсий тилда “Шутур гов паланг” деб аташади-учта ҳайвон номидан ташкил топиб, бўйни узунлиги учун “шутур”- туя, шохи борлиги учун “гов”- сигир, йўл- йўл чизиқлари учун “паланг”- йўлбарс номларини олган) дерлар. Ҳайвонот ичинда ажойиб маҳлуқдирки, сурати бағоятбеназирдир. Икки оёғи узун ва икки оёғи қисқа ва бўйни узун. Ани баёз гардани ўзга ҳайвон отдай ўқдир ва кўзлари оҳу кўзига ўхшар ва думи ҳўкиз думига ўхшар ва икки шох ўрнига тождурки, гўё қаро ипак динери рангдек қизил ва бир каф ери оқ. Ва ул ҳайвоннинг хўраги сут эркан” [Ҳасанов 1964: 218].

Етти йиллик дарбадарликда юрган Муҳаммад Ҳакимхон Бухорога қайтади. Умрининг сўнгги йилларида Шаҳрисабзда яшаб, “Мунтахабут- таворих”номли тарихий асарини ёзади. Муҳаммад Ҳакимхоннинг саёҳати ғурбату дарбадарликда ўтган бўлишига қарамай унинг жаҳон ҳақидаги билимларининг ошишида, дунёқараши шаклланишида ва бир қатор рус, турк, араб, юнон тилларини ўрганишида катта аҳамиятг аэга. Шу маънода, муаллифнинг маълумотлари нафақат Ўрта Осиё, балки жаҳон таърихи, географиясини ўрганишда муҳим нодир манба ҳисобланади.

Адабиётлар:

1. Мунтахаб-ут-таворих. Љилдидуввум. Таълифи Муњаммад Њакимхон. Ботасњењи Ё. Кавахарава К. Хонеда.- Токио, 2006.
2. Муҳаммадҳакимхон Тўра. Мунтахабат-таворих.- Форс- тожик тилидан таржима, муқаддима, изоҳлар муаллифи Ш. Воҳидов.- Тошкент: Янги аср авлоди, 2010.
3. Набиев Р.Н. Из истории Кокандского ханства (феодальное хозяйство Худаярхана).- Ташкент, 1973.
4. Ромодин В. А. Некоторые источники по истории Ферганы и Кокандского ханства (XVI-XIXвв.). В рукописных собраниях Ленинграда.- М., 1960.
5. Хотирањои Муњаммад Њакимхон дар бораи сафари Русия (Баргардонанда аз њуруфи араби асоситољ икїбакириллї, ба чопњозир кунандаиматн, муаллифи муќаддима, тавзењот, луѓатнома, фењриствазамима Љамолиддин Абдукаримов). - Хуљанд, 2013.
6. Хуршут Э. Ҳакимхоннинг ҳаёти ва саёҳатлари.- Тошкент, 1987.
7. Ҳамидулло Ҳасанов. Фарғоналик сайёҳ/ Фан ва турмуш.-1963.- № 8.- С. 38- 39
8. Ҳамидулло Ҳасанов. Ўрта Осиёлик географи ва сайёҳлар.- Тошкент, 1964.

A STUDY ON THE POETRY OF IN-JAE(訒齋) CHOI HYUN(崔晛)

Yang, Hoon-shik (Sun Moon Univ. Korea)

This paper examines two aspects: academic orientation, specific object recognition attitude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method of formation of the polarity from *InJae-Jip*(訒齋集), the collection of Choi Hyun(1563-1640) and the poetry of the affairs contained in *Jo-cheon Il-rok*(朝天日錄).

Choi Hyeon's poems are arranged in chronological order, with Oh Un-si(五言詩), Chil-un-si(七言詩) and Man-si(挽詩). The order of the eulogy was presented in the order of the eulogy, and the focus was on the eulogy. It is also a poetic feature of his poetry that helps him understand the contents by presenting detailed autobiography and the annotation of the letter. In particular, Choi Hyun was commissioned as the secretary(書狀官) of the Dong-ji Office(冬至使) in 1608 and left what he felt in his poems.

In his academic orientation and specific attitude toward object recognition, Choi presented the poems by Lee Eon-jeok as the most by revealing the image of a person he is aiming for. He also made his academic

achievements by interacting with Jeong Jong-myung(鄭宗溟), Jeong Kyeong-se(鄭經世), Jang Hyun-kwang(張顯光) and Jeong-gu(鄭逑) after learning from Hakbong(鶴峯) Kim Seong-il(金誠一), including Dugok(杜谷) Ko Eung-chog(高應陟). The scholarly propensity from them became the basis of his thought as the secretary.

The method of formation of his polarity was well illustrated by a poem reciting Sanhai-gwan(山海關). Here, the size of Sanhaigwan and the castle's hill(城堞) was arranged so that the grand facade could be compared to the small one. It also shows a stark contrast through the length of 4,000km and 4,00km. It also sheds light on its historical significance through the present and the past, and through Mong-yeom(蒙恬) and Sudal(徐達). This is one of the typical poetic representations.

Especially Choi's poems which had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period of transition from King Seonjo to Gwang-haegun in the dynasty of Joseon, were highlighted by his interest in historical facts, as well as his geographical and military knowledge as Joseon Dynasty's intellectuals. In particular, he praised Boyi(伯夷) and Shuqi(叔齊). and Moon Cheon-sang(文天祥) with his own respect for their dignity.

Choi Hyeon sees the significance of his poetic and historical significance in that he applied the method of object recognition and the formation of generations to the poetry, providing a platform for understanding the humanities and characters of China.

Key words: Poetry, Object Recognition, Gwan-eo-cheon-ji(觀於天地), Polarity, Boyi & Shuqi, Moon cheon-sang(文天祥).

訒齋 崔晛의 사행시 연구

<국문초록>

이 논문은 訒齋 崔晛(1563~1640)의 『訒齋集』과 『朝天日錄』에 수록된 사행시를 학문지향과 구체적 사물인식태도, 대대의 형상화 방법 구현의 두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최현의 한시는 五言詩, 七言詩, 挽詩의 시간 순으로 편차되어 있다. 絶句보다는 律詩, 古詩의 순으로 제시하여 율시에 치중하였다. 또한 그의 시문 곳곳에 자세한 自序 및 編者의 註를 제시하여 내용 이해를 도운 점은 그의 시적 특징이다. 특히 최현은 1608년 冬至使 書狀官으로 임무를 받고 이때 지은 시문을 통해 당시 감회를 남겼다.

학문지향과 구체적 사물인식태도에서 최현은 晦齋 李彦迪의 시문을 첫 수로 제시하여 그가 지향하는 인물상을 드러냈다. 또한 그는 杜谷 高應陟을 비롯하여 鶴峯 金誠一에게 학문을 배운 이후 鄭宗溟, 鄭經世, 張顯光, 鄭逑 등과 교유하며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이루었다. 그들에게서 받은 유학적 소양은 서장관으로서 안목을 기르는 사상적 바탕이 되었다.

대대 형상화 방법은 산해관을 읊은 시문에 잘 드러났다. 여기서 山海關과 城堞의 크기를 통해 웅장한 면과 작게 드러난 성가퀴를 비교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만 리와 천 길의 길이를 통해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또한 지금과 후세의 시간, 蒙恬과 徐達 장군 등을 통해 그 역사적 의미를 조명하였다. 이는 대대의 방법으로 시를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대외적으로는 明·淸 교체기와 대내적으로는 宣祖에서 光海君으로 바뀌는 시기의 대내외적 인식을 가진 최현의 시문을 고찰해 볼 때 그가 드러낸 조선 지식인으로서 지리적 인문과 군사적 지식은 그의 스승과 교유인사를 통해 기른 안목이 바탕이 되었으며 이를 통해 역사적 사실에 관심을 기울인 점이 돋보였다. 특히 그는 절의를 숭상하여 중국 인물 중에 伯夷와 叔齊, 文天祥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상에서 최현은 사물인식태도와 대대의 형상화 방법을 시문에 적용하여 중국의 인문지리와 인물을 이해하는 발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그의 시문학사적인 의의가 있다고 본다.

핵심어 : 使行詩, 事物認識, 觀於天地, 對代, 伯夷叔齊, 文天祥

1. 서론

이 논문은 訒齋 崔晛(1563~1640)의 사행시에 나타난 학문지향과 사물인식태도 및그 형상화방법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현의 『訒齋集』 권1에 전하는 128題의 시문과 『朝天日錄』에 삽입된 한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18] 그의 詩는 크게 오언시(28), 칠언시(52), 만시(48)의 차례로 편차되어 있다. 특히 절구보다는 율시, 고시의 순으로 나타난 점으로 미루어 그의 작품은 율시에 치중하여 구성한

18 『인재집』은 최현의 6세손 崔光璧이 李象靖에게 行狀을, 蔡濟恭에게 神道碑銘과 序文을, 丁範祖에게 墓誌銘과 序文을 부탁하여 질정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편차를 마쳐 原集 13권, 別集 2권, 拾遺 1권, 年譜 1권, 附錄 1권 합 18권으로 만들어 1778년(정조 2)에 완성하였다.(한국고전종합DB 인재집 해제).

것이라 하겠다. 또한 그의 시문 곳곳에 자세한 自序 및 編者의 註가 제시되어 시를 이해하는 바탕을 마련해 준 점은 조선 중기의 시 구성의 한 일면을 보여준다. 그간 최현에 대한 연구는 문학연구 중에서 현실인식에 대한 부분[19], 「琴生異聞錄」 연구[20], 『인재집』에 드러난 한시연구[21], 최현의 정치사상의 연구[22] 등의 성과가 이뤄졌다. 여기서 그의 한시는 정우락이 소개한 논문이 유일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현의 한시문학과 그 의미전승을 소개한 시론적 연구라 그 구체적인 양상은 아직 자세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최현의 시문은 첫 수를 晦齋先生의 遺宅을 지나며 지은 〈澄心臺〉(1594)를 쓴 것에서 그의 지향하는 인물상을 제시한다. 뒤에 〈次張旅軒韻〉(1617)을 실어 尊師의 의미를 둔 것도 마찬가지다. 輓詩는 그의 시문 중에서 비교적 편수가 많다고 보여 지는데 이는 교유한 인물들의 삶을 중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대상은 鄭宗溟, 鄭經世, 張顯光, 鄭逑 등의 삶을 애도하여 시문으로 남긴 것이다. 그러나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시는 사행시다. 그가 명청 교체기에 사행단의 서장관으로서의 대외 인식을 보여준다고 할 만한 작품을 이 시기에 썼기 때문이다. 최현이 1608년 冬至使 書狀官으로 임무를 받고 떠날 때 지은 시문을 통해 당시 그 감회를 남기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현의 『인재집』과 『조천일록』에 수록된 한시 중에서 사행과 관련된 시문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명·청 교체기의 대외인식이 드러나는 지점이라 당시 사행을 다녀온 지식인의 학문지향과 구체적인 사물인식태도와 대대의 형상화 방법 구현을 이해하는 길이 될 것이다.

2. 학문 지향과 구체적 사물인식 태도

최현의 학문지향은 그의 삶과 사제의 교유를 통해 살펴보고 이어 그의 시문에서 드러난 구체적인 사물인식태도로 나누어 살펴본다.

최현은 1563년 善山府 海平縣 松山 私第에서 태어나 杜谷 高應陟(1531~1605)에게 나아가 처음 수학하고 19세 봄에 臨河에서 鶴峯 金誠一(1538~1593)을 만난다. 이들에게 글을 배운 후 최현은 26살 무렵 生員試에 합격한다. 32세엔 〈琴生異聞錄〉을, 이듬해에는 〈友愛箴〉을 지었고 41세에는 朝命을 받아 「亂中雜錄」을 찬집한다. 44세엔 9월에 드디어 文科시험에서 丙科로 합격하여 환로에 오른다. 그러나 45세에 사직소를 올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가 이듬해 8월 복귀하여 冬至使 書狀官으로 중국에 간다. 이 사행 후 쓴 일기가 바로 『조천일록』이다. 서장관으로서 그가 기록한 내용은 세밀하다. 조규익은 “시각적 이미지를 적절히 사용하여 견문에 대한 설명에서 구체성의 효과를 거둔 점, 상세한 탐문을 통해 스쳐 지나가는 ‘견문’으로는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점”[23] 등을 들어 최현의 글쓰기의 구체성과 정밀함을 밝혔다. 또한 여기서 그의 서장관으로서 인식과 탐구자의 태도가 드러난다.

47세에 旅軒 張顯光(1554~1637)을 만나 그 앞에서 「周易」과 「太極圖說」을 강한다. 이후 57세에 寒岡 鄭逑(1543~1620)를 찾아가 鶴峯의 行狀을 考訂하는 일을 묻는다. 만년에는 고초를 겪는다. 66세에 會寧에 유배되었다가 특명으로 放還되고 68세 겨울에는 무함을 받아 옥에 갇혔으나 곧 특명으로 석방되기도 한다. 이후 그는 은거하며 70세에 「東國通鑑」을 지어 역사인식을 제고한다. 74세 때 淸兵이 쳐들어오자 고향에서 義兵을 일으킨다. 이듬해 75세엔 곧장 軍旅를 정돈하여 聞慶 杜谷에 진을 친다. 이는 조천 당시에 얻은 지식을 토대로 청나라 군대에 대비하는 그의 진법을 시연한 셈이다. 이미 그가 「조천일록」에서 가끔씩

---

19 박영호, 「認齋 崔晛의 現實認識과 文學觀」, 『동방한문학』 18, 동방한문학회, 2000, pp.53~70. ; 조규익, 「사행문학(使行文學) 초기 자료의 쓰기 관습과 내용적 성격-인재(訒齋) 최현(崔晛)의 『조천일록(朝天日錄)』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42, 국제어문학회, 2008, pp.5~38. ; 조규익, 「조선 지식인의 중국체험과 중세보편주의의 위기 — 崔晛 『朝天日錄』과 李德泂 『朝天錄』 / 『죽천행록』을 중심으로 —」, 『온지논총』 40, 온지학회, 2014, pp.35~70. ; 윤세형, 「학봉 김성일의 대명사행문학 연구」, 『열상고전연구』 40, 열상고전연구회, 2014, pp.613~647. ; 윤세형, 「17세기초 사행록에 나타난 명나라 말기의 위기 상황 - 최현의 <朝天日錄>을 중심으로 -」, 『한국문학과 예술』 15,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5, pp.75~106. ; 윤세형, 「최현의 <朝京時別單書啓>에 나타난 현실인식 연구」, 『온지논총』 42, 온지학회, 2015, pp.139~160. ; 정영문, 「최현의 『조천일록』에 나타난 현실인식」, 『한국문학과 예술』 27, 한국문학과예술연구소, 2018, pp.75~113.

20 김동협, 「「琴生異聞錄」의 創作背景과 敍述意識」, 『동방한문학』 27, 동방한문학회, 2004, pp.95~115. ; 문범두, 「「琴生異聞錄」의 作家意識과 主題」, 『한민족어문학(구 영남어문학)』 45, 한민족어문학회, 2004, pp.383~420. ; 엄기영, 「鄕賢의 事跡을 둘러싼 시비와 의혹의 해소-<琴生異聞錄>의 창작 의도에 대하여」,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5(3),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1, pp.313~331. ; 이구의, 「崔晛의 「琴生異聞錄」의 構成과 意味」, 『한국사상과 문화』 85, 한국사상문화학회, 2016, pp.25~53.

21 정우락, 「認齋 崔晛의 漢詩文學과 그 意味志向」, 『동방한문학』 18, 동방한문학회, 2000, pp.71~99.

22 김시황, 「認齋 崔晛 先生의 政治 思想과 學問」, 『東方漢文學』 18, 2000, pp.33-51.

23 조규익, 「사행문학(使行文學) 초기 자료의 쓰기 관습과 내용적 성격-인재(訒齋) 최현(崔晛)의 『조천일록(朝天日錄)』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42, 국제어문학회, 2008, p.2.

보여준 적의 이동경로 파악과 군사기밀에 대한 정탐과 상세한 대비책에 대한 서술은 이후의 삶에서 이를 실현하는 바탕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8세 6월 4일, 金山 鳳溪의 別墅에서 卒하고 같은 해 8월에는 예조 판서에 贈職된다.

최현은 고응척, 김성일, 장현광, 정구 등을 찾아 학문을 닦았다. 특히 스스로도 밝히고 있지만 자신은 학봉 김성일의 영향이 컸다. 이상의 삶을 통해 볼 때 최현의 학문과 덕행, 그리고 서술태도는 스승과 교유인물의 영향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은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이 그의 시문에서도 드러나는지 살펴보자. 다음의 사행시는 최현이 무신년 8월에 서장관으로 연경에 갈 때 수양산 지나며 감회가 있어 下平聲 陽字로 압운하여 쓴 오언율시다.

西指灤河岸 서쪽으론 난하 언덕을 가리키니
孤峯號首陽 외론 봉우리 수양이라 하네.
山因高義重 산은 높은 의리 따라 무겁고
水共大名長 물은 큰 이름과 함께 오래다.
萬古扶天地 만고에 천지를 붙들어
千秋振紀綱 천추에 기강을 떨친다.
行人皆仰止 다니는 사람 모두가 우러러 멈춰서니
拳石亦流芳 주먹돌도 아름다운 이름 전한다.

<過首陽山有感 戊申八月 以書狀官赴京>

위는 최현이 서장관으로서 수양산 지나며 그곳에서 책을 읽고 있는 유생을 발견하고 그에게 시를 써서 준 경우다. 이에 대해 小序에서 “동지사에서 돌아올 때에 십삼산에 올랐다. 산 속에 서실이 하나 있는데 그 서실 안에 독서하는 유생이 있었다. 다투어 지필묵을 가져다가 내게 시를 써달라고 하니 마침내 오언율시를 써서 그에게 주었다.”[24]라고 하였다. 소서에 경유지와 목적지가 잘 드러나 있고 그곳의 유생에게 직접 찾아간 그의 적극적인 탐방자세를 엿볼 수 있다. 여기서 저자는 수양산 지나며 감회가 있는 점을 통해 그 의미 부여를 한 셈이다. 연행노정에서 수양산의 의미는 그 언술의 층위가 깊다. 먼저 수양산은 伯夷와 叔齊라는 충절의 의인들이 생을 마감한 장소다. 이들은 司馬遷의 『사기』에서 「백이숙제열전」에 전하는 은나라 말기에 군주에 대한 의리를 끝까지 지킨 인물로 알려져 있다. 원래 서쪽 변방의 작은 영지인 고죽군의 후계를 이을 인물들인데 그 아버지가 죽자 두 사람은 서로 자리를 양보하여 그 지위에 나서지 않는다. 이후 백이와 숙제는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충절을 지키기 위해 수양산으로 들어가 고사리로 연명하다 생을 마감한 의인들로 평가된다. 따라서 이곳 수양산 지나며 그곳의 주먹돌조차도 아름다운 이름을 전한다고 하여 그들의 절의를 높게 보았다.

3. 對待의 형상화 방법 구현

최현의 시문을 분석하기 위해 적용한 이론은 對待이론이다. 이 이론은 원래 한의학에서 제시된 것으로 “서로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맥상”을 가리킬 때 적용하는 표현이다.[25] 예를 들어 浮沈·遲數·滑澁·虛實·大小 등이 제시되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그 의미를 분명히 할 수 있다. 따라서 최현이 배치한 이 방법은 자신의 시문에 적용함으로써 전고와 용사의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한 것이다.

먼저 이러한 시문이 소개된 내용을 살펴보자. 최현이 龍泉館에 투숙하던 때에 그곳에서 黃喜의 5세손 黃汝獻(1486~ ?)이 지은 시를 소개한다. 여기서 黃汝獻은 조선 중종 때의 문관으로 자는 獻之이고 호는 柳村이며 필법과 문장이 뛰어나 鄭士龍·蘇世讓 등에 비견할 만하였다. 특히 그가 지은 「竹枝詞」는 명나라 사람들에게 격찬을 받았다. “용천에 날이 따뜻해지니 버드나무에 싹트고 검수에 봄이 추우니 두견이 아직 없네(龍泉日暖初楊柳 劒水春寒未杜鵑).”[26]라고 하여 그 시의 3~4구만 단장취의 하였다. 이는 그가 황여헌의 시 중에서 용천관의 시간적 배경과 공간적 의미를 아울러 소개한 셈이다. 특히 용천과 검수, 따뜻한 봄과 추운 겨울, 버드나무와 두견의 對待는 그의 시적 형상화 방법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 제시한 두 수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드러난다. 최현이 동지사 서장관으로 무신년 8월에 연경에 갔을 때 山海亭에서 감회가 일어 쓴 것이다.

雄關嶙嶙鎭重圍 웅장한 산해관 등성이 겹겹이 둘러있고
粉堞黃雲耀夕暉 성첩은 누런 구름처럼 석양에 빛난다.
萬里蒼山窮地軸 만 리 푸른 산 지축까지 닿아있고
千尋碧海鎖天扉 천 길 푸른바단 대궐 문을 잠갔다.
至今未洩蒙恬恨 지금껏 몽염의 한 씻지 못한 채
後世唯稱徐達威 후세엔 서달의 위엄만 칭송될 뿐
莫道亡秦由此役 진나라 멸망을 대역사 탓 말라
金甌留作帝王畿 금사발 오래둔다고 제왕의 땅이랴.

24“冬至使廻還時 登十三山 山中有一書室 室中有讀書儒生 爭持紙筆 要余作詩 遂書一短律以贈之.”

25 한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한의학대사전』, 정담, 2001, p.

26 『訒齋先生續集卷之一』,「朝天日錄一」, <初十日 甲子>.

男兒何必守蓬蒿 남아가 어찌 꼭 봉호를 지키랴
跨馬揮鞭意氣豪 말 타고 채찍질하던 기개 호탕하다.
鶴柱千年增感慨 천 년 화표주는 감개 무궁하고
龍城萬里恣遊遨 만리장성은 자태가 여유롭다.
秦皇島上黃雲合 진황도 가에 황운이 모여들고
姜女洲邊白浪高 강녀주 가엔 흰 물결 높도다.
威武貞心兩安在 위무와 정심 둘 다 어디가고
空令騷客意忉忉 괜스레 소객의 마음만 시름겹다.
<山海亭詠懷 二首 ○戊申八月 以冬至使書狀官赴京>

첫째 수에서는 산해관의 웅장한 자태와 이와 관련된 영웅들을 회고한다. 경련에 등장하는 두 장군은 그러한 위상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인물들이다. 蒙恬(?~B.C.209)은 진나라의 장군으로 武의 아들이다. BC 221년 齊나라를 멸망시킬 때 큰 공을 세웠다. B.C. 215년 匈奴 정벌 때 활약이 컸으며, 이듬해 만리장성을 완성하였다. 북쪽 변경을 경비하는 총사령관으로서 上郡 즉 지금의 陝西省 膚施縣에 주둔하였다. 始皇帝가 죽자 환관 趙高와 丞相 李斯의 흉계로 투옥되자 자살하였다. 徐達(1332~1385)은 농민 출신으로 자는 天德이며 濠, 즉 지금의 安徽省 鳳陽縣에서 출생하였다. 주원장의 부하로 통군원수, 강남행추밀원사, 좌상국 등을 지냈으며 元軍 토벌에서는 25만의 軍勢를 총지휘하였다. 이후 주원장을 도와 명나라를 건국한다. 서달은 주원장이 즉위 후 武官 제일의 자리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그의 위엄을 말한 것이다. 미련에서는 화자가 진나라 멸망의 당위성을 언급한다. 이는 금구의 고사를 들어 펼쳐낸 것이다.

둘째 수는 만리장성의 웅장한 산해관의 역사를 제시한다. 화자는 말없이 존재하는 대상을 바라보며 역사를 회고하며 이를 통해 세월의 무상함을 되새기고 시름겨운 마음을 개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수련의 蓬蒿는 東漢의 高士 張仲蔚의 삶을 나타낸다. 그는 은거하며 安貧樂道한 인물로 천문에 정통하고 시부에 능할 정도로 박학다식하였으나 늘 빈한하게 살았다. 당시 그의 거처가 쑥대로 가려질 정도로 우거진데서 이를 인용한 것이다.[27] 따라서 굳이 초야에 묻혀 살 필요가 있겠느냐는 반문이다. 학주는 華表柱를 말하는데 옛날 遼東 사람 丁令威[28]고사에서 유래한다.

이 두 수는 산해관과 성첩의 크기를 통해 웅장한 면과 작게 드러난 성가퀴를 비교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또한 만 리와 천 길의 길이를 통해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또한 지금과 후세의 시간, 몽염과 서달의 위무 차이 등을 통해 그 시적 의미를 분명히 전달한다. 따라서 이 시는 대대의 방법으로 형상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최현은 명나라 말엽의 충신 文天祥(1236~1283)을 모신 사당에서 그를 숭모한다. 이는 그의 「조천일기」에서 드러난다. 정월 초10일 계사일 맑은 날 옥하관에 머물 때에 쓴 시에 이르기를

千載長吟衣帶贊 천년동안 <衣帶贊>을 길이 읊었는데
拜瞻今日感慨多 오늘 절하고 우러러보니 감개무량하다
英雄淚盡零丁歎 영웅 눈물 다함에 의지할 곳 없음 탄식하고
志士腸摧正氣歌 지사의 간장이 찢어질듯 정기가를 부른다.
名分重時夷夏截 명분이 중한 때에 화이관계 끊어지고
綱倫扶處■■■ 강상윤리 부지하는 곳
若能培得堂堂氣 만약 당당한 기운을 북돋울 수 있다면
萬里金湯未足誇 만리의 금성탕지도 자랑할 것은 아니니다.

이 글은 文天祥(1236~1282)의 절의를 숭상한 시문이다. 수련의 「衣帶贊」은 문천상이 죽음을 앞두고 절필하면서 지은 시다.[29]이는 문천상이 성현에게서 인과 의를 취하였으니 죽어도 부끄러움이 없음을 자부한 것이다. 최현은 이러한 문천상의 절의를 닮고 싶은 마음을 담아 「正氣歌」를 읊은 것으로 보인다. 문천상은 1281년에 忠義의 군대를 일으키려고 전전하다 元軍의 포로가 되어 옥중에 있을 때에 이를 지었다. 지사로서 우국의 마음을 담아 그 포부와 기상을 드러낸 셈이다. 그는 孟子의 浩然之氣를 그 정신적 바탕으로 하였다. 여기서 역대 忠烈之士의 치적을 읊고, 천지간에 충만하는 正大한 기가 바로 만고불변함을 논한 것이다. 따라서 이 시는 만고충신으로서 萬丈의 氣炎을 드러낸 문천상의 기상을 천년과 오늘, 영웅과 지사, 명분과 강상의 대대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화자도 그와 같고자 하는 상현 희구의 감성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

27 『高士傳』,「張仲蔚」.

28 『搜神後記 卷1』.

29"孔曰成仁 孟曰取義 惟其義盡 所以仁至 讀聖賢書 所學何事 而今而後 庶幾無愧."

SCIENTIFIC HERITAGE OF SAAD EDDIN TAFZANI AND ITS IMPORTANCE

PhD Asqarov A.M., International Islamic academy of Uzbekistan.

Ушбу мақолада араб тилинингбалоғат фани, унинг таркибидаги илмул баён, илмул маоний ва илмул бадиъ ҳақида, ушбу санъатларнинг юзага келиш тарихи, ҳамда, ушбу илмларни аждодлардан қолган оғзаки ва ёзма маънавий меросни ўрганишдаги аҳамияти баён қилинди. Шунингдек, араб тили балоғатига улкан ҳисса қўшган олим Саъдуддин Тафтазоний ҳақида сўз юрилилади.

Таянч сўзлар: араб тили балоғат фани,балоғат фанига оид асарлар, илмул маони, илмул баён, илмул бадиъ, Саъдуддин Тафтазоний.

His full name is Mas'udibn Umar ibn Abdullah, he was born in hijri 722 in safar month (Gregorian 1322), in the village of Taftazan, in the city of Nasa in Khuroson [Life and creative works of Taftazani: Suyuti. "Bughyatulvi'at" .p.391;].He was so eager to learn from his childhood that he went to scientific centres in cities as Samarkand, Bukhara, Khorezm, Sarakhs and Naso. He gained knowledge from famous scholars and participated many different scientific meetings.

The scholar learned exegesis of Kur'an, law of Islam, science of language, grammar, oratory, logic with enthusiasm, and wrote books about these themes. Sa'duddinTaftazani was one of the youngest writers. Because, he wrote the book "SharhuttasrifulIzziy" when he was 16 years old [IbnImad."Shazaratuzzahab"vol. VI.p. 319-332.].

According to the information, the number of his work was more than 30. The most famous ones are:

About the meanings of Kur'an (tafsir):

"Talkheesulkashshof"- An annotation to the exegesis of Mahmud Zamakhshari "Tafseerulkashshof"."Kashfulasrorvaiddatulabror" fi tafsirilKur'an".Saad Eddin Tafzani wrote annotation to "Kashshaf" of Zamakhshari. Haji Khalifa exclaimed: "This work is written as a connection to Kashshaf". Taftazani began to write this work in Samarkand, but could not continue. The book includes the chapters of the holy Kur'an from Bakara (The cow) to Hud, from Zumar to Talaq (Divorce). The book is kept in British museum and one of the libraries of India.

About hadith:

1. "Arbaunfil hadith"

2."Risolatul ikroh"

About jurisprudence of Islam (fiqh):

1."Fatovo al hanafiya"

2."Sharh faroizisSijovandi"

3. "Al Miftoh fi furuilfiqhiShafei"[This book was written according to the sect of Shafei but there is collection of fatva (legal opinion) of Hanafi sect.]

4."Ixtisoru sharhitalxisuljomeikabir"

About types of jurisprudence of Islam (fiqh):

1."Talvih fi kashfhaqoiqittanqih" [Saad Eddin Tafzani wrote this book in Gulistan in 758/1357. It was printed in the cities of Delhi, Lakhun in 1267/1851, 1281/1864.]

2."Sharhul muxtasaralakitabmuntahassavalvalamal fi ilmayilusulvaljadal"

3."Niamus savabig fi sharhilkaliminnavabigh" [It is commentary work to "Zahira" of Zamakhshari.]

About logic:

1."Tahzibul mantiqvalkalam" [The book was written in 789/1387. Hadjihalifa said it was complete work. The book was printed multiple times in Kalkutta in 1243/1827, Lakhun in 1286/1869, 1288/1871, 1293/1876.]

2."Sharhur risola ash shamsiya" [Taftazani commented the logic book of Najmuddin Ali ibn Umar Qazvini in his work. It was printed in Lakhun in 1326/1905.]

About science of language (kalam):

1."Al maqosid fi ilmilkalam" (Sharhalmaqasid), "Sharhushsharh" [This book was written in Samarkand in 1383.]

2."Sharhul akaidinNasafia" [Taftazani wrote "SharhulakaidinNasafia" in Khorezm in 768/1367 as a comment to "AkaidunNasafi" of Abu Hafs Umar Nasafi.]

3."Ar RaddalaZindiqaibnArabi"[KhayruddinZirikli. "Al Aalam". Bayrut: "Dorululumlilmalayin", 1998. Vol.VII, p.319.] It is clear that Sa'duddinTaftazani wrote precious books about every subject. Each of them is a source of many scientific researches.

About Arabic grammar:

1.”Sharhut tasrifulizzi”[This book is a commentary to the “Zandjani” of AzduddinAbdulvahhab Ibrahim azZandjani, printed in 1253/1837 in Kanstantinopol, in 1280/1884 in Tegeran, in 1289/1872,1295/1878 in Delhi with the book “Miftah as saada” of Ahmed ibn Shah Gul]

2.”Irshadul Hadi”[According to HadjiKhalifaTaftazani dedicated this book to his son and wrote it in Khorezm in 774/1372. Muhammedibn Ali al Djurdjani and MuhammedibnMuhammed al Bukhari wrote commentaries to this book.]

3. Turkish prosaic translation of”Bostan” ofSaadi

About the rhetoric:

“Ash Sharh al mutavvalalatalkhis al miftah”. It was known with the name of “Mutavval”. The book is commentary to the book of Kazvini “Talkhis al miftah”. However, “Talkhis” itself is a commentary work to the third volume of the book of “Miftah al ulum” of Yusuf Sakkaki, a scholar from Khorezm.[“Kashfazzunun an asamilikutubvalfunun” Mustafa ibn Abdullah HadjiHalifa. Dimashq vol. I 1994 p.516]

Saad Eddin Tafzani began to write “Mutavval” in Khorezm when he was twenty years old; he finished writing the book after six years in Hirat in 748. It is said that Amir Temur had the book hung on the fortress in Hirat. The book became very famous and had many manuscript and lithographic versions.

“Ash sharh al mukhtasaralatalkhis al miftah”. Saad Eddin Tafzani wrote a commentary to the third volume of “Miftah al ulum”, the book was about Arabic eloquence of the scholar Yusuf Sakkaki. This work is known with the name of “Mukhtasar al maan” and was written in Bukhara in 756. This book is still used in many universities as a textbook, for example, in Egypt in Al Azhar University. A lot of scientists have been interested in this book and written many annotations.

“Sharh al kism as salis min miftah al ulum”.Taftazani wrote this book in shavval of 789 in Samarkand. Saad Eddin Tafzani wrote a commentary to the third volume of “Miftah al ulum” of the scholar Yusuf Sakkaki. This book is still not printed. It is kept in the Institute of manuscipts of Oriental studies in the number 9035.

It is considerably important to learn the work ofSaad Eddin Tafzani about commentary, jurisprudence of Islam, science of language, grammar of Arabic language, oratory and logic. Researching the work of Taftazani owns a significant role in increasing world outlook of young generation, educating them to be a prominent and erudite person.

Bibliography

1. “Tarikhuulumilbalaghavataarif bi rijaliha”. Ahmed Mustafa al Maraghi. Egypt, 1950
2. “Mukaddima”. IbnHaldun al Hadrami. Beyrut, vol.III, 1957
3. “Ad durarulkamina fi aayanilmiatissamina”. Ahmed ibn Ali ibnMuhammedibnHajar al Askalani. Haidarabad, vol.V, 1983
4. “Kashfuzzunuzanasamilikutubvalfunun”. Mustafa ibn Abdullah HadjiKhalifa. Dimashq, vol.I, 1994

A STUDY ON THE UNDERSTANDING OF THE ORIENT AND THE OCCIDENT BETWEEN CHOI BU AND HAMEL'S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

Lee, ku-eui (Kyungpook National Univ, Korea).

This thesis examines how the understanding of the Orient and the Occident between *Choi Bu* and *Hamel*'s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 The characteristics of this work can be summarized into several features. Negoti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have been going on since before the Korean Three Kingdoms Period. However, the writings describing their views after unexpected drifting and encountering the cultural relics of other countries are representative of *Geumnam* (錦南) *ChoiBu*'s (崔溥: 1454～1504) and *Hamel*'s. These two works are not just about the journey. Through these two works, we can see more easily how Eastern and Western cultures of the 15th and 17th centuries were communicated. Here 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ChoiBu*'s and *Hamel*'s *A 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 The first, it is the sea as an open space. If land is closed, the ocean is open. The fact that *ChoiBu* or *Hamel* drifted is the beginning of an open space, the ocean, the beginning of an event. This open space is guiding self to a new world of experience. The experience world at this time has nothing to do with self-will. Their ship was wrecked by an unexpected typhoon. Causes are typhoons, and the occurrence of events is the wreck of a ship on board.

The second, it is nationalist utilitarianism centered on its own. Their identities were different when *ChoiBu* or *Hamel* drifted. As a result, the ways in which they preach the drifts. However, they are aiming for

pragmatism centered on their own country.

The third, *Hamel* also did not forget his identity. Both *ChoiBu* and *Hamel* present diversity of truth through their works. What we can see through the*Record of Drifting across the Sea* of *ChoiBu* and *Hamel* is that they overcome the only universal theory and present diversity and plurality of truth. They have a new world that they cannot experience in their own country.

The fourth, *ChoiBu* described his own world of experience with a focus on humanities, *Hamel* described a focus on sociology. As a civil official, *ChoiBu* writes in detail the humanities, history, education and culture of the area he has passed through, from southeast *China* to northeast *China*.

It served to provide various information to our country. I was interested. Because he was an office worker at the *East India Company*. Specifically, *Hamel*'s status was as a navigator. *ChoiBu* was an official at the time and Hamel was a company employee. At that time, *ChoiBu* was more recognized than Hamel. But now it's the opposite. The traces of *ChoiBu* remain shabby in one of *Muan, Naju, Haenam of South Jeolla Province*. However, traces of *Hamel* remain in several places in Korea, including *Jeju Island, Gangjin,* and Yeosu. In *Hamel*'s hometown, *Gorinchem(Horin-dok)*, the *DolHaroobang*- a sculpture of Grandfather carved in stone- *was established, a symbol of Jeju Island*. For now, there are far more traces of *Hamel* than there are of *ChoiBu*.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re-explore the traces of communication between civilizations by installing the traces of *ChoiBu* in *China* as well as *Korea*. If this is done by culture and tourism, we will be able to pursue each other's practical interests.

崔溥의 漂海錄과 하멜의 漂流記에 나타난 東西洋의 交涉

1. 머리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국제화 시대이다. 세계가 1일 생활권이 되고 있다. 따라서 한 국가 한 지역의 문화만을 고집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본고는 조선시대에 동서양의 문화가 어떻게 교섭되었는지를 고찰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었다.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교섭은 삼국시대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표류하다가 정박하여 다른 나라의 문물을 접한 뒤의 자신들이 견해를 서술한 글은 최부(崔溥)의 『표해록(漂海錄)』과 하멜(*Hamel)*의 『표류기(漂流記)』가 대표적이다. 최부의 『표해록』은 제주도를 떠난 배가 난파되어 중국 항주(杭州)에 정박한 뒤 6개월 동안 중국 동쪽 대륙을 지나 우리나라 신의주에 도착할 때까지의 여정을 기록한 글이다. 하멜의 『표류기』는 동인도회사 소속인 네덜란드 사람 하멜이 해상교역을 하는 과정에서 배가 난파되어 표류하다가 제주도 정박한 뒤 조선에 13년 동안 살다가 일본으로 탈출하여 교토에 정착한 과정을 총 11장으로 서사한 글이다.

이 두 작품은 단순히 여정(旅程)만을 기록한 글이 아니다. 이 두 작품을 통하여 우리는 15,17세기 동서양의 문화가 어떻게 소통되었는가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다.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거의 연구가 되지 않았다. 필자가 최부와 하멜의 자취를 추적하면서 그들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필자의 논지를 전개하여 나갈 것이다.

본고의 대본은 『한국문집총간(韓國文集叢刊)』에 실려 있는 『표해록(漂海錄)』과 네덜란드 *Gorinchem* 박물관에서 1692년에 간행한 것을 영인한 『*Hamel's Journael*』(Derde druk, maart 2009)이다. 본고의 진행 방법은 형식비평과 의식비평 이론을 바탕으로 한다. 두 작품을 대비하여 작품의 구성과 작가 의식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낼 것이다. 그 결과 이 논문은 현재 국제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외국 문물을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를 알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동서 문화 교섭의 성장

먼저 최부(崔溥: 1454~1504)의 여정은 하멜보다는 짧다. 최부가 1487년 제주 등 3읍의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임명되어 제주로 건너갔는데, 거기에서 다음 해(1488) 초에 부친상의 기별을 받고 곧 고향으로 급히 오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다. 그들이 바다에 표류한 날짜는 홍치 원년(1488) 윤정월 3일부터 16일까지 14일 동안이다. 윤정월 11일에 작은 무인도에 도착한 뒤 그날의 정황을 서사한 일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그때 물이 바다에서 섬 쪽으로 들어가고 바람은 섬에서 바다 쪽으로 나와 배가 바람을 따라 휘돌아 나와서 화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저녁에는 어떤 큰 섬에 도착하였는데 그 섬은 바위가 깎아지른 듯 솟아있어 배를 대려고 하여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이복이 옷을 벗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배를 끌고 헤엄을 쳐서 섬 기슭에 붙들어 매었습니다. …(중략)… 배 안 사람들이 모두 죽을 끓여 먹었습니다. 섬에는 바람을 피할 곳이 없으므로 밤에 다시 배를 풀어 떠났습니다.[30]

금남 일행 43인이 탄 배가 처음 9일 동안 표류하다가 절강성(浙江省) 영파부(寧波府) 하산(下山)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해적들이 그들에게 보화(寶貨)를 요구하였다. 금남이 조정의 관리로 금붙이가 없다고

[30]"時則水從海入島, 風從島出海,舟從風回旋,得免於患.夕,至一大島. 島又岩石削立, 欲泊舟不得. 以福脫衣躍入水中, 拽舟游泳, 緣島岸以繫....(中略)...舟人皆煎粥而啜, 島無避風處, 故夜又縱舟而去."崔溥, 『漂海錄』卷1 (『錦南集』卷3). 박원호 역, 표해록, 서울: 고려대 출판부, 2016년 초판 3쇄, 51쪽 참조.

하자 해적들이 이들에게 옷을 벗겨 곤장을 치는 등 많은 고문을 가하였다. 그들이 해적들에게 고문을 당하면서도 위계질서가 확실하였다. 금남을 수행하던 선원들이 자신의 목숨을 아까와 하지 않고 그들의 상관인 금남을 위하여 헌신하려 하였다. 금남은 끝까지 임금이 자신에게 부여한 印牌(印牌)를 지키려 하였다.[31] 금남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유가의 예와 윤리의 원칙에 대한 타협을 거부하였다. 그가 귀국하자 성종은 8,000리 길을 거쳐 온 중국 땅에서의 견문을 기술하여 바치도록 명하였다.

하멜이 우리나라에 온 것은 1653년 8월 16일이다. 그는 동인도회사 소속의 일원이었다. 동인도회사는 유럽의 여러 나라가 17세기 초 동양에 대한 독점 무역권을 부여받아 동인도에 설립한 여러 회사이다. 그 가운데 두드러진 나라가 영국·프랑스· 네덜란드이다. 이들 세 나라는 동인도 거점으로 상업전(商業戰)을 펼쳤다. 네덜란드 역시 1602년 동인도의 여러 섬을 정복하고 직, 간접적으로 그 지역을 지배하였다. 이를 통해 특산품을 강제로 재배하게 해서 사들여 이 땅의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였다. 그러나 1652년부터 오랜 기간 동안 영국-네덜란드 전쟁이 계속 되었고, 여기에서 심한 타격을 입은 네덜란드가 영국과의 상업 전쟁에서도 지게 되었다.

15~16세기 이후 유럽 각국이 대항해 시대로 접어들어 유럽인들이 동북아시아에 접근하기 시작하자 중국과 일본은 제한적 개방 정책을 진행하였지만, 조선은 철저한 쇄국 정책을 고수하였다. 결과는 일제 강점기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유럽 표류인의 네 번째 사례는 효종 4년(1653년) 제주도 해안에 도착한 36명의 하멜 일행이다.[32] 도착 초기에 36명이었던 일행은 굶주림과 전염병 등으로 14명이 죽고 전라 좌수영(12명), 순천(5명), 남원(5명)에 수용되어 있었다. 하멜이 조선에서 탈출하여 일본 나카사키에 도착한 뒤 그 곳에서 심문을 당할 때의 대화 가운데 그 한 대목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그 이전에 몇 사람의 서양인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다.[33] 이들은 대부분 그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었다. 하멜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우리나라에 온 것은 배가 난파되었기 때문이다. 하멜 일행이 항해하여 정박하고자 한 곳은 제주도가 아니라 대만(臺灣)이었다. 그러한 사실이 문답 내용 가운데 그 여섯 번째에 나타난다.

문(問): **당신들은 어디서 오셨고, 어느 항구를 거쳤나요?**

답(答): 1653년 6월 18일 우리는 **바타비아**(Batavia)[34]를 떠나 대만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씨저**(Caesar)라는 사람이 우리 배에 타고 있었는데, 그가 **페르벌그**(Verburgh)라는 사람을 대만 총통에게 데려갈 예정이었습니다.[35]

바타비아는 현재 인도네시아 수도인 자카르타이다. 원래 포르투갈이 몰루쿠 향료군도에서 향료를 매입하는 기지로 출발했으나, 네덜란드와 영국이 가세하면서 바타비아를 장악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졌다. 이 전쟁에서 네덜란드가 최종 승리해 1619년부터 이곳을 장악하였다. 네덜란드 동인도회사(VOC)는 바타비아에 상관을 설치하고, 이곳을 동양무역의 거점으로 이용하였다. 이때는 네덜란드가 대만을 지배하고

---

[31] "十二日, 遇賊于寧波府界 …(中略)…二船漸近相直, 一船可十餘人, 人皆穿黑襦袴芒鞋, 有以手帕裹頭者, 有着竹葉笠棕皮蓑者, 喧豗叫噪, 渾是漢語….(中略)…其人復曰, 此乃大唐國浙江寧波府地方…(中略)…其人指其島曰, 此卽大唐寧波府地下山也….(中略)…又問渠姓名謂誰. 其人答曰, 我是大唐林大, 你若大唐去, 帶你進去, 你有**寶貨**, 可遺我. 臣答曰, 僕奉使臣, 非商賈者流, 且漂流浮沈之後, 安有寶貨乎. 卽減米糧以餽之, …(中略)…臣曰, 船中有物, 可盡取去. 印與馬牌, 乃國之信, 私無可用, 可還我. 賊魁以印牌還, …(中略)…旋入舟中, 先脫程保衣袴, 綑而杖之. 次以斫刀, 截臣衣紐, 赤身剝脫, 背手曲脚以綁之. 以杖杖臣左臂七八下曰, 你若愛生, 便出金銀. 臣大號曰, 身可爤骨可碎, 何所得金銀乎. 賊不曉臣言, 解臣縛, 許以寫意, 臣卽寫之. 賊魁怒, 瞋目張喙, 指程保而叫, 指臣而叫, 卽曳臣頭髮, 還縛倒懸, 荷斫刀指臣頸斮之. …(中略)…遂以其船導縴臣船, 指放大洋, 然後乘其船遁去, 夜已闌矣. "최부, 위의 책, 같은 곳.

[32] 그가 일본 나카사키 현에 도착하여 그곳에서 취조 받을 때의 54개의 문답 내용 가운데 그 두 번째 항을 보면, "**당신들이 언제 어떻게 조선에 도착하였습니까?**: 우리는 1653년 8월 16일에 5일 동안 몰아닥친 태풍으로 우리 배 더 스페르붸호가 좌초되어 (조선에) 도착하였습니다.[**Hoe en wanner zijn jullie in Korea terechtgekomen?**: Wij zijn op 16 augustus 1653 het jacht **deSperwer** aan de grond gelopen, als gevlog van een storm die vijf dagen had geduurd." (Hamel, ibid, p. 51, The chapter 8.)이라 하여 하멜 일행이 우리나라에 도착한 연월일과 그 원인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33] 선조 15년(1582년)에 제주도에 도착한 마리이, 선조 37년(1604년) 남해안에 도착한 스페인의 후안 멘데스(Juan mendes), 인조 5년(1627년)에 경주 부근에 도착한 네델란드인 얀 얀세 벨테브레(Jan Janse Weltevree)가 있다. 벨테브레는 조선 여인과 결혼해 **박연(朴堧)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한 뒤 조선에 정착해 화포 제작에 도움을 주었다.

[34] 정수일, 실크로드 사전, 서울: 창작과 비평사, 2013. 10.

[35] "**Waar kwamen jullie vandaan en welke tussenhavens hadden jullie aangedaan?**

: Op 18 juni 1653 vertrokken wij vanuit **Batavia** met als bestemming Taiwan. Wij hadden de heer **Caesar** aan boord, die de heer **Verburgh** als gouverneur van Taiwan zou gaan aflossen." Hamel, ibid, p. 51, The chapter 8.

있었다. 하멜 일행이 바타비아에서 대만으로 가려한 것은 자신들의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당시 그의 지위는 회계사였으며, 그 때 그의 나이가 고작 22살이었다.[36] 당시의 대만 총통도 중국 사람이 아니라 네덜란드 사람이라 것을 알 수 있다. 1661년 정성공(鄭成功: 1624~1662)이 2만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대만(臺灣)에 상륙하여 몇 달 동안의 공격 끝에 네덜란드 수비대의 항복을 받아내었다. 대만이 그때부터 중국인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3. 열린 공간으로서의 바다 – 사건의 시작

육지가 닫힌 공간이라면 바다는 열린 공간이다. 최부(崔溥)나 하멜이 표류하게 된 것은 열린 공간에서 풍랑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 열린 공간은 자아에게 새로운 경험 세계를 인도하고 있다. 물론 이 때의 경험 세계는 자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다. 생각하지도 않은 태풍이 불어와서 그들의 배가 조난을 당하여서이다. 원인 제공은 태풍이요, 사건의 발생은 타고 있던 배의 난파이다. 1488년 6월 14일 최부 일행이 탄 배가 큰 바다 가운데로 표류하여 들어갔다. 이 때 배에 탄 사람이 43명이었는데, 그 가운데 제주도 사람이 35명이었다.

> 이날은 우박이 내리고 큰바람이 불었습니다. 놀랄만한 파도와 무서운 물결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해면을 내리치니 돛이 모두 찢어져 버렸습니다. 배는 두 돛대가 높고 커서 쉽게 기울어져 뒤집어질 기세였으므로 소근보에게 도끼로 돛대를 제거하게 하고, 고야복에게 거적을 엮어 선미(船尾)에 붙여 파도를 막게 하였습니다. …(중략)… 마침내 배에 같이 탄 사람들을 조사해보니 …(중략)…제주 목사가 보낸 진무(鎭撫) 안의(安義) …(중략)… 저까지 합하여 모두 43명이었습니다.…(중략)… "제주 사람으로서 배에 탄 사람이 35명이나 되니 어찌된 일인가?" 하니 안의가 말하기를, "우리 목사께서 마음을 다한 것은 경차관에 대한 예의이기 때문입니다. 또 큰 배를 부리는 데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의 힘을 써야만 항해가 가능합니다. 하물며 바닷길이 아득하게 멀뿐더러 울도(蔚島) 등지와 같은 곳은 해적이 많으니 호송을 엄하게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37]

1653년 8월 16일 하멜이 더 스페르벨호를 타고 표류하다가 효종 4년(1653년) 제주도 해안에 도착하였다. 도착 초기에 36명이었던 일행이 굶주림으로 14명이 죽고 전라 좌수영(12명), 순천(5명), 남원(5명)에 수용되어 있었다. 하멜 일행을 나뉘어 수용한 것은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시 조선의 현실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나카사키현에서 취조한 내용 가운데 39번째를 보면, "당신들은 왜 다른 도시로 이주하였고 그 도시 이름은 무엇입니까?"[38]라는 질문이 나온다. 이에 대한 대답으로 하멜이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 왜냐하면 1660, 1661, 1662에 가뭄으로 식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식량부족으로 해 그곳의 수령이 우리들에게 매달 약속된 쌀을 제공해주지 못했고, 왕은 우리를 세 도시로 나눠 이주시켰습니다.

---

[36]"2. 언제 어떻게 당신들이 조선에 도착하였습니까? :우리는 1653년 8월 16일에 저희의 배(더 스페르붸호)가 5일 동안 몰아닥친 태풍으로 좌초되었습니다.(*2. Hoe en wanner zijn jullie in Korea terechtgekomen? :* Wij zijn op 16 augustus 1653 het jacht de Sperwer aan de grond gelopen, als gevlog van een storm die vijf dagen had geduurd.)"

"55. 나가사키에 도착한 8명의 선원의 신원은 어떻게 되나요?: 헨드릭 하멜, 회계사, 36세 …(중략) …1667년 10월 22일 정오 쯤 새로 부임한 현감이 그들에게 출항을 허락하였다. 우리가 10월 23일에 배의 닻을 받아 나가사키 항을 떠났다.1667년 11월 28일, 우리는 바타비아에 도착하였다. 오 주여! 14년 동안의 노고가 빛을 바랬다. - 헨드릴 하멜은 표류기에 바타비아에 도착한 날짜를 기록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 날은 1667년 11월 28일이었다.(*55. Wat zijn de namen, de functies en de leeftijden van de acht maats die in Nagasaki zijn aangekomen? :* Hendrick Hamel, boekhouder, oud 36 jaar, …Op 22 oktober 1667 rond het middaguur kregen wij van de nieuwe gouverneur toestemming om te vertrekken. En zo lichten wij op 23 oktober bij het aanbreken van de dag het anker en verlieten de baai van Nagasaki.
Op…)arriveerden wij op de rede van Batavia, de goede God dankend dat Hij ons na kommervolle omzwervingen van meer dan veertien jaar zo genadiglijk uit de handen van de heidenen heeft verlost.
Hamel schreef zijn Journael op Decima en vulde de aankomstdatum in Batavia niet in. Die datum was 28 november 1667. (57)

[37]"是日雨雹大風, 驚濤畏浪. 掀天鼓海, 帆席盡破. 舟以二檣高大, 尤易傾撓, 勢將覆壓, 命肖斤寶操斧去之, 高以福縛草芚附之舟尾以禦濤. …(中略)… 遂點檢同舟人,…(中略)… 濟州牧使所定送**鎭撫安義,** …(中略)…**合自身凡四十三人**. …(中略)… **濟州人乘舡者至三十五人**, 何也. 安義曰, 我牧使所以盡心者, 對以敬差官之禮. 且運大舡, 必用衆力, 然後可行. 況海路敻遠, 如於蔚島等處, 水賊盛行, 護送不可不嚴也."崔溥, 『漂海錄』卷1, 閏正月 初四日 條.

[38]"Waarom zijn jullie naar andere steden verplaatst en hoe heetten die steden?" Hamel, ibid, The chapter 8.

좌수영에 12명, 순천에 5명 그리고 남원에 5명 이주시켰습니다.[39]

인용문의 원문을 보면 좌수영(Chwasuyong)·순천(Sunchon)은 표기법이 맞지만, 남원은 남만(Namman)으로 표기하고 있다. 하멜이 잘못 표기하였는지, 아니면 이 책을 간행할 때 잘못 입력하였는지 알 수 없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멜 일행을 나누어 수용한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곧 3년에 걸친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식량이 부족하였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하멜이 제주도에 도착한 뒤부터 그들을 멸시하지 않았다. 그 정황을 다음 예문에서 알 수 있다.

9. 배가 난파되었을 때 조선 사람들이 당신들을 어떻게 대우하였나요?

그들은 저희들을 매우 잘 대해주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저희에게 묵을 장소와 먹고 마실 것을 마련해 주었습니다.[40]

4. 자민족 중심의 민족주의

자국 또는 자민족 중심의 민족주의 실리주의이다. 금남이나 하멜이 표류할 당시에 그들의 신분이 서로 달랐다. 이에 따라 그들이 표류기를 서사하는 방법도 서로 다르다. 하지만 이들은 자국 또는 자민족 중심의 실리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5. 진리의 다양성을 제시

유일(唯一) 보편론(普遍論)을 극복하고 진리의 다양성(多樣性)과 복수성(複數性)을 제시하고 있다. 금남과 하멜의 『표해록』과 『표류기』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다양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곧, 자신들의 나라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당시 이들은 새로운 문명 세계에 접근하였다.

최부(崔溥)와 하멜이 본의 아니게 태풍을 만나 배가 표류하여 자신들의 목적지가 아니 다른 곳에 귀착하였다는 사실에서는 일치한다. 하지만 이들이 항해한 목적이 서로 다르다. 금남은 자신의 돌아가신 아버지 상을 치르기 위하여 배를 탔고, 하멜은 물자를 수송하기 위하여 항해하였다. 금남이 탄 배에는 물자가 그다지 없었지만, 하멜이 탄 배에는 여러 가지 물자가 있었다. 금남이 생존하였던 15세기와 하멜이 제주도에 도착한 17세기는 시간 간격이 200년 정도 차이가 난다. 실제로 17세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청나라와 빈번이 교역(交易)하였다.

금남(錦南)이 인문학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경험 세계를 서술하였다면, 하멜은 사회학에 초점을 맞추어 자신의 경험 세계를 기술하였다. 금남이 인문지리, 역사에 관심이 있었다면 하멜은 상업 활동에[41] 관심이 있었다. 그가 동인도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이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하멜의 신분은 의 이는 그들의 신분에서 나오는 관심사일 수도 있다. 금남은 문관(文官)이었고, 하멜은 항해사(航海士)였다.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ГИБРИД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В УЗБЕКСКОЙ И АЗИАТО-АМЕРИКАНСКОЙ ПРОЗЕ XX ВЕКА

К.ф.н Маматкулова Х.А.. СамГИИЯ.

Abstract: The article develops the problem of hybrid identity in the Uzbek and American-Asian literatures of 30-90 years. The search for general theoretical and specific criteria for classification is based on the study of various aspects of a literary work and their representation.

Key words: cultural identity, multiculturalism, Asian-American prose, border consciousness, hybrid language.

Концепци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ализма имеет основу стремления каждого этноса сохранения своих традиций и своих особенностей в рамках единой культуры. Мультикультурализм не является характерной чертой только для того «плавильного котла» как США. Эта тенденция для современных

---

[39]"Wegens de extreme droogte in de jaren 1660, 1661 en 1662 heerste er voedselgebrek, zodat de gouverneur ons niet ons maandelijks rantsoen kon geven. Daarom verdeelde de koning ons over drie plaatsen: in **Chwasuyong** twaalf maats, in **Sunchon** vijf en in **Namman**eveneens vijf." Hamel, ibid, The chapter 8.

[40]"9. Hoe werden jullie na de schipbreuk door de Koreanen behandeld?: Wij werden goed behandeld. Men verschafte ons onderdak, wij kregen te eten en te drinken."Hamel, ibid, p.51.

[41]"7. 당신의 (배에는) 어떤 화물이 있었으며, 그 화물을 어디로 가져가려 하였나요?: 우리는 사슴의 가죽과 설탕 알룸(?) 외에 다른 화물(貨物)들이 있었습니다. 이 화물들을 싣고 일본으로 가려하였습니다. 이 당시 데시마현의 총독은 코옛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7.Wat voor lading hadden jullie aan boord en wat was de bestemming hiervan? : Wij waren geladen met hertevellen, suker, **aluin** en andere goederen. De bestemming hiervan was Japan. **Destijds** was de heer **Coijet** regerend opperhoofd te Decima)". Hamel, ibid, p. 51.

мобильных процессов Запада и Востока. Каждый из народов старается сохранить национальн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ментальность, что выражено в национальных литературах. Известно, множество исследований в области женско-китайской, индейской, ев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 США. Аналогичные процессы недостаточно изучены в рамках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й содержанию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по форме литератур Средней Азии (узбекской). Эта проблема имеет глубокие корни и идеологическую парадигму, четкие временные рамки 30-80 годы XX века.

В указанный период в узбек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появляются узбекские прозаики создающие новые жанры: роман, очерк и т.д. Их герои Кадыри, Каххар, Г.Гулям, Х.Гулям, П.Кадыров. В поис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герои названных авторов проходят через этническог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творческого самоопределения, как наиболее важные этапы становления личности. Эта проблема подчеркивает новый взгляд на узбекскую прозу с позиций культурологии и лингвокультурологии.

Актуальность наше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определяется возросшем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 независимом Узбекистане интереса к проблемам идентичности и национально - этнического самоопределения личности. Известно, что США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в котором расовое и этническое самоопределение всегда являлось одной из наиболее актуальных проблем, считаем важным обратиться к американским трудам в области социологии культурологии и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я. Казалось бы, данная тема является парадоксом. Но как не странно, XX век сделал эксперимент с четким разделением «Запад - есть Запад, Восток- есть Восток». Мощный приток эмигрантов в США, превращая страну в модель пресловутого «плавильного котла» культур, впоследствии породит философию «мультикультурализма». Все составляющие национальных культур и литератур будут тяготеть и к собствен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и в то же время хотят ассимилироваться в единую культуру США.

Узбек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XX века обладала внутренним разломом после революции 1917 года, утверждением общего стандарта для произведения, которое должно быть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м по содержанию, национальным по форме». В обществе произошло не просто столкновение двух разных культур, но и разных идеологий, как бы духовная иммиграция в другую страну, с иным социальным строем, хотя с родным языком. Этот разлом был осмыслен и породил те же проблемы в узбек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60-90годов XX века. В СССР было понятие «советская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ая литература». Предполагалось, что литература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языке будет отражать проблемы социальные и идеологические в рамках всеобщего направления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й реализм». Социальное должно было доминировать над национальное. Этот дисбаланс был закреплен в узбекской прозе в передаче традиций и ритуалов через сюжет, в котором задействована восточная нравственная «вертикаль»: дед и внук. Но проблема этнической самоиндентификации, которая столь яростно ощутима в прозе указанного периода, к сожалению, остается мало изученной.

Е.М.Постникова пишет: «Позже всех выделилась азиатско-американ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Она определялась как произведения писателей «азиат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которые родились в США или эмигрировали в Северную Америку» [Постникова 2012: 30]. Известно, что в США указа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не просто существует как полноценная, (антологии под редакцией Шерли Джеок Лин Лим и Маюми Цутахава «Обретенный дом: Азиатско-американская жен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1990), но и тщательно изучается (книга Элейн Ким «Азиатско-американ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Бутенина 2006: 45].

С целью дать развернутый анализ прозы узбекских авторов указанного периода наиболее отражающей этническую специфику творчества Кадыри, Каххар; исторических романов Пиримкул Кадырова, Айбека; гендерные проблемы Каххар,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произведения с их этнической специфики, с позицией лингвокультурологии, когнитивного литературоведения. Прослеживается развит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тематики отцы и дети, сохран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в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романах Х. Гулям, Ш. Рашидова. Изучается проблема самоидентификации как эволюции героя 30-40-50-60-70-80 годов.

На рубеже XX - XXI веков в литературном процессе США выделенная азиато - американ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определяется как произведения писателей азиатско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которые родились или эмигрировались в Америку. Последние десятилетия XX века изданы несколько антологий, включая антологию азиато-американской женской литературы, что подчеркивает не единичность произведений. Основными проблемами, которые объединяют азиато-американскую и узбекскую литератур являются: проблема отцов и детей (традиции и новой жизни на уровне идеологии, быта, изменение гибридного языка), ментальности. Разрыв между традиционной культуры и новым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им миропорядком - основа конфликта. Конфликт поколений родителей эмигрантов и детей - уроженцев США, ставших настоящими американцами, характеризуют любую этническую литературу Америки. Пограничное сознание, две ментальности, освоение новых профессий, эмансипация есть характеризующие черты узбекской совет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о женщине. Поэтому

ключевая проблема эпохи мультикултурализма становится изучения гибрид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героини Эми Тан или Саиды из повести Каххара «Птичка - невеличка»). Поэтому подчеркивая «азиатский» акцент в современной литературе США, мы имели ввиду аналогичный «советский» акцент в узбек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30- 80 годы XX века. Принятый в новую языковую и культурную среду писатель - эмигрант сохраняет в своём сознание национальные культур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родины предков. Стремительное политико-индустриальная ломка в Узбекистане приводило к созданию языкового микса (остаются хашар, кишлак, но появляются трактор, бригадир ит.д.).

В 60-е годы XX века в узбек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появляются писатели билингвы Тимур Пулатов, Тимур Зулфикаров, которые создают произведения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оставляя главной: тема семьи, национальные традиции. Если проблемы мультикультурализма в американ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развиваются, то данная проблема в узбек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мож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с позиций истории. Эволюция идеи этническ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формирования идентичности в идеологическ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современного Узбекистана требует глубокого изучения. В рамках нашего исследования не будет подчеркнуто, понятия навязан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а напротив, возникает желание исследовать проявлени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в условиях диктата социалистического реализма.Соглашаясь Стюартом Холлом, который в статье Question of cultural identity подчеркивает, что культурную идентичность следует искать в диалог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между непрерывностью истории и её постоянными изломами. 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XX века выраженная в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прозе есть феномен гибридной пограничной идентичности человека XX века.

Список литературы:

1. Постникова Е.А. Азиато-американ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пути исследования СПб.: Реноме, 2012.
2. Бутенина Е.М. гибридная идентичность как литературная проблема: на материале-китайско-американской женской прозы XX века. М., 2006.
3. Тлостанова В.М. проблема мультикультурализма и литература США конца XX века. М., 2000.

ABOUT HYE CHO, THE AUTHOR OF WANG-OH-CHEON-CHUK-GUK-JEON

Cha, Chung-hwan (Kyung Hee Univ. Korea)

Wang-Oh-Cheon-Chuk-Guk-Jeon (Memoir of the Pilgrimage to the Five Regions of India) is written by Hye Cho after he went to India. *YiQieJingYinYi* is a book on the meaning of the vocabulary contained in Buddhist scriptures. The "Hye Cho Wang-Oh-Cheon-Chuk-Guk-Jeon" is recorded in the *YiQieJingYinYi*. And French scholar Paul Pelliot (1878-1945) found a copy of the scroll written in Chinese in Chinese Dunhung. As a result, the "Hye Cho Wang-Oh-Cheon-Chuk-Guk-Jeon" and a copy of the scroll were the same. The name "Hye Cho" appears in Chinese document. And he was a disciple of Vajrabodhi (671-741) and Amoghavajra (705-774), an Esoteric Buddhism monk. In another document, there is a record called "Shilla Hye Cho." Based on these records, Hye Cho, a native of Shilla (One of the Ancient Countries of Korea), was regarded as a person who wrote *Wang-Oh-Cheon-Chuk-Guk-Jeon*.

However, it is doubtful whether "Hye Cho" in the document and "Hye Cho" of "Hye Cho Wang-Oh-Cheon-Chuk-Guk-Jeon" are the same person. This is because there is no reason to tell whether two people are the same person. Also, I doubt whether Hye Cho is a Shilla person. This is because the name "Hye Cho" does not appear in the pre-modern Korean document at all.

In particular, it is strange that a priest Il Yeon (1206-1289) who wrote the *Samguk Yusa* (Memorabilia of the Three Kingdoms) did not mention Hye Cho. Il Yeon knew that Hye Cho was Shilla person, and if he had seen *YiQieJingYinYi*, he clearly left a record of Hye Cho. Because it is very important that Hye Cho has gone to India and recorded the experience. *YiQieJingYinYi* is in the Tripitaka Koreana. And Il Yeon clearly read the Tripitaka Koreana. The evidence is shown in *Samguk Yusa*. If so, Il Yeon is likely to have known *YiQieJingYinYi*, and possibly "Hye Cho Wang-Oh-Cheon-Chuk-Guk-Jeon" in it. If Il Yeon saw "Hye Cho Wang-Oh-Cheon-Chuk-Guk-Jeon" and Hye Cho was a Shilla person, then Il Yeon would have left a record of Hye Cho. But Il Yeon did not mention Hye Cho at all. Choe Chi-Won (857-?) is person who went to study in the Tang Dynasty of China and wrote many books. Among his books, there are many biographies of eminent priests. But there is no record of Hye Cho. In addition, none of the pre-modern Korean scholars wrote Hye Cho. For this reason, Hye Cho may not be a person of Shilla. At present, Chinese and Chinese scholars regard Hye Cho as Chinese.

『왕오천축국전』의 저자 '혜초'에 대하여

1. "惠超往五天竺國傳"

당나라 慧琳(737-820)이 817년에 찬술한 『一切經音義』를 보면, 권100에

"惠超往五天竺國傳上卷"이라는 제목을 달고 그 아래 39개의 어휘에 대해 뜻풀이를 한 기록이 보인다. 이어서 "中卷"이라는 표기 아래에 18개, "下卷"이라는 표기 아래에 28개의 어휘와 뜻풀이가 각각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一切經音義』의 목록에는 "慧超傳"이라고 적혀 있다. '慧'와 '惠'를 혼용한 것이다.[42]

한편, 상기 85개의 어휘 중, 중권의 4개, 하권의 13개가 펠리오(P. Pelliot)가 1908년에 돈황 천불동에서 발견한 두루마리 한문필사본에 동일한 배열순서에 따라 그대로 나타나고 있어, 이 '두루마리 한문필사본'이 『일체경음의』에 기록된 "惠超往五天竺國傳"과 동일한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해당 '두루마리 한문필사본'은 앞뒤가 결락된 殘卷이고 또 不分卷으로 되어 있어, 원본과는 다르다. 이것을 학계에서는 대체로 원본의 절략본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재 한국 학계에서는 해당 두루마리 잔권본을 '신라 승려 혜초가 지은 왕오천축국전'으로 지칭한다.

2. '慧超'의 국적

1)'혜초는 신라인'이라는 통설[43]

혜초가 신라 사람이라는 것은 현재 통설로 굳어졌다. '혜초→신라인'의 과정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 과정에서 첫째로 주목한 것은 현존 잔간본 후반부에 등장하는 "開元十五年十一月上旬 至安西 叉時節度大使趙君"이라는 구절이다. 혜초가 귀로 중, 727년(개원15) 11월 상순에 안서에 도착했다는 것과, 이때 안서도호부의 절도사가 '조군'이었다는 것이다. 727년 무렵, 이곳 안서도호부의 절도사가 조군, 즉 趙頤貞이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이 기록으로 인해 '혜초'라는 인물이, 몇 살이었는지는 모르나, 727년 즈음에 순례를 거의 마치고 唐으로 귀국하던 중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44]

둘째로 주목한 것은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대교왕경』으로 약칭)이다. 이 경전에는 서문이 붙어 있는데, '慧超'가 780년 5월 5일에 쓴 것이다. 이 서문에는 혜초의 행적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일부 나타난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733년-740년: 스승 金剛智(Vajrabodhi, 671-741)와 『대교왕경』을 연구함.
㉡ 773년: 금강지의 제자인 不空(Amoghavajra, 705-774)으로부터 『대교왕경』의 강의를 받음.
㉢ 唐 代宗 때 「賀玉女潭祈雨表」를 지어 올림.
㉣ 780년: 五臺山 乾元菩提寺에 들어가 경전 번역.

이 자료를 통해, '혜초'라는 인물은 금강지와 불공의 수학을 받은 밀교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부지불식간에 『대교왕경』 서문에 등장하는 이 '혜초'와 727년에 안서도호부를 경유했던 순례자 '혜초'가 동일 인물로 간주되었다. 즉, '왕오천국전의 혜초=금강지/불공의 제자 혜초'라는 등식이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이름만 같을 뿐, 동일인이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

세 번째로 주목한 것은 당대 밀교 최전성기의 중요 문헌인 圓照의 『代宗朝贈司空大辦正廣智三藏和尚表制集』(『표제집』으로 약칭)이다. 1915년, 일본학자 다카쿠스 준지로(高楠順次郎)는 『표제집』에 수록되어 있는, 대력 9년(774) 不空이 입적할 때 남긴 아래의 유서를 소개하면서 금강지/불공의 제자 '혜초'가 신라 사람임을 주장했다. 아래 인용문의 "新羅慧超"에서 '新羅'를 '慧超'의 출신지로 본 것이다.

> "내가 지금까지 30여년 동안 밀교의 비법을 전해 제자가 제법 많다고 할 수 있다. 五部의 율법을 닦아서 일가를 이룬 제자만도 여덟 명이 되었으나, 차례로 입적해서 이제는 여섯 명만이 남아 있을 따름이다. 그들이 누구냐 하면 금각사의 함광, 신라의 혜초, 청룡사의 혜과, 숭복사의 혜랑, 보수사의 원교와 각초이다. 후학들 가운데서 의문에 부딪치는 자가 생기면 너희들이 계시해서 法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요, 그로써 나의 法恩을 갚을지어다."(吾當代 灌頂三十餘年 入壇授法 弟子頗多 五部琢磨 成立八箇 淪亡相次 唯有六人 其誰得之 則有金閣含光 **新羅慧超** 青龍慧果 崇福慧郎 保壽元皎覺超 後學有疑 汝等開示 法燈不絶 以報吾恩)

다카쿠스의 상기 주장으로 '『왕오천축국전』의 저자 혜초는 신라인이다'라는 것이 굳어졌다.

여기에 더하여 혜초가 신라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잔권본에 쓰여 있는 五言詩 중 "誰爲向林飛"라는 시구를 들기도 한다. 이 중에서 '林'을 '鷄林'(신라)으로 보는 것이다.

2) '혜초는 신라인이라는 통설'에 대한 몇 가지 의문

---

[42]'慧'와 '惠'를 혼용한 사례는 흔하게 발견된다. 대표적으로 일연은 『삼국유사』 권4, 「義解」, <歸竺諸師>에서, 당나라 義淨(635-713)의 『대당서역구법고승전』을 인용하여 渡竺 순례 경험이 있는 신라승을 언급하면서 '慧業', '慧輪'을 각각 '惠業', '惠輪'으로 표기하고 있다.

[43] 이 부분에서 정리한 내용은, 정수일 역주, 「혜초와 『왕오천축국전』」, 『혜초의 왕오천축국전』(학고재, 2004)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44] 이 기록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727년과 근접한 시기에 생존했던 '혜초'라는 인물을 찾아야 한다는 전제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첫째, '혜초'라는 이름이 한국의 역대 전적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 특히 『삼국유사』의 편찬자 一然(1206-1289)의 언급이 없다는 점이 이상하다. 일연은 "惠超往五天竺國傳"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惠超往五天竺國傳"의 어휘풀이가 실려 있는 『일체경음의』의 유전 과정을 먼저 살펴봐야 한다.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일체경음의』는 1090년 義天(1055-1101)이 간행한 『新編諸宗敎藏總錄』에 그 이름이 등재된 것으로 보아, 늦어도 1090년 이전에 고려에 유입되었다.

㉡ 『일체경음의』는 고려 고종 23년(1236)부터 38년(1251)에 걸쳐 완성된 『再雕大藏經』(강화경판 고려대장경/팔만대장경)에 처음으로 편입되었다.[45]

만약 일연이 고려대장경을 보았다면, 그 권말에 수록된 『일체경음의』도 보았을 것이고, 아울러 『일체경음의』 수재 "惠超往五天竺國傳"의 존재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특히 『일체경음의』는 佛典 1300여권 속에 있는 어려운 자구들을 풀이한 音義類 저서이기 때문에, 일연이 충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고려의 閔漬(1248-1326)가 찬술한 「普覺國尊碑銘」을 보면, 일연에 대해 '대장경을 열람하고 諸家의 章疏를 깊이 연구하였다', '1268년 여름에, 雲海寺에서 대장경 낙성법회를 관장했다', '編修한 책으로 『大藏須知錄』 3권이 있다' 등의 기록이 있는 바, 이를 통해 보면 일연은 대장경을 잘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일연이 '강화경판 고려대장경'을 보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삼국유사』에 나타난다. 『삼국유사』 권4, 「의해」, <歸竺諸師>는 "廣函求法高僧傳云…"으로 시작되는데, 이 중에서 '求法高僧傳'은 의정의 『대당서역구법고승전』을 가리키고, '廣函'은 고려대장경의 분류 기호이다. 고려대장경은 천자문의 글자순에 따라 편제되었는데, '廣函'이라 함은 '廣'字 函을 뜻하고, 고려대장경의 '廣'字 函 속에 『대당서역구법고승전』이 들어 있다는 뜻이다. 요컨대, 일연은 다름 아닌 고려대장경을 통해 『대당서역구법고승전』을 본 것이다. 『삼국유사』 권4, 「의해」, <圓光西學>에서도 일연은 『속고승전』에 있는 원광의 사적을 정리하여 소개한 뒤, 그 말미에 "達字函에 실려 있다"라고 細註를 적어 놓았다. 고려대장경의 '達'字 函에 들어 있는 『속고승전』을 봤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경로와 방법으로, 일연은 고려대장경 속의 『일체경음의』, 그 속의 "惠超往五天竺國傳"을 보았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혜초가 신라인이었다면 일연은 혜초에 대해 분명히 언급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혜초에 대한 그 어떤 기록도 찾아볼 수 없다.

둘째, 최치원도 혜초를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최치원은 당에 유학을 가서 18년가량 체류하면서 많은 글을 지었다. 그 중에는 불승의 전기도 여러 편 있다. 만약 혜초가 신라인으로서 서역 순례를 하였고, 돌아와서는 『일체경음의』에 등재할 만한 기행문을 남겼다면, 최치원으로서도 그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셋째, 상기 인용한 不空의 유서 내용에 대한 의문이다. 인용문의 줄친 부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혜초 외에 다른 승려들의 이름 앞에는 사찰 이름이 적혀 있다는 특징이 있다. 여기서 '혜초' 앞의 '신라'라는 말이 신라국을 지칭하는 것이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또 하나는, 慧果와의 나이 차이이다. 혜과(746-805)는 不空의 으뜸 제자로서, 당나라 대종, 덕종, 순종 3대 황제로부터 국사로 존중받았던 밀교의 수장이었다. 일본의 弘法大師 空海(774-835)도 805년에 혜과로부터 밀교를 전수받은 바 있다. 그런데 不空의 같은 제자로서 나이 차이가 너무 크다.

혜초의 나이 추정은 전적으로 不空의 제자 '혜초'와 "惠超往五天竺國傳"의 '혜초'가 동일인이고, 그 '혜초'가 727년에 안서에 도착했다는 기록에 의거한다. 안서에 도착한 727년 때 혜초의 나이를 25세-30세 정도로 보면[46], 혜초의 생몰년대는 대략 '700년 즈음 탄생-780년 무렵 입적'으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혜초는 스승인 不空보다 나이가 더 많고, 불공의 동반 제자였던 혜과보다는 거의 40년 이상 연장이다. 과연 혜과(746-805)와 혜초(700?-780?)가 동시기에 不空의 수하에 있었을까? 아니면 생몰년대가 혜과와 비슷한 '혜초'라는 인물이 따로 있지 않았을까?

넷째, 727년 무렵에 '혜초'라는 이름의 승려가 여러 명 존재했다고 전해진다. 이를 근거로 중국학자 중에는 '왕오천축국전'의 저자 '혜초'를 당나라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있다.[47]

다섯째, 전언에 의하면, 중국, 아프카니스탄, 타지키스탄 국경 부근의 공주보 앞에, 법현, 현장, 혜초의 經行處碑가 나란히 서 있는데, 혜초의 비석에 "大唐和尙慧超經行處"라고 새겨져 있다고 한다. '당나라 스님 혜초가 지나간 곳'이란 뜻이다.[48]

---

45 이상 ㉠과 ㉡은 南東信, 「慧超 『往五天竺國傳』의 발견과 8대탑」, 『동양사학연구』 111집, 2010, pp.1-11을 참조함.

46 주요 고승들의 도축 순례 시점을 보면, 玄奘은 28세 때 순례를 시작했고, 義淨은 37세 때 서역으로 떠났다. 또한 의정이 인도에서 만난 신라승 慧輪은 30세 전후에 도축한 것으로 보이고(의정이 혜륜을 만났을 때, 혜륜은 40여세였음), 『佛國記』를 남긴 法顯은 60대에 도축했다.

47 자세한 것은 朴現圭, 「慧超 인물 자료 검증」, 『한국고대사탐구』 4집, 2010 참조.

48 고태규, 『실크로드 문명기행』 1, 한림대학교 출판사, 2015.

여섯째, 앞서 언급한 "誰爲向林飛"의 '林'을 '鷄林'(신라)으로 보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생각된다.

잔간본 왕오천축국전에는 5수의 시가 삽입되어 있다. 그 중, '新頭故羅國'에 이르렀을 때 지은 시에는 배경이 기록되어 있다. 혜초가 신두고라국의 어느 절에 가서 들은 것으로서, 내용인즉 과거에 중국 출신의 한 승려가 이 절에 있었는데, 三藏의 성스러운 가르침을 습득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병이 나서 그만 입적했다는 것이다. 혜초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 상심하여 율시 한 수를 지었다. 1행, 7행, 8행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향의 등불은 주인을 잃고 故里燈無主
그 누가 고향 가는 길 알리오. 孰知鄉國路
흰구름만 덧없이 떠돌아가네. 空見白雲歸[49]

이 시는 중국인 승려에 대한 추모시에 해당하는바, 역시 '향수'가 시심의 핵심이다. 또한 혜초는 토화라에서 호밀국으로 이동할 때, 마침 이역으로 들어가는 중국 사신을 만난 후 시 한 수를 지었다. 1-2행, 7-8행을 옮겨보면 다음과 같다.

그대는 서쪽 이역이 멀다고 원망하고 君恨西蕃遠
나는 동쪽 길이 멀다고 탄식하노라. 余嗟東路長
평생 눈물을 훔쳐본 적 없는 나건만 平生不揩淚
오늘만은 하염없는 눈물 뿌리는구나. 今日灑千行[50]

이 역시 중국인을 향한 애잔한 마음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마치 객지에서 고국 사람을 만나 잠시나마 회포를 나누는 장면을 연상시킨다.

결론적으로, 위의 두 수뿐만 아니라, 5수 전체를 보더라도, 신라, 계림이 환기되는 작품은 없다고 본다.

НОВЕЛЛАДА ИЖТИМОИЙ ҲАЁТ АКСИ
(Қорақалпоқ адабиёти мисолида)

Камалова Д.Э., ҚарДУ докторанти

Abstract: In the article a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genre of novel and its peculiarities. There are experts' viewpoints about the genre. In addition, novels of local and world writers are analyzed. What is more, various works in Karakalpak literature belonging to the novel genre have been diversely investigated. Furthermore, problems concerning artistic skills in works of modern karakalpak novel writers are discussed and analyzed.

Key words: novel; genre; literature; writer; work; exponent; narration; event; human; incident; investigation; feature; term; writing; view.

Маълумки, новелла жанри адабиётшунослик илмидаги энг кичик жанрлардан ҳисобланади. Бу жанрдаги асарларда ижтимоий ҳаётдаги воқеа ва ҳодисалар ҳикояга қараганда қизиқарли ва қисқа баён этилади. Унда қаҳрмонлар ўртасида кескин конфликт, психологик кечинмалар, драматизм билан воқеаларнинг якунланиши ва кутилмаган ечим берилиши бу жанрнинг ўзига хос хусусиятларидандир. Адабиётшунос В.П.Скобелев: «Новеллада ёзувчи қаҳрамонлар ҳаётидан ғаройиб воқеани кўрсатмоқчи бўлади, ҳикояда бу айнан одатий ҳолга, яъни ҳар куни ҳаётда бўладиган нарсага эътибор қаратилади» - деб новелла ва ҳикоя ўртасидаги жанрий ўзига хосликларни белгилаб беради [Скобелев 1982: 51]. «Жанр сифатида новелла қуйидаги белгиларга эга бўлиши: а) конкрет шахс хаётига оид воқеаларни ихчам, бадиий жиҳатдан мукаммал шаклда акс эттириши; б) асардаги персонажлар миқдори ўта шегараланган бўлиши ва щунда ҳам эпик баённинг бир персонаж билан боғлик бўлиши; в) новелладаги сюжетнинг кутилмаган бошлама ва ечимларга, кескин драматик таранглikka эга бўлиши; г) кичик ҳажмда катта даврга хос асосий хусусиятларни сиғдира олиши ва шунга мос ҳолда лўнда баён этиши; д) кўпинча асарни бир муҳим деталь асосига қуриши лозим» [Ҳотамов Н. ва б. 1979: 204]. Мазкур жанр буйича тадқиқот ишларини олиб борган хорижий олимлардан Е.М.Мелетинский, И.А.Виноградов, Г.Н.Поспелов, Н.Я.Берковский, М.Н.Бент ва маҳаллий тадқиқотчилардан А.Тошпўлатов ва бошқалар новелланинг жанрий хусусиятлари, услубий жиҳатларини ва бошқа кичик жанрлардан фарқини таъкидлаб ўтади. Эътиборли томони шундаки, новелла жанрида ижтимоий ҳаётда юз берган реал воқеа ва ҳодисаларнинг кескин ўзгариши,

[49] 정수일, 앞의 책, pp.230-231.

[50] 정수일, 앞의 책, pp.406-408.

ғаройиби танлаб олинади ҳамда қисқа ёритилиб берилади. Жанр ушбу жиҳатлари билан адабиётдаги бошқа жанрлардан алоҳида ажралиб туради.

Қорақалпоқ адабиётида новелла жанрининг пайдо бўлиши ўтган XX асрнинг 70-йилларига тўғри келадиган бўлса, бугунги кунга келиб эса қорақалпоқ новеллалари ғоявий-тематик, жанрий ва услубий жиҳатдан ҳар томонлама шаклланди ва ривожланди. Албатта, адабиётда пайдо бўлган ҳар бир янги жанрдаги асарларнинг ривожланиши иқтидорли ёзувчиларнинг ижоди ва изланишлари билан тиғиз боғлиқ амалга ошириладиган адабий жараён ҳисобланади. Бунга яққол мисол сифатида қорақалпоқ адабиётида новелла жанри бўйича илк маротаба қалам тебрата бошлаган ва мазкур жанрда узлуксиз ижод қилиб келаётган Алписбой Султанов, Марат Таумуратов, Кенес Смамутов, Ўмирбой Утеўлиевларни алоҳида келтириб ўтиш жоиз. Шунинг билан бирга, Минойхан Жуманазарова, Бозорбой Есмурзаев, Ҳурлиман Утемуратова, Гүлайим Турсинова, Гулнора Ибрагимова каби ёзувчиларнинг ижодида новелла ёзишга бўлган кучли иштиёқ кўзга ташланади. Ушбу ижодкорлар томонидан яратилган новеллаларни таҳлил қилар эканмиз, уларни ўз тажриба ва маҳорати ҳамда услубидан келиб чиққан ҳолда жанрнинг ўзига хос хусусиятларини очиб берганлигини кўриш мумкин. Масалан, А.Султановнинг «Новеллалар» (2008) номли китобига киритилган бир қанча асарларида ижтимоий ҳаёт акси қаҳрамонларнинг ички кечинмалари ва тақдирига боғланган ҳолда ёритилган. Муаллифнинг «Оқибат» («Ақыбет»), «Жазо» («Жаза»), «Қўрқитиш» («Қорқытыў»), «Тарбия» (Тәрбия) сингари новеллаларида ижтимоий ҳаётдаги оила, фарзанд тарбияси, ота-она ва жамият ўртасидаги муаммолар акс эттирилган бўлса, «Ёмғирдан сўнг» («Жаўыннан соң»), «Ойли оқшом» («Айлы ақшам»), «Аёл муҳаббати» («Ҳаял муҳаббаты») каби новеллаларида инсонларнинг бир-бирига бўлган меҳр ва садоқати, ишончи тасвирланган. Асар сюжетидаги қарама-қаршиликлар, кескин бурилишлар ва кутилмаган ечимнинг берилиши ўқувчида теран тасир қолдиради. «Новеллаларда эса конфликт шиддатли тус олади. Ўткир конфликтларсиз ҳам ҳикоялар яратилиши мумкин, лекин новеллалар яратилмайди. Новеллалар структурасидаги бешта асосий хусусият уни ҳикоялардан ажратиб туради: а) кутилмаган бошлама; б) кескин бурилиш; с) конфликтлилик; д) саҳнавийлик, драматизм; г) кутилмаган ечим. Мазкур хусусиятларни ўзида мужассам этган ҳикояларни новелла жанрига киритиш мақсадга мувофиқ» [Тошпўлатов 2018: 21]. Умуман, А.Султанов новелларарида ижтимоий ҳаётнинг асосий воқеа ва ҳодисалари акс эттирилган. Ёзувчи авваллари ёритилмаган мавзуларни тасвирлаб, ўз қарашларига асосланиб ечим беради.

Таҳлиллар шуни кўрсатадики, бугунги кун қорақалпоқ насрларида ёзувчи маҳорати асардаги сюжетни ривожлантириш, кўчайтириш учун ундаги конфликт ва қаҳрамон психологиясини жонлантириб тасвирлашида намоён бўлади. Бундай маҳоратлилик қорақалпоқ адабиётида таниқли ёзувчи М.Таумуратов новеллаларидан яққол кўриш мумкин. Улар жанрий ва бадиий жиҳатдан бир қанча хусусиятларга эга. Ёзувчи биринчидан, новеллаларига мавзу танлашда, иккинчидан, сюжет ва композицияни шакллантиришда, учинчидан эса ғоявий-тематик хусусиятлари билан бошқалардан ажралиб туради. Шунинг билан бирга, муаллиф қаҳрамонларнинг руҳий-психологик ҳолатларини, ички кечинмаларини маҳорат билан тасвирлаш истеъдодига эга. Масалан, унинг «Турмушнинг иккинчи қонуни» («Турмыстың екинши нызамы»), «Йўл четидаги кўланка» («Жол шетиндеги көлеңке»), «Жолли» (Жоллы), «Бир тақдирнинг иши бу…» («Бир тәғдирдиң иси бул…»), «Ёлғизлик салмоғи» («Жалғызлық салмағы»), «Тирикчиликнинг биринчи формуласи» («Тиришиликтиң биринши формуласы»), «Тақдир йўлларининг кесишмаси» («Тәғдир жолларының кесиспеси») ва бошқа новеллалари ҳаёт ҳақиқатини аниқ тасвирлаши ва инсонларнинг ички кечинмаларини, руҳий ҳолатларини кучли ҳиссиётлар орқали очиб бериши билан ўқувчида ижобий таассурот қолдиради.

Хулоса қилиб айтганда, қорақалпоқ адабиётида новелла жанрининг пайдо бўлиши ва мазкур жанр имкониятлари натижасида иқтидорли ижодкорларнинг пайдо бўлишига сабаб бўлди. Новеллаларда ижтимоий ҳаёт воқеалари ҳикояга қараганда жуда қисқа лаконизмга асосланган бўлиб, унда инсон қалбидаги ички кечинма ва ҳис-туйғулар кўпроқ теран лиризм орқали берилган ва кутилмаган ҳодисалар акс эттирилган. Шунингдек, воқеалар ечими аниқ кўрсатиб берилиши билан алоҳида аҳамиятга эга.

Фойдаланилган адабиётлар рўйхати

1.Скобелев В.П. Поэтика рассказа. – Воронеж. ВГУ. 1982. 155 с.

2.Султанов А. Новеллалар. Нөкис «Билим». 2008. 244 бет.

3.Таўмуратов М. Қысқа роман. (гүрриңлер, новеллалар). Нөкис, «Қарақалпақстан», 2004. 44 бет.

4.Тошпўлатов А. Ўзбек адабиётида новелла жанри ва унинг бадиияти (А.Қаҳҳор, Ш.Холмирзаев, Н.Эшонқул ижоди мисолида): Филол. фан. буйича фалс. док. (PhD) дисс. автореферати. – Самарқанд. 2018. 50 бет.

5.Хотамов Н., Саримсақов Б. Адабиётшунослик терминларининг русча-ўзбекча луғати. – Т.: Ўқитувчи, 1979. 365 бет.

THE MUDDLE MOUNTAINS THAT MAKE PEOPLE EQUAL AND COMFORTABLE

Lim, Jun-sung (Kwangju Women's Univ. Korea)

Enough to remind us of the Buddha country past Mudeung mountain has existed in many temples. War of devastation old look thanks mostly disappeared. Through poetry from left poems lighting Mudeung-mountain as it is not difficult Located in Mudeung mountain. Gyubong temple of Buddha sculptures, and the rocks of the beautiful scenery blessed with an enviable matching work took a major hit. Expect many temples centered poets perform stunning scenery in the shipment polishing the Jeungsim-temple. The poetry of monks mingled with the monks do not exist Wonhyo temple reveals indirectly through meeting of the Chapter. This religious and non-religious timeless as you can see I've been role. Mudeung mountain inspections of such information is not a unique characteristic. Just Mudeung mountain as how handed down came on the Buddhist temples Section English poetry through the image to look is the purpose of the study.

And discuss the scope is limited to the current reality and Mudeung mountain temples that just has a limit. Later date to widen the scope of our temples of poetry, including aspects Mudeung mountain temples of poetry exists through comprehensive aspects expected to be seen.

Key word : Mudeung mountain, temples of poetry.

平等安民指向의 無等山

無等山은 호남을 대표하는 산으로 현재 광주광역시와 담양군 그리고 화순군에 걸쳐 분포하고 있다. 산 높이는 해발 1,187m에 이른다. 무등산은 瑞石山으로도 같이 부르면서 오랜 세월동안 광주의 鎭山이자 神山으로서 정신적인 지주노릇을 해왔다.

無等이라는 이름이 말하는 것처럼 무등산은 '차별없는세상'을 꿈꾸는 불국토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다. 본고는 옛 선인들이 무등산에 소재한 사찰을 제목으로 삼아 지은 시문을 대상으로 하여 사찰 속에 드러난 무등산의 이미지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무등산과 관련한 연구는 鄭珉[51]에서 비롯되어 金大鉉[52], 朴明姬[53] 등에 의해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 정민은 '무등산'의 명칭과 원초적인 이미지 속에 담긴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등산 시문에 대한 첫문을 열었다. 이어 김대현은 20세기에 창작된 산수유기류를 통해 시가 아닌 산문자료를 통해 논의를 이어갔다. 박명희는 조선조 문인들의 한시문을 대상으로 하여 시적형상화 과정을 살피고 있으나 사대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고에서 대상으로 삼은 사찰제영시는 동국대학교에서 발행한 『韓國佛敎全書』와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발행한 『古典國譯叢書』과 『韓國文集叢刊』 등을 대상으로 했다. 무등산 사찰제영시에 대한 조사결과만으로 승려시인 6인의 9편, 사대부 시인 21인 46편이 수습되었다. 승려층에 비해 사대부층이 훨씬 많은 점이 특색이다.

최근 학계에서 사찰제영시와 관련하여 일련의 연구경향은 꾸준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한문학 유산에 대한 다각적 접근 시도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경향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불교문학의주제적론소재론적 접근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우리 한시의 연구경향이 詩論과 作家論的 중심에서 치우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특정한 주제와 소재의 형상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본고는 무등산이 불교의 평등안민지향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문헌상 무등산은 『三國史記』에서 '武珍岳'으로 처음 등장한다. 통일신라시대에 五嶽三山神에 대한 祭儀로써 무등산신을 위한 제전형식을 小祀로 정했다는 내용[54]이다. 이후 『世宗實錄地理志』[55]와 『新增東國輿地勝覽』[56] 그리고 『東史綱目』[57]에서도 '무진악'이란 이름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

[51] 정 민,「한문학 유산 속에 기려진 무등산의 표상-산수유기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 21, 한국한문학회, 1998.

[52] 김대현,「20세기 무등산 유산기 연구」, 『한국언어문학』 46, 한국언어문학회, 2001.

[53] 박명희,「조선조 문인의 무등산 유람과 시적 형상화」, 『동방한문학』 46, 2011.

[54] 『三國史記』 권32.

[55] 『世宗實錄地理志』 全羅道. "無等山 一云武珍岳 一云瑞石山 在武珍 豐厚高大 新羅爲小祀 高麗致國祭 本朝令州官行祭."

[56]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5. 光山縣. "無等山 在縣東十里 鎭山 一云武珍岳 一云瑞石山 穹窿高大 雄盤五十里 濟州漢拏

'岳'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경우에는 대개 크고 영험함을 뜻한다. 이처럼 초자연적인 힘의 의지하여 나라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했다는 것은 무등산을 신적인 대상으로까지 높여 숭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후 『高麗史』, 「樂誌 俗樂」條에 이르면 백제시대의 노래로 추정되는 다섯 곡의 노래 「방등산가」, 「정읍」, 「선운산곡」, 「지리산가」, 「무등산가」 등이 등장한다. 노래의 가사가 전하지 않지만 배경설화를 통해 이들 작품의 성격을 유추할 수 있다. 다른 작품이 남녀 또는 부부의 감정을 노래하고 있는 반면에 「무등산가」는 성을 쌓아 편안한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 차별성을 가진다.

> 무등산은 광주의 진산이다. 광주는 전라도에 있는 큰 고을이다. 이 산에 성을 쌓으니 사람들이 의지하여 편안해지자 이 노래를 지어 불렀다.[58]

「무등산가」의 배경설화에서 전란의 참상을 극복하려는 백제인들의 간절한 소망과, 무등산을 정신적인 의지처로 삼고 있ㅇ一을 알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無等山曲」[59]으로 이름이 바뀌어 등장하나 『高麗史』의 기록과 내용이 유사하다. 그밖에 조선 후기 때의 문인 息山 李萬敷(1664-1732)는 무등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 무등산은 무진 동쪽에 있다. 남해의 여러 산들 중에 무등산이 높고 커서 다른 산과 비교할 수 없다. 정상에서는 제주 한라산, 거제 가라산, 남해 금산 등이 굽어보이니 모두 눈 아래 있다. 서쪽에 돌벼랑의 길이가 백척이나 되고, 깊이 우거져서 기운이 쌓여 새들도 많다. 새소리는 산밖에서도 들리며 비오고 개는 것을 점을 쳤다. 무등산을 달리 서석산으로도 부른다. 백제 때에 삼국이 전쟁을 할 무렵 성을 쌓아 지켰고, 백성들이 의지하여 안식처로 삼았다. 드디어 무등산곡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옛날에 무량사, 천복사, 개룡사, 원효사, 증심사 등이 있었으나 지금은 많이 폐사되었다. 규봉은 가장 경치가 좋은 곳으로 그 옆에 세 바위가 있는데 삼존석이라 부른다. 또 그 아래에 송하대, 광석대, 풍혈대, 장추대, 청학대, 송광대, 능엄대, 법화대, 설법대, 은신대 등 열 개의 대가 있다. 금석암은 조그마한 암자이다.[60]

이와 같이 「무등산가」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백제인들의 기대심리이다. 성을 쌓아 적을 막고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노래로 담아 불렀다는 것은 그 기대심리가 '治國安民指向'[61]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러한 심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종교적 구원의 대상으로 불교가 등장하여 불국토 건설이라는 신앙적인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고 본다.

무등산이라는 이름이 『般若心經』에서 비롯된 것처럼 차별없는 세상에 대한 염원이 불교적 신앙으로 나타났다고 보아도 무리 없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무등산은 삼국시대 때 '治國安民指向'이 불교와 만나면서 고려시대에 이르면 '平等安民指向'으로 자연스레 변화과정을 거쳤다고 추정해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 이르면 불교를 國是로 삼는 등 불교적 풍토가 이미 보편화되었고, 崇儒抑佛의 조선시대에도 그 명맥을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무등산을 두고 불교적 이미지를 연상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하겠다.[62]

무등산의 불교적 이미지는 수많은 사찰의 존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따르면 무등산에는 無量寺, 薦福寺, 開龍寺, 元曉寺, 證心寺, 圭峯寺, 錦石庵, 青空寺, 長佛寺 등이 있었다. 무등산 山水遊記 가운데 白眉로 꼽히는 高敬命의 「遊瑞石錄」에는, 證心寺, 證覺寺, 不思議寺, 念佛庵, 上元庵, 三日庵, 金塔寺, 隱迹寺, 石門寺, 錦石寺, 大慈寺, 圭峯庵, 文殊庵, 香積寺, 佛影庵, 菩提庵 등이 22개의 사찰명이 등장한다. 그리고 1924년 조선총독부 치하에서 작성된 『光州邑誌』[63]에는 佛明庵, 隱禪庵, 壯元庵, 氷鉢庵, 上元庵, 金塔寺 등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 밖의 다른 기록까지 합치면 50여 개를 상회할 정도로, 무등산에는 예부터 八藍九庵子라는 명성에 걸맞게 많은 사찰이 존재했던 것이다. 현재 남은 사찰은 증심사, 원효사, 약사사, 규봉암, 석불암 등 다섯에 지나지 않지만, 장불재, 중머리재, 중머리재 등의 지명은 물론이고 석탑, 불상, 석등, 부도 등 불교 유적과 유물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을 보면 무등산이 오랜 불교 성지였음을 가늠하기는 어렵지 않다.

山 慶尚道南海 巨濟等島 皆在眼底 山西陽崖 有石條數十櫛立 高可百尺山 名瑞石 以此 天旱欲雨與久雨欲晴 山輒鳴 聲聞數十里."

57 『東史綱目』 제5상.

58 『高麗史』 樂誌 俗樂條, "無等山光州之鎭 州在全羅爲巨邑 城此山 民賴以安樂而歌之."

59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5. "俗有無等山曲 百濟時 城此山 民賴以安樂而歌之."

60 李滿敷, 『息山先生別集』 卷四, 地行附錄. "無等 無等山 在武珍東 南海諸山 無等高大 無與爲比 其極俯漢拏 加羅，錦山 皆在眼底 其西石崖百尺 厚陰積氣多鳥 鳥聲聞山外 以占雨晴 山一名曰瑞石 百濟時 三國戰爭 築城守之 民賴而息 遂作無等山曲以歌之 古有無量，薦福，開龍，元曉，證心諸寺 今多廢 圭峰最勝 傍有三石曰三尊 又有松下，廣石，風穴，藏秋，青鶴，松廣，楞嚴，法華，說法，隱身十臺 錦石小庵". 『韓國文集叢刊』 179권, p.90.

61 나경수,「무등산 전설의 연구」, 『한국민속학』 41, 한국민속학회, 2005, p.232.

62 여기서 불국토의 이미지는 무등산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경주의 남산, 지리산, 속리산, 묘향산,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등등 名山에는 大刹이 있다 할 정도로 보편화 된 현상이다.

63 영인본 『광주읍지』, 광주시립민속박물관, 2004.

藹藹山光滴翠嵐　산빛은 흐린데 푸른 안개 떨구니
高低石逕暗檉梋　높낮고 좁은 돌길 능수버들로 어둑하네
神祠佛宇多喬木　사당과 절집에는 높은 나무 많은데
天近星辰手可探　하늘 가까워 손으로 별도 어루만질 듯[64]

조선 전기 金時習(1435-1493)이 湖南의 무등산에 직접 오르면서 지은 시이다. 시 전체에서 무등산에 대한 묘사로 일관하고 있다. 1구에서 '滴'이라는 측성을 사용하여 안개가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고 했으니 산세가 높고 범상치 않음을 암시한다. 또한 마찬가지로 4구에서 별이 손에 잡힐 정도로 가깝다고 한 것으로 보아 산이 매우 높음을 뜻한다고 하겠다. 돌로 이루어진 좁은 길은 그렇잖아도 어둑한 날씨임에도 능수버들까지 드리우고 있으니 깊은 산속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준다. 사당과 절에 치솟은 나무가 많다고 한 것은 오랜 역사를 뜻한다고 하겠다. 이 시의 주된 핵심은 무등산은 산세가 높고 불국토를 연상케 할만큼 절이 많아 불교의 聖山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別去云由師傳命　스님의 하명으로 떠난다 말씀하니
留君同住更無緣　그대와 함께 사는 인연 다시 없겠지만
想應瑞石千峰月　서석산 천 봉우리 위에 뜬 달은
共照看經禮聖賢　경 읽고 예불하는 우리 모두 비추리다[65]

조선 후기 默庵最訥(1717-1790)의 시이다. 무등산으로 떠나는 어떤 스님을 위해 지은 것이다. 서로 인연이 다해 떠나는 것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따뜻한 마음씨가 돋보인다. 處處佛像이라 했으니 스님의 삶 또한 白雲처럼 인연 따라 나서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임을 말하고 있다. 스님도 인간이라 떠나보내는 마음이 편치 않았나보다. 그러나 무등산에 비친 달은 수행에 전념하는 스님들을 지켜주리라 생각하니 걱정했던 마음도 잠시 곧 안심한다.

이로보아 무등산은 삼국시대부터 鎭山으로서 호남을 지켜주는 수호신 노릇을 해왔다는 것은 여타 문헌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시신앙인 제천의식부터 비롯된 '治國安民指向'은 불교가 전래되면서 불국토를 실현하려는 '平等安民指向'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하여 나아갔다고 본다. 이는 무등산에서 명멸했던 수많은 사찰들이 이를 말해주고도 남는다.

ГОРОДА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В АРАБСКО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Й ЛИТЕРАТУРЕ

д.ф.н., профессор. Ходжаева Р. ТашГИВ

Annotation. The article considers some aspects of historical and cultural relations of the Uzbek and Arab peoples on the examples of their reflection in the literary work. It explores works that depict the history and cultural heritage of Uzbekistan, its ancient cities such as Samarkand, Bukhara, Shash (Tashkent) serving as transshipment trade and cultural centers of the Great Silk Road. In particular, the article deals with the novel of Gamal al-Gitani, the outstanding Egyptian writer, written directly under the influence of a trip to Uzbekistan and visiting its famous ancient cities.

Key words: Great Silk Road, Samarkand, Bukhara, Tashkent, Arabic literature, literary relations, Arabic novel, genre "rikhlya", Uzbek art, cultural monuments.

Узбекистан и Арабский Восток связывает не только общность мусульман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но и то, что эти регионы являлись в древности связывающими звеньями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простирающегося от Китая через Центральную Азию на Запад вплоть до берегов Средиземного моря, в том числе и до стран Северной Африки. Из Согдианы и Бактрии в Египет поступали редкие металлы и лазурит, а также высоко ценимый китайский шелк, а обратно шел другой поток товаров. При раскопках местностей древнего Хорезма, Согдианы, Бактрии, Тохаристана находят амулеты, стеклянные подвески, голубые бусы, изготовленные в Египте. Благодаря торговым и экономическим связям, народы, живущие вдоль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быстрее развивались в культурном отношении, у них зарождался интерес к соседям, к образу их жизни, обычаям, укладу.

Например, Клавдий Птолемей из Александрии в своей книг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пособие» написанном в 177г. новой эры, оставил подробное описание жизни и обычаев народов, живущих вдоль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64 金時習,「登無等山」, 『韓國文集叢刊』 13권, p.265.

65 默庵最訥,「次喚先軸韻 送瑞石山」, 『默庵集』.

Современные арабские литераторы также интересуются древними городами Мавераннахра, считают их крупными перевалочными пунктами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Они посвящают свои произведения Самарканду, Бухаре, Ташкенту,Отрару.

Ещё ДжирджиЗейданв начале XX в. создал свой знаменитый роман «Невеста из Ферганы», вдохновивший известного узбекского писателя АбдуллаКадыри на создание своего знаменитого романа «Минувшие дни».

В 60-70 годы XX века, когда Ташкент был одним из центров афро-азиатского писательского движения, многие арабские литераторы посвятили свои произведения городам Узбекистана. Можно назвать такие стихотворения как «Ташкент» Абд ар-Рахмана аль-Хамиси, «Соловьи поют в Самарканде» Муина Бсису, «Путь в Самарканд» АбдаллахаСалиха и другие. Общность исторического наследия и взаимосвязь узбекского и арабских народов прослеживаются в исторических романах египетских прозаиков Али Джарима, Мухаммада аль-Арьяна, МухаммадаАбдХадида и др.

В романе современного египетского писателя Гамаля аль-Гитани «Послание высокой любви и нежности», написанном в жанре путевых заметок «рихла», можно проследить подробное описание узбекских древних городов, особенно Самарканда с его замечательными памятниками, улицами, базарами, древними воротами, выходящими в разные стороны света, знаменитыми самаркандскими лепешками и т.д.

Роман написан под впечатлением поездки писателя в Республику Узбекистан. Кроме Ташкента, он побывал в древних городах Бухара и Самарканд. Появление этой книги свидетельствовало о том, что поездка оставила неизгладимый след в душе Гамаля аль-Гитани. В интервью, данном автору этой статьи в Москве на встрече с арабистами Института востоковедения АН России, он, в частности, отметил, что был хорошо подготовлен к этой поездке, изучал историю региона и городов, которые давно собирался посетить.

Гамаль аль-Гитани читал старинные рукописи на арабском языке, где рассказывалось об этом крае, а также труды арабских и зарубежных ученых, переведенные на арабский язык, в том числе работы русского востоковеда академика Бартольда. «Я хорошо знал и искусство этого региона,- заметил писатель-«особенно школу миниатюр, изучал виды архитектурных памятников в Бухаре и Самарканде, планы мечетей и медресе. Я знал, что древность продолжает там жить, и я еду в страну, имеющую глубокую историю».

Самарканд, также как и Бухара, давно привлекал внимание героя романа своими архитектурными памятниками. «Куда не бросишь взор,-пишет он другу из Самарканда,-повсюду твой взгляд останавливается на орнаментах и узорах, которые украшают фасады. Нежные линии, сплетаясь меж собой, создают особый торжественный фон. Печать созидания лежит на всем – на древних воротах, медресе, мечетях, мавзолеях, где покоятся знатные люди. Это город из самых известных городов мира».

Вторым узбекским городом, который посетил в романе его герой- автор посланий, была Бухара. Рассказчик пишет другу, что давно стремился к этому древнему городу, «окутанному тайной времен», «пережившему подъёмы и спады». Рассказчик отмечает, что до приезда в город он уже знал историю возведения его памятников, изучал планы знаменитых мечетей, рынков, куполов, крепости. «С ней в моём представлении связано скопление талантливых людей», -пишет рассказчик своему другу о Бухаре.

Рассказчик сравнивает два древних узбекских города - Бухару и Самарканд. Она, по мнению писателя, раскрывается перед чужеземцем неохотно, постепенно, в то время как Самарканд - «горделивый и величественный» - проявляет свою сущность с первых часов пребывания в нем». Бухара,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писателя, древняя рукопись, страницы которой содержат больше скрытого смысла, чем это кажется сначала, «самаркандское присутствие же обнаруживает себя открыто для всякого приходящего и уходящего».

Описывая обсерваторию Улугбека, автор замечает, что его заочное знакомство с этим памятникам отошло на задний план перед величием того, что он увидел в реальности, и ему показалось, что подземный ход, где был установлен астрономический инструмент Улугбека, «тянется на небо прямо из недр земли». Наряду с Улугбеком рассказчик вспоминает Абу Али ибн Сино, Абу РайханаБеруни, Мухаммада аль-Хорезми и других великих ученых средневековья, живших и творивших на древней земле Средней Азии.

Яркое впечатление на Гамаля аль-Гитани произвели музыкальное и танцевальное искусство узбекского народа. Герой романа в послании к другу подробно описывает свои ощущения от узбекской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Вошли двое молодых людей с характерными чертами лица народа

этой земли. Один склонился над танбуром, другой - над сантуром», сдержанно начинает он всё описание и вдруг спокойный тон повествования взрывается восторгом от исполнительскогомастерства и выразительности мелодии: «Двое! Брат мой, их было только двое! Однако стоило одному провести смычком, а второму тронуть струну, они взорвались такой безмерной древней печалью и низвергли такой беспредельно глубокий звук, что я себе подобного не мог представить. Я всецело погрузился в эту музыку». [Аль-ГитаниГамаль 1987:17-18].

В другом месте рассказчик замечает: «Музыка этих мест очень выразительна. В ней слышатся отзвуки ушедших времен, подъемов и спадов, угасания и возрождения, былой славы. История этих мест очень бурная…» [Аль-ГитаниГамаль 1987:70]

Не менее выразительно описание узбекского танца. Писатель сравнивает движения «миниатюрной, изящно сложенной узбекской танцовщицы, одетой в старинные одежды и выпорхнувшей на сцену, словно прекрасное видение» то с полетом птицы, отставшей от своей стаи, то с беспокойствомграциозной лани, отбившейся от своей пары и родичей, а затем испытавшей радость от встречи с ними. [Аль-ГитаниГамаль 1987:70]

Трагической судьбе города Отрара, процветающего торгового центра, стоящего на Великом Шелковом пути, посвящено другое произведение Гамаля аль-Гитани- «Монголы».

Это длинный рассказ о 8-месячной осаде монголами Отрара, после захвата которого от богатого города, служащего перевалочным пунктом караванам, идущим из Индии на Запад, остались одни развалины. Но память о героическом городе осталась в памяти потомков.

Великий Шелковый путь, сыгравший большую роль в экономическом, торговом, культурном развитии народов, продолжает волновать умы ученых, литераторов и просто желающих узнать его историю.

Литература:

1. Аль-ГитаниГамаль. Рисалатун фи-с-сабабатива-ль важди. «Дар аль-Хилал». Каир,1987.
2. Аль ГитаниГамаль. Мугул. Сб. «Аль-Хисар мин саласаджихат». Дамаск, 1975.
3. Аль-Хули Амин. Силатбайна-н-Нил ва-ль-Фулджа. «Дар аль-маориф». Каир,1964.
4. Дониёров Х. Қипчоқшеваларининг XIV асрМисрқипчоқларитилигамуносабати. Эскиўзбек тили вақипчорқдиалектлари. Тошкент, 1976.
5. Наджип Э.Н. Кипчакского-огузский 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 мамлюкского Египта XIVв. Москва, 1965.
6. Ходжаева Р.У. Мамлюклардаври араб адабиёти. Тошкент, 2013.

SENSIBILITY OF SEOMJIN RIVER REGION ORAL LITERATURE AND DEVELOPMENT OF LOCAL CULTURAL CONTENTS

- Focusing on Gwangyang 'catching gizzard shad songs' -

Baek, Suk-ah (Sunchon National Univ. Korea).

Gwangyang's folk songs that have been orally transmitted so far representatively include 'catching gizzard shads', 'Sijipsari', 'rice-planting labor songs', 'Arirang-taryeong', 'Sangsa-sori', and 'Rowing Sounds'. The purpose of this discussion is to examine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catching gizzard shads', which is a representative folk song of Gwangyang bay region which is Seomjin River Region. 'Catching gizzard shads' consisted of 'port departure, net hoisting, spade sounds, and port returning sounds'.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change of emotion expressed by the color of each song and the flow of time.

Seomjin River Region is a region with special geographical conditions accompanied by rural areas and fishing villages. Gwangyang is geographically east of the Seomjin River, which flows smoothly, Gwangyang bay is located in the south, and it is a good-to-live town with a of 'east water, south river, and north mountain (東川南水北山)' where Baekun mountain in the north creates a magnificent shape. Prior to the construction of the Gwangyang steel mill in the 1980s, local residents had been farming or engaged in fishing.

Folk songs are also made up of farm labor songs and fishery labor songs. The song, 'catching gizzard shads' was one of the most popular festivals representing in the Gwangyang area. From the junction of Seomjin River and Gwangyang bay, gray mullets and gizzard shads were the main source of income for local fishermen in the bent of Gwangyang bay. In the fall, the daughter-in-law who ran away from the house would come back home because the smells of smoking gizzard shads were so delicious.

For catching gizzard shads, when two boats went side by side to the sea and discovered a group of gizzard shads, they bind the net and surround them round and pull the net at the same time. In this process, in order for fishermen to work hard to resolve the difficulties and to inspire cooperation, as a composer, they

worked at the sea with a joyful song. The rhythm is so sweet and exciting that it is a song that shoulder dancing gets spontaneous. It is so moving, and exciting. The song 'catching gizzard shads' composed of four melodies contains the emotions of the fishermen as it is, so the life of the time is vividly felt. The song 'catching gizzard shads' was composed of a total of four yards consisting of a yard of rowing sounds departing form the port, a yard of net hoisting sounds, a yard of net pulling sounds, and a yard of sounds of returning to home

In this discussion, after we analyze the fourth and look at the sensitivity of the song, 'Catching gizzard shads', we suggest ways to link local life to community development by reviving community life. Namdo is a famous place for turning out people of manners of etiquette and literary scholars from old days. As the name suggests, it is the region that various stories such as narrative and folk songs are transmitted. These stories can be woven into fairy tales or made into songs, and it is up to generations to make the things that the young people growing up in Gwangyang, which have a large number of outside influencers due to industrialization, can share and enjoy. To this end, it should not be accompanied by a culture project of flushing benefits to your side which is a disadvantage of the local elections. We should do our utmost to find a true worker in public institutions and to cultivate a proud local culture that can be handed down to growing youth.

Keywords: oral literature emotion, catching gizzard shads songs, departing form the port, net hoisting sounds, net pulling sounds, sounds of returning to home, local culture development plan

섬진강권 구비문학의 감성과 지역 문화콘텐츠 발전 방안
– 광양 ‘전어잡이 노래’를 중심으로 –

Ⅰ. 들어가면서

민요란 민중들 사이에서 자연적으로 불리면서 전해지는 노래이다. 민요의 기본적인 형태는 일상 중에 일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주로 고된 노동을 하면서 힘들 때 노래를 통하여 피로를 해소하는 노동요가 대표적이다.

현재 구비전승되어온 광양의 민요를 살펴보면 ‘전어잡이’, ‘시집살이’, ‘모내기노동요’, ‘아리랑 타령’, ‘상사소리’, ‘노 젓는 소리’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 논의는 섬진강권역인 광양만권의 대표적인 민요라고 할 수 있는 ‘전어잡이 노래’의 감성적 특징을 살피고 지역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전어잡이 노래’는 ‘출항·그물 끌어 올리는 소리·가래 소리·귀항 소리’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가락에 지역색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출되는 감성의 변화를 살필 수 있다. 그리고 같은 섬진강권 문화에도 다양한 감성들이 생활 속에 표출되는 점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지역 문화콘텐츠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상업적으로나 교육적으로 탄탄히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Ⅱ. ‘전어잡이’의 감성적 특징

섬진강권은 농촌과 어촌을 동반하는 특수한 지리적 여건을 갖춘 지역이다. 광양은 지리적으로 동쪽으로 섬진강이 유유히 흐르고, 남쪽에는 광양만이 위치하며, 북쪽에는 백운산이 웅장함을 자아내는 ‘동수남천북산東川南水北山’의 형국을 갖춘 살기 좋은 고장이다. 1980년대에 광양제철소가 건설되기 이전 지역민들은 농사를 짓거나 어업에 종사하며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해왔다.

지역의 문화적 특색에 따라 민요 또한 농사노동요와 어업노동요가 주를 이룬다. 어업노동요인 ‘전어잡이 노래’는 현재 광양 지역을 대표하는 생업 축제로 그 위상을 다졌을 정도로 많이 불리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섬진강과 광양만이 합류하는 지점에서부터 광양만 굽이는 숭어와 전어가 지역 어민들의 주 소득원이었다. 가을철이면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를 맡고 돌아온다고 할 정도로 고소한 맛이 일품이다.

전어잡이는 두 척의 배가 나란히 바다로 나아가서 전어 떼가 발견되면 그물을 결합하여 둥글게 에워싸고 동시에 그물을 당겨 전어를 잡아 올린다. 이 과정에서 어부들은 힘듦을 해소하고 협동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성진 가락으로 흥겹고 힘차게 노래하며 노동에 임했다. 그 가락이 애잔하면서도 흥겨워 어깨춤이 저절로 춰지는 노래이다. 네 토막의 가락으로 구성된 ‘전어잡이 노래’는 어민들의 감성을 그대로 담고 있어 당시의 생활상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1. **출항하며 노 젓는** 소리

출항을 위해 노를 저으며 시작하는 부분은 전어잡이를 위하여 바다로 나가는 어부들의 기대감이 엿보인다. 공동 작업이기 때문에 협동심이 중요한데 후렴구의 흥겨운 가락이 바다를 향하는 어부들의 힘을 북돋우어 주는 노랫말로 구성되었다.

어야디야 어야디야 어기히 여차 어야디야
노를 저어라 어야디야 오늘날은 어야디야
어디 가며는 어야디야 장원할꼬 어야디야
손 모아서 빌고 빌 적에 장원 하라고 빌었는디
공든 탑이 무너지나 어야디야 어기여차 노를 저어라
우리네 선원들 소리도 잘하고

노도 잘 젓고 그물도 잘 놓세
어야디야-이 잘도 헌다
먼 디 사람은 듣기도 좋고
옆에 사람은 뵈기도 좋네

선주가 선원들의 기를 북돋우어 주며 칭찬하는 흥을 돋운다. 노래를 잘하니 첫째는 듣기가 좋고 하나가 되어 가락에 맞추어서 일하니 보는 사람도 즐겁다는 표현이 돋보인다. 한 사람이라도 박자를 놓치면 노 젓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선주가 칭찬해주고 즐겁게 흥을 돋우어줄 때 선원들의 사기가 진작되어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다. 선주의 재치있고 넉살스러운 표현이 전어잡이 선원들에겐 활력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그물 끌어 올림 소리

물때에 맞추어 그물을 던져놓았다가 적기에 끌어올리는 것은 전어잡이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다. 그물에 전어가 얼마나 잡혔는지 아직은 알 수 없다. 그물을 끌어 올리며 그 무게감과 은빛 비늘을 튀기며 파닥거리는 전어들이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한 후에야 만선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 시점까지 선원들은 함께 힘을 내서 그물을 잡아당겨야 한다. 이때 그물을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새로운 후렴구로 시작되는 가사가 독특하다.

에∽용 에용 에요 에요 잘도한다 에요
어요 에용 심을 내서 에요
당거주소 에용 배가 고프면 밥을 주고
목이 마르면 술도 줌세
어용 어요 오동추야 달이 밝아
임의 생각 절로 나네
어용 어요 얼씨고 절씨고
지화자 좋네 어용 우리 선원들 잘도 한다

선주의 계속된 선창과 선원들이 답하는 소리가 구성지게 이어진다. 그물을 당길 때는 선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손길은 순간의 어긋남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호흡과 당김의 손길이 일치되어 한 사람이 움직이듯 해야만 한다. 선주는 선원들이 마지막까지 힘을 내주기를 당부하며 밥도 주고 술도 주겠다며 당근을 제시할 것을 노래한다. 젖 먹던 힘까지 쏟아내며 그물을 당기는 선원들은 달 밝은 밤 임의 환영을 생각하며 힘주어 그물을 당기고 노래한다. 선주와 선원들의 단결된 마음이 노랫말에 그대로 드러난다.

3. 가래 소리 – 고기 퍼 올리는 소리

전어를 퍼 올리는 어부들의 손길이 분주하고 즐거운 노랫가락으로 전해진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한 하룻밤의 거센 작업은 파닥거리는 전어 비린내도 고소한 내음으로 여겨진다.

어낭창 가래야 어허 낭창 가래야
얼씨고 절씨고 지화자 좋네
요만 했으면 넉넉하지
돈 있다고 자세 말고
돈 엄다고 한탄 말소
우리도 돈 있고 밥이 있네
어 낭창 가래야 얼씨고 절씨고 지화자 좋네
어찌 좋으며는 이리 좋냐 어 낭창 가래야

옛말에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부러울 것이 없다고 했다. 전어를 잡아서 퍼 올리는 선원들의 얼굴에 화색이 돈다. 힘들지만 전어를 퍼 올리는 선원들의 손길은 가볍기 그지없다. ‘이만하면 되었지’라고 하는 노랫가락에서 만족할 만한 수확을 얻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지역민들의 생활상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다. 하룻밤 전어잡이로 하루하루 연명해가야 하는 선원들의 생활에서 만선의 꿈을 이룬 것이다. 어부의 일이란 바닷물의 추이에 따라 헛손질할 때도 수없이 많을 터, 만선은 가족의 안녕과 자신의 평안을 보장해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4. 귀향 소리

선원들이 고기잡이 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은 경쾌하다. 갑판 아래 물간 가득히 전어를 싣고 돌아오면서 용왕님께 감사하고 아내의 환한 얼굴을 떠올리니 가슴이 설렌다. 달 밝은 밤에 경쾌하게 노를 저으며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이다.

어이 기야 어이 기야
동해바다 요황님네 어이 기야 아
서해바다 요황님네 남해바다 요황님네
요황님네가 돌봐줘서 오늘날에 장완했네
이가래가 누가래냐 광양 선소 박성국 씨 가래세
오동추야 달이 밝아 임의 생각화 절로 나네에
얼씨고 절씨고호 지화자하 놓네에 어기야 아

영자야 일어나 돛 달아라

바닷가에 사는 어민들은 매사를 시작하고 마칠 때에 용왕님께 제를 올린다. 그러니 전어잡이 노래 중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예외 없이 신에게 감사하는 노랫가락이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과정이다. 구체적으로 선주의 이름이 거론되고 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픈 선원들의 간절한 마음을 '임의 생각'으로 표현하였다. 임을 생각한다는 것은 집에서 기다릴 노부모님과 처자식일 터이다. 오직 선원 한 사람에게 의지하여 살아가는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를 때쯤이면 어부들의 하룻밤 고난이 살얼음 녹듯 녹아내리는 순간을 노래한 것이다.

5. 에기나칭칭 – 귀향 후 만선의 기쁨을 나누며

바닷가나 섬마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며 푸닥거리를 많이 한다. 집안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가족들이 아프거나, 반대로 집안일이 잘 풀리거나 가족들이 무사해도 푸닥거리는 당연한 통과 의례인 것이다.

에기나 칭칭 나네 어이야 듣지 뛰어라

하늘이 얇아서 못 뛰것냐 땅 꺼지까 염려 말고

지역민들의 푸닥거리 중에서 만선으로 기쁨을 나눌 때는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며 서로 기쁨을 나눈다. 선주는 아끼지 않고 동네 사람들에게 막걸리랑 안주를 내주고 선원들은 지역민들 사이에 들어가 고단했던 몸을 치료하듯 춤을 추며 몸을 푼다. 얼마나 좋은지 하늘이 높기도 하지만 머리 닿을까 무서워 못 뛰고 땅이 단단하지만 꺼질까 봐 못 뛸 정도이다. 그러나 하늘은 높고 땅은 단단하기 그지없으니 마음껏 뛰놀자는 것이다. 만선이 주는 기쁨이 어느 정도인지 노랫말에서 짐작할 수 있다.

Ⅲ. '전어잡이 노래'의 지역 문화콘텐츠로의 발전 방안

노동요는 최초의 민요이고, 다른 여러 가지 민요를 파생시킨 모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노동의 종류와 방식이 달라지고 생활이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어서 노동요 전승이 위기를 맞이하였다. 노동요가 제대로 불려진 때는 전국 어느 마을, 어떤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그 나름의 민요를 즐겼는데, 노동요 전승의 위기가 도래하자 국민 대다수가 노래 창조자로서 지위를 상실하게 되었고, 음악이나 문학 교육이 그 공백을 메우지 못하였다.

지금도 우리는 격렬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뉴스를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외면하는 사이에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다. 자신의 힘듦을 노래를 통하여 해소하고 다채로운 표현으로 사회에 고충을 알리는 수단으로서 노동요는 필요하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군인들에게 생업에 종사하는 회사원에게도 노래가 필요하다.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래는 피로회복제이며 신경안정제인 셈이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수험생들의 시름과 비정규직의 절규를 노래로 만들어 부르게 하고 저들이 아픔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아주는 것이 지식인들이 해야 할 과제일 것이다. 지역민들에게도 '전어잡이 노래'가 축제 때만 부르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생업을 지탱해준 결과물의 원천이었고 고난을 해소해 준 매개체였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현대를 살아가는 고달픈 사람들이 제2의 '전어잡이 노래' 민요를 만들어 생의 의미를 되찾을 수 있는 활력소로 노래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Т. ҚАЙИПБЕРГЕНОВНИНГ "ҚОРАҚАЛПОҚНОМА" РОМАН-ЭССЕСИ ТАРЖИМА АСАРИ БОРАСИДА БАЪЗИ МУЛОҲАЗАЛАР

Атаджанов Ғ. ҚарДУ

Annota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ssues of mastering the novel's novel essays and literary skills of translators. The translation has been analyzed for many years

Key words:novels, essays, translation art, literary translation, day dating

Бугунги китобхон учун Тўлепберген Қайипбергеновнинг Қорақалпоқнома" роман-эссеси аллақачон қўлма-қўл бўлиб қолган. У нафақат қорақалпоқ халқи учун балки ўзбек халқи учун ҳам севимли китоб бўлиб улгурди. Бунга асл сабаб таржимашунос Ғайбулла Саломовнинг мазкур китобни ажойиб тарзда таржима қилганлиги самарасидир. Ўз даврида Халқаро Маҳмуд Қошғарий унвонига сазовор бўлган ушбу китоб XX асрдаги қорақалпоқ адабиётининг янгилиги сифатида она тилидан ташқари ўзбек, қозоқ, рус тилларида бир неча миллион нусхада чиққан. Миллий адабиётимизнинг илк жанри бўлган бу роман-эсседа муаллиф қорақалпоқ халқининг ўтмиши, бугуни ва келажаги ҳақида теран фикр юритади.

«Таржимон тил соҳасида ижод қилади. Тилнинг асосий қурилиш материали сўздир. Бадиий адабиёт учун ғоятда муҳим бўлган кўрсаткичлари-бадиийлик, образ ва образлилик, мажоз ва мажозийлик-барчаси сўз замирида яширинган сўзда ўзифодасини топади ва сўзорқали реаллашади. Бинобарин, *сўзтанлаш* бадиий таржимада бирламчи аҳамиятга эга» [1]. Жумладан, ёзувчи Т.

Қайипбергенов асар бошида қуйидаги жумлаларни қўллаган: “Атаңның улы болма, Адамның улы бол”. Шунингдек, “Сен өзин ҳаққында жағымлы пикирлер айтсаң, инаныўшылар кем болады, ал озиң ҳаққында жағымсыз пикирлер айтсаң, ҳәмме инаныўға тырысады.” Мазкур жумлалар асар эпиграфи сифатида берилган. Шу аснода айтиш жоизки, эпиграф (юн. - устки ёзув) -адабий асар ёки унинг бирор қисми(боби)нинг тепасига ёзиб қўйилган ва шу асар ёки қисм(боб) мазмунини ифодалайдиган, асосий йўналишини белгилаб берадиган теран маъноли ибора, мақол, матал, ҳикматли сўз, қўшиқ, шеър ёки ўзга бир манбадан олинган парча исобланади [2]. Шунингдек, у иқтибос ёки кўчирманинг барча хусусиятларига эга бўлиб, асосий матнга ўзига хос кириш вазифасини ўтайди. Улар сиз баъзан бадиий асарнинг моҳиятини англаш мумкин бўлмай қолади. Бу борада биз тадқиқ қилаётган ушбу асардаги эпиграф ҳам асар мазмунини ёритиб бера олган.

Бундан ташқари асарда миллий урф-одатларимизга хос ҳаё-ибо каби ижобий фазилатларни кўрсатиб берувчи шундай жумлаларни кўришимиз мумкин. Масалан: “Анам азғана ойланды: изге қайтыўға жол алыс, аўылдан жәрдем шақырып бақырыўға ол уялады. Себеби, *даўысы қатты шыққан ҳаялды аўылдың жас үлкенлери жаман көреди.* Тусип өтиўге дәрья оған бой бермейди. (7-бет) – Онам андак тараддудланди: ортга қайтгани йўл олис; ёрдам сўраб қичқиргани уялади. Сабаби, бақироқ аёлларни овулимиз оқсоқоллари хуш кўришмайди. Кечиб ўтайин деса-сой чуқур. (7-бет)[3].

Дарҳақиқат, “Қорақалпоқнома” роман-эссесини таржима қилиш мобайнида Р. Отаев асосан асарда акс эттирилган ташбеҳ, ўхшатишларни асл нусхадагидек таъсирли баён қилиш учун ижодий изланган. Хусусан, унинг қуйидаги жумлаларига диққатимизни жалб қилайлик, яъни: *Адамлар бар-бири* ***ийт минезли****, екиншиси* ***пышық минезли*** *(15-бет) – Одамлар бор-бири* ***итфеъл,*** *иккинчиси* ***мушукмижоз****.* (16-бет) [4]. Ушбу гапда қорақалпоқча вариантдаги минезли сўзини минезли-*феъл*, минезли-*мижоз* дея икки хил таржима қилинган. Ўзбекча вариантида таржимоннинг бундай тарзда асослаши мақсадга мувофиқ келган. Чунки китобхонга уни *итфеъл-мушукфеъл* ёки *итмижоз-мушукмижоз* дея минезли сўзини бир сўз сифатида қараган билан бу тўғри келмайди, албатта. Таржимон бу хилда таржима қилиши унинг сўз қўллай билиш санъатинг қай даражада эканлигини бизга яққол кўрсатиб берган.

Дарвоқе, қуйидаги жумлаларда ҳам ўхшатиш кузатилади: *“Оның өз аўзынан атын еситкенлердиң қуўанышы қойнына сыймай өзли-өзишуңкилдесип өз-ара ойын-заўық қурып қала береди.(*9-бет)-*Номини Аллоҳ Таолонинг ўз оғзидан эшиитганларнинг севинчи ичига сиғмай чуғурчуқдай чуғурлашиб, ўйнаб-кулиб қолишаверишаркан* (9-бет). Шунингдек, бу жумлаларга хам эътибор беринг: *“Кексалардан ажралиш-ақл донишдан ажралиш билан баровар экан* (20-бет)-“*Ғаррылардан айырылыў менен ақылымыздың тырнағынан айырылып атыр екенбиз*”(19-бет). Яна:“ *Кексаларга ҳурмат-ўтмишга ҳурмат демакдир.* (20-бет) – *Ғаррыларға ҳүрмет кешеги күнниң тәжирийбелерине ҳүрмет* (19-бет). [5]. Асл нусхада ҳам, таржима асарда ҳам ўхшатишлар ўзига хос ишлатилган.

Бинобарин, асарда ватанпарварлик ғояси уфуриб турган жумлаларни ҳам кўришимиз мумкин. Масалан: “Онаси ёнида экан, бола ҳеч нимадан қўрқмаслиги керак,-деди. Онамнинг бу насиҳати хотирамга ўчмас бўлиб муҳрланди. Ватанни онага қиёслашлари бежиз эмас! Ватани борнинг мангулик таянчи бор! Бундай одамга ҳеч нима қўрқинчли эмас (8-бет) – “Анасы бар перзентке ҳештеңе қорқынышлы болмаўы керек,-деди. Анамның бул кеңеси мәңги есимде қалды. Ўатанды ана менен теңгериў бежиз емес! Ўатаны бардың-мәңгилик тиреги бар. Оған ҳештеңе қорқынышлы емес! (8-бет).

Аксар ҳолларда асл нусха билан таржима асарларда иккала китобда икки хил изоҳ бериб ўтилган жумлаларни учратамиз. Масалан: “*Эсимда бир пайтлар онам икковимиз холамнинг уйига меҳмон бўлиб борганмиз.- Биржола анам менен екеўимиз дайымның үйинен қайтқанымыз есимде”.* (6-бет) – Дайы аслида тоға дегани. Лекин таржимон бу ердаги *дайы* сўзи ўрнига *хола* сўзини ишлатган. Бунинг боиси кейинги жумлага мос тушиши учундир: *“Қайтишда холам онамга каттакон тоғора совға қилган эди.-Дайы кемпир апам анама үлкен бир самар берген еди.* (6-бет) [6].

Умуман олганда мазкур асарнинг асл нусхаси ва таржима асарни тадқиқ қилиб ўрганиш жараёнида жуда кўп ўзгаришларни учратдик. Уларнинг барчаси таржимон маҳорати сабаб асар салмоғини сақлаб қолган.

Фойдаланилган адабиётлар:

1. Ўзбекистон Миллий Энциклопедияси. «Давлат илмий нашриёти» Тошкент, 157-бет
2. Ғ.Саломов. Таржиманазариясиасослари. Т., Ўқитувчи, 1983, 73-бет.
3. Т. Қайипбергенов“Қорақалпоқнома” роман-эссеси.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IRTUE ETHICS OF CONFUCIUS AND THE CORE VALUE OF VIETNAMESE BUSINESS CULTURE

Le Thanh Huyen,
Tran Thi Lan Anh,
Vi Tien Cuong
(Hanoi University of Home Affairs, Vietnam).

Abstract. Vietnamese corporate culture is formed based on national cultural ideology, but Vietnamese national culture is influenced by Confucian ideology, including the doctrines of Confucius. In the current context of integration, Vietnamese enterprises that want to survive and succeed must have a corporate cultural identity and promote that identity and core value in their activities to affirm their strategy, mission,core values in the marketplace. The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ucianism and the core values of Vietnamese corporate culture. They are thereby suggesting and orienting Vietnamese enterprises to identify the fundamental elements to build the core values of organizational culture with their own identity and competitive advantages in the regional and international markets.

Key words: Confucius, business culture, virtue ethics, Confucianism

MỐI QUAN HỆ GIỮA THUYẾT ĐỨC TRỊ CỦA KHỔNG TỬ VÀ GIÁ TRỊ LÕI CỦA VĂN HÓA DOANH NGHIỆP VIỆT NAM

<Tóm tắt>

Văn hóa doanh nghiệp Việt Nam được hình thành trên nền tảng tư tưởng văn hóa dân tộc, mà văn hóa dân tộc Việt Nam chịu nhiều ảnh hưởng của tư tưởng Nho giáo, trong đó có các học thuyết của Khổng Tử. Trong bối cảnh hội nhập hiện nay,các doanh nghiệp Việt Nam muốn tồn tại và thành công đều phải có bản sắc văn hoá doanh nghiệp và phát huy bản sắc, giá trị cốt lõi đó trong hoạt động của mình để khẳng định chiến lược, sứ mệnh, giá trị cốt lõi trên thương trường. Bài viếtnghiên cứu mối quan hệ giữa Thuyết Đức trị của Khổng Tử với các giá trị cốt lõi của văn hóa doanh nghiệp Việt Nam. Qua đó gợi mở, định hướng cho doanh nghiệp Việt Nam xác định những yếu tố nền tảng để xây dựng giá trị cốt lõi của văn hóa doanh nghiệp mang bản sắc riêng và có lợi thế cạnh tranh trên thị trường khu vực và quốc tế.

Từ khóa: Đức trị, Khổng Tử, giá trị cốt lõi, văn hóa doanh nghiệp Việt Nam.

1. Đặt vấn đề

Tư tưởng của Khổng Tử (551 - 479 TCN) có ảnh hưởng lớn tới nền tảng văn hóa và phát triển xã hội của các quốc gia Á Đông. Đó là một hệ thống lớn các tư tưởng quản lý - xã hội, trong đó có thể kể đến những quan điểm như: Hoà, Trung dung, Nhân, Phú dân, Đức trị, Chính kỷ, Lễ, Chính danh, Nghĩa, Tín, Cầu hiền, …Vì vậy, Khổng Giáođược xem lànền tảng tư tưởng văn hóa tinh thần của xã hội dựa trên mong muốn hòa bình ổn định trật tự xã hội. Trong thuyết Đức trị, ông cho rằng từ Thiên tử tới các Chư hầu lớn nhỏ, từ quý tộc tới bình dân, ai nấy đều có nhiệm vụ sống, giúp đỡ nhau, nhất là vua chúa, họ phải có bổn phận lo cho dân cơm no áo mặc và giáo dân bằng cách nêu gương và dậy lễ, nhạc văn, đức, bất đắc dĩ mới dùng hình pháp.

Văn hóa doanh nghiệp Việt Nam được coi là tiểu văn hóa trong văn hóa dân tộc Việt Nam, mà văn hóa dân tộc Việt Nam lại kế thừa những tư tưởng của Nho giáo. Do đó văn hóa doanh nghiệp Việt Nam cũng ảnh hưởng bởi các quan niệm Nho giáo, đặc biệt là Tư tưởng của Khổng tử. Mối quan hệ giữa Thuyết Đức Trị của Khổng Tử và giá trị cốt lõi của văn hóa doanh nghiệp Việt Nam là minh chứng rõ nhất về sự ảnh hưởng, tác động của Khổng Giáo đến văn hóa dân tộc Việt Nam nói chung và văn hóa doanh nghiệp Việt Nam nói riêng. Để đứng vững trên con đường phát triển trong bối cảnh hội nhập ngày nay, đòi hỏi các doanh nghiệp Việt Nam phải xây dựng và phát huyđược bản sắc, giá trị cốt lõi của văn hóa doanh nghiệp. Chính vì vậy những giá trị của Thuyết Đức trị của Khổng Tử có thể coi là một trong những nền tảng gốc rễ hình thành nênvăn hóa doanh nghiệp Việt Nam.

2. Mối quan hệ giữa Đức trị của Khổng Tử và giá trị cốt lõi của văn hóa doanh nghiệp Việt Nam

2.1. Giá trị cốt lõi của văn hóa doanh nghiệp Việt Nam

Tính đến tháng 2 năm 2019, Việt Nam có 700.647 doanh nghiệp, trong đó đa phần là doanh nghiệp vừa và nhỏ chiếm tới 98,1%[66]. Vì vậy, việc xây dựng văn hóa doanh nghiệp ở nhiều doanh nghiệp còn đang ở giai đoạn hình thành và định hình các biểu hiện cũng như giá trị cốt lõi của văn hóa doanh nghiệp.

Theo Ngô Minh Khôi (2002) "Văn hoá doanh nghiệp (hay bản sắc doanh nghiệp) là toàn bộ hệ thống các chuẩn mực về tinh thần và hành vi ứng xử của tất cả các thành viên trong doanh nghiệp, hướng tới những

[66] www.gso.gov.vn

giá trị tốt đẹp nhất, tạo ra nét độc đáo riêng biệt đồng thời là sức mạnh lâu bền của doanh nghiệp trên thương trường"[67].Kế thừa những giá trị của văn hóa dân tộc, văn hóa doanh nghiệp Việt Nam được cấu thành bởi các giá trị:

(i) Hệ thống ý niệm (thế giới quan, nhân sinh quan và xã hội quan): Bao gồm tập hợp những khái niệm và biểu tượng mà dựa vào đó các thành viên trong doanh nghiệp lý giải chính mình và giải thích thế giới, đi tìm đạo lý sống;

(ii) Hệ thống giá trị liên quan đến các chuẩn mực cho phép phân biệt thật - giả, đánh giá tốt - xấu, nhận định đúng - sai trong những tình huống hoạt động cụ thể (lý tưởng của doanh nghiệp);

(iii) Hệ thống biểu hiện: Bao gồm thể thức, hình thức trình bày, ký hiệu, biểu tượng, nghệ thuật, phong tục tập quán, lễ hội, nhà cửa kiến trúc … mà qua đó các tình cảm, ý niệm bộc lộ ra và có thể cảm nhận một cách cụ thể, tạo nên sự đồng nhất về văn hoá trong doanh nghiệp;

(iv) Hệ thống hoạt động: Bao gồm hệ thống các tri thức công nghệ (gồm cả công nghệ quản lý), nhằm đảm bảo hiệu quả tối ưu cho các hoạt động thực tiễn của doanh nghiệ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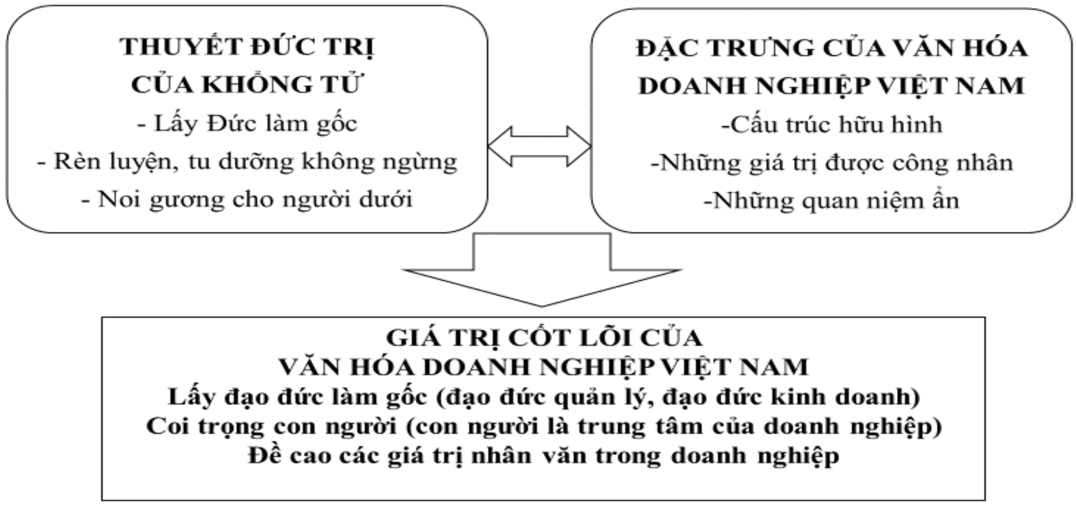
(v) Nhân cách văn hoá doanh nhân (hay văn hoá người lãnh đạo).

Những yếu tố trên được thể hiện trong hệ giá trị văn hóa doanh nghiệp Việt Nam biểu hiện bởi:*Cấu trúc hữu hình*: Logo, đồng phục, cách sắp xếp, thiết kế, kiến trúc, …; *Những giá trị được công nhận*: Chiến lược, mục tiêu sứ mệnh, quan điểm, đạo đức kinh doanh, những quy tắc, quy định chung, …; *Những quan niệm ẩn*: đó là những quan niệm về đạo đức, niềm tin, nhận thức, … được các thành viên trong doanh nghiệp mặc nhiên công nhận.

2.2. Đức trị trong giá trị cốt lõi của văn hóa doanh nghiệp Việt Nam

Trong thuyết Đức trị, Khổng Tử cho rằng "con người theo nho học là cái đức của trời, cái khí tinh tú của ngũ hành, con người sinh ra đều có bản chất người". Trong quá trình phát triển, mỗi con người sẽ khác nhau về giáo dục, môi trường sống vì vậy sẽ có năng lực, đạo đức khác nhau. Thông qua sự học tập, rèn luyện, tu dưỡng không ngừng con người dần hoàn thiện hơn để đáp ứng yêu cầu của công việc, của xã hội. Điều nổi bật nhất của Thuyết Đức trị đó là phát triển những phẩm chất tốt đẹp của con người, quản lý theo nguyên tắc "Đức trị", nghĩa là lấy đức làm gốc trong mối quan hệ giữa con người với con người. Cụ thể, người lãnh đạo phải noi gương để nhân viên tự giác tuân theo nhằm giúp đỡ nhân viên phát triển, Khổng Tử nhấn mạnh: "mình muốn thành công thì cũng giúp người khác thành công, đó là phương pháp thực hành của người nhân".

Mối quan hệ giữa Thuyết Đức trị của Khổng Tử và giá trị cốt lõi của văn hóa doanh nghiệp Việt Nam được thể hiện qua sơ đồ sau:



(Nguồn: Nhóm tác giả tổng hợp)

Theo Khổng Tử, hạt nhân của Đức trị chính là "giáo hóa", coi trọng làm giàu nhưng phải làm giàu dựa trên giáo dục, có đạo đức. Thông qua Đức trị thì mục tiêu, chính sách, chiến lược của doanh nghiệp sẽ dần chuyển hóa sang nhận thức và hành động của nhân viên, từ đó nó sẽ ăn sâu vào các giá trị cốt lõi của văn hóa doanh nghiệp. Quản lý theo Đức trị sẽ hóa giải được các mâu thuẫn trong doanh nghiệp, hình thành nên sức mạnh nội bộ, làm cho quan hệ giữa cấp trên và cấp dưới thoát khỏi quan hệ mệnh lệnh, phục tùng khô cứng.

[67] Ngô Minh Khôi, Bản sắc văn hoá doanh nghiệp, *Thời báo Kinh tế Sài Gòn*, số 31/2002.

Văn hóa doanh nghiệp đòi hỏi phải xây dựng được những giá trị chung cho các thành viên, giá trị cốt lõi thống nhất thì mọi hành động của các cá nhân, bộ phận trong doanh nghiệp mới thống nhất. Khi đó, công tác điều hành quản lý cũng như ứng phó với những biến động, những rủi ro đến từ thị trường sẽ không cần sử dụng nhiều mệnh lệnh, kỷ luật mà đã có sức mạnh đồng tâm, hiệp lực của các thành viên trong doanh nghiệp để vượt qua khó khăn. Trải qua quá trình hình thành và phát triển, giá trị cốt lõi của văn hóa doanh nghiệp Việt Nam đã kế thừa những tư tưởng của Thuyết Đức trị, đó là: Coi trọng con người, lấy con người làm gốc và đề cao các giá trị nhân văn trong doanh nghiệp.

3. Giải pháp phát huy giá trị cốt lõi của văn hóa doanh nghiệp Việt Nam trong bối cảnh hội nhập hiện nay

Nếu coi doanh nghiệp như một ngôi nhà thì văn hóa doanh nghiệp chính là những trụ cột vững chãi để giúp ngôi nhà đó tồn tại và vượt qua phong ba bão tố của thị trường. Lựa chọn, xây dựng các giá trị cốt lõi của văn hóa doanh nghiệp phải dựa trên nền tảng văn hóa dân tộc Việt Nam. Theo Lê Quân (2008) giá trị cốt lõi của văn hóa doanh nghiệp phải hướng tới sự năng động, tính linh hoạt chức nhằm đảm bảo thỏa mãn tối đa nhu cầu của khách hàng, của xã hội. Chính vì vậy, trong bối cảnh hội nhập và cuộc cách mạng công nghiệp 4.0 yêu cầu đặt ra đối với các doanh nghiệp Việt Nam là phải phát huy giá trị cốt lõi của văn hóa doanh nghiệp dựa trên các trụ cột như tư duy chiến lược, phát triển con người toàn diện và khả năng thích ứng với sự thay đổi, đó là:

- *Nhóm giá trị định hướng dài hạn:* Giúp cho doanh nghiệp có định hướng để thực hiện mục tiêu lâu dài của doanh nghiệp. Các giá trị định hướng dài hạn giúp cho mọi người trong doanh nghiệphiểu rõ hướng đi, cách thức để đạt tới mục tiêu.

- *Nhóm giá trị phát triển con người:*Dùng đức để cảm hóa con người, con người được coi là tài sản đặc biệt của doanh nghiệp. Phát huy tối đa năng lực, sáng tạo của mọi người trong doanh nghiệp gắn với mục tiêu chung để tạo nên những giá trị bền vững.

- *Nhóm giá trị thích ứng với sự thay đổi:* Thể hiện ở khả năng thích ứng linh hoạt với sự thay đổi, luôn đáp ứng kịp thời những yêu cầu ngày càng khắt khe của thị trường cũng như những thay đổi của môi trường kinh doanh.

Để phát huy những giá trị cốt lõi của văn hóa doanh nghiệp Việt Nam trong bối cảnh hội nhập và cuộc cách mạng công nghiệp 4.0 các doanh nghiệp Việt Nam cần tập trung vào một số giải pháp:

Thứ nhất,coi trọng con người, lấy con người làm gốc. Văn hóa doanh nghiệp phải gắn với phát triển con người, coi con người là trung tâm của mọi hoạt động của doanh nghiệp. Thông qua văn hóa doanh nghiệp sẽ thúc đẩy việc bồi dưỡng tinh thần trách nhiệm để kích thích lòng say mê, tính chủ động, sáng tạo của người lao động. Giáo dục ý thức cho người lao động coi doanh nghiệp là "ngôi nhà thứ hai" của mình để nó trở thành nhận thức chung của cả tập thể và tạo nội lực để phát triển cho doanh nghiệp.

Thứ hai, kinh doanh phải gắn với đạo đức và văn hóa. Hiện nay, các doanh nghiệp phát triển nhanh chóng nhưng hậu quả của sự phát triển ấy cũng hết sức nặng nề là ô nhiễm môi trường và lãng phí tài nguyên thiên nhiên... Do đó, vấn đề an sinh xã hội - trách nhiệm xã hội là một thách thức lớn đối với tất cả các doanh nghiệp. Thông qua văn hóa doanh nghiệp hướng tới mục tiêu phát triển bền vững vì lợi ích con người và xã hội.

Thứ ba, phát huy bản sắc giá trị cốt lõi văn hóa doanh nghiệp Việt Nam. Xây dựng và phát triển văn hóa doanh nghiệp dựa trên bản sắc văn hoá dân tộc, trong đó tư tưởng của Thuyết Đức trị như: ý chí vươn lên, đức tính chịu khó, chấp nhận hy sinh quyền lợi riêng cho mục tiêu chung, sự trung thành, tinh thần năng động, sáng tạo…tạo nên những giá trị cốt lõi của văn hóa doanh nghiệp Việt Nam.Hệ giá trị này không tách rời mà dựa vào, bám rễ chắc vào các giá trị văn hóa doanh nghiệp tạo nên bản sắc, giá trị cốt lõi và lợi thế cạnh tranh của doanh nghiệp Việt Nam.

Thứ tư, hội nhập tích cực với khu vực và thế giới. Hội nhập và toàn cầu hóa là xu thế khách quan, là quá trình vừa hợp tác, liên kết vừa cạnh tranh mạnh mẽ về kinh tế cũng như giao lưu về văn hóa. Sức mạnh của văn hóa doanh nghiệp được coi là "quyền lực mềm" đã trở thành thước đo đánh giá sức mạnh, lợi thế cạnh tranh của các doanh nghiệp, các nền kinh tế, các quốc gia. Mối quan hệ kinh tế và văn hóa doanh nghiệpluôn khăng khít, không thể tách rời, văn hóa doanh nghiệp thẩm thấu các giá trị kinh tế để ngày càng hợp tác, phát triển bền vững.

Văn hóa doanh nghiệp là toàn bộ những giá trị sáng tạo của cán bộ, nhân viên trong doanh nghiệp nhằm tạo ra giá trị cốt lõi, có tính cạnh tranh và phát triển bền vững. Giá trị cốt lõi của văn hóa doanh nghiệp Việt Nam chuyển tải những tư tưởng Đức trị của Khổng Tử, biểu hiện cho những giá trị về đạo đức, nhân văn, tính liêm chính, kỷ luật và trách nhiệm xã hội của doanh nghiệp. Trong bối cảnh hội nhập ngày càng sâu rộng của các doanh nghiệp Việt Nam với khu vực và thế giới thì việc phát huy những giá trị cốt lõi của văn hóa doanh nghiệp Việt Nam là hết sức cần thiết, là điều kiện tiên quyết để "hội nhập chứ không hòa tan"./.

TÀI LIỆU THAM KHẢO

1. Đỗ Minh Cương (2001), *Văn hoá kinh doanh và Triết lý kinh doanh*, Nxb Chính trị Quốc gia.
2. Trịnh Khắc Mạnh, Phan Văn Các (2006), *Nho Giáo ở Việt Nam*, Nxb Khoa học xã hội.
3. Hollmann, R.W. (1976), Applying MBO research to practive, *Human resource management,* 15 (28-36)
4. Phạm Văn Nghiên (chủ biên, 2001), *Văn hoá và kinh doanh*, Nxb Lao động.
5. Phùng Xuân Nhạ (chủ biên, 2011), *Nhân cách doanh nhân và văn hoá kinh doanh ở Việt Nam trong thời kỳ đổi mới, hội nhập quốc tế*, Nxb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6. Lê Quân (2016), *Lãnh đạo doanh nghiệp Việt Nam*, Nxb Đại học Quốc gia Hà Nội.
7. Trịnh Văn Thảo (2013), *Xã hội Nho giáo Việt Nam dưới nhãn quan của xã hội học lịch sử,* Nxb Tri Thức.
8. Lê Tiến Thành (biên dịch, 2016), *Nghệ thuật quản lý nhân sự*, Nxb Thanh Hóa.

ПЕСНЬ О ГАЙАВАТЕ” ГЕНРИХА ЛОНГФЕЛЛО»
(Источники и переводы поэмы)

У.Элова. Доктарантка СамГИИЯ.

“ Песнь о Гайавате” принесла Лонгфелло мировую славу. Интерес к творчеству индейцев возник у него лет за тридцать до появления поэмы. Еще в студенческие годы он изучал книжные источники будущего произведения, позже встречался с вождем племени оджибуэев, многое заимствовал из записей легенд, преданий, песен и обрядов индейцев, сделанных Скулкрафтом.

«Индейскую Эдду», как Лонгфелло сам называл свою поэму, он создал на основании легенд и преданий нескольких племен. В этих легендах рассказывалось о полуреальном-полулегендарном пророке и учителе, который научил индейцев искусствам и ремеслам. Однако образ Гайаваты у Лонгфелло отнюдь не только индейский. В нем собраны и запечатлены черты героев и богов античного мира (Орфея, Геркулеса, Прометея, Диониса) и европейского народного эпоса (Зигфрида, Беовульфа, русских богатырей, героев финской «Кале - Гвалы»), «Песнь о Гайавате» написана четырехстопным ямбом. Из античной мифологии и 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европейского эпоса заимствованы аллегории, ситуации, метаморфозы, описания быта.

Когда поэма вышла в свет, ее автор оказался под перекрестным огнем критики. Респектабельные бостонские газеты представили «Гайавату» как «легенды диких аборигенов», «не вызывающие симпатии у читателей». Либеральные критики упрекали Лонгфелло

в том, что он изобразил в розовом свете «блага цивилизации». Концовка поэм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тенденциозна: колонизаторы

обрисованы как «братья» индейцев. Умирая, Гайавата завещает своему народу заботиться о пришельцах, которых он поселил в своем вигваме: «чтоб ... им всегда были готовы и приют, и кров, и пища». Зачем понадобилась поэту эта идиллическая концовка? Ведь он сам в поэме «Сватовство МайлзаСтендиша» писал о ненависти индейцев к первым колонистам, а через три года после появления «Гайаваты» опубликовал «Месть индейца Дождь-в-лицо», где была такая строфа:

В ловушку эту, через дол
Три сотни воинов привел
Вождь белых с желтой гривой,
И там все триста полегли,
Мечтавших из чужой земли
Прийти домой с поживой.
(Пер. Е. Эткинда)

Очевидно, Лонгфелло был искренне убежден, что, если бы первые поселенцы не начали грабить и убивать индейцев, то две расы могли бы мирно ужиться на американском континенте. При этом намеренно забывалось, что главной целью всех европейцев, устремлявшихся в Новый Свет, был только грабеж. Золото, серебро, меха, табак, хлопок, богатая земля - вот что влекло их в Америку, принадлежавшую индейцам.

Еще одна цель была у Лонгфелло, когда он рисовал картину «братства» пришельцев и индейцев. В середине XIX в. формировалась оригинальная национальная американ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Лонгфелло рассматривал «Песнь о Гайавате» как первый шаг к созданию национального эпоса. Фольклор индейцев был для него частью американской самобытной культуры, ее специфически колоритной чертой. Вот почему в поэме пришельцы представлены как преемники и наследники традиций, творцом которых является легендарныйГайавата.

Его образ - глубоко поэтический, сказочно фантастический, романтически приподнятый - свыше ста лет пленяет воображение читателей всего мира. Гайавата, «сын нежной страсти и печали», рождается от дочери

луны Веноны и коварного западного ветра Меджекивиса. Он обладает непомерной силой, может сокрушать скалы, «раздроблять в песчинки камни», у него волшебные мокасины, в которых «с каждым шагом Г айавата мог по целой миле делать». Ко всему тому, он обладает чудесным даром: «изучил весь птичий говор», «всех зверей язык узнал он».

Лонгфелло строго соблюдает традиционные для народного эпоса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приемы: вокруг Гайаваты все одушевлено и очеловечено - ветры, облака, птицы, звери, растения. Маис представлен юношей с золотистыми кудрями, с которым борется и которого побеждает Гайавата. Удивительно поэтична картина постройки пироги: Гайавата просит коры у молодой березы, ствол и корни - у крепкого кедра, смолу - у ели, у ежа - иглы, которые ярко окрашивает соком трав и ягод и расцвечивает ими свое творенье. Поэтически представлены и другие формы труда человека: посев и возделывание растений, рыбная ловля, охота. Гайавата-полубог несет своему народу знания и радость искусства. Он учит индейцев возделывать хлебные злаки, выделывать кожи, строить лодки, собирать дикий рис в лугах, устраивать праздники, наслаждаться песней и пляской, творить заклятья от воров и недругов, чтить память предков. Он же - творец искусства рисования и письма, первый врачеватель.

Человек - венец природы; по труду, по силе ума и воле к победе он непревзойден. В этом - основная философская мысль поэмы. Она роднит Лонгфелло с Купером, с Эдгаром По, Мелвиллом. Эпическая картина битвы Гайаваты со своим отцом Меджекивисом (традиционная для эпоса батальная картина) имеет глубокий подтекст: лишь человек, хотя он сам частица природы, способен обуздать стихии и заставить их служить себе.

Гайавата ратоборствует не только с силами природы; он побеждает злого волшебника - Духа богатства - и раздает сокровища чародея народу. В поэму врывается и другой социальный мотив: Гайавата преследует коварного По-Пок-Кивиса, научившего индейцев играть в кости. Злодей превращается в бобра, казарку, орла - он так же многолик, как и пороки человека; победа над ним требует от Гайаваты ума, настойчивости, терпенья. В фантастическую поэму автор вводит уже совсем реальную беду - голод! Голод унес кроткую красавицу Миннегагу - жену Гайаваты.

Поэма многопланова; в этом поэтическом иносказании представлены главные события в жизни человека: рождение и смерть, веселье и труд, любовь, творчество, дружба, битвы с врагами. Дидактизм автора лишен здесь своей прямолинейной назидательности. Создав венок чудесных мифов,

… сказки и легенды
С их лесным благоуханьем,
Влажной свежестью долины,
Голубым дымком вигвамов, (перевод Е.Эткенда)

поэт,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учит читателя строить мудрую и прекрасную жизнь, лишенную вражды и войн. В поэме Владыка Жизни Манито высекает из камня Трубку Мира и созывает «все народы к совещанью»:

Закурите Трубку Мира
И живите впредь как братья!

Этой гуманной мыслью завершается лучшее из творений знаменитого американского поэта. Метафоричность языка индейцев, поэтические гиперболы, патетические иносказания, красочность, пышность сравнений — характерные его черты. Классический перевод поэмы на русский язык, принадлежащий И. А. Бунину, сохраняет дух и стиль выдающегося произведения.

Поэзия Лонгфелло расширила границы романтического восприятия мира, ввела в литературный обиход ощутимую реалистическую струю.

Литература:

1. The song of Hiawatha- New York: Cupplesa.Leon, 1952 144p.
2. Песнь о Гайавате. Пер.ипредислИ.А.Бунина. - М: Гос.лит.издат 1959-231 с.
3. GenryLangfello “Gayavatahaqidaqo’shiq” 1973 y. ToshkentG’.G’ulomnashriyoti. AzizAbdurazzoqtarjimasi
4. Ронгонен Л.И. Об источниках «Песни о Гайавате» Лонгфелло-Учен.зап. латв. Гос. Ун-та, 1967, том 87 с.63-94
5. Wagenknecht H.W. Longfellow. Portrait of an American humanis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68-XII, 252p.

SOCIAL POETRY OF SEOKJEONG LEE, JEONG JIK OF MODERN ENLIGHTMENT

Lee, Seung-Yong (Sunmoon Univ. Korea).

Seokjeong Lee Jeong-jik is an intellectual and educator of the modern enlightenement period. He left more than a thousand poems in 'Yugo.' It was created over 15 years before he died after losing all his works to Donghak in 1894. The largest part of his poetry is social poetry that he wrote around, mingling with

people he met.

In this article, we divided Seokjeong's social poetry into expressions of social intercourse and embodiment of poetry. He revealed his interaction with those who visited the Gimje thatched house, the late residence of Seokjeong, and those who met while enjoying the nearby areas of Jeonju, Jeongeup and Namwon. In particular, he talked about the person he met on his trip to Gurye in 1895 and 1897, who exchanged poems with him and attended poet meetings.

The poetic imagery of social poetry was divided into first, parting and retrospections with academic will, second, achievement will and assessment of poetry, and third, concern about the situation.

The first is the most common phenomenon of meeting and parting because of the nature of social poetry. Seokjeong also expressed his deep feelings in the poem that he wanted to continue the meeting beyond the regret of parting. Later on, he wrote a poem that he missed when he met.

The second shows Seokjeong's deep attachment to the poem. His idea of not spending the world in vain is expressed by his willingness to write poetry and remain in the future. And for this, he continues to carry on his unremitting exploits and creative activities.

The third reflects his concern as an intellectual looking at a country confused by Donghak. It is also warmly expressed as a poem on rural life and a poem wishing for the welcome rain in the farming season. The climax of this concern can be said after 1906. Since then, Seokjeong has not even been able to express his worries or write a poem at all. This is the result of the terrible suffering of intellectuals who lost their country.

Key words: Seokjeong / Lee, Jeong Jik / social poetry(交遊詩) / parting and retrospection / Yeonseoksanbang-poetry(燕石山房詩藁).

근대계몽기 석정 이정직의 교유시

Ⅰ. 머리말
Ⅱ. 석정의 교유 관계
Ⅲ. 석정 교유시의 형상화
1. 이별과 회상의 情操
2. 시문에 대한 성취 의지 및 평가
3. 시국에 대한 우환의식
Ⅳ. 맺음말

<국문초록>

석정 이정직은 근대계몽기의 지식인이자 교육자이다. 그는 『유고』에 천 여편의 시를 남겼다. 이는 그가 1894년 동학으로 그간의 모든 작품을 잃은 뒤에 혼신의 노력으로 죽기 전까지 15년간에 걸쳐서 창작한 것이다. 그의 시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행이 병행된 교유시이다.

본고에서는 석정의 교유시를 교유 관계와 교유시의 형상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교유 관계는 석정의 말년 거처인 김제 초가집을 찾아온 사람과 그 자신이 인근 지역인 전주, 정읍, 남원 등을 유람하면서 만난 사람들과의 교유 관계를 밝혔다. 특히, 1895년과 1897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구례 기행을 통해서 만나 시를 주고받고 시사(詩社) 개최에 참석하였던 인물에 대해서도 관계를 밝혔다.

교유시의 시적 형상화는 첫째, 이별과 회상의 정조, 둘째, 시문에 대한 성취 의지 및 평가, 셋째, 시국에 대한 우환의식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는 교유시의 특성상 만남과 이별이라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다. 석정 역시 이별의 아쉬움을 넘어 지속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깊은 정의를 시에 그대로 표출했다. 이후 그 만났을 때를 그리워하는 회상시를 짓기도 한다.

둘째는 석정의 시문에 대한 깊은 애착을 보여준다. 세상을 헛되이 보낼 수 없다는 그의 생각은 시문을 저술하여 후세에 남기겠다는 의지로 표명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끊임없는 기행과 창작 활동을 지속한다.

셋째는 동학으로 혼란해진 나라를 바라보는 지식인으로서의 걱정이 반영되어 있다. 또한 기행의 과정에서 바라본 농촌의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농사철 단비를 기원하는 시로도 형상화된다. 이러한 우환의식의

절정은 1906년 이후는 거의 시를 짓지 못하는 상황에 처한다. 나라를 잃은 지식인의 처절한 고통이 가져온 결과이다.
주제어: 석정, 이정직, 교유시(交遊詩), 이별과 회상, 연석산방시고(燕石山房詩藁)

Ⅰ. 머리말

석정 이정직은 근대계몽기라 일컬어지는 19세기 말~20세기 초를 살아간 지식인이자 교육자이다. 그의 『유고』[68]에는 詩, 書, 畵, 史, 經 등 폭넓은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중요시 한 것은 시서(詩書)이다.[69]

석정의 <연석산방시고>에는 천 여편의 시가 실려 있다. 이는 1894년 동학으로 그 동안 작성한 모든 자료가 불에 탄 뒤인 54세 이후에 발분(發憤)하여 성취한 작품이다. 그의 시는 대체적으로 기행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며 기행에 따른 순차적 배치가 되어 있다.[70] 석정의 시는 기행의 과정에서 보고 느낀 서경서정시, 동료, 제자들과의 교류에서 이루어진 교유시, 이후 그에 대한 회상시가 중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석정의 교유시를 기행 지역 및 교유관계와 연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석정의 시문에 대한 연구[71]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교유시를 포함한 시 작품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김태선[72]과 이월령[73]에 제한되어 있다.

Ⅱ. 석정의 교유 관계

석정은 자신의 거처인 모정(茅亭)을 비롯하여 많은 시사(詩社)에서 제자들을 교육하였고 시문으로 김제 인근의 전주, 정읍, 만경은 물론이요, 남원, 구례까지 많은 인사들과 직접적인 만남이나 서신을 통한 간접적인 교류가 끊이지 않았다.

석정은 1895년 을미년 설에 말년의 거처인 모정으로 돌아온 심정을 밝힌다.

行年五十五 오십 오년을 살았는데
非五十四年 오십 사년은 잘못 살았네.
城市裵徊久 도회지를 배회했지만
詩文著述稀 시문 저술이 거의 없네.
孤村水邊路 외딴 마을 물가의 길로
昨夜雪中歸 어젯밤 눈을 맞으며 돌아 와네.
白首猶堪隱 흰머리로도 은거할 수 있으니
囂塵不上衣 속세 먼지 옷에 묻히지 않으리라.[74]

이는 석정이 을미년 새해에 친구인 이성부(李惺夫)에게 준 두 수 중에서 첫째 수이다. 도회지를 배회하며 55년을 살았는데 54년을 잘못 살았다고 말한다. 동학으로 자신의 모든 시문이 사라진 것으로 인한 충격이 담겨있다. 그러나 늙었지만 아직은 궁핍한 은둔의 생활을 감당할 만하다는 말로 새해를 열어가고 있다.

고향 김제로 돌아온 이후 茅亭으로 많은 지인들이 찾아온다. 그에 대한 심정을 노래한 시를 보자.

荷君雙蠟屐 그대 한 컬레의 나막신을 메고
訪我一茅亭 내가 거처하는 모정을 찾았네.
撚直吟髮白 비벼 곧게 세우며 백발을 노래하고
揩圓老眼青 둥글게 문지르니 노안 좋아지네.
雪多添遠賞 눈 많이 내려 멀리까지 감상하고
風細送幽聽 미풍이 그윽한 소리를 보내오네.
未有機心動 기심(機心)에 흔들리지 않고
相留到日冥 반가운 환담에 해질녘이 되었네.[75]

이는 안휴재(安休齋)가 와서 두보의 객구관(客舊館)에서 운을 따서 지은 첫 번째 시이다. 석정은 외진 곳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을 찾아 준 친구를 반갑게 맞이하며 해질녘까지 환담을 나눈다. 여기에서 그는 모정의 아름다운 풍경과 벼슬이나 명예, 기교 등 기심(機心)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의 심정을 술회한다.

---

68 김제문화원, 『석정이정직유고』I~IV, 향토문화자료(20), 2001.

69 詩書兮余爲良田 文藝兮余爲園圃.

70 이월령, 「석정 이정직의 문필생활과 시 특성 고찰」, 고시가연구, 제17집, 2002, 230쪽에서 시적 특성으로 시의 편찬이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으며, 작시의 장은 대부분이 交遊에서 이루어짐을 언급.

71 구사회(2013),「근대계몽기 석정 이정직의 문예이론 연구』, 태학사/ 이월령,「석정 이정직의 문학론 고찰」, 『어문연구』46집, 2004. 이승용,「석정 이정직의 시경론과 시의식」, 『온지논총』 제52집, 2017외 다수의 논문.

72 김태선, 「석정 이정직 시문학의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73 이월령, 「석정 이정직의 문필생활과 시 특성 고찰」

74 『연석산방시고1』 <乙未元日 簡惺夫-乙未>

75 『연석산방시고1』 <安休齋至拈杜客舊館韻>

이처럼 그가 머무는 김제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이들은 석정의 뛰어난 시적 능력을 흠모하여 더불어 창수(唱酬)하며 보내기를 희망했다. 때론 작시를 부탁하거나 자신이 지은 시에 대한 평가를 의뢰했다.

그렇다면 이들과의 수많은 교류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 석정은 고향에 돌아와 은거한다고 했으나, 실제는 茅亭에 머무는 시간보다 돌아다닌 시간이 더 많다.

鬢髮蒼然未絶群 머릿결 창연하여 무리에서 뛰어나지 않고
鄕居旅泊兩堪分 고향 거처와 여행 숙소 둘로 나눌만 하네.
遙村雪後寒峰見 먼 마을 눈 온 뒤 찬 봉우리 보이고
孤館燈深夜雨聞 외로운 여관 등불 깊은데 비 소리 들리네
向我共言惟有石 나에게 말해 주는 것은 오직 돌이니
與君相逐願爲雲 그대와 떠다니는 구름이 되고 싶어라.
比年漸得黃鍾解 요사이 점차 황종의 음율을 이해하니
牛鐸聲中輒自欣 소 방울 소리에도 문득 스스로 기뻐하네.[76]

이 시에서 석정은 자신의 생활은 고향에 머물 때가 아니면, 기행을 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3~6구에서는 현재 자신이 객지 여관에서 풍경을 바라보며 심정을 보이고 있다. 구름이 되어 이곳저곳 찾아다니고 싶은 심정을 펼치고 있다. 7~8구에서는 기행을 통해 많은 시를 지으면서 시의 운율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고 기쁨을 표명한다.

석정은 거의 매년 기행을 하였다.[77] 그렇다면 기행의 기쁨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海內奇書貧欲聚 온 나라의 기서(奇書) 가난하나 모으고 싶으니
山間幽屧老還輕 산간 구석구석의 걸음 늙었으나 오히려 가볍네.
閒來閒往從吾好 한가롭게 오가며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리니
不把尋常作世情 일상적인 것을 세태인정이라 여기지 않으리라.[78]

위 시를 통해서 그가 기행을 다니는 이유가 기이한 서적을 모으고 자신이 좋아하는 바를 추구하는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그가 친구와 지인, 그리고 학도들을 만나서 시사(詩社)를 열고 시를 읊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석정은 시서(詩書)를 평생 추구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79]

이제 기행과 교류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된 석정의 교유 관계를 짚어보자. 교유 관계는 친분의 정도와 거주 지역을 포함하여 분류함으로써 교유의 영역까지 살피고자 한다. 먼저 친구를 살펴보면 그가 동학이후 거처한 김제 지역의 주요 인사로는 최운정, 안휴재, 송석천, 김성부, 박초사, 이필운 등이며, 전주와 남원지역에는 정학산, 이옥초, 양청사, 박만향, 이운고, 눌인, 송암 등이며, 구례에는 허묘원, 황매천, 왕소천, 이해학, 이백촌, 석전 등이 있다.

제자를 살펴보면, 김제에는 송기면, 강석초, 송석, 김석암, 김석문, 석천, 오강, 추강, 죽초 등이 있으며, 전주와 남원에는 이운서, 김석호, 김추수, 노처인, 오정, 이원서, 이금석, 김매사, 이경인 등이 있으며, 구례에는 박금파, 김오봉, 김지원, 김하전, 박잠유, 고석문 등이 있다. 김제를 제외한 타 지역의 제자의 경우, 해당 지역에 각기 자신의 스승이 있으면서 석정의 기행으로 인하여 학습의 관계를 형성한 인물들이다. 이는 석정이 구례 만수동 사람들은 매천의 제자이고, 토금 사람들은 소천의 제자이며, 냉천의 사람들은 해학의 제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음[80]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Ⅲ. 석정 교유시의 형상화

석정은 동학을 겪은 이후로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좌절하지 않고 시서를 남기는 것을 그의 사명으로 삼았다. 그의 시는 1894년~1910년까지 대체로 순차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므로 연도별 경향에 따른 분류, 작품의 형식에 따른 분류, 주제별 분류가 가능하다. 본고에서는 그의 교유시만을 대상으로 연도별 시적 경향을 반영한 주제별 분류를 통해 살피고자 한다. 그 교유의 내용을 보자.

1. 이별과 회상의 情操

교유시에 있어서 이별의 정한은 일반적이고 모든 시인들에게 가장 많이 창작되는 부분이다. 석정 역시 은거한다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는 끊임없는 기행을 하였다. 그리고 그 기행의 이유로 친구를 만나는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

76 『연석산방시고2』 <與鶴山拈群字>

77 『연석산방시고4』 <賦鸗得流字>류자를 얻어 제비를 노래함. 愛汝天生羅網外, 年年自在四方遊.

78 『연석산방시고4』 <再賦>의 5~8구

79 『연석산방시고2』 <道中口占>의 7~8구 貧來役役元如此, 孤負詩書又一年. <與鶴山拈情字>의 5~6구 獨有詩書能悅性, 不教湖海枉知名. <宿可山 拈杜曲江韻 與鶴山共賦>의 7~8구 平生相愛深相願, 萬卷詩書日不違. <除日書懷>의 1~2구 山水青鞵破, 詩書白髮新. <除日次駱丞西京守歲韻>의 1~2구 守歲儒冠拙, 詩書擁舊塵.

80 『연석산방시고1』 <自註> 居萬壽洞者, 從梅泉學, 居土金者, 從小川學, 居冷泉者, 從海鶴者也.

松下軒窓竹外山 소나무 아래 집 창문으로 대나무 밖의 산이 보여서
蹔來遊賞不勝閒 잠시 감상하니 이 보다 더 한가로울 수 없도다.
魚窺花影當漪立 물고기 꽃이 비친 그림자 엿봄에 잔물결이 일어나고
鷰掠苔香拂翠還 제비는 이끼 향기를 빼앗아 비취빛으로 돌아오네.
白髮更生離別際 흰 머리 이별할 즈음에 더 생기고
赤心微見酒杯間 진심 술잔 사이에 은근히 보이네.
何當共結隣居社 어느 때 함께 맺어져 이웃에 살면서 모일까?
縱設柴門夜不關 가령 사립문 세워도 있어도 밤에 닫지 않으리라.[81]

이 시는 '산(山)'자를 운자로 얻어 지은 것이다. 구례 기행을 마치고 냉천을 떠나려는데 왕소천이 와서 하루를 더 묵게 되었고, 만수동, 토금, 냉천에서 전송하러 온 30여명의 젊은이들과 함께 하였다.

전4구는 현재 머물고 있는 마을 서재의 경치를 언급하고, 5~6구는 이별의 아쉬움을 백발과 술잔에 빗대고 있다. 만남의 시간이 빨리 흘러감을 흰머리 늘어난 것으로 표현하여 아쉬운 정을 드러내고, 또한 상대의 이러한 마음을 술잔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다고 하고 있다. 7~8구에서는 이웃으로 살면서 늦은 밤이라도 쉽게 만나기를 희망하는 마음을 사립문을 닫지 않겠다는 말로 대신하고 있다.

2. 시문에 대한 성취 의지 및 평가

석정은 "세상을 어찌 헛되이 보낼 수 있는가, 불후함이 어찌 글에만 있겠는가?"[82]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자신의 일에 매진하면 된다고 말한다. 석정은 시문을 저술하여 후세에 남기고자 했고[83] 이를 자신이 해야 할 일로 여겼다.

茅廬自喜客常來 초가집에 객이 항상 찾아옴을 스스로 기뻐하더니
身復迂遊久始回 몸은 또 멀리 유람하다가 오랜만에 비로소 돌아왔네.
白首虛心工刪藁 늙어서도 마음 비우고 공들여 원고를 다듬었고
十年病肺戒含杯 십년동안 폐병을 앓아 술 마시는 것을 경계했네.
稻粱成熟兒孫健 벼와 기장 익고 아이들은 건강하고
山水登臨道路開 산길과 물길을 감에 도로가 트였네.
努力尙能爲遠計 노력하면 오히려 큰 계획을 세우게 되리니
但敎歲月莫相催 다만 세월이 재촉하지 못하게 하라.[84]

이 시에서 석정의 거처인 모정에 늘 객이 오고, 자신은 오랜 기간 기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교유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3~4구에서는 늙고 병든 몸에도 불구하고 시를 짓고 다듬는 것을 지속하고 있다.

석정의 목표는 시서를 저술하여 후세에 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끊임없이 유람하며 보고 듣고 만나고 느낀 바를 기록하고 있다. 7~8구에서는 자신의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제 그의 교유시 중에 평가를 담아 회신한 시를 보자.

尺地詩筒一往還 지척의 거리에서 시를 한결같이 주고 받으니
多君惱病得心閒 그대 괴롭히는 병 많으나 마음은 한가하네.
試吟兩廻孤村句 시험삼아 '고촌' 시구를 두 번 읊조리니
如對雲晴數笏山 맑아진 산에 여러 홀기가 세워진 모습을 대하는 듯하네.
造物何干文字上 조물주 어찌 문자를 만들어서
令人久在藥茶間 오래도록 약과 차 사이에 있게 하는가?
南來社伴無心緒 남쪽으로 온 시사 동료는 마음이 없어
岐路橫斜竹外關 갈림길에서 빗나가 죽립 밖에 갇히었네.[85]

이는 석정이 제목에서 밝히고 있듯이 학농(鶴農)이 병으로 시사(詩社)에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으나 시를 보내왔다. 그 시를 보고 석정은 시어가 아름답다고 평가하고 앞운에 맞추어 지어 준 것이다. 3~4구에서 학농 시의 고촌(孤村)을 두 번 읊조리니 운청수홀(雲晴數笏)하게 된다는 표현은 학농을 위로하고 있는 듯하다. 이처럼 석정은 상대에게 화답시를 통해 시평을 던지는 경우가 그의 시에 흔히 보인다. 이외에도 시를 통해 상호간에 시론을 주장한 경우도 있다.[86]

3. 시국에 대한 우환의식

---

81 『연석산방시고2』 <自冷泉將發, 而小川又至留一日. 萬壽土金冷泉年少來餞者, 爲三十餘人, 以樂祖書屋窄不能容. 乃會于里中書齋拈山字>

82 『연석산방시고4』 49쪽 有身詎合虛生世, 不朽那能獨倚文.

83 『연석산방시고3』 458쪽 工到天應全, 保能垂來玆.

84 『연석산방시고2』 <白坡見放拈梅泉詩集得來字>

85 『연석산방시고3』 <鶴農上舍病臥多日, 未參詩席. 聞社中拈韻. 要見原軸和一首, 詩語頗佳, 余復以詩示之步前韻.>

86 이에 대해서는 기태완의 「매천 황현과 석정 이정직의 문학논쟁」, 『한문학보』13집, 우리한문학회, 2005.

석정 시의 우환의식은 동학으로 나라가 혼란해 진 것에 대한 걱정과 지속적인 기행의 과정에서 농민을 위해 풍년을 기원하는 애민의식이 표출된다.

當春更踈懶 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게으르다가
遇景愜淸幽 경치를 만남에 상쾌할 정도로 그윽하다.
映水雲含濕 물에 비친 구름은 습기를 머금고
融墻雪暗流 담장에 녹아내리는 눈은 땅속으로 흐르네.
深居非欲隱 깊은 곳에 사는 것은 은거하고자 함이 아니니
凝坐却如愁 응시하고 앉아 있노라니 오히려 근심스럽네.
未就名山賦 명산을 두고 시 짓지 못하고
令人搔白頭 흰 머리만 긁적거리게 하네.[87]

이 시는 안휴재(安休齋)가 와서 두보의 '병적(屛迹)'의 운을 따서 지은 것이다. 전4구는 봄을 맞이한 자연의 일상적 풍경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한가한 전원에 들어와 거처하고자 했던 석정의 심경은 5~6구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심거(深居)했으나 은거(隱居)하지 못하는 것이다. 오히려 석정의 마음은 근심에 쌓여있다. 그렇다면 그 근심은 무엇인가? 동학으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진 상황을 말한다. 이에 그는 아름다운 명산을 앞에 두고도 시를 짓지 못하고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다음의 시를 보자.

相別二年相見新 서로 이별한지 이 년 만에 다시 만났는데
天敎吾輩作羇人 하늘은 우리를 나그네로 만드셨나 보네.
未除湖海疏狂習 호해에 호방한 습관 버리지 못해
已博乾坤老大身 이미 넓은 천지에서 크게 늙은 몸이네.
紅遍野燒不知夕 붉게 들판이 밝아서 저녁인 줄 모르고
綠浮家釀正逢春 푸르게 집에서 술 빚어 막 봄을 맞이하네.
共將棲息無他願 함께 살아갈 적에 다른 바람은 없고
南陌東阡雨露均 남북 논두렁에 비가 고르게 내리는 것이네.[88]

이 시는 석정 자신을 "문 닫고 글 쓰며 뜻을 안정시키고, 시사(詩社)에 힘쓰며 늙어가는 몸"[89]이라고 평가한 친구인 난석(蘭石) 최진우(崔鎭宇)와 교유하며 지은 시이다. 이에서 석정은 2년만에 만난 재회의 감정을 표현하며, 7~8구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바라는 것은 오직 논밭에 고르게 비 내리는 것이라 말한다. 여기에 농사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석정의 애민의식이 담겨있다.

Ⅳ. 맺음말

석정은 근대계몽기 지식인이자 교육자이다. 그는 『유고』에 천 여편의 시를 남겼다. 그의 시는 서경서정시, 이시논시, 영물시, 시경시, 교유시 등 매우 폭넓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기행과 차운이 병행된 교유시이다.

본고에서는 석정의 교유시를 교유 관계와 교유시의 형상화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교유 관계는 말년의 거처인 김제 모정을 방문하거나 석정이 전주, 정읍, 남원 등 인근 지역을 유람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관계를 중심으로 친구와 제자로 분류하였다. 또한 1895년과 1897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구례 기행을 통해서 만나 시를 주고 받으며 교류하였고, 시사를 함께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파악하였다.

고유시의 시적 형상화는 편의상 세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이별과 회상의 정조는 교유시의 특성상 만남과 이별이 존재하는 법임을 감안할 때, 가장 일반적인 현상이다. 석정 역시 이별의 아쉬움을 넘어 지속적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깊은 정을 교환하고 이후 그리워하는 회상시를 짓기까지 한다. 둘째, 시문에 대한 성취 의지 및 평가에서는 석정의 시문에 대한 깊은 애착을 볼 수 있다. 세상을 헛되이 보낼 수 없다는 그의 생각은 시문을 저술하여 후세에 남기겠다는 의지를 표출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끊임없는 기행과 창작 활동을 지속한다. 셋째, 시국에 대한 우환의식은 동학으로 혼란해진 나라를 바라보는 지식인으로서의 걱정이 진한 한탄으로 표현된다. 아울러 기행의 과정에서 바라본 농촌의 삶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풍년을 기원하는 단비 내려주기를 기원하는 모습으로도 표출된다. 이러한 우환의식의 절정은 1906년 이후는 거의 시를 짓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그가 지식인으로 얼마나 고통스런 삶을 살다 갔는지를 알 수 있다.

<참고 문헌>

김제문화원, 『석정이정직유고』 Ⅰ~Ⅳ, 향토문화자료(20), 2001.
구사회, 「근대계몽기 석정 이정직의 문예이론 연구」, 태학사, 2013.
이월령, 「석정 이정직의 문필생활과 시 특성 고찰」, 『고시가연구』제17집, 2002,
이월령, 「석정 이정직의 문학론 고찰」, 『어문연구』46집, 2004.

87 『연석산방시고1』 <是日又拈杜屛迹韻>

88 『연석산방시고3』 <崔蘭石鎭宇夜話得新字>

89 『연석산방시고3』 <蘭石의 詩> 掩門工寫閒來志, 結社頻勞老去身.

김태선, 「석정 이정직 시문학의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기태완, 「매천 황현과 석정 이정직의 문학논쟁」, 『한문학보』13집, 우리한문학회, 2005.
이승용, 「석정 이정직의 시경론과 시의식」, 『온지논총』 제52집, 2017.

SATRLARDA TIZILGAN MARJON
(“Qutadgʻu bilig”asaridagi hikmatlar tahlili)

Zaripova D., BuxTI akademik litseyi o`qituvchisi.

In this article analyzed the work of Yusuf Xos Hajib who is member of Turkish literature, the wisdom of “Qutadgʻu bilig”. In wisdoms, the matters of human’s spirituality fully discovered.

Key words: the turkish literature, didactics, wisdom, spirituality, science

Bugun biz oʻz taraqqiyot yoʻlimizga egamiz. Buning bir omili sifatida oʻtmish tajribalaridan unumli foydalanish taqdim etilgan. Bizning oʻtmishimiz Sharq falsafasining hayotbaxsh va teran buloqlaridan suv ichgan mustahkam ildizdir.Taraqqiyotimizning poydevori nufuzli oʻtmishimizdan olinadi va buning vositasida biz qudrat kasb etamiz. Mustaqillikning bizga bergan imkoniyatlaridan biri uzoq tarixga boy,adabiy, madaniy va ma’naviy merosni toʻla ravishda xolis va tadqiq va tahlilga yoʻl ochganidir. Prezidentimiz Shavkat Mirziyoyev 2017-yil 7-fevralda qabul qilgan 2017-2021-yillarda Oʻzbekiston Respublikasini rivojlantirishning beshta ustuvor yoʻnalishi boʻyicha “Harakatlar strategiyasida: ”Uzluksiz ta’lim tizimini yanada takomillashtirish, sifatli ta’lim xizmatlari imkoniyatlarini oshirish, mehnat bozorining zamonaviy ehtiyojlariga mos yuqori malakali kadrlar tayyorlash siyosatini davom ettirish; ta’lim va oʻqitish sifatini baholashning xalqaro standartlarini joriy etish asosida oliy ta’lim muassasalari faoliyatining sifati hamda samaradorligini oshirish, ilmiy-tadqiqot va innovatsiya faoliyatini ragʻbatlantirish, ilmiy va innovatsiya yutuqlarini amaliyotga joriy etishning samarali mexanizmlarini yaratish” [90] kabi istiqbolli rejalarni aytib oʻtdilar. Yurtboshimiz tomonidan ta’lim sohasiga boʻlgan e’tibor ilm ahlini ham befarq qoldirgani yoʻq.

Ma’lumki, Sharq Uygʻonish davrida ma’naviy-ma’rifiy sohada asosiy masala inson muammosi boʻlgan. Shuning uchun ham ta’lim-tarbiya masalalariga katta e’tibor berilgan. Didaktik asarlarda Sharqqa xos boʻlgan insonning axloqiy, ruhiy kamoloti, oliy darajadagi yuksalish muammosi yetakchi gʻoya boʻlgan.

Yusuf Xos Hojibning ”Qutadgʻu bilig” asari-“baxt va saodatga eltiuvchi bilim”,” ta’lim” degan ma’noni bildiradi. Demak, asar nomidan ham uning pand-nasihatlar, ta’lim-tarbiyaga oid, har tomonlama komil insonni tarbiyalaydigan yetuk didaktik asar ekanligi yaqqol koʻrinib turibdi. «Qutadgʻu bilig»ning tadqiqotchilaridan biri B.Toʻxliyev ta’kidlaganidek:”Yusuf Xos Hojib “Qutadgʻu bilig” asaridagi olgʻa surilgan gʻoya va mavzular hamisha oʻz badiiy jilosi bilan bizni oʻziga maftun qiladi, badiiy tasvirdagi oʻziga xosliklar hayratimizni oshiradi.”[91]

Masalan, Yusuf Xos Hojibning “Qutadgʻu bilig” asaridagi ba’zi hikmatlar tahliliga toʻxtalamiz:

-“Hazrati Odam bilim, aql-u idrok sabab muhtaram”. *(Odam oʻz aqli va bilimi bilan hamma joyda e’zozlanadi.Uning aqli va bilimiga qarab hurmat qilishadi. Inson qadri bilimda ekanligi ta’kidlanadi.Uning obroʻsi ham bilimi va aqli tufayli oshadi va el orasida hurmat qozonadi)*

-“Uquv qayda boʻlsa, ulugʻlik boʻlar,
Bilim kimda boʻlsa, buyuklik olar”.[92]

(Shoir uquvni ulugʻlikka qiyoslab,bilimni buyuklikka oʻxshatadi. Har bir narsani oʻqigan ulugʻlanadi,bilimli odam albatta buyuklik oladi . Har bir buyuklik ,albatta, bilim va aql-idrok bilan yuksaladi.)

-“Bilimsiz kishida kasallik boʻlar,
Kasal emlanmasa yashamas, oʻlar!”[93]

(Bilimsiz kishini kasal odamga mengzaydi. Kasallikning yengil oʻtishi uchun tibbiyot nuqtayi nazardan odam emlanadi. Bilimsiz kishi esa ilm olishi kerak, aks holda, u bu hayotda jismi tirik boʻlsa ham oʻlik hisoblanadi. Bilimsiz kishini bilim bilan “emlab” turish kerak.Unda bilim, aql-idrok boʻlmasa, bunday odamlar oxir oqibat ma’naviy tanazzulga uchraydi.)

-“Til arslon misoli yotar qafasda,
Bexabar boshini u yer nafasda”

---

[90] [Sh.Mirziyoyev.Inson manfaatlari har narsadan ustun.T:2017-yil]
[91] [B.Toʻxliyev.Yusuf Xos Hojib va turkiy xalqlar fol’klori.T :2013-yil]
[92] **[Yusuf Xos Hojib.”Qutadg`u bilig”.T: 2007-yil]**
[93] **[Yusuf Xos Hojib.”Qutadg`u bilig”.T: 2007-yil]**

(Odamning og'zi misoli qafas,u yerdagi til esa arslondek turadi. Har nafasda bu til odamga zarar keltirishi mumkin. Sen shuni bilginki, til xavfli bo'lgani uchun u olloh uni qafasda (og'izda)yaratdi. Agar undan bexabar qolsang, o'z boshini yeb qo'yishi mumkin)

Axloq masalasi faylasuflarning ham, buyuk mutafakkirlarning ham, tarixchi-yu shoir hamda adiblarning ham birdek diqqat markazida bo'ldi. Ta'limiy-axloqiy risolalar paydo bo'lib, axloqning ham nazariy, ham amaliy masalalari tahlil etildi. «Qutadg 'u bilig», «Axloqi Nosiriy», «Qobusnoma», «Hibbat ul-haqoyiq», «Guliston», «Bo 'ston», «Axloqi Jaloliy», «Axloqi Muhsiniy», «Mahbub ul-qulub» kabi Yusuf Xos Hojib, Nasiriddin Tusiy, Kaykovus, Ahmad Yugnakiy, Muslihiddin Sa'diy, Abdurahmon Jomiy, Alisher Navoiy, Jaloliddin Davoniy, Husayn Voiz Koshifiylarning ta'limiy-axloqiy asarlari yuqorida ta'kidlaganimiz inson shaxsini ma'naviy-axloqiy shakllantirish muammosini hal etish sohasida yaratilgan sof pedagogik asarlar sifatida muhim ahamiyatga ega. Mazkur ta'limiy-axloqiy asarlarda insonning ma'naviy kamolga yetishida yuksak axloqqa ega bo'lishi ilm-fanni egallashi asosidagina amalga oshishi mumkin, degan g'oya ilgari surildi. Chunki biz nazarda tutayotgan davrdan boshlab savod o'rgatish «Qur'on» va «Hadis»larni o'rganish va ulardagi ko'rsatmalarni o'zlashtirib olish bilan birga olib borilgan. Shunga ko'ra, «Qur'on» va «Hadis»lardagi pand-nasihatlar ham olimlar, ham adiblar ijodiga ta'sir etgan. Hadislarning ta'siriga sabab umuminsoniy fazilatlarga alohida urg 'u berilgan. Ularda ilgari surilgan musulmonlikning muhim xislatlari: halollik, saxovat, himmat, mehr-u oqibat, ehson, sharm-hayo, ilm izlash, muomala qoidalari, axloq mezonlari va boshqalar o'z ifodasini topgan va Sharq adabiyotiga, jumladan, ta'limiy-axloqiy asarlarga ta'sir etgan. Ta'limiy-axloqiy asarlar bevosita Hadislarda ilgari surilgan g'oyalar asosida yaratildi. Hadislar ta'siri Yusuf Xos Hojibning «Qutadg'u bilig» asaridan boshlanib, Kaykovusning «Qobusnoma», Ahmad Yugnakiyning «Hibbat ul-haqoyiq», Sa'diyning «Guliston», Alisher Navoiyning «Mahbub ul-qulub» va boshqa asarlar negizida ko'rinadi. Ham g'oya, ham mazmun, ham shakl buning dalilidir.

Masalan,"Qur'on"da ham, "Hadis"larda ham, ta'limiy-axloqiy dostonlarda ham ilm ta'rifi bilan birga, xulq-odob qoidalari, turmush odobi yoritiladi."Qutadg'u bilig" asaridagi ushbu satrlarga e'tibor qaratamiz:

-"Shoshqaloqlik kishiga balo keltiradi".

(Asarda Oyto'ldi Kuntug'dining xizmatiga kirgach, uni turli ish va topshiriqlar berib sinab ko'radi. Ammo bir kuni uni yoniga chaqirib savollar bersa, Oyto'ldi koptokni chiqarib unga o'tiradi va ko'zlarini yumib oladi. Shunda Kuntug'di bu yigitga ishonib shoshildimmikan deb o'ylaydi va yuqoridagi satrlarni aytadi. Hech qachon shoshib xulosa chiqarmaslik, bir kishi yoki biron voqea haqida tez qarorga kelmaslik lozim. Aks holda, noto'g'ri qilingan xulosa unutilmas vijdon azobi yoki pushaymonlik olib kelishi mumkin.)

"To'g'rining o'zi-tili ham, dili ham, bir bo'lar so'zi".[94]

Asarning fazilat va nuqson degan bobida Oyto'ldi Kuntug'diga rostlik, to'g'rilik qanday bo'ladi degan savoliga to'g'rining o'zi ham, tili ham, dili ham to'g 'ri bo'lishi kerak degan javobni qaytaradi. Ushbu misralarga o'xshash satrlarni A.Navoiyning "Farhod va Shirin" dostonida uchratish mumkin:

Demonkim, ko'ngli pok-u, ham ko'zi pok,
Tili pok-u, so'zi pok-u, o'zi pok.

Xulosa shuki, ikki adib ham insonning ham tashqi, ham ichki olami pok bo'lishi kerakligini uqtiradi.

"To'g'rilik kerakdir yigit kishiga,
To'g'rilik qut berar kishi ishiga".

(Yigit kishi to'g'ri bo'lsa, unga baxt-saodat yo'li ochiladi.To'g'rilik ,mardlik bu yigit kishining husni. Halolllik va mardlik yigit kishiga baxt olib keladi)

"Agar bo'lsa ezgu yomonga ulfat,
Yomondan ko'ra ko'p keltirar kulfat"

(Kuntug'di Oyto'ldiga ezgu kishilarning ikki guruhi haqida ma'lumot beradi.Ularning biri-tug'ilgandan boshlab umrining oxirigacha ezgulik yo'lidan og'ishmaydi, faqat tog'rilik yo'lini ado etishadi. Ikkinchisu esa yomon kishilar orasiga tushib qolsa, o'zlari tanlagan yo'ldan chetga chiqishlari xato va adashishlar sari ketishlari hech gap emas deb ta'kidlaydi).

-"Oq sut bilan kirsa qaysi bir qiliq,
O'lim tutmaguncha o'zgarmas yo'riq"

Shunday yomon odamlar borki, ular o'jar va qaysar bo'lib, ularning qilmishlari tubanlikdan iborat. To o'limga yuz tutmaguncha yomonlik qilishdan chekinmaydilar. Adib hikmatlarida necha yillar davomida xalq tajribasidan o'tgan xalq maqollaridan ham foydalanganini ko'rish mumkin:

a)Sut bilan kirgan qiliq jon bilan chiqar

b)Odam borki,odamlarning naqshidir,odam borki ,hayvon undan yaxshidir.

[94][**Yusuf Xos Hojib."Qutadg`u bilig".T: 2007-yil]**

Hayosizlik aslida juda yomon dard, borib turgan balodir. Rostgo‘ylik, hayo va xulq birlashgan joyda baxtiyorlik bo‘ladi. *Adib asarda hayosizlikni yomon dardga o‘xshatadi. Rostgo‘ylik hayo bilan birlashsa, albatta kishiga baxtiyorlik olib keladi.*

Ushbu misralarga o‘xshash satrlarni 19-asrda yashab ijod etgan Muhammad Rizo Ogahiyning siyosat va davlatga munosabati,hukmdor fazilatlari va burch –

vazifalari borasidagi mulohazalari bayon etilgan pandnoma asari-“Qasidayi nasihat” da quyidagi fikrlarni uchratish mumkin:

-*“Hayosizdan aslo vafo istama,*
Vafosizdan aslo hayo istama”.[95]

Yuzuf Xos Hojib Oyto‘ldi obrazi orqali davlat boshlig‘i Kuntug‘diga hayo haqidagi ibratomuz so‘zlarni bayon etsa, Ogahiy esa o‘z asarida ko‘pni ko‘rgan donishmand sifatida yosh xonga to‘g ‘ridan to‘g‘ri nasihatlar qiladi. Bundan ko‘rinib turibdiki, ikkala asardagi bu satrlar sultonlarga aytilgan pandlardir.

Xullas, Sharq ta’lim-tarbiyasida ilmni targ‘ib etish, xulq-odob qoidalari islomiy tamoyillarga asoslangan, ta’limiy-axloqiy asarlardagi mundarijalarning o‘xshashligi ular tayangan ma’naviy zaminga bog‘liqdir.

Foydalanilgan adabiyotlar ro‘yxati:

1. Sh.Mirziyoyev.Inson manfaatlari har narsadan ustun.T:2017-yil
2. B.To‘xliyev.Yusuf xos Hojib va turkiy xalqlar fol’klori.T:2013-yil
3. Yusuf Xos Hojib.”Qutadg‘u bilig”.T:2007-yil
4. Q.Yo‘ldoshev,V.Qodirov va boshqalar. 9-sinf adabiyot darsligi. T:2014-yil

THE ROUTES OF TRAVEL TO THE WORLD OF JOSEON INTELLECTUALS AND CHANGES OF ROUTES IN THE TRANSITIONAL PERIOD TO MODERN ERA

Lee, Su-jin (Sunmoon Univ. Korea).

In terms of written records, the first book of travel written by a Korean was Wangocheonchulguljeon(往五天竺國傳) written by Buddhist monk Haecho(惠超, 704~787) of Silla dynasty. He described his journey from across China to India, Persia, Central Asia, to Chang'an(長安), or current Xi'an(西安). The book of travel vividly dexribed politics, economy, culture, history, geography, and customs of the 8th century India and Central Asia. There was no book of travel written during the next dynasty Goryeo. But, in the subsequent dynasty Joseon, an abundant number of official travel records were produced by the diplomatic teams to China(燕行使) and to Japan(通信使).

With the open-door policy of Joseon dynasty In the late 19th century, books of travel were not limited to China and Japan, but expanded to the Western world. Diplomatic missions led by Park Jeong-yang, Yu Gil-joon, Min Yeong-whan, Kim Man-soo and others visited Europe and America. In those days, the routes to Europe and America were not fixed. There were roughly two routes to go to Europe. One way was to go to Japan, cross the Pacific, go across the American continent, and, then, cross the Atlantic, and arrive at Europe. The other way was to go through China, pass through East China Sea, Indian Ocean, and Suez Cannel, cross the Mediterranean, and reach Europe. Meanwhil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period, with the construction of Cross-Siberian Railroad, people could use the railroad to go to Europe via Moscow.

When we read the books of travel to the West by Korean intellectuals in the transitional period to modern era, we can find that the routes to the outside world were not fixed, and the routes to arrive at destinations and to return to Korea had changed over time. Travel routes were not simply physical spaces diplomatic missions passed through, but, sometimes would become meaningful spaces where they could meet local peoples. Thus, this study examined routes of Joseon intellectuals to the outside world described in their books of travel, and changes of those routes contained in individual records.

근대전환기 조선 지식인의 세계 기행 노정과 변이 양상

1. 머리말

기록상으로 한국 최초의 국외 여행기는 신라 승려 혜초(惠超, 704~787)의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을 거쳐 인도에 도착한 뒤 페르시아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당의 수도 장안(長安) 즉 지금의 서안(西安)까지 여행한 내력을 적은 것으로 8세기 인도와

[95] [Q.Yo‘ldoshev,V.Qodirov va boshqalar. 9-sinf adabiyot darsligi T: 2014-yil, 145-bet]

중앙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 종교, 역사, 지리, 풍습 등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96] 고려시대에는 이러한 국외 여행 기록이 단절되었다가 조선시대에 이르면 주로 중국과 일본에 한정된 연행사(燕行使)와 통신사(通信使)의 사신단에 의한 공적 방문 기록이 풍부해진다.

19세기 말엽 조선의 문호 개방이 이루어지면서 국외 여행 기록이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주변국에 머물지 않고 서구 세계로 확대된다. 박정양, 유길준, 민영환, 김만수 등 대부분 공적인 성격을 지닌 외교 사절단으로서 미국 내지 유럽을 목적지로 하여 세계 여행길에 오르게 된다. 그런데 이 시기 서구로 향하는 여행길은 일정하지 않았다. 조선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항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일본과 태평양을 건너 아메리카 대륙을 횡단하여 다시 대서양을 넘어 유럽으로 가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중국을 통해 동지나해와 인도양을 지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지중해를 통해 유럽에 닿는 길이다. 한편, 일제강점기에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완공되면서 중국과 러시아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으로 들어갔다.[97]

이처럼 근대전환기의 조선 지식인이 남긴 서구 체험 기록물을 살펴보면, 세계로의 노정은 일관되지 않으며, 시기별로 목적지에 도달하거나 귀국하는 노정이 다양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정이란 사신 일행이 단순히 거쳐 지나가는 물리적 공간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어서, 새로운 만남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재현되기도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근대전환기에 조선 지식인에 의해 작성된 세계 체험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여 세계로 향하는 노정을 살펴보고, 개별 기록물에 담김 노정의 변이 양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세계 기행 자료별 ‘출발-경유-귀국’노정의 변이

근대전환기 조선 지식인에 의해 작성된 서구 체험 관련 기록물을 찾아보면, 유길준의 『서유견문(西遊見聞)』, 박정양의 『미행일기(美行日記)』, 민영환의 『해천추범(海天秋帆)』, 김득련의 『환구일기(環璆日記)』와 『환구음초(環璆唫艸)』, 민영환의 『사구속초(使歐續草)』, 김만수의 『일록(일록)』·『일기책(日記冊)』·『주법공사관일기(駐法公使館日記)』, 이종응의 『서사록(西槎錄)』·『셔유견문록(西遊見聞錄)』, 김한홍의 『셔양미국노정기』·『해유가(海遊歌)』 등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공적인 성격을 지닌 외교 사절단으로 세계 여행에 참여하였으며, 1883년부터 1908년까지 근대전환기 시기의 서구 체험을 통해 겪은 근대 문명에 대한 문화적 충격을 기록물 안에 고스란히 드러냈다.

1) 1883년 7월 민영익·홍영식·유길준 등 보빙사(報聘使) 일행[98]

①제물포(7/26)→나가사키→요코하마(8/15)→샌프란시스코(9/2)→시카고(9/12)→워싱턴(9/15)→뉴욕(9/17)→보스톤(9/19)→뉴욕(9/23)→워싱턴(9/29)→뉴욕(11/6~12/1)→아조레스(12/17)→지브랄터(12/29)→마르세유(1884/1/6)→파리(1/13)→런던(1/13)→파리(1/17)→마르세유→로마(2/16)→수에즈(2/25)→카이로(3/1)→아덴(3/10)→봄베이(3/21)→콜롬보(4/7)→싱가포르(4/19)→홍콩(5/1)→나가사키(5/21)→제물포(1884/5/31)

②제물포→나가사키→요코하마→샌프란시스코(9/2)→시카고(9/12)→워싱턴(9/15)→뉴욕(9/17)→보스톤(9/19)→뉴욕(9/23)→워싱턴(9/29)→샌프란시스코→태평양→제물포(1883/12/20)

③제물포→나가사키→요코하마→샌프란시스코(9/2)→시카고(9/12)→워싱턴(9/15)→뉴욕(9/17)→보스톤(9/19)→뉴욕(9/23)→워싱턴(9/29)→셀럼(11월)→아일랜드→런던→파리→베를린→네덜란드→벨기에→포르투갈→수에즈운하→싱가포르→홍콩→요코하마(11/28)→나가사키→제물포(1885/12/16)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역이 체결되고, 1883년 5월 초대 미국 공사가 내한하여 두 나라의 외교가 시작되었다. 이에 조선 정부는 외교적 예의를 다하기 위하여 한국 최초로 미국에 보빙사라는 이름으로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었다. 민영익(1860~1914), 홍영식(1855~1884), 서광범과 수행원 유길준, 최경석, 변수 등 선발된 보빙사 일행은 직항이 없던 시기였기 때문에 미국공사 루셔스 푸트(Lucius H. Foote)의 배려를 받아 일본 나가사키로 향하는 미국 증기선 모노카시호(Monocacy)를 타고 일본을 거쳐 미국행 여객선으로 갈아타기로 되어 있었다. 8월 15일경 미국 여격선 아라빅호(Arabic)에 승선하여 20여일 항행 끝에 1883년 9월 2일 샌프란시스코 항에 도착한다.

1883년 9월 2일부터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 뉴욕, 보스톤을 거쳐 미국 시찰일정을 마치고서 10월

---

[96] 정수일, 「혜초의 서역기행과 『왕오천축국전』」, 『한국문학연구』27,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04.

[97] 구사회, 「근대전환기 조선인의 세계 기행과 문명 담론」, 『국어문학』61집, 국어문학회, 2016. 146~147쪽.

[98] 1883년 7월 시작된 보빙사 일행에 대한 일정 및 경로 정보는 아래의 논문을 참조하여 작성하였다.

김원모, 「조선 보빙사의 미국사행 연구(상)」, 『동방학지』49,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5.

김원모, 「조선 보빙사의 미국사행 연구(하)」, 『동방학지』50, 연세대 국학연구원, 1986.

손정숙, 「한국최초 미국외교사절 보빙사의 견문과 그 영향」, 『한국사상사학』29, 한국사상사학회, 2007.

우남숙, 「유길준과 에드워드 모스 연구-사상적 교류를 중심으로」, 『한국동양정치사상사연구』9(2), 한국동양정치사상사학회, 2010.

12일 미국 대통령을 예방하고 인사를 전하여 일정을 마치게 된다. 이때 미국 대통령 아더(Chester Arthur)는 민영익에게 대서양을 통해 유럽 일대를 돌아보고 귀국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안을 받아들인 보빙사 일행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귀국길에 오르게 된다. 먼저 ①과 같이 민영익은 1883년 12월 1일 뉴욕을 출발하여 대서양을 통해 유럽 일대를 돌다보고 6개월간의 세계 일주 여정을 마치고 1884년 5월 귀환한다. 부사 홍영식 일행은 ②와 같이 태평양을 건너 곧장 제물포항에 도착하였다.

한편, 민영익에 의해 보빙사 수행원이 된 유길준은 “미국 수도에 이르러 보빙사 일을 끝내자, 공이 장차 복명하러 귀구하면서 나를 (미국에) 머무르게 하고는 공부하고 오라는 임무를 맡기셨다. 그곳 외무부에 부탁하여 (나를) 돌봐 달라고 혜택을 구하니, 외무부도 또한 기뻐하였다.”[99]라고 하여 민영익의 도움으로 미국에 남아 공부할 기회를 얻었다. 이에 ③에서와 같이 보빙사 일행 보다 먼저 뉴욕을 떠나 유학을 위해 셀럼으로 이동하게 된다. 유학을 마치고는 곧장 귀국하지 않고 유럽의 여러 나라를 돌며 선진 문명을 파악하고 1885년 12월에 제물포항에 도착하게 된다.

2) 1887년 11월 12일 박정양, 이완용, 이하영 등 초대 주미공사관 파견 일행

박정양(1841~1904)은 초대 주미전권공사로 파견되어 1887년 8월부터 1889년 9월 귀국하기 까지 미국 재임 중의 활동 사항과 견문 내용을 『미행일기(美行日記)』에 담았다. 고종에게 보고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미행일기』에는 미국의 제도와 문물을 시찰하고 느낌 점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 초대 주미공사관 파견 인원은 전권공사 박정양을 비롯하여 참찬관 이완용(1859~1926), 서기관 이하영(1858~1929), 일등서기관 이상재(1850~1927), 번역관 이채연(1861~1900), 참찬관 미국인 호러스 알렌(Horace N. Allen) 등 11명이었다.

④제물포(11/16)→부산항(11/18)→나가사키(11/19)→홍콩(11/24)→마카오(12/2)→요코하마(12/8)→하와이(12/20)→샌프란시스코(12/28)→워싱턴(1888/1/9~11/19)→시카고(11/20)→샌프란시스코(11/25~11/27)→요코하마(12/19)→도쿄(12/20~1889/3/29)→요코하마(3/29)→고베(3/31)→나가사키(4/6)→쓰시마(4/11) →부산항(4/11)[100]

당시 박정양 일행의 노정을 살펴보면, 제물포에서 미국군함 오마하호(Omaha)를 타고서 통상적으로 나가사키와 요코하마를 거쳐 미국으로 곧장 향하지 않고 홍콩을 경유하게 된다. 이는 민영익이 당시 홍콩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와 상의할 일이 생겼기 때문에다. 박정양은 서기관과 수행원 등 나머지 일행은 요코하마에서 만나기로 악속하고, 독일 상선을 이용하여 홍콩으로 향한다. 홍콩에서 민영익을 만나 회포를 풀고는 요코하마로 출발하는 영국 공사의 배 오션익호(Oceanic)를 카고 마카오를 거쳐 요코하마로 이동하여 먼저 와 있던 서기관과 수행원 일행과 합류한다. 이어서 홍콩에서 타고 왔던 영국선박 오션익호를 타고 남은 노정을 이어간다.

1888년 1월 9일 워싱턴에 도착하여, 1월 17일 클리블랜드(Stephen Grover Cleveland) 대통령에게 국서를 전하고, 공사관을 개설하는 등 자주 외교를 전개하였다. 고종으로부터 소환명령을 받은 뒤, 1888년 11월 15일 클리블랜드 대통령을 예방하여 고별인사를 나누고는 11월 19일 워싱턴을 떠나 대륙횡단열차를 타고 11월 25일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한다. 11월 27일 미국 땅을 출발하여 12월 도쿄에 도착해서는 조선의 정세를 살피고, 조정에 보고를 위하여 서기관 이상재를 먼저 파견하였다. 이후 요코하마, 나가사키, 쓰시마를 거쳐 부산항에 이른 그는 육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올라가 국왕에 복명한 것이 1889년 8월 20일이다.

3) 1896년 러시아 니콜라이 2세 황제대관식에 참여하는 민영환 일행

1896년 5월 26일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니콜라이 2세의 황제 대관식이 예정되어 있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민영환(1861~1905)을 특명전권공사로 임명하여 윤치호(1865~1945), 김득련(1852~1930), 김도일 등의 사절단을 파견하였다. 중국과 일본 등을 벗어나 미국,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서구 문명을 직접 경험하여 민영환의 『해천추범(海天秋帆)』, 김득련의 『환구일기(環璆日記)』, 『환구음초(環璆唫艸)』, 저자 미상의 『부아기정(赴俄記程)』이 있다. 『환구일기』는 당시 공식적인 사행 과정을 편년체로 기록한 것이고, 『환구음초』는 견문과 감회를 시로 기록한 일종의 기행 시집이다. 『해천추범』은 『환구일기』를 저본으로 하여 자신의 개인사를 부분적으로 첨가한 것이다. 한편, 윤치호는 『일기』에 당시 사행의 경위를

---

99 유길준(허경진 옮김), 『서유견문』, 서해문집, 2004, 20~21쪽.

100 1887년 박정양 일행의 일정 및 경로 정보는 박정양(한철호 옮김)의 『미행일기』(푸른역사, 2015.)와 한철호의 「초대 주미전권공사 박정양의 미국관-『미속습유』를 중심으로」(『한국학보』18, 일지사, 1992.)를 토대로 작성하였고 날짜는 양력일을 따름.

영문으로 상세히 기록하였다.[101]

⑤제물포(4/1)→상해→일본→태평양→미대륙횡단→뉴욕→대서양→영국→아일랜드→네덜란드→독일→폴란드→러시아 모스크바(5/20)→페테르부르크(8/19)→시베리아횡단→몽고→간도→부산

일행은 러시아에서의 임무를 끝마치고 1896년 8월 19일 페테르부르크에서 귀국길에 오른다. 당시 귀국 노선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홍해를 경유하여 남부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시베리아를 경유하여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길이다. 민영환 일행은 전자를 희망하였으나, 러시아 측의 권유로 중·러 국경상황을 살필 수 있는 시베리아 노선을 택하여 귀국하였다.[102]

4) 1901년 4월 15일 주불 공사 김만수 일행

1901년 3월 프랑스 공사로 발령 받은 김만수는 유럽 발령을 받은 다른 외교관들과 함께 임지를 향해 출발한다. 4월 14일 고종 황제를 알현한 뒤 출발하여 프랑스 현지에서 외교 임무를 수행하고 1902년 2월 귀국한다.

⑥제물포(4/15)→위해(4/16)→연태(4/16)→상해(4/22)→홍콩(5/4)→사이공(5/9)→콜롬보(5/17)→지부티(5/24)→홍해(5/26)→포트사이드(5/30)→마르세유(6/4)→파리(6/6~11/22)→베를린(11/23)→상트페테르부르크(11/26)→오데사(12/25)→콘스탄티노플(12/30)→포트사이드(1902/1/2)→수에즈운하(1/3)→아덴(1/8)→석란도(1/15)→싱가폴(1/22)→뤼순(2/3)→제물포(2/10)[103]

유럽으로 향하기 위하여 제물포항에서 상해를 거쳐 동지나해를 돌아 인도양과 수에즈 운하를 거쳐 지중해와 대서양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돌아오는 길에는 러시아 공사 이범진을 만나기 위하여 부임하던 당시의 노선으로 귀국하지 않고 러시아에서 1달간 체류한 뒤 우크라이나 오데사와 터키의 수도 콘스탄티노플을 거쳐 돌아왔다.

이 밖에도 1897년 1월 민영환은 영국 빅토리아 여왕의 즉위 60년 축하식에 다녀와서 『사구속초(使歐續草)』를 기록하였다. 특명전권공사로 임명된 민영환은 민상호, 이기, 김조현 등 사절단을 이끌고 3월 24일 인천을 출발하여 ‘상해→나가사키→홍콩→싱가포르→수에즈운하→오데사→상트페테르부르크→런던’을 거쳐 축하식에 참석하였다. 1902년에는 이종응(1853~1920)이 영국 에드워드 7세의 대관식 사절단에 다녀와서 『서사록』에 한문으로 모든 노정을 기록하였다. 1902년 4월 6일 한양을 출발하여 ‘일본→태평양→캐나다→미국→런던(6/6~7/7)→프랑스→이탈리아→이집트→에디오피아→예멘→콜롬보→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싱가포르→홍콩→중국’을 거쳐 8월 20일 인천에 도착하였다.

3. 맺음말

지금까지 근대전환기 조선지식인의 세계 체험 기록물을 대상으로 노정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883년 미국에 보빙사로 파견된 민영익 일행부터, 1887년 초대 주미공사관으로 파견된 박정양 일행, 1896년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2세 대관식을 참여한 민영환 일행, 1897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년 축하식에 참여한 민영환 일행, 1901년 주불공사로 임명된 김만수 일행, 1902년 영국 에드워드 7세 대관식에 다녀온 이종응 일행까지 근대전환기 세계 기행은 공적인 성격을 지닌 외교 사절단으로 세계 여행에 참여하였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민영익, 박정양, 민영환, 김만수, 이종응 등은 외교 사절단으로서 미국 내지 유럽을 목적지로 하여 세계 여행길에 오르게 된다. 근대전환기의 세계 기행 노정은 연행로와 같이 고정불변의 노정이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 미국으로 향하는 1883년 보빙사 일행과 1887년 박정양 일행은 부임지로 향할 때는 일본과 태평양을 건너가는 방법으로 동일하지만, 귀국 노선은 각기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 민영익은 미국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유럽 일대를 거쳐 귀국하는 한편, 부사 홍영식이나 박정양은 같은 노선으로 되돌아온다. 유럽으로 향하던 김만수, 이종응 일행의 노선을 살펴보면, 1901년 김민수 일행은 중국 상해를 거쳐 인도양을 지나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유럽에 도착한 반면, 1902년 이종응은 일본을 거쳐 태평양을 건너

---

[101] 이에 관해서는 최식의 「1896년 아라사 사행, 『환구일기』와 『환구음초』-사행록의 관점에서 바라본 아라사 사행」(『한문학보』20, 우리한문학회, 2009.)참조.

[102] 이민원, 「조선특사의 러시아외교와 김득련-니콜라이II 황제대관식 사행을 중심으로」, 『역사와 실학』33, 역사실학회, 2007, 236~237쪽.

[103] 1901년 김만수 일행의 일정 및 경로 정보는 김만수(구사회 외 옮김)의 『대한제국기 프랑스 공사 김만수의 세계여행기』(보고사, 2018.)를 토대로 작성하였다.

캐나다와 미국을 거쳐 영국 런던에 도착한다.

이처럼 외교사절의 세계 기행 노정은 단일하지 않고 육로나 해로의 사정,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 등에 따라 이들의 노선은 변화가 생긴다. 논자가 이러한 세계 기행 노정에 관심을 두는 이유는 세계 기행을 담은 이들 기록물들이 날짜별로 일정을 기록하여 여행 경로를 중심으로 사건 맥락이 서술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발부터 귀국까지 각각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어서, 노정을 개별적으로 살피기보다는 여행 경로에 따라 맥락에 맞게 시각화하여 제공한다면 세계 기행에 대한 지식 정보의 체계화는 물론이고 새로운 지식 결과물을 생산·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계 기행에 대한 기본 자료 검토를 충실하게 실행하여 디지털 시각화 결과물 제공을 위한 방안을 후속 과제를 통해 모색하고자 한다.

ДИАСПОРА АДАБИЁТИДА ТИЛЛАР ВА МАДАНИЯТЛАРАРО ТЎҚНАШУВ (ХОЛИД ҲУСАЙНИЙНИНГ “ТОҒЛАР ҲАМ САДО БЕРАДИ” РОМАНИ МИСОЛИДА)

Рузматова Д.Р. ТЖТУ докторанти.

Afghan born American writer Khaled Hosseini is adequately contributing into the development of diaspora literature. The writer used languages and cultures clash,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diaspora literature, in his novel “And the Mountains Echoed” thus he could demonstrate the phenomenon of belonging of afghan people in diaspora to numerous languages and cultures.

Key words: diaspora, culture, language, afghan, family

“Тоғлар ҳам садо беради” романи диаспора адабиётининг ёрқин намунаси сифатида нафақат афғон маданияти, балки Америка ва Европа маданиятларнини ҳам ўзида мужассамлаштиради. Муаллиф ўқувчига асар ичидаги бир нечта сюжетлар орқали бир қатор оилалар билан биргаликда бир-бирига ўхшамаган маданиятларни таништирадики, бу ҳолат асарда диаспоранинг учта муҳим хусусияти яъни, тиллар ва маданиятлараро тўқнашув, биографик метод тамойиллари ҳамда замон ва макон мутаносиблигини ўзида жамлаганидан далолат беради. Асарнинг эътиборли томони шундаки, муаллиф қахрамонларини асосан оиланинг бир бўлаги сифатида тасвирлайди ва уларнинг оиладаги вазифаси орқали турли хил миллат вакиллари хаётини очиб беради.

Диаспора адабиётининг асосий хусусияти ҳисобланувчи тиллар ва маданиятлар аро тўқнашув принципи ёзувчидан ўзи туғилиб вояга етган давлат ва ҳозирда истиқомат қилувчи мамлакатга тегишли бўлган маданият намуналаридан фойдаланишни тақозо этади. Афғонистонда туғилган америкалик ёзувчи Холид Ҳусайний романларида муаллифнинг ҳар иккала маданиятга тегишлилигини гувоҳи бўлиш мумкин. Чунки инглиз тилида ёзилган романларга таъсирдорлик ва ишончлилик тамойиллари асосида форс, араб ва туркий тил намуналарининг бириктирилиши асарларнинг шарққа хослик хусусиятини кучайтиради. *“Шамол ортидан югуриб”* ва *“Минг қуёш шуъласи”* романларидан фарқли ўлароқ, Ҳусайний *“Тоғлар ҳам садо беради”* романида французча сўзлардан ҳам сезиларли даражада фойдаланади-ки, тиллар ва маданиятлар аро тўқнашув хусусияти биографик метод тамойиллари билан уйғунлашиб кетади. Маълумотларга кўра ёзувчининг отаси Афғонистоннинг дипломатик миссиялари сабаб оиласи билан бир муддат Францияда яшаган. Ватанда нотинчлик сабаб Ҳусайнийлар Франциядан Америкага боришган ва шу ерда бошпана топишган. Муаллиф ҳаётидаги замон ва маконлар аро кўчиб юриш диаспора анъаналарининг ёзувчи ижодидаги ўрнини янада мустаҳкамлади.

“Тоғлар ҳам садо беради” романида ёзувчи *divs, jinns, shorwa, motreb, tandoor, iftar, malik, nang, namoos, Bibi Sahib* [Khosseini 2013: 402] каби сўзларнинг истеъмоли билан асарнинг шарққа хослигини кучайтирса, *ecoute moi, non mai, quande-meme, daccord, stepuncle, la tua cugina, para uno foto, amigo* [Khosseini 2013: 402] ва яна бир қатор сўз ҳамда сўз бирикмалари ёрдамида қаҳрамонларнинг ғарбга хослигини тасвирлайди.

Афғонлар латифа айтишга, ҳикоялар тўқишга моҳир эканликларини Ҳусайний мулла Шаҳиб мисолида очишга муваффақ бўлади. У жуда кўп ҳикояларни ёддан билар, аммо бир ҳикояни жуда такрорларди: *“Ер юзининг қай бир нуқтасида яшамасин, ҳар бир мусулмоннинг кафтида ғоятда ғаройиб нарсага кўзингиз тушиши мумкин, барчасининг кафт чизиқлари бир хил. Бу нимани англатади дейсизми? Мусулмон кишининг чап кафтидаги чизиқлардан араб ёзувидаги саксон бир рақами, ўнг кафтидагидан эса ўн саккиз рақами келиб чиқаркан. Энди саксон бирдан ўн саккизни айирсак, нима чиқади? Олтмиш уч. Пайғамбаримизнинг вафот этгандаги ёши”* [Ҳусайний 2017: 512]. Бир куни Шодбоғга келган бир сайёҳ мулланинг ушбу ҳикоясини эшитиб, унга шундай дейди: *“Аммо, мулла соҳиб, мен бир пайтлар бир яҳудийни учратган эдим. Онт ичиб айтаманки, унинг кафтида ҳам айнан ўшандай чизиқлар бор эди. Буни қандай изоҳлайсиз?” Шунда мулла: “Демак, ўша*

яҳудий руҳан мусулмон бўлган", [Ҳусайний 2017: 512] -деб ҳозиржавоблик билан ўз суҳбатдошини лол қолдирган экан.

Пари кейин англагани ўгай онаси Нила Ваҳдати билан Афғонистонни тарк этиб, Францияда яшайди. Она-қиз муносабатида Ҳусайний диаспорадаги афғонларнинг ўзлигини, анъаналарини, маданиятини ва тилини унитишлари ва яшаб турган ҳудуд маданиятининг кучли таъсирини бадиий ифодалаб берган. Пари болалик даврларини, эндигина ўн ёшдалигидаги воқеаларни эслайди. *"Бир куни мактабдан қайтгач, ошхонадаги стол устида йигирма беш франк пул билан бир парча қоғозга кўзи тушди. Унда шу сўзлар ёзилган эди: "Мен Марк билан Элзасга кетдим. Маркни эсласанг керак. Бир-икки кунда қайтаман. Яхши қиз бўлиб ўтир. Je t'aime. Онанг." Парининг кўзлари ёшга тўлди, "икки кун унчалик кўп кун эмас, узоқ эмас", дея ўзини тинчлантириб, ошхона ўртасида титраб-қақшаб туриб қолди"* [Ҳусайний 2017: 560].

Ёзувчининг бадиий ҳақиқати шуни кўрсатадики, диаспорадаги ҳаёт инсонни ўзи истамаса-да, унга мерос бўлган маданиятдан узоқлаштиради ва ундан-да ачинарлиси ўзлигини унитишга олиб келади. *"Қай бир кечада бир оз ширакайф бўлиб келган Шателард исмли бир профессор Паридан советлар Афғонистондан чиқиб кетсалар, нима бўлади деб ўйлайсиз, дея сўради. ... –Билмадим, – деди Пари. – Очиғини айтганда, мен фақат номигагина афғонман, холос"* [Ҳусайний 2017: 587].

Романда гарчи нотинч ва ноиложликда яшовчи афғонлар учун фарзанд энг улуғ неъмат, серфарзандлик юксак бахт сифатида таъкидланса, Европада ижтимоий мавқеъ, касбий кўтарилиш муҳимроқ эканлиги ошкор этилади. *"Колет билан Дидиернинг фарзанди йўқ эди, бунга жиддий биологик сабаб эмас, шунчаки жуфтлик буни истамаган эди"* [Ҳусайний 2017: 589].

Романда йигирмадан ортиқ оилалар тақдири ҳикоялар кесимида ифодаланади. Воқеаларининг асосий мақсади ота-ўғил, она-қиз, ака-сингил, опа-сингил ва ака-укалар мисолида оила қадриятларини Европа ва Осиё мисолида кўрсатиб беришдан иборат бўлиб, Холид Ҳусайний мазкур вазифани диаспора адабиёти хусусиятлари асосида очиб беради.

Адабиётлар:

1. Khaled Hosseini. And the Mountains Echoed. New York: Riverhead Books, 2013. 402 P
2. Минг қуёш шуъласи: роман. Холид Ҳусайний/Таржимонлар Рустам Жабборов, Мунира Норова. –Тошкент: Янги аср авлоди, 2017. 688 б.

SILKROAD AND HYECHO' *WANGOHCHEONCHUKGUKJEON*

Jeon, Young-Ran (Daegu Univ. Korea).

This paper seeks to announce Buddhist monk Hyecho, his travelogue *Wang ohcheonchukgukjeon*, Hyecho's travel route and five poems of pilgrimage, which are included in this book.

Hyecho(704~787), as a religious dignitary entered Tang Dynasty in the period of King Sungdeok when he was 16 (719) and deceased in Geonwon Boje temple in the Mountain of Odae, China in 787.

In 1908, French Paul Pellio(1878~1945) was known to the world as discovering *Wangohcheonchukgukjeon* written by Hyecho in Zhanggyeong-dong, Kokogul of Gansu Province Tunhuang. *Wangohcheonchukgukjeon* was mixed in with 7,000 relics purchased from Wangwonlok who was guarding Janggyeongdong at the time, and it is now stored in National Library of Paris. The original version was displayed in Central National Museum of Korea in 2010. At the time of the discovery, Hyecho was considered to be a Buddhist monk of Tang dynasty, but later in 1915, his nationality was proven to be Silla by a Japanese scholar, Takakusu Junjiro.

Hyecho who learned Buddhism from Jingangzhi (Vajrabodhi), went to India through sea routes, completed a Buddhist pilgrim, and wrote the memoir of the pilgrimage of four years, the three volumes of *Wangohcheonchukgukjeon* until his return to Tang dynasty via neighboring countries and Central Asia (727). Among them, a fragment of *Wangohcheonchukgukjeon* was discovered by a French scholar, P, Pelliot.

There are only one scroll of manuscripts left at the present, and neither the books' titles nor the author's names is left, and several words are missing. The time of the writing was Kaewon(era name)15, the year 727 when he returned from the pilgrimage.

'Cheonchook' is an old Chinese name for India. According to the records of the existing travelogue that was truncated back and forth, Hyecho wrote what he had seen and heard during the pilgrimage. The pilgrimage started from Middle India, went to South India, West India, and North India, and via Central Asia and Pamir Plateau reached the Chinese territory, Guja.

The term of Hyecho's travel to India was for four years from 723, which was the Silla's intermediary period from King Peopheung(514) to King Gyeongdeok(765). In the earlier period, the early Silla, there was

no Chinese poetry handed down. Thereby, although Hyecho's travel poems are no more than 5 pieces, they are pieces of work worth a considerable historical value as to the Korean poetical circles.

The five pieces of poems honestly reveals particularly exiting, painful, and fearful feelings he felt during the pilgrimage. Since his inner world as a young man aged 20, more than as a figure of an truth-seeker, was naturally expressed well, it seems that the moving rather touches the deep in the hearts of the readers.

Although he was a monk already having had entered the Buddhist priesthood, a young man only aged 20 went to India from Guangzhou, China via sea routes, went to East Asia passing through the South China Sea and visited all five kingdoms of India, and then returned to land routes. Since the pilgrimage, having to pass through diverse countries with different customs and languages, is long and adventurous, and since he had to go by unstable regions stricken with wars, it was indeed a daunting asceticism road. These five pieces of poems more highlight the *Wangohcheonchukgukjeon* by highly implicitly demonstrating asceticism, nostalgia, and fears during his pilgrimage.

실크로드와 慧超의《往五天竺國傳》

Ⅰ. 序言

慧超는 新羅의 高僧으로, 16歲 때(719年) 唐에 들어갔다가 787年 中國의 五臺山 乾元菩提寺에서 入寂하였다. 1908年 프랑스인 폴 펠리오(Paul Pelliot, 1878~1945)가 甘肅省 敦煌의 莫高窟 藏經洞에서 慧超가 쓴 《往五天竺國傳》을 발견함으로써 그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다.

南印度의 密敎僧 金剛智에게 불도를 배운 慧超는 723년 中國의 廣州에서 海路를 이용하여 印度에 到着하여 佛敎 聖地를 巡禮하고, 아라비아 隣接國 및 中央亞細亞를 거쳐 727년 唐으로 歸還할 때까지 4年間의 旅行記를 基礎로 《往五天竺國傳》 3卷을 썼다. 《往五天竺國傳》은 세계 4대 여행기 중의 하나이며, 韓國人이 쓴 最古의 旅行記로서, 그 산문과 시는 한국문학사상 상당한 史料的 價値를 지닌다.

《往五天竺國傳》의 기록의 의하면, 혜초는 지금으로부터 약 1,300년 전인 서기 727에 바로 이곳 사마르칸트(Samarkand)를 방문한 다음 당나라로 귀환하였다. 《往五天竺國傳》에서는 사마르칸트를 大寔國(아랍) 동쪽에 있는 胡國중의 하나인 '康國'이라고 기록하였다. [104] 이에 본인은 본고에서 혜초와 그의 여행기 《往五天竺國傳》, 그리고 본서에 수록되어 있는 求道紀行詩 5수에 대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Ⅱ. 慧超의 生涯

慧超(慧超 또는 惠超, 704년~787년)는 新羅 聖德王(或은 景德王) 때의 高僧으로, 16歲 때(719年) 唐에 들어가 787年에 中國의 五臺山 乾元菩提寺에서 入寂하였다. 《往五天竺國傳》은 당시 藏經洞을 지키던 王圓籙에게서 폴 펠리오가 購買한 7,000점의 遺物 중에 섞여 있었으며, 현재 파리 國立圖書館이 소장하고 있다. 2010년에는 韓國 國立中央博物館에서 原本을 展示한 바 있다. 발견 당시 慧超는 唐나라 僧侶로 여겨지다가 1915年 日本 學者 다카쿠스 준지로(高楠順次郞)에 의해 그가 新羅人임이 判明되었다. 그 전에는 다만 그가 密敎僧으로 不空(705-774, Amoghavajra) 三藏의 弟子라는 것만 알려졌을 뿐, 그의 國籍은 未知로 남아있었다. 다카쿠스 준지로는 唐代 密敎 最盛期의 重要 文獻인 圓照의《代宗朝贈司空大辦正廣智三藏和尙表制集》속에 收錄되어 있는 史料를 引用하여, 慧超는 新羅人으로서 幼年期에 唐나라에 들어가 中國 密宗의 始祖인 金剛智(Vajrabodhi, 671~741)를 師事하고 佛經의 漢譯에 至大한 貢獻을 하였다고 考證하였다.[105]

하지만 오늘날까지 그의 生涯는 아래와 같은 略曆 정도만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704年(혹은 700년): 新羅 出生
719年 : 入唐, 南印度의 密敎僧 金剛智 師事
723年 : 中國 廣州를 떠나 海路로 印度에 감
727年 11月 : 安西都護府의 龜玆(現 新疆의 Kucha)로 歸還
733年 1月 : 長安 薦福寺에서 以後 8年間 金剛智와 함께 密敎 經典 硏究
740年 1月 :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敎王經》의 筆受와 漢譯 始作
741年 中秋 : 金剛智 入寂, 上記 漢譯作業 中斷
773年 10月 : 長安 大興禪寺에서 不空의 講義 受講, 灌頂道場 등 密敎儀式 主導
774年 5月 : 不空 入寂, 6大 弟子 中 1人
762-779年 : 皇帝에게 <賀玉女潭祈雨表> 上訴
780年 4月 15日 : 五臺山 乾元菩提寺에 들어가 經典의 舊漢譯本 再筆受, 入寂

Ⅲ. 《往五天竺國傳》과 慧超의 旅行經路

《往五天竺國傳》 3卷은 慧超가 723년 中國의 廣州에서 海路를 이용하여 印度에 到着, 佛敎 聖地를

104 정수일, 《혜초의 왕오천축국전》(학고재, 2004), p. 374, 381.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 (아연출판부, 2014), pp. 181-183.

105 高楠順次郞, <慧超往五天竺國傳に就いて> 《宗敎界》第17券 第7號, 1915, pp.18-19.

巡禮하고 아랍 및 중앙아시아를 거쳐 727년 唐으로 歸還할 때까지 4年間의 여정을 기록한 여행록이다. 그 중 1908년 프랑스의 학자 폴 펠리오에 의해 발견된 것이 바로 《往五天竺國傳》의 殘簡寫本이다. 現在는 한 권의 두루마리로 된 筆寫本만이 남아 있는데, 冊名도 著者名도 떨어져 나가 남아 있지 않으며 여러 글자가 缺落되었다. 그러나 여러 佛敎 書籍에 註釋을 단 《一切經音義》에 "慧超往五天竺國傳"이라는 題目 아래 여러 語彙가 說明되어 있는데, 이들 語彙와 順序가 殘本과 대체로 一致하여, 바로 이것이 慧超의 《往五天竺國傳》임을 알 수 있게 되었다. 著述 時期에 대해서는 本文에 "開元十五年十一月上旬 至安西", 즉 "開元 15年 (陰曆) 11月 上旬에 안서에 이르렀다"라고 하였으므로 이때 이후에 쓴 것임을 추정할 수 있다. 開元 15年은 곧 727年이다.

'天竺'은 印度를 가리키는 中國式 옛 이름이다. 앞뒤가 잘려나간 現存 旅行記의 기록에 의하면 혜초는 中天竺에서 시작하여 南天竺, 西天竺, 北天竺과 印度의 서쪽에 있던 大寔國까지 갔다가, 중앙아시아 주위를 지나 파미르(播密) 高原을 넘어 中國 領土인 쿠차(龜玆)에 도착하기까지의 旅程에서 보고 들은 것을 記錄했다.

대체로 國家 單位로 敍述하고 있으며, 일부는 한 지역을 개괄적으로 기록하기도 했다. 出發地 國家에서 目的地 國家로 가는 方向과 所要 時間, 王城의 位置와 規模, 統治狀況, 對外關係, 氣候와 地形, 特産物, 飮食과 衣裳, 風習, 言語, 宗敎 등에 대해 簡潔하고 寫實的으로 描寫하고 있다. 慧超의 旅行記는 現存하는 最古의 韓國人이 著述한 서적이자 8世紀 印度와 중앙아시아에 關한 唯一한 記錄이기도 하다. 8世紀 初에 中國과 印度 및 大寔國을 잇는 旅路 및 交易路를 아는 데 重要한 資料이며, 史料的 價値가 크다.

Ⅳ.《往五天竺國傳》에 수록된 慧超의 求道紀行詩

慧超가 印度를 여행한 시기는 723년부터 4년간으로 法興王(514년)에서 景德王(765년)까지의 新羅 中期이다. 그 이전인 新羅初期에는 전하는 한시 작품이 없다. 현재까지는 신라는 물론이요 당시의 3國을 모두 포괄한다해도 857년에 태어난 崔致遠이 韓國 漢詩 論議의 上限線이었다. 그러므로 慧超의 기행시는 비록 5편에 불과하나 한국시단에 있어서는 상당한 史料的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

1) 第一首

이 작품은 慧超가 부처님의 成道地인 마하보리사(摩诃菩提寺)에 도착하여 그 감격을 시로 표현한 것이다.

보리사는 멀다고 근심하지 않으며, 어찌 녹야원을 멀다고 하겠는가.
가파른 길의 험난함을 시름할 뿐, 업풍(業風)이 몰아쳐도 개의치 않으리.
팔탑(八塔)은 진실로 보기 어려운데, 오랜 세월에 어지러이 타버렸다네.
어찌 그 서원이 이루어질 줄이야, 오늘 아침에 내 눈으로 보았다네.
不虑菩提远, 焉将鹿苑遨. 只愁悬路险, 非意业风飘. 八塔难诚见, 参差经劫烧. 何其人願满, 目覩在今朝。

아무리 길이 멀고 험해도 구도자로서 부처님의 중요한 행적이 닿아있는 보리사 녹야원 팔탑등을 볼 수 있슴에 감격하는 그 심정이 잘 묘사되어 있다. 마하보리사에는 지금도 우람한 보리수 나무가 사람들을 반기고 있다. 그리고 세계 각지에서 온 불자들이 그 아래에서 깨달음을 구하고 있다. 녹야원에는 지금도 사슴들이 뛰놀고 있다. 慧超 역시 많은 불자들과 함께 감격의 순간을 만나 '何其人願满'이라 읊었을 것이다.

2)第二首

본 작품은 慧超가 남천축국의 국왕이 사는 곳에서 방문했던 天寺라는 절을 방문한 후에 지은 것이다. 이 절은 龍壽菩薩이 夜叉神을 시켜 지은 것으로,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 용수보살이 생존시에는 3,000명의 스님이 있었다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스님들이 매일 공양을 해도 공양미 삼백석이 줄지 않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절은 황폐되고 스님도 없다고 기록하고 있다. 용수는 나이 700세가 되어 입적하였다. 이 광경을 본 慧超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꼈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곳 인도의 最南端인 南天竺國의 길에서 나그네로서의 향수를 읊고 있다.

달밤에 고향 길 바라보니, 뜬구름은 너울너울 돌아가네.
편지를 부치려해도, 바람이 거세어 돌아보지도 않는구나.
고국은 하늘가 북쪽에 있고, 타국은 땅끝 서쪽에 있네.
남쪽이라 기러기마저 없으니, 누가 날 위해 숲으로 날아가리.
月夜瞻乡路, 浮云飒飒归. 缄书参去便, 风急不听廻. 我国天岸北, 他邦地角西. 日南无有雁, 谁为向林飞.

고향을 그리는 나그네의 심정이 애닯게 표현되어 있다. 이때 新羅는 자국의 문자가 없었으므로 모든 교육의 자료는 중국문헌이었다. 慧超는 어릴 때부터 당연히 중국문헌을 접했을 것이고, 중국시를 배웠을 것이다. 또한 당에 유학한 이후에는 더욱 심도있게 시를 익힐 수 있었을 것이므로, 본 작품은 시의 형식은 물론이요 기러기에게 편지를 보내고자 하는 내용면에 있어서도 중국시인의 작품과 다를 바 없다. 만약 '谁为向林飞'의 '林'이 학자들의 추측하는 바대로 '鷄林'이라면 한국인의 가슴을 더욱 뭉클하게 한다.

3)第三首

慧超가 《順正理論》을 지은 衆賢의 고향 新頭故羅國에 가서 산속에 있는 那揭羅馱娜사원에 들렀다. 그곳에서 三藏의 聖敎에 밝은 중국스님이 계시다가 입적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 스님은 고향으로

돌아가려다가 갑자기 병이 나서 죽었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慧超가 마음 아파하며 시를 지어 그의 저승길을 애도하였다.

고향의 등불은 주인을 잃고, 타향의 보배나무는 꺽였도다.
신령은 그 어느 곳으로 갔는가, 옥같은 용모는 재가 되었네.
떠올려보니 슬프고 애절하다, 그대 서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서럽도다.
누가 고향길을 알겠는가, 부질없이 떠도는 흰 구름만 바라보네.
故里灯无主, 他方宝树摧. 神灵去何处, 玉貌已成灰. 忆想哀情切, 悲君願不隨. 孰知乡国路, 空见白云归。

스님들은 성지순례 중 입적하면 큰 복으로 여긴다고 한다. 그러나 스님네들 역시 인간인지라 이 말을 들은 20살의 승려 慧超의 무상한 감회가 잘 드러나고 있다. 당시 이 나라는 아랍의 침략을 받아 크게 파괴되었다고 慧超는 적고 있다. 길도 험하거니와 전쟁으로 흉흉한 상황을 목도한 慧超에게 중국스님의 타향에서의 입적은 결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니었기에 더욱 애절한 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다.

4) 第四, 五首

慧超는 吐火罗國에서 동쪽으로 7일을 가서 胡密王이 사는 성에 도착하였다. 오는 길에 토화라에서 서쪽 변방으로 들어가는 중국 사신을 만나서 이 제4수를 지었다. 이어서 역시 토화라에서 겨울날 눈을 만난 심정을 오언시로 술회한 것이 바로 제5수이다.

그대는 서쪽 이역이 멀다고 원망하고, 나는 동쪽 길이 멀다고 탄식하네.
길은 험하고 눈 덮인 산마루 아스라한데, 험한 골짜기엔 도적떼가 우글거린다고.
새도 날다가 가파른 산에 놀라고, 사람도 기우뚱한 다리 건너기 어렵네.
평생 눈물을 훔쳐본 적 없건만, 오늘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君恨西蕃远, 余嗟东路长. 道荒宏雪岭, 险涧贼途倡. 鸟飞惊峭嶷 人去難偏樑. 平生不扪泪, 今日灑千行.

차디찬 눈은 엉겨 붙어 얼음이 되고, 찬바람은 땅이 갈라지도록 매섭구나.
망망대해는 얼어붙어 단이 되었고, 강물은 벼랑을 범하며 갉아먹네.
용문엔 폭포수마저 끊어지고, 우물가는 뱀으로 돌린 것처럼 얼어붙었네.
동료와 두렁을 오르면서 흥얼거리지만, 어찌 파밀을 넘을 수 있겠는가.
冷雪牽冰合, 寒風擘地裂. 巨海冻墁坛, 江河凌崖囓. 龍門絶瀑布, 井口盤蛇結. 伴火上陔歌, 焉能渡播密.

제4수에서 우리는 결국 평생 울지 않았던 慧超의 눈물을 만나게 된다. 이때는 慧超의 여정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다. 모르는 자는 두려움도 모른다. 긴긴 4년동안 물길로 산길로 이역땅을 돌아서 이제 파미르고원만 넘으면 고향 아닌 고향 중국땅이 바로 저기련만, 그 길이 너무 험하기에 그 여정에서 겪어야할 고난을 이미 잘 알고 있기에 서로의 행로를 걱정하며 하염없이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은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지푸라기에 불과하다. 得道를 하고자함이, 求道를 위해 聖地를 순례함이 인간의 어리석음일까? 탐욕일까? 탐욕 또한 어리석음일지니. 글읽기는 곧 저자와의 대화이다. 《往五天竺國傳》을 읽어오다가 이 작품 제5수에 이르면 독자도 온몸이 내려앉는다. 비록 독자에게 답을 기대하지는 않지만 '焉能渡播密'이라 묻는 慧超에게 무어라고 답해야하나?

이상 5편의 시는 구도여행중의 특별히 감격스럽거나 비통한 심정과 두려운 심정을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 구도자로서의 모습보다는 20살 청년인 인간으로서의 내면세계가 화려하거나 어려운 수식없이 자연스럽게 잘 드러나고 있어서, 오히려 그 감동이 독자의 가슴 속 깊은 곳에 닿는듯하다.

그가 비록 이미 출가한 승려였지만, 겨우 20세의 젊은이가 중국 광주에서 해로로 인도에 갔다가 남지나해를 돌아 동인도로 들어가서 인도의 다섯나라를 모두 둘러보고 육로로 돌아왔다. 풍속도 언어도 다른 많은 나라들을 지나는 구도의 여행은 길도 험하고, 전쟁으로 사회도 불안한 지역을 경유해야 했으므로 그에겐 너무나 벅찬 고행길이었다. 이 5편의 시는 그의 구도여정에서의 고행과 향수와 두려움들을 대단히 함축적으로 보여줌으로써 《往五天竺國傳》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白眉이다.

ФОРМИРОВАНИЕ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КОМПЕТЕНТНОСТИ СТУДЕНТОВ

Аташикова Н.А., Ташкентский университет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мени Мухаммада ал –Хоразмий.

Аннотация: В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прос о подготовки студентов - будущих бакалавров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к межкультурны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ам в их будущей карьере. Автор подчеркива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модели формирования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компетентности в процессе из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которая является одной из основных целей, когда они получают высшее образование.

Annotation: The article updated the issue of training of students – the future bachelor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o intercultural cooperation in their future careers. The author emphasizes the need for a model of the formation of students' cross-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in the process of learning a foreign language, which is one of the main goals when they receive higher education.

Ключевые слова: студент, бакалавр, межкультур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межкультурная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компетентность.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бучение специалиста любого типа следу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быстро меняющимися условиями конкурса, в том числ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Готовность специалистов к работе в таких условиях требует беглости в своей профессии, непреры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социальная 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ая мобильность.

При переходе на многоуровневую подготовку специалистам есть необходимость говорить об улучшении качества и эффективности обучения. Это особенно важно для будущих бакалавров и магистров в област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в и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том числе 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е процессы в межличностных, социаль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культурных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ферах.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опрос формирова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компетентности у студентов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приоритет в университетском обучении. Когда тренируются студенты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один из главных целей является развитие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компетентности, особенно через иностранный язык, а часто и несколько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компетентность обычно понимается как способность устанавливать и поддерживать необходимые контакты с другими людьми. Структура компетенция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сочетание знания, навыки и умения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эффектив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Этот вид компетенции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возможность варьировать глубину и диапазон общения партнеров в диалоге, чтобы понять и быть понятым ими.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компетентность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адаптивность и свобода владеть вербальными и невербаль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общения и может рассматриваться как категория 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истемы отношений человека себе, природному и социальному миру. В широком смысле компетенция человеческого общения может быть определена как компетенция в межличностное восприятие, межличностное общение и межличност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2, p. 33].

Межкультурная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компетентность это способность достичь понимания с людьми разных культур даже с посредственными владением иностранными языками на основе знание, понимание и уважение к универсальным правилам и нормам поведения, которые делают этикет международной связи. Межкультурная коммуникативная компетентность позволяет человеку, чтобы установить отношения с людьми других культур - признать их культурные значения, чтобы терпеть различия, выявленные в манерах общения, стили поведения, образ жизни, обычаи, традиции и т. д. [3].

Следовательно, успешное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е межкультурное общение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област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являетс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м коммуникативным поведением во время отношени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Это предполагает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зн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а также способность понимать и принимать социокультурные разнообразия партнеров в общении для решен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задач. Цель и главное особенность обучения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является воспитание коммуникативно- ориентиров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 владеющих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ом.

При обучении межкультурному общению в процессе из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нужно учитывать так называемые скрытые трудности рече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общения. При изучении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важно запомнить слова в естественных, стабильных сочетаниях. Другая Трудность - это конфликт между культурным восприятием разных людей о реальности, который обозначен эквивалентными словами языка [4, p. 137].

Можно говорить о многих особенностях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обучения коммуникации, в том числе изуч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ни работают: учебные пособия, семинары и методики, целью которых является развитие речи и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петенции студентов. Они предназначены для облегчения разработки грамматически правильных и логически значимой речи, улучшение аналитического навыка чтения, расширить словарный запас, умение обсуждать и писать, и в то же время размышлять актуальные проблемы современной жизни. Они служат как основа для конкретной модели обучения будущему специалисту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Сегодняшние выпускники университета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в межкультурной среде. Одно следует помнить, что двойственность и различия в интерпретации определенных явлений студентов разных культур неизбежно присуща структуре современного мира. Поэтому, по мнению современных ученых и учителей важнее учить студентов как умело использовать различные компетенции. [1, p. 42]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ажно не только знать принципы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но также использовать и улучшать их на практике. Так что это также полезно и необходимо развивать быстрое мышление студентов и их способность выражать идеи по-разному. Бесценный навык для специалиста в области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 это способность выступать посредником между людьми, то есть представлять собеседников друг с другом и правильно говорить в определенной ситуации общения. Процесс межкультурного общения предъявляет высокие требования в хорошем словарном запасе и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навыки. Свободное владение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ом может быть достигнуто только через интегрированное обучение всех видов рече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говорение, аудирование, чтение и письмо [4, p. 137].

Как и во многих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х областях сегодня, подготовка специалистов по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елам следует проводить в контексте продолжения образование, так как только при этом условии можно освоить иностранные языки и межкультурные общения на каче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Специалист, который окончил университет сегодня, конечно, должен быть тщательно образованный человек. Мировая цивилизация диктует ряд требований к современному уровню образования и его фундаментальность. Говоря о такой важной профессии в наше время, как специалист в област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следует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профессионализм выпускников, обладающих знаниями в области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основан не только на фундаментальном обучении языка, но и в расширении и в углублении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го компонента в развитие коммуникативных навыков.

Список литературы:

1. Innovation in language teaching: the competence approach (the experience of traineeships in 2007) / compiler G.I. Gladkov; Management of Innovation Education Program MGIMO-University. – M.: 2007.

2. Krylov A.A. Psychology: manual for high schools. – M.: Prospect, 2009.

3. Narolina V.I. Cross-cultural communicative competence as an integrative ability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specialist // Psychological Science and Education. – 2010. – № 2. [Electronic resource] – Access mode: www.psyedu.ru. Access Date 24.05.2013.

4. Khimicheva S.A. Cross-cultural communication in the modern higher education in the study of a foreign language // Teacher Education in Russia. – 2012. – № 4. – P. 136–139.

5. The evolution of multilateral diplomacy. «Multilateral Diplomacy and the United Nations Today» by James P. Muldoon Jr.) [Electronic resource] – Access mode: gtuproject.ucoz.com. Access Date 24.05.2013.

A STUDY OF CHARACTERISTICS OF THE ENCYCLOPEDIA(LEISHU) OF LATE QING DYNASTY AND EARLY REPUBLIC OF CHINA

Choi Hwan (Yeungnam Univ. Korea).

This study shows characteristics of contents and forms of encyclopedia(Leishu) of Late Qing Dynasty and Early Republic of China relatively and roughly dealt with in the description of chinese encyclopedia. A content change of encyclopedia(Leishu) that appeared in the transition period of Late Qing Dynasty and Early Republic of China is closely connected with western form of encyclopedia. Also the contents of the encyclopedia(Leishu) have a new aspect to the situation and needs of the times. With these two perspectives, this study covers publication and expansion of traditional encyclopedias for daily use (encyclopedia that have a characteristic in the transition period), publication of educational encyclopedia for children, publication of encyclopedia for current affairs and politics, and publication of dictionary borrowing a form of encyclopedia.

This study shows that social backgrounds of people's interest in Late Qing Dynasty and Early Republic of China, such as social structures in the transition period, current affairs, politics, and new knowledge, new learning of western society, had a lot of influence over contents of the encyclopedia(Leishu), decision of the titles, change and development of the system of the encyclopedia(Leishu), and encyclopedia of western pattern, publication of new dictionary.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a social structure of those days determined a structure of the encyclopedia(Leishu) and the dictionary. Especially classification system and classification consciousness of the encyclopedia(Leishu) continuously influenced publication of the

encyclopedia and dictionary in fashion in those days.

淸末民初 類書의 특질 연구

一. 들어가는 말

지금까지 中國類書史는 주로 유서의 기원인 《皇覽》(魏代)이라는 책부터 淸代까지의 유서를 대상으로 記述되었다. 그것은 물론 唐·宋代의 유서 발전을 거쳐 明·淸代에 유서 출현이 많았던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것에 비해 淸末民初(근대)와 그 이후(5·4運動 이후: 현대)는 상대적으로 유서의 생산이 많지 않았던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청말민초를 거쳐 현대에도 유서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출현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유서사의 記述上에서 비교적 소홀히 다루었던 청말민초 유서의 내용 및 형식상에서의 특질에 관한 것이다. 청말민초라는 과도기적 특정 시기에 출현한 유서의 형식 변화는 당시에 출현한 서구의 서적 형식인 '百科全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당시 시대적 상황 및 요구로 유서의 내용 또한 새로운 면모를 띠게 된다. 본고에서는 이 두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전통 일용유서의 발간과 확대(유서와 백과전서의 과도기적 성격의 유서 발간), 어린이 교육용 유서의 발간, 시사 및 정치 관련 유서의 발간, 유서 형식을 援用한 사전 발간 등으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二. 전통 日用類書의 발간과 확대

鄧嗣禹는 일찍이 유서의 유형을 類事·典故·博物·典制·稗編·同異·鑑戒·蒙求·常識 등 10門으로 나눈 적이 있는데[106], 이 중에서 이른바 일용유서는 常識門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명대 후기의 萬曆 연간에는 많은 일용유서가 출현하였는데, 이를테면 《萬書萃寶》·《五車拔錦》·《博覽不求人》·《三台萬用正宗》·《文林聚寶萬卷星羅》·《萬象全編不求人》·《諸書博覽》·《學海群玉》·《萬用正宗分類學府全編》·《萬書淵海》·《萬寶全書》·《便覽全書》·《萬錦全書》·《博覽全書》·《萬事不求人博考全編》·《萬珠聚囊不求人》·《一事不求人》 등이다.[107] 여기서 서명을 보면, 그 서명 중에 '萬書'·'萬卷'·'萬象'·'萬用'·'萬寶'·'萬錦'·'萬珠'와 '全編'·'全書' 그리고 '不求人' 등이 비교적 많이 사용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청대에 이르러 '萬寶全書'라는 명칭이 이러한 일용유서들의 通稱이 되었다. 다시 말해 이 명칭이 일용유서의 많은 서명 중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概括 능력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만보전서》 類의 일용유서는청말 시기는 물론 민국 이후에도 계속 발간되었는데, 이를테면 《世事通考全書》(1869년)·《增補萬寶全書》(1912년)·《日用指南》(1913년)·《日用須知》(1914년)·《國民應用便覽》(1915년)·《重訂致富全書》(1918년)·《國民寶庫全書》(1919년)·《日用百科全書》(1919년)·《日用萬用全書》(1921년) 등등이다.

여기서 1919년에 출간된 《日用百科全書》[108]라는 책을 예로 들어 당시 전통 일용유서가 어떻게 변화·확대되어발간되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책의 書名에 이미 '百科'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萬寶全書' 중의 '全書'라는 말 앞에 '百科'라는 말을 덧붙인 '百科全書'라는 용어가 당시에 이미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편찬자는 서명 상에서 서구식 백과사전의 성격을 想定하고 이 책을 편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일반 독자들을 대상으로 中·西 지식을 모아서 편집한 유서이지 진정한 의미의 백과전서는 아니다. 형식 방면에서 분류 체계는 전통 유서의 형식을 원용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天象·時序·地理 같은 類目을 가장 앞에 배치하였다. 이는 天-地-人-事의 전통유서의 유목 배치 체계와 어느 정도 닮아 있다. 아울러 《만보전서》 類의 전통 민간일용유서의 유목처럼 생활지식 및 생활상식 등과 관련한 유목들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를테면 文學·書畫·算術·簿記·公文·契約·柬啓·尺牘·楹聯·禮制·農業·畜產·蠶桑·染織·保育·衣服·飮食·居住·家庭·醫藥 등이다. 그리고 일반 백과전서는 각 항목에 대해 편찬자가 직접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책은 전통 유서처럼 다른 책이나 잡지 또는 신문으로부터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 자료를 수집하여 수록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들은 이른바 '新型日用類書(新式日用類書)'[109]라고 할 수 있는데, 청말민초의 시대적 상황과 일치하는 하나의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유서라고 할 수 있다. 앞의 목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유서의 출간은 당시 비교적 흔한 일이었다. 즉, 이 시기의 일용유서를 보면 이와 같은 과도기적 유서 외에도 전통 일용유서인 《만보전서》처럼 순수하게 일상생활의 상식만을 내용으로 삼은

---

106 鄧嗣禹, 《燕京大學圖書館目錄初稿》(1935), <類書之部> 참조.

107 吳蕙芳, ≪萬寶全書: 明淸時期的民間生活實錄≫(上)(新北: 花木蘭文化工作坊, 2005), 19쪽 참조.

108 王言綸 등 편, 商務印書館 간행. 이 책은 출판 후에 독자들의 환영을 받아 한 달 만에 4版을 인쇄하였다. 1926년에는 《日用百科全書補編》(何崧齡 등 편)이 출간되었으며, 1934년에는 또 《重編日用百科全書》(黃紹緖 등 편)가 출간되었다. 于翠玲, <中西知識交滙與普及的樣本---民國初期"日用百科全書"的特徵與價値>(關西大學文化交涉學教育研究中心·出版博物館 編, 《印刷出版與知識環流: 十六世紀以後的東亞》,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2011年), p.282 참조.

109 이 용어들은 于翠玲, 위의 논문, p.280·p.285에서 사용하였다.

유서들이 혼재하였다. 전통 유서의 유지 속에 내용상에서 그것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셈이다.

三. 어린이 교육용 유서의 발간

유서와 초학자 讀物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여 역대 많은 유서들이 초학자 독물로 사용되었다. 또한 이는 많은 초학자 독물의 편찬자들이 유서의 형식을 빌려 책을 편찬하였다고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서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자료의 검색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학문에 막 발을 들여놓은 초학자들에게 자료의 검색은 매우 중요한 공부 수단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초학자 학습교재용 유서는 청말민초라는 특수한 시기에도 당연히 출간되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어린이용 교재를 편찬하면서도 그 내용 분류를 유서의 분류 원칙을 援用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청말민초의 두 가지 어린이 교육용 유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 두 가지 유서는 체제상에서는 전통유서의 분류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지만, 내용상에서는 '중국 역사 위주'와 '西歐 인물 일화 위주'라는 서로 다른 면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이들 유서는 어린이 수신 및 도덕 교육의 목적을 지니고 편찬된 점에서 하나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유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유서는 《新編分類歷史揭要》(12권 4책, 謄寫本)로, 奉天 廣寧縣 公學堂 교장을 역임한 蕭雨春이 청말 宣統 2년(1910년)에 편찬하였다. 이 책은 정식 교과서가 아니고 개인이 동몽을 위해 편찬 간행한 유서 형식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적 사실을 이용하여 동몽들의 역사 교육과 國文 교육뿐만 아니라 도덕 교육을 위해 편찬되었다. 특히 소우춘은 이 책을 편찬하면서 그 분류에 매우 심혈을 기울였는데, 무려 총 102개의 유목으로 나누고 있다.

두 번째 유서는 《新日記故事》로, 이 책은 民國 초기에 陳春生이 편찬한 동몽(어린이)을 위한 독물이다. 지금까지 당시의 동몽을 위한 책으로 淸末부터 나오기 시작한 공식적인 교과서에만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터라 민간에서 간행된 이 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이 책은 체제와 내용 면에서 좀 특이하다고 할 수 있는데, 체제 면에서는 중국 고대 유서의 형식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으며 내용 면에서는 '기독교 傳敎'와 '동몽교육'이라는 이중적인 간행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국 초기에 동목의 독물을 고대 유서의 형식을 빌려 편찬한 사실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었으며, 傳敎라는 기본적인 간행 목적에다동몽의 수신 교육을 위한 독물을 제공하려고 한 편찬자의 뜻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四. 時事 및 정치 관련 유서의 발간

중국의 청말민초 시기는 정치·외교적 문제가 봇물 터지듯 쏟아진 시기이다. 서구 열강과 일본의 중국 침략은 당시 가장 뜨거운 외교 문제였으며, 전제 왕조의 종식(청조의 멸망)과 國民政府의 성립(中華民國의 성립)은 중국 국내 정치의 가장 큰 이슈였다. 이러한 대내·외적 배경으로 인해 당시 중국 사회 구성원들은 정치·사회 문제에 아주 민감하였으며 그러한 문제들을 인지하기 위해 시사에도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청말민초에 출현한 수많은 신문이나 잡지들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다.

시사에 대한 관심은 유서 발간에도 나타났는데, 當代의 시사나 정치 문제를 유서로 편찬한 점에서 중국 역대 유서들 중에서 가장 時宜性이 두드러진 유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유서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蔡爾康이 편찬한 《記聞類編》[110]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당시 가장 유명한 신문이었던 《申報》의 1872년부터 1873년 사이에 실린 기사를 뽑아 편찬한 책인데, 모두 12개 類別(모두 418편 문장)로 되어 있다. 그 12개 유별을 보면 다음과 같다.

奏疏類-時政類-論議類-風土民情類-邦交互市類-外邦時事類-畸行類-異聞類-艷迹類-博物類-文辭類-雜著類

기존의 典籍(이 책은 新聞)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뽑아 유별로 나누고, 그 뽑은 자료를 해당 유별에 열거하는 형식은 전통의 유서와 차이가 없다. 이러한 면에서 이 책은 유서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하지만 유별의 내용을 보면 정치·외교 및 시사·民情이 전체의 반을 차지하고 있어 당시 독자들의 시사에 대한 관심과 갈증을 고려한 편찬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기행·이문·염적·박물·문사 등 앞의 내용과는 성격상 완전히 다른 비교적 소프트한 내용을 대상으로 문장을 뽑아 匯編함으로써 어느 정도 책의 상업성을 고려한 편찬 의도를 동시에 엿볼 수 있게 한다.

이 시기에는 또 다른 형식의 정치 관련 책들이 적지 않게 출간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經世文編'類의 책이다. 經世文이란 當代 사람이 政事의 득실을 논의한 문장으로, 청말민초의 정치 범람시기에 이러한 문장을 책으로 묶어 출간한 사실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앞의 《記聞類編》의 奏疏類-時政類-論議類-風土民情類-邦交互市類-外邦時事類 등 유목을 보면, 이 책 역시 경세문의 성격을 얼마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현상으로 당시의 '時務'를 유서의 형식을 빌려 편찬한 책들이 출현하였는데, 이를테면

[110] **蔡爾康 編, 《記聞類編》, 上海: 上海印書局, 1877년. 이 책은 沈雲龍 主編, 《近代中國史料叢刊三編第十八輯》(臺北: 文海出版社, 1989년)에 실려 있음.**

光緖23년(1897)에 杞廬主人 등이 편찬한 《時務通考》[111]가 대표적이다. 趙含坤은 《시무통고》를 서방의 백과전서 체제를 얼마간 모방한 책[112]이라고 하였다. 이 말은 이 책이 그만큼 전통 유서의 類目 체계 및 내용과 다른 새로운 면모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시무통고》의 유목을 보자. 모두 31門으로 나누고 있다.

天算-地輿-公法-約章-使臣-稅則-錢幣-禮制-兵政-律例-工政-鐵路-礦務-電報-郵政-農桑-商務-敎務-學校-官制-議院-史學-算學-化學-電學-重學-汽學-聲學-光學-測繪-醫學

위의 유목들을 보면 주로 당시 생활에 필요했거나 관심거리였던 법률·행정·제도·산업·학문 등을 거의 망라하고 있어 이미 서구의 백과전서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당시 서방의 학술 및 과학기술의 傳入으로 그것에 대한 편찬자의 관심도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五. 유서 형식을 援用한 사전 발간

청말민초 시기에는 유서의 형식을 원용한 사전 발간이 비교적 보편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이 시기 사전 발간의 특질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사전을 발간하면서 유서 속성 중의 하나인 '분류'를 이용하여 사전 자체의 사용상 편리성과 가독성을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방면에서는 앞의 서구식 백과전서로 넘어 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유서처럼 이것 역시 현대식 사전으로 넘어가지 전에 전통 유서의 형식이 남아 있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나온 《新爾雅》[113]라는 책은 중국 고대의 첫 번째 사전인 《爾雅》를 모방하여 편찬하였다. 《이아》의 내용 분류는 중국의 분류 역사에서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 의의는 적지 않다. 앞의 언어 방면과 관련된 釋詁·釋言·釋訓을 제외하고 뒤의 釋親·釋宮·釋器·釋樂·釋天·釋地·釋丘·釋山·釋水·釋草·釋木·釋蟲·釋魚·釋鳥·釋獸·釋畜의 내용분류는 이후 중국인의 분류 의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특히 유서의 일반적인 분류 체계는 적어도 釋天 이후의 분류 순서를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다. 《신이아》 역시 당시의 신조어 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형식적 분류 체계에서 《이아》를 따르고 있다. 그 분류 상황을 보면 모두 14개로 나누고 있다.

釋政-釋法-釋計-釋敎育-釋群-釋名-釋幾何-釋天-釋地-釋格致-釋化-釋生理-釋動物-釋植物

이 사전은 내용적인 면에서 당시 새로운 술어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예: 국가, 정체, 헌법, 국제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물가, 화폐, 신용……) 그리고 형식적인 면에서는 분류의 체계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유서의 분류 체계를 기본 구조로 하여 당시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었던 주요 술어에 대한 해석이라는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만 해도 전통의 유서 분류 체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분류 자체의 편리성과 독자들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사전을 편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때까지 사전 편찬 상에서 유서의 영향이 적지 않게 남아 있었던 증거이다.

五. 나가는 말

본고는 청말민초 시기의 유서 특질을 전통 일용유서의 발간과 확대(유서와 백과전서의 과도기적 성격의 유서 발간), 어린이 교육용 유서의 발간, 시사 및 정치 관련 유서의 발간, 유서 형식을 援用한 사전 발간 등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당시의 과도기적 사회구조나 정치·시사 및 서구의 신지식과 신학문에 대한 당시 사람들의 관심과 같은 사회배경 등이 당시 유서 편찬 상에서 유서의 내용 및 類目 결정, 유서 체제의 변화와 발전, 서구식 백과전서, 새로운 辭書의 출간 등에 많은 영향을 미쳤음을 파악하였다. 사회구조가 당시 유서 및 사서의 구조를 결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전통 유서의 분류 체계나 분류 의식은 당시 유행했던 백과전서나 일반 사전 편찬에도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SHERIYAT - KO'NGIL KO'ZGUSI

***Xujamqulova N.T., Jizzax viloyat o'rta ta'lim maktab o'qituvchisi*.**
.

Anatation: The idea of the Cholpon lyric and the lyric poetry in it.Developing meaningful analysis of the capacities in the capacities in the heart of readers.

Insonning qalbi va ongini zabt etish bugungi kunda eng dolzarb mavzulardan biri xattoki o'sha insonning qalbida kechayotgan jarayonlarni ifoda etish adabiyotning ham asosiy maqsad vazifasiga aylangan. Jumladan o'zbek she'riyati. She'riyat albatta, inson qalbidagi eng nozik torlarni chertib o'tuvchi oniy lahzalarni insonga taqdim etuvchi jarayon hisoblanadi. Jumladan, Cho'lpon she'riyatida ham ba'zan she'riyat qalb to'polonlarini, ba'zan kuchli his tuyg'ularini, ba'zan esa mutloq vatanparvarlik ruhiyatini

---

111 뒤에 《時務通考續編》(杞廬主人 編, 출판연도?)도 출간되었다.

112 趙含坤 編著, 《中國類書》(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2005年), p.456.

113 沈國威 編著, 《新爾雅》, 上海: 上海辭書出版社, 2011년. 이 책 속에 《신이아》 영인본이 실려 있다. 《신이아》는 일본 유학생 元和 汪榮寶와 人和 葉瀾이 편찬·출판(上海明權社, 光緖 29년)하였는데, 서양의 사회인문·자연과학 방면의 신개념 및 술어를 설명한 첫 번째 술어집이다. 넓은 의미에서 당시의 신조어 사전이라고 할 수 있다.

beradi. Lekin har qanday vaziyat bu inson qalbida kechayotgan jarayonni ifoda etadi. Lirikaning asosiy vazifasi faqat uning shakli yoki bo'lmasa kuyga solinishi kerak bo'lgan qofiyasida emas, asosiysi uning obrazliligida. Obraz nima? Obraz nutq bilan bog'liq vosita tushunchadir.Obraz narsa, hodisa va insonning muayyan vaziyatdagi holati va o'ziga xos xususiyatini yaqqol tasavvur etishga, ijodkor fikrlari va his-tuyg'ularini obrazli ifodalashga imkon beradigan shoirona ibora. Obrazli ifoda ma'noni konkret tushuntirish, voqea manzaralarni jonlantirish hamda fikrni badiiy tasvir vositalari orqali anglatish yo'li bilan yaratilib, kitobxonga konkret tasavvur hosil qiladi, uning fikri xayoliga estetik ta'sir ko'rsatadi. O'sha insonning qalbiga yetib boruvchi yo'l yoki uni ochib beruvchi asosiy vosita. Bu jarayonlarni tahlil qilish paytida o'quvchilar o'zlari uchun kerakli bo'lgan ma'naviy ijtimoiy- siyosiy, iqtisodiy, tarbiyaviy ozuqani oladi. Bu bugungi kundagi kitobxonlikka berilayotgan urg'uning asosiy maqsadlaridan biri hisoblanadi.O'quvchiyoshlar o'rtasida ko'p kitob o'qish va uni tahlil qila olish ham asosiy maqsadlarimizdan biri hisoblanadi.

O'quvchi dastlab adabiyotni she'riyat bilan anglaydi. Jumladan ona allasi,o'sha she'rdan iborat, qofiyadan iborat unda insonning ichki his tuyg'ulari aks etadi, xuddi shu kabi Cho'lpon she'riyatining o'zidagi to'polonlar va his tuyg'ularni ko'rish mumkin. Cho'lpon, xuddi qafasdagi qush singari, faqat erksevarlik g'oyalarini tarannum etibgina qolmay, go'zallikni olqishlovchi, sevgi va vafoni ulug'lovchi ajoyib she'rlar ham yaratdi. Ana shu sisiladagi she'rlari orasida "Go'zal" she'ri alohida diqqat e'tiborga molik. Go'zal she'rining o'zida naqadar chiroyli ifoda,uslub, his tuyg'ular kechinmalar borligi. Unda tasvir etilishicha , lirik qahramonning muhabbatini qozongan go'zal, shu qadar go'zalki, hatto yulduz ham, oy ham, kun ham, tong shamoli ham uning go'zalligiga tan berishadi.

Lirik qahramon "qorong'u kechada ko'kka ko'z tikib", "eng yorug' yulduz" dan uni so'raganida, uyalib uni tunda ko'rishini aytadi. Ma'lum bo'lishicha , oy ham "oqqa ko'milgan", ya'ni o'zi, libosi ham xuddi parilarnikidek oppoq bo'lgan bu go'zalni tushuda ko'rib , uning oydan ham, kundan ham go'zalligidan lol bo'lgan. Go'zalni ko'rib "yo'lidan ozgan" tong shamoli esa uni tog' va toshlar ichida istab yurishini ma'lum qiladi. Uni tushudamas, o'ngida ko'rgan kun ham oshug'-u beqarorligini takidlaydi.

Cho'lpon lirik qahramon qalbini zabt etgan qizning mislsiz darajada go'zalligini shu qahramon tasavvurida va qarashlari orqali emas, balki yulduz, oy, kun va tong shamolining majoziy obrazlari yordamida tasvirlaydi. Va shundan keyin lirik qahramonning bu go'zalga bo'lgan bunday yangicha munosabatini aks ettirgan:

Men yo'qsil na bo'lib uni suyibmen,
Uning-chun yonibmen, yonib- kuyibmen,
Boshimni zo'r ishga berib qo'yibmen,
Men suyi. Men suyib, kimni suyibmen ?....

Lirik qahramon bu go'zaldan voz kecha olmaydi.Aksincha, uni yanada kuchli sevadi va shunday gozal bir parini sevgani bilan iftixor qiladi.

Men suygan suyukli shunchalar gozal,
Oydan-da go'zaldir, kundan-da go'zal.

Bu she'r, yuzaki qaraganda , faqat shu parivash qizni ulug'lashga qaratilgandek. Lekin masalaga teranroq yondashsak, shu qadar ko'kka ko'tarilgan gozalgina emas , balki lirik qahramon qalbidagi ulug' insoniy hissiyot – shu qizga bo'lgan muhabbat sharaflanmoqda. Shu buyuk tuyg'uning oydan ham , kundan ham go'zalligi ifodalanmoqda. Lirik qahramonning ruhiy kamoloti va ma'naviy boyligi inkishof etilmoqda.

Bu she'rdagi muhabbat tuyg'usi biror moddiy hodisa - na bo'sadan, na visoldan oziq oladi. Lirik qahramonga shu go'zal borligining o'zi ham kifoya. Uning muhabbati beg'araz.

Shuning uchun ham ulug'dir. Shoir she'rlarini ko'zdan kechirar ekanmiz shoir yashagan davr shiddatli bo'lgani , ijodkordan ham shu shiddatni talab etgani uchun u ko'pincha o'z she'rlariga sayqal berish imkoniga ega bo'lmagan. Lekin shunga qaramay , u qalbi va ruhidagi uyg'unlik tufayli ko'pincha quyma va yoniq satrlardan iborat , tuyg'uning olovlangan holatini aks ettirgan she'rlar yozgan. Uning eng yaxshi she'rlari shoirga xos bo'lgan yuksak mahoratninggina emas , balki eng avvalo ko'taringki kayfiyatning , ilhombaxsh holatning ham samarasidir.

Cho'lpon lirikasining asosiy mavzui mavjud ijtimiy tuzumga nisbatan isyondir.

Misol uchun" Xalq" she'rini olaylik. "Xalq" she'ri orqali u xalqning qanchalik qudratli jarayon ekanligi, siyosatni xalqsiz mavjud emasligini ko'rsatib bergan. Bu balki katta tomli asar emasdir lekin baribir o'sha lirika o'quvchiga qisqa muddat ichida insonning qalbida kechayotgan jarayonlarni ifoda etish uchun asosiy omil vosita hisoblanadi. U o'zining eng ko'p detallari sodda va samimiy obrazlari bilan tarbiyaviy axamiyatni yanada ochib berishga xizmat qiladi. She'rda xalqning o'lka qismatida o'zgarish yasashiga umid bildirib , "Butun kuchni xalq ichidan olaylik , Quchoq ochib xalq ichiga boraylik!" deb yozadi ijodkor. Lekin ijtimoiy tuzum Cho'lponning xalq ichiga kirib, uning haqiqatni aytishiga imkon bermadi, xalq ham

quchoq ochmadi, chunki “oq podsho ” va bol’sheviklar zulmi ostidagi omma hali ongli, kurashchan, o’z haq-haquqini tanuvchi xalq darajasiga ko’tarilmagan edi.

Miltiragan xira chiroqsen, yo’qsil,
El qattiqroq kelib ursa o’charsen…

Bu satrlar Cho’lponning kuni kecha nekbinlik bilan kuylagani xalq haqidadir.

Xalqqa bo’lgan umidi chil-chil singan shoir endi dilida insonlik gu’ruri qolgan kishilarga suyanmoqchi bo’lib, inson ruhining erkin nafas olishi lozimligini,inson erkin hayot uchun tug’ulganini , hatto qafasdagi erkinlik sari talpinib yashashini eslatib qo’ymoqchi bo’lib “Ko’ngil” she’rini yozgan. Bu she’rida ijodkor bir- biriga also o’xshamaydigan va uyg’unlashmaydigan ikki hodisani - ko’ngil bilan kishanning “do’stlashganini” ko’rib hayratga tushgani ifodalangan. U hayratlanib nahotki, kishanlangan ko’ngil na dod - faryod ko’tarmasa, na bu haqoratdan ezilmasa, deb iztirob chekadi. Ijodkor inson tirik ekan, zulmga bo’yin egmasligiga, shu zulmga bo’yin egmasligi, shu zulmning moddiy timsoli- kishanni kiymasligi lozimligini she’rida ifodalaydi. Cho’lponning ana shu ishonchi butun she’rida nur sochib turadi.

Tiriksen, o’lmagansen,
Sen-da odam, sen- da insonsen.
Kishan kiyma, Bo’yin egma,
Ki sen ham hur tug’ulg’onsen!

Cho’lponning g’oyaviy va ijtimoiy qarashlari g’oyat lo’nda va aniq ifodalangan she’ridir. Ijodkorning bu she’ri qanchlik jo’n,qanchalik sodda so’zlar bilan ifodalangan bo’lmasin, ularda shoir qalbidagi og’riqlar , ruhiy azoblarni his qiladi kishi.

Cho’lponning har qaysi she’rlarini o’qigan o’quvchi o’sha davrni his qilmay iloji yo’q. Chunki har bir misrasida ozodlik, hurlik, insonparvarlik, vatanga bo’lgan muhabbat, samimiylik nafasi ufurib turganligini ko’ramiz. Cho’lpon lirikasini beqiyos, so’nmas , porloq yulduzga mengzaydi kishi. Cho’lpon she’riyatining hususiyati bilangina emas ,uning dunyoqarashlaridagi muayyan o’zgarishlar, ijtimoiy- siyosiy muhitga munosabatlari hamda voqelikni aks ettirishlari jihatidan ham ma’lum darajada farqlanadilar.

Bugungi kunda o’quvchi yoshlarga Cho’lpon lirikasining g’oyaviy mazmuni va undagi lirik obrazlilikni yoritish. O’quvchi yoshlar qalbida sheriyatni mazmunli tahlilini o’rgatish alohida ahamiyat kasb etadi.

Lirika o’zi nima? Lirika adabiyotni ushlab turgan tamal toshlaridan biri desak mubolag’a bo’lmas. Lirikada mavjud ob’yektiv voqelikdanko‘ra ijodkor shaxsining his-tuyg‘ulari, qalb kechinmalari, lirik qahramonning ichki dunyosi birinchi o‘rinda turadi. Barcha ifoda shoirning"men"i orqali o‘tadi. Lirikada, eposdan farqli o‘laroq, muayyanepik syujet bo‘lmaydi. Dramatikturdan ajralibturadigan jihati esa, lirikada sub’yektivlik kuchli. Ayni paytdalirika emotsionalligi, o‘quvchi qalbini hayajonga solishi bilan farqlanadi. Lirik asarda sub’yekt va ob’yekt bir shaxsda mujassam topadi, undagi markaziy "personaj" ijodkorning o‘zi, yanada aniqrog‘i, uning ichki ma’naviy-ruhiy olami sanaladi. Lirika ijtimoiy, madaniy, maishiy, ishqiy mavzularni qamrab olishi va juda katta ijtimoiy, estetik mohiyat kasb etishi ham mumkin. Biroq bunda ham, baribir, lirik asar o‘zagida individual shaxs kechinmalari, his-tuyg‘ulari yetakchilik qiladi. O‘quvchini o‘zligiga, o‘z ma’naviy-ruhiy dunyosiga nazar solishga undaydi. Voqelikning sub’ekt qalb prizmasi orqali aks etishi lirika qiyofasini belgilovchi muhim hususiyatdir. Lirikada voqelikqarama–qarshi tendensiyalar kurashi orqali aks etadi.Bu qarama-qarshilik tuyg’ular ziddiyati, kurashida nomoyon bo’ladi. Lirikada asosan eskilik va yangilik, yaxshilik va yomonlik, go’zallik va xuniklik, olijanoblik va pastkashlikdan iboratdir.

Cho’lpon o’z sheriyatida faqat yorga bo’lgan muhabbatini emas, jabrdiyda xalqini va Vataniga bo’lgan sadoqatini ham kuylashga alohida e’tibor berdi. Ijodkor o’z el- yurtining nurli kelajakka erishishini orzu qildi hamda o’z ijodi bilan ana shu kelajakni bir bahyaga bo’lsa ham yaqinlashtirmoqchi bo’ldi.

Cho’lpon o’z she’rlari bilan XX asr o’zbek sheriyatining taraqqiyotiga katta turtki bergan.

A RESEARCH ON GANGGO RYU SHIM-CHUN’S LITERARY PERSPECTIVE

Ryu, Jae-hwa (Mosan Academic In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iterary perspective of Ryu Shim-chun(1762~1834) to investigate an aspect of the literary style restoration policy led by king Jeongjo(正祖)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and also understand the studies conducted by the Namin faction of Yeongnam. Ganggo was born in Sangju, Gyeongsang-do during the mid 18th century and put his efforts into a field of study by succeeding the studies conducted by his family. The origin of the studies was Byung sect which was studied by Ryu Seong-

ryong who succeeded Toegye(退溪) study and also was the 7th ancestor of Ryu Shim-chun. In the spring of when he was 25 years old, he passed Saengwon(生員) state examination in the 2nd place. Two years later when he was 27 years old, he became a pupil of Yipjae(立齋) Jeong Jongro(鄭宗魯, 1738~1816) who was teaching ethics at Woobuk mountain(于北山). He was greatly admired by being called as “Dokhak Gunja(篤學君子)”.

His learning and virtue were known to the royal court and he was recommended to a government post when he was 34 years old. King Jeongjo mentioned that he had often heard the name of Ryu Shim-chun so he wrote his name on the wall. The king appointed him as Donyonggyowi Busawi(敦勇校尉副司勇) by special command. After that, King Jeongjo constantly paid his attention to Ganggo’s studies and chose him as Yosok(僚屬) of Wonjagung Ganghakcheong(元子宮講學廳) since the king considered him as the right person for the literary style restoration policy. Ganggo was 37 years of old at this time. He continued to be in charge of educating the crown prince and earned the honor of being called “Samjo Gyebang(三朝桂坊)”. Ever since, Ganggo’s years of experience in educating the crown prince made him realize that prince education is highly critical for the future of education and literary ideology. Therefore, he wrote and presented two volumes of 『Donggung Boikpyeon(東宮輔翼編)』.

Ganggo’s studies and ideology were focused on cultivating the mind instead of following other scholars who speculatively explored “Yigi Simseong(理氣心性)”. In particular, after he encountered 『Simgyeong(心經)』, his pursuit of the study for three times solidified his studies in cultivating the mind. The foundation of his studies lied the spirit of Geogyeong(居敬). Genuineness of mind is important in studying Geogyeong(居敬). Therefore, Ganggo was uncomfortable about the novel-type Sajang(詞章) literature that was popular at the time. Ganggo argued that Sajang(詞章) should come to the end and Gyeongjeon(經傳) should be the foundation.

The literary spirit of Ganggo who pursued the genuineness of mind was to realize Gongeui(公議), Gongli(公利) and Gongik(公益) by following confucian principles. Another goal was to follow and realize literary style restoration policy led by his king Jeongjo. His literary awareness was originated from his ancestor Ryu Seong-ryong who also had the spirit of a public service.

Key words : Gang-go Ryu Shim-chun, Byung sect(屛派), literary style restoration, Ganghak (講學), Sajang(詞章), genuineness of mind

Ⅰ. Preface

Joseon literature group of the late 19th century, who already experienced silhak always had some critical possibilities as the problems are opposed to literature of Neo-Confucianism that is guksi(國是). Especially, the critical mind suggested by Jeongjo, ‘Literature atmosphere of the period was gradually vulgar, so writing style of works of paegwan(稗官)(novelist) got into gwanmun(科文) and gyungjun became meaningless.’ finally allowed Jeongjo to the policy of munchebanjung(文體反正) that is to return to the writing style of pure state. Therefore, jeongjo selected exemplary characters for the policy and one of them should be Ganggo Ryu, Shim-chun(江皐柳尋春)(1762~1834).

Ganggo became regional governmental officer several times since his way was opened by munchebanjung of Jeongjo, but he was employed many times because of the ganghakwan of sejagung. Therefore, he accumulated particular history of ‘samjogyebang(三朝桂坊)’. For the studies of Ganggo, Iphae Jung, Jong-ro(立齋鄭宗魯)(1738~1816) said “This person is one of gyungjaejam(敬齋箴).” and Jeongjo said “This person is studying.[114]”. People of the period said “Ganggo is not only ‘practical

[114] Ryu, Shim-chun(柳尋春), 『Ganggojip(江皐集)』(hereinafter referred as 『Ganggojip』.), refer to「Yunbo(年譜)」

Confucian scholar' but also 'high-level literary person through "dokhaenggunja(篤行君子)".

In spite of the evaluation of studies and literature of Ganggo, there are few studies on Ganggo literature except for a few theses mentioning Ganggo partially while introducing studies and studying flow of Pungsan Ryu Uchen family(豐山柳氏愚川派) and 2 theses of Lee, Hyung-sung and Kwan, Tae-eul(權泰乙) that discussed Ganggo wholly. Theses of Lee, Hyung-sung and Kwan, Tae-eul focused on lifelong and thoughts of Ganggo, so did not discuss about his literature view concretely and clearly. Therefore, thesis intends to examine the lifetime of Ganggo firstly and discuss about his literature view by focusing on 2 volumes of 'seo(書)' that can allow us to examine his literature view. The discussion is considered to contribute to understanding of Youngnam Neo-Confucian scholars' literature and be helpful to understand writing style banjung movement supervised by Jeongjo.

Ⅱ. The background of literature view formation(文學觀形成背景) of Ganggo(江皐)

A son of Ganggo Ryu, Shim-chun(江皐柳尋春) is Sangwon(象遠), family clan is Pungsan(豐山), father is Gwangsu(光洙), adoptive father(養父) is Bal(潑), he is 7th grandson of Munchunggong Seoae Ryu, Sung-ryong(文忠公西厓柳成龍)(1542~1607), mother is Pungyang Cho(豐壤趙氏), and he was born in Sangju Uchen(尙州愚川), Gyeongbuk on Aug. 24, 1762(Yungjo 38). Ganggo learned basic studies from his father Gwangsu and then, learned oejun(外傳) from Cho, Mok-soo · Hak-soo(趙沐洙 · 學洙) who are maternal cousins. And then, he read Gangmok · Seojeon(綱目 · 書傳). At the age of 18, he passed hyanghae(鄕解). She studies daehak at the age of 19 and jungyong at the age of 20 as well as wrote 'jagyungsul(自警說)' at the age of 22. He studied yeseo(禮書) at the age of 23. He passed saengwonboksi(生員覆試) as the second rank in the spring at the age of 25. In winter of the age of 27, he studied under Ipjae Jung, Jong-ro(立齋鄭宗魯) and at that time, Jung, Jong-ro praised "This person is nearly a person of gyungjaejam(敬齋箴).". At the age of 28, he wrote 'jasulsi(自述詩)', so people of the period said he was 'dokhaenggunja(篤行君子)'.

The above will to practice and achieve gahakgyeseung and studies allowed Ganggo get out of the speculative(思辨的) 'selfish mind(理氣心性)' and concentrate on mind cultivation. Especially, while reading 『Shimgyung』, his studies of mild cultivation became strengthened, it allowed him to aim at mind consistency based on the spirit of 'geogyung(居敬)'.[115] Ganggo's studies aiming at consistency made lots of effects on the reason of his literature formation, so his literature form and contents similarities were formed.

Next, he visited the shrine of oksanseowon releasing Hoejae Lee, Un-juk(晦齋李彦迪) in May at the age of 32 and after returning to homeland, Jseonjo ordered to move sunbi of jaeya in winter while reading juseo(朱書) and he was moved to 'gyunghakhaengui(經學行義)'. Jeongjo said 'I heard name of Ryu, Shim-chun familiarly and recordered it on the wall'[116]. Therefore he secured a government position due to the special order of donyonggyowiyongyangbusayong(敦勇校尉龍驤衛副司勇) in Nov. of same year, but he was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 officer or unimportant posts due to the cheuksin's jilsi. However, when he was 36 years old, son of jeongjo(正祖) started to study. Jeongjo talked about son's gyodoin(教導人) and said "A person with special literature is not necessary and considered close persons excellently.[117]". He considered Ganggo as the person, evaluated "This person is studying person.[Sihakmuninya(是學問人也).]" and did jesu in yosok of wonjagung. Therefore, he did gyodo of three kings, Sunjo, Ikjong, and Hunjong and Ganggo wrote two volumes(上下卷) of 『donggungboikpyun(東宮輔翼編)』 based on the experieces as

115 『Ganggojip(江皐集)』「Ganggoyunbo(江皐年譜)」Gwonea(卷二), <Gajang(家狀)> refer to page 580

116 『Ganggojip(江皐集)』「Ganggoyunbo(江皐年譜)」Kwon, II(卷一)

117 『Ganggojip(江皐集)』「Ganggoyunbo(江皐年譜)」Kwon, II(卷一)

gangwan of sejaikwisa.

Ⅲ. Literature view(文學觀) of Ganggo(江皐)

As mentioned, Joseon of the 19th century started to show side effects of the biased literature as they already experienced sikhak and freely induced culture from China. Especially, negative awareness about Jeongjo’s pakwanmunhak(稗官文學) finally prohibited the import of books from China and carried out munchebanjeong(文體反正). For the flow of literature atmosphere, literature theory was released diversely. Ganggo released his literature view through 2 letters and we will examine them. First, if examining <Dapjungmyungeungsinchuk(答鄭明應辛丑)>[118], Ganggo said that self-obtaining is more important than finding the reason from external goods to Jung, Eung-myung(鄭應明). For the order of reading, spirit(氣) can be understood by reading other books after reading 『saseo(四書)』 firstly, it becomes the way to eliminate uneasiness[Dogigeosapjibang(導氣祛澁之方)], it’s easy to obtain for oneself, and there are lots of academic achievements after self-obtaining. And then, if examining <Dapinimin(答人壬寅)>[119], Ganggo said that literature of sajang(詞章) is successful from Jinha(秦漢) to Song(宋) Dynasty, so it’s just literature(文) without oji(奧旨) or eahak(理學) of Sunghyun and studies of oji(奧旨) or eahak(理學) of Sunghyun could be possible as Juhee of Song Dynasty wrote 『saseo』 to someone. Next, he said that we should consider sajang(詞章) as mal(末) and consider studies of Sunghyun oji(奧旨) and eahak(理學) as the base.

Through those 2 letters, Ganggo’s literature view is to consider susahak(洙泗學) and Neo-Confucianism as the base and recognize sajang(詞章) as mal(末).

江皐 柳尋春의 文學觀 考察

Ⅰ. 머리말 Ⅱ. 江皐의 文學觀 形成 背景	Ⅲ. 江皐의 文學觀 Ⅵ. 맺는말

<국문초록>

본고는 柳尋春(1762~1834)의 문학관을 살핌으로서 조선후기 정조가 실시한 문체반정운동의 한 면모를 살펴볼 뿐만 아니라 당대 영남남인의 학문양상을 엿볼 수 있는 단서로 활용하고자 한다. 강고는 18세기 중반 경상도 상주에 태어나 가학을 계승하여 학문을 닦았다. 가학의 연원은 퇴계학을 계승한 그의 7대조 류성룡의 학문인 屛派였다. 그는 25세 봄에 생원복시에 2등으로 합격하였다. 2년 뒤 27세 때는 于北山에서 도학을 강론하던 立齋 鄭宗魯(1738~1816)의 문하에 나아가 학문을 매진하였는데 이로 ‘篤學君子’라는 칭송을 받았다.

그의 이러한 학행은 조정에까지 알려져서 34세에 당시 廷臣으로부터 천거되자 정조는 류심춘의 이름을 자주 들어 殿壁에 기록하였다고 하면서 특명으로 敎勇校尉 副司勇에 제수하였다. 이후에도 정조는 계속 강고의 학문에 대하여 주목하고 강고를 자신의 문체복고운동에 부합한 모범적 인물로 여겨서 元子宮 講學廳의 僚屬으로 발탁하였다. 이때 강고의 나이 37세였고, 이후에도 강고는 계속 세자교육에 관련한 직책을 맡음으로 ‘三朝桂坊’이란 영예를 얻게 된다. 이후 강고는 이러한 세자 교육의 다년간 경험을 바탕으로 세자의 교육이 국가 미래의 교육 대계와 문학사상에 지대한 영향이 미침을 깨닫고 『東宮輔翼編』上下卷을 지어 바치게 된다.

강고의 학문과 사상은 당시 학자들이 ‘理氣心性’을 사변적으로 탐구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마음 수양공부에 집중되었다. 특히 『心經』을 접한 이후 세 차례 강학하며 마음 수양공부는 더욱 확고해졌다. 그 수양의 기저에는 居敬의 정신이 있었다. 거경의 공부에는 마음의 純一性을 지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강고는 당시 종횡하는 소설류 등의 사장문학에 불편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하여 강고는 詞章은 末로 여기고

118 『Ganggojip(江皐集)』 Vol.5,「Seo(書)」<Dapjungmyungeungsinchuk(答鄭明應辛丑)>

119 『Ganggojip(江皐集)』 Vol.6,「Seo(書)」<Dpinimin(答人壬寅)>

經傳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마음의 순일성을 지향하는 강고의 문학정신은 종국에 유가적 법문을 지켜 公議와 公利, 公益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한편으로는 당시 군주인 정조의 文體反正運動에 부응하여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학의식은 바로 7대조 류성룡이 출사하여 봉공의 정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가학적 문학관에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주제어: 江皐 柳尋春, 屛派, 文體反正, 講學, 詞章, 純一性

Ⅰ. 머리말

이미 실학을 경험한 19세기 후기조선의 문단은 그 자체로서의 문제점과 國是인 성리학적 문학과 상충함으로 일말의 비판적 여지를 항상 안고 있었다. 특히, 정조에 의해 제기된 '당시 문풍이 점점 비속해짐으로 稗官(소설가)品의 문체가 科文에까지 침투하여 경전이 무의미한 것으로 전락되었다'는 문제의식은 드디어 정조로 하여금 순정한 상태의 문체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文體反正의 정책을 실시케 한다. 따라서 정조는 이 정책을 위하여 모범적 인물을 발탁하였는데, 江皐 柳尋春(1762～1834)도 그 중 한 인물로 추측된다.

강고는 정조의 문체반정의 정책 실시에 힘입어 환로가 트인 이래로 몇 차례 지방관으로 나가기도 하였지만, 세자궁의 강학관으로 많이 재직한다. 이로 그는 '三朝桂坊[120]'이란 특이한 이력을 쌓는다. 강고의 학문에 대하여 立齋 鄭宗魯(1738~1816)는 "이 사람은 敬齋箴 중의 사람이다.[121]"라고 하였으며, 정조는 "이 사람은 학문하는 사람이다.[122]"라고 하였으며, 당시 사람들은 "篤行君子[123]"라고 한 것 등으로 강고는 '실천유학자'였을 뿐만이 아니라 문학적 측면에서도 매우 높은 수준의 문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강고의 학문과 문학에 대한 평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고에 대한 문학연구는 豐山柳氏 愚川派 가계의 학문과 학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강고를 부분적으로 언급한 몇 편의 논문과 강고에 대하여 전적으로 논의한 이형성과 權泰乙 교수의 2편 논문[124]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형성과 권태을 교수의 논문도 강고의 생애와 사상에 치중한 나머지 그의 문학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논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강고의 생애를 먼저 살펴보고, 강고의 문학관을 살필 수 있는 2편의 '書'를 중심으로 그의 문학관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이러한 논의는 영남 성리학자들의 문학이해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당시 정조에 주도된 문체반정운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라고 생각된다.

Ⅱ. 江皐의 文學觀 形成 背景

江皐 柳尋春의 자는 象遠, 본관은 豐山, 生父는 光洙, 養父는 潑이며, 文忠公 西厓 柳成龍(1542~1607)의 7대손이고, 모친은 豊壤趙氏이다. 그는 1762년(영조 38) 8월 24일 경북 尙州市 中東面 愚川에서 태어났다.[125]

강고는 부친 광수로부터 ≪十九史略≫, ≪小學≫, ≪孟子≫, ≪詩傳≫ 등의 기초학문을 수학한 뒤에 10세에는 외사촌 형인 趙沐洙·學洙 형제로부터 ≪外傳≫을 배웠다. 13세에는 綱目을 독서하였고, 14세에는 覺古菴에 가서 書傳을 독서하였다. 15세에 생부 光洙의 상을 당하였는데, 이때 조부 聖魯의 명으로 조몰한 伯父 潑의 후사가 됨과 동시에 豐山柳氏 愚川派의 宗嗣를 잇는다. 18세에는 鄕解에 응시하여 장원하였고, 19세에는 固城李氏와 결혼하면서 臨淸閣의 甥館에서 대학을 독서하였다. 20세에는 청룡사에서

---

120 三朝桂坊: 한 사람이 3대에 桂坊(世子翊衛司의 별칭)에서 벼슬한 것을 말함. 즉 강고가 순조, 익종, 헌종 3대조정의 세자 익위사에서 벼슬한 것을 말함.

121 柳尋春, ≪江皐集≫(이하 '≪江皐集≫'으로 칭함),「年譜」, "鄭先生亟稱之曰, '某也, 能尊瞻視, 所存可知.' 又曰, '此殆敬齋箴中人也.'"

122 ≪江皐集≫, 「年譜」권1, "時柳相祚以玉堂入侍. 上曰, "柳尋春彼玉堂之族人, 而是學問人也." 左相對曰, "是也. 且臣因湖南人聞, 甚有儒者之治." 上屢稱, "是學問人.""

123 ≪江皐集≫, <年譜> 권1, "十三年己酉(先生二十八歲)有自述詩.(先生絶意進取, 閉戶江上, 非聖賢書, 不經覽, 自此所造日益精深, 而務自韜晦, 不欲以賢智先人, 不喜著述, 又不喜談性說理, 一世皆以篤行君子稱焉.'"

124 강고 류심춘에 관련한 주요논문은 다음과 같다. ①이형성,「江皐 柳尋春의 生涯와 思想」, 상주문화원; ②權泰乙, ≪江皐 柳尋春의 揚善思想考≫, 강사문화제3집, 2017년; ③이종호,「≪퇴계학자료총서≫제8차분해제: ≪江皐集≫ 柳尋春 著」, ≪퇴계학≫ 제16집,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7년; 金子相, 「江皐 柳尋春의 동궁보익편 고찰」, ≪尙州文化硏究≫ 제12집, 상주산업대학교 상주문화연구소, 2003.

125 류심춘의 7대조 文忠公 柳成龍(1542~1607)은 安東 河回에서 살았으나, 그의 셋째아들 修巖 柳袗(1582~1635) 때 상주 柴里로 이주하였다. 柳袗은 그의 6대조이다. 그 뒤 그의 조부 柳聖魯가 시리에서 愚川으로 옮긴 뒤부터 후손들이 세거하였다.

중용을 독서하였고, 22세에는 '自警說'을 지어 자신의 志氣의 해이함을 경계하였다. 23세에는 禮書를 독서하였다. 25세 봄에는 生員覆試에 2등으로 합격하였다. 27세 겨울에는 立齋 鄭宗魯의 문하에 가서 수학하였다. 이때 강고는 정종로로부터 "이 사람은 거의 敬齋箴의 사람이다."라는 칭송을 들었다. 강고가 정종로에가 나아가서 수업한 까닭은 "이분은 우리 가문의 연원이다.[126]"라고 자술한 것에서 살필 수 있는데, 강고는 정종로로부터의 수학을 가학계승의 연장으로 여기고 있다. 28세에는 '自述詩[127]'를 지었는데, 이 시에서 강고는 장자의 逍遙遊에 나오는 자유분방하게 노니는 붕새에 자신의 포부를 이입시켜 대장부의 기개를 토로하면서 학문을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自强不息으로 수양을 독실하게 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로 당시 사람들에게 '篤行君子'로 불리어졌다.

이상과 같은 가학계승과 학문을 실천하여 성취하겠다는 의지는 강고로 하여금 思辨的 '理氣心性'을 벗어나게 하면서 마음 수양공부에 집중하게 하였다.[128] 특히, ≪心經≫을 접한 이후 세 차례의 강학을 경험한 뒤부터 마음의 수양공부가 확고해지면서 '居敬'의 정신을 기저로 한 마음의 순일성으로 지향하게 하였다.[129] 강고의 순일성 지향을 위한 학문정신은 그의 문학형성 사유에 많은 영향을 주어 그의 문학형식과 내용적 유사성을 갖추어 나가게 함으로 후술에서 詞章을 末로 여기고 경전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32세 5월에는 晦齋 李彦迪을 배향한 옥산서원의 사당에 가서 알묘하고 귀향한 뒤에 朱書를 독서를 하던 중 이해 겨울에 정조가 재야의 선비를 천거할 것을 명하자 廷臣이 經學行義로 강고를 천거하니 정조가 전벽을 돌아보며 '류심춘의 성명은 내가 익숙히 들어서 여기에 기록해 두었다'[130]고 하였다. 따라서 동년 11월에 敦勇校尉龍驤衛副司勇을 특명으로 제수 받아 벼슬길이 트였지만, 측신의 질시로 지방관이 아니면 한직에 전전하게 된다. 강고는 이와 같이 낮은 벼슬에 임명되어도 바로 출사한 뒤에 사직하는 것은 그가 세신가문으로의 의무감이 있었기 때문이다.[131] 그런데 그의 나이 36세 때, 正祖의 원자가 입학할 나이가 됨에 정조는 원자의 教導人을 "특별하게 문학이 있는 사람은 필요하지 않고 근칙한 사람을 좋게 여긴다.[132]"하고 천거할 것을 명한 뒤에 때마침 입시한 강고의 族人 柳相祚(1763-1838)를 본 정조는 바로 강고가 그러한 인물임을 여기고 당시 입궐한 蔡濟恭(1720-1799)에게 강고에 대하여 "이 사람은 학문하는 사람이다.[是學問人也.]"라고 평하니 蔡濟恭도 동조함으로 강고를 원자궁의 요속으로 임명하였다. 한편, 정조가 강고를 세자익위사의 강관으로 임명한 것은 이보다 앞서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그의 문체반정정책에도 부합한 인물로 여겨서 위와 같은 평을 내리면서 등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로부터 강고는 일시적으로 몇 차례 지방관으로 나가기도 하였지만 세자익위사의 요속으로 자주 임명된다. 이 때문에 강고는 순조와 익종과 헌종 3대 임금을 교도하는데 이른다. 그리하여 강고는 뒷날 세자익위사의 강관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東宮輔翼編≫上下卷을 지어 바친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강고가 그의 문학관을 독자적으로 확립할 수 있었던 배경은 洙泗學과 성리학을 중시하는 가계의 학풍과 그의 7대조 柳成龍이 출사하여 봉공하는 정신을 계승하는 가운데 그의 문학관이 많은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Ⅲ. 江皐의 文學觀

---

[126]≪江皐集≫<江皐年譜> 卷二, <家狀> 587쪽, "蓋我文忠公學於退陶李先生, 而修巖漁隱篤生門庭垂裕後昆, 修巖又從愚伏鄭先生學, 鄭先生之學得於吾文忠公, 世稱陶山再傳之嫡者也. 府君以爲立齋先生是愚爺之孫, 而吾家淵源也. 遂往從之."

[127]≪江皐集≫ 卷一,「詩」, <自述>, "장자 우언에서 한말/莊生有寓言, 황홀하여 측량할 수 없다네./恍惚不可測. 누가 알랴 북명어가/誰知北溟魚, 붕새로 변하여 회오리바람 타는 날개가 될 줄을/化爲扶搖翼, 나에게 대장부 기운 있을지니/我有丈夫氣, 우뚝하게 무지개 서듯 하리라./軒然虹蜺直. 평생토록 명예와 절개를 지켜/平生名節字, 강개한 마음 비바람 치듯 이는 저녁이라네./慷慨風雨夕. 내 옛 성인의 말씀 들으니/我聞古聖言, 삼십이면 선다고 했는데/三十而有立, 내 나이 곧 이에 미치리니/吾年行將及, 힘쓰고 힘써 설 것을 기약한다네./慥慥期此域. 큰 도는 단계를 뛰어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니/大道難容躐, 이 도학은 쉬지 않는 것이 귀하다네./此學貴不息. 비유컨대 갈 길 바쁜 사람이/譬彼趲程者, 한순간도 허비해서는 안 됨과 같다네./一息勿放却.

[128] 이형성,「江皐 柳尋春의 生涯와 思想」, 상주문화원 중 '2. 학맥과 학풍' 내용 참조.

[129]≪江皐集≫<江皐年譜> 卷二, <家狀> 580쪽. 嘗曰, "敬爲學者, 第上頂工夫. 敬有未發之敬, 敬有已發之敬, 未發無敬, 安有已發而敬? 誠勤謙拙, 無非敬之事也. 念善事言善事・行善事夜以繼日, 貞則復元, 敬何可須臾去? 去之非吾所謂敬也."

[130]≪江皐集≫, <江皐年譜> 卷一, "顧殿壁曰, '柳尋春姓名, 予聞之熟, 而記在之矣."

[131]≪江皐集≫, <江皐年譜> 卷一, "尋春赴召, 初非有爲計也. 爲世臣, 不敢偃蹇也. 爲濫叨三世宮官也."

[132]≪江皐集≫<江皐年譜> 卷一, "時元子年已入學. 上命大臣抄選山林宿德有文學可合教導之人, 使之豫爲進講之地. 上曰, '乃者筵席以元子宮教導人訪問之意, 言於卿等, 蓋教導之人不必別求有文學, 謹飭之人爲好矣.' 左相蔡濟恭奏曰, '臣亦採問此等人, 而文學謹飭之人, 不可容易說. 古人之以至於爲先正者, 正不過此.' 時柳相祚以玉堂入侍, 上曰, '柳尋春彼玉堂之族人, 而是學問人也.' 左相對曰, '是也. 且臣因湖南人聞甚有儒者之治.' 上屢稱是學問人."

주지하듯 19세기 조선은 이미 실학적 학문을 경험함과 동시에 중국으로부터의 문물수입이 자유로워지자 그것에 편승한 문학의 폐단도 아울러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정조의 稗官文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드디어 중국으로부터 서적수입을 금지하고 문체반정의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른다. 이러한 문풍의 조류에 편승한 문학론도 매우 다양하게 분출된다. 강고도 2편의 편지를 통하여 그의 문학관을 표출하였는데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答鄭明應辛丑>을 살펴보기로 한다.

> 보내온 편지에 근래 한유의 글을 읽었다고 하였는데, 그대가 궁격(窮格)의 공부를 독실하게 함으로 이미 경전과 성리의 글에 見得이 있었다면 혹 막히어 걸리는 어려운 고생의 근심을 염려하여 그 때문에 이 책을 읽은 것입니까? 그대는 밖을 힘써 넓힘을 구하는 것의 병폐를 '자신의 뜻에 차지 않는 말[自歉之語]'이라고 하였는데 그대는 어찌해서 밖을 힘써 넓힘을 구하는 이치를 가졌습니까? 한유의 글도 어찌해서 밖을 구해서 넓힘을 구한 글이라고 가히 말했습니까? 한유의 '理'를 대략 살펴보고 때문에 그의 글 중 '原道'와 '師說' 등과 같은 편은 비록 고인에게 한 가지의 하자도 지적받지 않은 것은 아니나 그러나 도의 순서를 삼는 데에는 가히 더불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대가 이미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마음에 쌓고 학문의 순서를 한문공의 예스럽고 깊으면서 조용하고 광대하여 다하지 않은 곳을 우선 좇아가는 것으로 해서 氣를 통하게 하고 껄끄러움을 떨어 없애는 방법을 삼았으니 진실로 힘을 쓰는 방법을 안 것입니다. 과연 능히 이것을 통해서 꾸준히 진보하여 멈추지 아니하면 그 나아감을 어찌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대에게 더욱 얻은 것이 있었던 것은 그것이 眞知와 愼言의 연고였기 때문인데 그대는 또한 어찌하여 일찍이 이를 자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에 이것을 실정에 지나치고 실상보다 큰 말로 여기는 것은 責善과 忠告의 도에는 맞지 않은 듯해서이니 이것을 어찌 그대에게 바라는 바이겠습니까?[133]

인용문에서 강고는 鄭應明에게 외물에서 이치를 구하는 것보다 자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독서의 순서는 ≪四書≫를 가장 먼저 읽고 난 뒤에 다른 책을 읽어야 氣를 통하게 하고 껄끄러움을 없앨[導氣祛澁] 수 있어 자득할 수 있고, 자득한 뒤에라야 학문을 하면 성취가 많다고 하였다. 이어 <答人壬寅>을 살펴보기로 한다.

> 秦漢 이후부터 문장으로 세상에 이름난 사람이 어찌 한이 있을까마는 그러나 그들은 성현의 경전에서 奧旨를 미루어 밝히고 은미한 말을 완미하며 궁구해서 속인에게 모법이 되고 후세를 인도하는 법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宋의 여러 선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문장을 짓는 낮은 수준을 씻고 성현의 글에 잠심하여 '集註章句'의 說을 드러냄에 우리 유가의 법이 해와 별과 같이 밝아졌습니다. 사람들은 詞章이 末이 됨과 經傳이 근본이 됨을 알고서 만일 혹 이 학문에 뜻을 둔 사람이 있다면 중용・대학・논어・맹자를 표준으로 삼는 것보다 못하지 아니하니 가르치는 사람은 이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은 이것을 배워서 이 규모가 지켜진 것이 대개 천년 남짓합니다. 이로 살펴보면 詞章은 경전에서 과연 어느 것을 근본으로 삼고 어느 것을 末로 삼아서 어느 것을 먼저 하였으며 어느 것을 뒤로 하였습니까? 지금 그대의 말은 사장으로 그 氣髓를 성하게 하고 理學으로 그 연원을 깊게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詞章의 氣髓와 理學의 연원이 스스로 서로 關涉하는 것이니 어찌 일찍이 한 푼의 근사한 것이 있어서 先聖의 말에 과연 이와 같은 意義가 있었습니까? 또 이르되, "詞章과 理學은 본래 두 가지 이치가 아니어서 이것으로 더욱 서로 어긋남이 심해진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詞章과 理學이 두 가지의 이치가 아니라고 이른다면 저 속유들이 句讀와 記誦을 익히는 것이 과연 우리 선비의 학문과 더불어 혼연하게 하나가 되어서 秦・漢・晉・唐의 文이 모두 理學의 中流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이와 같다면 그대가 이른 바의 도는 즉 文일 뿐이니 어디에서 그것이 理學으로 스스로 기약하는 것이 있겠습니까? 남을 나무라는 것은 분명하고 자신을 나무라는 것은 숨기고 말을 하는 것은 쉽고 행하는 것은 어려우면 우리들이 사장을 익히는데 누군들 편중의 폐단이 없겠습니까? 말이 자세한데도 스스로 그치지 못하는 까닭은 그대의 말을 좇아서 스스로 경계하는 것을 삼고자 해서입니다.[134]

---

[133]≪江皐集≫권5, <書>, <答鄭明應辛丑>, "來諭云'近讀韓文', 以吾兄篤實窮格之工, 旣有見得於經傳性理之書, 則或慮夫壅滯艱苦之患, 而爲之讀是書哉? 吾兄以務外求博之病, 爲自歉之語, 而吾兄而豈有務外求博之理? 韓子書亦豈可以務外求博之書而言之耶? 韓子粗見理, 故其文如原道師說等篇, 雖不無古人指一之疵, 然可以與言於爲道之倫矣. 吾兄旣以語孟庸學積之于中, 而爲學問之階梯, 姑就韓文之蒼然淵然浩浩不窮處, 爲導氣祛澁之方, 則眞知用力之道矣. 果能因此而進進不已, 其進詎可量耶? 尋之所以尤有得於執事者, 其以眞知愼言之故, 而執事亦何嘗不以是自處耶? 今乃爲此過情浮實之言者, 似非責善忠告之道, 是豈所望於執事哉?"

[134]『江皐集』 권6,「書」<答人壬寅>, 秦漢以來, 以文章鳴於世者何限, 而其於聖賢經傳, 莫有能推明奧旨, 玩究微辭, 以爲範俗牖後之規. 至宋諸儒, 始滌詞章之陋, 潛心聖賢之書, 集註章句之說出, 而吾儒家法煥若日星. 人知詞章之爲末, 經傳之爲本, 苟或有志於此學者, 則無不以庸學語孟爲標準, 敎者敎此, 學者學此, 守此規模, 蓋千有餘年矣. 以此觀之, 詞章之於經傳, 果孰爲本而孰爲末, 孰爲先而孰爲後也? 今執事之言, 有曰以詞章壯其氣髓, 以理學深其淵源, 然則詞章之氣髓, 理學

인용문에서 강고는 어떤 사람에게 秦漢이후부터 宋나라 이전 까지는 詞章의 문학이 성하여 성현의 奧旨와 理學이 없는 文일 뿐이었고, 송나라 주희가 ≪사서≫를 집주함으로써 비로소 성현의 奧旨와 理學의 학문이 가능하였다고 하였다. 따라서 사장을 末로 여기고 성현의 오지와 이학을 학문의 근본으로 삼아야한다고 하였다.

이상의 2편의 편지를 통하여 강고의 문학관을 살펴보면 강고는 수사학과 성리학을 근본으로 여기고 詞章을 末로 인식하는 성리학자이면서 실천유학자임을 알 수 있다.

Ⅳ. 맺음말

[參考文獻]

柳尋春, ≪江皐集≫ 목판본, 1852.

이형성, 「江皐 柳尋春의 生涯와 思想」, 상주문화원.

權泰乙, ≪江皐 柳尋春의 揚善思想考≫, 강사문화제3집, 2017년.

이종호, <≪퇴계학자료총서≫제8차분해제: ≪江皐集≫ 柳尋春 著>, ≪퇴계학≫ 제16집, 안동대학교 퇴계학연구소, 2007년.

金子相, <江皐 柳尋春의 동궁보익편 고찰>, ≪尙州文化硏究≫ 제12집, 상주산업대학교 상주문화연구소, 2003.

강명관, ≪공안파와 조선후기 한문학≫, 소명출판, 2008.

송혁기, ≪조선후기 한문산문의 이론과 비평≫, 월인, 2006.

РЕАЛИСТИК РОМАНЛАРДА ИНСОН ВА ДАВР МУАММОСИ

Атабаева Г.Ф., ТДПУ

Annotation: To present the content and the ideological essence of today’s realistic novels on the basis of imagenary.To increase the literacy and knowledge level of pupils.

Олам ва одамдаги барча ўзгаришлар инсон тафаккурининг маҳсули. Ижтимоий ҳаётни ўзгартириш учун инсон тафаккурида тараққиёт бўлиши муҳим.Маълумки ҳаётдаги бирор ўзгариш инсон аралашувисиз кечмайди. Ижтимоий жараёндаги ютуқлар камчиликлар, маънавий-маърифий қарашлар инсон қалб туғёнисиз, унинг тафаккурсиз мавжуд эмас. Инсон тафаккуридаги ўзгариш давр ва жамиятдаги ўзгариш таъсирида бўлиши табиий ҳол. Тафаккурдаги тараққиётни адабиётшунослик бадиий адабиётнинг иникоси сифатида англайди. Натижада адабиётнинг барча тур ва жанрлари бу жараённи акс эттиришга хизмат қилади. Бадиий адабиётнинг йирик жанрларидан бўлган романларда инсон ва давр муаммоси янада кенгроқ ёритилиши ҳеч ким учун сир эмас. Бу нарса бугунги ўзбек романларида ҳам ўз ифодасини топмоқда. Демак уларда жамиятдаги воқеа ҳодисалар эмас, инсоннинг ўзи, унинг ўй-фикрлари, аламлари, изтироблари, руҳий олами етакчилик қилмоқда. Бу эса бугуннинг талаби ”Ислоҳот ислоҳот учун эмас,аввало, инсон учун инсон мафаатларини таъминлаш учун.” И.А.Каримов.

“Роман замондан озиқланади, замон эса ундан ўз қиёфасини қидиради унинг воситасида ўзини янада яхшироқ англашга харакат қилади”А.Зондиевнинг роман ҳақидаги қарашлари мутлоқ ўринли. Айнан реалистик романлар учун тўғри талқин. Янги асрнинг барча ҳаракатлари инсон қалби ва онгини англашни, уни забт этишни мақсад қилмоқда. Бугунги кун муаллифлари ўз романларида янги аср қаҳрамонини яратиш баробарида ўқувчига кўзгу тутмоқда. Анъанавий ўтмишдаги образни таҳлил қилишдан кўра, бугунги қаҳрамон ўз аксини муҳокама қилиш китобхон учун кўпроқ қизиқарли ва мақсадли ҳаёт мактаби бўлади. Жумладан, Хуршид Дўстмуҳаммаднинг “Бозор” романида “Бозор” инсоннинг инсонийлигини, табиатини, маънавиятини, комиллигини белгилайдиган макон. Бозор сўзи - рамзий маънога эга. У икки маъно англатади. Биринчи маъно ҳаёт, жамият бугунги кунни ифодалайди. Ҳаёт ва жамиятнинг таназзули одамларнинг унга муносабатида табиий, деалектик қонун асосида бўлмасдан валюнтаристик сиёсат асосида бўлгани учун бўлса, бозорнинг ичидан емирилиши у ердаги қаллоблик, одамлар ҳаққига ҳиёнат қилишлик, яъни тарозидан уришлик, алдамчилик, риёкорликдир. Ҳақиқатдан ҳам бозордаги хатти-ҳаракат одамларга бўлган муносабатда унинг кимлиги билинади. Бу ўринда ёзувчи шундай дейди: “Бозор- одамларнинг асл башарасини кундай равшан кўриш мумкин бўлган энг қулай жой” (10-бет). Асардаги образлар бугуннинг одамлари

之淵源, 自相關涉者, 何嘗有一分近似, 而先聖之言, 果有此等意義耶? 又曰, “詞章理學, 本非二致, 此尤相戾之甚者.” 詞章理學, 謂非二致, 則彼俗儒句讀記誦之習, 果可與吾儒之學, 混然爲一, 而秦漢晉唐之文, 皆從理學中流出來耶? 若是乎執事所謂道者, 卽文而已, 惡在其以理學自期者歟? 責人則明而責己則暗, 言之也易而行之也難, 吾輩於詞章之習, 孰無偏重之弊也哉?

мажозий маънодаги еб тўймас юҳо ҳам замонамиз кишиларидан. Бозор бу- ҳаёт, уни ишончли одамлар қўлига топшириш асосий мақсад. “Бозор” романининг бош мақсади китобхонга ҳаётни моддийлик ёки техника эмас, маърифат, маънавият изга солишини кўрсатиб бериш. Чунки фақат илмли инсонгина одам ва ҳаётнинг моҳиятини англайди. Асарда инсон ва давр муаммосини ёритишда реал воқеалар исломий эътиқод билан уйғун ҳолда мақсадли мукаммаллик касб этади. Реалистик романлар орасида Улуғбек Ҳамдамнинг “Мувозанат” романини ҳам айни вақтида ёзилган асардир. Асарда мустақилликнинг дастлабки йилларида одамлар ҳам зоҳирий, ҳам ботиний мувозанатини йўқотиб анча афгор ҳолга тушиб қолгани акс этган. Асар бош қаҳрамони Юсуф инсон бошига тушган кулфат, фожеадан қутилиш учун ташқи оламдан эмас, ботинидан мадад тиласа, қалбдаги мувозанатни сақлаб қолади деб ҳисоблайди, бунга амал қилади, ҳаётида фаровонликка эришади. Бунинг акси бўлган Миразиз ва Саидлар моддий фаровонлик бўлса-да, қалб мувозанати бузилган, нафс посонгисининг тоши оғир. Бундан оилалари таназзулга маҳкум. Романдаги ёшлар образида бугунги кунда бир қадар андишасизланиб, айёрлашиб, софлиги йўқолиб бораётгани жуда ишонарли очиб берилган. Бундай асарларни ўқиган китобхон романларда акс этаётган давр ва инсон муаммоси билан яна бир қадар яқинлашади.

Истқлол даври адабиётининг енг муҳим ҳусусиятларидан бири нисонлардаги иймон эътиқод ҳамда маънавиятга катта эътибор беришдир. Бугунги давр қаҳрамонлари ниҳоятда маънавиятли ва ўта мулоҳазали инсонлардир. Улар олам ва одам ҳақида кенг фикр юритади, ҳаёт, жамият иллатларидан, янги том маънодаги маърифатсизликдан, адолатсизликдан, ноҳақликдан, энг муҳими, иймон ва эътиқодсизликдан қайғуришади. Яна шуниси муҳимки, улар бу иллатларни жамият муҳитга боғлашмайди, бунга шулар айбдор деб билишмайди, балки барчасига инсонларнинг ўзи сабабчи деб ҳисоблайди. Бугун китобхон романларда инсон ва замон фалсафасини кенг маънода мантиқий англамоқда. Жамиятда инсон учун нима фожеа-ю, унга қарши курашувчи кучлар нима эканлиги романлардаги бадиий деталлар орқали ифода этилмоқда. Инсоний фожеа турли асосларда вужудга келади. Буларнинг ичида энг даҳшатлиси, имонсизлик, ўз манфаати йўлида қилинган саъй-ҳаракатлар инсонга беписандлик билан қараш оқибатида қалбнинг, ўзгаларнинг озор топишидир. Иймони бутунлик инсоний фазилатлардан ҳисобланади. Унинг дастлаби эса ватанни севишдир. Қайсики жамият ҳалқнинг маънавияти юксак, ўша жамиятнинг пойдевори ҳам мустаҳкам бўлади. Шу боисдан замонамизнинг романнавислари ўз олдига инсон руҳиятини камол топтиришни мақсад қилиб қўймоқда. Чунки ижтимоий, иқтисодий, сиёсий ўзгаришлар кўзга кўриниб турган моддий ҳаётни яхшилаши мумкин, аммо инсон маънавиятини ва руҳиятини камол топтира олмайди. Руҳиятнинг поклиги дунёвий ва диний билимларининг тўғри англанишидан кейингина вужудга келади. Бу ўринда адабиёт инсон руҳиятини тарбияловчи асосий восита ҳисобланади. Физик қонуниятлар моддий ҳаётимизда зарур бўлиши мумкин, аммо уларсиз ҳам қадимда инсоният мавжуд бўлган. Лекин қалб поклиги, инсонийлик, одамгарчилик каби инсонни инсон мақомига лойиқ этувчи жиҳатларсиз башариятни тасаввур этиб бўлмайди. Бугуннинг ўқувчиси романларни ўқиб, замонавийликнинг тарбия билан уйғунлашган, креатив йўналишдаги образлар тақдирини ўз ҳаётидаги жараёнлар билан солиштириш имконига эга. Шу билан бирга ўз мени билан ҳам таққослаши мумкин. Бугунги кун романчилигининг табиати ва унинг замиридаги фалсафий ғояни очиб бериш, унинг етакчи ғоявий-бадиий тамойилларини аниқлаш ўзбек романчилигининг истиқболидаги тараққиётни ҳам олдиндан белгилашга имкон беради. Ижтимоий ҳаётда юз бераётган эврилишлар бадиий асарларда акс-садо беради. Бу нарса унинг тамойилларини ҳам белгилайди. Ҳар бир давр ўз муаммоси, поэзияси ва қиёфасига эга бўлади. Давр инсонни четлаб ҳеч нарса ярата олмайди. Инсон шахсиятини эса илмдан бошқа нарса тўғри йўлга сола олмайди. Буни киши онгига сингдириш санъат ва адабиётнинг азалий муҳим вазифаси ҳисобланиб келинган, ҳозирги кунда эса долзарб муаммога айланди. Сабаби ёшлар илмга юзаки муносабатда бўла бошлади. Илмнинг моҳиятини англатиш, унинг инсон бўлиб яшашидаги ўрни ҳақида адабиёт ўргатади. Реалистик романларда инсон ва давр муаммоси бугунги кунда бадиий адабиётнинг романчиликдаги иникоси тараққий этиб, такомил этиб бормоқда. Бу ўринда ўзбек адабиёти модерн йўналишда бетакрор образлар яратиш билан ўзининг ўқувчилари қалбига кириб бормоқда. Романлардаги мантиқийлик, ҳаётийлик, мукаммал образлилик давр муаммосини очишда асосий омил бўлиб хизмат қилмоқда.

Фойдаланилган адабиётлар:

1.Ш.М.Мирзиёев “Миллий тараққиёт йўлимизни қатъият билан давом эттириб, янги босқичга кўтарамиз” –Тошкент: “Ўзбекистон” 2018 й

2.И.А.Каримов “Она юртимиз бахти иқболи ва буюк келажаги йўлида хизмат қилиш - энг олий саодатдир” – Тошкент: “Ўзбекистон” 2015 й

3.http//WWW.tafakkur.uz

A RESEARCH ON PEASANT DRAMA

Choi, Chang-Gil· Lee, Sang-Yul (Mosan Academic Institute, Korea).

The objects of this study are the peasant dramas among the plays published at the newspapers and magazines during the enforced occupation by Japanese.

The peasant dramas are classified into three work groups dealing with the phenomena of exploitation and destitution, the disharmony of direction and reception, and the expression of awakening and resistance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the works. This study has researched the faced problems of the farm villages and the peasants, the antagonism of the characters, and the writers' view of the farm village problems by analyzing the works of each group.

The serious researches on the peasant literature began in the early 1970s. The researches have been largely on novels and poems, but few on dramas. There are no good results of researches on the whole peasant dramas yet.

From the 1910s to the 1920s, peasant dramas appeared distinctively as a group of works while play was established as a category of literature. It was the result that the peasant drama writers viewed the real world more broadly and objectively than the domestic drama writers in former age did.

Peasant drama writers realized that the most pressing important problems in their age were at the farm villages, and this fact gave the full meaning of the times to peasant dramas.

The peasant dramas described the exploited peasants and their destitute lives realistically by the way of realism and naturalism which were the main currents of the times.

The peasant dramas described the actual lives of peasants and informed the world of them by treating many derivative problems.

The organization of KAPF with the appearance of proletarian literature led to create much different works from those of former generations because literature was regarded as the important means of reforming the actual and the subject of practice for an awakened person. The activities of KAPF influenced plays, and the dramas which had the characters of awakened peasants and dealt with the resistance of peasants were written. This kind of dramas became the main current of peasant dramas.

Peasant dramas can be classified into several types according to the features of works.

Firstly, there is a group of works which dealt with the peasants destituted by the exploiting ruling class and Japanese. The representative works are 'the people(그사람들)' by Kim, Un-jeng, 'The ox(소)’ by Ryu, Chi-jin and ‘Spring(봄)’ by Kim, Sang-myung. In these works, the peasant was driven to leave his hometown for Gando(間島), to be taken off his ox for the unpaid rent of farmland and to be a arsonist, or to make his daughter a concubine.

Secondly, the intellectuals led the peasants and tried to promote the farm villages. But they were not true leaders but hypocritical ones. This type of works include 'The elegy of the country(鄉土의輓歌)' by the Hwang, Beag-yung, 'The teacher of the country (村先生)’ by Lee, Gwang-rae and 'Chu gye(雛鷄)' by Kim, Song. These works have the characters who are affirmative leaders coming back to their hometown with a sense of mission, who come back to their hometown with romantic thinking about country lives but leave the country villages owing to the rejection of peasants, and who claim hypocritically to be leaders to look after their own interests.

Finally, there are works which criticize the actual and describe struggles with the will to accomplish true liberation through the hopeless state of farm villages and peasants revolutionary movements indwelling behind it. This type of works include ‘The sketch of farm village(農村스케취)’ by Chae, Man-sik, 'Park cheomji (朴첨지)’by Hyun min and ‘A prelude of spring(봄의序曲)’ by Park, Seo-min. These works raise issues of villages and peasants' destitution and move on to inspire the necessity of organized peasant movements. These works, being published at the time when debates on peasant literature occurred in the proletarian literary circles, led to a tendency ideology.

The peasant dramas during the enforced occupation by Japanese came to have eventually the work structures and antagonistic relationships like this because the writers viewed the farm villages of their times as the extremely poverty spots by the exploitation of Japanese.

They made leaders appear to solve these problems. But some hypocritical leaders drove the peasants into greater difficulties to gain their own interests. They believed that the revolutional strength from the

lower classes could solve the problems. So they described the affairs that awakened peasants and women from lower classes resisted positively.

There are not many studies which deal with the problems of farm villages or peasants in the Korean modern play history.

Therefore, this study, which sets up the peasants dramas during the enforced occupation by Japanese as a subdivision and tries to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works, is not a complete study but one to raise new problems. For that reason, if there are works which aren't researched in this study which show other characteristics of peasant dramas, they should be researched deeply. This research will continue in other discussion places.

農民劇 研究

본고는 일제강점기 신문이나 잡지에 발표된 희곡 중 농민극에 해당되는 작품을 논의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농민극을 작품의 성격에 따라 수탈과 궁핍의 현상, 지도와 수용의 괴리, 각성과 항거의 표출을 다룬 작품으로 분류하였다. 또, 각 유형의 작품을 분석하여 농촌과 농민이 당면한 문제의 양상을 살피고, 등장인물의 대립구도를 살펴서 농민극 작가들이 당대의 농촌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사회의식까지 파악하고자 했다.

농민문학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1970년대 초부터였다. 그러나 농민문학 연구는 주로 소설이나 시에 편중되었고, 희곡에 대한 연구는 부진한 형편이다. 아직까지도 농민극 전반에 관한 연구는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는 실정이다.

일제 강점기의 농민극은 1910년대와 1920년대를 이어오면서 희곡이 문학의 한 갈래로 정착되는 과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하나의 작품군으로, 그것은 전대의 가정극 작가들보다는 작가가 부딪힌 세계를 보다 넓고 객관적으로 인식한 결과였다. 농민극 창작에 참여한 작가들이 자기 시대의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문제가 농촌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농민극은 충분히 시대적 의의를 확보할 수 있다.

농민극은 당시 작품 창작의 주된 흐름을 이루었던 사실주의 또는 자연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일제의 농촌 수탈과 이로 인한 농민의 궁핍한 삶을 사실적으로 그렸다. 또, 그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주로 다룸으로써, 현실의 객관적인 묘사와 현실 고발의 기능을 충분히 담당했다.

프롤레타리아 문학의 등장과 더불어 이루어진 카프(KAPF) 결성은 극문학이 현실을 개혁 대상으로 인식하여 각성된 인물의 주체적 실천을 중요한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전대의 경우와는 사뭇 다른 성격의 작품이 창작되는 데 영향을 주었다. 이와 더불어 카프의 결성과 활동이 희곡 창작에도 영향을 주어, 농민극 중에는 각성된 농민의 등장과 이들의 지배세력에게 대한 항거를 다룬 희곡작품이 등장하여 농민극의 주요한 동기를 형성했다.

농민극은 작품의 성격에 따 몇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지배층과 일제의 수탈에 의해 궁핍으로 내몰린 농민의 문제를 다룬 작품군이 있는데,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金雲汀의 <그사람들>, 柳致眞의 <소>, 金祥銘의 <봄>이다. 이 작품들에서는 수탈에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고향을 버리고 간도로 이주하려고 하거나, 밀린 도지를 갚지 못해 소까지 빼앗기고 방화범으로 전락하는가 하면, 딸을 첩으로 넘기려는 상황도 벌어진다.

다음에는 지식인이 농민을 지도하고 농촌의 진흥을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위선적 지도자의 모습이다. 농촌의 이와 같은 모습을 다룬 작품으로는 黃白影의 <鄕土의 輓歌>, 李光來의 <村先生>, 金松의 <雛鷄>를 들 수 있다. 이 유형의 작품들에는 사명감을 갖고 귀향하는 긍정적인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지도자를 자처하는 인물 중에는 낭만적인 농촌생활을 그리면서 낙향했다가 농민들로부터 배척받아 농촌을 떠나는 인물도 있고,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지도자를 자처하는 위선적인 인물도 있다.

마지막으로, 농촌 현실의 절망적 상황과 그 이면에 내재된 농민의 변혁적 움직임을 통하여 진정한 해방을 이루려는 의지에 바탕을 두고, 현실비판과 투쟁을 형상화한 작품으로는 蔡萬植의 <農村스케취>, 玄民의 <朴첨지>, 朴曙民의 <봄의 序曲>이 있다. 이 작품들에서는 농촌과 농민의 궁핍을 문제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조직화된 농민운동의 필요성을 고취하고 있다. 프롤레타리아 문단의 농민문학논쟁이 일어나던 때에 발표된 이 작품들은 경향적 이념을 이끌어 내고 있다.

결국, 일제 강점기의 농민극 작품들이 이와 같은 작품구조와 인물의 대립관계를 지니게 된 것은 농민극 작가들이 자기 시대의 농촌을 일제의 수탈에 의해 궁핍의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장으로 파악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도자를 등장시키기도 하고, 자기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지도자로 가장한 인물이 농민들을 더욱 큰 곤경에 빠지게 만들기도 했다. 나아가 농민극 작가들은 당대의 농촌이 직면한 궁핍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밑으로부터 변혁의 기운이 솟아나야 한다고 여기면서, 각성한 농민이나 하층 여성이 적극적으로 항거하는 모습을 그렸다.

한국 현대 희곡 문학사에서 농촌이나 농민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물은 그렇게 흔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제 강점기에 창작된 희곡 중에서 농민극이라는 하위 갈래를 설정하고, 이 작품군의 성격을 밝히고자 한 본고의 작업은 완결된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본고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도 농민극의 또 다른 특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는 작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연구도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 논의의 장을 달리 하여 계속할 것이다.

ЎРТА АСР ШАРҚ МУТАФАККИРЛАРИ АСАРЛАРИНИНГ САНЪАТ ВА МАДАНИЯТГА ТАЪСИРИ

Турсунқулова Ш.Т., СамДУ мустақил изланувчиси.

Annotation. The article provides philosophical reflections on the views of medieval scholars on culture and art, on the impact of their spiritual heritage on the formation of aesthetic consciousness and culture of individuals and society.

Key words:art, culture, aesthetic consciousness, polysemy

Ўрта аср Шарқ мутафаккирлари томонидан яратилган эстетик таълимотлар шахс ва жамият эстетик онги ҳамда маданиятининг шаклланишида муҳим методологик манба вазифасини ўтайди. IX-XI асрларда Марказий Осиёда илм-фан, санъат ва маданиятнинг гуллаб яшнашида оламга ва инсон моҳиятини эстетик англашга бўлган интилишнинг аҳамияти катта бўлган. Масалан қадимдан бола тарбияси, етук шахс ва комил инсон тарбиясида, маънавий ва жисмоний камолотида мусиқа, тасвирий санъат, рақс, кураш санъатларининг аҳамияти тўғрисида бир қатор мутафаккирлар ўз фикрларини билдириб ўтишган. Буюк мутафаккир аллома **Абу Наср ал-Форобий** (873-950)нинг асарларида санъат бу тақлидийликдир дея, ана шу тақлидийлик идрок этувчида ҳиссиёт ва тасаввурни уйғотади деб таъкидланган. Санъаткор ўз хаёлот кучи, ижодий қудрати билан умумий ғояларни якка қиёфаларда инъикос эттиради. Шеъриятда хаёл ва тасаввур қанчалик муҳим бўлса, санъатда ёлғон мантиқ шунчалик муҳимдир деб билади. «Мусиқа ҳақидаги катта китоб» асарида мусиқани иккига: амалий ва назарияга ажратади. Мусиқа оҳанглари товуш ва инсон ҳатти-ҳаракатининг уйғунлигига боғлиқ бўлиб, тасвирий санъат ҳам мусиқа санъати ҳам инсонни тақлидийликка ўргатади. Яъни инсон ҳаётида доимо тақлидийликка буйсунади, яъни доимо яхшиликка интилиб яшайди, ўзида яхши ва гўзал фазилатларни шакллантириб, гўзал ҳатти-ҳаракатларни, гўзал қилмишларни ўрганади, доимий тарзда ўз-ўзини устида ишлаш лозимлигини таъкидлайди [3..Абу Наср Форобий 1993:112-113]. Мутафаккир «гўзал фазилатлар», «гўзал ишлар» каби ибораларга ўз асарларида жуда кўп эътибор қаратган. «Шеър санъати», «Шоирларнинг шеър ёзиш санъати қонунлари ҳақидарисола», «Мусиқа ҳақида катта китоб» асарларида санъатдаги гармония, мукаммаллик, хаос, ички ва ташқи таъсир, маромли ҳаракат, тақлид санъати тўғрисида маълумотлар келтирилган. Санъат турларидаги бир хиллик ва хилма хиллик тўғрисида қуйидагича фикрлайди; «...шеър санъатини безайдиган нарсалар – сўз, мулоҳазалар бўлса, рассомлар санъатини безайдиган нарса буёқлар саналади. Уларнинг иккови ўртасида фарқ бор, аммо иккаласи ҳам одамлар тасаввури ва сезгиларига бир мақсадга – тақлид қилишга йўналтирилган бўлади».

Жаҳон илм-фани ривожига ўз ҳиссасини қўшган қомусий олим **Ибн Сино** (980-1037) ҳам ўз асарларида мусиқа ва санъатнинг инсонни шахс сифатида тарбиялашдаги ўрни тўғрисида фикр юритар экан, мусиқадан олинадиган лаззат мусиқий гармониянинг маконда ёйилишидан, пардаларнинг навбатма навбат келишидан деб билади. Хунуклик ва гўзалликни тартиб ва хаосга ўхшатади. Тартиб ва хаос ўртасида доимий алоқадорлик бўлиб туради, инсон гўзал бўлсада, унинг ички олами чиройли бўлмаслигини, хунук бўлсада унинг ички оламини чиройли бўлиши мумкинлиги тўғрисидаги қарашларни илгари суради. Ўрта асрлар санъати ва маданияти ривожига ҳисса қўшган Ибн Синонинг "Фан аш-шеър" асарида шеърга синергетик таъриф беради: "Шеър деб образли сўзлардан иборат бўлган маромли, бир-бирига тенг, вазнлари қайтариладиган, охирги товушлари бир-бирига ўхшаш бўлган сатрларга айтилади"[5.Ибн Сино 1980:100].Мутафаккирнинг «Фан аш-шеър» («Шеър санъати») асарида шеър тақлидий фикр натижасида уч хил хил йўл билан юзага келади, яъни лаҳн-уйғунлик, калом-сўз (мажозий образли сўз), вазн. Шеърнинг структурасини ушбу учта тизим ташкил этиши айтилган. Шеър одамнинг феъл атворига, руҳиятига таъсир қилиш орқали тўлқинланиш, ҳиссиётга берилиш, таажжубга солиш, ёки бўлмаса, шеър орқали ўзлари кўзлаган ҳатти ҳаракатларидан тийилиш каби мулоҳазалар юритган. Алломанинг «Саломон ва Ибсол», «Юсуф қиссаси», «Қуш рисоласи» мажозий асарлари ва шеърияти одамлар учун комил инсон бўлиб вояга етишишда, яъни ғам, алам билан эмас, хурсандчилик, кулги билан яшаш кераклиги таъкидлаб

инсоннинг умрини мажозий маънода гул образига ўхшатади, инсон ҳам гул каби инсоният ҳаётига мазмун, гўзаллик ва хушбуй тароват бахш этади деб таъкидлайди. Ибн Сино шеъриятидаги уйғунлик натижасида шундай дурдоналар яратилдики, кейинчалик «Умар Хайём, Мирзо Бедил сингари Шарқнинг буюк рубоийнависларига намуна бўлиб хизмат қилди» [1.Абдулла Шер 2015:73].

Яна бир мутафаккир алломалардан бири **Умар Хайём** (1048-1123) бўлиб, унинг рубоийлари ва «Наврўзнома» асарида инсонда гўзаллик ва хунуклик, аҳлоқ ва аҳлоқсизлик каби эстетик мезонларнинг мавжуд бўлиши тўғрисида тўхталиб, май ичимлигини рамзий маънода мусиқа билан тенглаштиради, май, мусиқа гўзал ёр жамоли билан биргаликда инсонда фориғланиш (катарсис) ҳодисасини вужудга келтиради - ҳаётнинг хунук воқеаларидан жамиятдаги пасткашлик, майдакашлик, манфаатпарастлик сингари ҳолатларидан бир муддат фориғ бўлиш, улардан бир бош баланд туриш, баҳор ва ёр гўзаллигидан, гул ва кўнгил гўзаллигидан лаззатланиш имконини беради деб таъкидлайди. Шунингдек Умар Хайёмнинг рубоийларида «шахсни шахс қиладиган» восита сифатида рамзий маънодаги май-«мусиқа»дир.

«Майни тоғга берсанг тоғ ҳам рақс этар,
Ёмонлар ёмонлаб уни наҳс этар.
Майдан асти тавба қилмайман, зеро,
Май тарбия берар, шахсни шахс этар» [7.Умар Хайём:78].

Бу ҳақда нафосатшунос олим Абдулла Шер ҳам қуйидаги хулосаларини билдиради: «Умар Хайём майни инсоннинг асл ўзлигини намоён қилувчи восита, эстетик ҳиссиётни уйғотувчи модда сифатида олиб қарайди, унга алоҳида фалсафий мақом – машаклик (қимматбаҳо тошларни синайдиган тош) мақомини беради» [2.Абдулла Шер 2015: 78-79]. Умар Хайёмнинг рубоийларидаги барча шеърий образлар жуда мураккаб хусусиятга эга. Икки ва кўпмаъноли бадиий образларда ҳаётий фалсафа ва ундан хулоса чиқариш учун етарли мазмун моҳият мавжуд.

Тасаввуф фалсафасининг асосчиси, илоҳиётчи файласуф **Имом Ғаззолий** (1058-1111) – «Иҳё улум ад-дин» асарида шахсда эстетик нафис дид, эстетик ҳиссиётнинг шаклланиши, шахснинг гўзалликка муносабати, унинг комил инсонга айланишида дин ва санъатнинг ўзига хос ўрни каби муаммолар тўғрисида ўз қарашларини илгари суради. Шеър (қўшиқ)нинг инсонни жунбушга келтирадиган хусусиятларини фарқлайди:

1) юракни унга мос нарсагина ҳаракатга келтиради, шоирлар эса, байтларини ўз қалбларининг ҳолатидан келиб чиқиб яратадилар. Ҳар бир шеър муайян руҳий ҳолатнинг интиҳоси сифатида ўшандай руҳий ҳолатни дилдан кечираётган киши учун таъсирчанроқдир, яъни икки бир хил хусусиятга эга тафаккурларнинг учрашуви содир бўлади;

2) агар шеърий байт бошқа байт билан алмаштирилса, ҳатто мазмун бир хиллигига қарамай, у тингловчи юрагига янги из қолдирмай қўймайди. Чунки, мазмун бир хил бўлса-да, кейинги байт аввалгисидан қофия ва вазн билан фарқланади, тингловчининг қалбини ҳаракатга келтиради;

3) оддий нутқ билан шеърнинг қалбга таъсири солиштирилса, ҳижолари тартибга солинган шеърий нутқнинг кучли эканини сезиш мумкин;

4) шеърий нутқнинг қалбга таъсири қисқа бўғинларни чўзиб, узун буғинларни кесиб талаффуз этиш билан боғлиқ. Сўзлар рукнларга буйсундирилиб талаффуз этилади;

5) вазнга тушурилган шеърий нутққа бир меъёрдаги зарбли товушлар, чунончи, доира сингари мусиқа асбобларини жўр бўлиши мумкин. Ундай ҳолда шеърнинг таъсир кучи ошади;

6) бадиҳагўй тингловчининг ҳолатига мос келмайдиган байтни ўқиши, у байт тингловчига ёқмаслиги мумкин. Ҳар қандай нутқ ҳам кайфиятга мос келмаслиги мумкин;

7) мусиқий товушларнинг инсоннинг табиатига мос келиши. Уларга ҳақиқат эмас, лаззат манбаи сифатида қаралиши лозим. Худди шунингдек, шеър ҳам инсон табиатига мос келади, инсон ундан лаззатланади; ҳам ўзи шеър ярата олади, зеро, яратилган нарса (яъни, шеър) яратилганга (инсонга) ўхшаш бўлади [4.Газали 1980:117-122].Бундан ташқари, Ғаззолий эстетик туйғуларнинг инсонда мавжудлигини туғма, табиий эканлигини таъкидлайди, санъат воситалари, нафосат таъсири орқали улар фақатгина англаб етилади деган баҳсли-муаммоли қарашларини ҳам илгари суради.

Кейинги даврларда буюк ўзбек шоири **Алишер Навоий** (1441-1501) нинг «Хазойин ул - маоний», «Мажолис ун - нафоис», «Мезон ул - авзон» асарларида шахсда эстетик дид, эстетик фаросат, эстетик орзунинг шаклланишида санъат ҳамда бадиий асарнинг аҳамияти тўғрисида билдирилган фикр-мулоҳазалари шахс эстетик онги тараққиётида муҳим манба бўлиб хизмат қилади. Шоир санъат ва бадиий асар нафақат гўзалликни мадҳ этиши балки ўзи ҳам шаклан ва мазмунан гўзал бўлсагина чинакам санъат асари даражасига кўтарилиши мумкин, санъат инсоннинг маънавий камолоти учун хизмат қилиши лозимлигини таъкидлайди. Инсоннинг ички ва ташқи гўзаллигини шакллантиришда санъатнинг икки ва кўпмаъноли хусусиятга эга бўлиши лозимлигини кўп бора

айтиб ўтган ҳамда ўзининг яратган барча асарлари кўпмаъноли хусусият касб этиши билан ажралиб туради. Масалан, ушбу рубоийни ўқиган ва идрок этган инсон ўзи учун жуда кўп маъноларни чиқариб олади;

«Жондин сени кўп севармен, эй умри азиз,
Сондин сени кўп севармен эй умри азиз.
Ҳар неники севмак ондин ортиқ бўлмас,
Ондин сени кўп севармен, эй умри азиз».

Шунингдек, шоир ижодида санъат инсон учун хизмат қилиши керак деган ғояни илгари суради, унинг мураккаб вазифалари тўғрисида фикр юритар экан, ҳақиқий ижодкор ёки шоирнинг дарди халқ дардидан иборат ва инсон манфаатига қаратилган бўлади. Ҳар қандай меҳнат самараси сингари шоир ижодининг натижаси - бадиий асар ҳам халқ учун фойдали бўлиши керак. Ҳақиқий шоирнинг иши «маоний хазойинидин жавҳар термак ва эл файзи учун вазн силкига назм бермак». Бадиий асарнинг элга берадиган файзи унга лаззат билан бирга камолот бағишлашдан иборат. Инсон камолотга билиш ва хайрли амал билан эришгани учун "солим завқли" шоир табъидан яратилган асар маърифий, тарбиявий ва бадиий қийматга эга бўлади. Ўз навбатида санъат асарини идрок этувчи ҳам эстетик талабларга жавоб беролмайдиган асардан қониқмайди. Эстетик талабларга эса бадиий асарнинг маърифий, тарбиявий, бадиий жиҳатлари киради. Инсон ҳаёти давомида маърифатга, тарбияга қандай эҳтиёж сезса, бадиий эҳтиёжи ҳам маърифат ва тарбиядек муҳимдир. Демак, инсон доимо бадиийликка эҳтиёж сезади, бу жараён унинг ижтимоий-табиий эҳтиёжларидан бирига айланиб боради. Алишер Навоий ўз ижодида санъат ва бадиий асарнинг инсон ҳаётидаги ўрни ва роли тўғрисида жуда кўплаб фикр-мулоҳазаларни берган.

Шоир ўз асарларида жаҳл (нодонлик) билан илм, тўғрилик билан эгрилик, нафрасонлик билан зараркунандалик, адл билан зулм, ишқ билан завқсизлик, қаноат билан тама, сабр билан сабрсизлик, вафо билан вафосизлик, тақво билан фисқ, поклик билан фахш орасидаги хақиқат билан боғлиқ бўлган фарқларни баён қилади ва улар хар бирининг оқибатини, инсонни, жамиятни қаерга олиб боришини равшан қилиб кўрсатиб беради. Алломанинг «Хазойину-л-маоний» – асарида, рубоий, туюқ ёки лирик шеърни сўздан яратилган миниатюрадир»деб таъкидлайди[8.Рустамов А.1979:152].

«Ҳикматлар»ида мусиқани жон озуқаси, яъни руҳ у билангина тирик деб юқори баҳо берган;

Нафс уйлаки касб этди ғизо бирла сабот,
Руҳ айлади жонфизо ғино бирла сабот [6.Навоий Алишер 1968:51].

Алишер Навоийнинг асарлари структурасига кўра хилма хил сюжетлардан иборат, бир хил маъно ва мазмунга эга бўлган, такрорланиб келувчи сўз ва иборалар умуман ишлатилмаган, асарлари ранг-баранг, кўпмаъноли хусусият касб этади. Аллома томонидан яратилган бадиий асарлар инсонни шахс сифатида камол топишида, эстетик онги ва тафаккурининг шаклланишида, маданият, санъат ва адабиётнинг ривожланишида муҳим назарий-методология вазифасини бажаради.

Демак, юқорида берилган маълумотларга таяниб шуни айтиш мумкинки, **биринчидан,** ўрта аср Шарқ мутафаккир алломалари яратган маънавий мерос Марказий Осиё маданияти ва санъатининг ривожланишига кучли таъсир кўрсатган, ёш авлодни етук шахс этиб тарбиялашда санъатнинг аҳамияти ўрганилган, бадиий асарлар яратилган ва улар келажак авлод учун назарий асос бўлиб хизмат қилган, **иккинчидан,** шарқ мутафаккир алломаларининг асарлари нафақат Марказий Осиё маданияти ва санъатининг ривожланишига таъсир кўрсатган, балки, жахон маданияти ва цивилизациясининг тараққиётига ҳам ўз ҳиссасини қўшган.

Фойдаланилган адабиётлар:

1.Абдулла Шер. Эстетика. -Т.: Ўзбекистон.2015.-73-бет

2.Абдулла Шер. Эстетика. –Т.: Ўзбекистон. 2015. -78-79 бет.

3.Абу Наср Форобий. Фозил одамлар шаҳри. -Т.: А.Қодирий номидаги Халқ мероси нашриёти,1993. -112-113 бет.

4.Газали Абу Хамид. Воскрешение наук о вере. -М.: Наука.1980. стр.117-122.

5.Ибн Сино. Саломон ва Ибсол. Т.Ғ.Ғулом номидаги Адабиёт ва санъат нашриёти. 1980.100-бет.

6.Навоий Алишер. Ҳикматлар. Тўпловчи С.Муталлибов. -Т.; Ғафур Ғулом номидаги бадиий адабиёт нашриёти. 1968. -51-бет.

7.Умар Хайём. Рубоийлар. 78-бет.

8.Рустамов А. Навоийнинг бадиий маҳорати. Ғафур Ғулом номидаги адабиёт ва санъат нашриёти.-Т.: 1979. -152-бет.

THE SPATIAL MEANING OF LITERACY SPACE IN CHINESE OPEN-PORT

Lee, Seung-Woo·Kim, Jin-Ok (Daegu Haany Univ. Korea).

A literary space is an extended living space, a trace of historical experiences, and a dynamic space that actualizes past experiences. In particular, in modern novels, the literary space translates cultural memories of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into communal homogeneity and expresses

The study looked at the spatiality of Shijing(市井) that appears in the background novel at Tianjin. 市井(Shijing) written in Feng ji cai's works is an space of ordinary pople who have extraordinary ability through one's efforts and also public ethics. It is an ideal space for mixing traditional and modern, Chinese and Western cultures.

This is an attempt to create an alternative order in the confusion of the transition of the system in the early stage of reform and opening up, symbolizing the space of Heterotopia

Key Words : Tianjin, Shijing(市井), literary space, Feng ji cai, Heterotopia

‘시정’(市井)’의 공간적 함의
–천진을 배경으로 한 풍기재의 작품을 중심으로

1. 들어가는 말

문학공간은 확장된 삶의 공간이자, 역사적 경험을 기억하는 흔적이면서 과거의 체험을 현재화하는 동시대적 공간이다. 특히 근대소설에서 문학공간은 근현대사의 문화적 기억을 공동체적 동질성으로 전이시키고, 이를 응축된 정서로 표현한다.

논자는 1980년대 이후 중국 근대 개항장 가운데 하나인 天津을 배경으로 한 소설의 공간성에 주목해 그 의미를 탐색한 바 있다. 이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텍스트에 묘사된 天津이 체험적 기억에서 이행된 문화적 기억의 기호로 작용함으로써 단순한 환원이 아닌 중국 전통문화의 심층적인 분석을 가능케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 天津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 개항장은 중국과 서양이 공존하고, 낙후와 혼돈의 비극적인 공간으로 묘사되지만 동시에 ‘‘시정’(市井)’이라는 장인의 활동공간으로서 생존의 의지와 새로운 문화에 대한 희망이 존재한다는 묘사가 형성되면서 작품의 공간적 의미가 부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연구과정에서 작품에서 제시된 ‘시정’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텍스트에서 천진이 중국전통문화를 기호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면, 일종의 대안공간으로 제시된 ‘시정’의 성격을 구명하여야 작품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시정’의 공간적 성격

馮驥才가 문학작품의 소재로 ‘시정’을 처음으로 사용한 작가는 아니다. 민국초기 劉雲若, 戴愚庵 등이 일련의 ‘津門報人小說’, 그리고 1980~90년대 林希도 ‘시정’과 ‘시정’의 인물을 소재로 작품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제시한 ‘시정’은 지리적으로 천진의 ‘三不管’이라고 불렸던 ‘南市’ 일대로, 중국과 일본, 프랑스의 세력이 교차하였기에 공권력이 부재한 “매우 잡스러운 곳”이었다. 이곳에는 관상쟁이, 백수, 사기꾼, 건달, 기녀 등등의 사회적 지위가 낮고, 도덕이나 윤리와는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자리한 곳이다. 그러나 이들은 악한 사람들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괴팍하다는 편이 어울린다. 예컨대 사람의 혼이 빠지도록 속이는 관상쟁이, 공짜 밥과 술을 좋아하고 또 공짜의 냄새를 잘 맡는 백수, 바가지를 씌워도 바가지를 쓴 사람을 탄복하게 만드는 상인 등이다. 작가가 이들을 악하게 묘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들이 행각이 시대적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난 것이라는 복선이 깔고 있다.

馮驥才의 ‘시정’은 이전의 작품의 지리적 범위와 비교할 때 크게 확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의 ‘三不管’이라고 불렸던 ‘南市’ 일대 외에 천진의 옛 부두, 대운하와 海河가 만나던 ‘三岔口’, 심지어는 옛 성내와 서양 사람들이 거주하던 ‘小洋樓’ 지역까지 묘사하고 있어 당시 천진의 거의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흥미로운 사실은 지리적 영역의 확대가 ‘시정’의 공간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이다. 첫 번째 변화는 ‘시정’공간에서 문화혼종성이 강하게 부각된다는 것이다. 대운하와 海河가 만나는 ‘三岔口’는 중국 내의 여러 지역과 층위의 문화가 혼종되어 나타나고, 서양인들이 거주하던 ‘小洋樓’의 포함은 중서문화의 혼종을 의미한다. 물론 두 가지의 문화혼종은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三岔口’에 나타난 중국 내 지역문화의 혼종은 서로 공존하기 위한 질서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天津의 지역문화로 정착된다. 반면 중서문화는 엄격하게 서열화되거나 심지어는 단절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일상의 삶에서 중서문화의 교류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때문에 여러 가지 촌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나아가 馮驥才는 ‘三不管’을 중서문화의 어설픈 교류로 인해 생겨나는 혼돈의 공간으로 묘사하고 있다. 즉 중서문화교류는 피할 수 없지만 중심이 없는 중서문화의 교류는 비극과 혼돈을 야기할 뿐이라는 작가의 생각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정’의 지리적 영역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또 하나의 변화는‘시정’을 배경으로 활동하는 등장인물의

변화이다. 이전 작품에서 주인공은 '시정'잡배에 가까웠지만 馮驥才의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평소 쉽게 접할 수 있는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로 바뀌었다. 이들은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비범한 능력을 가진 장인들이다. 예컨대, ≪三寸金蓮≫中, 탁자를 가득 메운 소위 명사들은 '天津衛'의 '津門三絕'로 악인, 부자 그리고 기인을 들고 있다. 馮驥才의 작품은 '津門三絕'을 모두 다루고 있지만 특히 기인들의 기이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고, 그의 단편집 ≪俗世奇人≫은 書名은 물론이고 책에 수록된 단편의 제목을 아예 기인의 이름으로 붙이기도 했다.

끝으로 이전 작품에서 '시정'이 시대적 환경이 투영된 비극의 공간이었다면 馮驥才의 '시정'은 희망의 공간으로 묘사되고 있다. '시정'이 희망의 공간으로 변모하는 데에는 기인들이 적지 않게 기여한다. 馮驥才에 작품에 등장하는 기인은 외모나 성격은 기이하거나 괴팍하지만 능력이 비범하여 장인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들이다. 예컨대 접골사인 '蘇七塊'가 접골할 때 "두 손은 두 필의 백마가 아래위로 날아다니고, 번개가 치는 것처럼 빨라서 '우지직, 우지직' 소리가 나면 병자가 아픈 것을 느낄 틈도 없이 부러진 뼈가 이어진다." 낚시꾼인 '大回'는 낚시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물속의 고기 종류가 아무리 많더라도 "원하는 종류를 낚을 수 있고, 수컷을 잡은 뒤 암컷을 잡을 수 있어서 암수 한 쌍씩 낚아 올렸다. 그가 낚은 물고기 중 큰 것은 자신보다 더 무거웠고, 작은 것은 낚시 바늘보다도 작았다. 사람들이 낚시는 운이라고 하지만 그는 능력에 의지했다."

기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오로지 노력을 통해 얻은 비범한 능력에 의지하여 정직하게 생계를 이어간다는 것이다. 때문에 주변의 말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원칙과 주관을 지켜나갈 수 있다. 또한 이들은 ≪神鞭≫의 주인공 '傻二'처럼 불의를 바로잡기 위해 분연히 일어나는 공공의 윤리적 가치 관념을 가지고 있다. 즉 기인들은 부자나 권력자는 아니지만 주관이 뚜렷하여 남의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정직하며, 공공적 윤리를 가진 사람들인 것이다. 이는 문화대혁명 당시 인간성이 가지는 나약함과 비열함에 사로잡혀 마녀사냥에 열중하던 중국인과는 뚜렷한 대비를 이룬다.

馮驥才는 평범해 보이지만 비범한 능력을 가진 기인들이 활동하는 '시정'을 제시하여 중국의 전통에 대한 재평가를 시도한다. 馮驥才에게 중국의 전통은 ≪三寸金蓮≫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인간을 속박하고, 종래에는 파멸로 이끌기 때문에 극복해야만 하는 대상이다. 그러나 동시에 ≪神鞭≫에서 주인공 '傻二'이 '辮子功'을 사용하여 天津의 호걸뿐만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자까지도 굴복시켰을 만큼 긍정적인 면도 지니고 있다. 즉, 馮驥才에게 있어서 전통은 일방적인 부정의 대상이 아닌 극복과 재창조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시정'은 균형 잡힌 중서교류를 통한 건강한 사회의 모델을 제시하는 상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3. 헤테로토피아로서의 '시정'

馮驥才의 '시정'은 전통의 악습과 어설픈 중서교류를 극복할 수 있는, 바꿔 말하면 시대적 체제와 관습이 만들어 놓은 문화와 민족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공간이다. 때문에 서로 다른 신분과 상이한 문화와 민족정체성이 균형있게 수용될 수 있는 혼종의 공간, 이것이 바로 馮驥才가 궁극적으로 제시하는 모습이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정치적, 사회적 격변으로 인해 야기되는 가치관의 급변에 대응해야하는 공동체는 상상력을 발휘해 그들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공간을 창출하게 된다. 이 때 생성되는 공간은 현재의 무질서하고 오류투성이의 공간과는 다른 '새로운' 대안적 공간이다. 즉 이상에 근거한 유토피아가 아니라, 지속적인 변화의 변증법을 통해 현재의 상황을 바꾸고자 하는 필요성에 의해 생겨난다. 바로 이러한 '대체 질서의 형성'이라는 면에서 '시정'의 모습은 헤테로토피아의 공간을 형상화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MY PHILOSOPHY OF WRITING SIJO

Cheon, Kang-Rae (Korea)

I enjoy reading sijo because I can appreciate rhythm. The verse form and rhythm of sijo are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literary genres. It is encouraging that sijo, which is a traditional verse pattern embracing breathing and sentiments of Korean people, has been widely created and has been getting attention these days.

This Korean lyric verse is structured around chunks of syllables. Sijo is traditionally composed of three lines (jang), six hemistiches (gu), twelve syllable-groups (eum-bo), and a total of about 45 syllables (ja). Now this traditional verse form needs to portray reasonable diversity in modern society.

I would like to write savory sijos; refreshing and thoughtful sijos, humanistic and substantial sijos. I would like to leave sijos conveying refreshing and warm sentiments. I have been grappling to express genuine sentiments based on my experience within the sijo's traditional forms and attributes.

I have been striving to closely observe objects and other people and to find meaning in articulating the present state of life in condensed language. The base of sentiments that ignite my feelings always culminates in 'sea,' 'mountain,' 'grass,' and 'tree.' I have keen interest in the will of life and want to express it

sensuously and realistically through various and omnipresent objects in our surroundings.

We are living in the era of diversity when various conflicts between affirmation and negation, the rich and the poor, labor and capital, left and right, generations, regions, and nations coexist. I have been striving to write sijos implying the realities of life while embodying specific and in-depth thoughts on life through inferential interrelation. In addition to this, I would like to embody traditional sentiments through traces of objects and behaviors of other people without falling under narcissism. I hope that warm sentiments and solid thoughts lie in the practical context.

나의 時調 創作論

시가 좋아 시를 읽을 때 리듬을 지닌 시조가 재미있다.

시조는 그 어느 문학 장르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독특한 리듬을 지닌 정형시다.

시조는 우리의 숨결, 우리의 서정이 담겨 있는 시조가 오늘 날 재조명이 되고 시조 창작이 널리 확산 되고 있음은 다행이다.

음수율을 기반으로 구조화 된 정형의 틀, 즉 3장 6구 12음보 45자 내외인 전통 철학의 시조미학은 오늘 우리 시대의 합리적인 다양성을 정형 양식의 틀에 담아내고 풀어내야한다.

필자는 시조 창작에 있어 맛이 있는 시조를 쓰고 싶다. 산뜻하면서도 깊이가 있고, 따뜻하면서도 견고한 그런 시, 풋풋하고 서정이 느껴지는 작품을 남기고 싶다. 시조가 가지는 고유한 표현형식과 전통적 서정 양식의 속성을 필자의 체험을 통한 진솔한 정서를 담아내려고 한다.

정형의 울타리 안에서 사물의 대상과 타자를 면밀하게 관찰하여 절제된 언어로 삶의 현재형을 구현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노력 한다.

> "일상의 열린 마당 서슬 푸른 파도덩이 / 길 없는 난바다에 포말을 벗 삼는데 / 저 멀리 선창가 불빛 문득 하루 쉬고 싶다, // 별빛 삭힌 하늬바람 여명에 우는 바다/ 빈 가슴 일렁이는 고향 길 황금빛 들녘/ 빨갛게 잠재된 열정 타오르다 사른다.// 한 세상 너울 속의 숨은 여* 볼 수 있나/ 만선의 그늘 아래 겉도는 나의 여정/ 귓가에 은빛 메아리 꽃노을을 빗질한다.

「은빛 메아리」 전문

이 작품은 원양어선의 일상을 그려낸 시편이다. "일상의 열린 마당"은 사방이 확 트인 바다이지만 사실은 어선이라는 작은 닫힌 공간의 역설이다. 매일 반복되는 고된 일과 속에서 저 멀리 보이는 육지의 불빛에 문득 쉬고 싶고 "고향 길 황금빛 들녘", "빨갛게 잠재된 열정 타오르다 사른다." 여기 수없이 들고나는 생각도 힘겨운 만선의 그늘 아래 사라지고 환청 같은 메아리는 거친 노동의 "기나긴 하루 바로크가 울리"는 밤으로 이어진다.

절제된 경험과 언어는 언제나 정형 안에서 필자의 내면에서 발화하는 서정의 정점은 '바다'와 '산'을 '풀'과 '나무', '빛'을 배경으로 한다.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생명의 의지를 주변에 다양하게 편재하고 있는 사물을 감각적 사실적 묘사를 잘 형상화 하고자 한다.

우리가 사는 현대는 긍정과 부정, 노와 사, 부와 빈, 지역 간, 국가 간, 세대 간, 우와 좌의 양상들이 매우 다양하게 갈등하는 시대이다.

필자는 삶에 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사유를 깊이 있게 유추적 연관성을 가지고 형상화하면서 삶의 실제를 시사하는 작품 쓰기에 실천하려고 노력한다.

나아가 시를 쓰면서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않고 과정을 사물과 타자의 행태나 흔적을 통해 고전적 서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따뜻하고 견고한 사유를 실천적 맥락 안에 놓여 있기를 소원한다.

시조미학은 시조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정형형식의 태두리 안에서 동일성을 기본으로 정서의 통합적 삶의 과정을 파악하여 진솔하게 형상화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전통적 서정 양식의 속성인 대상과 동일성을 추구함으로 안정된 시의 형식 속에 자신의 삶의 체험에서 우러나는 시상을 솔직하게 담아내야 한다. 즉 시인은 본인의 자아와 모든 사물과 자연 사이의 문제들에 대해 긴장하면서도 삶의 궁극적인 완성을 구현해 나가야 한다.

시조의 고유한 형식의 '정형'은 자유로운 시상詩想을 차단하는 장애물이 될 수 없으며일정한 태두리 안에서 절제된 언어는 시적미학의 근간이라 할 수 있다.

시나 시조는 보이지 않는 감동적인 마음의 상태를 언어를 통해 아름답게 보여주는 일이다.

윤금초 시인은 '한 편의 시조 창작의 기본은 체험+상상력+율격(律格 = 규칙·법칙)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 시조 창작에 있어 개인적 체험은 시조 제재題材가 된다. 개인적인 체험을 재구성할 때는 객관성과 보편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다.

> 지는 잎 밟는 소리 허기 또 느끼다가
> 군불 땐 아랫목에 군고구마 내민 손길
> 호롱불 가물거린 밤 옛이야기 배부르다.

천강래 「군고구마(-추억3)」

〈군고구마〉는 흔히 체험하는 일상의 생활 시조다. 늦가을 시골집에서의 생활을 쉽게 떠올리는 살아 숨쉬고 있는 작품이다.

안개 낀 새벽 강은 태아의 꿈틀거림
밤을 깨워 재잘거린
징검다리 물 먹는 소리
노을에 자장가 부르시던 어머니의 순음이다.

산 빛 빚어 조잘대는 덧없는 푸념인가
귀뿌리 간질이는 늦둥이 옹알이인가
그 먼 길 휘감고 돌아와 조갈증을 사른다.

세상 속 너덜 넘어 하늘색 품어 안고
맨살로 뛰고 달린
징검다리 물 뱉는 소리
한 평생 쟁명하게 살라는 아버지의 유훈이다.
천강래 「징검다리 물먹고 물뱉는 소리」 전문

위 시조는 과거의 경험에서 얻어진 이미지心象을 구체화하고 재구성한 작품이다.
한 편의 시조의 소재나 '내용은 체험과 상상력의 결합으로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세계가 언어로 표출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편의 시조 작품은 사실성과 상상력의 조화로 구성되는 요체要諦 라 할 것이다.
'시조는 보이지 않은 마음을 보여주는 일이며, 그것도 훌륭하게 보여 주는 일이다'
나의 지금까지의 많은 작품은 자연과 사물을 접하면서 상황구성이 될 때 서정의 원리가 주체의 내면 토로보다는 묘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고 있다. 경험의 직접성과 가계家系를 사실적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 다수인 편이다. 그것은 나의 편협한 성정性情에 비롯한 것이리라.

밭고랑 타고 앉은 땡볕의 긴긴 고요
어머니 뒤태를 닮아 생색 한번 내지 않은
눈물 반, 웃음 반의 삶
은쟁반의 낮빛이다.
생땅 한 켜 일으키는 뭉툭한 저 호미 끝
아버지 발톱 같은 진흙 버덩 휘어진 세월
그 적막 갈앉는 무게
내 빈손에 포갠다.
천강래 「닳은 호미」 전문

이 작품의 닳은 호미는 "밭고랑 타고 앉은 긴긴 고요"가 오랜 침묵으로 "눈물 반, 웃음 반의 삶"은 가정의 전통을 지켜온 우리들 어머니의 모습이다. 여기서 "은쟁반의 낮빛"은 땡볕의 상관성을 상기시킨다. 또 "뭉툭한 저 호미"는 "아버지 발톱 같은 진흙 버덩 휘어진 세월"을 환기하고 아버지의 가파른 노동과 호미와의 상관성은 한없는 적막이 "갈앉는 무게"로 다가온다.
우리의 시조는 잘 알고 있듯이 글시(詩)가 아니라 때시(時)로 시대성을 반영하는 예술적 표상을 구현해 내야 한다.

#3
소득 주도 알량한 바람 턱밑까지 휘몰아친다.
보이지 않는 손아귀에 덜미 잡힌 골곬샅샅
허풍 센 일자리 창출에 어라, 억장 다 무너진다.
-윤금초 「비대떡 에피그램」(《정형시학》 2019년 봄호) 부분

돌/ 자갈/ 띠밭 뙈기/ 버려둔 자드락 땅 // 꽃바람/ 솔솔 불어/ 민들레 갓털 나무낀다 // 세상사/ 비껴 앉으면/ 숨은 별을 볼 수 있다.
천강래 「꽃바람 이는 한낮4(-풀내 꽃내)」 전문

시인은 직간접의 경험에 의한 현실에 대해 예리한 기지와 풍자로 창작성을 다양하게 예술적으로 응축하여 표현하게 된다.
필자는 미래 지향의 구체적인 삶의 동일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우리 시조의 정체성을 살려 고전적 서정을 구현하도록 정진할 것이다.

SHERIYAT - KO’NGIL KO’ZGUSI

Xujamqulova N.T., Jizzax viloyat Sharof Rashidov tuman XTB ga qarashli 15-umumiy o’rta ta’lim maktab boshlang’ich sinf O’TIBDO’

Annatation: The idea of the Cholpon lyric and the lyric poetry in it. Developing meaningful analysis of the capacities in the capacities in the heart of readers.

Insonning qalbi va ongini zabt etish bugungi kunda eng dolzarb mavzulardan biri xattoki o’sha insonning qalbida kechayotgan jarayonlarni ifoda etish adabiyotning ham asosiy maqsad vazifasiga aylangan. Jumladan o’zbek she’riyati. She’riyat albatta, inson qalbidagi eng nozik torlarni chertib o’tuvchi oniy lahzalarni insonga taqdim etuvchi jarayon hisoblanadi. Jumladan, Cho’lpon she’riyatida ham ba’zan she’riyat qalb to’polonlarini, ba’zan kuchli his tuyg’ularini, ba’zan esa mutloq vatanparvarlik ruhiyatini beradi. Lekin har qanday vaziyat bu inson qalbida kechayotgan jarayonni ifoda etadi. Lirikaning asosiy vazifasi faqat uning shakli yoki bo’lmasa kuyga solinishi kerak bo’lgan qofiyasida emas, asosiysi uning obrazliligida. Obraz nima? Obraz nutq bilan bog’liq vosita tushunchadir.Obraz narsa, hodisa va insonning muayyan vaziyatdagi holati va o’ziga xos xususiyatini yaqqol tasavvur etishga, ijodkor fikrlari va his-tuyg’ularini obrazli ifodalashga imkon beradigan shoirona ibora. Obrazli ifoda ma’noni konkret tushuntirish, voqea manzaralarni jonlantirish hamda fikrni badiiy tasvir vositalari orqali anglatish yo’li bilan yaratilib, kitobxonga konkret tasavvur hosil qiladi, uning fikri xayoliga estetik ta’sir ko’rsatadi. O’sha insonning qalbiga yetib boruvchi yo’l yoki uni ochib beruvchi asosiy vosita. Bu jarayonlarni tahlil qilish paytida o’quvchilar o’zlari uchun kerakli bo’lgan ma’naviy ijtimoiy- siyosiy, iqtisodiy, tarbiyaviy ozuqani oladi. Bu bugungi kundagi kitobxonlikka berilayotgan urg’uning asosiy maqsadlaridan biri hisoblanadi. O’quvchi yoshlar o’rtasida ko’p kitob o’qish va uni tahlil qila olish ham asosiy maqsadlarimizdan biri hisoblanadi.

O’quvchi dastlab adabiyotni she’riyat bilan anglaydi. Jumladan ona allasi,o’sha she’rdan iborat, qofiyadan iborat unda insonning ichki his tuyg’ulari aks etadi, xuddi shu kabi Cho’lpon she’riyatining o’zidagi to’polonlar va his tuyg’ularni ko’rish mumkin. Cho’lpon, xuddi qafasdagi qush singari, faqat erksevarlik g’oyalarini tarannum etibgina qolmay, go’zallikni olqishlovchi, sevgi va vafoni ulug’lovchi ajoyib she’rlar ham yaratdi. Ana shu sisiladagi she’rlari orasida “Go’zal” she’ri alohida diqqat e’tiborga molik. Go’zal she’rining o’zida naqadar chiroyli ifoda, uslub, his tuyg’ular kechinmalar borligi. Unda tasvir etilishicha , lirik qahramonning muhabbatini qozongan go’zal , shu qadar go’zalki, hatto yulduz ham, oy ham, kun ham, tong shamoli ham uning go’zalligiga tan berishadi.

Lirik qahramon “qorong’u kechada ko’kka ko’z tikib”, “eng yorug’ yulduz” dan uni so’raganida, uyalib uni tunda ko’rishini aytadi. Ma’lum bo’lishicha , oy ham “oqqa ko’milgan”, ya’ni o’zi , libosi ham xuddi parilarnikidek oppoq bo’lgan bu go’zalni tushuda ko’rib, uning oydan ham, kundan ham go’zalligidan lol bo’lgan. Go’zalni ko’rib “yo’lidan ozgan” tong shamoli esa uni tog’ va toshlar ichida istab yurishini ma’lum qiladi. Uni tushudamas, o’ngida ko’rgan kun ham oshug’-u beqarorligini takidlaydi.

Cho’lpon lirik qahramon qalbini zabt etgan qizning mislsiz darajada go’zalligini shu qahramon tasavvurida va qarashlari orqali emas , balki yulduz, oy, kun va tong shamolining majoziy obrazlari yordamida tasvirlaydi. Va shundan keyin lirik qahramonning bu go’zalga bo’lgan bunday yangicha munosabatini aks ettirgan:

Men yo’qsil na bo’lib uni suyibmen,
Uning-chun yonibmen, yonib- kuyibmen,
Boshimni zo’r ishga berib qo’yibmen,
Men suyib…. Men suyib, kimni suyibmen ?....

Lirik qahramon bu go’zaldan voz kecha olmaydi . Aksincha, uni yanada kuchli sevadi va shunday gozal bir parini sevgani bilan iftixor qiladi.

Men suygan suyukli shunchalar gozal,
Oydan-da go’zaldir, kundan-da go’zal.

Bu she’r, yuzaki qaraganda, faqat shu parivash qizni ulug’lashga qaratilgandek. Lekin masalaga teranroq yondashsak, shu qadar ko’kka ko’tarilgan gozalgina emas, balki lirik qahramon qalbidagi ulug’ insoniy hissiyot – shu qizga bo’lgan muhabbat sharaflanmoqda. Shu buyuk tuyg’uning oydan ham, kundan ham go’zalligi ifodalanmoqda. Lirik qahramonning ruhiy kamoloti va ma’naviy boyligi inkishof etilmoqda.

Bu she’rdagi muhabbat tuyg’usi biror moddiy hodisa - na bo’sadan, na visoldan oziq oladi. Lirik qahramonga shu go’zal borligining o’zi ham kifoya. Uning muhabbati beg’araz.

Shuning uchun ham ulug’dir. Shoir she’rlarini ko’zdan kechirar ekanmiz shoir yashagan davr shiddatli bo’lgani, ijodkordan ham shu shiddatni talab etgani uchun u ko’pincha o’z she’rlariga sayqal berish

imkoniga ega bo’lmagan. Lekin shunga qaramay, u qalbi va ruhidagi uyg’unlik tufayli ko’pincha quyma va yoniq satrlardan iborat, tuyg’uning olovlangan holatini aks ettirgan she’rlar yozgan. Uning eng yaxshi she’rlari shoirga xos bo’lgan yuksak mahoratninggina emas, balki eng avvalo ko’taringki kayfiyatning, ilhombaxsh holatning ham samarasidir.

Cho’lpon lirikasining asosiy mavzui mavjud ijtimiy tuzumga nisbatan isyondir.

Misol uchun “Xalq” she’rini olaylik. “Xalq” she’ri orqali u xalqning qanchalik qudratli jarayon ekanligi, siyosatni xalqsiz mavjud emasligini ko’rsatib bergan. Bu balki katta tomli asar emasdir lekin baribir o’sha lirika o’quvchiga qisqa muddat ichida insonning qalbida kechayotgan jarayonlarni ifoda etish uchun asosiy omil vosita hisoblanadi. U o’zining eng ko’p detallari sodda va samimiy obrazlari bilan tarbiyaviy axamiyatni yanada ochib berishga xizmat qiladi. She’rda xalqning o’lka qismatida o’zgarish yasashiga umid bildirib, “Butun kuchni xalq ichidan olaylik, Quchoq ochib xalq ichiga boraylik!” deb yozadi ijodkor. Lekin ijtimoiy tuzum Cho’lponning xalq ichiga kirib, uning haqiqatni aytishiga imkon bermadi, xalq ham quchoq ochmadi, chunki “oq podsho” va bol’sheviklar zulmi ostidagi omma hali ongli, kurashchan, o’z haq-haquqini tanuvchi xalq darajasiga ko’tarilmagan edi.

Miltiragan xira chiroqsen, yo’qsil,
El qattiqroq kelib ursa o’charsen…

Bu satrlar Cho’lponning kuni kecha nekbinlik bilan kuylagani xalq haqidadir.

Xalqqa bo’lgan umidi chil-chil singan shoir endi dilida insonlik gu’ruri qolgan kishilarga suyanmoqchi bo’lib, inson ruhining erkin nafas olishi lozimligini,inson erkin hayot uchun tug’ulganini, hatto qafasdagi erkinlik sari talpinib yashashini eslatib qo’ymoqchi bo’lib “Ko’ngil” she’rini yozgan. Bu she’rida ijodkor bir- biriga also o’xshamaydigan va uyg’unlashmaydigan ikki hodisani - ko’ngil bilan kishanning “do’stlashganini” ko’rib hayratga tushgani ifodalangan. U hayratlanib nahotki, kishanlangan ko’ngil na dod - faryod ko’tarmasa, na bu haqoratdan ezilmasa, deb iztirob chekadi. Ijodkor inson tirik ekan, zulmga bo’yin egmasligiga, shu zulmga bo’yin egmasligi, shu zulmning moddiy timsoli- kishanni kiymasligi lozimligini she’rida ifodalaydi. Cho’lponning ana shu ishonchi butun she’rida nur sochib turadi.

Tiriksen, o’lmagansen,
Sen-da odam, sen- da insonsen.
Kishan kiyma, Bo’yin egma,
Ki sen ham hur tug’ulg’onsen!

Cho’lponning g’oyaviy va ijtimoiy qarashlari g’oyat lo’nda va aniq ifodalangan she’ridir. Ijodkorning bu she’ri qanchlik jo’n, qanchalik sodda so’zlar bilan ifodalangan bo’lmasin, ularda shoir qalbidagi og’riqlar , ruhiy azoblarni his qiladi kishi.

Cho’lponning har qaysi she’rlarini o’qigan o’quvchi o’sha davrni his qilmay iloji yo’q. Chunki har bir misrasida ozodlik, hurlik, insonparvarlik, vatanga bo’lgan muhabbat, samimiylik nafasi ufurib turganligini ko’ramiz. Cho’lpon lirikasini beqiyos, so’nmas, porloq yulduzga mengzaydi kishi. Cho’lpon she’riyatining hususiyati bilangina emas, uning dunyoqarashlaridagi muayyan o’zgarishlar, ijtimoiy- siyosiy muhitga munosabatlari hamda voqelikni aks ettirishlari jihatidan ham ma’lum darajada farqlanadilar.

Bugungi kunda o’quvchi yoshlarga Cho’lpon lirikasining g’oyaviy mazmuni va undagi lirik obrazlilikni yoritish. O’quvchi yoshlar qalbida sheriyatni mazmunli tahlilini o’rgatish alohida ahamiyat kasb etadi.

Lirika o’zi nima? Lirika adabiyotni ushlab turgan tamal toshlaridan biri desak mubolag’a bo’lmas. Lirikada mavjud ob’yektiv voqelikdan ko‘ra ijodkor shaxsining his-tuyg‘ulari, qalb kechinmalari, lirik qahramonning ichki dunyosi birinchi o‘rinda turadi. Barcha ifoda shoirning "men"i orqali o‘tadi. Lirikada, eposdan farqli o‘laroq, muayyan epik syujet bo‘lmaydi. Dramatik turdan ajralib turadigan jihati esa, lirikada sub’yektivlik kuchli. Ayni paytda lirika emotsionalligi, o‘quvchi qalbini hayajonga solishi bilan farqlanadi. Lirik asarda sub’yekt va ob’yekt bir shaxsda mujassam topadi, undagi markaziy "personaj" ijodkorning o‘zi, yanada aniqrog‘i, uning ichki ma’naviy-ruhiy olami sanaladi. Lirika ijtimoiy, madaniy, maishiy, ishqiy mavzularni qamrab olishi va juda katta ijtimoiy, estetik mohiyat kasb etishi ham mumkin. Biroq bunda ham, baribir, lirik asar o‘zagida individual shaxs kechinmalari, his-tuyg‘ulari yetakchilik qiladi. O‘quvchini o‘zligiga, o‘z ma’naviy-ruhiy dunyosiga nazar solishga undaydi. Voqelikning sub’ekt qalb prizmasi orqali aks etishi lirika qiyofasini belgilovchi muhim hususiyatdir. Lirikada voqelik qarama –qarshi tendensiyalar kurashi orqali aks etadi. Bu qarama- qarshilik tuyg’ular ziddiyati , kurashida nomoyon bo’ladi. Lirikada asosan eskilik va yangilik, yaxshilik va yomonlik, go’zallik va xuniklik, olijanoblik va pastkashlikdan iboratdir.

Cho’lpon o’z sheriyatida faqat yorga bo’lgan muhabbatini emas, jabrdiyda xalqini va Vataniga bo’lgan sadoqatini ham kuylashga alohida e’tibor berdi. Ijodkor o’z el- yurtining nurli kelajakka erishishini orzu qildi hamda o’z ijodi bilan ana shu kelajakni bir bahyaga bo’lsa ham yaqinlashtirmoqchi bo’ldi.

Cho'lpon o'z she'rlari bilan XX asr o'zbek sheriyatining taraqqiyotiga katta turtki bergan.

НОВЕЛЛАДА ИЖТИМОИЙ ҲАЁТ АКСИ
(Қорақалпоқ адабиёти мисолида)

Камалова Д.Э. таянч докторант
ЎзР ФА Қорақалпоғистон бўлими Қорақалпоқ гуманитар фанлар илмий-тадқиқот институти.

Abstract: In the article a special attention is given to the genre of novel and its peculiarities. There are experts' viewpoints about the genre. In addition, novels of local and world writers are analyzed. What is more, various works in Karakalpak literature belonging to the novel genre have been diversely investigated. Furthermore, problems concerning artistic skills in works of modern karakalpak novel writers are discussed and analyzed.

Key words: novel; genre; literature; writer; work; exponent; narration; event; human; incident; investigation; feature; term; writing; view.

Маълумки, новелла жанри адабиётшунослик илмидаги энг кичик жанрлардан ҳисобланади. Бу жанрдаги асарларда ижтимоий ҳаётдаги воқеа ва ҳодисалар ҳикояга қараганда қизиқарли ва қисқа баён этилади. Унда қаҳрмонлар ўртасида кескин конфликт, психологик кечинмалар, драматизм билан воқеаларнинг якунланиши ва кутилмаган ечим берилиши бу жанрнинг ўзига хос хусусиятларидандир. Адабиётшунос В.П.Скобелев: «Новеллада ёзувчи қаҳрамонлар ҳаётидан ғаройиб воқеани кўрсатмоқчи бўлади, ҳикояда бу айнан одатий ҳолга, яъни ҳар куни ҳаётда бўладиган нарсага эътибор қаратилади» - деб новелла ва ҳикоя ўртасидаги жанрий ўзига хосликларни белгилаб беради [Скобелев 1982: 51]. «Жанр сифатида новелла қуйидаги белгиларга эга бўлиши: а) конкрет шахс хаётига оид воқеаларни ихчам, бадиий жиҳатдан мукаммал шаклда акс эттириши; б) асардаги персонажлар миқдори ўта шегараланган бўлиши ва щунда ҳам эпик баённинг бир персонаж билан боғлик бўлиши; в) новелладаги сюжетнинг кутилмаган бошлама ва ечимларга, кескин драматик тарангликка эга бўлиши; г) кичик ҳажмда катта даврга хос асосий хусусиятларни сиғдира олиши ва шунга мос ҳолда лўнда баён этиши; д) кўпинча асарни бир муҳим деталь асосига қуриши лозим» [Ҳотамов Н. ва б. 1979: 204]. Мазкур жанр буйича тадқиқот ишларини олиб борган хорижий олимлардан Е.М.Мелетинский, И.А.Виноградов, Г.Н.Поспелов, Н.Я.Берковский, М.Н.Бент ва маҳаллий тадқиқотчилардан А.Тошпўлатов ва бошқалар новелланинг жанрий хусусиятлари, услубий жиҳатларини ва бошқа кичик жанрлардан фарқини таъкидлаб ўтади. Эътиборли томони шундаки, новелла жанрида ижтимоий ҳаётда юз берган реал воқеа ва ҳодисаларнинг кескин ўзгариши, ғаройиби танлаб олинади ҳамда қисқа ёритилиб берилади. Жанр ушбу жиҳатлари билан адабиётдаги бошқа жанрлардан алоҳида ажралиб туради.

Қорақалпоқ адабиётида новелла жанрининг пайдо бўлиши ўтган XX асрнинг 70-йилларига тўғри келадиган бўлса, бугунги кунга келиб эса қорақалпоқ новеллалари ғоявий-тематик, жанрий ва услубий жиҳатдан ҳар томонлама шаклланди ва ривожланди. Албатта, адабиётда пайдо бўлган ҳар бир янги жанрдаги асарларнинг ривожланиши иқтидорли ёзувчиларнинг ижоди ва изланишлари билан тиғиз боғлиқ амалга ошириладиган адабий жараён ҳисобланади. Бунга яққол мисол сифатида қорақалпоқ адабиётида новелла жанри бўйича илк маротаба қалам тебрата бошлаган ва мазкур жанрда узлуксиз ижод қилиб келаётган Алписбой Султанов, Марат Таумуратов, Кенес Смамутов, Ўмирбой Утеўлиевларни алоҳида келтириб ўтиш жоиз. Шунинг билан бирга, Минойхан Жуманазарова, Бозорбой Есмурзаев, Ҳурлиман Утемуратова, Гүлайим Турсинова, Гулнора Ибрагимова каби ёзувчиларнинг ижодида новелла ёзишга бўлган кучли иштиёқ кўзга ташланади. Ушбу ижодкорлар томонидан яратилган новеллаларни таҳлил қилар эканмиз, уларни ўз тажриба ва маҳорати ҳамда услубидан келиб чиққан ҳолда жанрнинг ўзига хос хусусиятларини очиб берганлигини кўриш мумкин. Масалан, А.Султановнинг «Новеллалар» (2008) номли китобига киритилган бир қанча асарларида ижтимоий ҳаёт акси қаҳрамонларнинг ички кечинмалари ва тақдирига боғланган ҳолда ёритилган. Муаллифнинг «Оқибат» («Ақыбет»), «Жазо» («Жаза»), «Қўрқитиш» («Қорқытыў»), «Тарбия» (Тәрбия) сингари новеллаларида ижтимоий ҳаётдаги оила, фарзанд тарбияси, ота-она ва жамият ўртасидаги муаммолар акс эттирилган бўлса, «Ёмғирдан сўнг» («Жаўыннан соң»), «Ойли оқшом» («Айлы ақшам»), «Аёл муҳаббати» («Ҳаял муҳаббаты») каби новеллаларида инсонларнинг бир-бирига бўлган меҳр ва садоқати, ишончи тасвирланган. Асар сюжетидаги қарама-қаршиликлар, кескин бурилишлар ва кутилмаган ечимнинг берилиши ўқувчида теран тасир қолдиради. «Новеллаларда эса конфликт шиддатли тус олади. Ўткир конфликтларсиз ҳам ҳикоялар яратилиши мумкин, лекин новеллалар яратилмайди. Новеллалар структурасидаги бешта асосий хусусият уни ҳикоялардан ажратиб туради: а) кутилмаган бошлама; б) кескин бурилиш; с)

конфликтлилик; д) саҳнавийлик, драматизм; г) кутилмаган ечим. Мазкур хусусиятларни ўзида мужассам этган ҳикояларни новелла жанрига киритиш мақсадга мувофиқ» [Тошпўлатов 2018: 21]. Умуман, А.Султанов новеллаларида ижтимоий ҳаётнинг асосий воқеа ва ҳодисалари акс эттирилган. Ёзувчи авваллари ёритилмаган мавзуларни тасвирлаб, ўз қарашларига асосланиб ечим беради.

Таҳлиллар шуни кўрсатадики, бугунги кун қорақалпоқ насрларида ёзувчи маҳорати асардаги сюжетни ривожлантириш, кўчайтириш учун ундаги конфликт ва қаҳрамон психологиясини жонлантириб тасвирлашида намоён бўлади. Бундай маҳоратлилик қорақалпоқ адабиётида таниқли ёзувчи М.Таумуратов новеллаларидан яққол кўриш мумкин. Улар жанрий ва бадиий жиҳатдан бир қанча хусусиятларга эга. Ёзувчи биринчидан, новеллаларига мавзу танлашда, иккинчидан, сюжет ва композицияни шакллантиришда, учинчидан эса ғоявий-тематик хусусиятлари билан бошқалардан ажралиб туради. Шунинг билан бирга, муаллиф қаҳрамонларнинг руҳий-психологик ҳолатларини, ички кечинмаларини маҳорат билан тасвирлаш истеъдодига эга. Масалан, унинг «Турмушнинг иккинчи қонуни» («Турмыстың екинши нызамы»), «Йўл четидаги кўланка» («Жол шетиндеги көлеңке»), «Жолли» (Жоллы), «Бир тақдирнинг иши бу…» («Бир тәғдирдиң иси бул…»), «Ёлғизлик салмоғи» («Жалғызлық салмағы»), «Тирикчиликнинг биринчи формуласи» («Тиришиликтиң биринши формуласы»), «Тақдир йўлларининг кесишмаси» («Тәғдир жолларының кесиспеси») ва бошқа новеллалари ҳаёт ҳақиқатини аниқ тасвирлаши ва инсонларнинг ички кечинмаларини, руҳий ҳолатларини кучли ҳиссиётлар орқали очиб бериши билан ўқувчида ижобий таассурот қолдиради.

Хулоса қилиб айтганда, қорақалпоқ адабиётида новелла жанрининг пайдо бўлиши ва мазкур жанр имкониятлари натижасида иқтидорли ижодкорларнинг пайдо бўлишига сабаб бўлди. Новеллаларда ижтимоий ҳаёт воқеалари ҳикояга қараганда жуда қисқа лаконизмга асосланган бўлиб, унда инсон қалбидаги ички кечинма ва ҳис-туйғулар кўпроқ теран лиризм орқали берилган ва кутилмаган ҳодисалар акс эттирилган. Шунингдек, воқеалар ечими аниқ кўрсатиб берилиши билан алоҳида аҳамиятга эга.

Фойдаланилган адабиётлар рўйхати

1.Скобелев В.П. Поэтика рассказа. – Воронеж. ВГУ. 1982. 155 с.

2.Султанов А. Новеллалар. Нөкис «Билим». 2008. 244 бет.

3.Таўмуратов М. Қысқа роман. (гүрриңлер, новеллалар). Нөкис, «Қарақалпақстан», 2004. 44 бет.

4.Тошпўлатов А. Ўзбек адабиётида новелла жанри ва унинг бадиияти (А.Қаҳҳор, Ш.Холмирзаев, Н.Эшонқул ижоди мисолида): Филол. фан. бўйича фалс. док. (PhD) дисс. автореферати. – Самарқанд. 2018. 50 бет.

5.Хотамов Н., Саримсақов Б. Адабиётшунослик терминларининг русча-ўзбекча луғати. – Т.: Ўқитувчи, 1979. 365 бет.

ГЕНДЕР ВА НОВЕРБАЛ ВОСИТАЛАР

Ахмедов Б.Р. АнДУ

The article talks about noverbal tools and their gender characteristics.

Keywords: gender, gender linguistics, men's speech, women's speech, noverbal tool.

Тил кишилар ўртасида энг муҳим алоқа воситаси сифатида ижтимоий моҳият касб этади. Демак, у бошқа ижтимоий ҳодисалар билан узвий алоқададир. Шу боис ҳам у халқнинг дунёқараши, ўтмиши, маданияти, руҳияти каби масалаларни ўрганувчи фалсафа, тарих, этнография, социология, психология, этика каби фанлар билан боғлиқ. Бу боғлиқлик натижасида тилшуносликда бир қатор оралиқ йўналишлар – менталингвистика, этнолингвистика, социолингвистика, психолингвистика, гендер лингвистикаси, нейролингвистика каби янги фан соҳалари вужудга келди.

Бугунги кунда ўзбек тилшунослигида бу йўналишлар бўйича талайгина тадқиқот ишлари амалга оширилмоқда. Гендер лингвистикаси ҳам ҳозирги ўзбек тилшунослигида тадқиқот марказига тортилаётган соҳалардан бири ҳисобланади. Гендер лингвистикаси нафақат социолингвистика, психолингвистика, балки тилшуносликнинг барча йўналишлари билан бир қаторда инсон, кишилик жамиятини ўрганадиган бошқа фанлар учун ҳам қизиқиш касб этади. Бир неча фанларнинг чорраҳасида ҳосил бўлувчи гендер лингвистикаси соҳаси ҳақида кенгроқ фикр юритишдан аввал гендер истилоҳининг ўзига тўхталиб ўтсак.

Гендер – инглизча “gender” – “зот” сўзидан олинган бўлиб, жинс тушунчасини физиологик воқелик устқурмаси бўлган ижтимоий қурилма сифатида белгилайди [Гидденс 2002: 185]. Гендер тушунчасининг киритилиши энг умумий маънода икки тушунча – биологик ва ижтимоий жинс тушунчаларини фарқлашга ёрдам беради.

Сўнгги йилларда тилшунослик илмида гендер тадқиқотларига бўлган қизиқиш тобора ортиб бормоқда. Гендер лингвистикаси соҳасидаги илмий тадқиқот ишларида катталар нутқи, ўсмирлар нутқи, болалар нутқига эътибор қаратилгани ҳолда, аёл ва эркаклар нутқи, ўғил болалар ва қиз болалар нутқи, бадиий асарлардаги гендер муносабат борасидаги фарқланишлар; ижтимоий роллар, фаолият шаклларининг бўлиниши, хатти-ҳаракат ва индивидларнинг психологик тавсифларидаги фарқлар назарда тутилади. Эркак ва аёллар нутқининг юзага келишида уларнинг психологик хусусияти, ёши, касб-кори, ижтимоий келиб чиқиши ва оилавий муҳити алоҳида аҳамият касб этади. Гендеролингвистик тадқиқотларнинг асосини ташкил этувчи назарий қарашлар замирида ижтимоий жинс тушунчаси ётади ва уларнинг нутқи ана шу жинс асосида шаклланади. Нутқига мос ҳолда паралингвистик воситалар орқали фикр ифодалаш имкониятини кенгайтиради. Шунинг учун гендеролингвистик тадқиқот ҳамоҳанг тарзда паралингвистик тадқиқотга мурожаат қилади. Булар бир-бирисиз тўлиқ реаллаша олмайди.

Эркак ва аёлларнинг тана тузилиши ва физиологик ўзига хослиги уларнинг турлича ҳаракатланишини тақозо этади. Бу ўзига хос гендер хусусиятлари кундалик мулоқотда, айниқса, уларнинг новербал воситалардан фойдаланишида яққол кўзга ташланади. Улар мулоқот жараёнида турлича имо-ишора, мимика ва жестлардан фойдаланади. Масалан, ўзбек аёллари учун нозиклик, нафислик хос бўлиб, уларнинг хатти-ҳаракатларидан ҳам буни кузатиш мумкин: *Кумушбиби рўмолининг учини оғзига босиб, югурганича ўтовдан чиқди. (О.Ёқубов)* Эркаклар табиатан кучли ва қўпол бўлганлиги учун, уларда шунга хос ҳаракатлар шаклланган: *Соат шаҳдам қадамлар билан югуриб келиб сувга ташлади. (Ў.Ҳошимов)*

Эркак ва аёлларнинг турлича новербал воситалардан фойдаланиши уларнинг болалик давридан шаклланади, ўзига хос ҳаракатланиш тарзини ўз жинсига мансуб катталардан кўриб ўрганади ва ўзлаштиради. Бола улғайгани сари катталарга тақлид қилган ҳолда турли товушларни талаффуз қилиш билан бирга, уларнинг турли хатти-ҳаракатлари ва мимикаларини ўзлаштириб боради. Мисол учун, ёш ўғил бола юриш-туриш, баъзи тана ҳаракатлари ва имо-ишораларни отасидан, бобосидан ёки севимли фильм қаҳрамонларидан кўчириши мумкин. Бу омил келажакда, албатта, унинг ўзига хос новербал хулқ-атворини шаклланишига таъсир кўрсатади.

Муайян жамият томонидан қабул қилинган хатти-ҳаракат ва хулқ-атвор нормалари ҳам гендер фарқларни шаклланишида ўзига хос омил бўлиб хизмат қилади. Гендер мураккаб ижтимоий-маданий жараён бўлиб, эркаклар ва аёллар ролининг фарқи, хулқ-атвори, ментал ва эмоционал тавсифлари, жамият томонидан тузиб берилади. Улар билвосита эркаклар ва аёлларнинг эмоционаллиги билан боғланган бўлади. Жамиятда илгаридан бери эркаклар ва аёлларнинг эмоция экспрессиясига тааллуқли баҳолар ва стереотиплар, ижтимоий ритуаллар, ролларни тақсимлаш мавжуд бўлган. Масалан, XVIII аср охири XIX аср бошида шундай ҳикматли сўз бўлиб, унга кўра эркакларнинг имоси (мимикаси) – бу фикрлар ва кучнинг гавдаланишини, аёллар имоси эса – бу ожизлик ва ҳиссиётлиликни англатган [Баженова 2003]. Бизга яхши маълумки, аёлларнинг новербал хулқ-атвори эркакларникидан анча фарқ қилади. Аёллар кўпроқ кескин бўлмаган, силлиқ ва мулойим ҳаракатларга мойил бўлишади. "*Ваҳимангиз қурсин, Кимсанжон! - Фотима келин энди тилга кирди. - Туф-туф... Яхшиям қорнимда болам йўқ, нақ Шокир акамдан балога қолардингиз". (Ў.Ҳошимов)* Олимларнинг таъкидлашича, бунга асосий сабаб – азалдан аёлларнинг вазифаси ўз хонадонини обод қилиш ва фарзанд тарбияси бўлиб келган. Бу вазифаларни бажариш учун эса аёллардан сокинлик ва юмшоқлик талаб қилинган.

Эркакларнинг новербал воситалардан фойдаланишдаги умумий хусусияти шуки, улар кўпроқ кескин, импулсив ва жисмоний куч талаб қилувчи ҳаракатлардан фойдаланишади. Бунинг сабаби, қадимдан эркак кишининг вазифаси оиласини хавф-хатардан ҳимоя қилиш, ўлжа овлаш ва жисмоний куч талаб қилувчи ишлар бўлган. Табиийки, бундай вазифалар уларнинг хатти-ҳаракатлари ва улар фойдаланадиган новербал воситаларда ҳам ўз аксини топган.

Новербал хулқ-атворда намоён бўлувчи гендер фарқлар шунга олиб келдики, айрим имо-ишоралар ва хатто новербал хулқ-атворнинг бир бутун услублари ҳам эркакларга хос ёки ўз навбатида аёлларга хос деб баҳолана бошланди [Баженова 2003]. Лекин эркаклар ва аёлларга хос имо-ишораларнинг бир-бирига қарама-қарши қўйилиши бу аёллар эркакларнинг имо-ишорасидан фойдалана олмайди degani эмас ёки унинг акси. Жамиятда эркак ва аёлларнинг тенг ҳуқуқлилигини таъминланиши, аёлларнинг турмуш шароити, яшаш тарзи, иш фаолияти, кундалик мулоқотига ва новербал хулқ атворига ҳам сезиларли таъсирини ўтказди. Айрим ҳолларда, муайян ижтимоий омиллар (иш жойи, бажарадиган машғулоти) таъсирида аёллар нутқида ва новербал ҳаракатларида "эркаклашиш"ни кузатиш мумкин. Масалан, раҳбар аёллар нутқидаги жарангдорлик, қатъийлик ва ҳуқуқ-тартибот органларида ишловчи аёллар нутқидаги қўполлик ва ҳ.к. шулар жумласидандир.

Хуллас, турли жинс вакиллар мулоқотига хос бўлган шундай новербал воситалар борки, улар адресантнинг ўзига хос ижтимоий ва гендер хусусиятлари ҳақида хабар бериб туради. Ана шундай нутқий мулоқотда фаол иштирок этувчи новербал воситаларнинг ўзига хос гендер хусусиятларини ёритиш тилшуносликнинг долзарб муаммоларидан бири ҳисобланади.

Фойдаланилган адабиётлар:

1. Баженова И.С. Гендерный аспекты невербаль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 Общество и гендер. – Рязань: "Поверенный", 2003. – 368 с. // http://www.gender-cent.ryazan.ru/bazhenova.htm

2. Гидденс Э. Социология. – Т. "Шарқ". 2002, – 848 б.

ЎҚУВЧИЛАР НУТҚИНИ ЎСТИРИШДА ХАЛҚ ОҒЗАКИ ИЖОДИ НАМУНАЛАРИНИНГ ЎРНИ

ф.ф.д. Жуманазарова Г.У. ЖДПИ

Инсоният тараққиётида авлоддан-авлодга кўшиб, тарих синовларидан ўтиб келаётган умуминсоний ва маданий-маънавий қадриятлар, миллий анъаналар, ахлоқий омиллар ва урф-одатлар муҳим аҳамият касб этиб келган. Чунки улар халқнинг жамоа ижодкорлигининг маҳсули бўлиб, инсонларнинг талаб-эҳтиёжлари замирида ақл заковат билан яратилган, уларнинг тасаввури, дунёқараши тафакури, орзу-армонлари, эътиқоди ва ахлоқ-одоб қоидаларини ўзида мужассам этган, жамиятнинг маънавий маданий ривожига катта ҳисса қўшувчи бойлиги бўлган.

Халқнинг бу бойлиги, биринчи навбатга асрлар давомида авлоддан-авлодга етиб келаётган ўзбек халқ оғзаки ижоди асарлари – қўшиқ мақол, топишмоқ афсона, ривоят, латифа, эртак, нақл ва достонларга ўз аксини топган. Чунки уларда халқнинг педагогик ғоялари, дунё қараши, руҳий кечинмалари, маънавий-ахлоқий идеаллари ўзига хос йўсинда аниқ, ибратли ва қизиқарли тасвирланган, ҳикоя қилинган воқеа-ходисаларга ўрнак бўладиган ўгитлар берилган, халқнинг ҳаётий тажрибаси, миллий анъаналари урф-одатлари ва фалсафаси баён этилган. Халқ оғзаки ижоди асарлари бадиий жиҳатдан юксак такомилга эга эканлиги, тингловчиларнинг, айниқса, ёш болаларнинг осон тушунишига, идрок этишга қулайлиги туфайли халқ педагогикасининг энг муҳим, кўп қамровли ва тарбиявий таъсири ғоят кучли тармоғи ҳисобланади. Чунончи мақоллар халқнинг ижтимоий, иқтисодий, сиёсий ва маданий тажрибалари ҳаётий кузатишлари асосида вужудга келган фикрларни лўнда, аниқ ва образли ифодаловчи бир восита бўлса, нақллар ҳаётий тажрибалар, насиҳатомуз фикрлари, донишмандлиги, ахлоқ қоидалари ва фалсафасини содда сюжет, ибратли мазмунда ифодаловчи ҳикоялардир. Эртаклар эса фалсафа, ахлоқ, диний тўқима ва ҳаёлотга асосланган халқ донишмадлигининг маҳсулидир. Шу боис эртакдаги тўқима воқеа-ҳодисалар силсиласида халқнинг маънавий қадриятлари, урф-одатлари, ахлоқ-одобнинг ўзига хос миллий хусусиятлари намоён бўлади. Ривоятлар ҳам асосан ижтимоий-маиший воқеаларни тарихий шахс ва ҳодисаларни уйдирмалар воситасида баён этиши кичик ҳажмли ҳикоялар бўлиб, уларда лутф ва назокат, ақл ва идрок ишқ ва вафо, адолат ва идрок ишқ ва вафо, адолат ва саховат ватанпарварлик ва меҳнатсеварлик мадҳ этилади, зулм ва зўрлик, хақсизлик ва босқинчилик қораланади.

Айниқса, халқ оғзаки ижодининг йирик намунаси ҳисобланган эртакларида умуминсоний қадриятлар мужассамлашган бўлиб, уларда халқнинг турмуш тарзи, ахлоқ-одоби, урф одатлари, маросимлари, анъаналари, орзу-умидлари, эрк ва озодлик йўлидаги мардонавор курашлари, ватанпарварлиги, севги мухаббатга садоқати яққол ифодаланган.

Ўзбек халқининг ва бошқа халқларнинг узоқ йиллар бола тарбиясида орттирган тажрибаси кучли қудратга эгалиги ва халқчиллигини билан ўтмиш мутафаккирлар, шоир ва олимлар ўз фаолиятларида унга амал қилдилар. Улар халқ урф-одати ва анъаналарини ўрганиб ўтмиш авлодлар донишмандлиги келгуси авлодлар учун кўзгудир деган хулосага келдилар ва уларни ташбиқ этдилар.

Халқ педагогикасининг оғзаки равишда авлоддан-авлодга ўтиб келаётган ёдгорликларида моддий дунёнинг моддийлиги ҳаётда воқеа ва ҳодисаларнинг содир бўлиши уларнинг бир-бирига боғлиқлиги, шакл ва мазмун бирлиги, бўла тарбияси хақидаги тасаввури ифодаланган.

Халқ педагогикаси ана шу хусусиятлари билан илмий педагогиканинг муҳим таркибий қисми ҳисобланади. Унинг илмий педагогикадан фарқи шундаки, у тарихий, мантиқий ва қурилиш жиҳатдан ўзига хос хусусиятга эга. Ҳамма халқларда ўтмишда оилада турли мавзудаги эртак, достон, латифа, ҳикматлардан болалар тарбиясида кенг фойдаланилади. Ота-оналарнинг тунда уйку олдидан айтиб берган эртакларидан болалари руҳий озиқ олган, ҳаётдаги ва одамлардаги яхши фазилат ва ёмон хусусиятларни билиб олишган, хурмат ва мурувват, адолат каби тушунчалар ҳақида тасаввурга

эга бўлишган. Натижада бутун ҳаётлари давомида эртаклар уларнинг доимий ҳамкори бўлган, улар учун ҳаёт дарслиги бўлиб хизмат қилган ва ҳозир ҳам хизмат қилмоқда.

Маълумки, ҳар бир халқ педагогикаси бошқа халқлар педагогикаси билан боғлиқ холда яратилган. Шу сабабли ҳам уларнинг ижтимоий-сиёсий, маданий ҳаётлари, тарихий тақдирлари ифодаланган урф-одатлари, анъаналари ўхшашлик мавжуддир. Бу ўхшашлик уларнинг меҳнат, нафосат, ақлий ва ахлоқий тарбия соҳасида қилган ишларида ёрқин кўринади. Халқ эртакларида ахлоқий тарбиянинг узвийлиги тўғрисидаги фикр юритилар экан, шу ўринда ахлоқий тарбияга таъриф бериш жоиздир. Ахлоқ-ижтимоий онг шаклларидан бири ҳисобланиб, ҳар бир кишининг жамият ва оиладаги юриш-туриши, тартиб қоидаларининг йиғиндиси сифатида гавдаланади. Демак, жамиятга, оилага, меҳнатга бўлган муносабатида ахлоқ намоён бўлади. Инсон хатти-ҳаракатидаги, хулқидаги йўналишлар, энг муҳим белгилар мужассамлашиб, шахс фаолиятида, унинг камол топишида хулқ қоидасининг асоси бўлиб хизмат қилади.

Ўрта Осиё халқлари ахлоқшунослик соҳасида бой анъанага эга. Ахлоққа оид фикрлари «Авесто» диний ахлоқий китобида қадимги фикр битикларида ва бошқа ёзма манбаларда ўз ифодасини топган. Булардан ташқари, ўзбек халқи ўртасида кенг тарқалган пандномалар, ўгитлар ва одобномаларда, халқ педагогикасида, диний фалсафий рисолаларида, алломалар меросларида ахлоққа кенг ўрин берилган.

Ўрта Осиё халқлари тарихий-этнографик жиҳатдан яқин алоқада бўлганлар. Этнографик педагогикада илмий педагогиканинг узвий қисми сифатида бир халқнинг маънавий маданияти, урф одатлари анъаналарига хос хусусиятларнинг мажмуидир.

Шу боисдан ҳам ахлоқ ҳар бир миллатнинг, ҳар бир элнинг мутафаккирларнинг диққат-эътиборида бўлган ва улар ўзлари яратган эртак достон, мақол, матал, ривоят, афсоналарида ахлоқий тарбияга алоҳида ёндошганлигини кўрамиз.

Она тили дарсларида халқ оғзаки ижоди намунлари асосида ўқитишдан асосий мақсад ўқувчиларда фикрни тўғри, аниқ, равшан ва гўзал ифодалай олиш кўникмаларини шакллантириш ва ривожлантиришдан иборатдир. Сўзларни тўғри туза олиш, тўғри танлаш, нутқни тингловчига қулай тарзда етказиш инсоний маданиятнинг энг асосий таркибий қисмларидан бири ҳисобланади. Шунинг учун ҳар бир сўз, бирикма ва гапни барча қирралари билан тўғри, ўринли ишлата олишни ўргатиш, ўз нутқига нисбатан эҳтиёткорлик туйғусини шакллантириш она тили машғулотларининг асосий вазифаси саналади.

Эртакларни методик жиҳатдан тўгри қўллай билиш нутқ фаолиятининг турлари – эшитиб тушуниш ва гапиришни шакллантиришга катта имкон беради.

Демак, эртакнинг бадиийлиги болаларга таъсир кўрсатади ва уларнинг тасаввурида ёрқин образларни ҳосил қилади. Бу эса ўз навбатида ўқувчиларда боғланишли нутқни ривожлантиришга ёрдам беради.

Ўқувчилар нутқини ривожлантиришда эртаклар катта аҳамиятга эга. Бошланғич синф ўқувчиларининг нутқий ривожланиши қуйидагилардан иборат: 1. Эртакларни тинглаш ва тушуниш, хаёлий воқеаларга ўз муносабатини билдириш; 2. Эртаклардаги воқеа ва ҳодислар бўйича ўз тенгдошлари билан фикр алмашиш; 3. Эртаклардаги айрим сўзларни изоҳлашга ва такрорлашга йўналтириш; 4. Расмларни кўздан кечиришда асар каҳрамонларини таниб олишни ва расм мазмуни бўйича оддий саволларга жавоб беришни ўргатиш ва ҳ.к.

Она тили дарсларида топишмоқларнинг ҳам аҳамияти катта. Топишмоқлар орқали ўқувчилар ўз нутқларини бойитиб, такомиллаштириб бордилар. Улар топишмоққа жавоб топиш билан ўзларининг тафаккурини ривожлантириди, мантиқий фикр юритишга, солиштириш ва қиёслаш йўли билан тўғри хулосага келишга кўникма хосил этдилар. Топишмоқ матнларини ўқиш натижасида, тўғри ўқиш малакасини эгаллай бордилар. Ўқиш дарсларидаги топишмоқ матни устида ишлаш жараёнида топишмоқ жанрига хос назарий тушунча ҳам олдилар. Топишмоқларда берилган белги, предмет, воқеа-ходиса кабиларни тўғри ва осон топиш малакаларига эга бўлдилар.

Она тили дарсларида топишмоқларни ўрганишда ўқитувчи ўқувчилар фаоллигига суяниб иш кўради. Чунки ўқувчилар топишмоқда яширинган предметнинг нима эканлигини билишга қизиқадилар. Бу эса уларни ҳар тарафлама, чуқур ва тўғри фикрлашга мажбур этади. Ўқувчилар мустақил ҳолда топишмоқда берилган предметларнинг рангига, шаклига, таъм-мазасига қараб уларни бир-бирига таққослайдилар. Бу хол предметлар ҳақидаги тасаввурнинг болалар онгида узоқ сақланиб қолишини таъминлайди, уларда топишмоқни онгли равишда уйлаб топиш кўникмасини шакллантиради, уларнинг сўз бойлигини ўстиради. К.Д. Ушинский таъкидлаганидек, топишмоқлар воситасида предметларнинг келиб чиқиши, яратилиши, уларнинг инсон ҳаётидаги роли тушунтирилади.

Топишмоқда яширин берилган предмет ҳақидаги тушунча фанда қатъий тасдиқланган бўлиб, илмий методларга яқин ҳолатдаги ўқитувчининг таълимий методлари асосида баён этилади.

Шунинг учун ҳам ўқитувчи ҳар бир топишмоқ ўрганилиб бўлингач, шу топишмоқда яширин берилган предметларнинг ўзига хос хусусиятлари ҳақида қисқача тушунча бериб бориши керак. Масалан, сабзи ҳақида айтилган "Ер тагида олтин қозиқ" топишмоғига бола диққатини тортиш мақсадида "сабзи полизларда ер тагида етилади, уни пиширмасдан еса ҳам бўлади. Асосан овқатга солинади", дейиш билан ўқувчиларнинг тўғри фикрлашига кўмаклашилади. Бундай "қўшимча" топишмоқни тез топишга ёрдам бериши билан бир қаторда, уларда яширинган предметга хос хусусиятларни билишга ҳам имкон беради. Масалан, мазкур топишмоқда сабзининг ранги олтин рангига, шакли эса қозиққа ўхшатилган.

Халқ оғзаки ижоди жанрларининг бир тури – бу мақолдир. Бу жанр ҳам халқнинг тарихини маиший ҳаётини ундаги мавжуд воқеаларни характерли ходисаларни умумлаштиради. Бинобарин мақоллар дарснинг хилма-хил этапларида ўрганилади. Мақолларни ўрганишни барча этапларида таълимнинг кўрсатмалилик ва умумийлик тамойиллари билан бирлиги, таълим ва тарбия тамойилларига тўла амал этилади. Мақолларнинг мазмуни ва тузилиши таҳлил этилар экан, мақолларнинг мазмун жиҳатидан кенг, тузилиш ҳаддан қисқа, умуман хикматли гап кўринишида эканлиги сухбат устида баён этилади. Бу билан ўқувчиларни илмий билимлар билан қуроллантириб гина қолмай, балки ўқувчилар томонидан ўзлаштирилган мақол ҳақидаги мазкур билимлар асосида ўқувчиларда материалистик дунё қараш ва маънавий сифатлар таркиб топтирилади. Бу эса ўқувчиларнинг ақлий камалоти ва қобилиятини янада ривожланитиршга улкан ҳисса бўлиб қўшилади.

Мақоллар ўқувчилар нутқини ўстиради, сўз бойлигини орттиради. Мақоллар халқнинг у ёки бу юзасидан чиқарган хукмини болалар онгига етказишда ўқитувчига ёрдам берувчи воситалардандир. Халқ мақаолларининг маъноси, тузилиши ва унинг формаси билан ўқувчиларни тантиштириб бориш таълим-тарбиянинг самарадорлигини оширади.

Бошланғич синф она тили дарсликларида жуда кўплаб мақоллар берилган. Ўқувчилар мазкур дарсларда мақоллардаги ҳар бир сўзнинг маъносини изчил таҳлил этишга одатланадилар. Мақол матни устида ишлаш билан мақолларнинг яратилиши, мақол яратишдаги халқнинг мақсади ва халқ мақолларининг кўриниши, унинг оддий гапдан фарқи кабилар билан танишадилар. Мақолларни ўрганиш дарсларида ўқитувчи ўқувчилар фаоллигига суянади.

Хуллас, мақолларни ўрганиш мақолларнинг тарбиявий аҳамиятига эга бўлганлиги учунгина эмас, балки матнда мақолларнинг мажудлиги учун ва унинг маъно жиҳатдан хилма-хил кўринишда бўлганлиги, мавзу мазмунини, тўлатиш, туфайли ҳам ўрганилади. Мактабда ўқувчиларга мақол ва хикматли сўзларни ўргатиб борилса, уларнинг маънолари тушунтирилса, дарснинг ғоявийлиги ошади.

ТЎЛЕПБЕРГЕН ҚАЙИПБЕРГЕНОВНИНГ “ҚОРАҚАЛПОҚНОМА” РОМАН-ЭССЕСИ ВА РАҲИМЖОН ОТАЕВНИНГ ТАРЖИМА АСАРИ БОРАСИДА БАЪЗИ МУЛОҲАЗАЛАР

Атаджанов Ғ.
Бердақ номидаги ҚорДУ

Annotation.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ssues of mastering the novel's novel essays and literary skills of translators. The translation has been analyzed for many years

Key words: novels, essays, translation art, literary translation, day dating

Бугунги китобхон учун Тўлепберген Қайипбергеновнинг Қорақалпоқнома” роман-эссеси аллақачон қўлма-қўл бўлиб қолган. У нафақат қорақалпоқ халқи учун балки ўзбек халқи учун ҳам севимли китоб бўлиб улгурди. Бунга асл сабаб таржимашунос Ғайбулла Саломовнинг мазкур китобни ажойиб тарзда таржима қилганлиги самарасидир. Ўз даврида Халқаро Маҳмуд Қошғарий унвонига сазовор бўлган ушбу китоб XX асрдаги қорақалпоқ адабиётининг янгилиги сифатида она тилидан ташқари ўзбек, қозоқ, рус тилларида бир неча миллион нусхада чиққан. Миллий адабиётимизнинг илк жанри бўлган бу роман-эсседа муаллиф қорақалпоқ халқининг ўтмиши, бугуни ва келажаги ҳақида теран фикр юритади.

«Таржимон тил соҳасида ижод қилади. Тилнинг асосий қурилиш материали сўздир. Бадиий адабиёт учун ғоятда муҳим бўлган кўрсаткичлари-бадиийлик, образ ва образлилик, мажоз ва мажозийлик-барчаси сўз замирида яширинган сўзда ўз ифодасини топади ва сўз орқали реаллашади. Бинобарин, *сўз танлаш* бадиий таржимада бирламчи аҳамиятга эга» [1]. Жумладан, ёзувчи Т.

Қайипбергенов асар бошида қуйидаги жумлаларни қўллаган: “Атаңның улы болма, Адамның улы бол”. Шунингдек, “Сен өзин ҳаққында жағымлы пикирлер айтсаң, инаныўшылар кем болады, ал озиң ҳаққында жағымсыз пикирлер айтсаң, ҳәмме инаныўға тырысады.” Мазкур жумлалар асар эпиграфи сифатида берилган. Шу аснода айтиш жоизки, эпиграф (юн. - устки ёзув) - адабий асар ёки унинг бирор қисми(боби)нинг тепасига ёзиб қўйилган ва шу асар ёки қисм(боб) мазмунини ифодалайдиган, асосий йўналишини белгилаб берадиган теран маъноли ибора, мақол, матал, ҳикматли сўз, қўшиқ, шеър ёки ўзга бир манбадан олинган парча ҳисобланади [2]. Шунингдек, у иқтибос ёки кўчирманинг барча хусусиятларига эга бўлиб, асосий матнга ўзига хос кириш вазифасини ўтайди. Уларсиз баъзан бадиий асарнинг моҳиятини англаш мумкин бўлмай қолади. Бу борада биз тадқиқ қилаётган ушбу асардаги эпиграф ҳам асар мазмунини ёритиб бера олган.

Бундан ташқари асарда миллий урф-одатларимизга хос ҳаё-ибо каби ижобий фазилатларни кўрсатиб берувчи шундай жумлаларни кўришимиз мумкин. Масалан: “Анам азғана ойланды: изге қайтыўға жол алыс, аўылдан жәрдем шақырып бақырыўға ол уялады. Себеби, *даўысы қатты шыққан ҳаялды аўылдың жас үлкенлери жаман көреди.* Тусип өтиўге дәрья оған бой бермейди. (7-бет) – Онам андак тараддудланди: ортга қайтгани йўл олис; ёрдам сўраб қичқиргани уялади. Сабаби, бақироқ аёлларни овулимиз оқсоқоллари хуш кўришмайди. Кечиб ўтайин деса-сой чуқур. (7-бет) [3].

Дарҳақиқат, “Қорақалпоқнома” роман-эссесини таржима қилиш мобайнида Р. Отаев асосан асарда акс эттирилган ташбеҳ, ўхшатишларни асл нусхадагидек таъсирли баён қилиш учун ижодий изланган. Хусусан, унинг қуйидаги жумлаларига диққатимизни жалб қилайлик, яъни: *Адамлар бар-бири* ***ийт минезли,*** *екиншиси* ***пышық минезли*** *(15-бет) – Одамлар бор-бири* ***итфеъл,*** *иккинчиси* ***мушукмижоз.*** (16-бет) [4]. Ушбу гапда қорақалпоқча вариантдаги минезли сўзини минезли-*феъл*, минезли-*мижоз* дея икки хил таржима қилинган. Ўзбекча вариантида таржимоннинг бундай тарзда асослаши мақсадга мувофиқ келган. Чунки китобхонга уни *итфеъл-мушукфеъл* ёки *итмижоз-мушукмижоз* дея минезли сўзини бир сўз сифатида қараган билан бу тўғри келмайди, албатта. Таржимон бу хилда таржима қилиши унинг сўз қўллай билиш санъатинг қай даражада эканлигини бизга яққол кўрсатиб берган.

Дарвоқе, қуйидаги жумлаларда ҳам ўхшатиш кузатилади: *“Оның өз аўзынан атын еситкенлердиң қуўанышы қойнына сыймай өзли-өзи шуңкилдесип өз-ара ойын-заўық қурып қала береди.(*9-бет)-*Номини Аллоҳ Таолонинг ўз оғзидан эшитганларнинг севинчи ичига сиғмай чуғурчуқдай чуғурлашиб, ўйнаб-кулиб қолишаверишаркан* (9-бет). Шунингдек, бу жумлаларга хам эътибор беринг: *“Кексалардан ажралиш-ақл донишдан ажралиш билан баровар экан* (20-бет)-“*Ғаррылардан айырылыў менен ақылымыздың тырнағынан айырылып атыр екенбиз*”(19-бет). Яна:“ *Кексаларга ҳурмат-ўтмишга ҳурмат демакдир.* (20-бет) – *Ғаррыларға ҳүрмет кешеги күнниң тәжирийбелерине ҳүрмет* (19-бет). [5].Асл нусхада ҳам, таржима асарда ҳам ўхшатишлар ўзига хос ишлатилган.

Бинобарин, асарда ватанпарварлик ғояси уфуриб турган жумлаларни ҳам кўришимиз мумкин. Масалан: “Онаси ёнида экан, бола ҳеч нимадан қўрқмаслиги керак,-деди. Онамнинг бу насиҳати хотирамга ўчмас бўлиб муҳрланди. Ватанни онага қиёслашлари бежиз эмас! Ватани борнинг мангулик таянчи бор! Бундай одамга ҳеч нима қўрқинчли эмас (8-бет) – “Анасы бар перзентке ҳештеңе қорқынышлы болмаўы керек,-деди. Анамның бул кеңеси мәңги есимде қалды. Ўатанды ана менен теңгериў бежиз емес! Ўатаны бардың-мәңгилик тиреги бар. Оған ҳештеңе қорқынышлы емес! (8-бет).

Аксар ҳолларда асл нусха билан таржима асарларда иккала китобда икки хил изоҳ бериб ўтилган жумлаларни учратамиз. Масалан: “*Эсимда бир пайтлар онам икковимиз холамнинг уйига меҳмон бўлиб борганмиз.- Биржола анам менен екеўимиз дайымның үйинен қайтқанымыз есимде”.* (6-бет) – Дайы аслида тоға дегани. Лекин таржимон бу ердаги *дайы* сўзи ўрнига *хола* сўзини ишлатган. Бунинг боиси кейинги жумлага мос тушиши учундир: *“Қайтишда холам онамга каттакон тогора совға қилган эди.-Дайы кемпир апам анама үлкен бир самар берген еди.* (6-бет) [6].

Умуман олганда мазкур асарнинг асл нусхаси ва таржима асарни тадқиқ қилиб ўрганиш жараёнида жуда кўп ўзгаришларни учратдик. Уларнинг барчаси таржимон маҳорати сабаб асар салмоғини сақлаб қолган.

Фойдаланилган адабиётлар:

1. Ўзбекистон Миллий Энциклопедияси. «Давлат илмий нашриёти» Тошкент, 157-бет
2. Ғ.Саломов. Таржима назарияси асослари. Т., Ўқитувчи, 1983, 73-бет.
3. Т. Қайипбергенов “Қорақалпоқнома” роман-эссеси.

БУЮК ИПАК ЙЎЛИНИНГ КУВАЙТ АДИБИ СУЛАЙМОН ШОТИЙ АСАРЛАРИДА ТАСВИРЛАНИШИ

фил.ф.н., Аҳмедова Ш
ТошДШИ

Annotation

This article notes that the Persian Gulf (Khaleej in Arabic) has its political, economic importance at the international political level since ancient times, and its geographical location is also of strategic importance. It is also a trade route linking East and West, a branch of the Great Silk Road that stretches along the Persian Gulf and serves as a trade route on the shores of Arab countries. On the one hand, it is devoted to the ships passing through the Gulf, and on the other hand, a camel caravan loaded with goods on a deserted road adjacent to the shore.

The article also shows that Suleyman Shotiy, a brilliant representative of Kuwaiti literature from the Arabian Gulf countries, associated images in his works, primarily, with wildlife, a camel, a bay and the coastal world, which found their artistic expression in the stories “Rudder”, “News”, "Inner Feeling" and "Camel."

Keywords: Great Silk Road, the Persian Gulf, Suleiman Shotiy, Kuwait, desert, sea, “Camel”, east and west, national values, trade road.

Форс кўрфазининг ғарбий соҳилларида қатор араб давлатлари жойлашган бўлиб, улар Шимолда Кувайтдан, жанубда то Уммонгача боради. Бу ерларда Кўрфаз Араб денгизини Ҳинд океани билан бирлаштиради.

Бутун араб оламида аҳолиси иқтисодий ва моддий томондан яхши таъминланган, ривож топган мамлакатлардан бўлган Кувайт, Баҳрайн, Қатар, Уммон, Бирлашган Араб Амирлиги каби араб мамлакатлари Арабистон ярим оролида жойлашган бўлиб, соҳиллари Форс кўрфазидан чиқади. Шунинг учун мазкур давлатларни Форс кўрфази атрофида жойлашган араб мамлакатлари деб номлашади, лекин араблар бу номни тан олмасдан, “ал-Халиж (Кўрфаз)” мамлакатлари деб аташади.

Мазкур минтақа кўп қисмларга бўлинишга қарамай жуғрофий, диний ва тарихий бирликни ташкил қилади. Шунинг билан бирга уларнинг ҳаётида маънавий-маданий бирлик ҳам кузатилади.

Тадқиқотчилар ва олимлар мана шу яхлитликни яхши англаб ва у тарихий ҳодиса сифатида ўзаро боғланган яхлитлик эканини тушуниб унга **“маданий кўл”** номини беришган.

Сиёсий, жуғрофий томондан Халиж қадимдан халқаро сиёсий, иқтисодий мезонда катта аҳамиятга эга бўлиб келган. Унинг жўғрофий нуқтаи назардан жойлашиши стратегик аҳамиятга эга, чунки у Шарқ ва Ғарбни боғловчи савдо йўли бўлиб келган. Биз бу тўғрисида, замонавий Кўрфаз адиблари ижодида кўп маълумотларни кузатганмиз.

Халиж араб мамлакатларидан бири бўлган Кувайт адабиётининг ёрқин намояндаси Сулаймон Шотий асарларининг образлар дунёси ҳам бой ва кўп маънолидир. Улар, энг аввало, саҳро,туя, денгиз ва соҳилбўйи дунёси билан боғлиқ ҳаётнинг бадиий ифодасидир.

Унинг ёзиш маҳорати ўнга яқин ҳикоялар тўпламларида намоён бўлди, булар , Рул (دقة) (1962) “Бўғиқ овоз”**(الاصوت الخافت)** (1970) , “Юқори мартабага эришган одам”(دجل الرف العالى) (1982) ва “Мен ...бошқа” (1995) (انا الاخر) каби ҳикоялар тўпламидир.

Сулаймон Шотий замонавий Кувайт ҳикоянависларининг иккинчи авлодидир. У адабиётга 70-йилларда кириб келди ва ўзининг кувайтликлар ҳаётининг турли жабҳаларини тасвирловчи реалистик ҳикоялари билан тезда танилди. Сулаймон Шотий туғма истеъдод эгаси бўлгани учун унинг ҳикоялари бошидан анча сайқалланган, конкретлашган бўлиб яратилди. Ёзувчининг бадиий маҳорати замон ўзгаришларини илғаб олишда ва нозик дид билан асарда ғоявий-эстетик мақсадга кўра ифода этишда билинди. Унинг дастлабки ёзилган ҳикояси “Рул” (دقة) деб номланиб, 1962 йили “Савт Халиж” журналида нашр қилинди.Бу ҳикоя истеъдодли ҳикоянавис дунёга келганлиги тўғрисида башорат қилган эди. “Рул” ҳикояси юк ташийдиган кемада сузувчи денгизчиларнинг меҳнатини тасвирлайди. Бўронда қолган кема туғён ураётган тўлқинлар орасидан келаётганда туби қояга тегиб тешилади ва сув киришини тўхтатиш мақсадида кемадаги денгизчилар жасурона курашиб бир амаллаб тешикни ёпишади. Бу 20 соатлик курашда рул бир одам қўлида - ёш йигит Абу Аҳмадда қолиб кетади. Бир қадам ҳам рулдан силжимаган ва уни қўлдан қўймаган Абу Аҳмад бор кучини кемани бошқаришга қаратиб, охири совуқда қотиб қолади ва вафот этади. Денгиз навбатдаги қурбони жасадини ютади. Ўша кеманинг денгизчилари бошқалар учун жонини фидо қилган дўстларини доимо ёдга оладилар. Бу ҳикоя оддий денгизчилар хотирасига бағишланиб, уларнинг қаҳрамонона жасоратини тараннум этади.

Денгиз кувайтликларга балиқ, марварид ва бошқа тирикчиликка ярайдиган неъматлар берган, аммо қанча-қанча умрларга завол ҳам бўлган. Денгиз соҳилида яшаш ҳам осон бўлмаган. Энг катта муаммо бу ичиш учун сувнинг йўқлиги. Ичимлик сувини Халиж орқали бошқа жойлардан кемаларда етказишади.

Баъзида кемалар ҳалокатга учраб, юкидан мосуво бўлишади, соҳилдагилар сувсиз қолади. Мана шу муаммо Сулаймон Шотийнинг "Янгилик" ҳикоясида юз берган. Соҳилда жойлашган қишлоқдаги одамлар умид билан денгизга тикилишмоқда, узоқдан сув ортилган елканли кема яқинлашмоқда. Аммо кема сув остидаги қояга урилиб, ағдарилади. Сувли идишлар қулаб тушиб чўкади. Одамларнинг умиди сўнади. Ёзувчи персонажларни нутқлари, ҳаракатлари, ўзаро муносабатлари орқали вазиятга худди моҳир рассомдек сўз билан чизиб чиқади. Бу ҳикоя орқали китобхонга ер юзида шундай жойлар борлиги, яъниунда бир қатра ичимлик сув қиймати бебаҳо эканлигиаён бўлади. Ҳикояни мутолаа қилган ўқувчи асар қаҳрамонлари билан биргаликда гўё ўзини сувга ташна бўлгандек ҳис қилади ва "олдингдан оққан сувни қадри йўқ" мақоли қанчалик халқ тажрибасидан келиб чиққанини тушунади ва сувнинг қадри тўғрисида мулоҳаза қилади. Ҳикоя ниҳоясида ёзувчи умидга жой қолдиради - узоқдан сув ташувчи бошқа кема елканлари кўринади, бу янгилик қишлоқдагиларга янги умид бағишлайди.

Сулаймон Шотийнинг охирги иккита ҳикоялар тўплами орқали "Юқори мартабага эришган одам" ва "Мен ...бошқа" асарларидан Кувайт ҳикоянавислигида ва нафақат Кувайт, балки бутун араб ҳикоянавислигини кузатувчиси, Шотийни ўзи учун ўзига хос янги услуб яратганини кўради, бу услуб уни бошқа ҳикоянавислардан ажратиб туради. Унинг услуби анча мураккаб бўлиб у ҳикоянависликда янги шаклларни қўллади. У таянган асосий ёзиш техникаси бу ёзувчини ҳозирдан ўтмиш майдонига кириб бориши ва бу ҳозирги давр ўша ўтмиш сирларини очишга калит бўлиб хизмат қилади. Ҳозирги кун (давр) унда чегарланган ҳикояни бир лавҳасини ташкил қилади ва ўтмишга қаратилиб эсдаликларга йўл очади. Ёзувчи фрагментарлик ва ассоциатив боғлаш усуллари техникасини ишлатиб, ҳозирги кундаги баъзи вазиятларга жуда қисқа тўхтаб ўтмиш билан боғлиқ асарнинг мақсадини очиб беришга ҳаракат қилади.

Масалан, адибнинг "Мен...бошқа" (انا الاخر) ҳикоялар тўпламини олсак, бу ерда ҳам шубҳасиз ўша техникани кўрамиз. Мазкур тўпламдан ўрин олган "Туя" (جمل) номли ҳикояда ҳозирги бўлаётган вазиятда бемор отанинг муолажаси учун туя сути даво сифатида таъкидланади, аммо ота негадир туя билан она туяни олиб келишга кескин норози бўлади. Туя билан боғлиқ образ, отанинг эсдаликларини очиб беради ва ҳикояни бутун сатҳини эгаллайди.

Сулаймон Шотийнинг "Туя" ҳикоясида икки макон кўринишини -саҳро ва денгиз муҳитини кузатса бўлади. Ҳикояда ота саҳрони эслайди, бу хотиралар унинг юрагига жуда яқин ва азиздир. Чунки, саҳрода катта бўлгани учун ўша муҳитни яхши билади. Ҳикоя қилувчи ота саҳронинг ошиғи эканлиги, у тўғрисида сўзлаётганида ҳаяжонланиб, жунбушга келишида билинади. Ёзувчи диёри аҳолисини ўтмишдаги ҳаёти тўғрисида шундай дейди:

"*Халижлик инсон ҳаёти мобайнида, саҳро билан курашади. Денгиз Халижлик учун кўпроқ саҳро машаққатларидан ҳоли қилувчи макон, лекин денгиз ҳам хавфсизмакон эмас. Дарҳақиқат, Халижлик инсон сув ва саҳро орасида анча машаққатли драматик ҳолатда яшаган бўлиб, бу икки олам билан уларнинг ҳаёти ва мамоти масаласи боғланган. Аммо саҳрода ўлим топиш очиқроқ ва сукунатда ўтади. Денгиз билан эса, алоқаси билим ва ҳаракатга асосланган эди.*"[Сулаймон Шотий: 92-93]

Шундай қилиб, Сулаймон Шотий учун саҳро хавфли бўлса ҳам одатий табиий муҳит, унда ҳамма нарса аёндир. Лекин ёзувчи шаҳарга нисбатан бошқача фикрда.

Сулаймон Шотийнинг мазкур "Туя" ҳикояси қаҳрамони – отада - шаҳарга нисбатан маъюслик аломатини кўрамиз. У шаҳарда кўп қадриятлар йўқолишини ва одамлар орасида тарқоқликни борлигини таъкидлайди, эркинлик чегараланишини, шаҳар одамларида баракасизликни кўради (сайлов номзодлари қилмишлари, сафсатабозлик ва ҳ.к.).

"*Сенга айтсам, шаҳарда йиллаб низо тўс-тўполон бўлмайди, лекин у кенгайиб эриб бормоқда, шакли йўқолиб бир хиллик ҳукм сурмоқда*" [Сулаймон Шотий:95]

Умуман олганда Халиж адиблари шаҳар билан мураккаб муносабатда - бир томондан ундаги ўзгаришларни, кенгайишларни, безатилишларни кўриб ажабланадилар, иккинчи томондан унда кўп иллатларни кўришади ва қишлоқ ҳаётини, олдинги кунларни қўмсаб, хотираларга берилишади ва кўпинча бу нарса ретроспектива орқали ўз ифодасини топади.

Аммо буни романтик кайфият намойиши десак ҳам бўлади, чунки ўтмишдаги халижликни қишлоқдаги оғир ҳаётга ҳақиқатдан қайтиши, назаримизда ҳеч кимни ақлига келмайди. Эски саҳровий ҳаётга сиғиниш катта шаҳардаги рўй берадиган ёлғизлик, тарқоқлик ва бошқа шаҳарга хос иллатларга норозиликдан бошқа нарса эмас.

Хулоса қилиб шуни айтишимиз мумкинки, Халиж араб мамлакатлари ҳикоянавислиги шаклларининг янгиланиши, мавзулар доирасининг кенгайиши, саҳро, туя, денгиз ва соҳилбўйи дунёси билан боғлиқ образлар ва ифода воситаларининг изчиллашувида Сулаймон Шотий миллий ижтимоий ҳолатларнигина эмас, балки, умуминсоний қадриятлар асосида инсонни идрок этишда ўзига хос янги қарашлар олиб кираётганини кузатишимиз мумкин.

Адабиётлар:

5. Абдуллоҳ Аҳмад Шубат."Форс кўрфазидаги араб мамлакатлари адиблари". Кувайт, 1986.
6. Иброҳим Абдуллоҳ Ғалум. "Форс кўрфазидаги араб мамлакатларида қисқа ҳикоя. Кувайт ва Баҳрайн".Бағдод, 1981
7. Муҳаммад Ёсир Шараф. "Форс кўрфазидаги араб мамлакатлари қисқа ҳикояси. Қироат". Кувайт,1994
8. Сулаймон Шотий. "Мен ва бошқа". Ҳикоялар тўплами. Кувайт, 1995

ВЕЛИКИЙ ШЕЛКОВЫЙ ПУТЬ В СОВРЕМЕННОЙ ИСТОРИИ МИРА

Турдиева Н. М.
старший преподаватель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туризма «Шёлковый путь».
АшраповДж.М.
студен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туризма «Шёлковый путь».

Annotation: The Great Silk Road is the main trade route, linking Europe with Asia, and lasted 17 centuries. The world community has always been interested in the problems of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he article deals questions about the studding of the territory where were caravans, but the main focus is on advertising the Chinese government's efforts to revive the Great Silk Road.

Keywords: Great Silk Road, dialogue of cultures, intercultural communication, trade caravan

С конца XX в. и в первые десятилетия XXI в. появляется тенденция к «стиранию границ», мир становится взаимосвязанным.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се больше и больш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в мировых глобальных процессах. Сейчас от их участия зависит благополучие всего мира как в экономической, так и в социальной, и политической сферах. Важнейшим направлением их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является не тольк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но и ее обмен. Таким образом, культурные достиже-ния распространились через коммуникации между народами – а именно: через торговые связи, переселения и завоевательные войны. Все эти процессы вели к культурной адаптации, появлению новых «инокультурных» явлений и действий, формированию нового мировоззрения. Важнаяисторическая роль в этих процессах отведена караванным дорогам, а впоследствии – и Великому шелковому пути, который связал еще в древности Индию с Китаем, Китай с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ей, Средним и Ближним Востоком, Азию со странами Средиземного мор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можно сделать вывод о том, что торговые пути стали уникальной и плодотворной базой для меж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коммуникаций и принесли более масштабные результаты, чем принудительное навязывание культурных форм через военные походы.

Оценив их важнейшую роль в истории человечества, в 1987 г. мировая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под патронаже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ЮНЕСКО приняла программу «Шелковый путь».Цель этой программы заключалась в демонстрировании того факта, что за время существования Пути (а это многие столетия) разворачивались процессы контактов между странами совершенно разных культур, и главной в этих процессах была не война, а торговля. Специалисты, участвующие в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представляли самые различные сферы науки. Несомненно, одну из главных ролей играли не столько эти специалисты, сколько сама территория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на которой до сих пор существуют культурные памятники межкультурных влияний. Было проведено множество научных семинаров, конференций, итогом которых стал

сборник узбекских ученых 1990 г. под названием «На среднеазиатских трассах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очерки истории и культуры».

Итогом программы стала конференция 1997 г. в Париже, во время которой была открыта специальная выставка, демонстрирующая достижения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народов Азии разных веков. За два года то этого (в 1995 г.) в Берлине и в Роттердаме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уникальная выставка «Наследники Шелкового пути, Узбекистан». В 1998 г. в Ташкенте состоялось заседание 155-й сессии исполнительного совета ЮНЕСКО, на котором выступил И. А. Каримов, первый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тметив, что благодар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ы ЮНЕСКО был создан Международный институт Центральноазиат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 Самарканде.

Великий шелковый путь еще в древностистал неким связующим звеном между Западными Восточным миром. Это еще раз подчеркивает важность торговых отношений, науки и культуры для благоприят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опрос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актуален и сегодня.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предпринимают совместные усилия для создания магистралей, способных открыть выход к морским портам,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ым можно «возродить Великий шелковый путь».

Так, в 1993 г. в рамках Европейской комиссии в Брюсселе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государств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Европейского союза. Задачей встречи стало обсуждение ряда экономических вопросов. Тогда же было рассмотрено предложение о создании ТРАСЕКА – транспортного коридора Европа – Кавказ – Азия. Был подписан договор между странами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другими странами ЭКО (Организация экономического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му вед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железных дорог, соединяющей Китай с Турцией (Пекин со Стамбулом). В 1996 г. было налажено сообщение между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ей и Ираном, способствующее увеличению торговых потоков, которые через Турцию приведут в Европу (преимущественно в Италию и Германию).

8 сентября 1998 г. работала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темой обсуждений на ней было возрождение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в конференц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ОН и Евросоюза 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из 32 стран. Было принято предложение о начале работы Комиссии, занимающейся проектом ТРАСЕКА с главным штабом в городе Баку. Все это будет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расширению торговых контактов в Центральной и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на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и в Европе.

Как много десятилетий назад Великий шелковый путь послужил диалогом между многими народами, так и сейчас он откроет культурные границы. Это, безусловно, прогрессивный путь развития цивилизаций.

Китай играет одну из главных ролей в вопросах изучения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Великогошелкового пути. Китай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планирует создание фонда в $16,3 млрд, средства которого пойдут на изучение и создание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дороги, соединяющей Китай с Европой, что и станет воссозданием знаменитой торговой магистрали. Кроме сухопутных маршрутов, ханьцы планируют развивать и морские. Эти огромные финансы выйдут за рамки только одной страны, планируется направить их на Ближний Восток, в Центральную, Южную и Юго-Восточную Азию, частично – в Европу.

Подобные шаги Китая направлены на то, чтобы вернуть стране статус мировой державы, в итоге не только вернув, но и увеличив доминирование 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Для Китая существует проблема – конкуренция регионов страны за доступ к финансированию, но это способно развить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по всей территории, уравнять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стояние провинций.

Си Цзиньпин, глава Китай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впервые выступил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о восстановлении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в Астане (Казахстан) 7 сентября 2013 г. Он предложил «объединить усилия и на основе инновационных методов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оздать экономическую зону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сделать поддерживаемые между евро-азиатскими странам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более тесными». В октябре лидер КНР выступил в индонезийском парламенте, где был поднят вопрос о морской части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Исторически морское ответвление возникло около двух тысяч лет назад. С помощью морских путей, Китай был связан с Европой через порты Индии. По нему везли также и шелк, и фарфор, и нефрит, и проходил он через малазийские, индонезийские, тайские и вьетнамские порты, через страны Персидского залива, Пакистан, Индию и Иран, включая порты Арави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и Востока Африки.

Впоследствии поддержали предложение китайцев о создании нов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Таджикистан, Шри-Ланка, Мальдивские острова, Индия и Афганистан. Таким образом, сухопутные дороги начнутся в Сиане, уйдут на восток к Ланчжоу и Урумчи, а потом повернут на юго-восток, через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и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и приведут в Европу. Мор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начнется в Гуандуне, пойдет на остров Хайнань, далее, через Индийский океан, пересечет Африку и направится в Красное и Средиземное моря. Оба маршрута встретятся в итальянской Венеции.

Как уже упоминалось ранее, 22 июня 2014 г. в Дохе (Катар), на заседании 38-й сессии комитета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при ЮНЕСКО некоторые объекты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были внесены в список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28 сентября 2015 г. в Нью-Йорке состоялась 70-я сессия Генер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ООН, тема сессии – планирование развития мира в ближайшие 15 лет. На заседаниях 70-й сессии поднимался вопрос воссоздания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Некоторые идеи

будущего развития воссоздания Пути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выглядят «фантастическими» – как например SRME (SilkRoadmapevolution) – концепция архитекторов из Италии, в основе ее лежит предложе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большого города (мегаполиса), в котором центром будет железнодорожная магистраль, соединяющая Венецию и Шанхай. Си Цзиньпин, лидер КНР, два года назад предлагал создать упомянутый ранее проект «Экономический пояс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сутью которого являются целые пути и направления, соединяющие Китай с Германией и Италией.Однако у идеи воссоздания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есть и недостатки. Если в древности и средневековье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сть народов, которые были вовлечены в торговлю, только способствовала развитию социальн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и культурных сфер человеческой жизни, то в XXI в. это может вызвать сложности, религиозные аспекты вызывают опасения. Вопрос и в экономических возможностях узловых пунктов на протяжении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ути: европейские страны в состоянии содержать целые торговые мегаполисы и, безусловно, имеют спрос на товар, но есть монгольские, афганские и пакистанские территории, которые не имеют таких возможностей.Тем не менее сегодня существуют развитыекоммуникации между странами на Великом шелковом пути в области туризма. Как упоминалось ранее, с 1987 г. существует программа ЮНЕСКО «Шелковый путь», за время существования которой была разработана интерактивная карта, демонстрирующая материальное, духовное и природное наследие Великой магистрали.Множество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как во время существования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так и после прекращения его действия, описывалистраны, участвующие в нем, товары, сам Путь и культурные аспекты, принятые разными народами и существовавшие еще долгое время. Мировая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осознает значение эт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явления, пытаясь сохранить его достижения. Многие памятники культуры на этой знаменитой магистрали были внесены в список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было организовано множество встреч, выставок и семинаров в рамках программы «Шелковый путь», которые привлекли к себе внимание множества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в области культуры. Исторически сложилось так, что благодаря торговле межкультурные контакты складываются лучше, чем во время войн и завоеваний, поэтому стал разрабатываться план по восстановлению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Редко упоминающееся в источниках морское ответвление сыграет в восстановленном пути одну из ключевых ролей. Китайс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намерено финансировать данный проект. Получив устные и письменные договоренности со мног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участниками этого процесса, КНР планиру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автомагистралей и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по направлениям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Конечной точкой, как и в древности, станет Венеция, благодаря чему статус этого города повысится как узлового торгового центра. Количество истор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этого вопроса только увеличивается, цели эт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отражают поиск положительного влияния Великого шелкового пути не только на экономику вовлеченных стран, но и на культурную и социальную сферу, а результаты позволяют убедить мировую общественность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воссоздания Пути в современном мире. Немаловажную роль в межкультур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стран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Дальнего и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европейских стран играет туризм, способствующий популяризации наследия главной торговой магистрали прошлого.Как много лет назад, Великий шелковый путь играл важную роль в культурном развитии стран, включенных в торговлю, так и сейчас этот Путь оставит неизгладимый след не только в экономике многих стран, но и в возрождении культурного достояния, созданного и создаваемого в ходе диалога разных народов.

Литература

1.Шелковый путь: программа ЮНЕСКО // Всемирная история народов и государств. URL: http: // vsemirnaya-istoriya.ru

2.Эдвард Ртвеладзе "Великий Шелковый путь",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е научн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Узбекистон миллий энциклопедияси", Ташкент.

3.Мамлева Л. А. Становление Великого шёлкового пути в системе трансцивилизацион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народов Евразии // VitaAntiqua. 1999. № 2.

4.Hansen V. The Silk Road: A New History : [англ.]. — Oxford University Press, 2012.

KOREYS XYANGALARIDA MAROSIMIYLIK

Shukurova Z.S., katta o'qituvchi
Nosirova N., SamDCHTI talabasi

The article is devoted to the ancient Korean poetry in the hyangga genre. The author analyzes its relation with the folk song and Shamanic rituals, emphasizes the strong influence of Buddhism adopted in Korea in the early Middle Ages, identifies the basic poetical motives and themes. The researcher concludes that Korean poetical tradition originates from the ancient hyangga.

Key words: poetry, hyangga, buddhism, shamanism, ritual.

Koreys xyangalarida marosimiylik Koreyaning 5000 yillik uzoq tarixiga borib taqaladi. Juda uzoq qadim zamonlardayoq Koreyada shamanizm bilan bog'liq jamoaviy marosimlar keng tarqalgan, koreys xalqi tamonidan ekin-tekin ishlari tugaganidan so'ng, mo'l hosil yig'ib olish jarayonini qo'shiq va raqslar, o'ziga xos marosimiy harakatlar orqali nishonlagan. Keyinchalik xalq musiqasi va raqslarining asosini aynan ana shunday marosimiy harakatlar tashkil qiladi.

Xalq an'analari ona tilida yaratilgan "Ona-yurt qo'shiqlari" -xyangalarda o'zgacha tus oladi. VIII-X asrlarga buddaviylik marosimlarida xyangalarning o'rni alonida ahamiyat kasb etadi, bu bir tamondan, koreys xalqi ongiga buddaviylik talimotini tezroq olib kirish yo'li bo'lsa, ikkinchi to mondan, ona tilidagi poeziyaning yozma adabiyotga kirib kelishi uchun zamin hozirlaydi. Xyangalarning buddaviylik marosimlaridagi o'rnining qay darajada ekanligi to'g'risida "Kyunyo qissasi"(1075) va "Sam Guk Yusa"(1285) asarlari guvohlik beradi.

"Kyunyo qissasi"ning 8-bo'limida 11ta xyanga ijrosi bilan diniy sutrani almashtirish ehtimoli muhokama qilingan. Bu xyangalarning koreys buddizmi targ'ibotchisi Kyunyo(917-973) aynan shu sutra ohangiga mos qilib yozgan. Ammo "Kyunyo qissasi"da sutra yoki xyanganing o'qilish jarayoni berilmagan. Qissada yozilishicha, marosim paytida erkaklar va ayollar birgalikda yig'ilib, xitoy tilidagi sutralar o'rniga koreyscha xyangalarni o'qiganlar. Shunday qilib, marosim jarayonining o'ziga o'zgartirish kiritilgan: asosiy xitoy tilidagi qismi koreyschaga o'zgartirilgan. Sutradan tashqari buddaviylik marosimining boshqa qismlari ham koreyscha xyangalar bilan almashtirilgan.

Masalan: Gul sochish Xitoyda duolar o'qish bilan bajarilsa, Koreyada esa xyangalar bilan almashtirilgan. Bu haqda M.I.Nikitinaning "Ona tilidagi qadimiy koreys poeziyasi buddaviylik rituali marosimida" nomli maqolasida batafsil malumotlar keltirilgan. [Никитина, 1982]

Koreys olimlari tomonidan ayrim xyangalar ustida olib borilgan tadqiqotlar shuni ko'rsatadiki, xyanga va o'sha paytlarda xalq orasida ijro etilgan kosmos, shaxs va jamiyat haqidagi tasavvurlarni o'zida mujassamlashtirgan ilohiy marosimlar bilan bog'liqlik mavjud. Ularning fikricha, xyangalardagi poetik motiv va mavzuni quyidagilar orqali aniqlashtirish muhimdir:

1) xyangalar bilan bog'liq bo'lgan marosimlar jarayonini tiklash; 2)marosimiy ijro etilgan xyangalardagi xususiyatlar va ularning vazifalarini aniqlash; 3) marosimlarning va xyangalarning asosiy toifalarini aniqlash. [Kim Kichung, 1996; Kim Unsong, 1986; Kim Yeol-gyu, 1984.]

Ma'lumki, marosimlar ma'lum bir maqsadni ko'zlagan holda amalga oshirilgan. "Sam Guk Yusa" asarida keltirilgan xyangalarning mazmuniga ko'ra aytish mumkinki, xyanga xalqni va davlatni boshqarish vazifasini ham bajargan. Bu xyanganing siyosiy funksiyasi hisoblangan. Shu asosda "Sam Guk Yusa" da keltirilgan marosimlarni quyidagi guruhlarga ajratish mumkin:

1)o'z shaxsiga ega bo'lmagan qiyofaga ta'sir etish marosimi;

2)dushmanni qaytarish, yo'qotish marosimi. Bu marosimning maqsadi dushman qiyofasiga ta'sir etish;

3)mavjud bo'lgan katta qiyofaga ta'sir etish marosimi;

4)qiyofaga muammoviy munosabat kasb etgan marosim. Bu marosimda qiyofa buddaning o 'zidir.

Shunday qilib, IV-V asrlarda Koreya yarim oroliga Xitoy orqali kirib kelgan buddizm mahalliy e'tiqodga ta'sir o'tkazadi, ayniqsa, qadim zamonlardan beri yovuz ruhlarni quvish maqsadida o'qilgan va ilohiy hisoblangan xyangalarni o'zlashtirib oladi.

Xyanga yoki Sanve nore-"Ona yurt kuylari" -odatda Shilla, yoki Birlashgan Shilla (IV-VIIasrlar mil. av.) poetik asarlari majmuida ona tilida yaratilgan asarlar to'plamlari ga kiritilgan. SHu bilan birga, ular o'z ichiga XX asr boshlarigacha qo'llanilgan va boshidan ikki tilli asar sifatida qabul qilingan "Tan ishlari" nomini ham olgan, chunki ona tilidagi she'riyat asosan Xitoyning Tan imperiyasi she'riyati (VII-IX asrlar) ta'siri ostida rivojlangan va unga qarama -qarshi turgan.

Koreys matnlari iduda -xitoy iyerogliflari yordamida ularning ma'nosi va aytilish ohangini uyg'unlashtirib qo'llanishi natijasida yaratilgan. Iduning yagona xat tuzimiga keltirilishi tarixi Salv Chxon(VII asr)nasri bilan bog'liq. Xyanga uning turlaridan biri -xyanchxal yordamida yaratilgan.

Zamonamizgacha xyangalardan yigirma beshtasigina yetib kelgan. Ulardan o‘n to‘rtasi “Sam Guk Yusa”(“Uch davlat zamonasidan qolgan voqealar”) tarixiy asariga kiritilgan va buddaviy rohib Iryon tamonidan VI-IX asrlarga tegishli asar sifatida e’tirof etilgan. Har bir xyanga alohida hikoya (ba’zida syujetli) bo‘lib, ularda xyanga kim tamonidan, qachon va nimaga bag‘ishlab yaratilish tarixi ham ko’rsatilgan. Taniqli koreys buddaviy rohibi Kyunyo tamonidan yaratilgan o’n bitta xyanga diniy sutralar asosida yaratilgan.

Shu bilan birga u 1075-yilda tuzilgan “Kyunyo hayotiga” ham Xyon Nyonjon tamonidan kiritilgan. Har ikkala asar Koreyada xanmun deb atalishi, qadim xitoy adabiyoti tilida yaratilganligini ko ‘rsatadi. Xyanga o ‘z ichiga to’rtdan o ‘ntagacha misrani oladi. “O‘n misrali xyangalar” (Kyunyo xyangasi ham shular toifasiga kiradi) uch baytdan iborat: ikki to‘rt misrali va ravish bilan yakunlovchi oxirgisi ikki misrali.

Ko‘rinib turibdiki, o‘sha davrlarda xyangaga boshqarish vositasi sifatida qaralgan. Xyanga yordamida boshqarish, xyanga matnining dunyoga ilohiy ta’siri mavjud, degan xulosadan kelib chiqqan. Xyanga asosida olamga o ‘zgacha qarash, “ko‘rinish tuzimi” yaratilgan. Uning asosiy mazmuni alohida shaxsning fazo va jamiyat hayotidagi o'rni haqidadir. Shu o‘rinda aytish lozimki, qadimiy koreys madaniyatida ijtimoiy barkamol shaxs o ‘rni katta bo ‘lgan. Bu jihatdan “barkamol shaxs” tushunchasi ostida jismoniy rivojlanish, sog‘lomlik, go‘'zallik, muayyan ma‘naviy jihatlar tushunilgan.

Bundan tashqari, ijtimoiy jihatlar ham ko'zda tutilgan, bunda shaxsning yordamchilari sifatida kichik qismlar ko'rsatilgan (qo‘l, oyoq, ko‘z). Har bir shaxs o‘zidan ijtimoiy jihatdan ustun turgan shaxsga nisbatan kichik hisoblangan. Mazkur zanjirning yakunlovchi bo‘g‘ini albatta, hukmdor bo‘lgan. Mavjud bo‘lgan shaxsga nisbatan ta‘sir o‘tkazish maqsadida qator she'riy matnlar ijtimoiy mavqega ega shaxslarga bag'ishlangan. (“Samguk Yusa”)

Biz yirik shaxs ko'rsatilmagan xyangalar matniga murojaat qilamiz: bular orasida “Xvaran Kinxaga oda”, “Kedr haqida qo‘shiq” koreys tilida yaratilgan va saqlanib qolgan yagona asarlar bo'lib, ular peyzaj asarlari turiga kiritiladi. Har ikkala asarda ham tabiat kuchlari ikki inson toifalari siymosida uzatilib, biri ijobiy va ikkinchisi salbiy rolni bajaradi, chunki tabiat qonuniyatida qarama-qarshilik bo‘lganidek, jamiyatda mavjud ijtimoiy pog‘onalarda insonlarning joylashuvi ham turlichadir.

“Xvaran Kinxaga oda” xyangasini ko'rib chiqadigan bo‘lsak, bu asar “Kyongok-van” bo'limiga kiritilgan bo‘lib, Chxundam haqidagi asarlar doirasida kiradi. Uchinchi oyning uchinchi kuni, hukmdor Kvinjonmun darvozasi oldidagi ayvonga joylashib, o‘zining o‘ng va so‘l mulozimlaridan qimmatbaxo kiyimlardagi yo'lovchi rohibni kim ushlay oladi deb, so’raydi. O'ng va so‘llar shu atrofda yurgan qimmatbaho kiyimlarga ega yigitni ushlab hukmdorga keltirishibdi, ammo hukmdor bu emas, deb uni qaytaribdi. Ikkinchi marotaba, o‘nglar va so‘llar oddiy kiyimdagi janub darvozasi atrofida yurgan rohibni keltirishibdi, hukmdor esa rohibdan so‘rar emish:

-Kimsan?

Rohib javob qaytaribdi:

-Men Chxundam.

-Qo'lingdagi olcha daraxtidan tayyorlangan qutida nima bor?

-Rohib javob beribdi: -Men har yili Samvaryon(gul uch)tog‘iga borib Maytreya ma’budiga qurbonlik uchun choy damlab kelaman, qutidagi choy.

-Menga ham bir piyola in’om etarsan.

-Bajonidil, deb rohib hukmdorga choy damlab beribdi. Choy tami va hidi shu qadar totli emishki, hukmdor so'rabdi:

-Bir vaqtlar men ustoz tomonidan yaratilgan “Xvaran Kunxoga kuy” sanve norening juda ma’noli ekanligini eshitgandim, shu rostmi?

-Xuddi shunday.

-Agar shu rost bo‘lsa, debdi hukmdor, menga shunday xyanga yozginki, uning yordamida xalqni qoniqtirib, hukmronlik qilishga yordam bersin.

Rohib darrov hukmdor istagini bajo keltiribdi. Hukmdorga xyanga shu qadar yoqibdiki, roxibga hukmdor uztozi lavozimini beribdi. Rohib ikki bor bukilib rahmat aytibdi va sovg‘ani qabul qilibdi.

Mazkur xyangani tahlil qilishda quyidagi tartibga amal qilamiz:

1) xyanga bilan bog'liq bo ‘lgan udumni tiklanishi;
2) marosimdagi poetik matn (xyanga) tavsifi va funksiyasini aniqlash;
3) marosim va poetik matn asosiy toifalari doirasini aniqlash;
4) marosimda xyanga yaratuvchi shoir rolini aniqlash .

Shunday qilib, asardagi Chxundam ikki xyanga muallifi deb tan olingan. E’tibor qilinsa, asarda ko'rsatilgan hikoyat joyi ham bejiz emas, bu qadimiy hukmdor olamga chiqishi marosimining bir qismi bo'lib, rohib malakasini tekshirib, taqdirni bilish marosimini yoritish ko'zda tutilgan.

Voqea sodir bo‘lgan joy ham jamiyatga ta’sir etadi. Kvijonmun darvozasi Shimoldan janubga qaragan bo‘lsa, hukmdor bo‘lsa sharq-g‘arb yo‘nalishiga yuzlanganligini e‘tiborga olsak, rohib va hukmdor kesishgan joyda marosim o‘tkazish joyi rejalashtirilgani ma‘lum bo‘ladi.

Yana bir savol tug‘iladi: hukmdor yaxshi kiyingan(yonbok) rohibni talab etgan edi, ammo nima sababdan Chxundamni “pxinaviy”[135] holatida qabul qildi?

O ‘lashimizcha, hukmdor roxibga nisbatan ikki xil talab qo‘ygan, biri - yo‘nalish janubdan shimolga, ikkinchisi –ustki libos. Birinchi roxib hukmdor tomonidan inkor etilishi, marosim bajaruvchisiga nisbatan alohida talab qo‘yganligini va bu talab hukmdorga oddiy insonlarga ma’lum bo‘lmagan bilim asosida tanlanishidan dalolat beradi. Yana biri, rohib qo‘lidagi olcha daraxtidan tayyorlangan choy qutisi bo‘lib, hukmdor bu narsani ko‘rib qanchalik xursand bo‘lganini eslaylik.

Bu kabi predmatlar koreys mifologiyasida, ayol jinsiy organi ramzi bo'lib, chuqur qorong'u idishni ahglatadi. Marosim bahorda amalga oshirilishini e’tiborga olsak, yerga kelgusi hosilni keltirishga yordam berishi ayniqsa dolzarb bo‘lib qoladi. Qutining erkak kishining qo‘lida ekanligi esa, uning o‘lim-tug‘ilish orasida ekanligidan dalolat beradi. Chxundam hukmdorga to‘g‘ri keldi, zero uning janub tog‘laridan uch gul davomidan kelishi bundan dalolat bermoqda.

Hukmdor sonlar mazmunidan xursand bo‘lgan bo‘lishi ham mumkin, uch gul oyning uchinchi kuni. Uchinchi oy Chxundamning ilohiy kuchlar bilan aloqa qilishida ikki predmet sinaldi. Bu bir piyola choy va “Xvaran Kunxaga kuy” xyangasi, oxirgisi haqida hukmdor eshitgan edi.

Shundan so‘nggina Chxundam ilohiyligiga ishonch hosil qilinib, unga hamjamiyatga ta'sir etuvchi xyanga yaratish topshiriladi. “Fuqoralarni boshqarish kuyi ” marosimining keyingi bosqichi edi. Xyanga mazmuniga ko‘ra, va undagi realiyalarning qiyosiy tahlili ko’rsatishicha, asar xronologik tartibi buzilgan, ya’ni muallif kuz va bahor ayyomlarini qiyoslagan, muallif tafakkuri quyoshga tenglashtirilgan.

Bundan kelib chiqadiki:

a)Chxundam quyoshga yaqin ekan;

b)Maytreyadan boxabar ekan;

v)Chxundam buyuk poetik talantga ega.

Xulosa qilib aytish mumkinki, Koreya mamlakati tarixida butun koreys yarimoroli ustidan hukmronlik o‘rnatgan yagona davlat Birlashgan Shilla o‘zaro adovatda bo‘lgan uch davlat Koguryo, Pekche va Shilla o‘rnida vujudga kelgan. Yangi tuzilgan davlat hukmdorlarining dehqonchilik, hunarmandchilik va tashqi savdoni rivojlantirishga qaratilgan siyosati madaniyatning barqarorlashuviga olib keldi. Aynan shu zamonda raqs san’ati o‘zga davlatlar bilan hamkorlik natijasida gullab yashnadi: uch davlatning, etnik va til jihatidan yaqin bo‘lgan xalqlarning birlashishi va Shillaga xos bo‘lgan san’at an’analari rivojlanishiga asos bo‘ldi. Bu hol aynan so‘z san’ati, ya’ni barcha tamonidan tan olingan xyanga misolida ayniqsa namoyon bo‘ladi.

Xullas, barcha xyangalar inson, jamiyat va fazoni birlashtiradigan qandaydir udum-an’analarni mujassam etgan. Aytish mumkinki, koreys mumtoz she’riyati an’analari aynan qadimiy xyangalardan boshlangan. “Samguk Yusa”da keltirilgan xyangalar tahliliga asoslanib quyidagilarni belgilash mumkin:

1) xyangalarning bir -biriga o‘xshamasligiga qaramasdan, ko‘pchilik “Samguk Yusa”da keltirilgan xyangalarda qandaydir yagona dunyo ko‘rinishi aks etgan;

2) Ular afsonaviy poetik xarakterga ega;

3) Uzoq sharqda davlatchilik asosi deb sanalib kelingan fazoviy tartib ulug‘vorligiga qaratilgan olam haqidagi tasavvurlar tuzimini o'z ichiga oladi.

Foydalanilgan adabiyotlar:

1. Никитина М. И. Древняя корейская поэзия в связи с ритуалом и мифом. М.: Наука, 1982. 327 с.

2. Никитина М. И. Поэтическое слово в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 Классическая поэзия Индии, Китая, Кореи, Вьетнама, Японии. М.: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977. С. 388-389.

3. A History of Korean Literature / ed. by P. H. Le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9. 580 p.

4. Kim Kichung. An Introduction to Classical Korean Literature. From Hyangga to P’ansori. N. Y. – L.: M. E. Sharpe, 1996. 231 p.

5. Kim Unsong. Hyangga, the Oldest Korean Songs. Seoul: One Mind Press, 1986. 148 p.

6. Kim Yeol-gyu. Hyangga // Korean Poetry. An Anthology with Critical Essay. Seoul: Korean Culture & Art Foundation, 1984. P. 19-28.

[135] eski kiyim va ignani ko’p ko’rgan, degan ma‘nolarni bildiradi.

7. 삼국 유사. 서울: 소문문화사 (Самгук юса. Сеул: Сомун мунхваса, 1996. 564 с.).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TOURISM IN UZBEKISTAN

Nuriddinova N.B.
Teacher of English at "Silk Road" International University of Tourism
Rashidov R.
Student of "Silk Road" International University of Tourism

Annotation

Tourism is one of the fast-growing and high income-generating industries in the world, which contributes to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socio-economic, cultural and spiritual relationships. Uzbekistan pays considerable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tourism as one of the leading countries in the world, having rich cultural and historical potential. Therefore, the government of Uzbekistan works consistently for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is sector. This article investigates developments and prospects of tourism in Uzbekistan.

Keywords: *tourism industry, tourism infrastructure, GDP, World Travel&Tourism Council*

Introduction

Tourism has become one of the biggest industries globally making up to 10% of world GDP and employment. It is a vital industry for the economy of many communities and countries as it supports nearly 313 million jobs globally. Since tourism industry is one of the fastest-growing businesses in Uzbekistan,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Uzbek economy. According to the World Travel&Tourism Council, Uzbekistan generated nearly UZS6,703.4bn of contribution to its GDP in 2017 and it is forecast to increase by UZS12,407.8bn from 2018 to 2028. What's more, in 2017 Travel and Tourism supported 305,000 jobs for employment statistics in the nation. These figures prove how tourism is integrating into the indispensable part of the economy of Uzbekistan. The following diagram shows the yearly statistics of total changes in travel&tourism GDP and it is obvious that tourism sector's total GDP is forecast to increase significantly until 20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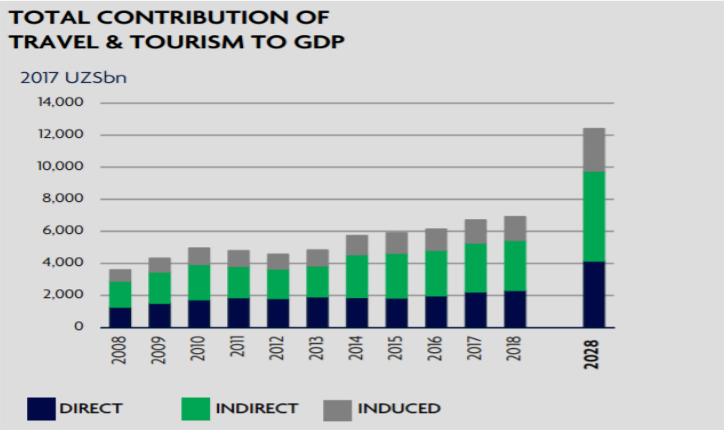


Figure 1: Total contribution of travel&tourism to GDP in Uzbekistan

It should be noted that, about 1 million 800 thousand tourists visited Uzbekistan in 9 months of 2017, which is 17% more compared to the same period in 2016.

Agitations in tourism sector

Our government subsidizing both public and private touristic businesses to augment the scope of tourism industry in the country. For example, the first tourism-based university known as Great Silk Road Tourism University opened in Samarkand in 2018 in order to prepare certified and professional employees for touristic industry. One of the advantages of this educational establishment is that it is recognized globally which means that everyone regardless of nationality, race and ethnicity could enroll on hospitality management courses conducted in English by professors from different countries. Many more such changes are taking place to develop the touristic industry further in our country.

The 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Shavkat Mirziyoyev "On measures of ensuring accelerated development of the tourism industry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f December 2, 2016, served as an important factor in ensuring further development of the tourism sector, granting tourism the status of strategic sector of economy, effectively using tourism potential in the regions.

Over the past perio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f the Head of Uzbekistan, programs aimed at improving the tourism infrastructure in Khorezm, Bukhara, Samarkand, Surkhandarya, Kashkadarya, Jizzakh and Fergana regions, the organization of new tourist routes and wide promotion of tourism potential of the regions have been adopted. In particular, activities are being held on creation of round-the-clock tourist zones "Ancient Bukhara" and "Samarkand-City" in Bukhara and Samarkand with an area of 10 hectares each, which will be engaged in serving tourists.

Tourism exhibitions that are held abroad are important. Tourism organizations of Uzbekistan are organizing relevant events and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exhibitions in such large cities of the world as Berlin, Istanbul, London, Madrid, Moscow, Paris, Riga, Tokyo, Tehran and others in order to popularize our national cultural heritage, further attract foreign tourists and develop domestic tourism. This, of course, gives its results, contributes to the growth of the flow of foreign tourists to Uzbekistan. The prospects for the development of tourism are constantly expanding, and large-scale projects are being implemented in various areas. In particular, such new tourism destinations as mountaineering, horses, camels and bicycles traveling, off-road tours, fishing, rafting, heli-skiing, geotourism, educational tourism, medical tourism and others are becoming popular in recent years.

Conclusion

In our nation, coordination of development and monitoring of sale national and regional programs of complex development of internal, entrance and outbound tourism, the accelerated development of the wide range of types of tourism, attraction of foreign investments, and also credits and grants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other organizations in development of the tourist infrastructure all raise the profile of our tourism industry in the world.The rich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centuries-old traditions of the Uzbek people, the unique architectural monuments of ancient cities of Uzbekistan will continue attracting many tourists from abroad.

References:

1. World Travel&Tourism Council report. Economic Impact, Uzbekistan (2018)
2. World Tourism Organization. Uzbekistan Tourism Insight (2014)

МАРКАЗИЙ ОСИЁ МИНАИТЮРАСИ ВА КАМОЛИДДИН БЕҲЗОДНИНГ МИНИАТЮРА САНЪАТИГА ҚЎШГАН ХИССАСИ

Ахмедова Ш.Ю.
Бектемир тумани Халқ таълими бўлими методисти

Аннотация

Ушбу мақолада Марказий Осиё миниатюраси ҳақида, темурийлар даврида миниатюра санъатининг ривожи, Ҳирот миниатюра рангтасвири мактабининг энг ёрқин вакили Камолиддин Беҳзоднинг ижодий фаолияти ҳақида ёритилган.

Annotation

This article describes the miniatures of Central Asia, the development of miniature art in the period of Temurids and the creative work of the brightest representative of the Herat miniature school, Kamoliddin Bekhzod.

Марказий Осиё миниатюраси – Шарқ халқлари кўп асрлик санъати тарихининг қизиқарли сахифаларидан биридир. Тасвирий санъатнинг алоҳида тури сифатида ўз табиатига кўра у шарқ классик шеърияти таъсирида ривожланган китоб безаги ҳисобланади[136].

1405 йилда Темурийлар пойтахтининг Самарқанддан Ҳиротга кўчирилиши, айниқса ҳиротлик усталар учун жуда қулай шарт-шароитлар яратди. XV асрнинг иккинчи ярми – XVI аср бошидан Хирот мактаби Ўрта Шарқда миниатюра рангтасвири ривожининг чўққиси бўлди. XV аср бошида миниатюра тасвирий воситалари Табриз ва Бағдод мактаблари усталарининг маконни акс эттиришдаги ютуқлари (маконни тасвирлашнинг қуйидан юқорига қараб кенгайиб борувчи янгича тамойили) билан Шероз рангтасвирининг текисликни тасвирлаш усулининг уйғунлашуви ҳисобига бойиди. Ушбу мерос XV асрнинг иккинчи ярмидан бошлаб миниатюранинг янада юксакликка интилиши учун замин бўлди.

Шу даврда яшаб ижод этган Комолиддин Беҳзод, Махмуд Музаххиб, Мухаммад Мурод Самарқандий ва бошқа мусаввирлар миниатюра санъатининг нодир намуналарини яратиб

[136] Ш.Шоёқубов. Замонавий Ўзбекистон миниатюраси усталари. // Ж.Санъат. 2015. №2

қолдирдилар. Булар орасида айниқса, Ҳирот миниатюра рангтасвири мактабининг энг ёрқин вакили Камолиддин Беҳзоднинг фаолияти (1466-1535) диққатга сазовордир. Буюк миниатюрачи мусаввирнинг ижодий шаклланиши ва камолга етиши Темурийлар сулоласининг энг сўнги йирик вакили Султон Ҳусайн Байқаро (1438-1506) ҳукмронлик қилган даврга тўғри келади. Бу давр санъат ва маданият чинакамига гуллаб-яшнаган давр эди.

Шарқ уйғониш даврининг етук санъаткори бўлмиш Камолиддин Беҳзод Ҳиротда туғилиб, шу ерда ўсиб, мусаввир сифатида танилган. Тарихчиларнинг ёзишича, ёш Беҳзодни Султон Ҳусайннинг китобдори Мирак Наққош ўз тарбиясига олган. Беҳзод мусаввирликни Пир Сайид Ахмад Табризийдан ўрганиб, ўз ижодида мусаввир Халил Мирзо Шоҳрухий бадиий услубини давом эттирган. Ёш мусаввирнинг камол топишида давлат арбоби, шоир Алишер Навоийнинг мураббийлик фаолияти ҳам ҳал қилувчи аҳамиятга эга бўлган. Алишер Навоий ҳомийлигида ташкил этилган “Нигористон” маърифий-маданий марказига Хусайн Байқаро кутубхонасида иш фаолиятини бошлаган. 1507 йил Хуросон Шайбонийхон қўлига ўтканидан сўнг Бухорога кўчиб келган ва шу ерда (1522й) яшаб ижод қилган ва ўзининг машҳур “Шайбонийхон портрети”ни яратган. Бундан ташқари у бир нечта машхур инсонларнинг портретларини ишлайди. Шоирлар асарларига ажойиб, нафис иллюстрациялар яратади. Буюк А.Навоийнинг ғамхўрлигида камол топган Бехзод Саъдийнинг “Бўстон”, “Гулистон”, Низомийнинг «Хамса», Хисрав Дехлавийнинг «Хамса», Шарофиддин Али Яздийнинг «Зафарнома» асарларига кўплаб суратлар чизган. У Ўрта Осиё миниатюра мактабининг ривожига катта таъсир кўрсатди.

Рассом анъанавий маиший лавҳалар, уруш манзаралари тасвири, учрашувлар, расмий қабул маросимлари кабилар билан бир қаторда масжид қурилиши, ариқ қазиш, боғ бунёд этиш каби мавзуларда асарлар яратди. Шунингдек, замондошларининг қиёфалари акс этган портретлар ишлади. Беҳзоднинг имзоси қўйилган асарларнинг сақланиб қолган асл нусхалари орасида Саъдийнинг “Бўстон”, (1488-1489, Қоҳира, Миллий кутубхона), Атторнинг “Мантиқ ут-тайр” (1483, Нью-Йорк, “Метрополитен” музейи), Низомийнинг “Хамса”си (1442, Лондон, Британия кутубхонаси) қўлёзмаларига ишланган миниатюраларни кўрсатиш мумкин.

Беҳзод ўз ижодида ниҳоятда юксак чўққиларга ва мукаммалликка эришиб, маҳорат жиҳатдан барча замондош миниатюрачилардан ўтиб кетди. Унинг асарларини Эроннинг қадимги афсонавий суръатлар алъбоми - “Аржанг” билан қиёслашар, рассомнинг ўзини эса “иккинчи Моний” деб эъзозлашарди. Энг мукаммал суръаткаш ва рангтасвирчи бўлган Беҳзод ўзидан илгари яратилган барча зўр усулларини умумлаштириб, тасвирийликни ўрта аср услуби доирасида, кучли уйғунлик ва мукаммалликка етказиш борасида янгича воситаларни топа билди. Беҳзоднинг янгича усуллари ифодалиликнинг янги шаклий тасвир воситаларини излашда ва миниатюраларнинг мазмун жиҳатидан кенгайтиришда намаён бўлди.

Меъморлик иншоотлари ва фигуралар шаклларини кичрайтирган ҳолда чизган Беҳзод расмдаги деталлар ўртасида керакли нисбатни топди, тасвир доираларини анча кенгайтириб, макон масаласини ҳал этди. Композиция қурилишининг геометрик усулларини ва персонажлар фигураларини доира, учбурчак, эллипс ёки диоганал бўлиб жойлаштиришни жорий қилиб, рассом хаёлий ҳажмлиликка, кенгликка, суратнинг ягона маромга изчил бўйсунишига эришди.

Ҳирот мактабининг улкан ижодий ва ижтимоий тажрибаси миниатюрада янги ғоялар-у, мавзуларнинг пайдо бўлишига туртки бўлиб хизмат қилди. Олдинига улар ғаройиб, кўпинча зукколик билан илғаб олинган топилмалар, анъанавий саҳналар, композицияларга гўёки шунчаки йўл-йўлакай қистириб ўтилган ҳаётий турмуш лавҳаларидан иборат эди. Эстетик қадриятларнинг асосан феодал жамиятининг зодагонлар қатлами турмуши билан боғланган анъанавий бошқаруви Беҳзод ижодида кенгайди – унинг асарларида оддий меҳнаткаш, умуман инсон зотига нисбатан алоҳида қизиқиш орта борди. Бу майл тобора чуқурлаша бориб, мавзуларни танлашда анъанавий сюжетларда диққат-эътибор объектининг ўзгаришига сабаб бўлди. Масалан, “Доро чўпонлар орасида” (Саъдийнинг “Бўстон”и, 1448 йил) саҳнаси диққатга сазовор бўлиб, бу миниатюра марказида ҳайбатли шоҳ эмас, балки қоидаларга хилоф равишда ҳукмдорга таъна сўзлари билан мурожаат қилишга журъат этган чўпон олган.

XV-XVI асрларда рассомлар тарихий йилномалар, табиий-илмий соҳадаги, авлиё-анбиёлар ҳаёти ҳақидаги асарларни безашган, айниқса, Фирдавсий, Низомий, Саъдий, Жомий, Навоий асарларига талаб катта бўлган.

Ҳукмдорни улуғлаш, унинг ҳарбий шавкати (ҳарбий жанглар, ов), давлат донишмандлигини (оқил кишилар билан фалсафий мавзулардаги суҳбатлар ва мунозаралар) мадҳ этиш мақсадларига

хизмат қиладиган мавзулар, шунингдек, саройдаги серҳашам базмлар ва зиёфатлар суратлар учун сюжет қилиб танланарди[137].

Беҳзод устоз санъаткор сифатида Ҳирот ва Табризда бир қанча шогирдларни тарбиялаган. Қосим Али, Дарвеш Муҳаммад, Мақсуд, Музаффар Али, Маҳмуд Музаҳҳиб каби шогирдлари Беҳзод анъаналарини Ўрта Шарққа ёйиб, Беҳзод миниатюра мактабини шакллантирдилар.

Улуғ мусаввир Ўрта Шарқ халқлари орзу умидларини акс эттирувчи мавзуларга ўзига хос янгилик киритган ҳолда, дунёнинг гўзаллиги, ҳаётнинг серқирралигини акс эттирган. Камолиддин Беҳзод Табриз мактаби ютуқларини ижодий ўзлаштириб, инсон ва табиат уйғунлигини ёрқин бўёқларда гавдалантирган.

Камолиддин Беҳзод миниатюралари умуминсоний кечинмалар билан йўғрилган. Унинг ўтмиш ҳодисаларини, аждодларимиз турмуш тарзини акс эттирувчи миниатюралари кўҳна тамаддун дунёсига очилган йўлдир. Унинг ижоди тасвирий санъатдаги юксак чўққилардан бири сифатида Мовароуннаҳр, Эрон, Туркия, Афғонистон, Покистон мусаввирларини оҳанрабодек ўзига жалб этиб, уларни янги ижодий парвозларга илҳомлантириб келмоқда.

Адабиётлар:

1. Ш.Шоёқубов. Замонавий Ўзбекистон миниатюраси усталари. / /Ж.Санъат. 2015. №2

2. Э.Исмоилова. Беҳзод ва Шарқ миниатюра санъати. / /Ж.“SAN’AT”. – Тошкент, 1998. - №1-3. - Б-17-19

3. Пугаченкова Г.И., Галеркина О. Миниатюри Средней Азии. - Москва: “Изобразителное искусство”, 1979й. – С.206.

4. Мадраимов.А., Норматов Н. Шарк миниатюра мактаблари. - Тошкент: Ғафур Ғулом номидаги Адабиёт ва санъат нашриёти, 1989.- Б.183.

ЎРТА ОСИЁ КАШТАЧИЛИК САНЪАТИ ТАРИХИ

Мадреймова Н.И.
Амалий санъат ва ҳунармандчилик
тарихи давлат музейи етакчи мутахассиси

Азалдан Ўрта Осиёда гўзалликка интилиш, яшаш жойлари, хоналарга, оддий буюмлар ва кийимларга ҳам сайқал бериб, безатиш анъанавий одат бўлган. Каштачилик – Ўзбекистон амалий безак санъат турлари орасида ўзининг қадимий анъаналарига эга бўлган санъат тури ҳисобланиб, Ўрта Осиёнинг лирик савдо ҳунармандчилик марказлари ва қишлоқларига кенг тарқалган. Санъатнинг ушбу тури ўзининг поэтик ранг-баранглигини сақлаб қолиши билан бирга халқ орасида қадрланиб, ўз моҳиятини йўқотмади.

XIV – XVасрларга мансуб миниатюралар орқали каштачилик санъати жуда қадимдан ривожланганлигини кўриш мумкин. Испан элчиси Руи Ганзалем де Клавихо Амир Темур саройида ўзбек миллий кашта безакларини кўрганини кундалигида ёзиб қолдирган. Миниатюра устаси Камолиддин Бехзод ҳам “Зафарнома” асарига ишлаган “Темур тахтда” миниатюрасида чодирга ишланган каштани акс эттирган.

1994 йилда машхур олим Дамбровский Германия давлатининг Штутгард музейида Ўзбекистоннинг “Ипак йўли меросхўрлари” кўргазмаси лойихасини ташкил қилади. Бу кўргазма асосида рус ва немис тилида каталог каталог чоп этилган. Каталогда Ўрта Осий санъати ҳақида мақола бўлиб, унда сўзаналарнинг яратилган йили ёзилмаслиги, фақатгина 3 та сўзананинг яратилиш йиллари маълум эканлиги ҳақида маълумот берилган. Улар қуйидагилардир:

1. XVII тикилган сўзана.
2. XVIII асрда яратилган сўзана.
3. XIX аср бошларида Бухоро амири Саид Амир даврида яратилган сўзана.

Энг қадимги сўзана 1827 1832 йилларда яратилган деб ёзилган. Буни аниқлаш учун олимлар Нуротага 1937 йилда экспедиция ташкил қилишади. Бухоро XVI XVII асрда яратилган кашталар унга анъана тўғри келмайди. Ундаги нақш кўза ва унда гул билан тасвирланган. Бу нақшлар кейинчалик Бухоро, Нуротада кам учраган. Бу анъанага хос бўлмаган нақшлар деб ҳисобланади. Анъанага

[137] Э.Исмоилова. Беҳзод ва Шарқ миниатюра санъати. / /Ж.“SAN’AT”. – Тошкент, 1998. - №1-3. - Б-17-19.

хосларини нақшлари, композицияси, ранглари матоси бир бирига яқин ва ўхшаш бўлган. Анъанага хос кашталар фақат, 3 та:

1. 1809 йилда яратилган кашта.
2. 1827 32 йилларда яратилган кашта.
3. 1865 йилда яратилган деб ҳисобланади.

Ўзбек каштачилиги қўшни халқлар каштачилиги таъсирида бойиди ва ривожланди. Ўзбек кашталарига эътибор берсак, унда ҳинд, хитой, рус, қозоқ, қирғиз ва тожик каштачилик санъати усулларини учратамиз. Каштачилик санъатида ҳар бир миллатнинг ўзига хос энг кўп қўллайдиган нақшлари бўлади. Ўзбек кашталарида ўсимликсимон, геометрик ҳамда гул нақшлари қўлланилади.

Бадиий каштачилик – амалий санъатнинг муҳим кўринишидан бири бўлиб, ўзбек ҳалқининг турмуш тарзи ва ҳаёти билан чамбарчас боғлиқдир. Оилада кашта тикиш билан аёллар шуғилланишган. Қадимий анъана ва маҳаллий аҳоли одатига кўра, ўзбек қизлари ўзларининг келинлик сепларига ҳар ҳил каштачилик буюмлари, яъни дастрўмол, парда, белбоғ, сумка, нимча, жойнамоз, гулкўрпа, кирпич, чойшаб, кийим безаклари, бош кийимлари, ўнга яқин турли сўзаналари бўлиши керак бўлган. Тўйда куёвнинг қариндош-уруғларига келин ўзи тиккан буюмларини совға қилган. Тўйдан олдин сеп ёйиб кўргазма қилиниб, бу келиннинг чеварлигини, меҳнатсеварлигини намойиш этиб, кашта қанчалик нозик, чиройли бўлса юқори баҳоланар эди. Шу сабаб, қизларга кашта сирини ёшликларидан, 6-7 ёшидан бошлаб ўргатилиб, улар уч-тўрт йилдан кейин мустақил кашта тикишни бошлаганлар.

Ўтмишда кашталар оқ ва табиий малла шойи, адрас, бахмал матоларга тикилган, кейинчалик сатин, шойи бахмалга тикиладиган бўлди. Иш жараёнида улар ўз махоратларини оширишган, бир-бириридан ва катталардан авлодлар тажрибасини ўрганишган. Халқ бадиий ҳунармандчилик маҳсулотлари фақат бизнинг мамлакатимизда эмас, балки чет мамлакатларда ҳам чексиз талаб қилинади. Ўзбек каштачилик санъати нафақат мамлакатимизда балки чет элларда ҳам шуҳрат қозонган. Ўзбек халқ усталари қўллари билан тикилган сўзана, гулкўрпа, зардевор, чойшаблар Белгия, Америка Қўшма Штатлари, Ҳиндистон, Афғонистон каби мамлакатларнинг санъат ихлосмандлари уйларидан жой олган. Ҳозирги кунда ҳам каштачилик санъати намуналари ўзига хос гўзаллик, нафис безакларининг ранг-баранглиги билан кишини ҳайратга солиб келмоқда.

Кашталар ўзининг тикилиш теҳникаси, расмларининг композицияси ва ўзига хос гуллари билан бир-биридан фарқ қилади. Хилма-хил манзарали чойшаблар ранг-баранг гулларга жуда бой бўлган. Баъзан улар сидирға гулли қилиб, четларига жияк тикилади.

XIX асрнинг иккинчи ярмигача бўлган қадимги ўзбек каштаси кейинги даврнинг кашталарига нисбатан жуда сергул бўлиб, деярли очиқ жойи қолмаган. Шунинг учун қадимги кашталарнинг матоси сира кўринмаган. Ҳар бир буюмнинг кашта безаклари ўзига хосдир. Масалан, чойшабларнинг тўрт чеккасига кашта тикилган. Ўртаси бўш қолган; жойнамознинг уч томонига кашта тикилиб, олд томонига меҳробнинг тасвири туширилган; майда буюмлар ҳар жойнинг таомилига кўра, ўзига хос гуллар билан безатилган.

Кашта безагининг асоси гулдан иборат бўлиб, уларнинг ўртасига ёки хошиясига чирмашган гул шохлари тикилади, бошқа жойлари жимжимдор гул барглар, гул буталари билан қопланади. Гуллик безаклар билан бирга йирик кашта тикилган буюмлар – сўзана ва палакларда турли-туман қушлар, уй-рўзғор буюмлари (пичоқ, шамдон), қуёш, ой, юлдуз каби фазовий жисмлар ҳам тасвирланади.

Бизгача етиб келган қадимги ўзбек кашталарининг кўпи оқ бўзга ёки сарғиш маҳаллий пахта ипидан тўқилган “малла”га тикилган. Кейинги пайтлари яратилган кашталарда ҳар хил рангдаги (айниқса қизил ва сариқ) матолари ишлатила бошланган. Ўзбек каштачилигининг асосий қуроли нина, ангишвона, илма бигиз, чамбарак, керги ва “попур машина”дир.

Каштанинг ўзига хос хусусияти унинг кўриниши, қўлланиши билангина эмас, балки ишланган жойи билан ҳам ажралиб туради. Ҳар бир вилоятнинг орнаменти ўзига хосдир. Ўзбекистон худудида 11 та каштачилик мактаби шаклланган бўлиб, Нурота, Бухоро, Самарқанд, Шаҳрисабз, Тошкент, Фарғона каштачилиги каби мактабларидир. Мактабларнинг ҳар бири ўз жиҳати ва қонун-қоидасига эга. Сўзанадаги кашта гуллари ва ранглар ўз рамзий маъносига эга. Кашталарда акс этган нақш рамзларига беэътибор қарашмаган, айнан турли ҳилдаги сеҳр, тумор кучига эга бўлган бу рамзлар ёш келин-куёвни гўшангасини ёмон кўзлардан асрашига ишонишган. Шу билан бирга хонадонда тўй кети узилмасин, ҳурсандчилик давомий бўлсин деб, сўзанада атайин каштани якунламай бўш қолдиришган.

Кашта гулини тикишда, айниқса чок ҳилига алоҳида аҳамият беришган: “босма” – сатҳи бир ён бошга қараб тикилади; “юрма” – занжир чокидан кўпроқ фойдаланишган. XIX аср кашталари одатда пахта матоси –карбос ёки малла, табиий сариқ рангдаги матога ва рангли ипак матосига тикилган.

Матони, ипакни бўяшда доимо табиий ўсимликлар рангидан: шафрон, рўён, тухмак, индиго ва хоказо ўсимликлар рангидан фойдаланишган.

XIX асрга келиб сўзана кашталари аллақачон ўз худудига қараб – мактаб бўлиб шаклланди ва Ўзбекистон кашталарининг умумий мавзуси бўлиб беҳад даражада ўсимликларга бой, ўта чиройли нақш гуллари шаклланди.

Бухоро кашталарига ҳос жиҳат бу – думалоқ гуллар ингичка шохга тикилиши, сўзана атрофи бўйлаб гулли шоҳлар билан қуршаб тикилишидадир. Одатда нақш гули бир-бирига кескин рангларда “босма” ва “юрма” чокида тикилади.

Энг қадимги кашталар Нуротага оид бўлиб, Нурота кашталари тўрсимон композицияда бўлиб, турли гулларнинг тикилиши билан ажралиб туради. Ўсимлик нақшлари гўё баъзи парандалар, жонзодлар: балиқ, товус, қушлар тасвири билан жонлангандек бўлади. Кашта асосан “босма” чокида жуда нафислик билан тикилиб, гул атрофи “юрма” да босилади.

Яна бир кашта мактаби Фарғона водийсига оид бўлиб, Андижон каштаси тўқ яшил сатинга ипакда “босма” чокида тикилган бўлиб, эни ва бўйи бўйлаб, тўпбаргуллар тикилган. Тўпбаргул орасига “чиғир”, “пичоқ” рамзий гуллари ҳам тикилган.

XIX аср охирида яратилган Тошкент ойпалаги, сўзаналарида қаътий тартибга риоя қилиниб яратилган. Масалан, катак ичига юмалоқ “тўлин ой” тикилиб, ҳар бир ой гардиши – ўткир қиррали барглар билан ўралган. Ранглар ечими чегараланган: асосий ранг олча ранги бўлиб, қўшимча сариқ, қора, кўк ва ҳиёл бинафша ранг қўлланган. Кашта бўз матога “босма”, “юрма” чокларида тикилган.

Тошкентда яратилган йирик безакли кашта намунаси азалдан иккита “палак” ва “гулкўрпа”да қўлланиб келинган. “Палак” сўзи араб тилидан таржима қилинганда “осмон”, “фалак гардиши” маъносини англатади. Номига монанд “Гулкўрпа” гулларни акс этувчи, чаманзорни ипак кашта билан тикиб, ёш келин-куёвларни тўшагига ёпишда қўлланилган.

XX асрда яратилган Самарқанд марказига тегишли каштачилик намуналарининг ўзига ҳослиги шундаки, бошқа мактабларга нисбатан йирик гулда тикилганлигидадир. Гул атрофи сергажак ниҳолдан “қўчқор шохи” нақшини тикилиши билан фарқланади. Гуллар энига ва бўйига тартиб билан жойлашлаштирилган. Ранглар борасида, Самарқанд сўзаналари бир-биридан кескин фарқ қилувчи 4-5 хил ранглар: жигарранг, пушти, сарғиш, қора ранглар билан чегараланиши ва оқ матога тикилиши билан ажралб туради. Самарқанд сўзанасига “босма” чоки хос бўлиб, мато сатҳи бўйлаб бир ҳилда тикилади.

Жиззах каштаси сарғиш пишиқ пахта матосига тикилган. Композиция жиҳатидан Самарқанд сўзанасига нисбатан яқин. Йирик, доира қилиб тикилган гул гардишига “илон изи” кўринишида ҳошия тортилган. Сўзана бурчаклари очиқ бўлиб “учбурчак” тумор тўрт бурчакдан ўрин олган. Каштада “босма” ва ва икки томонли “илмоқ” чоки қўлланган.

Сурхондарё вилоятига тегишли 1963 йилда яратилган “Джойпуш” –сўзана намунаси бўлиб, жигарранг пахта матосига тикилган. Каштадаги муҳим асослардан бири “гултожихўроз” – хўроз тожи саналиб, марказий майдонда “тўпбаргул” ва “бодом” нақш гули кетма-кетлик билан эркин тарзда жойлашган, матонинг қолган қисмига кашта берилмай бўш қолдирилган. Ранг ечими нисбатан содда бўлиб, оқ, қора, оч жигаранг ва билинар билинмас яшил ранглардан иборатдир.

Шаҳрисабз каштасини – бой, турфа рангдаги гуллар нақши ишлатилиши билан ажралиб туради. Кашта тикишда шунингдек “канда хаёл”, “ироқи” чокларини ҳам қўллашган. Шаҳрисабз сўзанаси мато бўйлаб жимжимадор гулларнинг ўта майда чокда тикилиши билан диққатни ўзига тортади. Кулранг пахта матосида бир – бирига кескин қизил ва яшил рангдаги нақш гулининг тикилиши эътиборни тортади.

Ҳозирги кунда ҳам миллий каштачилик санъатининг намуналарида анъаналар давом эттирилиб, ўзининг нафис, бежирим, гўзал, безакларининг ранг баранглиги билан барчани ҳайратга солиб келмоқда.

Адабиётлар:

1. Хакимов А.А. Искусство Узбекистана: история и современность; Ин-т искусствознания, АН РУз.-Т.: Изд-во ж-ла “San’at”. 2010.-504с
2. Ҳакимов А.А. Ўзбекистон санъати. - Тошкент: “Шарқ”, 2001. – Б.238.
3. Рассудова Р. Ўзбек каштачилик санъати. Давлат бадиий адабиёт нашриёти. –Тошкент, 1961.

ВЕЛИКИЙ ШЁЛКОВЫЙ ПУТЬ И ЗАРОЖДЕНИЕ ДРЕВНЕХОРЕЗМИЙСКОЙ ЦИВИЛИЗАЦИИ

Султонова С.Ю.
СамГИИЯ

«Всякое государство – продукт естественного возникновения как и первичное общение: оно является завершением их. Понятие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связано с представлением о государстве, так как право, служащее мерилам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является регулирующей нормой политического общения». (Аристотель)

Истоки формиров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на территории Узбекистана относятся к глубокой древности. В речи на торжественном заседании посвященном 2500-летию Хивы первый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И.А.Каримов отметил, что «основы узбек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были заложены 2700 лет назад именно в Хорезмском оазисе. В этом смысле история нашей национальн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отмечал он, -стоит рядом с историей таких древнейших государств как Египет, Китай, Индия, Греция, Иран. История Хорезма олицетворяет узбекскую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ь, ее мощь и древность». [1,с.373]

На материальной и духовной базе центрально азиатской цивилизации эпохи поздней бронзы и раннего железа (VIII-VIIвв.до н.э.) здесь сложились первые ране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бразования- «Древнебактрийское царство» и «Большой Хорезм».Эт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объединения, возникшие на основе союза племен, базировались ва принципах воен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поводу «Большого Хорезма» высказывали свое мнение исследователь древнего Хорпезма С.Толстов, европейские ученые В.Хеннинг и И.Гершович. С.Толстов родину Заратуштры Арьянэм Вайчах отожествлял с Хорезмом. По его мнению, Хорезм являлся областью, расположенной в бассейне Амударьи и Заратуштра был выходцем из этой области, и отсюда распространял свое учение в другие края.[2,с.93]

В «Авесте» перечисляются области «Большого Хорезма».А.Аскаров считает, что на основании этих данных можно сделать вывод, что большая часть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входила в сферу государства «Большого Хорезма».

О первой родине хорасмийцев и их местоположении писали Степан, Страбон, Афиней. По их сведениям, хорасмийцы жили на юге Бактрии, на востоке от парфян, в верхнем течении реки Херируд-Теджен, в долине современного Герата. По данным письменных источников, когда были перекрыты горные проходы, откуда вытекали рукава рек, земли хорасмийцев оказались под водой и большая часть населения переселилась к низовьям Амударьи. Это привело к образованию топонима Хорезм в нижнем течении Амударьи, в стране массагетов.

Искусные земледельческие общины Хорасмии в ведении орошаемого земледелия не уступали маргушам и бактрийцам, жившим в эпоху бронзы.По мнении. Ученого-источниковеда И.Маркварта, до образования империи Ахеменидов Сейистан (страна сарангов) 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м Хорасане, Арахосия (страна фанамеев), парфяне и Гиркания под покровительством хорасмийцев совместно образовали совместную конфедерацию «Большой Хорезм», северные границы которого простирались до среднего течения Амударьи. Ранее городская культура на этих землях образовались в эпоху бронзы. За тысячу лет образования поливного земледелия в Древнем Хорезме, эти страны уже являлись локальными очагами цивилизации Древнего Востока.

Появление в нижнем течении Амударьи хорасмийцев, имеющих большой опыт и квалификацию в ведении земледельче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освоение в дельте Амударьи земель вдоль каждого рукава и речки, приводило к образованию все новых и новых сельских поселений (в Авесте- «висов»). Вокруг каждого населённого пункта-«виса», появляющихся вдоль русла рек, постепенно основывались хорасмийцы и возникали в дельтах рек и ручейков новые поселения.

В связи с ускорением освоения земель в низовьях Амударьи (теперь в древнем Хорезме) образуются десятки урбанизированных населённых пунктов- ранние города, местные культурно-хозяйственные центры на основ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орошаемого земледелия. Если в период Амирабадской культуры землдельцы на начальном этапе перехода к оседлой жизни проживали в землянках,то с появлением в нижнем течении амударьи хорасмийцев воздвигаются крепости, окружённые монументальными стенами. Население Амирабадской культуры Древнего Хорезма, смешавшись с хорасмийцами, под их влиянием начинают теперь жить в жилищах, построенных из пахсы и сырцового кирпича. Этот процесс начинается в нижнем течении бассейна реки Амударьи с VI века до н.э..Если в период Амирабадской культуры земледелие основывалось на водном ресурсе

отмирающих широких дамбинированных потоков русел, то с приходом сюда хорасмиев стала формироваться культура ирригационного земледелия.

Многочисленные потоки русел низовьев Амударьи постепенно превратились в искусственные каналы, из которых вырастали Кальтаминар, Тазабагьяб, Суярган, Амирабад, Чирманёб, Палванёб, Ярмиш, савкан и другие большие и малые искусственные оросительные сооружения, которые были возведены на протоках Амударьи, формируются десятки микрооазисов. В каждом из этих оазисов выделяется центральный город, объединивший вокруг себя сельские поселения. Значит, в VI веке до н.э. в Древнем Хорезме начинается процесс зарождения ряда культурн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центров, возникших на их основе земледельческих микрооазисов.

В Хорезме в VI-V вв. до н.э. уже существовали, как установлено работами Хорезмской экспедиции, очень крупные поселения. Одно из них, ныне известное под названием городища Кузаликир, имеет форму треугольника и вытянуто на 1 км. Внешний периметр городища составляло сплошное коридоро образное помещение шириной от 2,5 до 4 м. К нему внутри примыкали один-два ряда глинобитных и кирпичных помещений, это жилища казематы. В центре находился очень большое здание с громадными залами и регулярной планировкой. Как предполагал С.П. Толстов, Кузаликир не был столицей государства «Большой Хорезм», а в VI веке до н.э. выполнял задачу главного города земледельческого центра Чирманёб. Прежде господствовало мнение, что ранее городская культура в Хорезме началась с Кузаликира.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 этот ряд были включены такие памятники культуры как Хазарасп, Канхакалъа, Бутентов, Кушкалъа, Одойтепа, Хумбузтепа, что говорит о широко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и земледель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низовьях Амударьи. Кузаликир был окружён монументальными фортификационными сооружениями, но в самом город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Древнегно Хорезма в V веке до н.э. из-под ига Ахеменидов и обретением независимости.

Другой памятник этого времени в Хорезме-поселение Дингильдже. Здесь детально изучен загородный многокомнатный дом-усадьба, очевидно, жилище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естной аристократии. К концу рассматриваемого периода относятся городище Калалыкир с многоколонными залами. [3.с.96-117]

В III-I вв.до н.э. городская жизнь, экономика и культура в древнем Хорезме развивались очень интенсивно. Имеются десятки памятников этого периода. Одним из них является Койкрылганкала. Это был город Древнехорезми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с IVв. дон.э до I века н.э. Он являлся крупным монументальным сооружением. При раскопках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разнообразные материалы, в том числе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хумов, служивших для хранения воды и припасов. На стенках баклаг-высоко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рельефы (изображения грифонов, всадников, женщин и т.д.) Огромное число статуэток - глиняных и алебастровых-воспроизводит божества хорезмийского пантеона; имеются и бытовые изображения, некоторые статуэтки исключительно реалистичны. Обнаружено несколько надписей, относящихся к III-IIвв. до н э., написанных арамейским письмом. На одном из них имеется имя, в основе которого слово «аспа» («конь») имя, по видимому, обозначает «всадник».

На Койкрылганкале обнаружены фрагменты десятка оссуариев - косте хранилищ и погребальной маски Койкрылганкала. В окрестностях найден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оссуариев-глиняных квадратных ящиков, Койкрылганкала увенчанных скульптурным изображением человека (иногда в натуральную величину).[4,с.64-66]

Эти заключения интересны и спорны, но несомненно, что Койкрылганкала является Койкрылганкала выдающимся памятником культуры Средней Азии.

Кочевые и полуседлые племена занимали обширный степной пояс, предгорья и зоны альпийских лугов. В Приаралье, в междуречье Амударьи и Сырдарьи, они находились под влиянием хорезмийской культуры.[5,с.157]

Время упадка «Большого Хорезма» неизвестно. В эпоху Мидийского царства ряд областей отделилась о него, а затем часть областей была захвачена Ахеменидами. Ахеменидская держава была разделена на военно-податные округа-сатрапии, которые управлялись наместниками. Хорезм, Согд и Парфия составляли XVI сатрапию и платили 300 талантов. BIVв до н.э. центральная власть терял контроль над управлением отдельными областями, из повиновения Ахеменидов вышел Хорезм, который стал проводить независимую политику.

Городища Базаркалъа и Дингильджа являются самыми хорошо изученными архаическими поселениями правого берега Хорезма. В этой зоне отмечены развалины 53 поселений и укреплений архаичного периода.

В V веке до н.э. Древний Хорезм выделяется из состава Ахеменидской империи в качестве независим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и земледельческое хозяйство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по всему оазису. Это

приводит к ускорению урбан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в в бассейне нижнего течения Амударьи. Возникают такие крупные города, как Хива, Большая Ойбуйиркалъа, Базаркалъа и Ахчахонкалъа. [6,с.209-211].

Всё вышесказанное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том, что с начала VIв. до н.э., в период раннего железного века по нижнему течению бассейна реки Амударья широк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получает древняя земледель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ранее городского типа.

Литература:

1.Каримов И.А.Жемчужина нашей земли. На пути духовного возрождения. Ташкент, 1998г., стр.373

2.Аскаров А.А.История Узбекистана Ташкент.1997г., стр.93

3.Толстов С. Древний Хорезм,1962, стр.96-117

4.Рапопорт Ю.А.,1971, стр.64-66

5.Гафуров Б.Г.Таджики. Древнейшая, древняя и средневековая история. Душанбе «Ирфон». 1989. стр.157

6.А.Аскаров. История происхождения узбекского народа. Т.Узбекистан. 2018.стр. 209-211

СЕМАНТИЧЕСКАЯ СВЯЗЬ КОМПОНЕНТОВ ТЕКСТА

К.ф.н. Турниязова Ш.Н.
СамГИИЯ

Аннотация. В статье расследуется семантическая связь компонентов текста. Так же отмечается, что семантическая связь компонентов текста во многом зависит от понятия «фрейм». Кроме того, в данной работе показаны особенности радиальной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связи.

Ключевые слова. Фрейм, радиальная связь,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ая связь, абзац, макротекст.

Annotation. Semantic connection of components of text is investigated in the article. It is similarly marked that semantic connection of components of text in a great deal depends on a concept “frame”. In addition, in hired the features of radial and direct connection are shown.

Key words. Frame, radial connection, direct connection, indention, macrotext.

Компоненты текста с семантическ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могут иметь несколько видов связи. Если в некоторых синтаксических структурах,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частью азбацов наблюдается между собой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ая тесная связь, то в других эта связь по характеру несколько слабая. Эти виды семантической связи К.Кожевникова отмечала как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и радиальной связью [4.56-57].

В радиальной связи компоненты текста не связываются между собой напрямую. Семантическую связь между ними можно заметить по общему смыслу текста. Однако К. Кожевникова к примеру радиальной связи приводит тексты словарей, анкет и тому подобных. Но по нашему же мнению, радиальную связь можно заметить в любых текстах, в том числе и в абзацах:

Ҳамма ёқ жимжит. Чўл қушлари беозоргина чуғурлашади. Шабада янгигина қиёқ чўзган майсалар бетидан шудрингни силкиб тўкади. Қиз шу файзсиз чўлда очилган танҳо лоладек ўзини кўз – кўз қилиб боради (С. Аҳмад. Уфқ).

(Везде тишина. Безобидно щебечут степные птицы. Легкий ветерок встряхивает росу с первых ростков зелени. Девушка, проходящая по этой степи была наподобие алого мака, который выставляет себя напоказ.)

Как видно в данном тексте не замечается тесная семантическая связь между его компонентами.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наблюдается изображение совершенно разных фактов, которые не связаны между собой по смыслу: царящая тишина, щебечущие птицы, легкий ветерок, девушка идущая по степи. Однако,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между компонентами текста замечается слабая, радиальная связь. Эта связь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общим семантическим весом двух абзацов, данного и предыдущего.

Кроме того, нужно заметить, что радиальная связь наблюд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между компонентами абзаца, но и между абзацами. В последнем же случае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абзацы в этой позиции являются компонентами выше себя стоящих макротекстов – глав.

К примеру обратим внимание на следующие абзацы и радиальную связь между ними:

Умматали бошқа гап сўрамади. Ишни битказиб эгарга минди-ю, хайр ҳам демай жўнаб қолди..

Ҳовли жим- жит. Мушук ҳамон хуруллайди. Кампир айвонда кафтини тираганича ўтирибди (С. Аҳмад. Уфқ).

(Умматали не стал ничего спрашивать. Окончив работу сел в седло и удалился даже не попращавшись.

Во дворе стояла тишина. Кошка до сих пор храпит. Старуха сидела на веранде опёршись руками о перила).

Как видно, между абзацами не наблюдается тесная семантическая связь. Но не смотря на это, между абзацами можно заметить радиальные отношения. Эта связь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общими семантическими отношениями макротекста - главы, компонентами которого являются данные абзацы.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семантической связи компонентов текста наблюдаются тесные семант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можно заметить, что смысл предыдущего предложения продолжается в следующем компоненте текста:

Боғи Зоғон қасрининг муҳташам қабулхонасига гавҳар ва ёқутлар билан безатилган баланд тахт ўрнатилган. Бир вақтлар бу тахтда Шоҳруҳ Мирзо ўлтирар эди. Ҳозир уни бошига тилла тож кийган Султон Абусайид эгаллаган (П. Қодиров. Она лочин видоси).

(В роскошной приёмной дворца Багизаган был установлен возвышенный трон украшенный жемчугами и сапфирами. Когда-то на этом троне сидел Шохрух Мирзо. Сейчас его занял Султон Абусайид, который надел на голову золотую корону).

Как видно, данный абзац состоит из трёх тесно связанных между собой по смыслу компонентов: тема трона в первом предложени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родолжается во вторых и третьих предложениях. В данном случае можно заметить различие между двум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и радиальной) связями. Кроме того, в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й связи ярко бросается в глаза внутреннее семантическое отношение между компонентами текста. Это отношение во многих случаях связан с термином «фрейм».

Понятие «фрейм» М. Минский комментирует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Одним из важнейших признаков фреймов является то, что они образуют иерархические структуры. С их помощью можно составить фразы разной степени (от общего до определённого). Например, животное, определённого вида, четвероногое, собака, породы Колли, кличка Лесси. »[5.88; 1.36-37].

Профессор Ш.Сафаров о фреймах писал следующее « В сознании каждого человека существует сеть сборника фреймов, и этот сборник обеспечивает осуществление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ших познаний и восприятий»[6.41]. Профессор Амстердам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Т. ван Дейк относится к понятию «фрейм» с когнитивн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и анализирует фреймы следующим образом: «… Это общее «знание» не является аморфным, оно организовано в концептуальных системах. Их можно описать в терминах фреймов. Фреймы не являются произвольно выделяемыми «кусками» знания. Они являются единицами, организованными «вокруг» некоторого концепта» [2.16]. Если к приведённому выше примеру мы будем относиться с этой точки зрения, то в данном примере фрейм связывается с понятием «трон». Так как в данном абзаце общий смысл текста объединяется вокруг этого слова.

В сознании человека существуют познания, которые обосновываются с жизненным опытом каждого из нас. Во время общения мы пользуемся этими понятиями. Они образовывают отдельные, приведённые в порядок структуры,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фреймами. А фреймы в свою очередь в процессе общения требуют цепь отношений. Это даёт нам возможность анализировать понятие «фрейм» в широком смысле.

Таким образом, можно прийти к выводу, что семантическая связь компонентов текста во многом зависит от понятия «фрейм». Радиальные и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е связи тоже образуются в связи с фреймами. Если вокруг какого либо фрейма связь компонентов текста более слабая, то образуется радиальная связь. Если же наоборот, т.е. если замечается тесное отношение, то образуетс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ая связь.

Список использованных источников:

1. Белошапкова Т. В. Когнитивно-дискурсивная парадигма лингвистического знания и категория аспектуальности // Вестник МГУ, сер. 9. Филология, 2008, № 2. С. 34-44.

2.Ван Дейк Т. А. Язык. Познание. Коммуникация.- М., 1989. 308 с.

3.Касевич В.Б. Семантика. Синтаксис. Морфология.-М.,1988.309 с.

4.Кожевникова К. Об аспектах связности в тексте как целом // Синтаксис текста. – М.: Наука, 1979.368 с. (49-67)

5.Минский М. Фреймы для представления знаний.- М., 1981.152 с.

6.Сафаров Ш. Когнитивная лингвистика. – Джиззах, 2006. 92 с.

«БУЮК ИПАК ЙЎЛИ» ТАРИХИ ВА УНИНГТУРИЗМНИ РИВОЖЛАНТИРИШДАГИ ЎРНИ

Аббасова М.С. ўқитувчи,
Сантурова А.А. талаба
«Ипак йўли» туризм халқаро университети

Ғарб ва Шарқ халқлари тарихида "Буюк Ипак Йўли" катта аҳамиятга эгадир. Жамият тараққиётиниг бронза давридан ҳам илгари даврларда ҳам ҳудудларни боғловчи восита сифатида унга хос ихтисослашган йўллар бўлганлигини ва бўлаётганлигига тарих гувоҳ.

Денгиз, океан йўллари очилмасдан олдин бу йўллар муҳим аҳамият касб этган. Буюк Ипак Йўли-инсоният ривожланиш тарихи, унинг бирлашувига ҳамда маданий қадриятлари билан алмашишга, кунлик ҳаётий керакли маҳсулотларни сотиш учун бозорларга эришишга интилишнинг ўзига хос бўлган ҳодисасидир.

Буюк Ипак Йўли эрамиздан 500 йил олдин бошланиб, XVII аср охирларида тугайди. Бу улкан йўлдан қарийиб, 2500 минг йил карвонлар қатнаган. Қадимда бу йўлнинг турли қисимларида тарихнинг турли даврларида мавжуд бўлган савдо-карвон йўллари маҳаллий халқлар томонидан турлича номланиб келингани маълум. Жумладан, "Шоҳ йўли", "Лазурит йўли", "Уйғур йўли" ва бошқа номлар билан аталган. Буюк Ипак Йўли атамаси, мазкур йўл 2500 йилдан зиёд яшаб келаётган бўлсада фанга "Ипак Йўли" номи билан фақат XIX асрнинг 70-йилларидан бошлаб немис олими Фердинанд Фон Рихтгофен томонидан киритган.

Буюк Ипак Йўли Евросиё материгининг мағрибдан машриққача бўлган мамлакатларини қадимдан бирлаштирган савдо ва алоқа йўли ҳисобланади. Бу йўлни асосий мақсади ва вазифаси биринчи навбатда қадимдан ипакчилик, чинниворлик ривожланган Хитойдан Ўрта Осиё, Кичик Осиё, Ҳиндистон мамлакатларига ипак экспорт қилиш бўлса, иккинчидан шу мамлакатлардан Хитойга турли хил газламалар, гиламлар, қимматбаҳо тошлар зеб-зийнат буюмлар, дори-дармонлар импорт қилиш бўлган. Ана шу асосда Хитойнинг Марказий Осиё, Яқин Шарқ, Эрон ва кейинчалик Ўрта денгиз бўйи мамлакатлари Юнонистон, Албания, Италия билан савдо-сотиқ, маданий ва элчилик алоқалари ривожлана борган.

Буюк Ипак Йўлининг Шарқдан бошланиши Хитой давлатининг энг йирик дарёси бўлган Хуанхэнинг ўрта оқимида жойлашган Сиан шаҳридан бошланиб, сўнги нуқтаси ғарбий Европада Италиянинг Рим шаҳригача давом этган. Узунлиги 7000-12000 километрдан ортиқ чўзилган ана шу улкан йўлнинг марказида Марказий Осиё жойлашган бўлиб, бу ҳудуддан йўлнинг бир неча тармоқлари кесиб ўтади.

Буюк Ипак Йўлининг шакилланиш тарихи, икки қитъа халқлари ўртасидаги ўзаро алоқа ва тижоратларининг мунтазам равишда амалга ошувига сабаб бўлади. Натижада Шарқ ва Ғарбдаги иқтисодий ва маданий ҳаёт ривожига улкан ҳисса қўшган "Буюк Ипак Йўли" жаҳон тарихидан муносиб ўрин олди. ЮНЕСКО томонидан "Буюк Ипак Йўли-мулоқот йўли" дастурининг ишлаб чиқилиши Евросиёдаги 30 дан ортиқ етакчи давлатларнинг 2000 йилга қадар илмий маданий фаолияти учун йўналиш бўлди.

Кўп минг йиллик тарихий тараққиётимиз давомида мамлакатимиз ва бутун Марказий Осиё халқлари ижтимоий – иқтисодий, сиёсий, маданий ривожланишининг тарихий босқичларида "Буюк Ипак Йўли" муҳим ўрин тутиб келган. Айниқса миллий мустақиллик Ўзбекистонни дунёга танитмоқда, унинг жаҳон миқёсидаги обрў – эътиборини ортдирмоқда. Иқтисодиётимизни ривожлантириш мақсадида кўплаб ишбилармон юртдошларимиз дунё кезмоқдалар, иқтидорли ёшларимиз чет элларда таҳсил олмоқдалар. Шунингдек мамлакатимизга ташриф буюраётган иқтисотчи, ишбилармон тадбиркорлар, илм аҳиллари, юртимиз тарихи ва табиатига шайдо чет эллик сайёҳлар сони ҳам йил сайин ортиб бормоқда. Бу республикамизда туризмни ривожлантиришда катта имкониятлар эшигини очмоқда.

Бугунги кунда туризм – жаҳон миқёсидаги иқтисодиётнинг жуда кучли тармоғи бўлиб, бу соҳада жуда кўп сонли ходимлар, асосий воситалар ва йирик капитал маблағлар жалб қилинган. Туризм йирик бизнес, глобал миқёсдаги жиддий сиёсатдан иборатдир. Мана шу фактларнинг ўзиёқ туризм бутун дунё иқтисодиётига ўзининг нақадар залворли ҳиссасини қўшишини англатади. Бугунги кунда Ўзбекистон Буюк Ипак Йўли ўтган давлатлар орасида сезиларли аҳамиятга эга давлатдир.

Юртбошимиз Ш.М. Мирзиёев, туризмни республика иқтисодиётидаги ўрни муҳимлигидан ташқари,- "Бу чет элдан ташриф буюраётган сайёҳларни жалб этиш учунгина эмас, балки аввало халқ

қадриятларини қайта тиклаш, ёш авлодни тарбиялашда ҳам алоҳида аҳамиятга эга" эканлигига ва халқаро туризм республика иқтисодиётининг етакчи тармоғига, унинг валюта тушумларини тўлдирадиган манбаага айланиб бораётганлигини таъкидлаб "Туризмнинг ривожланган инфраструктурасининг шакллантириш билан жиддий шуғулланиш" га алоҳида эътибор қаратмоқдалар.

Қадимда юртимиз узра "Буюк Ипак Йўли" нинг ўтганлиги Бухоро, Самарқанд, Хива, Тошкент шаҳарларини ҳозирги халқаро туризм йўналишидаги ажойиб қадамжойларга айлантиришга туртки бўлган. Эндиликда, Қамчиқ давонидан ўтувчи, Европани Осиё билан боғловчи "Буюк Ипак Йўли" нинг қайта тикланиши Республикамизда туризм равнақининг янги қирраларини очиши шубҳасиз. Масалан, **биринчидан,** ҳарқайси туризм сохасида яратилган янгилик шу соханинг фундаментал асосини мустаҳкамлайди. Унинг мустақил туризм сохаси сифатидаги амалий аҳамиятини очиб беради.

Иккинчидан, туризмдаги янгилик, ютуқ нафақат айни шу соха учун, балки иқтисодиётнинг ҳар қандай тизими учун ҳам аҳамиятлидир.

Учинчидан, туризм сохасидаги ҳар бир янгилик кишилар ижтимоий ҳаётида муҳим аҳамиятга эга бўлиб, уларнинг турмуш даражаси, ҳаёт кичириши, кишилар тафаккури ва дунё қарашини оширади.

Тўртинчидан, кишилар маънавияти, мафкурасида туризм беқиёс даражада аҳамиятли бўлиб, уларнинг ижтимоий қарашлари ва салоҳиятини бойитишда асосий манба вазифасини бажаради. Қолаверса туризм ривожланишининг даражаси мамлакатларни иқтисодий, сиёсий ва ижтимоий барқарорлиги ҳамда мавқеининг белгиланишида бош омил бўлиб, бу ўз – ўзидан шу мамлакат фуқароларининг ватанпарварлик руҳиятига ижобий таъсир кўрсатади. Бугун ҳар бир Ўзбекистонликнинг Шарқнинг азим шаҳри Тошкент, қадимий Бухоро, кўҳна Самарқанд, Хива, тарихий Қўқон, Марғилон, Андижон, Наманган, Шаҳрисабз каби бетакрор шаҳарларимиз билан фахрланишларида айни шу маъно бор. Ушбу шаҳарлардаги беқиёс археалогик ва меморчилик обидалари қадимдан дунё аҳлини лол қолдириб келган, Уларнинг сир-асрорларига хануз қизиқиш катта бўлиб, йилдан-йил сайёҳатчиларнинг ташрифи ортиб бормоқда.

Ўзбекистоннинг истиқболга эришиши, зиёратчилар сафини тобора ортишига Республикамизда халқаро туризмни ривожлантиришга яънада кенг йўл очмоқда. Шу туфайли туризм мамлакатимиз иқтисодий тараққиётида, маданий-маърифий ҳаётида асосий бўғинларидан бирига айланмоқда.

Ўлкамизда халқаро туризмнинг ривожлантиришда қадимда "Буюк Ипак Йўли" бевосита ўтган ҳудудларнинг имкониятларидан фойдаланиш анча яхши самара бермоқда.Чунки, бундай жойлар тарихнинг сермазмун воқеаларига анча бой бўлиб, унинг сирларини ҳамон "Қалбида" сақлайди. Чунончи, "Буюк Ипак Йўли" чорраҳасида бўлган Самарқанд вилояти ҳам тарихнинг кўплаб аччиқ-чучик сирларидан воқиб бўлган. Самарқанднинг қулай географик ўрни ва табиий шароити бунга сабаб бўлган бўлса ажабмас.

Ватанимизнинг мафтункор табиати, оромбахш маконлари ва бой миллий тарихий, ҳамда маданий ёдгорликлари туризм истиқболи учун асос бўла олади. Дунё халқларини ўзига мафтун этган кўҳна ва қадимий Самарқанд Зарафшон водийсида жойлашган.

Зарафшон водийси дунё тамаддуни бешикларидан бири бўлиб унинг ривожланиш тарихи уч минг йилга бориб тақалади. Воҳадан Европа ва Осиё қитъасини туташтирувчи Буюк Ипак Йўлининг ўтганлиги унда ҳунарманчилик, савдо – сотиқ, маданий ва тарихий обидаларни таркиб топишига ҳамда кўплаб мамлакатлар билан иқтисодий, маданий ва сиёсий алоқаларни мустаҳкамланишига бу эса маданий – маърифий ҳамкорликларни таркиб топишига олиб келади. Зарафшон воҳасида мавжуд тарихий обидалар, қадамжолар ва табиат ёдгорликларини ўрганиш, уларни зиёрат килиш ва янги йўналишларни ишлаб чикиш муҳим масалалардан биридир.

Шу жумладан 2014 йилнинг октябр ойида Самарканд шаҳрида БМТ жаҳон сайёҳлик ташкилотининг бош котиби Т.Рифан ЮНВТО ижроя кенгаши 99 – сессиясини очилиш маросимида нутқ сўзлаб "Шуни қайд этиш жоизки, Самарканд бу асрлар жилосини мужассам этган ўзининг бетакрор қиёфасини ва ноёблигини сақлаб қолган замонавий шаҳардир" бебаҳо хазинаси ҳисобланади. Куп шоирлар, ёзувчилар, тарихчилар, сайёҳлар уни ҳақли равишда "Жаҳоннинг қимматбаҳо гавҳари", "Шарқ Рими", "Қадимги Шарқ Жаннати" каби сузлар билан таърифлашган. Бу фикрлар кўҳна ва навқирон Самарқанд шаҳрининг ноёб тарихий обидаларига берилган таърифдир. Гузаллиги билан машҳур булган Самарқанд ҳақида қадимги Греция тарихчилари, шаркшунослари, солномачилари ажойиб фикрларни билдиришган, шоир, ёзувчилар у ҳақда ғазаллар, кушиклар айтишган, жаҳон мамлакатларида сайёҳлар ва олимлар уни халқ даҳосини асрлар саҳифасига мухирланган ажойиб халқ усталарининг, зукко меъморларнинг, бетимсол курувчиларнинг бадиий ва

илмий санъати сифатида тилга олганлар. Самарқанднинг тошдан, ёғочдан бунёд этилган монументал иншоотлари кишиларнинг куз унгида миллий маданиятларнинг узига хос томонларини ёрқин, мукаммал очган ҳолда бутун гузаллиги ва назокати билан намоён булади. Улуғвор, бетакрор, нодир архитектура иншоотлари бугунги кунгача сақланиб қолган бўлиб,улар оддий кишилар тарихининг ажойиб ижодкорлари қуллари билан бунёд этилгандир. Бу қули гул усталар асрлар мобайнида ўлмас асарлар яратганларки, улар ҳозир ҳам барчани ҳайратга солиб фахрлантирмоқда. Заргарлик, ўймакорлик, шойи тўқиш ва бошқа турли буюмларларнинг ажойиб усталари ўчмас из колдирганлар. Самарқанд шаҳрида Шарқнинг таниқли олимлари, ёзувчилари рассомлари яшаганлар ва ижод қилганлар. Самарқанд қадимий тарихий ёдгорликлари сабабли жаҳон тан олган музей шаҳарга айланади. Шаҳардаги қадимий обидалар Хитой, Ҳиндистон, Миср, Рим ёдгорликлари каби ўзининг гўзаллиги, назокати билан дунё сайёҳларини ҳайратга солади. Ҳар йили дунёнинг турли бурчакларидан келган юз минглаб сайёҳлар улардан завк олади.

Қадимги меъморлар санъатининг ажойиб намуналари каторига, Шоҳи – Зинда, Гўри – Амир мақбараси, Бибихоним масжиди, Регистон майдони архитектура ёдгорликлари, Улуғбек расадхонаси ва бошкаларни киритиш мумкин. Энг мафтункор Шоҳи – Зинда, яъни “Тирик шох” маъносини билдирган тарихий ансамблнинг нозик ва нафис чизмалари ҳар қандай кишини ром этадиган мақбаралари ва масжидлардан иборатдир. Бир суз билан айтганда, Шохи – Зинда ўз замонасини безаб турган санъат асарининг бебаҳо дурдонасидир.

Бундай очиқ осмон остидаги музей каби таърифларни Бухоро ва Хива шаҳарлари ҳақида ҳам эътироф этилган. Бундай фикрлар хорижий сайёҳларни юртимизга нақадар қизиқиши юқори эканлигини билдиради.

Туризм инфратузилмасини ривожлантириш Буюк Ипак Йўлини давом этириш Ўзбекистон иқтисодиёти учун ғоятда зарур бўлиб, унинг имкониятларидан келиб чиқиб, туризм соҳаси орқали аҳолининг моддий фаровонлигини яхшилаш, уларни иш билан таъминлаш учун янги иш ўринларини ташкил қилиш мумкин бўлади.

“Буюк Ипак Йўли” нинг буюк ҳислатларидан яна бири ҳозирги вақтдга келиб узоқ йиллар давомида узилиб қолган Шарқ ва Ғарб халқларининг маънавий ва маданий, ижтимоий-иқтисодий алоқаларини тиклашда, тарихимизни янада чуқур ўрганишдаги аҳамияти беқиёсдир.

Адабиётлар руйхати:

1. Арандаринко Г.А. Досуги в Туркистане СПб, 1889.
2. Вамберди А. Путеществие по Средней Азии. -М. 1874.
3. Зокиров К.З. Флоро и растетельноств бассейна.
4. р. Зерафшан.Ташкент, 1955.
5. Буюк Ипак Йўли: география, туризм ва экология. Халқаро Конференция маърузалари тўплами. –Самарқанд, 1998 й. 198-бет.

ПСИХОЛОГО-ПЕДАГОГИЧЕСКИЕ ОСОБЕННОСТИ ПОДГОТОВКИ ДЕТЕЙ В ДОШКОЛЬНЫЕ УЧРЕЖДЕНИЯ

Каршиева З.

соискатель СамГИИЯ

Дошкольный возраст требует к себе особого внимания, в этом возрасте ребенок имеет массу изменений, не только внешнего плана, но прежде всего внутреннего, дающих понять как родителям, так и педагогам и психологам свою исключительность. Это и период перехода от одной ступени развития к другой. Поступление в дошко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знаменует собой начало нового возрастного периода в жизни ребенка, ведуще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которого становится игровая деятельность. Ученые, педагоги и родители прилагают максимум усилий к тому, чтобы сделать время, проведенное в дошкольном учреждении не только эффективным, но и полезным, приятным, желанным, как для детей, так и для заботящихся о них взрослых.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ри этом уделяется психическому здоровью детей, гармоничному развитию их личности. Высокие требования жизни к организации воспитания и обучения заставляют искать новые,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е психолого-педагогические подходы, нацеленные на приведение методов обучения в соответствие требованиям жизни. В этом смысле проблема готовности дошкольников к обучению и воспитанию в дошкольном учреждении приобретает немаловажное значение: с ее решением связано определение целей и принципов организации обучения и воспитания в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Многие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обучения, концепции содержания обучения и воспитания, идеи новых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базируются сегодня на создании гуманной развивающей среды, в которой личность ребенка формируется наиболее полно и свободно на благо обществ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бщепризнанно, что готовность к дошкольному обучению и воспитанию – многокомпонент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которое требует комплексных психол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Вопросы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готовности к обучению и воспитанию в дошкольных учреждениях рассматривают педагоги, психологи, дефектологи: Л.И. Божович, Л.А. Венгер, А.Л. Венгер, Л.С. Выготский, А.В. Запорожец, В.С. Мухина, Е.О. Смирнова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Авторами д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анализ необходимых знаний, навыков и умений ребенка в детских садах, но и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вопросы дифференцированного подхода при подготовке детей к школе, методики определения готовности, а также, что немаловажно, пути коррекции негативных результатов и в связи с этим рекомендации по работе с детьми и их родителями. Анализ литературы в рамках эт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оказал, что она была предметом исследования многих выдающихся психологов, таких как Л. И. Божович, Л. С. Выготский, А. Л. Венгер, Д. Б. Эльконин[1], и позволил нам выявить, что готовность ребенка к обучению и воспитанию в дошкольном учреждении включает: специальную, психологическую и физическую готовность. Психологическая готовность включает следующие структурные компоненты: – личностная или социально-психологическая готовность; –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ая готовность; - эмоционально-волевая готовность.

Под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готовностью понимается необходимый и достаточный уровень психоло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ебенка для освоения дошко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в условиях обучения и воспитания в коллективе сверстников. Структура возраста, по Л. С. Выготскому [2], включает социальную ситуацию развития, ведущий вид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е новообразования. Эти компоненты и определяют возраст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детей до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Так, например, возрастной период старшего дошкольного возраста характеризуется повышенной эмоциональностью, раздражимостью, направленностью на познание окружающего мира, чувствительностью к воздействию со стороны взрослого и сверстников. В этот период психика шестилетнего проходит различные «расстояния», претерпевая качественные приобретени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ого, развивается ребенок в условиях игры или обучени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и социальных условий. Психологическая готовность - итог всего предшествующего развития ребенка в дошкольном детстве. Она формируется постепенно и зависит от условий, в которых происходит развитие организма. Определяющим фактором полноц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в детском возрасте является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ое и осознан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со стороны взрослых - педагогов и родителей. Нельзя недооценивать роль семьи в подготовке детей к дошкольному обучению и воспитанию. Давно замечено, что так называемые «неорганизованные» дети, если в семье не созданы необходимые условия, отстают в своем развитии от сверстников, посещающих детский сад. Очень часто неудачи детей, их трудное вхождение в коллектив, неумение и нежелание общаться - результат родительских просчетов и ошибок, тех отношений, которые царят в семье, тех жизненных ориентаций, которые в ней усваиваются. Основная задача семьи в подготовке детей к дошкольному обучению и воспитанию - обеспечить оптимальное развитие всех сторон личности ребенка. Родители должны удовлетворять познавательные интересы детей, формировать новые, расширять их кругозор. Семья с самых первых лет жизни ребенка должна заботиться не только о его физ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но и о том, чтобы воспитать в нем трудолюбие, дисциплинированность, организованнос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ответствен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порученному делу. Только тогда обучение и воспитание может быть успешным. Семейное воспитание, как правило,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длительно и непрерывно и отличается особой эмоциональностью семейных социа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педагогическим влиянием на ребенка людей разного пола, возраста и профессии, а также чрезвычайной силой примера родителей и семейного уклада в целом.

Поэтому решающую роль играет семья. При подготовке детей к дошкольному обучению и воспитанию необходимо установление делового контакта между семьей и детским садом. Основная роль всех форм и видов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детского сада с семьей - установление доверительных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етьми, родителями и педагогами, воспитание потребности делиться друг с другом своими проблемами и совместно их решать. В период посещения детьми дошкольного учреждения воспитатель должен поддерживать постоянный контакт с родителями: приглашать их на встречи, знакомить с опытом работы, 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результаты, которых дети достигли, советовать, как заниматься с ребенком дома. Индивидуально информировать родителей о проявлениях, поведении и достижениях ребенка, сообщать о нарушениях его здоровья, о других недостатках, давать родителям компетентные советы по ряду вопросов.

В дошкольном учреждении должны быть созданы благоприя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полноценного физического, умственного и соци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детей. В детском саду всестороннее развитие ребят должны обеспечивать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педагоги. Дошкольное учреждение должно давать детям основы знаний и умений в сфере социальных представлений и практики, полноценно развивать псих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формировать интерес к игре, посильному труду и обучению. Сотрудники садов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должны способствовать привитию навыков культуры поведения и дисциплинированности, закладывать основы коллективных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детей, развивать эстетическое восприятие и вкус, учить элементарным формам трудов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ощрять самостоятельность, проявлять систематическую заботу о здоровье своих воспитанников.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при этом должно уделяться организации разных вид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игра, наблюдения в природе, занятия, элементарный труд, конструирование, рисование и др.) с учетом психофизиологических особенностей дошкольников предъявляемых к их развитию.

Так, например, знакомство с явлением живой и неживой природы способствует развитию логического мышления, любознательности, формированию начал мировоззрения и т. п. Важная роль отводится речевому развитию дошкольников: формированию языковых обобщений и элементарному осознанию явлений языка и речи, на основе чего зарождается интерес к родному языку и обеспечивается дальнейшее его саморазвитие.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ценность занятий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детей к школьной форме обучения, которые воспитатели должны проводить в детском саду систематически, с применением эффективных методов и приемов, таких как предъявление детям заданий проблемного характера, требующих поиска способа решения; использование моделирования, наглядно демонстрирующего достаточно сложные и часто скрытые взаимосвязи; организация элементарного экспериментирования, подводящего детей к самостоятельным выводам; игровые приемы, повышающие интерес, стимулирующие активность, создающие положительное эмоциональное настроение. При отборе методов и приемов обучения педагог должен учитывать не только возрастн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етей, но и особенности того контингента, с которым он работает, знать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способности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Реализация такого подхода влияет на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обучения.

Нужно помнить то, что сегодня является для ребенка зоной ближайшего развития, завтра станет уровнем его акту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Обучать и воспитывать ребенка можно и нужно только тому, что лежит в зоне ближайшего развития. Именно это ребенок способен воспринять, и именно это будет оказывать на его психику развивающее воздействие. Важно уделять внимание рациональ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режима дня.

В ребенке нужно развивать организаторскую способность. Одним из основных ролей при этом играет режим дня. Приучая ребенка выполнять те или иные обязанности в режиме дня, у него формируется такие качества, как собранность, организованность. Тем не менее, не надо все планировать за ребенка, нужно и ему оставлять свободу выбора и свободу планирования.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ребенок доводил начатое дело до конца. Распределяя домашние обязанности, нужно подыскивать такое занятие, в котором он будет инициатором, руководителем и ответственным лицом. Пусть ребенок проявляет смекалку, изобретательность, четкость. Научить ребенка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планировать свои действия перед выполнением какого-то дела. Умение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спланировать свои действия, и действия партнера необходимы для коллективно-совмес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детском саду, а затем и в школе. Психологическая подготовка ребёнка к обучению в школе является важным шагом воспитания и обучения дошкольника в детском саду и семье. Ее содержание определяется системой требований, которые школа предъявляет ребёнку. Эти требования заключаются в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отношения к школе и учебе, произво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своим поведением, выполнение умственной работы, обеспечивающее сознательное усвоение знаний, установление с взрослыми и сверстниками взаимоотношений, определяемых совмест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Таким образом, формированию выше указанных нами качеств ребенка, помогает система психолого-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воздействий, основанных на правильной ориентации дет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процесса в целом. Обеспечить всестороннее развитие ребёнка и правильную подготовку его к обучению и воспитанию могут только объединенные усилия воспитателей, педагогов, психологов и, конечно же, родителей. Семья первая и наиболее важная среда развития ребёнка, однако, и в дошкольном учреждении формируется и развивается личность ребёнка. Лучше всего на практике сказывается на развитии ребёнка единство воздействий семьи и детского сада.

Литература:

1. Венгер А.Л., Слободчиков В.И., Эльконин Б.Д. Проблемы детской психологии и научное творчество Д.Б. Эльконина //Вопр. психологии. - М.: Педагогика, 1988. №3. С. 36–41.

2. Выготский Л.С. Воображение и творчество в детском возрасте. - М.: Педагогика, 1989. - 316 стр.

3. Выготский Л.С. Проблема обучения и умственного развития в школьном возрасте //Избранные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 М.: Педагогика, 1956г. - 220 стр.

ПРИРОДА ИМИДЖА В КОНТЕКСТЕ ФИЛОСОФСКОГО УЧЕНИЯ ВОСТОЧНЫХ МЫСЛИТЕЛЕЙ

Нарзикулова Ф.Б.
доктор философии по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м наукам,
Самаркандского РЦППКРНО

Существует предположение, что термин «имидж» происходит из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Он передает как минимум, пять значений – образ, статуя - идол, метафора, икона, сходство. Но, учитывая факт существования этого термина еще в древние времена, невозможно с уверенностью утверждать, что «имидж» является производным от французского или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ов, скорее всего, является заимствованным, как показывает трансформация его содержания годами и почти одновременно позднее появление в обоих этих языках. При определении понятия имиджа, природы имиджа, с точки зрения научного анализа, которые чаще всего встречаются в научной литературе, следующее: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й словарь связывает понятие «имидж» и «образ»:

«Имидж - (англ. Image - образ) - сложившийся в массовом представлении и имеющий характер стереотипа, эмоционально окрашенный образ кого-либо или чего-либо ... Формирование имиджа происходит стихийно, но чаще оно является результатом работы специалистов в области политической психологии, политической рекламы; имидж отражает социальные ожидания определенной группы, поэтому его наличие в некоторых случаях обеспечивает субъекту успех в политической или деловой жизни» [4];

В свою очередь, нуж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природу имиджа, понятие имиджа и его формирование в символах и образах групповых норм, были заложены еще в античные времена (Аристотель, Сенека, Сократ, Платон и др.), во времена 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Востока (Аль Фароби, Ибн Сино, Аль Бируний, Алишера Навои, Джалаладдина Руми, Махмуда Замахшари и др.).

Они представлены в контексте вопросов: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души и тела, в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личности и общества, общения и нравственного само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красоты и гармонии.

Древнекитайский мыслитель Конфуций говорил, что «человек измеряется не с ног до головы, а от головы до неба». Это следует учитывать в процессе создания привлекательного образа. По мнению философа «В древности люди учились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овершенствовать себя. Ныне учатс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удивить других». Образ «Благородного мужа» занимает одно из центральных мест в учении Конфуция, ему отведена роль идеального человека, примера для подражания, который, независимо от своего происхождения, культивирует моральные ценности, знает свои обязанности и действует на благо общества, которому служит. Для того, чтобы достичь идеала «Благородного мужа», необходима целостная система образования и воспитания. Учитель сказал: «Каждый может стать благородным мужем, нужно только решиться им стать». Благородный муж, по словам Конфуция, непременно учтив, милосерден, и внушает уважение, но главное – обладает несокрушимой силой воли и стойкостью духа. Логично допустить, что каждый человек способен стать благородным мужем. Но как тогда быть с неизменным социальным расслоением? Дело в том, что природа человека в китайской традиции включает в себя как бы два уровня: врожденные качества и способность к само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ю. Человеку мало обладать некоторыми качествами, надо еще уметь их применить, сконцентрировав волю и регулируя свое поведение. [2]

Так например во времена Средневекового востока Ибн Сина, подчеркивал в своих трудах, что нужно быть ясным умственно, чистым нравственно и опрятным физически. Как показывает историко-теоретический анализ психологических воззрений Ибн Сины, образ гармонично развитой личности, где мыслитель разрабатывает средства и методы улучшения нравов, преодоления низменных моральных качеств, укрепления добронравия, исходя из гуманистической и

р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ой сущности своей философской доктрины, прослеживается во всех его учениях. [3]

Так в учении философа, «свобода воли и моральный выбор» -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как одна из важнейших проблем, играющая большую роль в нравственном воспитании человека, а именно проблема морального выбора и нравственной свободы, в которой отражается специфический и наиболее сложный аспект челове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В учении Ибн Сины мораль тесно связана со свободой выбора человека, что предопределяет субъективные предпосылки реализации основной цели нравственного воспитания. Эту свою теорию Ибн Сина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сводит к умению наставников вести диалог на эту тему, разъяснять своим ученикам, какое значение имеет свобода выбора для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я и развития человека.

Неоспорим и тот факт, что на протяжении существования общества фактор имиджа производил значительное влияние на ход полит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в. Именно этим обусловлен тот факт, что к проблеме образа иде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я, государства, так или иначе, обращалось значительное количество мыслителей. В трудах Аристотеля, Сенеки, Аль - Фароби, Н. Макиявелли, Т. Гоббса, Гегеля, Ж.-Ж. Руссо и др. содержатся рассуждения о соотношении личности и власти, природу человека в политике, о том, каким должен быть гражданин, правитель, как должна выглядеть власть в глазах общества.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чень многие политики, историки, философ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деятели обращаются к трактатам Аль - Фараби, потому что его идеи и взгляды дают правиль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в развитии человека, общества, государства. Труды Аль - Фараби 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ереосмысления жизни, принять правильное решение в выборе того или иного поступка. Многие государства стараются достичь того уровня «добродетельного» города, которые описываются в работах этого философа.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вопросов, рассмотренных в трактатах Аль-Фараби стал вопрос о видах государств. В своих работах, особенно в «Трактате о взглядах жителей добродетельного города» он называл государство – городом. Слово «город» понимается не в том значении, какое мы используем сейчас, а в ином значении, то есть город – это отдельное целое общество или государство. Так, что же понимается под понятием «государство» в философии Аль-Фароби? Какие виды государства выделял философ? Какое для него казалось идеальным, а какое неправильным? И как он их называл и по каким критериям разделял? «Государство есть достояние народа – говорит ученый, - связанного между собой в вопросах права и общностью интересов. Причиной для такого соединения людей является не столько их слабость, сколько, так сказать, врожденная потребность жить вместе» [1]

Идея общественной природы человека составляет основополагающую предпосылку и в философии Ибн Сины. Он был убежден в том, что человек может обрести счастье и благополучие только в обществе, и поэтому считал общее благо более предпочтительным в сравнении с личным. Идея Ибн Сино, так же как и аль-Фароби, о представлении добродетельном городе и истинном правителе, являются извечной мечтой народов Ближнего и Среднего Востока о «справедливом государстве» и «справедливом правителе».

В связи с этим задачи дальнейш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чтобы с получением достаточного материала решить эти проблемы и открыть другие тенденции в интерпретации философии мыслителей Востока, сделав их доступными для всех интересующихся их творчеством.

Если за сущностное понимание имиджа выбрать образ, то можно проследить многозначность его трактовки относительно каждого философского течения 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промежутка времени. Начиная от гносеологии, где образом традиционно считали отображения мира, или отражение этого мира в сознании человека, образ воспринимали как пассивную форму такого отражения. Это объяснялось тем, что в процессе восприятия он служил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м средством,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му формировалась воображение, по своей природе аналогично реальной картине, без изменений и новых оттенков. Уже с конца XIX в. происходит определенна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й образ становится знаком, точнее символом, который выполняет свою функцию не автоматически, а требует объяснения и толковани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из выше сказанного нами,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еще в древние времена имидж не только сформировался как социальный феномен, но и оказывался в двух формах: реальной - настоящий и фиктивной - искусственной. Он представлял собой определенный элемент культуры, ведь основывался на моральных качествах личности, был неотъемлемой частью национальных обрядов, отражал базовые общественны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 том, как человек должен

взаимодействовать с людьми, которые ее окружают. Уже тогда имидж был мощной силой, которая формировала поведение индивида в различных ситуациях.

Использова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1. Аль-Фараби. Трактат о взглядах добродетельного города. //Перевод с арабского языка Сагадеев А.В. // впервые опубликован в работе: Григорян С.Н. Из истории философии Средней Азии и Ирана VII – XII вв. – М.: Изд-во АН ССР, 1960 год.
2. Конфуцианство, даосизм от А до Я. – //Древнекитайская философия. Собрание текстов в двух томах. Т.1. - М.: Издательство: В-З: 2007 г.
3. Нарзикулова Ф.Б. Психологические взгляды, идеи и мысли в трудах Ибн Сино. // МОНОГРАФИЯ. – Самарканд: изд. СамГУ, 2016, - 160 стр.
4. Психология: словарь / под общ.ред. А. В. Петровского, М. Г. Ярошевского. - второй изд., Испр. и доп. - М.: Политиздат, 1990. - 494 с.

ЯНГИ МИЛЛИЙ ФАЛСАФАНИНГ ИЖТИМОИЙ ФАЛСАФИЙ ТАФАККУР ТАРАҚҚИЁТИДА РОЛИ

Х.Э.Бобоқулова ўқитувчиси
З.Бахриддинова талаба
СамДЧТИ

Аннотация: Янги миллий фалсафанинг ривожи Мустақилликка эришган Ўзбекистон ҳаётида тафаккур тараққиёти мисолида кўрилмоқда. Бу барпо этилаётган ҳуқуқий давлатнинг асосий пойдевор тиргаги бўлиб, Шарқона давлатнинг минг йиллик анъаналари, адолат, ростлик, ҳамжиҳатлик ҳақидаги ўлмас ғоялари асосида давлатимиз сиёсатининг йўналишларини ташкил этмоқда

Аннотация: Развитие нов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философии находит свое отражение в развитии мышления в жизни независимого Узбекистана. Он является основным краеугольным камнем сложившегося правов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и формирует политические направл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а на основе неизменных идей тысячелетнего восточ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справедливости, правды, солидарности.

Annotation: The development of the new national philosophy is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of thinking in the life of the independent Uzbekistan. It is the main cornerstone of the established legal state and forms the policy directions of the state on the basis of the immovable ideas of thousand years of the Oriental state, justice, truth, solidarity

Бизга маълумки, ҳар бир мамлакат миллий давлатчилик анъаналарини сақлаб қолмаса, у чинакамига ўзига хос демократик давлат бўла олмайди. Ана шу хусусиятга асосланиб миллий давлатчилик учун зарур анъаналарни ҳаётга жорий қилиш долзарб ҳисобланади. Ўтиш даврининг асосий хусусиятларидан бири ҳам шунда бўлдики, бу даврда –шахс манфаати билан миллат манфаати ўртасида номутаносиблик пайдо бўлган ҳолда миллат, халқ манфаатлари юқори туриши лозим, ўшандагина миллат, халқ манфаатига мос давлатчилик асослари барпо этилади. Шу жиҳатларга интилган тафаккур, ижтимоий фаоллик дея баҳоланади: “Лекин инсонни биринчи навбатда тавсифлайдиган хусусият бу унинг беихтиёр ва олдиндан айтиб бера олинмайдиган ҳолатда амал қилиш, оламга принципиал жиҳатдан янгича нарсаларни олиб кириш қобилиятидир. Шу маънода фаоллик муайян ҳаракат соҳасини, иштирок этиш ва муҳокама қилишга имкон берадиган сиёсий “оммавий саҳна”ни тақозо этади” [Гуннар Скирбекк. 2002: 692]. Ўтган тоталитар жамиятда фаоллашув праксис пойезисдан иборат қилиб қўйилади. Инсон, халқ, миллат манфаати, буларнинг ҳаммаси сиёсий манфаатларга бўйсундирилди. Бундай тузум шахсларни ўзига бўйсундириш ва гуруҳларни йўққа чиқариб, ҳақиқий фаоллик қобилиятидан, имкониятидан маҳрум этди. Бу ўз ўрнида янгиликдан узоқлашган, ўзлигидан воз кечган янги индивидларни дунё келтирди. Шаклланган индивидларни бўйсундириш ва назорат қилиш тоталитар тузумнинг энг осон тизгини ҳисобланарди. Шу тизгин орқали бир бутун халқ ўз ўтмишидан ва келажакка бўлган интилишларидан узоқлашди яъниким-“маърифат, бошқарув ва табиат устидан ҳукмронлик соҳаларидаги тараққиётнинг юксак идеаллари таназзул ва бемаъниликнинг ифодаси сифатида, ҳаётий кучларни бўғиб ташловчи интизом ва табиий шарт-шароитларнинг ноақилона емрилиши тарзида кўрсатилади (инкор этилади)[Гуннар Скирбекк. 2002: 691].

Афсуски, халқимиз тарихининг бир ярим асрлик даврида бу ишни амалга оширишнинг иложи бўлмади. Мамлакатимиз мустақилликка эришганидан сўнг тарихимиз жумладан маданият, илм-фан, қадриятларимиз теран ва объектив тарзда ўрганиш бошланди. Шуни айтиш мумкинки бу даврда амалга оширилган ислоҳотлар мамлакатнинг иқтисодий салоҳиятини ошириш ва аҳолини иш билан таъминлашга қаратилганлиги билан бир қаторда жамоатчиликнинг ижтимоий-фалсафий тафаккурини ошириш, уларда миллий ғурур, миллий ўзликни англаш туйғуларини шакллантириш ҳамда маънавий меросимизни, маданий қадриятларимизни тиклаш ва уларни халқимизга етказиш борасидаги кенг кўламли ишлар олиб борилди ва бугунги кунда ҳам бу каби фаолият изчил давом этмоқда. Республикамизнинг Биринчи Президенти Каримов И.А. таъкидлаб ўтганидек, маънавиятнинг моҳияти шунчалик кенгки, уни ўлчаб ҳам, поёнига етказиб ҳам бўлмайди. У инсон учун бутун бир оламдир. Мустабид тузум исканжасидан озод бўлган халқ учун бундай маънавий уммон денгизидан озуқа олиш нақадар зарур ва муҳим эканлиги барчага аён. Фалсафий тафаккур ривожи инсоният тараққиёти билан узвий боғлиқ жараёндир. Маълумки ҳаётдаги воқеа-ҳодисаларнинг барчаси ижтимоий онгда акс этади. Тараққиёт жараёнида даврлар ўзгариши билан унга хос маънавий, ҳуқуққий , сиёсий ва фалсафий мезонлар ҳам шаклланиб боради. Аммо бу ўз-ўзидан юз бермайди. Айниқса, инсон тафаккурининг ўзгариши, дунёқарашнинг янгича тамойилларга эга бўлиши узоқ давом этадиган мураккаб жараёндир. Бу жараён эндигина мустақил бўлган мамлакатимиз тарихида ҳам содир бўлди. Яккаҳукумрон коммунистик мафкура миллий қадриятларни ва инсоннинг ижтимоий тафаккурини оёқости қилинганлиги мамлакатимиз фуқоролари онгида улкан маънавий бўшлиқ юзага келиб қолганлиги сабаб бўлди.

Ҳозирги кунда жамиятимизда ривожланиб бораётган истиқлол ғояларига асосланадиган янги дунёқаршни шакллантириш мамлакатимиз ҳукумати ва кенг жамотчилиги олдидаги энг асосий вазифага айланди. Зеро, инсон дунёқарашини, унинг тафаккур тарзини ўзгартирмасдан, янги жамиятни қуриш қийин. Бугунги давр талаблари даражасида фалсафий тафаккурни янгилаш вазифаларини бажариш ғоят мураккаб бўлиб қуйидаги бир қатор муаммоларни ҳал қилишни тақазо этади:

-Мустабид тузум мафкурасининг ижтимоий, маънавий ва фалсафий соҳалардаги асоратларини тўласинча бартараф этиш;

-Кишилар онги ва турмуш тарзидан собиқ тузумга хос консерватив тамойилларни сиқиб чиқариш;

-Ўзбекистони жтимоий-фалсафий ривожланишида жаҳон фалсафаси ютуқларидан кенгроқ фойдаланиш;

-бозор муносабатларига босқичма-босқич ўтиши қонуниятини жамиятнинг зиёли қатлами вакилларининг онгида ҳамон сақланиб келаётган лоқайдлик ва мутелик каби кайфиятларга барҳам бериш;

-маънавий меросимизни қайта тиклаш ва ижодий ривожлантириш жараёнида буюк аждодларимиз фалсафий меросини янада кенг ва чуқурроқ ўрганиш ва бошқалар.[Юсупов Д.А.2012: 30/31]

Бу каби масаларни чуқур ўрганиб чиққан ва фуқоролар онгидаги бўшлиқни миллий ғоя ва мафкура билан тўлдириш мумкинлигини ўз вақтида англаб етган ҳукуматимиз шу йўналишдаги ишларни мустақиллигимизни дастлабки йилларидан бошлаб юборди. БужараёндаЎзбекистон босқичма-босқич ҳаракат қилиш йўлидан борди ва ижтимоий тараққиётнинг “Ўзбек модели”ни ишлаб чиқди.

Ижтимоий ривожланишнинг ўзбек модели инсониятнинг ривожланиш борасидаги илғор тажрибасига, миллий давлатчилик тажрибаларимизга ва халқимиз менталитетига таянади. Ижтимоий ривожланиш борасида халқлар одатда икки йўлдан инқилобий ва тадрижий йўлдан боради. Инсоният тажрибаси ижтимоий ривожланишнинг кескин инқилобий ўзгаришлар йўлини мақбул ва яроқсиз эканлигини, жамиятнинг тадрижий (эволюцион) тараққиёти барқарор – табиий ривожланиш йўли эканлигини кўрсатди.[Назаров Қ. 2000: 239/240] Бу эволюцион ўзгаришлар миллий ва умуминсоният тажрибаларига асосланган дунёвий мазмун аҳамият касб этган тарзда ривожланди.

Биринчи Президентимиз тараққиётнинг тадрижий йўли моҳиятини шундай изоҳлайди: “Сохта инқилобий сакрашларсиз, эволюцион йўл билан нормал, маданиятли тараққиётга ўтиш танлаб олинган йўлнинг асосий мазмуни ва моҳиятидир. Бозор иқтисоди сари буюк сакрашлар , инқилобий ўзгаришлар йўли билан эмас, балки собитқадамлик ва изчиллик билан – босқичма-босқич ҳаракат қилиш керак. Ҳар бир босқичнинг қанча давом этиши ҳал қилиши лозим бўлган муаммолар доирасига, ташқи омиллар қанчалик қулай бўлишига, аҳолининг меҳнат фаолиятига боғлиқдир”[Каримов И.1992: 41]. “Ўзбек модели” нафақат иқтисодий-сиёсий ислоҳатларда, балки

инсонларнинг ижтимоий тафаккурини ривожлантиришда ҳам тадрижийликни назарда тутади. Чунки инсонни онгини ва унинг мафкурасини бир кунда ўзгартиришнинг иложи йўқ, бу жуда кўп вақтни талаб қилади. Миллий мафкурамизни халқимизга сингдиришга қаратилганислоҳатлар ҳам босқичма-босқич олиб борилди.

Демак, Мустақилликка эришган халқимиз олдида миллат манфаатига мос, келажагига пойдевор бўладиган, энг аввало ўзининг ўтмиши, тафаккур салоҳиятидан келиб чиқиб миллий маънавиятини юксалтириш масаласи турар эди. Шу борада “Маънавият ва маърифат” жамоатчилик марказини ташкил қилиш ва уларнинг иш самарадорлигини оширишга қаратилган 1994-йил 23-апрелдаги ва кейинги Президент фармонлари Республикада маънавий ва мафкуравий ишларни юксалтиришда катта аҳамиятга эга бўлди.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Биринчи Президентининг 2000-йилнинг 2-июнидаги Республика маънавият ва маърифат кенгашини қўллаб-қувватлаш тўғрисидаги янги фармони мамлакатимизда маънавий-маърифий ислоҳотларни изчил амалга ошириш, миллий истиқлол ғоясининг асосий тушунча ва тамойилларини халқимиз онги ва қалбига сингдириш борасида улкан ишларни амалга оширишга қаратилган муҳим дастур бўлди.

Бугунги кунда ҳам Юртбошимиз Ш.М.Мирзиёевнинг маънавиятга бош ҳомий бўлаётгани, вилоят ҳокимларининг маънавий ва маърифий Кенгашларига шахсан ўзлари раислик қилаётганлари мамлакатимизда маънавий қадриятларни тиклаш, ҳар томонлама камол топган инсонни тарбиялашга қанчалик катта эътибор берилганлигини кўрсатади.[www.аим.уз]

Миллат манфаати якдил бўлса миллий ривожланиш тараққиёти тафаккурнинг ижтимоий хусусиятига мазмунан таъсир этиши мумкин аммо, маънан таъсир акс этмайди.

Ижтимоий ривожланишнинг ўзбек модели тафаккурнинг ижтимоий ривожланишида ижобий акс этди. Унинг жамиятда тадрижий бўғини бу 2017-2021 йилларда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нинг ривожлантиришнинг бешта устувор йўналиши қаратилган “Ҳаракатлар стратегияси”дир.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Президенти Шавкат Мирзиёев раҳбарлигида ишлаб чиқилган ва изчил амалага оширилган 2017-2021 йилларда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ни ривожлантиришнинг бешта устувор йўналиши бўйича Ҳаракатлар стратегиясининг мамлакатимиз тараққиётини барча соҳа ва тармоқларда янги босқичга кўтариш борасидаги ўрни ва аҳамияти мустақиликни чорак аср босиб ўтган давлатимизнинг янада янгиланган хусусият билан миллий фалсафий тафаккурни ривожлантиради: Ҳаракатлар стратегияси халқчиллик, инсонпарварлик, бағрикенглик ва эзгулик ғояларига таянади. Ижтимоий ёндашишда миллий ва умуминсоний қадриятлар уйғунлигининг устувор аҳамиятга эга экани ҳақидаги назарияга асосланади. [Ҳаракатлар стратегияси 2017: 9] Миллий ўзликни англаш, маънавиятни юксалтириш масалалари Мустақилликнинг дастлабки кунларидан бугунги кунга қадар ўз аҳамиятини тараққий этириб келмоқда. Биз буни миллий хусусиятларини асраб замонавий тарзда ҳаётий тафаккуримизга сингдириб келаяпмиз: “Олдимизда турган энг муҳим масала миллий истиқлол мафкурасини яратиш ва ҳаётимизга тадбиқ этишдир. Миллий истиқлол мафкураси халқимизнинг азалий анъаналарига, удумларига, тилига, дилига, руҳиятига асосланиб, келажакка ишонч, меҳр-оқибат, инсоф, сабр-тоқату адолат, маърифат туйғуларини онгимизга сингдириш лозим”[Каримов И.1997: 168].

Истиқлол йўлида қадам ташлаб бораётган Ватанимиздаги мавжуд маънавий, маданий омилларига эътибор бериш билан бирга маориф, таълим-тарбия ишларига эътибор кучайтирилди. Бунда таълим тарбия тизимини ислоҳ қилиш, кадрлар тайёрлашни замон талаблари даражасига кўтариш соҳасида муҳим чора-тадбирлар амалга оширилмоқда. Ўзбекистон ҳукумати таълимга ислоҳотларнинг барча босқичлари учун ҳам устувор соҳа сифатида қараб келмоқда.

1992 йил 2 июлда қабул қилинган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нинг “Таълим тўғрисида”ги қонуни ҳамда 1991-1996 йиллардаэълон қилинган 30 дан ортиқ Президент фармонлари ва Вазирлар Маҳкамаси қарорлари асосида таълим соҳасида қатор ўзгаришлар амалга оширилди. [Ўроқов Д.2015: 573/574]1992 йилдан 1997 йил бошларигача таълимни ривожлантириш борасида кўрилган чора-тадбирлар натижасида бирмунча ютуқларга эришилди.

1997 йил 29 август куни Олий Мажлиснинг IX сессиясида “Таълим тўғрисида”ги янги Қонун ва Кадрлар тайёрлаш миллий дастури қабул қилинди. [Ўроқов Д. 2015: 575] Кадрлар тайёрлаш миллий дастурининг мақсади таълим соҳасини тубдан ислоҳ қилиш, уни ўтмишдан қолган мафкуравий қарашлар ва сарқитлардан тўла халос этиш, ривожланган давлатлар даражасида, юксак маънавий ва ахлоқий талабларга жавоб берувчи юқори малакали кадрлар тайёрлаш миллий моделини яратишдан иборатдир.

Юқорида қайд этилганидек бу соҳалар миллий хусусият мезонларидан оғишмаган тарзда ҳар тамонлама мамалакатимиз ривожи учун хизмат қиладиган ижтимоий онг ва тафаккурни янгича тушинишни тақозо этади: “Таълим-тарбия тизимини ўзгартирмасдан туриб, онгни ўзгартириб

бўлмайди. Онгни, тафаккурни ўзгартирмасдан туриб эса, биз кўзлаган олий мақсад-озод ва обод жамиятни барпо этиб бўлмайди"[Каримов И. 1997: 20].

Янги миллий фалсафанинг такомили Республикамизда таълимнинг янги тизимини амалга ошириш орқали ҳам ривож топмоқда. Ўзбекистон ҳукумати тарихимиздаги таълим жараёнларини ўрганиб чиқиб, илғор тараққий этган мамлакатларнинг таълим ташаббусини инобатга олиб таълимни ислоҳ қилиш дастурини тайёрлади. Барча эътибор таълим тизимларини демократик ва инсонпарварлик тамойиллари асосида такомиллаштириб, унинг моддий-техника базасини, замон ва давр талаблари даражасига кўтариш ва Ўзбекистоннинг маърифий салоҳиятини кучайтиришга қаратилди. Бу борадаги ишлар бугун изчил ва тизимли давом этмоқда. Давлатимиз раҳбари Шавкат Мирзиёевнинг 2017 йил 17 февралда қабул қилинган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Фанлар академияси фаолиятини такомиллаштириш ва рағбатлантириш туғрисида"ги фармонида мамлакатимиз ижтимоий-иқтисодий тараққиётида илм-фаннинг ўрнини янада мустаҳкамлаш, академиклар фаолиятини ҳар тамонлама қўллаб қувватлаш, юқори малакали кадрлар тайёрлаш сифатини оширишни рағбатлантириш мақсадида бир қатор муҳим чора тадбирлар белгиланган [Мирзиёев Ш.2016: Халқ сўзи].

Президентимиз Шавкат Мирзиёевнинг етакчи илм-фан намояндалари билан бўлган мулоқотида кўп масалалар муҳокама қилиниб, таклиф ва мулоҳазалар ўртага ташланди, яъни қуйидаги долзарб масалалар тилга олинди:

1.Мамалакатимизда юқори салоҳиятга эга, жаҳон миқёсида эътироф этилган олимлар кўплиги, улар ўз мактабларини яратиш, шогирдлар тарбиялаши лозим.

2. Жаҳоннинг етакчи институтлари, илмий марказлари ва Фанлар академиялари билан илмий ҳамкорликни янада ривожлантириш. Ўзбек олимлари жуда ҳам катта захира тўплаганлар, уни ривожлантириш зарур.

3. Юқори салоҳиятга эга кадрлар тайёрлаш масаласини такомиллаштириш, илмий кадрлар ва юқори малакали мутахассислар, дунё даражасидаги янги олимлар авлодини тайёрлаш даркор.

4. Илм-фан тараққиётида фундаментал тадқиқотлар муҳим аҳамиятга эга. Айнан улар орқали янги билимлар ўзлаштирилади ва назариялар шакллантирилади, келгуси амалий тадқиқотлар ҳамда инновацион ишланмалар учун мустаҳкам асос яратилади.

5. Илм-фан иқтисодиётнинг барча тармоғи тараққиётида катта ўрин тутади, давлат эса бу йўлда аввало олимларга суянади. Чунки, илм-фан ва ишлаб чиқариш ўртасида интеграция бўлиши – долзарб масала [Давлат дастури. 2017: 200].

Ўзбек халқининг тарихий – маданий ва интеллектуал меросини кўз қорачиғидек асраб авайлаш ҳамда кўпайтириш, шунингдек, ёш авлодни умуминсоний ва миллий анъаналар ҳамда қадриятлар руҳида тарбиялашга алоҳида эътибор қаратиш юқорида таъкидланган масалалар орқали амалга ошириш зарур ҳисобланади.

Фойдаланилган адабиётлар:

1. Гуннар Скирбекк. Нилс Гилье. Фалсафа тарихи. "Шарқ", Тошкент: 2002 йил.

2. Каримов И. А. Ўзбекистоннинг ўз истиқлол ва тараққиёт йўли. – Т.: Ўзбекистон, 1992.

3. Каримов И.А. Ўзбекистон: Миллий истиқлол, иқтисод, сиёсат, мафкура. Тошкент, 1997

4. Назаров.Қ. Фалсафа. Дарслик. Т.: ЎАЖБИТ, 2000

5. Шавкат Мирзиёев . Илм-фан ютиқлари – тараққиётнинг муҳим омили// "Халқ сўзи", 2016 йил 31 декабрь

6. Юсубов Д.А. ва бошқ. Фалсафа. Дарслик,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IIV академияси, Т.,2012

7. Ўроқов Д., Шаропов А. Ўзбекистон тарихидан унверсал қўлланма Қайта нашр.- Тошкент.: Акедемнашр, 2015

8. Ҳаракатлар стратегияси асосида жадал тараққиёт ва янгиланиш сари./ Нашрга тайёрловчилар: М.Бекмуродов, Қ.Куронбоев, Л.Тангриев.-Тошкент: Ғафур Ғулом номидаги нашриёт-матбаа ижодий уйи, 2017

9. 2017-2021 йилларда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ни ривожлантиришнинг бешта устувор йўналиши бўйича Ҳаракатлар стратегиясини "Халқ билан мулоқот ва инсон манфаатлари йили"да амалга оширишга оид Давлат дастурини ўрганиш бўйича илмий – услубий рисола [Матн]

10. www.аим.уз

TEACHING ENGLISH VOCABULARY TO SCHOOL CHILDREN AS A FOREIGN LANGUAGE

Parakhatova K.B.

Karakalpak State University named after Berdakh

Abstract. This current article is devoted to the study of teaching English language effectively as a second language to secondary school students in our country. Mostly, it discusses the problems of teaching English Vocabulary at schools and how to lure the children's attention to this subject more efficiently. According to our studies, we found out that teaching English Vocabulary with the help of interesting and colorful games and interactive methods rather than traditional textbooks helps students to learn and remember the new words more easily.

Key words: Vocabulary, word storage, grammar, writing, speaking, reading, listening, research, interactive methods, "Compare and Contrast Web", "Frayer Model", "Vocabulary Bingo".

"Without grammar very little can be conveyed, without vocabulary nothing can be conveyed," – states a famous linguist David Wilkins about the significance of vocabulary learning. In a recent course book, this point of view has been reflected once more: "If you spend most of your time studying grammar, your English will not progress very much. You will see most improvement if you learn a lot of words and expressions. You can say quite little with grammar, but you will be able to say almost anything with words!"

Vocabulary is the most crucial element of language proficiency and equips much of the basis for how well learners speak, listen, read and write. Vocabulary is the word storage of one or another language. Words which people use in their daily speech and writings composes their active word store. More variable and richer the vocabulary of a person is, easier it will be to use the language for him. Without an extended vocabulary and own methods for learning new words, language learners usually acquire much less than their capability and may prohibit themselves from taking advantage of language learning facilities surrounding them such as communicating with native speakers, listening to the radio or watching television in original language without translation, reading authentic materials and so on.

Recently there has been a renewed concern in the peculiarity of vocabulary and its role in language teaching and learning, however, in the past, very little privilege was given to vocabulary learning in language learning programs. As a matter of fact, vocabulary learning was paid only incidental attention in many textbooks and language programs. Therefore, nevertheless the aspects of teaching grammar, reading or speaking received quite a lot specification, extremely little evaluation was given to the role of vocabulary. For the time being, the status of vocabulary seems to be changing. Actually, the concept of a word has been widened to include lexical phrases and word patterns. Moreover, it has been suggested that in the primary steps of learning this plays an essential role in communication and acquisi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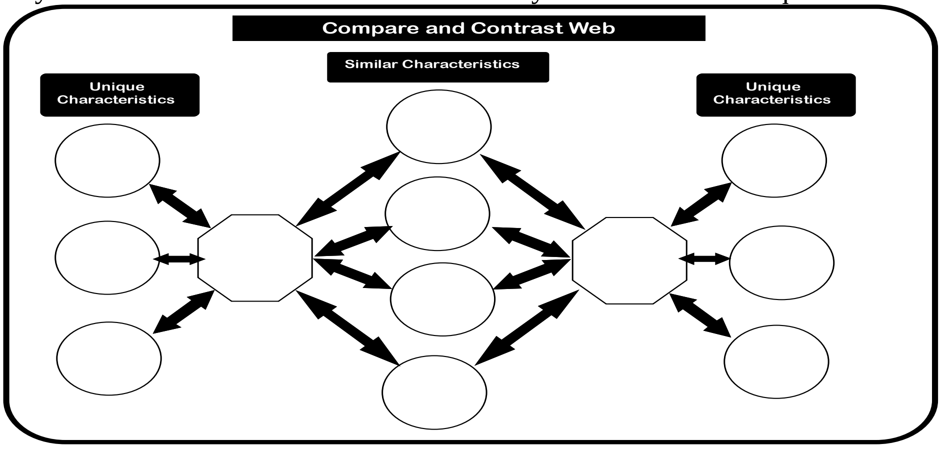
Research on vocabulary in recent years has made a great deal of effort to precise the levels of vocabulary learning that learners need to achieve in order to understand both simple and complicated materials and to process different strategies which learners use in perceiving, using and memorizing word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sent some interesting, simple, as well as, easy tips and interactive games for teaching vocabulary to school children as a second language.

Teachers come across a variety of challenges on a daily routine, but perhaps their biggest dilemma is helping learners become successful. One way to assure that all students achieve the same levels of success is finding more innovative and engaging methods to teach in order to advance student participation in topics that might not be the most interesting to learn. For instance, during the school years, vocabulary may not seem to be easy or fun, however learning new words and their meanings is very necessary to any student's further education. There are plenty of different methods that teachers can apply which are different from "textbook-and-test" method. Now, I am doing my second course on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at the university, so here are some of my interesting findings of vocabulary teaching methods which I have found out while studying.

1. “Compare and Contrast Web”

The compare and contrast web helps students to come to an appropriate conclusion of all the words and word patterns which they have learned during the lesson and can also be used as a quick summative assessment of the understanding obtained knowledge with respect to vocabulary presented in the lesson. The teacher chooses the two words from the lesson that will be presented in the web. Students will complete the compare and contrast web individually. Student will have to revise what they have learned during the lesson to identify how the two terms coincide and how they are different or unique.



2. “Frayer Mod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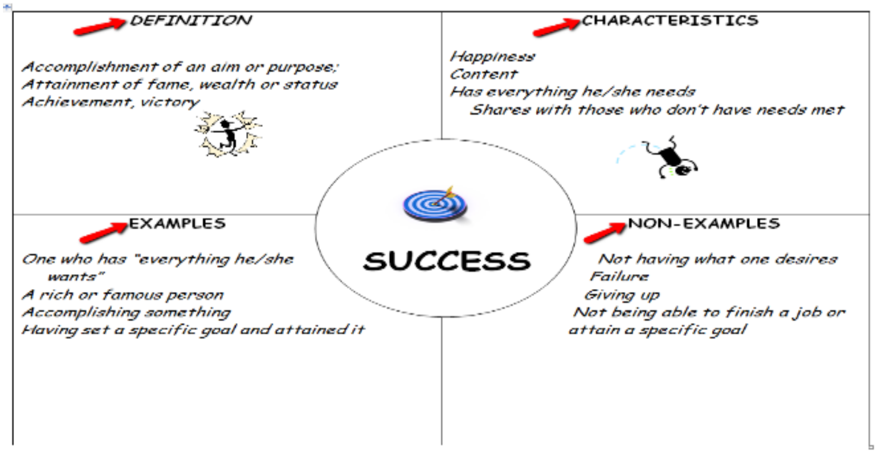
1. In the middle of the graphic organizer, in the circle, students enter their new word. Then, students write the definition of their vocabulary word in the upper left hand box.

2. In the upper right hand corner box, students write characteristics that come to mind about this word.

3. Students use the vocabulary word in a sentence in the lower left hand box called Example.

4. Finally, students complete the last box, titled Non-Example. Students draw their representation of the vocabulary word.

This graphic organizer is useful because it makes the students think about the new word which they have learned in different ways, allowing the teacher to introduce the different learning styles in the classroom.



3. “Vocabulary Bingo”

After learning some new words through a typical curriculum, it will be very beneficial to engage students in funny and colorful activities which will help them bear the new information in mind. For

instance, one of my favorite activities is Vocabulary Bingo. In this game, teacher has the students make bingo cards, writing words which they have just learned in the various places on the card. Then, the teacher reads the definitions of the word loudly. If the student has that word, they will color in the box on their cards where it exists. This helps students find and remember the word with the definition itself. Teacher can also reward students who complete bingo with prizes or extra good marks.

All the things considered, we can conclude that learning and teaching vocabulary successfully requires teachers to plan a wide variety of activities and exercises. The amount of emphasis that teachers decide to place on any given activity will depend on the learner's level and their educational goals. This present article indicates that we have to increase teacher's awareness about the influence of interactive methods on enhancing student's vocabulary mastery. Nowadays, in order to achieve an appropriate result, teachers need to create a relaxing classroom environment where students can develop their lexical knowledge, moreover, they have to present new words with engaging methods in order to deepen student's understanding. To sum up, the usage of such interactive methods and strategies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is beneficial for not only to improve vocabulary, but also learners will be able to advance their all language skills.

Literature:

1. Alan Hunt and David Beglar – Methodology in Language Teaching, chapter 24 Current Research and Practice in Teaching Vocabulary-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pp258-266
2. Lewis M. (1997) – L2 Vocabulary acquisition through extensive reading. In J. Coady & T. Huckin (Eds.). Second language Vocabulary acquisition (pp. 255-270). –Cambridge University Press.
3. Nation I.S.P. (Ed.). - New ways in teaching Vocabulary. Alexandria, VA: TESOL.
4. http://www.markville.ss.yrdsb.edu.on.ca/mm/oise2005/bestpractice/wordwall.htm

БУЮК ИПАК ЙЎЛИ: ЎТМИШ, БУГУН ВА КЕЛАЖАК

Аббасов С.Б. г.ф.д.,

Мелиев Б.А., Эшмаматов Э.Д.,

СамДУ ҳузуридаги ПКҚТ ва МО минтақавий маркази

Abstract: The article gives a detailed account of the history of the Great Silk Road, and provides insight into the past, present and future of the Silk Road.

Key words: Great Silk Road, North Road, South Road, TRASEKA.

Буюк Ипак Йўли Евросиё материгининг шарқдан ғарбгача бўлган мамлакатларини қадимдан бирлаштирган савдо ва алоқа йўли ҳисобланади. Бу йўлнинг асосий мақсади ва вазифаси биринчи навбатда қадимдан ипакчилик, чинниворлик ривожланган Хитойдан Ўрта Осиё, Кичик Осиё, Ҳиндистон мамлакатларига ипак экспорт қилиш бўлса, иккинчидан шу мамлакатлардан Хитойга турли хил газламалар, гиламлар, қимматбаҳо тошлар, зеб-зийнат буюмлари, дори-дармонлар импорт қилиш бўлган. Ана шу асосда Хитойнинг Ўрта Осиё, Яқин Шарқ, Эрон ва кейинчалик Ўрта денгиз бўйи мамлакатлари – Греция, Албания, Болқон яриморолининг бошқа мамлакатлари ҳамда Италия билан савдо-сотиқ, маданий ва элчилик алоқалари ривожлана борган.

Буюк Ипак Йўлининг Шарқий Осиёдаги тўнғич маркази Хитойнинг энг йирик дарёси бўлган Хуанхэнинг ўрта оқимида жойлашган Сиан шаҳридан бошланиб, сўнгги нуқтаси ғарбий Европада Италиянинг Рим шаҳригача давом этган. Буюк Ипак Йўли Марказий, Ўрта ва Кичик Осиё ҳудудларида жуда кўп тармоқларга бўлиниб кетган ва юзлаб, минглаб катта-кичик воҳаларни, маданий ва савдо марказларини бир-бири билан туташтирган.

Хитойдан Италиягача чўзилган Буюк Ипак Йўлининг Ўрта Осиёдаги асосий чорраҳаси Ўзбекистон ҳудуди, айнан Самарқанд воҳаси бўлган. Шунинг учун марказий йўллар Бақтрия, Суғдиёна ва Парфия орқали ўтган. Хитойдан Марказий ва Ўрта Осиёгача бўлган қадимги карвон йўли шимолда Турфондан Тарим-Қашқар-Ўш-Фарғона-Самарқанд-Марв-Эрон орқали Месопотамияга ва жанубда Аньсу-Чарклик-Хўтан-Ёркент-Олой-Помир-Балх орқали Ҳиндистонга йўналган.

Ўша даврлардан Буюк Ипак Йўлини кенг кўламда қулоч ёйиши ва кўплаб мамлакатларни бир-бири билан боғланиши Хитой императори Удини жуда қизиқтиради. Унинг топшириғи билан милоддан аввалги 138 йилда Хитой сайёҳи Чжан Цян Марказий ва Ўрта Осиё шаҳарлари бўйлаб сафар қилади. Саёҳатнинг асосий мақсади Буюк Ипак Йўлида жойлашган Ўрта Осиё шаҳарлари, уларнинг табиий шароити, маданияти, аҳолиси ва хўжалиги билан танишиш, ўрганиш ҳамда улар тўғрисида географияга, этнографияга, тарихга, маданиятга оид материаллар тўплаш эди.

Шуни таъкидлаш керакки, Чжан Цяннинг Марказий ва Ўрта Осиёга қилган саёҳати қанчалик қийин ва машаққатли бўлишига қарамасдан, ўша даврда бажарилган ишларнинг ва тўпланган материалларнинг аҳамияти жуда каттадир. Чжан Цяннинг дастлабки саёҳати ва босиб ўтган йўллари кейинчалик хитойлик савдогарлар, элчилар ва сайёҳларнинг кўплаб мамлакатлар билан иқтисодий, маданий алоқалар ўрнатишга, янги саёҳатлар ташкил этишга йўл очиб берган.

Эрамизнинг I-IV асрларида, Кушон давлати мавжуд бўлган даврда Буюк Ипак Йўлининг барча магистраллари шаклланган бўлиб, улар:

Фарғонадан Хўжанд орқали Зомин-Самарқанд-Бухоро-Амударё-Чоржуй-Марв-Саракс-Машҳад Европага;

Фарғонадан Камчик довони орқали Тошкент-Жиззах-Самарқанд-Бухоро-Қиёт (Беруний)-Урганч-Шимолий Каспий орқали Шарқий Европаг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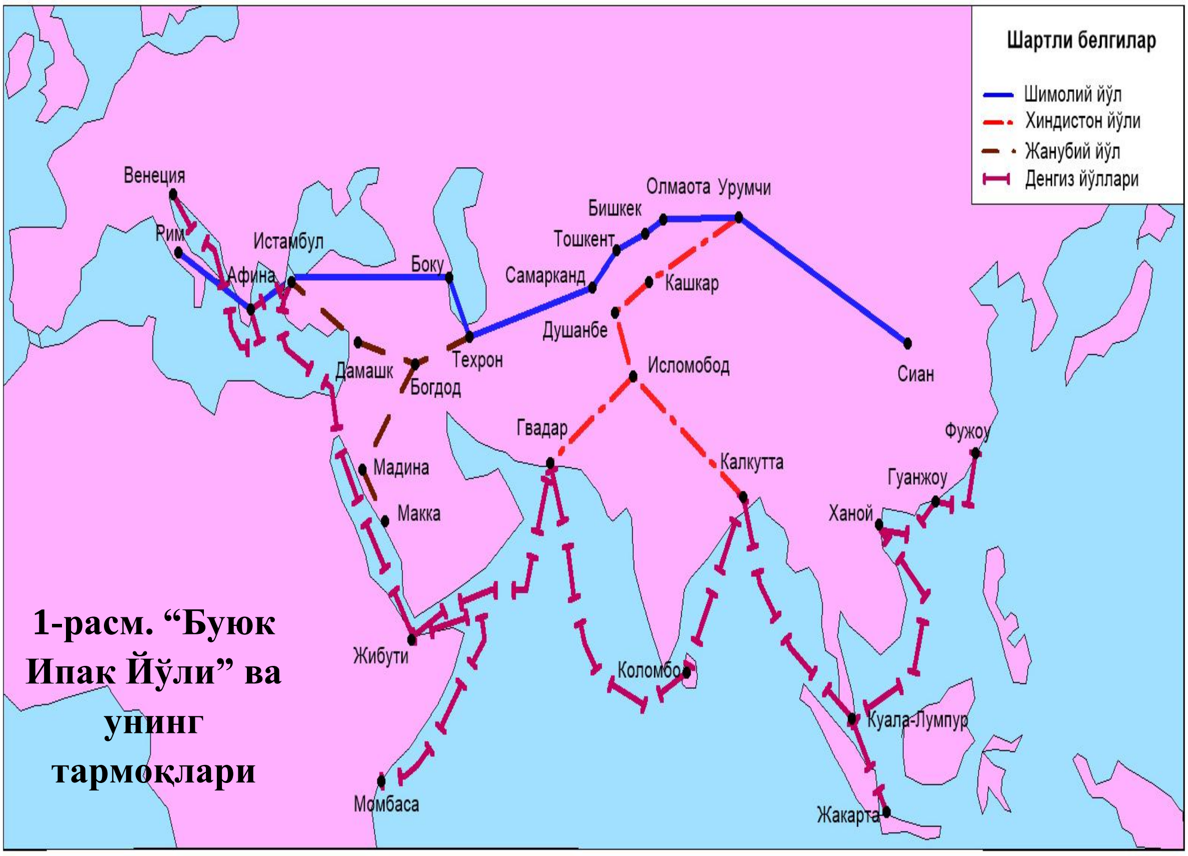
Самарқанддан Кеш (Шаҳрисабз) орқали Ксениппу (Косон)-Амуль (Чоржуй)-Марв-Нессу (Ашхобод яқинида)-Журжон (Горган)-Каспийнинг жанубидан Сурия ва Бобилга;

Самарқанд-Кеш-Ғузор-Шеробод-“Темир Дарвоза” - Дармамитра (Термиз)-Амударёдан Бақтрия, Шимолий Афғонистон орқали Шимолий Ҳиндистонга ва Покистон орқали Форс қўлтиғи ҳамда Қизил денгизга чиқилган (1-расмга қаранг).

Эрамиздан олдинги IV асргача асосан шимолий қуруқлик йўлидан кўп фойдаланилган бўлса, эрамизнинг VIII-IX асрларига келиб жанубий йўлларнинг аҳамияти ортади. Буюк Ипак Йўлининг энг гуллаган даври Амир Темур даврига тўғри келиб, бу даврда Темурийлар давлати шарқдан ғарбга жуда катта ҳудудда ўз ҳукмронлигини ўрнатади. Натижада карвон йўлларини назорат қилиш, савдогарларнинг ҳавфсизлигини таъминлаш олий даражага чиқади. Йўл божларининг камайиши, воситачиликка қўйилган чекловлар қуруқлик орқали ўтган жанубий йўлни нуфузини ошириб, савдо-сотиқ ишларининг ривожланишига сезиларли ҳисса қўшади. Бу ўз навбатида илм-фан ривожига ҳам маълум даражада турткi бўлади.

Аммо XV асрга келиб темурийлар давлатининг парчаланиши, ғарбда усмонийлар империясининг устунлигини, жанубда эса Эрон давлатининг ҳукмронлигини келтириб чиқаради. Бу эса воситачиликнинг кучайишига, савдо карвонларининг тинмай таланишига олиб келади. Натижада қуруқлик йўлининг нуфузи йўқолиб боришига олиб келди. Шу даврдан бошлаб Буюк Ипак Йўли ўз ўрнини денгиз йўлига бўшатиб бера бошлади. Шу билан қарийб 2500 йил асосий карвон йўли саналган, Европа ва Осиёнинг ўнлаб мамлакатлари, халқларини бир-бири билан чамбарчас боғлаб турган Буюк Ипак Йўли ўз аҳамиятини йўқотади.

Ўтган асрнинг 90-йилларидан бошлаб Буюк Ипак Йўлини қайта тиклаш бўйича Европа ва Осиёнинг бир қатор давлатлари, жумладан Ўзбекистон ҳам илк қадам ташлади. Ҳар бир давлатнинг иқтисодиётида автомобил, темир йўл, денгиз ва ҳаво йўлларининг аҳамияти қанчалик муҳим эканлиги барчамизга маълум. Давлатнинг географик жойлашишига боғлиқ ҳолда турли хилдаги йўлларнинг аҳамияти турлича бўлади. Денгизлардан узоқ, берк ҳавзада жойлашган Ўрта Осиё республикаларида юк ташишда асосан автомобил ва темир йўл транспортларидан фойдаланилади. Ҳозирги техник тараққиёт ва жадал иқтисодий ривожланиш даврида фақат қўшни давлатлар билан бўладиган иқтисодий алоқалар бизни қаноатлантирмайди. Шу сабабли ташқи савдонинг ривожланишида денгиз транспортидан фойдаланиш имкониятларини ошириб боришимиз мақсадга мувофиқдир.



1-расм. “Буюк Ипак Йўли” ва унинг тармоқлари

Ўрта Осиё давлатларига масофа жиҳатдан энг яқин денгиз йўли Қора денгиз ҳисобланади. 1993 йил май ойида Бельгиянинг Брюссель шаҳрида Европа иқтисодий комиссияси ташаббуси билан Ўрта Осиё ва Кавказ орти давлатлари раҳбарларининг йиғилиши ўтказилди ва ТРАСЕК (Европа-Кавказ-Марказий Осиё транспорт йўлаги) лойиҳаси муҳокама қилинди. Бу йўлакнинг Ўрта Осиёдан бошланадиган буғунларидан бири Тошкент шаҳри бўлиб, темир йўл маршрути Тошкент-Чоржуй-Туркманбоши-Красноводск-Боку-Поти шаҳарларини ўз ичига олади. Йўлнинг умумий узунлиги 2950 км. ТРАСЕК лойиҳаси бўйича автомобил, темир йўллар ва денгиз портлари қайта таъмирланди.

Маълумки, Хитой 2013 йилда Евроосиё мамлакатлари ўртасидаги ҳамкорлик алоқаларини кенгайтириш мақсадида “Бир макон-бир йўл” деб номланган иқтисодий тараққиётнинг янги стратегиясини эълон қилди. Шу тариқа Хитой раиси Си Цзиньпин кўп асрлик Буюк Ипак йўлини қайта тиклаш борасидаги ўз ғояларини амалга оширмоқда. Янги Ипак йўлини ташкил қилиш ғояси Си Цзиньпин томонидан 2013 йилнинг 7 сентябрь куни илгари сурилган эди. Орадан бир ой ўтиб у Индонезия парламентида сўзлаган нутқида 21-асрнинг Буюк Ипак йўли ҳақидаги фикрларини такрорлади.

«Бир макон, бир йўл» лойиҳасининг асосий мақсадларидан бири глобал эркин савдо тартибини қўллаб-қувватлаш, Осиё, Европа ва Африка мамлакатлари ўртасида интеграцияни кенгайтиришга қаратилган. Ҳисоб-китобларга кўра, бутун лойиҳанинг тахминий иқтисодий кўлами 21 триллион АҚШ долларини ташкил қилади.

Бугунги кунда 100 дан ортиқ давлат лойиҳада қатнашиш истагини билдирган, 40 дан зиёди Хитой билан ҳамкорлик қилиш бўйича битим имзолаган. Натижада 2013 йилдан 2017 йилгача Хитой ва «Бир макон, бир йўл» лойиҳасига қўшилган мамлакатлар ўртасида ташқи савдо айланмаси 4,8 триллион АҚШ долларига етди, йиллик ўсиш 4 фоиз ошди.

Хитой лойиҳа доирасида икки томонлама ва кўп томонлама ҳамкорликни назарда тутувчи «мослашувчан механизмлар»ни қўллаб келмоқда. Хитойнинг транзит-логистика соҳасига оид лойиҳалари Марказий Осиё мамлакатларининг жаҳон бозорига чиқиши, бошқа давлатлар билан саноат кооперациясини мустаҳкамлашига кенг йўл очмоқда.

Ўзбекистон биринчилар қаторида «Бир макон, бир йўл» ташаббусини қўллаб-қувватлади ва унинг аъзо-таъсисчиларидан бирига айланди. Мамлакатимиз учун денгиз портларига чиқиш жуда муҳим. Шу боис, Жанубий Осиё, Яқин Шарқ ва Африка бозорларига чиқиш имконини берувчи халқаро транспорт йўлакларини ташкил этиш бўйича лойиҳаларда фаол иштирок этмоқда.

Жумладан, 2016 йилда Фарғона водийсини Ўзбекистоннинг бошқа ҳудудлари билан боғловчи "Ангрен-Поп" электрлаштирилган темир йўли барпо этилди. Мазкур линия Хитойгача бўлган масофани 270 километр қисқартириш имконини берди. Бундан ташқари, Хитой-Қирғизистон-Ўзбекистон темир йўлининг қурилиши мамлакатларимиз учун улкан иқтисодий имкониятлар очади. Натижада мамлакатимиздан Хитой ва Ўрта Шарққа тўғридан-тўғри чиқиш имконияти юзага келади, юк ташиш вақти 5-6 суткага қисқаради. Янги автомобиль йўллари, жумладан, «Андижон-Ўш-Иркиштом-Қошғар» қатновини очиш минтақа давлатлари ўртасида ўзаро манфаатли алоқаларни кенгайтириб, уларнинг иқтисодий тараққиётига қўшимча суръат бағишлайди.

ФУКЦИОНАЛ САВОДХОНЛИКНИ ШАКЛЛАНТИРИШДА ХОРИЖИЙ ТИЛЛАРНИНГ ЎРНИ

Кудратова А.И.
Самарқанд вилояти халқ таълими ходимларини
қайта тайёрлаш ва малакасини ошириш ҳудудий маркази

Аннотация

Мақолада мамлакатимизнинг 2030 йилда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халқаро тадқиқотлар дастури рейтинги бўйича жаҳоннинг биринчи 30 та илғор мамлакати қаторига киришга эришишини таъминлаш мақсадида ўқувчиларнинг хорижий тилларни ўрганишга бўлган эҳтиёжларини шакллантириш ва ривожлантиришни кераклигининг муҳим омиллари ёритилган.

Таянч сўзлар: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Вазирлар Маҳкамасининг 997-сонли қарори,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Президенининг ПФ-5712 – сонли фармони, хорижий тиллар, дастур доирасидаги топшириқлар, фанлар аро интеграция.

Annotation

The article outlines important aspects of our country`s need to shape and develop students' foreign language learning needs in order to ensure that 2030 access to the top 30 most developed countries in the world by the PISA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Key words:

PISA (Program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Resolution 997 of the Cabinet of Ministers of the Republic of Turkey, 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foreign languages, task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program.

Ривожланган мамлакатларда таълимнинг тўлиқ циклига инвестиция киритишга, яъни бола 3 ёшдан 22 ёшгача бўлган даврда унинг тарбиясига сармоя сарфлашга катта эътибор берилади. Чунки ана шу сармоя жамиятга 15-17 баробар миқдорда фойда келтиради, бизда эса бу кўрсатгич 4 баробарни ташкил этади. Бинобарин инсон капиталига эътиборни кўчайтиришимиз, бунинг учун барча имкониятларни сафарбар этишимиз шарт[138]*....*

Ш.Мирзиёев

Бугун XXI аср учун муҳим бўлган билим, кўникма ва малакаларига асосланган сифатли ва самарали таълимни йўлга қўйишни ҳамда ўқувчиларда танқидий тафаккур, ўқиш саводхонлиги,

[138] Президентнинг 2018 йил якунлари бўйича Олий Мажлисга Мурожаатномасидан.

мантиқий фикрлаш ва жараёнларни муҳокама қилиш, мураккаб муаммоларни ҳал қила олиш, ахборотлар билан ишлаш кўникмаларни шакллантириш ва ривожлантиришни тақозо этади.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Вазирлар Маҳкамасининг "Халқ таълими тизимида таълим сифатини баҳолаш соҳасидаги халқаро тадқиқотларни ташкил этиш чора-тадбирлари тўғрисида"ги 2018-йил 8-декабрдаги 997-сонли қарорига кўра, умумтаълим мактаб ўқитувчиларининг ўзлаштириш кўрсаткичларини назорат қилиш ва баҳолашни халқаро дастурлар асосида амалга ошириш ҳамда таълим сифатини баҳолаш бўйича халқаро тадқиқотларда иштирок этиш вазифалари белгиланди. 2021 йилда PISA халқаро дастурларида мамлакатимиз иштирок этиши режалаштирилди[139].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Президенининг 2019 йил 29 апрелдаги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Халқ таълими тизимини 2030 йилгача ривожлантириш концепциясини тасдиқлаш тўғрисида"ги ПФ-5712 – сонли фармонида белгиланган вазифалардан бири қилиб, 2030 йилга келиб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Халқаро миқёсда ўқувчиларни баҳолаш дастури рейтинги бўйича жаҳоннинг биринчи 30 та илғор мамлакати қаторига киришга эришиш, белгилаб берилди[140].

Юқоридаги талабларни таълим тизими учун жуда муҳим эканлигини, аксарият хорижий давлатлардаги каби таълим ва фан соҳалари ривожланишини баҳолаш ва мониторинг қилиш орқали таълим сифатини оширишга қаратилган илғор тажрибаларни соҳага жалб қилиш кераклигини англатади.

Иқтисодий ҳамкорлик ва ривожланиш ташкилотининг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Халқаро ўқувчиларни баҳолаш Дастури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PISA))* - турли давлатларда15 ёш-у 3 ой 16 ёш-у 2 ойлик ўқувчиларнинг функционал саводхонлигини (ўқиш, математика, табиий фанлар, ҳамкорликда муаммоларни ҳал қилиш, молиявий асослар) баҳолайди. Тадқиқотларнинг доимий олиб борилиши ва натижалари таҳлили мамлакатларнинг халқаро стандартларни ҳисобга олган ҳолда жахонда эгаллаган ўрни, таълим сифати тўғрисида хулосалар чиқариш имконини беради. Шу билан бирга, таълимдаги бўшлиқларни аниқлаш ва миллий таълим тизимини ислоҳ қилиш, таълим мазмунини, педагог кадрлар тайёрлаш ва уларнинг малакасини ошириш дастурларини такомиллаштириш ҳамда мутахассислар томонидан дарсликларнинг янги авлодини яратишда асос бўлади.

Дастур дирасида тақдим қилинадиган топшириқларнинг муҳим жиҳати шундаки:

- топшириқлар бажарилишига кўра ўқувчиларнинг функционал саводхонлиги, яъни олган билимларини ҳаётий вазиятларда қанчалик қўллай олишлари баҳоланади;

- барча иштирокчи давлатлар учун битта топшириқ тузилади ва ўқувчиларнинг қайси тилда таълим олишига қараб, шу тилга мутахассислар томонидан таржима қилинади;

- ҳамма топшириқлар фанлар интеграцияси асосида тузилади. Масалан 2021 йилда тадқиқотлар математик саводхонликга қаратилганлиги сабабли, синов материалларида математика билан бошқа йўналишлар чамбарчас боғлиқ бўлади. Яъни 35 % математика ва табиий фанлар саводхонлиги, 35% математика ва ўқиш саводхонлиги, 24% математика ва ижодий фикрлаш, 2% ўқиш ва табиий фанлар саводхонлиги, 2% ўқиш ва ижодий фикрлаш, 2% ижодий фикрлаш ва табиий фанлар саводхонлигидан иборат бўлиши кутилмоқда.

Демак, бугунги кун мактаби ўқувчиларга билимларни режа асосида беришдан четлашиб, олган билимларини ҳаётий вазиятларда қўллай олишга йўналтириши керак.

XXI аср Ахборот технологиялари даври бўлиб, унинг энг катта ютуғи Интернет - чексиз имкониятларга эга. Ўқувчи исталган маълумотини излаб топиши уни солиштириши, таҳлил қилиши ва хулосалар чиқариб, уларни ҳаётда қўллай олиши мумкин. Фақат бир тусиқ бор. Тилларни билиши чекланганлиги. Тилларни ўргатиш фақат фан (рус, инглиз, немис, француз...) ўқитувчиларинингина вазифаси эмас. Бунда барча фан ўқитувчилари маъсулдирлар. Масалан математика (биология, география, она тили ва адабиёт...) фани дарсида ўқитувчи мавзуга доир сўзларнинг хорижий тилдаги талқинини ёздириб, шу тилда 1-2 та масалани биргаликда таҳлил қилса, уйга интернетдан PISA халқаро тадқиқотлар дастури доирасида оригинал вариантдаги топшириқларни топиш, таржима қилиш ва ечишни вазифа қилиб берса, ўқувчилар тил ўрганиши мақсадли бўлади. Сабаби, сўзларини таржима қилиб, гапларини тўғри шакллантира олмаган ўқувчилар хорижий тил ўқитувчиларига мурожат қиладилар. Хорижий тил ўқитувчиларининг вазифаси эса ўқувчиларни тўғри таржима қилишга йўналтириш ва бу жараёнда улар қиладиган хатоларни кўрсатиш, ўз фанига қизиқтира

[139]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Вазирлар Маҳкамасининг "Халқ таълими тизимида таълим сифатини баҳолаш соҳасидаги халқаро тадқиқотларни ташкил этиш чора-тадбирлари тўғрисида"ги 2018-йил 8-декабрдаги 997-сонли қарори

[140]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Президенининг 2019 йил 29 апрелдаги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Халқ таълими тизимини 2030 йилгача ривожлантириш концепциясини тасдиқлаш тўғрисида"ги ПФ-5712 – сонли фармони ҚҲММБ: 06/19/5712/3034-сон 29.04.2019 й.

олишдир. Шунда интернетдан керакли маълумотларни олишдаги тўсиқлар йўқолиб боради. Ўқувчилар жаҳон тажрибалари билан танишиш, уларни бойитиш ва кўпайтириш имкониятларига эга бўладилар.

Функционал билимларни шакллантириш мақсадида математика фани ўқитувчиси берилган вазифаларни дарс ёки дарсдан кейинги жараёнда гуруҳларда, жамоада таҳлил қилади ва ўқувчиларини рағбатлантириб, уларга "PISA халқаро дастурлари доирасидаги таржима қилинган топшириқлар", "PISA халқаро дастурлари доирасидаги топшириқлар ечилиши усуллари", "PISA халқаро дастурлари доирасида янги тузилган топшириқлар" тупламларини тузишни таклиф қилади. Ўқувчиларнинг устозлари ёрдамида бу жараёнга доимий жалб қилиниши уларни PISA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халқаро дастурларида муваффақиятли иштирокини таъминлайди.

NEW INFORMATIONAL AND PEDAGOGICAL TECHNOLOGIES IN TEACHING ENGLISH ANDCOMPUTER MATERIALS IN FOREIGN LANGUAGE LESSONS

Yusupov N.O.
Master II course SamSIFL
Imam Bukhari International Scientific Research Center

Keywords: multimedia, computer technology, Internet, the rol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information society, the main goals, modern teaching methods, knowledge and skills, the self-cognitive activity.

Annotation: This study is devoted to modern linguistic problems. Here, special attention is paid to the problem of parts speech and of learning foreign languages. At the same time, you may see, that the modern linguists describe a number of linguistic problems, that existed from the age of antiquity. It describes the approaches and opinions of modern specialists to the problems of modern linguistics.

The rapid development of computer technology over the past few years, as well as their active use in the educational process, have led to significant changes in the educational system. These changes affected not so much the structure of the education system, the methodology, and technology of the learning process, but also its strategic orientation. According to the Federal Target Program "Development of a Unified Educational Information Environment", the more relevant features of a promising educational system should be:

- the openness of education to the future;
- free use of various information systems, which today play no less a role in education than the direct educational process;
- the personal orientation of the learning process;
- development of information culture;
- changing the role of the teacher: the transition to joint action in new, unprecedented situations in an open, changing, irreversible world[141]. The process of learning English is complex, gradually developing the system. Computerization of learning a foreign language helps to ensure access to educational information. With the advent of multimedia, computer technology, and the Internet, the rol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in teaching foreign languages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causing controversy among foreign language teachers around the world[142].

Since the need to teach a child to learn and prepare him for life in the information society is considered one of the main goals in modern teaching methods, training should be organized in such a way that, apart from providing the learner with a certain base of language knowledge and skills, teach him to acquire them independently and thereby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the personality of the student intellectually and morally. Consequently, one of the most urgent tasks that arise for a foreign language teacher is the organization of self-cognitive activity of students.

---

[141]СинегубоваН. М.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на уроках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Школа, 2006.
[142]Коптюг М.Н. Интернет уроки как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й материал дл ячителей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ИЯШ. – 2000, № 4 . С. 57-59.

As follows from the work of methodologists and researchers, modern information technologies have great potential to solve these problems, which makes it possible to regard them as a promising environment for teaching a foreign language[143] . In addition, currently, th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is a prerequisite for the effectiveness of the educational process. This process is established by the requirements for the level of mastery of the language, forms, and methods of its application. The relevance of this study is determined by the need to study effective teaching aids aimed at independent and individualized learning activities in mastering a foreign language at all stages of learning that meet today's meaningful understanding of the role of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in the learning process, as well as the need to analyze the conditions of learning efficiency using ICT and search for new methods of their application. The purpose of the work is to study the experience of using information technology in English lessons at different levels of education, providing holistic support for independent learning activities of foreign language learners.

Computer lessons in foreign language lessons

Learning English, like any other, requires a student-centered approach, since, with personal interest, it is much easier to maintain communication and perform a given task than to enforce it. The personality-oriented approach is the concentration of the teacher’s attention on the holistic personality of a person, concern for the development of not only his intellect but also his spirituality with emotional, aesthetic, creative inclinations and development possibilities. In order to achieve the learning objectives outlined by the modern program, communication in a foreign language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the communicative competence of students. When organizing communication, it is recommended to apply such situations that affect the interests of students, related to his personal experience, i.e. give trainees the opportunity to fully implement a student-centered approach[144] . The use of information technology in the study of foreign languages provides the teacher many opportunities. Thanks to computer programs in English lessons, you can solve many didactic tasks, such as: the formation of reading skills and abilities; improvement of writing skills; expanding vocabulary of students; correction of pronunciation skills; formation of motivation to learn English.

The use of educational and cognitive programs is the most accessible way to use a computer both in class and during school hours. At the moment there is a wide variety of not only educational and methodical complexes, but also whole courses on CDs on the market of educational software. They can be used in different learning situations, if you clearly understand how they can fit into the learning process[145]. The lessons of a foreign language in the computer class are distinguished by their diversity, the heightened interest of students in a foreign language, and their effectiveness. Multimedia tools make it possible to adjust curricula based on the interests and capabilities of individual students. Trainees can use multimedia elements in their homework, for example, when preparing presentations or project assignments. In the classroom, we can recommend the use of computer programs such as Professor Higgins, Triple Play Plus, Deutsch für Kinder, Deutsch Gold, Lerne Deutsch, Euro Talk, Deutsch Platinum, Talk to me, etc. Consider some types of programs and their features:

Rich language material is contained in the English Gold CD. This program is as close as possible to the conditions of complete immersion in the language environment. Here are all sorts of life situations. Students hear English, try to understand it, translate, speak, write dictations, replenishing vocabulary and learning grammatical forms in parallel.

The grammatical section of the course is represented by theoretical material and exercises for practicing writing skills. English phonetics is presented as a separate learning system. This is a theoretical material and exercises to work out every sound, intonation, stress, speed, and rhythm of speech. Gold is a comprehensive guide to the English language. It dynamically and uniformly develops all aspects of the

[143]Протасеня Е. П. Компьютерное обучение: заипротив. М.: Просвещение, 1997.
[144]ДмитриеваЕ.И. Основная методическая проблем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об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ам через компьютерные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е сети интернет. ИЯШ. – 1998, №1. С.32-36.
[145]Голубева Т. И., Репина С. О. Применение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обучении иностранному языку. Оренбург: ГОУОГУ, 2004.

language is interconnected and not scattered[146]. Talk to Me - is an interactive computer course for learning a foreign language. The newest multimedia technologies help to quickly and effectively master the perception of oral speech, deliver the correct pronunciation and teach fluent speaking. Talk to Me classes develop all speech skills and will be of interest to people of different ages[147] .

Features of the program are:

- interactive dialogues;
- A speech recognition and pronunciation visualization system;
- animated videos that demonstrate the articulation of sounds;
- exercises for the development of all types of speech skills;
- individual work settings;
- tracking learning outcomes.

In computer technology lessons, creative activity prevails over reproductive activity. Active involvement in the process of creating language material and a high degree of interactivity include mechanisms that facilitate learning: associative and emotional memory, audiovisual perception. The use of parallel texts in Russian and English helps the involuntary unconscious establish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words. Listening to the material facilitates and accelerates its assimilation, helps to improve the English pronunciation, to develop the correct intonation of the English language.

When applying for a training computer program, the teacher should rely on the following aspects:

- pedagogical - as far as the program meets the general orientation of the school course and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correct ideas among students in the surrounding world;

- psychological - how this program will affect the motivation of learning, the attitude to the subject, will increase or reduce the interest in it, whether students will not have confidence in their strength due to difficult, incomprehensible or unconventional requirements imposed by the machine;

- organizational - whether the lessons are rationally planned with the use of a computer and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whether enough students are given the computer time to perform independent work;

- methodical - whether the program contributes to better learning of the material, whether the choice of the tasks offered to the student is justified, whether the material is methodically delivered.

Computer programs in training should be used only when they provide knowledge that is impossible or difficult enough to obtain with computer technology. Programs should be a learning tool, not a goal[148] . But it is very important to build training in such a way that the student understands that the task is solved by him, and not the machine, that he alone is responsible for the consequences of the decision made. Schoolchildren lose interest in work if, at the end of a lesson the fruits of their labor are destroyed,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use the work they have done in class when creating software products or developing teaching materials. In this period of development of society, in the era of informatization, it is necessary to match education to the level of developing social produc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tasks of education, namely, to improve the quality of training specialists using modern information technologies in the educational process; apply active teaching methods and, as a result, increase the creative and intellectual components of educational activities; to adapt information technology of education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 that is, to transfer education to the channel of informatization. The most important information training tool is a personal computer, the use of which allows you to make the lesson attractive, informative and modern. The computer can be used in teaching phonetics, grammar, vocabulary, reading, listening, speaking, translation.

An important role in the chain of computerization of education is played by the teacher, who must have a certain methodological level of mastery of multimedia technologies for their successful application in teaching foreign languages.

---

[146]URL:(https://www.englishuk.com,http://www.jourist-online.de).

[147](Electronic archive. URL: http: // http://www.mydiv.net).

[148]ПоляковА.А. Системыдистанционногообучения. Новые знания, 1996, №3. С.52-65.

Modern computer technologies allow teachers to independently create teaching programs without possessing special skills.

REFERENCES:

1. СинегубоваН. М.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на уроках иностранного языка. Журн: Школа, 2006.

2. Коптюг М.Н. Интернет уроки как вспомогательный материал дляучителей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ИЯШ. – 2000, № 4. стр. 57-59.

3. Протасеня Е. П. Компьютерное обучение: заипротив. М.: Просвещение, 1997.

4. ДмитриеваЕ.И. Основная методическая проблема дистанционного об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ым языкам через компьютерные теле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е сети интернет. ИЯШ. – 1998, №1. С.32-36.

5.URL:https://www.englishuk.com,http://www.jourist-online.de.

6. Electronic archive. URL: http: // http://www.mydiv.net.

7. ПоляковА.А. Системыдистанционногообучения. Новые знания, 1996, №3. С.52-65.

8. Голубева Т. И., Репина С. О. Применение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обучении иностранному языку. Оренбург: ГОУОГУ, 2004.

9.Ahmadi, M. R. 2017. The impact of motivation on reading comprehen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Research in English Education.

10.Alsaleem, B. I. A. (2014). The effect of "WhatsApp" electronic dialogue journaling on improving writing vocabulary word choice and voice of EFL undergraduate Saudi Students. Harvard: 21st Century Academic Forum Conference Proceedings.

11.Arifah, A. 2014. Study on the use of technology in ELT classroom: Teachers' perspective. M.A. Thesis, Department of English and Humanities, BRAC University, Dhaka, Bangladesh.

12.Baytak, A., Tarman, B., &Ayas, C. (2011). Experiencing technology integration in education: children's perceptions. International Electronic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3(2), 139-151.

13.Eastment, D. 1999. The Internet and ELT. The British Council.

14.Harmer, J. 2005. The Practice of English Language Teaching. Longman.

15.Skehan, P. 1999. English Language Learning. London. University of London.

16.Integrating ICT into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Guide for Authors – available at www.elearningguides.net /.../3b-GUIDES-TUTORS-EN.pdf.

KODLASHGAN ADABIYOT TALQINI

Ilhomova D.
JizDPI talabasi Ilmiy rahbar:
Xazratqulova E.

Yaponiya zamonaviy adabiyotining mashhur vakili Kobo Abe (taxallusi, asl ismi Abe Kimufusa)ning ijodi oʻz davrida va hozirgi kunda ham adabiy jamoatchilik oʻrtasida turlicha bahslarga sabab boʻlmoqda. Uning asar qahramonlari jahon adabiyotida Frans Kafka va Alberto Moravia[149] ijodi bilan solishtirib oʻrganiladi. Kobo Abe oʻzining dastlabki romani «Qumdagi ayol» asaridayoq oʻz yoʻnalishini belgilab olgan edi. Uning ijodi badiiy adabiyotda antiqa, jumboqli va murakkab sujetli deya e'tirof etiladi. Xuddi shu yoʻnalishda yozilgan «Yashik-odam» romani «…boshidan oxirigacha juda qiziqarli va oʻziga tortuvchi yangi yoʻnalishdagi asadir» [Elkins J. 2017:goodreads.com].[150] 1973-yilda yaratilgan ushbu «zamonaviy satirik roman» [Kathleen K. 2010: 24] keng jamoatchilik tomonidan iliq kutib olingan.

«Yashik-odam» romani politsiya mahkamasining shahar sayoqlardan tozalanganligi haqidagi axboroti bilan boshlanadi. Bu esa asardagi birinchi kalit boʻlib, daydi ─ yashik-odamlarning yoʻqotilishi orqali jamiyat yuksalib boryapti,- degan xulosaga kelinadi. Ammo asar davomida yashik-odamlarning paydo boʻlish sabablari va uning oqibatlarining toʻla ochib berilishi jamiyatdagi muammolarning mohiyatini

[149] Alberto Moravia- italiyalik yozuvchi va jurnalist. Uning asarlarida ekzistensializm va jamiyatdan begonalik masalalari tadqiq qilinadi.
[150] Ingliz tilidagi manbalardan olingan fikrlar muallif tomonidan tarjima qilindi.

aniqlashtiradi. Yashik-odam oddiy gadoy emas. Aslida uning yashashga uyi, puli va umuman hamma narsasi boʻlishi mumkin. Ammo u hamma narsadan yashikni afzal bilayapti. Bunga sabablar ham turlicha: ruhiyatdagi tushkunlik, atrofdagilarning befarqligi, ruhiy kasalliklar, uyatchanlik va qiziqqonlik. Asarda yagona sujet chizigʻi yoʻq, voqealar shunchalar chalkashib ketganki, yozayotgan kim-u bayon qilayotgan kim ekanligi, haqiqiy yashik odam kim-u soxtasi kimligini anglash gʻoyatda mushkul. 1974-yilda New York Times jurnalida bosilgan maqolada ham «Bu asar sujeti xuddi tennis koptokchasidek koʻz ilgʻamas burchaklarga telba-teskari harakat qiladi» ,─ deyiladi [Jerome Charyn. 1974: 452].

Asarda yashik tayyorlash usuli ipidan ignasigacha bayon qilinadi. Bu esa oʻquvchiga yashik-odamni tasavvur qilib, ongida jonlantirishga yordam beradi. «Sim besh, oʻn, oʻn besh santimetrlik kichik-kichik boʻlaklarga boʻlib kesiladi, qarama-qarshi tomonlarining uchlari egilib, ilgak qilinadi…transistor, kosa, termos, choʻntak fonari, sochiq, ashqol-dashqol solinadigan quticha singari hamma vaqt qoʻl ostingda turishi lozim boʻlgan narsalar…» [Kobo Abe. 1986:7].

Romanda koʻrinish bergan ilk yashik-odam kasbiga koʻra fotoreportyor. Uning oʻy-xayollari, toʻplangan tajribalari kundaliklari yordamida bayon qilinadi, qiziqarlisi, ushbu yozuvlar yashik devorlariga bitilgan va bitiklar,aslida, unga tegishlimi yoki boshqagami degan savolga javob toppish qiyin. Kundalikdagi fikrlar har bir yashik odamning xayolotidan terib olinganga oʻxshaydi. Fotoreportyorning antiqa maxluqqa aylanib qolishida kasbini sevishi va sidqidildan oʻz vazifasini bajarishga intilishi sabab qilib koʻrsatiladi. «...Ammo koʻchalarni suratga olish yoqib qoladi. Tushirganda ham, odamlar koʻrsin deb, nuqul koʻzdan pana, jirkanch tomonlarini tushiradi... koʻrgan kishi jirkanadigan ana shunday joylardan qancha-qanchasini suratga oladi, buni birov sezib qolmasligi uchun yashirin qilishga toʻgʻri keldi» [Kobo Abe. 1986: 11].

Muallif uning oʻz ishini qilishi uchun turli xil toʻsiqlar (byurokratiya) boʻlganligi uchun ham yashikka kirayotganligiga urgʻu berayapti. Inson oʻz sevgan kasbi bilan ham shugʻullana olmayapti va jamiyat parokandalikka yuz tutayapti. Romanning turli tilda chiqqan nashrlarida fotoreportyor olgan suratlar matnlar tagida oʻz aksini topgan. Ammo oʻzbek tilidagi kitobda rasmlarning tushib qolganligi tushunish imkoniyatini kamaytirgan. Asardan anglashiladiki, bu suratlarning birinchisi A. ismli shaxsga tegishli boʻlib, bu asardagi jumboqlarning ikkinchi kaliti boʻlib xizmat qiladi. A. ismli shaxsning uyi boʻlishiga qaramay oʻzini yashik-odamga aylantirishiga sabab uyi oldida yashik-odamning paydo boʻlishi, unga oʻq uzishi va bu holatga juda qiziqib qolganligidir. E’tibor qaratadigan boʻlsak, koʻcha-koʻyda, bozorlarda yashik-odamlar boʻlsa-da, ularni hech kim payqamaydi, koʻrmaslikka oladi, xuddi kelishib olishgandek bu haqida gaplashishmaydi ham. Yashik tashqi olamni oʻzga koʻz, xolis koʻz bilan kuzatish imkonini beradi. Yashik-odamning ziyrak nigohidan hech narsa qochib-qutulolmaydi. «Qutidan qarab manzaraning koʻz ilgʻamas qismida yashiringan yolgʻonni ham, yovuz niyatni ham payqasa boʻladi» [Kobo Abe. 1986: 54]. U haqiqatni koʻra oladi, yolgʻonni ham payqaydi, yashik-odamlarning asosiy xususiyatlaridan biri ham sezgirlikdir. A.ning butunlay yashik-odamga aylanishini tashqi olamni haqiqiy aksini koʻrishga intilish natijasi deb hisoblasak boʻladi. Yana bir asar qahramoni oʻz oʻgʻlining toʻyiga arava yollashga puli boʻlmaganligi uchun ham oʻzi yashik-odam qiyofasida aravani tortadi va bu qiyofadan butunlay chiqa olmaydi. Ha, u «yulgʻichlar, faqat boylik ketidan quvadigan zulmkor jamiyatda oʻzligining faqirligini his etib yashashga qodir emas» [Aziz Said. 2015: 483]. Qolgan yashik-odamlar ham gʻayritabiiy ravishda odamlar koʻzidan yashirinishga urinishadi. Yashik-odamning niyati oʻzgacha. «…u avval boshda oʻz odatlaridan juda hayiqib, juda qat’iyatsiz, qutulmagan boʻladi. Lekin u asta-sekin haqiqiy odam-qutiga aylanishi bilan vujudini zabt etgan yulgʻich halok boʻladi. Inson boylik jamgʻarish odatidan xalos boʻladi» [Aziz Said. 2015: 483].

Bu holat tasavvufdagi nafsni yengish orqali komillikka erishish gʻoyasiga oʻxshaydi. Ayniqsa, Yassaviya tariqatidagi nafsni yengishdagi tarkidunyochilik tamoyili aynan mos keladi. Ammo yashik-odamlar ruhiy holati haqidagi bu xulosalar ularning faqat bir guruhiga tegishlidir. Chunki hamma yashik-odamlarning maqsadi bir xil emas. Asarda yana yalangʻoch obraz ham mavjud boʻlib, u yashik-odam obrazi bilan zidlantirilgan. «Muallif gʻoyasiga koʻra, bu «biqiqlik», «yopiqlik»ning jamiyat bilan toʻqnash kelish qoʻrqinchi hamda odamlar bilan uzib tashlangan aloqalarni tiklashga boʻlgan «ochiqlik» dir» [Aziz Said. 2015: 483-bet].

Bu jamiyat bilan inson oʻrtasidagi ixtilofni koʻrsatadi. Yashik-odamlarning yashikdan voz kecha olmayotganlariga sabab ham, aslida, bunga ularda ehtiyoj yoʻqligi, jamiyatning ularga begona ekanligidir. Ular atrofni oddiygina yangi olamdan kuzatishni maroqli deb bilishadi. Asar qahramonlari uchun yashik boshi berk koʻcha emas, aksincha, boshqa dunyoga lang ochilgan keng eshikdir. 50 ming yenaga yashikni sotib olmoqchi boʻlgan hamshira yashik-odamlarni hayotga, jamiyatga qaytarishni istagan yagona inson. Tasavvur qiling, gavjum maydondan 100 ming kishi oʻtsa-yu, yonlaridagi yiqilib yotgan insonni koʻrishmasa. «Japan Times» jurnalida bosilgan maqoladagi fikrlar yuqoridagi mulohazani umumlashtiradi: «Yashik-odam ─ ekzistensial yoʻnalishdagi asar boʻlib, unda insonning jamiyatdagi oʻrni va uning oʻziga xosligi haqidagi masalalar oʻrtaga tashlanadi» [William Bradbury. 2014: 2]. Soxta doktor va haqiqiysi

haqidagi sujet liniyasi ham insonni o‘yga todiradi. Haqiqiy doktor ruhiy xastalikka chalingan, soxta doktor atrofdagilarning ko‘ziga ko‘rinishni xohlamaydi, balki vijdoni qiynalayotgani uchundir. Ruhiy xastaning o‘lim tafsilotlari shunchalar mantiqiy bayon qilinganki, 100 ming odam e’tibor qilmagan kishi aslida shu ekanligi ko‘rinadi. Romanning yechimiga asar boshidanoq ishora bor: yashik-odam tilidan hikoya qilingan rivoyat. Bunda chig‘anoq-o‘tni hidlagan inson tushida soxta baliqqa aylanib qoladi-yu, tushdan uyg‘ona olmay qiynaladi. Pirovardida o‘z holatiga qayta olmaydi. Yashik-odam ham asar so‘nggida ijtimoiy hayotga qaytayotgandek ko‘rinsa-da, ammo u bunday qila olmadi, xuddi tushdan uyg‘ona olmayotgan soxta baliqdek. «Yashikdan chiqish o‘rniga, yaxshisi, butun dunyoni uning ichiga qamayman. Ayni hozir dunyo ko‘zlarini yumishi kerak. Men uni qanday tasavvur qilgan bo‘lsam, xuddi shunday bo‘lib qoladi» [Kobo Abe. 1986: 139].

Umuman, asardan quyidagicha xulosalar chiqarish mumkin:

- Yashik ─ insonning o‘z-o‘zini jamiyatdan ajratib, qobiqlab olishidir;
- Atrofdagi voqeliklar inson manfaatlariga xizmat qilmayapti. Natijada insonda ruhiy tushkunlik holati kuzatilyapti;
- Jamiyat va inson o‘rtasida katta jarlik mavjud. Bu jarlik oqibatida yashik-odam paydo bo‘lgan;
- Inson qadri hamma narsadan muhimroqdir. Har birimiz atrofdagilarimizga nisbatan e’tiborliroq va mehribonroq bo‘lishimiz kerak.
- Yashik-odam ogohlik qo‘ngirog‘i sifatida jaranglayapti.
- Ammo Abe asarlari ko‘p qirralidir, ularni turlicha talqin etish, turlicha tushunish mumkin.

Foydalanilgan adabiyotlar:

1. Aziz Said. Kobo Abe: Adabiyot cho‘lquvari. Jahon adabiyoti durdonalari.1-jild.. T. – 2015.
2. Elkins Jim. The Box Man. 2017. goodreads.com.
3. Jerome Charyn. The Box Man. The New York Times, December 8.1974.
4. Kobo Abe. Yashik-odam. (S.Rahmon tarjimasi). T. 1986.
5. Kathleen K.,ed. Encyclopedia Britannica. Abe Kobo. 2010.

ЎРТА АСР ШАРҚ МУТАФАККИРЛАРИ АСАРЛАРИНИНГ САНЪАТ ВА МАДАНИЯТГА ТАЪСИРИ

Турсунқулова Ш.Т.
мустақил изланувчиси СамДУ

Аннотация: мақолада, ўрта аср алломаларининг маданият ва санъат тўғрисидаги қарашлари, улар яратган маънавий мероснинг шахс ва жамият эстетик онги ҳамда маданиятининг шаклланишига кўрсатган таъсири хусусида фалсафий фикр мулоҳазалар берилган.

Ўрта аср Шарқ мутафаккирлари томонидан яратилган эстетик таълимотлар шахс ва жамият эстетик онги ҳамда маданиятининг шаклланишида муҳим методологик манба вазифасини ўтайди. IX-XI асрларда Марказий Осиёда илм-фан, санъат ва маданиятнинг гуллаб яшнашида оламга ва инсон моҳиятини эстетик англашга бўлган интилишнинг аҳамияти катта бўлган. Масалан қадимдан бола тарбияси, етук шахс ва комил инсон тарбиясида, маънавий ва жисмоний камолотида мусиқа, тасвирий санъат, рақс, кураш санъатларининг аҳамияти тўғрисида бир қатор мутафаккирлар ўз фикрларини билдириб ўтишган. Буюк мутафаккир аллома **Абу Наср ал-Форобий** (873-950)нинг асарларида санъат бу тақлидийликдир дея, ана шу тақлидийлик идрок этувчида ҳиссиёт ва тасаввурни уйғотади деб таъкидланган. Санъаткор ўз хаёлот кучи, ижодий қудрати билан умумий ғояларни якка қиёфаларда инъикос эттиради. Шеъриятда хаёл ва тасаввур қанчалик муҳим бўлса, санъатда ёлғон мантиқ шунчалик муҳимдир деб билади. «Мусиқа ҳақидаги катта китоб» асарида мусиқани иккига: амалий ва назарияга ажратади. Мусиқа оҳанглари товуш ва инсон ҳатти-ҳаракатининг уйғунлигига боғлиқ бўлиб, тасвирий санъат ҳам мусиқа санъати ҳам инсонни тақлидийликка ўргатади. Яъни инсон ҳаётида доимо тақлидийликка буйсунади, яъни доимо яхшиликка интилиб яшайди, ўзида яхши ва гўзал фазилатларни шакллантириб, гўзал ҳатти-ҳаракатларни, гўзал қилмишларни ўрганади, доимий тарзда ўз-ўзини устида ишлаш лозимлигини таъкидлайди [3..Абу Наср Форобий 1993:112-113]. Мутафаккир «гўзал фазилатлар», «гўзал ишлар» каби ибораларга ўз асарларида жуда кўп эътибор қаратган. «Шеър санъати», «Шоирларнинг шеър

ёзиш санъати қонунлари ҳақида рисола», «Мусиқа ҳақида катта китоб» асарларида санъатдаги гармония, мукаммаллик, хаос, ички ва ташқи таъсир, маромли ҳаракат, тақлид санъати тўғрисида маълумотлар келтирилган. Санъат турларидаги бир хиллик ва хилма хиллик тўғрисида қуйидагича фикрлайди; «...шеър санъатини безайдиган нарсалар – сўз, мулоҳазалар бўлса, рассомлар санъатини безайдиган нарса буёқлар саналади. Буларнинг иккови ўртасида фарқ бор, аммо иккаласи ҳам одамлар тасаввури ва сезгиларига бир мақсадга – тақлид қилишга йўналтирилган бўлади».

Жаҳон илм-фани ривожига ўз ҳиссасини қўшган қомусий олим **Ибн Сино** (980-1037) ҳам ўз асарларида мусиқа ва санъатнинг инсонни шахс сифатида тарбиялашдаги ўрни тўғрисида фикр юритар экан, мусиқадан олинадиган лаззат мусиқий гармониянинг маконда ёйилишидан, пардаларнинг навбатма навбат келишидан деб билади. Хунуклик ва гўзалликни тартиб ва хаосга ўхшатади. Тартиб ва хаос ўртасида доимий алоқадорлик бўлиб туради, инсон гўзал бўлсада, унинг ички олами чиройли бўлмаслигини, хунук бўлсада унинг ички оламини чиройли бўлиши мумкинлиги тўғрисидаги қарашларни илгари суради. Ўрта асрлар санъати ва маданияти ривожига ҳисса қўшган Ибн Синонинг “Фан аш-шеър” асарида шеърга синергетик таъриф беради: “Шеър деб образли сўзлардан иборат бўлган маромли, бир-бирига тенг, вазнлари қайтариладиган, охирги товушлари бир-бирига ўхшаш бўлган сатрларга айтилади” [5.Ибн Сино 1980:100]. Мутафаккирнинг «Фан аш-шеър» («Шеър санъати») асарида шеър тақлидий фикр натижасида уч хил хил йўл билан юзага келади, яъни лаҳн-уйғунлик, калом-сўз (мажозий образли сўз), вазн. Шеърнинг структурасини ушбу учта тизим ташкил этиши айтилган. Шеър одамнинг феъл атворига, руҳиятига таъсир қилиш орқали тўлқинланиш, ҳиссиётга берилиш, таажжубга солиш, ёки бўлмаса, шеър орқали ўзлари кўзлаган ҳатти ҳаракатларидан тийилиш каби мулоҳазалар юритган. Алломанинг «Саломон ва Ибсол», «Юсуф қиссаси», «Қуш рисоласи» мажозий асарлари ва шеърияти одамлар учун комил инсон бўлиб вояга етишишда, яъни ғам, алам билан эмас, хурсандчилик, кулги билан яшаш кераклиги таъкидлаб инсоннинг умрини мажозий маънода гул образига ўхшатади, инсон ҳам гул каби инсоният ҳаётига мазмун, гўзаллик ва хушбуй тароват бахш этади деб таъкидлайди. Ибн Сино шеъриятидаги уйғунлик натижасида шундай дурдоналар яратилдики, кейинчалик «Умар Хайём, Мирзо Бедил сингари Шарқнинг буюк рубоийнависларига намуна бўлиб хизмат қилди» [1.Абдулла Шер 2015:73].

Яна бир мутафаккир алломалардан бири **Умар Хайём** (1048-1123) бўлиб, унинг рубоийлари ва «Наврўзнома» асарида инсонда гўзаллик ва хунуклик, аҳлоқ ва аҳлоқсизлик каби эстетик мезонларнинг мавжуд бўлиши тўғрисида тўхталиб, май ичимлигини рамзий маънода мусиқа билан тенглаштиради, май, мусиқа гўзал ёр жамоли билан биргаликда инсонда фориғланиш (катарсис) ҳодисасини вужудга келтиради - ҳаётнинг хунук воқеаларидан жамиятдаги пасткашлик, майдакашлик, манфаатпарастлик сингари ҳолатларидан бир муддат фориғ бўлиш, улардан бир бош баланд туриш, баҳор ва ёр гўзаллигидан, гул ва кўнгил гўзаллигидан лаззатланиш имконини беради деб таъкидлайди. Шунингдек Умар Хайёмнинг рубоийларида «шахсни шахс қиладиган» восита сифатида рамзий маънодаги май-«мусиқа»дир.

«Майни тоғга берсанг тоғ ҳам рақс этар,
Ёмонлар ёмонлаб уни наҳс этар.
Майдан асти тавба қилмайман, зеро,
Май тарбия берар, шахсни шахс этар» [7.Умар Хайём:78].

Бу ҳақда нафосатшунос олим Абдулла Шер ҳам қуйидаги хулосаларини билдиради: «Умар Хайём майни инсоннинг асл ўзлигини намоён қилувчи восита, эстетик ҳиссиётни уйғотувчи модда сифатида олиб қарайди, унга алоҳида фалсафий мақом – машаклик (қимматбаҳо тошларни синайдиган тош) мақомини беради» [2.Абдулла Шер 2015: 78-79]. Умар Хайёмнинг рубоийларидаги барча шеърий образлар жуда мураккаб хусусиятга эга. Икки ва кўпмаъноли бадиий образларда ҳаётий фалсафа ва ундан хулоса чиқариш учун етарли мазмун моҳият мавжуд.

Тасаввуф фалсафасининг асосчиси, илоҳиётчи файласуф **Имом Ғаззолий** (1058-1111) – «Иҳё улум ад-дин» асарида шахсда эстетик нафис дид, эстетик ҳиссиётнинг шаклланиши, шахснинг гўзалликка муносабати, унинг комил инсонга айланишида дин ва санъатнинг ўзига хос ўрни каби муаммолар тўғрисида ўз қарашларини илгари суради. Шеър (қўшиқ)нинг инсонни жунбушга келтирадиган хусусиятларини фарқлайди:

1) юракни унга мос нарсагина ҳаракатга келтиради, шоирлар эса, байтларини ўз қалбларининг ҳолатидан келиб чиқиб яратадилар. Ҳар бир шеър муайян руҳий ҳолатнинг интиҳоси сифатида ўшандай руҳий ҳолатни дилдан кечираётган киши учун таъсирчанроқдир, яъни икки бир хил хусусиятга эга тафаккурларнинг учрашуви содир бўлади;

2) агар шеърий байт бошқа байт билан алмаштирилса, ҳатто мазмун бир хиллигига қарамай, у тингловчи юрагига янги из қолдирмай қўймайди. Чунки, мазмун бир хил бўлса-да, кейинги байт аввалгисидан қофия ва вазн билан фарқланади, тингловчининг қалбини ҳаракатга келтиради;

3) оддий нутқ билан шеърнинг қалбга таъсири солиштирилса, ҳижолари тартибга солинган шеърий нутқнинг кучли эканини сезиш мумкин;

4) шеърий нутқнинг қалбга таъсири қисқа бўғинларни чўзиб, узун буғинларни кесиб талаффуз этиш билан боғлиқ. Сўзлар рукнларга буйсундирилиб талаффуз этилади;

5) вазнга тушурилган шеърий нутққа бир меъёрдаги зарбли товушлар, чунончи, доира сингари мусиқа асбобларини жўр бўлиши мумкин. Ундай ҳолда шеърнинг таъсир кучи ошади;

6) бадиҳагўй тингловчининг ҳолатига мос келмайдиган байтни ўқиши, у байт тингловчига ёқмаслиги мумкин. Ҳар қандай нутқ ҳам кайфиятга мос келмаслиги мумкин;

7) мусиқий товушларнинг инсоннинг табиатига мос келиши. Уларга ҳақиқат эмас, лаззат манбаи сифатида қаралиши лозим. Худди шунингдек, шеър ҳам инсон табиатига мос келади, инсон ундан лаззатланади; ҳам ўзи шеър ярата олади, зеро, яратилган нарса (яъни, шеър) яратилганга (инсонга) ўхшаш бўлади [4.Газали 1980:117-122]. Бундан ташқари, Ғаззолий эстетик туйғуларнинг инсонда мавжудлигини туғма, табиий эканлигини таъкидлайди, санъат воситалари, нафосат таъсири орқали улар фақатгина англаб етилади деган баҳсли-муаммоли қарашларини ҳам илгари суради.

Кейинги даврларда буюк ўзбек шоири **Алишер Навоий** (1441-1501) нинг «Хазойин ул - маоний», «Мажолис ун - нафоис», «Мезон ул - авзон» асарларида шахсда эстетик дид, эстетик фаросат, эстетик орзунинг шаклланишида санъат ҳамда бадиий асарнинг аҳамияти тўғрисида билдирилган фикр-мулоҳазалари шахс эстетик онги тараққиётида муҳим манба бўлиб хизмат қилади. Шоир санъат ва бадиий асар нафақат гўзалликни мадҳ этиши балки ўзи ҳам шаклан ва мазмунан гўзал бўлсагина чинакам санъат асари даражасига кўтарилиши мумкин, санъат инсоннинг маънавий камолоти учун хизмат қилиши лозимлигини таъкидлайди. Инсоннинг ички ва ташқи гўзаллигини шакллантиришда санъатнинг икки ва кўпмаъноли хусусиятга эга бўлиши лозимлигини кўп бора айтиб ўтган ҳамда ўзининг яратган барча асарлари кўпмаъноли хусусият касб этиши билан ажралиб туради. Масалан, ушбу рубоийни ўқиган ва идрок этган инсон ўзи учун жуда кўп маъноларни чиқариб олади;

«Жондин сени кўп севармен, эй умри азиз,
Сондин сени кўп севармен эй умри азиз.
Ҳар неники севмак ондин ортиқ бўлмас,
Ондин сени кўп севармен, эй умри азиз».

Шунингдек, шоир ижодида санъат инсон учун хизмат қилиши керак деган ғояни илгари суради, унинг мураккаб вазифалари тўғрисида фикр юритар экан, ҳақиқий ижодкор ёки шоирнинг дарди халқ дардидан иборат ва инсон манфаатига қаратилган бўлади. Ҳар қандай меҳнат самараси сингари шоир ижодининг натижаси - бадиий асар ҳам халқ учун фойдали бўлиши керак. Ҳақиқий шоирнинг иши «маоний хазойинидин жавҳар термак ва эл файзи учун вазн силкига назм бермак». Бадиий асарнинг элга берадиган файзи унга лаззат билан бирга камолот бағишлашдан иборат. Инсон камолотга билиш ва хайрли амал билан эришгани учун “солим завқли” шоир табъидан яратилган асар маърифий, тарбиявий ва бадиий қийматга эга бўлади. Ўз навбатида санъат асарини идрок этувчи ҳам эстетик талабларга жавоб беролмайдиган асардан қониқмайди. Эстетик талабларга эса бадиий асарнинг маърифий, тарбиявий, бадиий жиҳатлари киради. Инсон ҳаёти давомида маърифатга, тарбияга қандай эҳтиёж сезса, бадиий эҳтиёжи ҳам маърифат ва тарбиядек муҳимдир. Демак, инсон доимо бадиийликка эҳтиёж сезади, бу жараён унинг ижтимоий-табиий эҳтиёжларидан бирига айланиб боради. Алишер Навоий ўз ижодида санъат ва бадиий асарнинг инсон ҳаётидаги ўрни ва роли тўғрисида жуда кўплаб фикр-мулоҳазаларни берган.

Шоир ўз асарларида жаҳл (нодонлик) билан илм, тўғрилик билан эгрилик, нафрасонлик билан зараркунандалик, адл билан зулм, ишқ билан завқсизлик, қаноат билан тама, сабр билан сабрсизлик, вафо билан вафосизлик, тақво билан фисқ, поклик билан фахш орасидаги ҳақиқат билан боғлиқ бўлган фарқларни баён қилади ва улар хар бирининг оқибатини, инсонни, жамиятни қаерга олиб боришини равшан қилиб кўрсатиб беради. Алломанинг «Хазойину-л-маоний» – асарида, рубоий, туюқ ёки лирик шеърни сўздан яратилган миниатюрадир»деб таъкидлайди [8.Рустамов А.1979:152].

«Ҳикматлар»ида мусиқани жон озуқаси, яъни руҳ у билангина тирик деб юқори баҳо берган;

Нафс уйлаки касб этди ғизо бирла сабот,
Руҳ айлади жонфизо ғино бирла сабот [6.Навоий Алишер 1968:51].

Алишер Навоийнинг асарлари структурасига кўра хилма хил сюжетлардан иборат, бир хил маъно ва мазмунга эга бўлган, такрорланиб келувчи сўз ва иборалар умуман ишлатилмаган, асарлари

ранг-баранг, кўпмаъноли хусусият касб этади. Аллома томонидан яратилган бадиий асарлар инсонни шахс сифатида камол топишида, эстетик онги ва тафаккурининг шаклланишида, маданият, санъат ва адабиётнинг ривожланишида муҳим назарий-методология вазифасини бажаради.

Демак, юқорида берилган маълумотларга таяниб шуни айтиш мумкинки, **биринчидан,** ўрта аср Шарқ мутафаккир алломалари яратган маънавий мерос Марказий Осиё маданияти ва санъатининг ривожланишига кучли таъсир кўрсатган, ёш авлодни етук шахс этиб тарбиялашда санъатнинг аҳамияти ўрганилган, бадиий асарлар яратилган ва улар келажак авлод учун назарий асос бўлиб хизмат қилган, **иккинчидан,** шарқ мутафаккир алломаларининг асарлари нафақат Марказий Осиё маданияти ва санъатининг ривожланишига таъсир кўрсатган, балки, жахон маданияти ва цивилизациясининг тараққиётига ҳам ўз ҳиссасини қўшган.

Фойдаланилган адабиётлар:

1. Абдулла Шер. Эстетика. -Т.: Ўзбекистон.2015.-73-бет

2.Абдулла Шер. Эстетика. –Т.: Ўзбекистон. 2015. -78-79 бет.

3. Абу Наср Форобий. Фозил одамлар шаҳри. -Т.: А.Қодирий номидаги Халқ мероси нашриёти,1993. -112-113 бет.

4. Газали Абу Хамид. Воскрешение наук о вере. -М.: Наука.1980. стр.117-122.

5. Ибн Сино. Саломон ва Ибсол. Т.Ғ.Ғулом номидаги Адабиёт ва санъат нашриёти. 1980.100-бет.

6. Навоий Алишер. Ҳикматлар. Тўпловчи С.Муталлибов. -Т.; Ғафур Ғулом номидаги бадиий адабиёт нашриёти. 1968. -51-бет.

7. Умар Хайём. Рубоийлар. 78-бет.

8. Рустамов А. Навоийнинг бадиий маҳорати. Ғафур Ғулом номидаги адабиёт ва санъат нашриёти.-Т.: 1979. -152-бет.

NATIONAL CULTUREIN THE CONTEXT OF GLOBALIZATION

Farxodjonova N., researcher
National University of Uzbekistan

Annotation: The article highlights the relationship of national culture and modern processes of globalization. The main trends associated with the destruction and decline in the importance of national culture under the influence of the spread of mass culture and new ways of communication are analyzed. It is concluded that the process of mutual enrichment of culture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s the most compromise form for the preservation of national identity, national culture.

Key words: national culture, globalization, spirituality, spiritual heritage, modernization, integration.

In recent years, globalization processes have covered all facets and spheres of human life and activity. “When we talk about the main factor and reason for the rapid and deep penetration of the globalization process, we must admit that, the development and prosperity of any state today is not only close and distant troops, but also connecting with other regions and territories on a global scale, it i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and understand, globalism means, first of all, an incomparable acceleration of the pace of life” [Karimov 2008. 110]

The processes of globalization are radically changing the appearance of the world, redistributing the spheres of geopolitical influence, Western culture is presented to humanity as a universal and progressive template, and Westernization policy is implemented, influencing the minds of people is transformed into a profitable business. This business is primarily focused on promoting art and culture, and it's no secret that there is no such powerful force as art and culture in finding a way to the human soul.

At present, a new universal order formed in the world development, the essence of civilization, the emergence of a complete new situation in the world market of information space, capital, goods and labor, the deterioration and complexity of the interaction between states and people, the increase in the risk of technological influence on the environment, information-ideological and religious-extremist attacks all spheres.

There is no consensus among experts on the meaning and essence of globalisation. The diversity of conceptions associated with this process is related, firstly, to the fact that this process involves different spheres of social life (spiritual, cultural, social, economic, political), secondly, the approach to the issue is determined by the difference and uniqueness between the goals pursued by researchers, ideological views.

In connection with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the ques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owth of global culture and the fate of national cultures remains important. Currently characterized by a decrease in importance, or getactual of the organization national culture in the world

As a result, cultural values, transforming, can move from one society to another. “At the same time, such interethnic interaction of cultures, in which the differences of traditions do not exclude, but complement each other, is a historical trend. This process consists in constant introduction of all mankind to the most progressive cultural innovations” [Kostina 2011. 11]. Such a model can only be based on mutual respect and trust in another culture and its traditions. In this case, the international aspect of the dialogue of cultures is of great importance.

Globalization being the dominant civilizational process of modernity, at the same time, absorbs many properties of other global processes, representing a fundamentally new phenomenon in the history of mankind, not being a simple continuation of the previously existing integration global trends. The fundamental novelty of globalization lies not in its scale and scope - although unprecedented - but in the clear conscious direction of globalization. It only at first glance seems to be a diffuse process, freely developed, natural and independent of the will and intention of people. Processes of this kind are random, arisen by themselves and in this sense are not natural. Such processes have their initiators, their subject. Who, for what, for what purpose, how initiates, supports, directs the processes of globalization can only be assumed and guessed.

The "compression" of the social world, on the one hand, and the rapid growth of the world's awareness of "expansion" of itself, on the other hand, creates a global condition (situation) in which civilizations, regions, nation-States, indigenous peoples deprived of statehood (try, because they are forced) construct their history and identity. The world has dramatically increased the sense of its own uniqueness and identity among peoples and regions. We can say that the protection of local national traditions and characteristics is a global phenomenon [Biryukova 200.33].

Integration and fragmentation, globalization and regionalization of the modern world complement and mutually support each other, and, more precisely, are two sides of the same process. For this reason, the term "glocalization" is sometimes used to refer to current planetary trends to emphasize the fact that the coexistence of synthesis and decomposition, integration and fragmentation is not a matter of chance and cannot be avoided or reversed.

The stability of dichotomous thinking with its oppositions (integration -disintegration, homogeneity - heterogeneity, globalization - localization) is also preserved in the analysis of culture, where it takes the form of dialectics of local and global, traditional and liberal-democratic values, since, as noted above, democratic consciousness is usually excluded from the norms and values of the West. The cultural diversity of mankind has been challenged by Western mass culture and can only be responded to by the consistent and progressive use of national cultural values, which contribute to a positive solution of the problems facing society.

In the modern world there is a transition from national culture to global culture, the language of which is English. The us dollar is used all over the world, Western mass culture is rapidly penetrating into our lives, the model of liberal-democratic society is being implemented to some extent in many countries, the world information space (Internet and other, the lates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s being created, the global translation of Western culture is being carried out, a new reality is emerging - the virtual world and the virtual person. Thus, space and time become closer and closer, even merge. There were movements of anti-globalists and anti-Westerners. In these circumstances, it becomes extremely important to preserve the linguistic and cultural identity, identity and uniqueness of the culture of other peoples of the world.

Globalization has sharply exacerbated the problem of national and cultural identity, which today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problems of concern not only cultural scientists, but also politicians, public and religious figures, progressive-minded representatives of natural science. Globalization, instead of being a means of enriching each culture with all the others in the process of their equal dialogue, has become a form of depersonalization of virtually all cultures.

The acceptance of globalization by the masses (and this is what the ideologues of globalization seek) is extremely dangerous, because history does not know examples of a nation that has recognized its spiritual defeat, would retain its creative potential and be able to turn into an active historical subject that has an impact on the processes taking place in various spheres of society. “The main problem of today's global relations is the tension between cultural homogenization and cultural heterogeneity” [Appadurai 2003. 251].

It is possible and necessary to use the achievements of Western science, to master new modern technologies, to cooperate in this regard. However, it is known from history that the country, which tried to fully master Western culture and values in the course of modernization, faced a number of problems. As a

result of such "experience", a society that does not have a clear idea of what culture it belongs to, devoid of self-realization, is formed as a state full of internal contradictions.

Therefore, the leaders of some states, especially those states with thousands of years of history, have chosen a way of modernization of the state and society, preserving cultural originality.

In historical processes, the declination, which contradicts each other from time to time, but dictates each other and has an equal basis, on the one hand, is characteristic of the fact that cultures strive for communication, close relations, on the other hand, their ethnomadanic efforts to preserve its originality, protect it from external influences. But in our time it acquires the appearance of a trend - conflict.

Thus,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not only generates monotonous structures in the economy and politics of various countries of the world, but also leads to “globalization” - the adaptation of elements of modern Western culture to local conditions and local traditions. Heterogeneity of regional forms of human activity becomes the norm. On this basis, it is possible not only to preserve, but also to revive and develop the culture and spirituality of the people, the development of local cultural traditions and local civilizations.

Globalization requires local cultures and values not to submit unconditionally, but to selectively accept and learn from the new experience of other civilizations, which is possible only through constructive dialogue with them. This is especially necessary for the young independent States of the post-Soviet space, strengthening their national security. Therefore, we so badly need the development of globalism as a form of interdisciplinary research that allows us to correctly assess the situation and find ways to solve them.

References:

1.Appadurai A. Dsjuncture and difference in the global cultural economy.// Robertiion ft. White KE. (Ed.) Globalisation. Critical concept in socilog. –London. Vol.1, 2003. –P.251.

2.Biryukova M. A. Globalization: integration and differentiation of cultures // Philosophical Sciences. №4. 2000. -P. 33

3.Karimov I. High spirituality is an invincible force. T.: Spirituality. -P.110.

4.Kostina A.V. Dialogue in the modern world: conditions and possibilities of realization // Knowledge. Understanding. Skill. 2011. №3. -P. 11.

АСПЕКТЫ ЮВЕЛИРНОГО ИСКУССТВА УЗБЕКИСТАНА

Дадамухамедов Б.Ф.

Заведующий сектор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и истории ремесленничества

Аннотация: В этой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истоки зарождения, развития и технологии, а также различные материалы ювелирного искусств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ные среди местного населения как, золота, серебро, медь для изготовления и виды оформления ювелирных украшений Узбекистана в период XIX-XX веков.

Ключевые слова: украшения, орнамент, традиция, техника, чеканка, тиснение, штамповка, процесс, классификация, трансформация.

Abstract: This article discusses the origins, development and technology, as well as various materials of jewelry art common among the local population as gold, silver, copper for the manufacture and decoration of jewelry in Uzbekistan during the XIX-XX centuries.

Key words: decoration, ornament, tradition, technique, chasing, embossing, stamping, process, classification, transformation.

Истоки зарождения ювелирного искусства Узбекистана теряются в глубине тысячелетий. В начале XIX века ювелирное искусство предстает во всей своей этнографической характерности, в большом разнообразии форм, материалов, технических приемов и видов изделий.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IX века наблюдается возрождение кустар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ремесел, наступившее после преодоления тяжел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кризиса XVIII века, вызванного междоусобными войнами. В это время ювелиры работали в основном на верхушку феодального общества, местную аристократию, которая могла себе позволить купить или заказать изделия из драгоценных металлов и камней. Но устоявшиеся в народе представления об охранительной силе ювелирных украшений, позволяло мастерам-ювелирам реализовывать товар из низкого качества материала и примитивной техники исполнения.

В XIX – начале XX ювелир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охватывало многие виды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ремесел. Мастера-ювелиры изготовляли филигранную отделку ножен для сабель и рукояток кинжалов, детали конского снаряжения и мужских поясов с накладными и позолоченными пластинками и бляшками с инкрустацией драгоценными камнями. Но главным их занятием было изготовление разнообразных женских украшений.

Кроме ювелирных украшений ювелиры нарядно оформляли оружие, предметы соколиной охоты, богато орнаментировали посуду и мелкие бытовые изделия из драгоценных металлов. Ювелиры участвовали в оформлении дорогих кожаных переплетов для рукописей металлическими прорезными накладками и застежками. Материалом для изготовления ювелирных изделий в XIX – начале XX веков служили металлы – золото, чаще серебро, реже мельхиор, медь и бронза; самоцветы – рубин, гранат, берилл; цветные камни – бирюза, сердолик, лазурит; морские ископаемые – коралл, жемчуг, перламутр, раковины каури; цветные стекла и смальты.

Интересно отметить, что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XIX века по всей Центральной Азии ювелирные изделия изготовлялись из серебра. Золотые вещи делались только в ханских дворцах и,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во дворцах бухарского эмира. Ювелиры работали в основном на местную аристократию – придворную чиновничью знать, духовенство, купечество, составлявших основной круг заказчиков и потребителей ценных ювелирных изделий.

В конце XIX-XX века в ювелирном искусстве прослеживается два направления. Первое – было теснейшим образом связано с традициями наро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а второе ориентировалось на вкусы зажиточных слоев населения, которые становятся основным потребителем дорогих ювелирных изделий. К началу XX века усиливается материальная ценность ювелирных украшений, чем объясняетс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среди местного населения золотых изделий, привозимых из России. Оттуда в большом количестве ввозились фабричные ювелирные изделия русских и татарских мастеров, получившие широкую популярность у узбекского населения. В связи с этим, местному кустарному производству приходилось выдерживать сильную конкуренцию,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наметилось заметное ухудшение качества местных ювелирных изделий. Ювелиры перешли к облегчающему и ускоряющему процесс изготовления изделий – штамповке. Трудоемкая чеканка была заменена менее выразительным тиснением узора на матрицах и т.д. Украшениям стали придавать более крупные размеры, нередко оставляя их полыми внутри и обильно отделывая цветными стеклами, блестками, зеркальными кусочками, разноцветными шелковыми нитями. В результате терялись прежние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достоинства традицио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По общепринятой классификации узбекские ювелирные изделия подразделяются на головные, налобные, налобно-височные, налобно-височно-нашейные, височные, затылочные, накосные, носовые, ушные, нашейные, нагрудные, наплечные, подмышечные, поясные, наручные и ножные украшения.

Названия ювелирных украшений могли происходить от способа ношения, от формы изделия, от звукоподражания, производимого украшением, от материала, от народа, который принес эту форму. Форма и декор ювелирных украшениях XIX века восходят к различным периодам эволюции данного вида. Но сохраняя образную трактовку и некоторые особенности решения сложных композиций, они в процессе временн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утратили основы смыслового содержания – элементы древних ритуальных представлений доисламской поры. В изделиях этого периода преобладает растительный орнамент, сочетающийся с мотивами геометрического, астрального и зооморфного узора.

В середине XIX века ювелирное искусство Узбекистана достигло исключительно высок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уровня. Появляются новые формы изделий, их способы ношения и цветосочетания, обусловленные сменой потребительских вкусов. Все больше возрастает эстетическая ценность ювелирных украшений, они гармонично связываются с линиями и цветом национального костюма. В этот же период в ювелирном искусстве особенно ярко выступают чувства пропорциональности формы и однозвучности цвета в ансамбле украшений.

Мастера-ювелиры в крупных центрах имели различную классификацию, подразделяясь на мастеров по украшениям, технике чеканки по серебру и золоту, технике отделки украшений. Профессия ювелира была наследственной и переходила от отца к сыну. Данный “устав” сопровождал ювелира с самых первых дней занятия ремеслом, воспитывая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к цеховым ритуалам 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м отношениям, к устойчивости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приемов и старых форм. Существовало предосудительное отношение к нововведениям, ученик обязан был копировать и повторять изделия учителя. Таким образом, даже при незначительных отличиях украшений разных центров, опытный глаз мог легко определить место их изготовления.

Социальное положение ювелиров XIX век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овременного Узбекистана могло быть различным. В Бухаре, в отличии от мастеров других отраслей ремесла, придворные ювелиры занимали привилегированное положение, получали звания и чины. В Хорезме профессия ювелира относилась к одной из самых низших. Основными законодателями локаль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стиля в ювелирном искусстве XIX веке выступали мастера бухарской, хорезмской, ташкентской, самаркандской, кокандской (или ферганской), сурхандарьинской, каракалпакской школ.

В 1950-70 годы центрами ювелирного ремесла оставались Ташкент, Бухара, Самарканд, Коканд, Хива. Круг ювелирных изделий почти не изменился: делались – серьги, кольца, браслеты, ожерелья. Так же сохранялись традиционные приемы изготовления: филигрань, чернь, чеканка, зернь, гравировка, штамповка. Сохранилось все многообразие форм изделий, выпускавшихся в предшествующий период. Среди них были предельно лаконичные формы: золотые серьги в виде полумесяца, гладкие без орнаментации перстни с одним камнем, браслеты, излюбленные в прошлом серьги с легкими подвесками из бусинок коралла, жемчуга, зерни, стекла.

Ювелирные украшения Узбекистана XIX – XX веков живут и в наше время, выполняя чисто декоративную функцию. Многие из них оседают в музейных собраниях, являясь богатейшим источником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образов и форм для молодых ювелиров XXI века, создающих национальные украшения в наше время.

Список литературы

1. Д.Фахретдинова. Ювелирное искусство Узбекистана. – Т., 1988. – 204 с.
2. Сычева Н. Ювелирные украшения народов Средней Азии и Казахстана. – М., 1984. – 179 с.
3. Лунева В. Ювелирное искусство городов и историко-культурных областей античного Узбекистана. //Урбанистическая культура Узбекистана (Материалы Международной научной конференции). – Т., 2003.
4. Т.Абдуллаев, Д.Фахретдинова, А Хакимов. Песнь в металле. – Т., 1986. – 251 с.

O'QUVCHI SHAXSINI JISMONIY VA MA'NAVIY-AXLOQIY SHAKLLANTIRISHDA INTEGRATSIYALASHGAN DARSLARNING XUSUSIYATLARI

Hakimov X.N., mustaqil tadqiqotchi.
BuxDU

Respublikamizda uzluksiz ta'lim tizimini rivojlantirishda qaratilgan isldohotlarning asosiy maqsadi ta'lim-fan-ishlab chiqarish integratsiyasini amalga oshirishga qaratilgan. Ta'limning hozirgi zamon fan-texnika taraqqiyoti, bozor iqtisodiyoti va ishlab chiqarish bilan uzviy hamkorlikda rivojlanishi zarurligi "Kadrlar tayyorlash milliy dasturi"da muhim vazifalardan biri sifatida sanab o'tilgan. Shuning uchun ham ta'limni rivojlantirishda integratsiyadan unumli foydalanish dolzarb vazifaga aylanmoqda.

Integratsiya-ayrim bo'laklarning yoki elementlarning bir-biriga qo'shilishi, bir butunga aylanishi, yaxlitlanishidir. "Integratsiya" tushinchasi XVIII arsdayoq Spenser tomonidan izohlangan edi. Biz ham integratsiyani tafakkur o'stirish omili sifatida qarab, uni fanlararo aloqa hamda ta'lim shakllarini sintezlash tarzida talqin etishga harakat qilindi.

"Integratsiya" – "butun" degan ma'noni bildiradi. Demak, bu tafakkur o'sishi jarayonining turli qismi va integratsiyani atama va uslubiy nuqtai nazardan hodisa sifatida nima ekanligini ko'rib chiqaylik. "Integratsiya" so'zi lotincha "integratio" – tiklash, to'ldirish va "integar" – butun so'zidan kelib chiqqan degan izohni keltiradi. [M.Mavlonova, N.Raxmaqulova 2011: 23bet]

Umumiy o'rta ta'lim tizimidagi o'quv fanlardan biri jismoniy tarbiya fani mavzularini integratsiyalashning ilmiy, pedagogik asoslarini ishlab chiqish natijasida ta'lim samaradorligi oshadi hamda ortiqcha kuch, zo'riqish sarflanishlarining oldi olinadi.

Integratsiya haqida yurtimiz professor-olimlari ilmiy izlanishlaridan tashqari chet davlat olimlari ham o'z izlanishlarini olib borishgan. "Integatsiya – differensiattsiya jarayonlaridagi fanlarning o'zaro yaqinlashuvi va bog'liqligida ko'rinadi. Integratsiya jarayoni fanlararo bog'liqlikning yuqori shaklida namoyon bo'ladi" [L.N.Baxareva 1991: 48bet]deb yozgan.

"Integratsiya" tushinchasi ta'lim jarayoniga tadbiq etilganda ikkita ma'noni anglatadi. Birinchidan, bu maktab o'quvchilariga bizni o'rab turgan atrof-olamni bir butunlikda deb qabul qilishiga erishish(integratsiya

ta'lim maqsadi sifatida maydonga chiqadi); Ikkinchidan, fanga doir bilimlarni umumiy jihatlarini yaqinlashtirish(integratsiya ta'lim vositasi sifatida qaraladi).

Har bir tarixiy davrning pedagogik tizimi sezilarli oʻzgarishlarni boshdan kechirmoqda. Biroq, jamiyat rivojlanishining barcha bosqichlarida yosh avlodni mustaqil hayotga sifatli tayyorlashga alohida e'tibor berilishi kerak. Talabalar bugungi kunda yuqori aqliy salohiyatga ega, ammo yaxshi bilimga ega boʻlganlari uchun ularni koʻpincha amalda qoʻllay olmaydilar. Ushbu muammoni hal qilishning samarali vositalaridan biri boshlangʻich sinf oʻquvchilari orasida dunyoning elementar rasmini shakllantirishga hissa qoʻshadigan ta'lim mazmunining integratsiyasi boʻlishi mumkin.

Oʻqitishning integratsiyasi- oʻquv materialining tegishli mazmuniga, oʻquv-uslubiy ta'minotga, yangi texnologiyalarga ega boʻlgan mutlaqo yangi ma'lumotni yaratishni oʻz ichiga oladi.

Ta'limdagi integratsiyani ilmiy tushunish muammosi turli xil bilim sohalarida olimlar va amaliyotchilar tomonidan oʻrganilmoqda. Aytish mumkinki, boshlangʻich maktabda metodologik hodisa sifatida nazariy jihatdan integratsiya yetarli darajada koʻrib chiqilmagan. Ammo maktab amaliyotida biz uning integrallashgan kurslar va integral darslar shaklida ijobiy qoʻllanilishini kuzatishimiz mumkin. Ammo agar kurslarni rivojlantirishni ijodiy guruh amalga oshirishi kerak boʻlsa, unda integratsiyalashgan darslarni oʻtkazish har bir oʻqituvchining ixtiyorida, bu bilimlarni shaxsan ahamiyatli va mazmunli qabul qilishga hissa qoʻshadi, motivatsiyani oshiradi, takroriylikni bekor qilib, ish vaqtidan unumli foydalanishga imkon beradi.

Bugungi kunda ta'limni integratsiyalashuvi birinchi navbatda boshlangʻich maktabda joriy etishga harakat qilinmoqda. Boshlangʻich ta'limning koʻp komponentli tarkibini integratsiyalashning mohiyati shundaki, u bolaga ob'ektlar va hodisalarni yaxlit, koʻp qirrali, tizimli va hissiy jihatdan idrok etishga imkon beradi.

Oʻquv jarayonini yangi innovatsion texnologiyalarda tashkil etish zamonaviy oʻqituvchidan talabalarning oʻquv faoliyatini tashkil etishning maqsadi va mazmunini, shakllari va usullarini aniqlashda yangi muhim ustuvorliklarni izlash orqali amaliy faoliyatni takomillashtirishni talab qiladi.

Boshlangʻich maktabda darslarni metodik yangilashning yoʻnalishlaridan biri bu integral darslarni loyihalash va ularni oʻquv materiallarini bir mavzu atrofida birlashtirilgan bir nechta fanlar asosida olib borishdir. Bu asosan bilish nazariyasi va uni anglash asosida yaratilgan oʻquv jarayonining fanlararo shakli. Bilim izlash - bu fanlararo tadqiqotlar uchun eng yaxshi usuldir.

Integratsiyalashtirishga asoslangan darslarning maqsadi ma'lum bir ob'ektni, hodisani, atrof-muhitni mazmunli idrok etish, bilimlarni ma'lum bir tizimga jalb qilish, tasavvur va qiziqishni ragʻbatlantirish, ijobiy hissiy kayfiyatni rivojlantirishdan iborat boʻlishi kerak. Qiziqarli materiallarni jalb qilish hodisani, konseptsiyani turli tomonlardan bilishga, bilimlarning yaxlitligiga erishishga imkon beradi.

Turli xil oʻquv fanlari boʻyicha boshlangʻich maktablar uchun mavjud dasturlarning tahlili shuni koʻrsatadiki, ular ta'lim mazmunini integratsiyalash jarayonidan samarali foydalanish uchun imkoniyat yaratadi.

Integral tarkib darslari va fanlararo aloqalarni qoʻllash oʻrtasidagi farq nima? Oʻqituvchilarning fikriga koʻra, bu har xil didaktik tushunchalar. Fanlararo aloqalar dars turlariga vaqti-vaqti bilan boshqa fanlarning materiali boʻyicha savol va topshiriqlarni kiritish, uning turlarini oʻrganish uchun qoʻshimcha ahamiyatga ega.

Darslar, shu jumladan fanlararo bilimlar, agar ma'lum didaktik shartlar bajarilsa, samaradorlikka erishadi: mavzularni muvofiqlashtirish asosida tematik va dars rejalarida oʻrnatilgan darslarni, integral bilimlardan foydalangan holda vazifalarni aniqlashtirishni, umumiy mazmunli darslarda tushuncha va koʻnikmalarni izchil shakllantirish, oqilona foydalanish oʻquvchilarning bilim faolligini oshirishning turli xil usullari hisoblanadi.

Integratsiyalashgan darsda ikki yoki undan ortiq maktab fanlarining didaktik vazifalari hal qilinadi. Bunday darsga tayyorgarlik koʻrayotganda, siz ularni rejalashtirish va tashkil etishga qoʻyiladigan talablarni bilishingiz kerak:

- ta'lim mazmunidagi integratsion jarayonlar kursining psixologik va didaktik asoslari bilan tanishish;
- har bir maktab uchun dasturda ijtimoiy hayotning umumiy jihatlari oʻxshash mavzularni tanlang;
- oʻxshash bilim elementlari oʻrtasidagi bogʻliqlikni aniqlash;
- agar zarurat boʻlsa, oʻrganish ketma-ketligini oʻzgartirish;
- dars oʻqituvchidan odatda oʻqituvchi olib bormaydigan oʻquv fanining vazifalarini hal qilsa, fan oʻqituvchisidan maslahat olish;
- asosiy va tegishli maqsadlarni ta'kidlab, har bir darsni puxta rejalashtirish;
- dars mazmunini modellashtirish (ya'ni tahlil qilish, tanlab olish, koʻp marotaba tekshirish), uni faqat asosiy maqsadni qoʻllab-quvvatlaydigan tarkib bilan toʻldirish;

- bolalar taassurotlarining optimal yukini aniqlash.

Integratsiyalashgan darslarning tuzilishi o‘quvning barcha bosqichlarida turli mavzularda o‘rganilayotgan materialning aniqligi va uyg‘unligini, puxta o‘ylanganligini va mantiqiy bog‘liqligini talab qiladi. Bunga dasturning o‘quv materialidan ixcham, zich foydalanilishi va qo‘shimcha ravishda o‘quv materialini tashkil etish va o‘rganishning ba’zi zamonaviy usullarini bog‘lash orqali erishiladi.

Hozirgi kunda darslarni integratsiyalashgan tizimni ishlab chiqish va sinash maqsadga muvofiqdir, uning psixologik va uslubiy asosi bir qator mavzularda keng tarqalgan o‘zaro tushunchalarni o‘zaro bog‘lashdir. Bundan tashqari, ushbu aloqalar dars mazmuni darajasida o‘rnatilishi va kerakli o‘quv qo‘llanmalari bilan ta’minlanishi kerak. Shunday qilib, siz har qanday darsni uning tuzilgan tuzilishi va o‘tkazish mantig‘i bilan olib borishingiz mumkin, uning tarkibiga ushbu akademik fanga tegishli tushunchalar guruhi kiradi, ammo integratsiyalashgan dars bilimlarni, boshqa fanlar, boshqa ilmiy mavzular nuqtai nazaridan tushunchalarni tahlil qilish natijalarini o‘z ichiga oladi.

Ma’naviy –axloqiy va jismoniy barkamol avlodni tarbiyalash –faqat milliy ehtiyojgina emas, balki umumdavlat ahamiyatiga molik masala hisoblanib, u- ko‘pmillatli Vatanimiz tug‘ilib o‘sgan, barcha xalqlar uchun birday ezgu maqsaddir.

Sport nafaqat jismoniy, balki ma’naviy-axloqiy kamolotga etishishda ham muhim omildir. U irodani toblaydi, aniq maqsad sari intilish, qiyinchiliklarni bardosh va chidam bilan engishga o‘rgatadi. Inson qalbida g‘alabaga ishonch, g‘urur va iftixor tuyg‘ularini tarbiyalaydi. Respublikamizning Birinchi Prezidenti I.A.Karimov ta’kidlaganidek, sog‘lom, bilimli va fidoyi farzandlari bo‘lgan xalq, albatta o‘zining buyuk kelajagini barpo etadi. Haqiqatdan ham “Hech bir narsa mamalakatni sport kabi tez dunyoga mashhur qila olmaydi”. “Sport odamni mard, matonatli, bardoshli qilib tarbiyalaydi”.[1,63 bet]

Mamlakatimizda jismoniy va ma’naviy- axloqiy barkamol avlodni voyaga etkazish masalasi biz uchun umumdavlat miqyosidagi vazifa bo‘lib, bu ezgu maqsad yo‘lida amalga oshirayotgan ishlarimizni izchil va qat’iyatlik bilan davom ettirish bugungi siyosatimizning diqqat markazida turibdi. SHuningdek, 2010-yilni sog‘lom va ma’naviy boy, intelektual rivojlangan axloqan yetuk, jismonan baquvvat avlodni, har tomonlama kamol topgan shaxsni tarbiyalash va voyaga etkazish maqsadida “Barkamol avlod yili” deb e’lon qilinganligi, sportga bo‘layotgan talab va yaratilayotgan sharoitlar ham fikrimizning yaqqol isbotidir.

Yosh avlodni har tomonlama: aqliy, ma’naviy-ahloqiy va jismoniy jihatdan rivojlanishida jismoniy tarbiya asosiy o‘rinlardan birini egallaydi. Mamlakatimizda amalga oshirilayotgan “Kadrlar tayyorlash milliy dasturi”ga muvofiq o‘sib kelayotgan yosh avlodni jismoniy va ma’naviy salomatligini shakllantirishning sog‘lom turmush tarziga intilish va sportga mehr muhabbatni singdirishning g‘oyat muhim sharti ommaviy sportni rivojlantirishdir. Asta –sekin o‘quvchi va talabalar uchun sport o‘yinlarining uch bosqichli, ya’ni “Umid nihollari”, “Barkamol avlod” va “Universiada” musobaqalari ommaviylashib bormoqda.

Ma’naviy –axloqiy jihatdan pok va etuk insonlarni tarbiyalash masalasini muvafaqiyatli hal etisha xalqimizning tarixiy an’analari, ma’naviy boyliklari, ajdodlarimizning bizga qoldirgan ilmiy me’roslari va tarixiy-tarbiyaviy tajribalarini o‘rganib chiqish, ularning yutuqlarini hayotga, ta’lim-tarbiya ishlariga tatbiq etishning ahamiyati kattadir.

Yuqoridagilardan xulosa qilish mumkinki, tadqiqot ob’ekti ta’lim mazmunini amalga oshirishda yetakchi g‘oya sifatida integratsiya bo‘lib, mavzu integratsiyalashgan darslar, xususan ularning rivojlanishi va an’anaviy ta’lim tizimida amalga oshirilish xususiyatlari barkamol shaxs rivojlanishida alohida ahamiyatga egadir.

Foydadanilgan adabiyotlar:

1. Karimov I.A. Barkamol avlod-O‘zbekiston taraqqiyotining poydevori. –T.SHarq nashriyoti-matbaa konserni.T.1997.-63 bet
2. O‘zbekiston Respublikasining “Kadrlar tayyorlash milliy dasturi”.T.1997 y.20 b.
3. M.Mavlonova, N.Raxmaqulova. “Boshlang‘ich ta’limni integratsiyalash” o‘quv qo‘llanma.T. “O‘qituvchi” 2011y. 1-bob.
4. L.N.Baxareva o‘zining “Integratsiya uchebnых zanyatiy v nachalnoy shkole na kravedcheskoy osnove” (nachalnaya shkola 1991g №8. 48 s.).

YOSHLAR TARBIYASIDA SOG‘LOM PEDAGOGIK, PSIXOLOGIK MUHIT-BARKAMOL SHAXS SHAKLLANISHINING MUHIM OMILI SIFATIDA

JO‘RAYEVA D.J.
Samarqand XTXQTMOHMo‘qituvchisi

Annotatsiya:Mazkur maqolada mamlakatimiz kelajagi bo`lmish yoshlarni hartomonlama yetuk, komil inson sifatida shakllanishlarida ularga sog`lom pedagogik, psixologik muhitni yaratib berish muammolari haqida fikr yuritilgan. Bolalarni ilk maktab yoshidan mukammal tashkil etilgan dars va turli mashg`ulotlar orqali komillikka yetaklash y`ollari yoritilgan.

Kalitso`zlar:ta’lim jarayoni, pedagogik, psixologik muhit, milliy qadriyatlar, xalq og‘zaki ijodi, axloqiy fazilatlar, erkin fikr, bilimlarni o‘zlashtirish.

Annotation: This article discusses the issues of creating a healthy pedagogical, psychological environment in shaping the future of our country as a mature, mature human being. The children have been taught the lessons of the first school age with perfectly organized lessons and various trainings.

Key words: learning process, pedagogical, psychological environment, national values, folklore, ethical qualities, freedom of thought, knowledge.

Bugungi kunda fan, texnika, axborot-kommunikatsion texnologiyalarning tez sur’atlar bilan rivojlanib borayotgani ta’lim sohasiga ham o‘z ta’sirini ko‘rsatmoqda. Ayniqsa, pedagogik texnologiyalar ijtimoiy buyurtmani bajarish, jamiyat, ota-ona, o‘qituvchi, o‘quvchining ehtiyoji, manfaati va maqsadlariga muvofiq bo‘lgan sabablarni qondirishga xizmat qiladi.

Ta’lim jarayonida o‘quvchilarda borliq haqida ma’lumot, tushuncha hosil qilibgina qolmay, anashu dunyoni o‘zi anglab yetishi uchun sharoit, imkoniyat yaratilishi kerak. Chunki o‘quvchilik pallasida - so‘zni anglash tuyg‘usi kuchli bo‘ladi. Ular hayotiy hodisalar o‘rtasidagi aloqadorlikni his qila olsa, idrok qilib ularni anglab yetsa, ularda bilim olishga qiziqish kuchayadi. Bilimga ehtiyoj hosil qilish masalasi esa zamonaviy o‘qitishning asosiy talablaridan biri bo‘lib hisoblanadi. Zamonaviy taraqqiyot asosida bolalarni pedagogik, psixologik muhitni yaratish bugungi o‘qituvchining eng muhim vazifalaridan biri hisoblanadi. Shu taraqqiyotlar asosida bolaning ma’naviyati, aqliy salohiyati ham tez taraqqi yetib, ularning bilim olishga bo‘lgan qiziqishlari ham oshadi. Aqliy rivojlanishdagi o‘zgarishlar tafakkurning to‘liq amalga oshirish bilan uzviyligi ta’lim-tarbiyada muhim ahamiyatga egadir. Shuning uchun o‘quvchilarning ijobiy qobiliyatlarini rivojlantirishda dars-o‘yin faoliyatini qo‘llash va barqarorlashtirishga ko‘proq ahamiyat berish zarur.

Dars-o‘yinlarda o‘quvchilarni tartib-intizom, odob-axloqqa o‘rgatadigan usullarni qo‘llash natijalidir. Milliy qadriyatlarimiz, xalq og‘zaki ijodidan o‘rinli foydalanish orqali o‘quvchilarda insoniy fazilatlarni shakllantirishga erishish nazarda tutiladi.

Xalqimizda “Har qanday muallim - ruhshunosdir” degan fikr bor. Shu sababli, o‘qituvchi dars jarayonida turli psixologik o‘yinlardan foydalanishining samarasi sezilarlidir. Bunda “Oltinso‘zlar”, “Qanday qilib aqlli bo‘lish mumkin?”, “Ona – Vatan sifatida”, “Mening o‘rtog‘im” kabi psixologik o‘yinlardan foydalanish o‘rinlidir. Aytilgan o‘yinlardan so‘ng sinfdagi o‘zgarish o‘zaro hurmat, darsga bo‘lgan intilishlarining ijobiy darajada ekanligi seziladi. Darsda bolalarning jimo‘tirmay, o‘zfikrlarini bemalol ayta olishlariga sharoit yaratish, ularni tinglay bilishga, xato javob uchun uyaltirmaslikka, kamsitmaslikka intilish kerak.

Bundan tashqari boshlang‘ich sinflarda bolalarning yoshini, xarakterini bilim saviyasini hisobga olish, ularga nisbatan munosabat ham shunga tegishli bo‘lishi kerak. Ularga oddiy, oson, qiziqarli va vaqt kam sarflanadigan o‘yin-mashqlardan foydalanib, darsni o‘tish samarali bo‘ladi. O‘yin-mashqlari orqali bolalarda mustaqil va erkin fikrlash sezilarli o‘sadi. O‘yin davomida ular fikrni bir joyga jamlashga erishgan holda vaziyatni oqilona baholashga kirishadilar.

Dars jarayonida interfaol usullardan foydalanish juda yaxshi samara beradi. Interfaol ta’lim jarayonida dars o‘quvchilarning o‘zaro muloqotlari asosida amalga oshiriladi. Bu metod ta’lim jarayonida o‘qituvchi va o‘quvchilar o‘rtasidagi faollikni oshirish orqali ularning o‘zaro harakati, ta’siri ostida bilimlarni o‘zlashtirishni kafolatlash, shaxsiy sifatlarni rivojlantirishga xizmat qiladi.

Agar dars jarayonida zamonaviy pedagogik texnologiyalardan “B.B.B” uslubidan foydalanilsa, o‘quvchilarning ma’lum mavzu yuzasidan bilimlar darajasi turlicha ekanligi ko‘rinadi. “Bilishni istayman” bo‘limi ularda qiziqish, bilim olishga bo‘lgan intilishini ko‘rsatadi. Bu usul mazkur pedagogik texnologiyaning asosi hisoblanadi. Biladigan o‘quvchining bilimini boyitish bilan birga bilim darajasi past bo‘lgan o‘quvchiga bilim olishga ehtiyoj tug‘diradi. “Bilib oldim” bo‘limida o‘quvchi aynan nimani bilib olganini o‘zi aniqlaydi, ya’ni vazifaga aqlli yondashadi.

Texnologiyalarning uslub, turi ko‘p, ammo uni o‘quvchining yosh xususiyatini, aqliy rivojlanishini, psixologiyasini nazarda tutib tanlansa, o‘qituvchi darsda ko‘zlagan maqsadiga erisha oladi.

Yosh avlodni zamonaviy ruhida tarbiyalash, ma’naviy olamini boyitish, erkin va ijodiy tafakkur sohibi qilib shakllantirish, o‘z mustaqil fikriga, fikrini yozma yoki og‘zaki ko‘rinishda bo‘lsin chiroyli ifodalay olish ko‘nikmasiga ega avlodni shakllantirish kabilarni o‘z oldiga asosiy maqsad tarzida tanlangan ta’lim tizimida o‘qitiladigan fanlar o‘rni va ahamiyati muhim o‘rin egallaydi. Dars jarayoni murakkab tabiatli bo‘lib, faoliyat, salohiyat, bilim zahirasi, dunyoqarash, zukkolikni talab etadi; dars mavzusi, xarakteri, usuli va o‘qitishning asosiy va yordamchi vositalari bilan ta’minlanganlik yoki aksincha kabi tashqi va ichki omillar bilan bevosita bog‘liq jarayondir.

Ta’lim jarayonida o‘qituvchi o‘zining tutgan o‘rnidan oqilona, omilkorlik bilan foydalanib, o‘quvchilarda uyushqoqlik, mehnatsevarlik, o‘zaro hurmat kabi axloqiy fazilatlarni, o‘qishga ongli munosabat, o‘z faoliyatini maqsadli yo‘lga qo‘yish kabi aqliy sifatlarni, shu bilan birga, o‘z diqqatini boshqarish, xulqini idora etish, o‘zini tuta bilish, qiyinchiliklarni yengish kabi irodaviy fazilatlarni shakllantirishi lozim.

O‘qituvchi darsni qanchalik ijodiy tashkil etishga urinmasin, o‘quvchilarning aqliy faolligi ta’minlanmasa, o‘zaro hamkorlik yo‘lga qo‘yilmasa, ma’naviy barkamol insonni, shaxsni talab darajasida tarbiyalash ishida ham kamchiliklar saqlanib qolaveradi.

Adabiyotlar

1. B.Ziyomuhammedov .Pedagogik mahorat asoslari. Toshkent. 2009 yil.
2. R.J. Ishmuhammedov Innovatsion texnologiyalar yordamida ta'lim samaradorligini oshirish yo'llari. Toshkent. 2004 yil.

ИСЛОМ ҚАДРИЯТЛАРИНИ ШАКЛЛАНТИРИШНИНГ УСУЛЛАРИ

Шамуратова Э.С.
СамДЧТИ докторанти

Аннотация. Ушбу мақолада ислом қадриятларини шакллантиришнинг усуллари, йўналишлари, мақсадлари, ислом қадриятларида боланинг ёш хусусиятлари, яъни ёш дифференциациясини назарга олган ҳолда у билан гаплашиш лозимлиги, болани эркалатиш даркорлиги, боланинг ҳар томонлама, яъни жисмонан, ақлан, руҳан, жисман, ахлоқан комил бўлиши ҳақида сўз боради.

Калит сўзлар: Таълим ва тарбия, бағрикенглик, дўстлик, тўғрисўзлик, меҳнатсеварлик, урф-одат.

Annotation. This article discusses the ways, forms and goals of Islamic values, the values of Islam in the values of a child, that is, the age differences, the need to talk with him, the child, as well as the physical, mental, spiritual, physical and moral well-being of the child.

Keywords: education and upbringing, tolerance, friendship, dignity, diligence, tradition.

Аннотация. В этой статье обсуждаются способы, формы и цели исламских ценностей, ценности ислама в ценностях ребенка, то есть возрастные различи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азговаривать с ним, ребенком, а также физическое, психическое, духовное, физическое и моральное благополучие ребенка.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образование и воспитание, толерантность, дружба, достоинство, трудолюбие, традиция.

Ислом қадриятларини шакллантиришнинг усуллари ҳақида гапирганда шуни таъкидлаш зарурки, оилавий тарбияда қанча оила, қанча ота ва оналар мавжуд ва бор бўлса, мана шунча ўзига хос методлар ҳам мавжуддир. Бироқ уларни умумлаштирсак, куйидаги асосий усуллар мавжудлиги айтган бўламиз:

Ишонтириш методи (тушунтириш, англатиш, сингдириш, инонтириш, кўнглиги сингдириш, уқтириш, маслаҳат бериш, суҳбатлашиш, ислом қадриятларида алоҳида урғу насиҳатга берилади).

Шахсий ибрат (бола кўрганини қилади, шу боис болага ҳамма ишларда ибрат кўрсатиш керак, исломда Муҳаммад Пайғамбар ҳаёти, амаллари ва сўзлари барча мусулмонлар учун катта ибратдир, шу боис Пайғамбар ҳаёти ҳақидаги ибратли ҳикоялар ҳам болани тўғри тарбия қилишда самаралидир).

Меҳнатга жалб этиш – ислом тарбиясининг асосий бўғинларидан биридир. Чунки ислом ақидасига кўра, ҳар бир инсон бирор бир ҳунар эгаси бўлиб, ҳалол, яъни ўз меҳнати орқали кун

кечириши тақозо этилади. Ислом ақидаларида тўқувчилик, ўймакорлик, ганчкорлик, бўзчилик, кулолчилик, мисгарлик, меъморчилик, заргарлик, зардўзлик, каштачилик, темирчилик, эгарчилик, дурадгорлик, бешикчилик, наққошлик, пичоқчилик, кўнчилик, косибчилик, маҳсидўзлик, қандолатчилик, новвойлик, тандирсозлик, қурувчилик, тикувчилик ва бошқаларни эгаллаш ҳар бир ёшга буюрилади. Ҳунар орқали Аллоҳ инсонга ризқ бериши тараннум этилади. Халқ ҳунармандчилиги инсон онгли ва мақсадли товар ишлаб чиқаришга йўналтирилган қўл меҳнати ва фаолияти маҳсули бўлиб, халқнинг асрлар давомида шаклланиб, такомиллашиб келган эҳтиёжлари, кундалик турмуш тарзи, орзу-истакларини, меҳнат анъаналарини ўз мазмунида мужассам этган тарбия воситасидир. Халқ ҳунармандчилиги нафақат кундалик маиший эҳтиёжларни қондириш манбаи, балки ислом ақидалари негизида турмуш кечиришнинг асосидир. Шунга кўра, меҳнат қилишга болани жалб этиш, меҳнатга ўргатиш ва турли ҳунарларни эгаллашга шарт-шароит яратиш оилавий тарбиянинг мақсадларидан биридир. Оилавий таълим ва тарбиянинг муҳим йўналишларидан бири ва унинг мақсадларидан бири бу меҳнат тарбияси, меҳнатсеварликни болага ўргатишдир. Боланинг меҳнатга ўргатилиши ундан қунт, жамоа учун муҳим бўлган ишларда ўз яқинларига кўмак кўрсатиш, ўз зиммасига маълум вазифаларни олиш, юоқимондаликдан қутилиш имкониятини яратади, натижада бола касб-кор кўникмаларини эгаллаш орқали жамият ҳаётида ўз ўрнига эга бўла бошлайди, ўз меҳнатининг самарасини кўра бошлайди. Чунки меҳнат қилган болага раҳбатлантириш тамойили, яъни уни мақташ, бошқаларга ибрат қилиб кўрсатиш ишлай бошлайди, болада ўз ишижан қониқиш хисси уйғонади. Биробарин, ислом трабияси меҳнатга ўргатишни ёқлайди ва унга асосланади. Меҳнат тарюияси болаларни ёшликдан бошлаб уларнинг қизиқиши, лаёқати ва қобилиятларига кўра ҳунарларга ўргатишга замин яратади, натижада боланинг ижтимоий маконга чиқиш, ижтимойлашув учун тайёргарлиги таъминланади. Оила меҳнат тарбияси учун табиий ва зарур бўлган шарт-шароитни яратади. Оила муҳитида меҳнатсеварликни тарбиялашда ота-оналарнинг, авлодларнинг меҳнат анъаналари, меҳнат қадриятлари, меҳнат удумлари, оила тутиши ва оилавий тартиб ва қоидалар муҳим аҳамият касб этади. Агар оилада анъанавий авлодлар касб-кори мавжуд бўлиб, улар қадрланса, ота-оналардан сўнг фарзандлар ўзларига мерос бўлиб қолган ҳунарни давом эттиришса, оилавий сулолалар юзага келади, ҳунар маалкалари ва кўникмалари авлоддан авлодга ўтказилади. Шунга кўра, болаларда ҳам шу ҳунарни ўрганишга мойиллик сезилади. Болада меҳнат қилишга, ҳунар ўрганишга мойиллик сезилдими, унга дарҳол зарур шарт-шароит яратиб бериш зарур бўлиб, натижада боладаги истеъдоднинг шаклланиши таъминланган бўлади.

Турли ўйинлар орқали қадриятларни сингдириш – болаларни кичик ёшдан бошлаб тарбиялашда ўйин фаолиятидан ўринли фойдаланиш зарур. Ўйин болаларнинг етакчи фаолияти ҳисобланади. Ўйин орқали болалар оламни билишга ўрганади. Ўйин орқали болаларнинг шахсий ва ижтимоий кўникмалари шакллантирилади. Ўйин болаларга завқ беради, уларга хурсандчилик хиссиётини улашади. Шу боис, болалар ўйиндан чарчамайди. Болалар ўйин орқали турли ижтимоий вазифаларни ўзига олиб кўради, врач, ўқитувчи, боғча опа бўлиш билан уларнинг хатти ҳаракатлари, сўзларини такрорлайди, улар машғул бўлган вазифаларни бажариб кўради. Болалар ўз ўйинларида ўзларининг оиладаги ва ижтимоий макондаги ўрнини ҳам белгилашга уринади. Ўйин болаларни эмоционал-хиссий, жисмоний, ақлий, руҳий ва маънавий жиҳатдан камол топишига кўмаклашади. Шу билан бирга, ўйин жуда катта тарбия воситаси ҳамдир. Шунга кўра, ислом анъаналарида болалар билан бирга қувлашмачоқ, бекинмачоқ, айтишув, копток, ҳаракатли ўйинлар, сузиш, жисмоний машқ қилиш ўйинларини ўйнаш суннат эканлиги уқтирилади. Болалар гуруҳ-гуруҳ бўлиб ўйнаганда, ижтимоий муносабатлар учун зарур бўлган кўпчилик билан муомала қила олиш, ўз ўрнига эга бўлиш, бошқалар ўрнини таниш имконияти яратилади. Болага ахлоқий-маънавий фазилатлар, дастлабки меҳнат кўникма ва малакалари сингдирилади. Болаларда дўстлик, ўз сўзида туриш, камтар бўлиш, бировга ёрдам кўрсатиш, тўғрисўзлик, ёлғондан қочиш, сабрли бўлиш, худбинликдан қочиш, меҳрли бўлиш, ўртоқлик, иноқлик, меҳнатсеварлик, касб-ҳунарга қизиқиш, толерант дунёқараш, бағрикенглик каби фазилатлар ўйин орқали тарбия қилинади. Ислом дини ақоидларида шахс комиллиги улуғланади, кишиларни руҳан ва жисманан комил бўлишга чорлаб келинади. Ўйин эса болаларни энг кичиклик давриданоқ мана шу руҳан ва жисмоний комил бўлишлари асоси саналади. Муҳаммад Алайҳиссалом: “Болаларимизни ёшлик давридан сузишга, отда чопишга, қилич ушлашга, камондан ўқ узишга, кураш тушишга ўргатишимиз зарур”, деб уқтирган эдилар. Муҳаммад Пайғамбаримиз яна шундай дейдилар: “Кимки ёшлигида ўқ отиш санъатини яхши эгаллаб, сўнг уни тарк этиб юборган бўлса, улуғ неъматлардан бирини қўлдан берибди”. Демак, бундан келиб чиқадики, ислом дини машқ санъатини ёшликдан бошлаб эгаллаш лозимлигини уқтиради. Болалар ўйинлари шахс шаклланиши мактаби бўлиб, ислом қадриятларини шакллантиришда суннада таъкидланган ўйинлардан фойдаланиш самаралидир. Бугунги кунгача сақланиб, болалар ўртасида

кенг тарқалган ва севиб ўйналадиган “Бекинмачоқ”, “Ким тез”, “Тўп билан уриш”, “Кўз боғлагич”, “Мушук ва сичқон”, “Қуёнлар ови” каби миллий ҳалқ ўйинлари болаларда эпчиллик, чаққонлик, ҳаракатчанлик каби жисмоний сифатларни ҳамда иноқлик, дўстлик, меҳрибонлик, иродалилик, чидамлилик каби ахлоқий фазилатларни тарбиялайди.

Оилавий урф-одатларга жалб этиш – оилавий урф-одатлар миллий урф-одатлар, қадриятлар, маданиятнинг ажралмас таркибий қисми саналади. Оилавий урф-одатлар асосини миллий анъана, расм-русум, таомил, дунёвий ва диний маросимлар ташкил қилади. Саломлашиш одоби, никоҳ, суннат тўйлар, оила тутиш тартиби, фарзанд тарбияси масалалари, ота-онани ҳурмат қилиш, болага меҳрли бўлиш, меҳмоннавозлик, очиқ юз билан инсонларга муомала қилиш, саломатликни сақлаш, илм олиш, нонни эъзозлаш, касбу корга эга бўлиш, савдо-сотиқда ҳалоллик, байрамларни оила даврасида ўтказиш, оилавий маросимларда фаол бўлиш кабилар урф-одатларнинг асосини ташкил қилади. Урф-одатларни биз дунёвий урф-одатлар ва диний урф-одатлар каби икки бош гуруҳларга шартли равишда бўлишимиз мумкин. Дунёвий урф-одатларга бола тарбияси, болани мактабга тайёрлаш, мустақиллик байрами, янги йил байрами, китобхонлик, муқаддас қадамжолар, маданият ўчоқлари, машҳур шаҳарларимиз, тарихий обидаларимиз ва улуғ бобокалонларимизнинг қабрларини оилавий зиёрат қилиш, ҳосил байрами, наврўз байрамлари кабиларни киритиш мумкин. Диний урф-одатларга рамазон хайити, қурбон ҳайит, мавлуд, ақиқа, биби сешанба, илм ал-маъруф, оилада аёлга муносабат, оилада болага муносабат, уларнинг ҳақ-ҳуқуқлари ва мажбуриятлари, оилада отанинг ўрни каби масалаларни киритиш мумкин. Оилада чақалоқнинг туғилган кунини нишонлаш, унга исм қўйиш, боланинг биринчи қадами, мучал ёши, никоҳ тўйи, қизлар мажлиси, келин салом, келинчак қўлидан чой ичиш, чарлар, куда чақириқ, бешик тўйи, ҳовли тўйи, пайғамбар ёши, 40,50,60,70,80 ва ҳакозо ёшлари нишонлаш ва уларнинг меъёрида ҳам диний омил мавжуд бўлиб, уларга болаларни ўргатиш ва маросимларни ўтказишда белгиланган меъёрлар бажарилишини назорат қилиш, исрофгарчиликка йўл қўймаслик, яхши ният асосида ҳаёт кечиришлик каби оилавий тартибларнинг болалар тааккурида бўлишига эришиш тақозо этилади. Оилада мотам маросимлари билан боғлиқ анъаналарнинг ўрни муҳим. Масалан, марҳумларнинг “учи” ёки “етти”сида ўтказиладиган худойи, “кир ювди”, “пайшанбаликлар”, “йигирма”, “қирқ”, “ҳайит”, “йил оши”, “оқ солар”, йил мавсумларига қараб “Қор ёғди”, “Лайлак келди”, “Гул” кабиларнинг нишонланиши ва уларни ўтказиш қоидаларидан боаллар хабардор бўлиши ва уларни ўтказишда ўз зиммасига маълум бир вазифаларнинг бажарилишини олиши даркор. Мотам маросимларида тайёрланадиган таомлар, кийиладиган кийимлар ва улар тартиби билан болалар хабардор бўлишлари зарур. Шу билан бирга, Ўрта Осиё халқлари тарихи билан боғлиқ миллий байрамлардан бўлган Наврўз, Меҳрижон, Бойчечак, Гул сайли, Ҳосил сайли ва бошқалар ҳақида ҳам болаларда тўлиқ тасаввур ҳосил қилиниши лозим.

Фойдаланилган адабиётлар:

1. Саҳиҳи Бухорий. – Т.: Ўзбекистон миллий энциклопедияси, 2008; Абу Исо Термизий. Саҳиҳи Термизий. – Т.: Ғафур Ғулом, 1993;
2. Бурҳониддин ал-Марғиноний. Ҳидоя. Т.1. – Т.: Адолат, 2000;
3. Фаридиддин Аттор. Мантиқи ут-тайр. – Т.: Ғафур Ғулом, 2006;
4. Жўзжоний А.Ш. Тасаввуф ва инсон. – Т.: Адолат, 2001;
5. Ғаззолий А.Ҳ. Мукошафат ул-қулуб. (Қалблар кашфиёти). Т.1. – Т.: Янги аср авлоди, 2004.
6. Рўзиева Р.Х. Жамиятнинг маънавий янгиланишида миллий ва умуминсоний қадриятлар уйғунлигини шакллантириш масалалари. Фалсаф. ф. докт. .. автор. -Тошкент: 2012. – 52 б.
7. Шайхова Х. Ўзбек аёли – одоб тимсоли. – Т.: Фалсафа ва ҳуқуқ, 2007. – Б. 24-28.
8. www.norma.uz/qonunchilikda_yangi/ota-onalar_universiteti_farzand_tarbiyasida_muammosi_bulgan_oilalar_bilan_shugullanadi

БОШЛАНҒИЧ ТАЪЛИМДА МАЪНАВИЙ-МАЪРИФИЙ ФАОЛИЯТ БОСҚИЧЛАРИ

Сайдиаҳмат У., п.ф.н., доцент
Самарқанд вилояти ХТХҚТМОҲМ

Аннотация. Республикамизда мустақиллик йиллари амалга оширилган педагогик тадқиқотлар таҳлили мамлакатимизда янги - илмий - миллий педагогика шаклланаётганлиги тарбия назарияси ва услубиятига оид ишларда яққол кўзга ташланмоқда. Бу маънавий-маърифий ишлар педагогикасининг шаклланиши учун зарур шарт-шароит яратмоқда.

Ўқувчиларда маънавий сифатларни шакллантириш нафақат педагогик, балки ижтимоий-психологик масала қамдир. Буни кейинги йилларда республикамиз психологлари томонидан қўлга киритилаётган натижалар яққол кўрсатмоқда. Биз маънавий-маърифий ишларнинг тарбиявий таъсир жараёнини объективлаштириш нуқтаи–назаридан аҳамиятли бўлгани туфайли уларнинг айримларига махсус тўхталамиз.

Шундай қилиб, ушбу мақолада бошланғич таълим тизимида маънавий–маърифий ишларни ташкил этиш ва унинг усулларига доир тадқиқотларда илгари сурилган масалалар таҳлилига эътибор қаратилган.

Калит сўзлар: маънавият, маърифат, тадқиқотлар, моделлаштириш, ижтимоий психология, педагогик жараён.

Аннотация: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анализ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оведенных за годы независимости в нашей стране, а также работы по теории воспитания и методологии о формировании новой научно - национальной педагогики. В статье достаточно подробно описаны необходимые условия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педагогики духов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работы. Актуальность исследуемой проблемы не подлежит сомнениям, так как формирование духовных качеств учащихся является не только педагогической, но и социально-псих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блемой.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достижения наших психологов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виду важности объективизма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м процессе духовного просвещения, в статье специально подчеркиваются некоторые из них.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освещается анализ вопросов, поднятых в исследовании организации и практики духовного воспитания в системе нача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духовность, просвещен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моделирование, социальная психология, педагогический процесс.

Annotation. The analysis of pedagogical researches carried out during the years of independence in our country is evident in the work of the theory and methodology of the formation of new scientific and national pedagogy in the country. It creates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formation of pedagogy of spiritual-enlightenment work.

Formation of spiritual qualities in students is not only a pedagogical but also a socio-psychological problem. This is evidenced by the achievements of our psychologists in recent years.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objectivism in the educational process of spiritual enlightenment, we emphasize some of them.

Thus, this article highlights the analysis of issues raised in the research on the organization and practices of spiritual education in the system of primary education.

Key Words: spirituality, enlightenment, research, modeling, social psychology, pedagogical process.

Ёш авлодни онгли интизом, юксак маданият, миллий ғурурга эга этиб тарбиялаш, уларда ватанпарварлик, байналмилаллик, фуқаролик бурчини ҳис этишдек зарур сифатларни мужассамлаштириш зарурати бошланғич таълимнинг мақсад, вазифалари доирасига киритилади. Бироқ миллий истиқлол фазилатлари таснифи, мазмуни, туркумларини белгилашда ноаниқликлар мавжуд бўлиб, ўқувчиларнинг тарбияланганлигини баҳолаш, қайд қилиш масалаларини тўла очиб беришга эришилмади. Мазкур йўналишдаги илмий изланишлар масала ечимини бирмунча ойдинлаштиради.

Маънавий-маърифий ишларнинг асосий субъекти - ўқитувчи. Шу сабабли юқоридаги фазилатларни шакллантириш учун масъулиятнинг асосий юки унинг зиммасига тушади. Бунинг учун бошланғич синф ўқитувчиларидан мактаб, жамоат орасида ўз билими, маънавий-ахлоқий фазилатлари билан бошқаларга ўрнак бўлишлари; ўқувчилар шахсини хурмат қилишлари, уларни қонунларга, меҳнатга, ота-оналарга, маънавий, тарихий, миллий ва умуминсоний қадриятларга ҳурмат руҳида тарбиялашлари; ўсиб-улғайиб келаётган ёш авлодни бир-бирини тушуниш, халқлар, миллатлар ва эл-элатлар ўртасида тинчлик, ақиллик ва иноқлик руҳида тарбиялашлари ва уларни зўравонликнинг барча кўринишларидан ҳимоя қилишлари ва бошқалар талаб этилади.

Ўқувчиларда маънавий сифатларни шакллантириш нафақат педагогик, балки ижтимоий-психологик масала ҳамдир. Буни кейинги йилларда республикамиз психологлари томонидан қўлга киритилаётган натижалар яққол кўрсатмоқда. Биз маънавий - маърифий ишларнинг тарбиявий таъсир жараёнини объективлаштириш нуқтаи-назаридан аҳамиятли бўлгани туфайли уларнинг айримларига махсус тўхталамиз. Бунинг учун маънавий қадриятларимизнинг типик шакли бўлган меҳмон кутиш жараёни танланган. Муомала маданиятида ишлатиладиган сўзлар, меҳмонни кутиб олиш, дастурхон атрофидаги хатти-ҳаракатлар, ҳол-аҳвол сўраш, меҳмонни кузатиш жараёнидаги имо-ишоралар ўзининг семантик мазмунига кўра муайян ижтимоий функциялар билан идентификация қилиниши аниқланган. Улар ўз муносабат, муомала актларимизда ҳар куни ишлатувчи имо-ишоралар миллий психологик қиёфамиздаги бошқа ижобий сифатлар билан боғланиб кетади. «Шу жиҳатдан олганда жамият аъзоларининг янги ижтимоий, сиёсий, ҳуқуқий муносабатлар жараёнларига мос хулқ нормалари, характер хусусиятларини шакллантириш масаласи долзарб бўлиб турган ҳозирги шароитда энг самарали, фаол ижтимоий-психологик усул сифатида ўйин фаолиятидан фойдаланиш катта амалий самаралар бериши мумкин» [2;23 -26].

Маънавий-маърифий ишлар, авваламбор, халқимизнинг маънавий-маърифий меросини ифодалайди. Чунки бу мерос миллий мафкуранинг ҳам, маданиятнинг ҳам, умуман бутун маънавиятимизнинг мустаҳкам манбаидир. Давр синовига бардош бера олмаган, вақтинчалик қимматга эга бўлган ҳодисалар қеч қачон меросга айланмайди. Вақт ўтиши билан изсиз йўқолиб кетади, қадриятлар эса муайян халқнинг асл белгиларини ўзида акс эттиради. Демак, маънавий-маърифий ишларни муваффақиятли ташкил этиш учун шахс ижтимоий фаоллигининг ижтимоий - психологик механизмларини, шунингдек, жамоавий фаолиятни изчил фаоллаштириш шароитларини билишга таяниш зарур.

Ижтимоий фаоллик механизмини тушунишда таъсир кўрсатиш назарияси катта аҳамиятга эгадир. Бу назариянинг асосий қоидаларига кўра болада қандайдир амалий ҳаракат тажрибасини мустаҳкамловчи ёки қайд этувчи одатдаги дастлабки психологик реакция пайдо қилинади. Ҳаракатнинг такрорланиши ёки ўхшаш вазиятнинг вужудга келиши натижасида таъсир «уйғониб», ана шу ҳаракат ёки шу вазиятда керак бўладиган тажрибани сафарбар этади. Шу тариқа шахс фаоллигининг қар бир янги акти илгари пайдо бўлган таъсирда тўпланади.

Маънавий-маърифий ишларнинг устувор мақсади иймон-эътиқоди бутун, иродаси бақувват эркин фуқаро маънавиятини шакллантиришдир. Яъни мустақил дунёқарашга эга, аждодларимизнинг бебаҳо мероси ва замонавий тафаккурга таяниб яшайдиган баркамол шахс - комил инсонни тарбиялашдан иборат. Мазкур ижтимоий буюртмани педагогик талқини ўқувчиларда эътиқодни шакллантириш вазифасини ҳосил қилади.

Ўқувчи ўз фаолиятида ундан ота-она, мактаб талаб қилаётган хулқ-атвор меъёрлари билан бир қаторда ўқувчилар орасида ўзаро қабул қилинган норасмий, лекин таъсирчан меъёрларни ҳам намоён қилади. Бу меъёрлар баъзи ҳолларда ўзаро уйғун, (ростгўйлик, қийналган синфдошга ёрдам бериш), баъзи ҳолларда эса (масалан, уй вазифасини кўчиртиришни ўқувчилар ўзаро ижобий ҳол деб қарашса, мактаб, синф раҳбари томонидан бу қораланади) бир-бирига зид бўлади. Шу сабабли маънавий- маърифий ишларда ўқувчи ва ўқувчилар жамоасида миллий истиқлолий эътиқодни шакллантириш муҳим ижтимоий-педагогик аҳамият касб этади.

Бошланғич синф ўқувчиларида миллий истиқлолий эътиқоднинг асослари шакллантирила борилади. Бу жараён механизми ўзаро узвий боғланган тўрт **босқични** ўз ичига олади.

Биринчи босқичда ўқувчиларнинг шахсий фикр, муносабатларини ўрганиш бўлиб, унда ўқувчиларнинг у ёки бу масала, воқеа (масалан, давлат рамзлари) тўғрисидаги билимлари, уларга муносабатлари умумлаштирилади.

Иккинчи босқичда билдирилган турли туман фикр ва муносабатлардан энг тўғриси, энг мақбули танланиб, учраган нотўғри фикр, тушунча, муносабатлар таъсирини сусайтиришга қаратилган чора-тадбирлар амалга оширилади. Тўғри қараш, нуқтаи назарни қўллаш талаб қилинадиган вазиятлар, фаолият турлари ташкил қилинади. Масалан ўқувчилар, уларнинг ота-оналарига миллат ва давлат манфаатлари уйғунлигини англатишга қаратилган содда мисол, вазиятлар намойиш қила борилади. Бу ўта муҳим. Чунки манфаат англанмаса, ўқувчининг ўзига; ота-она, миллат, давлатга муносабати ҳам ўзгармайди. Бошланғич синф ўқувчилари жамоасида истиқлолий эътиқодни ҳосил қилишда ўқитувчининг ўзи ҳам шу эътиқодда бўлиши муҳим. Акс ҳолда, у қўллаётган услубнинг таъсирчанлиги суст бўлади.

Учинчи босқичда турли фикрлар, қарашларни уйғунлаштириш амалга оширилади. Синфда, мактабда, жамиятда бўлаётган воқеаларни кўриб, эшитиб унга муносабат пайдо бўлади. Муносабатлар ранг-баранг бўлиши мумкин. Лекин уларни ўзаро боғловчи, бирлаштирувчи қирралари

бўлади. ўқитувчи синф ўқувчиларининг у ёки бу масала бўйича якдил муносабатини ҳосил қилишда ана шу қирраларни топиб, бирлаштиришга эришмоғи зарур.

Тўртинчи босқичда синф ўқувчиларида ҳосил қилинган якдил эътиқодни «ишга тушириш» амалга оширилади. Бундан мақсад - синф ўқувчилари орасида шакллантирилган умумий фикр, эътиқодни уларнинг кундалик ҳаёти, фаолиятида ўзаро муносабатларида амал қиладиган қоида, талаб, меъёрга айтантиришдир. Шу тариқа ўқувчилар жамоасида миллий истиқлолий эътиқод асосларини шакллантириш 1) умумий, ранг - баранг фикрлардан энг тўғрисини ажратиб олиш, рағбатлантириш; 2) тўғри фикрни эътиқодга айлантириш; ва 3) эътиқодни амалий фаолиятга татбиқ қилинишига эришмоқдир. Албатта бу босқичлар орасидаги чегара нисбий. Шундай вазиятлар бўладики, биринчи ва иккинчи босқичларни ташлаб ўтишга тўғри келади. Масалан, ўқувчилар орасида очкўзлик, мақтанчоқлик, ёлғончилик каби одатларга салбий муносабатни шаклд.антиришда ушбу салбий иллатларга ўқувчиларнинг шахсий муносабатларини махсус ўрганишга зарурат қолмайди. Чунки, юқорида қайд қилганимиздек, бу сифатларнинг салбий эканлиги ўз-ўзидан маълум. Шу сабабли биринчи ва иккинчи босқичлар ташлаб ўтилади ва учинчи - эътиқодни амалий фаолиятга татбиқ қилишга тўғридан-тўғри киришилади.

Ўзбек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нинг жаҳон ҳамжамиятидаги ўрни, мавқеи, аҳамияти ёш авлодларда соғлом маънавиятнинг илмий – педагогик асосда шакллантирилишига боғлиқ. Шу сабабли умумтаълим мактабларида амалга оширилаётган маънавий – маърифий ишлар ижтимоий – сиёсий ва ижтимоий педагогик хусусиятларга эга.

Бошланғич мактабларда маънавий-маърифий ишларнинг пировард натижаси ўқувчиларда маънавий маданият асосларини шакллантиришдир. Бу эса мақсадга йўналтирилган педагогик таъсир тизими самарадорлигини оширишга қаратилган тарбиявий, психологик шарт-шароитнинг таъминланишига боғлиқ.

АДАБИЁТЛАР

1. Мусурмонова О. Оила маънавияти-миллий ғурур.-Т.: Ўқитувчи, 1999.-192 б.
2. Раҳимова К., Отажонова М. Болаларда маънавий тушунчаларни шакллантиришда актив методдардан фойдаланиш // Фан ва тиббиёт. Технологиялар. 1999. 2 -сон. 23 - 26 б.
3. Усмонов С. Бошланғич таълимнинг маънавий-маърифий самарадорлигини ошириш // Бошланғич синф ўқитувчилари учун илмий - услубий қўлланма. -Самарқанд, 2000. —25 б.

IQTIDORLI O'QUVCHILARGA TA'LIM BERISHDA PEDAGOGIK VA PSIXOLOGIK OMILLARINI SHAKLLANTIRISHDA PEDAGOGIK TEXNOLOGIYALARNING O'RNI

Jo'rayev O. o'qituvchi
Rashidova Sh. talaba
JDPI

Annotatsiya

Ushbu maqolada iqtidorli o'quvchilarga ta'lim berishning pedagogik va psixologik omillarini takomillashtirishda pedagogik texnalogiyalarining o'rni yoritilgan. Shuningdek, iqtidorli o'quvchilarga ta'lim berishda pedagogik texnalogiyalardan foydalanishning yangi imkoniyatlari ham ko'rsatilgan.

Аннотация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описывается эволюция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в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и 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и психологических факторов обучения одаренных студентов. Это также показывает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использования одаре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в обучении одренных студентов.

Annotation

In this article it is described the evolution of pedagogical technologies in improving the pedagogical and psychological factors of teaching gifted students. It also shows that new opportunities for using pedagogical technology in teaching gifted students.

Kalit so'zlar: innovatsiyalar, loyihalar, texnologiya, iqtidor, sirli so'z, davom ettir, o'yin topishmoq, axborot.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инновация проектов технология таланты секретное слова так держать загадка информация

Key words: innovations, projects, technology, talent, magical word, continue, riddle, information.

Mamlakatimiz istiqlolga erishgan dastlabki kunlaridanoq iqtidorli o'quvchilarga ta'lim berishga pedagogik-psixologik xususiyatlariga asosiy e'tibor qaratildi. Shuningdek, Bugungi kunda mamlakatimizda yoshlarga yaratilayotgan imkoniyatlar, aynan ta'lim sohasida amalga oshirilayotgan islohotlar ertangi kun poydevori bo'lib xizmat qilmoqda. Yoshlar tarbiyasi hamda ularni tarbiyalashda ta'lim tizimining naqadar ahamiyatli ekanligi yurtimizda hozirda olib borilayotgan keng ko'lamli innovatsiyalar, loyihalar, shu o'rinda aytish mumkinki, davlatimiz siyosatining har bir jabhasida amalga oshirilayotgan o'zgarishlar kelajagimiz uchun qo'yilayotgan qadamlardan sanaladi. Mustaqillik yillarida mamlakatimizda ta'lim sohasidagi davlat siyosatining asosiy tomonlaridan biri sifatida bilimli bo'lishga va iste'dodni raqobatlashtirishga alohida e'tibor qaratildi. Natijada ta'lim oluvchilarning iste'dod va qobilyatlarini davlat tomonidan moddiy va ma'naviy jihatdan rag'batlantirib borish, ixtisoslashtirilgan maktablarni va fan sohalarida chuqurlashtirilgan sinflarni tashkil etish, iqtidorli o'quvchilarni har tomonlama uyg'un rivojlantirish maqsadida maxsus markazlar faoliyatini yo'lga qo'yish tizimi shakllantirildi. Xususan, Prezidentimiz Shavkat Mirziyoyevning 2018-yil 19-sentabr kuni Birlashgan Millatlar Tashkiloti Bosh Assambleyasining 72-sessiyasidagi so'zlagan nutqida: Sayyoramizning ertangi kuni, farovonligi farzandlarimiz qanday inson bo'lib kamolga yetishi bilan bog'liq. Bizning asosiy vazifamiz-yoshlarning o'z salohiyatini namoyon qilishi uchun zarur shar- sharoitlar yaratish, zo'ravonlik g'oyasi "virusi" tarqalishining oldini olishdir. Buning uchun yosh avlodni ijtimoiy qo'llab-quvvatlash, uning huquq va manfaatlarini himoya qilish borasidagi ko'p tomonlama hamkorlikni rivojlantirishni lozim, degan edilar.

Umuman olganda, bizning yorqin kelajagimizni yaratuvchilar bugungi barkamol va iqtidorli yoshlarimizdir. Jumladan, sog'lom avlodni tarbiyalash buyuk davlat poydevori, farovon hayot asosini qurish demakdir. Hech kimga sir emaski, har bir barkamol avlod kelajagi birinchi o'rinda yuksak malakali o'qituvchilarga bog'liq. Har bir o'quvchining ilmiy savodxonligini oshirish hamda bilimga bo'lgan ko'nikmalarini shakllantirish ham avvalo ustoz va murabbiylar qo'lida ekanligi barchamizga ma'lum. Jumladan, asosan o'qituvchilar egallagan bilimlarini ma'rifiy-pedagogik faoliyatlari orqali amaliyotga tatbiq etadilar. Bu jarayonda o'qituvchi oldida turgan muhim vazifalardan biri, o'quvchining iqtidorini aniqlagan holda o'quv jarayonini tashkil etish va o'ziga xos pedagogik-psixologik texnologiyalarni qo'llashdan iborat. Misol tariqasida, ular iqtidorli o'quvchilar bilan suhbatlar tayyorlashadi, sinfdan va darslardan tashqari tadbirlar uchun senariylar ishlab chiqishadi, o'quvchilarning ma'naviy dunyoqarashini boyitishadi. Ta'limning samaradorligini oshirishda yuqori sifatli vositalaridan biri pedagogik texnologiyalar hamda psixologik omillar qo'shilishi natijasida olib borilgan dars ekanligi sir emas. Ta'lim-tarbiya jarayoniga ilg'or pedagogik texnologiyalarning kirib kelishi va bunday texnologiyalarning qo'llanilishi bugungi kunning talabidir.

Bugungi yosh barkamol shaxsning misli ko'rilmagan qirralarini ochish ham, ularning qobilyatlarini ko'rsata olishga bo'lgan intilishlarini shakllantirish pedagogik qoidalardan biri hisoblanadi. Shuningdek, bugungi kunda barcha o'quvchilar ham hamma kabi o'zlarini ochiq namoyon qila olmaydilar, ularga ba'zida o'zlarining ichki tuyg'ulari qarshilik qilsa, ba'zida esa qo'rquv va ikkilanish tuyg'ularidan xalos bo'la olmaydilar. Bu esa ularning yashirin ammo ulkan qobiliyatlarining, hislatlarining o'zlarida qolib ketishiga sabab bo'ladi va tobora o'zlarini keraksiz hamda uquvsiz tasavvur eta boshlaydilar, oxir oqibatda ularni xuddi mana shunday negativ g'oyalar mag'lub etadi. Kundan kun bu g'oyalar ongga o'rnashib olib, shaxs ruhiyatini sindira boshlaydi hamda hayotga bo'lgan muhabbat tuyg'usini so'ndiradi. Tobora shaxs tubsizlik tomon ketaveradi. Shunga o'xshash muammolar bugungi asrimizda juda ko'p kuzatilmoqda, Bunga yechim tarzida bilamizki, ta'lim jarayoniga psixologiya fani kiritilgan. Shu maqsadda dastlab 1800-yilda Xalq ta'lim tizimiga psixologiya fani kiritilgan bo'lsa-da, 1990-yilda O'zbekiston ta'lim yo'nalishiga kirib keldi va mazkur soha vakillari 1996-yildan buyon davlatimizning turli jabhalarida faoliyat yuritmoqda. Ta'lim sohasida psixologik xizmatning asosiy sifatida quyidagi yo'nalishlar belgilab qo'yilgan:

1. Psixodiagnostika- tashxis qo'yish;
2. Psixokorreksiya- nuqsonlarni tuzatish;
3. Psixoprofilaktika – oldini olish;
4. Psixologik ma'rifat va tashviqot psixologik bilim berish;
5. Psixologik maslahat- maslahat berish;
6. Kasb-hunarga yo'naltirish.

Yuqoridagi tamoyillar asosida iqtidorli o'quvchi shaxsini shakllantirish va takomillashtirish, birinchi navbatda ularning ichki olami bilan tanishish, uning shaxs sifatida psixologiyasini o'rganish, qiziqish va tug'ma iqtidorlarini hisobga olgan holda uni ma'lum sohaga yo'naltirish asosiy omil hisoblanadi. Iqtidorli o'quvchilarga bilim berishda, avvalo, uning ruhiyati va psixikasini bilgan holda yondashish eng to'g'ri usullardan biri hisoblanadi. Bugungi kunda pedagogikada iqtidorli o'quvchi shaxsini shakllantirishning turli usul va tamoyillari ishlab chiqilgan. Bunday tamoyilardan foydalangan holda darsni

olib borish juda yaxshi samara berishi, albatta hech kimga sir emas. Dars o'tish samaradorligini oshirish o'quvchilarda fanga va dars jarayoniga bo'lgan qiziqishlarini, ularni bugungi kun ilm-fanning eng so'nggi yutuqlari bilan o'zlari istaganicha foydalana olish imkoniyatiga ega bo'lishlarini, ilg'or xorijiy mamlakatlar fan-texnika yutuqlaridan foydalangan holda barcha sohalarning chinakam mutaxassisi bo'lishlari uchun ta'lim muassasalarida dars jarayonini tashkil etishda ilg'or pedagogik texnologiyalar, interfaol usullardan foydalanish o'ziga xos xususiyatga ega. Shu bilan birga bugungi fanda amalga oshirilayotgan o'zgarishlar hamda yuksalishlar har bir fan o'qituvchisini birinchi o'rinda psixolik bo'lishini talab qiladi, psixologik tamoyillar orqali yondashilganda shubhasiz, har bir passiv o'quvchilarda ham ma'lum bir natijani ko'rishimiz mumkin, negaki inson ruhiyati birinchi navbatda o'zlikni hamda dunyoviy bilimlarni o'rganishga undaydi. Shu o'rinda aytish mumkinki, o'rganishning, bilishning asosini amaliyot tashkil etadi. Amaliyotda qo'llanilmagan bilim hosilsiz daraxt kabidir. Shuning uchun nazariya bilan amaliyot bog'lanmas ekan, hech qanday bilim haqida gap bo'lishi mumkin emas. Maktab sharoitida aksariyat iqtidorli o'quvchilarining ta'lim olishiga bo'lgan imkoniyatlari va ehtiyojlariga muvofiq sharoit yaratilishi kerak. Chunki o'ziga xos va muhim tashqi muhit bo'lmasa, ularning imkoniyatlari ro'yobga chiqmay qolib ketishi ham ehtimoli bor. Bu sharoit ta'limning rolini oshirishda ham tashkil etilishi mumkin. Biroq amaliyotining ko'rsatishicha, ko'pchilik o'qituvchilarning e'tibori asosan rivojlanishdan orqada qolgan o'quvchilar muammosi bilan band. Iqtidorli o'quvchilarni rivojlantirish uchun esa ularga qulay sharoit, ularning ta'limiy ehtiyojlariga mos keladigan va maxsus yo'nalishlariga hamda ularning individual xususiyatlari inobatga olingan dasturlar bo'lishi kerak. Fikrimizning yorqin isboti sifatida Qonunchilik palatasi tomonidan 2016-yil 12-avgustda qabul qilingan Senat tomonidan 2016-yil 24-avgustda ma'qullangan "Yoshlarga oid davlat siyosati to'g'risida"gi davlatimiz qonunidir va ushbu qonunda yoshlarga juda katta e'tibor qaratilgan, ularning ta'lim olishlari hamda sog'lom turmush tarzida ulg'ayishlari uchun zaruriy shart-sharoitlar yaratib berilishi ko'rsatilgan.

Bugungi kunda iqtidorli o'quvchilarni tarbiyalash va rivojlantirishda ularning iqtidorlarini yanada o'stirish maqsadida oliy ta'lim muassasalarida asosan yosh kadrlar alohida shug'ullanishmoqda, ularning sa'yi-harakatlari natijasida bugungi kunda iqtidorli o'quvchilarni ommaga ochib berish ularning iqtidorlarini namoyon etish ma'lum darajada takomillashmoqda. Iqtidorli o'quvchilarga ta'lim berishda yangi pedagogik texnologiyalarga tayanmaslikning imkoni yo'q. Bir so'z bilan aytganda Texnologiya lotincha so'zdan olingan bo'lib "technology" "yaratish, yangilik" degan ma'nolarni anglatadi, fanda ta'lim jarayoning samaradorligini oshirish maqsadida ishlab chiqilgan ma'lum ilg'or texnologiyalar mavjud. Ushbu texnologiyalar o'quvchilarda bilimga bo'lgan qiziqishlari va ko'nikmalarini shakllantirish bilan birga ularning talablariga mos darajada yoritilishi, o'rganuvchi shaxslarning aqliy saviyasini oshirishi hamda davlat ta'lim standartlariga mos ravishda tuzilishini ham talab etadi. Shu sababli ta'limga yangilik sifatida muammoli ta'lim tizimi isloh qilindi va ushbu tizim ta'lim sohasiga kiritildi. Yangi pedagogik texnologiya va yangi axborot texnologiyalari bilan boyitilgan holda muammoli ta'lim jarayonini tashkil etish bilan ham ta'lim samaradorligi oshiriladi, bunda quyidagi muammoli vaziyat yaratish usullaridan foydalanildi:

- Umumiylik va xususiylikni aniqlash maqsadida berilgan topshiriqlarni tashkil etish va qiyoslash
- Topshiriqlarni hal etishda o'quvchilar oldiga yangicha yondashuvni talab etadigan amaliy topshiriqlarni qo'yish
- Topshiriqlarni mustaqil bajarishda yuzaga keladigan hayotiy vaziyatlardan muammoni belgilash
- Ortiqcha ma'lumotlar berilgan yoki ma'lumotlar yetarli bo'lmagan mashqlar orqali muammolar yaratish
- Topshiriqlarda muammoli savollar qo'yish

Ta'limiy o'yinlar "Noto'g'ri jumla", "Sirli so'z" "Davom ettir", "O'yin topishmoq" va shunga o'xshash o'yinlardan foydalanish.

Bizga ma'lumki, dars jarayonida iqtidorli o'quvchilarga berilgan nazariy bilimlar hozirgi kunda ularning xotirasidan juda tez fursatda ko'tariladi. Nazariy bilimlar olish vaqtida o'quvchida mana shu ta'limga bo'lgan ko'nikmalarni yetishmasligini kuzatish mumkin.

Yuqorida keltirilgan turli savodxonlik o'yinlari va ilg'or pedagogik qo'llanmalar ularda fanga bo'lgan qiziqishni hamda ushbu fanga bo'lgan ko'nikmalarni shakllantirishi bois bunday yuksak texnologiyalardan foydalanish ta'lim sifati bir necha barobarga sezilarli darajada oshib bormoqda. Xuddi shu sababli ham ta'limga oid qonunlarda o'quvchilarning qobilyatlariga hamda imkoniyatlariga muvofiq ravishda ta'limga tabaqalashtirilgan yondashuvni joriy etish va shu asosda ta'lim berishning ilg'or pedagogik texnologiyalarini , zamonaviy o'quv uslubiy majmualarini yaratish va o'quv tarbiya jarayonini didaktik jihatdan ta'minlash kerakligi ko'rsatib o'tilgan. Ta'kidlash joizki, ta'limdagi muvaffaqiyatli vaziyatlardan biri bu insonni o'qishga undovchi vaziyatdir. Bunga fanlarga qiziqish, qiziquvchanlik, madaniy darajani oshirish, ichki intiluvchanlikni yaratish, turli qo'rquv va hadiklardan holi bo'lish misol bo'lib xizmat qilishi

mumkin. Ushbu vazifalarni bajarishda pedagogik va psixologik omillarning xizmatini yanada kuchaytirish lozim. Shu bilan birga, talab bor joyda, albatta sifat ham bo'ladi, sifat va miqdor uyg'unligida rivojlanishga erishish mumkin. Zeroki, butun O'zbekiston zimmasida hozirda shunday vazifa turadi ya'nikim: farzandlarimizni mustaqil fikrli, zamonaviy bilim va kasb-hunarlarni egallagan, mustahkam hayotiy pozitsiyaga ega, chinakam vatanparvar insonlar sifatida tarbiyalashdir.

Xulosa qilib aytganda, barcha pedagogik va psixologik texnologiyalar jarayonning nazariy jihatdan ishlab chiqilishiga asos bo'lib xizmat qiladi. Shunday qilib biz yuqorida iqtidorli o'quvchilarga ta'lim berishda pedagogik texnologiyalar hamda psixologik omillarning o'rnini tahlil qildik. Darhaqiqat ta'lim jarayonida iqtidorli o'quvchilarga ta'lim berishda pedagogik va psixologik omillarni takomillashtirishda poedagogik texnologiyalarning o'rni ahamiyatli ekanligini anglatadi.

Foydalanilgan adabiyotlar

1. I.A.Karimov "Barkamol avlod-O'zbekiston taraqqiyoti poydevori" T, O'zbekiston, 1997-y
2. I.A.Karimov "Barkamol avlod orzusi" T, "Sharq" 1999-y
3. I.A.Karimov "Yuksak ma'naviyat yenglmas kuch" T,"Ma'naviyat" 2008-y
4 .I.A.Karimov "Ona yurtimiz baxt-u iqboli va buyuk kelajagi yo'lida xizmat qilish eng oily saodatdir" T, "O'zbekiston" 2015-y
5.Sh.Mirziyoyev "Buyuk kelajagimizni mard va oliyjanob xalqimiz bilan birga quramiz" T, "O'zbekiston" 2017-y
6.O'zbek tilining izohli lug'ati- T,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A.Madvaliyev tahririyati 2006-y
7.Ibragimov X.I., Yo'ldoshev U.A., Bobomirzayev X. "Pedagogik psixologiya" "O'zbekiston faylasuflari milliy nashriyoti" T, 2009-y
8. "Xalq so'zi" gazetasi T, 2016-y 15-sentabr
9. R.B.Yarmatov, O.X.Rajabov "Iqtidorli o'quvchilarning jadallashtirilgan ta'limni tashkil etish metodlari" T, "Fan va texnologiya" 2017-y.

O`YIN TEXNOLOGIYALARIDAN FOYDALANISHDA INGLIZ TILINI O`QITISHNING PEDAGOGIK ASOSLARI

Yarmatov R.B.
Ahmedova M.
ЖизДПИ

Ushbu maqolada o`yin texnologiyalaridan foydalanishda ingliz tilini o`qitishning pedagogik asoslari ta'lim sohasida o`qitishga tayyorlashning yo`llari va vositalarini aniqlash vazifalari ilmiy muammo sifatida ko`rib chiqilgan.

Tayanch iboralar: O`yin texnologiyalari, pedagogik asoslari, interfaol o`yinlar, uzluksiz ta'lim, tezkor javob, zanjir o`yini.

In this article, the pedagogical basics of teaching English in the use of gaming technologies are discussed as a scientific challenge to the ways and means of training and preparation for teaching in the field of education.

Key words: game technologies, pedagogical basics, interactive games, continuous education, quick answers, a chain story.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педагогические основы преподавания английского языка при использовании технологи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науки для выявления путей и средств обучения для образования в сфере образования.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иг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педагогические основы, интерактивные игры, непрерыв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быстрое реагирование, игра цепи.

Mamlakatimiz mustaqillik yillarida ta'lim tizimiga alohida e'tibor bera boshladi. Jumladan, ingliz tilini o`qitishda o`yin texnologiyasidan foydalanishning pedagogik asoslari bo`yicha ham alohida e`tibor qaratildi. Shu bilan birga, ingliz tilini o`quvchilarga o`rgatish jarayonida o`yin texnologiyasidan foydalanish o`zining ijobiy samarasini beradi. Misol uchun, ingliz tili fanini o`qitishda turli xil o`yinlar orqali o`rgatishning o`rni beqiyosdir. Bolalar uchun dars davomida har xil o`yinlar o`ynatib turish sinfda ingliz tili fanini o`rganishga bo`lgan ishtiyoqni yanada oshiradi, passiv o`quvchilarni ham darslarda yaxshiroq qatnashishga undaydi, sinfda o`quvchilar o`rtasida raqobat, ayni paytda jamoadoshlik muhitini hosil qiladi. Shuningdek, o`quvchilarning ustozlariga bo`lgan mehri, hurmatini oshiradi. Ingliz tili darslari orqali o`qitish

samaradorligini yanada oshirishga xizmat qiluvchi o`yinlardan keng foydalanish maqsadga muvofiq bo`lgan. Masalan, quyidagi Last man standing (oxirgi qolgan odam), Letter scramble (tartibsiz harflar), Pictionary, Taboo words (ta'qiqlangan so`z) kabi qator innovatsion usullarni keltirish mumkin.

O`zbekiston Respublikasining birinchi prezidenti I.A. Karimovning 2012-yil 10-dekabrda qabul qilingan 1875-sonli "Chet tillarni o`rganish tizimini yanada takomillashtirishning chora-tadbirlari to`g`risida" gi qarorining ijrosini ta'minlash maqsadida ingliz tilini jahon tillardan biri sifatida o`qitish samaradorligini oshirishga xizmat qiladigan yangi innovatsion texnologiyalaridan keng tarzda respublikamizning maktabgacha ta'lim va umumiy o`rta ta'lim muassasalarida tatbiq qilinmoqda. Chet tillarni bolalikdanoq egallab boorish eng samarali natija berishi barchamizga ma'lum, shuning uchun ayni paytda 1 va 4-sinflarning o`quv rejasiga haftasiga 2 soatdan chet tili mashg`ulotlari kiritilishi ayni muddaodir. O`zbekiston Respublikasi Xalq ta'limi vazirligi tomonidan mazkur qaror ijrosini ta'minlash, birinchi sinf o`quvchilariga chet tilini o`rgatish borasida muayyan ishlar amalga oshirilmoqda. Jumladan, uzluksiz ta'lim tizimining chet tillar bo`yicha davlat ta'lim standarti ishlab chiqildi. Unga ko`ra, davlat ta'lim standartlari asosida chet tillarni birinchi sinfdan boshlab bosqichma-bosqich o`qitish bo`yicha yangi o`quv rejasi tasdiqlandi. Standartlar asosida umumiy o`rta ta'limning 1-9-sinflari uchun ingliz, fransuz va nemis tillaridan maxsus o`quv dasturlari yaratildi. Zamonaviy pedagogik va axborot-kommunikatsiya texnologiyalaridan foydalangan holda o`qitishning ilg`or uslublarini joriy etish, o`sib kelayotgan yosh avlodni chet tillarga o`qitish, shu tillarda erkin so`zlasha oladigan mutaxassislar tayyorlash tizimi tubdan takomillashtirildi.

Birinchi prezidentimiz I.A.Karimov ta'kidlaganidek: "Biz farzandlarimizga chet tillarni o`rgatishni takomillashtirish bo`yicha keng qamrovi va mazmun-mohiyati bo`yicha katta ishlarni boshladik. Jumladan, 2012-yilda shu borada maxsus qaror qabul qilindi. Shu qisqa davrda bu ishlarimiz o`zining ijobiy natijalarini bermoqda. Boshlagan ishlarimizni izchil davom ettirsak, nasib etsa, bu borada ham "portlash effekti"ga erishamiz. Eng muhimi, zamonaviy bilim va tafakkurga, sog`lom dunyoqarashga ega, rivojlangan davlatlardagi tengdoshlari bilan bellashishga tayyor bo`lgan, ko`zi yonib turadigan navqiron avlodimiz katta ishonch bilan hayotga dadil kirib kelayotgani barchamizni quvontiradi. Shuningdek, farzandlarimiz ilm-fan sirlarini o`rganish bo`ladimi, zamonaviy bilim va kasb-hunarlarni egallash bo`ladimi, axborot-kommunikatsiya texnologiyalari, internetdan foydalanish bo`ladimi, barcha-barcha sohalarda yuksak cho`qqilarni egallamoqda. Bugun besh yoshli bola internetning u yogidan kirib, bu yogidan chiqadiki, bir so`z bilan aytganda, bugungi avlod juda tez o`syapti. Buni tan olishimiz va ayni shunday natijalarga erishganimizdan faqat xursand bo`lishimiz kerak. Bugun talabalarimiz ko`pgina sohalarda professor va o`qituvchilarimizdan ancha ilg`or ekanini hech kim inkor eta olmaydi. Hozir domlalarimizda o`z ustida tinimsiz ishlashi uchun yana bitta turtki-men bolalardan, talabalardan orqada qolayotgan bo`lsam, ularga dars berishga haqqim yo`q, o`z ustimda yanada ko`proq ishlashim kerak, degan fikr paydo bo`lyapti" degan edilar.

Mustaqillik yillarida chet tillarini o'rganishga qiziqish oshdi va yoshlar uchun ko'plab imkoniyatlar yaratib berildi. Birinchi Prezidentimiz Islom Karimov aytganlaridek: "Hozirgi paytda xorijiy tillarni o`rgatish va o`rganishga yurtimizda katta ahamiyat berilmoqda. Bu ham albatta, bejiz emas. Bugun jahon hamjamiyatida o`ziga munosib o`rin egallashga intilayotgan mamlakatlarimiz uchun chet ellik sheriklarimiz bilan hamjihatlikda, hamkorlikda o`z buyuk kelajagini qurayotgan xalqimiz uchun xorijiy tillarni mukammal bilishning ahamiyatini baholashning hojati yo`qdir".

Shuningdek, Prezidentimiz rahbarligida 2017-2021-yillarda O`zbekiston Respublikasini rivojlantirishning beshta ustuvor yo`nalishi bo`yicha harakatlar strategiyasi ishlab chiqilib, milliy taraqqiyotning yangi bosqichida amalga oshiriladigan o`zgarishlarning ilmiy-nazariy asoslari va ustuvor yo`nalishlari aniq belgilab berildi. Prezidentimiz SH. Mirziyoyev ta'biri bilan aytganda, O`zbekistonda mustaqil va kuchli davlat qurish, avvalo, ta'lim va ma'rifat tizimini takomillashtirish, mamlakatimiz kelajagi bo`lgan yoshlarni zamonaviy bilim olishga yo`naltirish, barkamol shaxsni tarbiyalash bilan bog`liq ekanini biz yaxshi anglaymiz. 1997-yilda qabul qilingan "Kadrlar tayyorlash milliy dasturi" va boshqa davlat dasturlarining hayotga tatbiq etilishi natijasida mazkur soha tubdan isloh qilindi, zamonaviy uzluksiz ta'lim-tarbiya tizimi yaratildi. Bugungi kunda mamlakatimizda ko`plab xorijiy yetakchi oliy o`quv yurtining filiallari faoliyat ko`rsatmoqda. Iste'dodli yoshlarimizning minglab vakillari dunyoning nufuzli universitetlarida tahsil olmoqda. Umuman, mamlakatimizda davlat byudjetining yalpi ichki mahsulotga nisbatan 7 foizi ta'lim-tarbiya sohasiga yo`naltirilmoqda.

Har qanday chet tilini o`rganishdan maqsad o`sha tilda bemalol muloqat qila olishdir. Chet tillarni o`rgatish va o`rganish uzoq va mukammal jarayon. U kishidan muntazam mehnatni va o`z ustida ishlashni talab qiladi. O`gzaki nutq malakalarni o`stirish uchun chet tillarni o`qitish jarayonida har xil interfoal o`yinlardan qo`llash chet tilini o`rganishni zerikarli emas, aksincha qiziqarli va sevimli mashg`ulotga

aylantirish. Interfoal o`yinlar tilni o`rganuvchilar o`zlarini ancha erkin tutishlarini hatto uyatchan o`quvchilarni ham ushbu o`yinlarda qatnashishga undaydi interfaol o`yinlarni ayniqsa grammatika va so`z boyligini ortirish uchun qo`llash samaralidir. Ammo bu o`yinlarni qo`llashdan oldin o`qituvchi o`quvchilarga o`yindan ko`zlangan maqsadni o`yin qoidalarni aniq tushuntirishi va o`tilayotgan mavzu bilan chambarchas bog`lashi kerak. Ushbu usulubiy tavsiyalar to`plamiga kirgan interfaol o`yinlar maktabgacha ta`lim yoki maktab o`quvchilariga o`yinlar orqali dars o`tish og`zaki nutq orqali foydali manba bo`lib xizmat qiladi,o`yinlarni qo`llash bo`yicha batafsil ko`rsatmalar berilgan. Interfaol o`yinlar asosan CEFR asosida o`qitish ya'ni o`qitishning Yevropa standartlarning darajalari A1-A2 talabiga mo`ljallangan. Maktabgacha ta`lim muassalari uchun ingliz tilini o`yinlar orqali o`rgatish maqsadga muvofiq bo`ladi. Chunki maktabgacha ta'lim muassasida tarbiyalanuvchilari o`yinqaroq bo`lishadi. Va yana bir usul bu rasmlar orqali ham ularni tasavur etish orqali ham o`rgatish mumkin. Misol uchun, **Zanjir o`yini.** Maqsadi: Xotirani tekshirish va oshirish. O`yinda guruh bo`lib o`ynaladi va boshlanishida bitta mavzu doirasdan cheklangan bo`lishi kerak. Misol uchun "Animals" bunda birinchi o`quvchi bir so`zni aytadi va misol uchun'cow'deydi,boshqa o`quvchi birinchi o`quvchining so`zini takrorlab "cow"va o`zining yangi so`zini ya`ni 'pig' so`zini aytish bilan davom etadi. O`yinda kimning yodidan ko`tarilib to`xtab qolsa shu ishtirokchi o`yinni tark etadi.guruhda 10 yoki undan ortiq kishilar bo`lsa so`zlar miqdori ko`payadi va qiziqarli bo`ladi. O`yin orqali xotirani tekshirish, qay darajada ekanligini bilib olib uni o`stirish mumkin.

Bugungi kunda yurtimizda chet tillarni, xususan, ingliz tilini o`rganishga katta e'tibor berilar ekan, ingliz tiliga oid terminlardan boshqa fanlardan tayanch so`zlaridan foydalanish umumiy o`rta ta'lim maktablarida 5-11 sinf o`quvchilarida abstrakt tafakkur, mantiqiy fikrlash, qiyoslab tahlil qilish, xotirani mustahkamlash imkonini yanada takomillashishida sub'yektiv faollikni talab etuvchi usullar orqali ta'limni tashkil etilishi yuqori samarali ahamiyatga ega. Masalan, ingliz tili darsida "Aqliy hujum" usuli mantiqiy fikrlashni, xotira, diqqat, idrok, xayol, nutq jarayonlari uzviyligini, tafakkur tezligi va nutqiy mahoratni mukammal darajasini namoyon etishni talab qiladi. Bundan tashqari hal etilayotgan muammo yechimiga qadar turli yondashishlar, ta'riflar keng qamrovli fikr yuritishga, o`z aqliy salohiyatini qay darajada ekanligini baholay olishga sharoit yaratadi.

Ma'lumki, ta'lim jarayoniga innovatsion texnologiyalar va interfaol metodlarni tadbiq etishga qiziqish, tobora keng tus olmoqda. Boisi, bunday metodlarni qo'llash ta'lim samaradorligi va ta'sirchanligini oshiradi, o'quvchilarning o'qish motivlarini o'stiradi. Innovatsiya so'zining ma'nosiga e'tibor bersak, u (inglizcha-innovation) yangilik yaratish degan ma`noni anglatadi.Ya'ni ananaviy ta'limdagi kabi bir xil shablonlar asosida emas, balki yangiliklar asosida ta'lim jarayonining ta'sirchanligini oshirishga qaratilgan ish shaklidan foydalanish demakdir. Biz bilamizki, hozirgi ta'lim jarayonida o'quvchi sub'ekt bo'lishi lozim. Bunda ko'proq interfaol metodlarga e'tiborni qaratish ta'lim samaradorligini oshiradi. Ingliz tili darslariga qo'yilgan eng muhim talablardan biri talabalarni mustaqil fikrlashga o'rgatishdir. Bugungi kunda ingliz tili o`qituvchilari Amerika Qo'shma Statlari, Angliya pedagoglari tajribasiga tayangan holda quyidagi innovatsion metodlardan foydalanib kelishmoqda:

- "Muammoli vaziyat yechimi"(Creative Problem Solving) bu usulni qo'llash uchun hikoyaning boshlanishi o'qib beriladi qanday yakun topishi o'quvchilar, talabalar hukmiga havola qilinadi;

-"Quvnoq topishmoqlar" (Merry Riddles) o'quvchilarga topishmoqlar o'rgatish Ingliz tilini o'rgatishda muhim ahamiyatga ega, ular o'zlariga notanish bo'lgan so'zlarni o'rganadilar va o'ylab topishmoq javobini topadilar;

-"Tezkor javob" (Quick answers) o`tilgan dars samaradorligini oshirishda yordam beradi;

-"Chigil yozdi" ("Warm-up exercises") o'quvchilarni darsga qiziqtirish uchun sinfda har xil o'yinlardan foydalanish;

- "Pantomima" (pantomime) bu usul juda qiyin mavzular tushuntirilishi kerak bo`lgan darsda yoki yozma mashqlar bajarilib, talabalar charchagan paytda foydalanilsa bo`ladi;

- "Hikoya zanjiri" (a chain story) usuli o`quvchilarning og`zaki nutqini o`stirishda yordam beradi;

- "Rolli o`yinlar" (Acting characters) bu usul darsning barcha tiplarida qo`llanilishi mumkin. Hunarga o`rgatish uchun "Interpretter", "Translator", "Writer", "Poet" kabi kasbdagi kishilar darsda ishtirok etishib o`quvchilar bilan suhbatlashishlari mumkin;

- "Allomalar yig`ini" (Thinkers meeting) U.Shekspir, A.Navoiy, R.Burns kabi shoirlar va yozuvchilarni "taklif qilish" mumkin. Bunday paytda ular aytib ketgan hikmatli so'zlardan darsda foydalanish yoshlarni komil inson bo`lib tarbiyalanishiga yordam beradi;

-"Rasmlar so'zlaganda" (When pictures speak)usuli ancha qulay bo'lib, ingliz tilini o'rgatishda, talaba, o'quvchilarning og'zaki nutqini rivojlantirishda yordam beradi, buning uchun mavzuga oid rasmlardan foydalanish lozim;

-Kviz kartochkalari (quiz cards) o`quvchilarning soniga qarab kartochkalar tarqatiladi va hamma talabalar bir vaqtda darsda ishtirok etish imkonini beradi bu esa vaqtni tejaydi. Ko`rib chiqqnimizdek, har bir innovatsion texnologiya o`ziga xos afzallik jihatlariga egadir. Bunday usullarning barchasida o'qituvchi va o'quvchi o'rtasidagi hamkorlik, o'quvchining ta'lim jarayonidagi faol harakati ko'zda tutiladi.

Ingliz tili darslarida innovatsion usullarni qo`llash natijasida o'quvchilarning mantiqiy fikrlash qobiliyatlari rivojlanadi, nutqi ravonlashadi, tez va to'g'ri javob berish malakasi shakllanadi.Bunday usullar o'quvchida bilimga ishtiyoq uyg'otadi. O'quvchi darslarga puxta hozirlik ko'rishga intiladi. Bu esa o'quvchilarni ta'lim jarayonining faol sub'yektlariga aylantiradi. Shuningdek, *Charades* o`yini *Pictionary* o`yiniga o`xshash lekin asosiy farqi bunda so`z ifodalash uchun rasm emas, harakatlardan foydalaniladi. Bu o`yin o`quvchilaringiz sust, zerikkan va uyqusi kelganda juda qo`l keladi. Ularni uyg`oting va harakatlantiring! O`quvchilar tanlashi uchun bir necha to`rt burchak qilib qirqilgan qog`ozlarga so`zlar yozing. Fe'llarni ifodalash ancha oson. Lekin siz biroz murakkabroq, shunday bo`lsada hamma o`quvchilar biladigan so`zlardan foydalanishingiz mumkin. Sinfni ikki guruhga ajrating va har bir jamoadan bir o`quvchi so`z yozilgan qog`ozni tanlaydi va harakat bilan ifodalab beradi. Jamoadagilar esa uch daqiqa ichida shu so`zni topishi kerak bo`ladi. Har bir to`g`ri javob uchun bir balldan beridi va 10 ball to`plagan jamoa g`olib bo`ladi.

Mustaqil davlatimizning rivojlangan mamlakatlar bilan keng ko`lamdagi hamkorligi chet tillarni o`rgatish/o`rganishga bo`lgan talabning ortib borishiga turtki bo`lmoqda. Chet tillarning komil inson ta'lim-tarbiyasi va uni rivojlantirish hamda kelgusida raqobatdosh kadrlar bo`lib yetishishidagi ahamiyati beqiyosdir. Bundan tashqari, chet tillarni o`rganish orqali ilg`or xorijiy tajribalar egallanadi va respublikamizning ijtimoiy-iqtisodiy taraqqiyotiga ulkan hissa qo`shiladi.

Hozirgi vaqtda mamlakatimizda barcha o`quvchilarga qulay shart-sharoitlar, imkoniyatlar yaratilgan. Aqliy jihatdan rivojlangan, yuksak qobiliyatli, izlanuvchan va iste'dodli o`quvchilar jamiyatning ilmiy-texnik taraqqiyotini harakatga keltiruvchi ulkan kuch-quvvatdir. Ular qadriyat, ma'naviyat, ruhiyat va fanda, madaniyat, san'at va hunarmandchilikda xalqning milliy imkoniyatlarini jahon standarti darajasiga olib chiqa oladigan qudratga egadir. Mazkur nuqtai nazardan muammoga yondashish yoshlarga chet tillar va madaniyatini puxta o`rgatish orqali ularning har qaysisiga xos bo`lgan individual xususiyatlar, ichki kuch-quvvat, yashirin imkoniyatlarini ochish, qobiliyatlarini takomillashtirish, ta'sir o`tkazuvchi omilkor vositalar toppish, ya'ni ularni jamiyat ehtiyoji, talabi, rivoji va imkoniyatiga mos ravishda yo`naltirish, ularga xorij tajribalarini egallash bo`yicha oqilona ko`rsatmalar berish, muayyan yo`nalishga solish maqsadga muvfiqdir. Bugungi kunda, o`qituvchilar oldidagi asosiy vazifalardan biri o`quvchilarning kommunikativ, muloqotga kirisha olish qobiliyatini o`stirishdan iborat. Buning uchun samarali muloqot qilishga o`rgatuvchi o`quv qo`llanmalar va chet tilda nutq kompetensiyalarini rivojlantirishga yo`naltirilgan ta'limning yangi interaktiv metodlarini o`zlashtirish zarur bo`ladi. Chet tilda muloqot qilishga xizmat qiluvchi nutq mavzulari o`qitish maqsadlariga asoslanib tanlanadi.

Ma'lumki, muloqot tilning amaliyoti hisoblanadi, shunday ekan buning uchun darslar davomida keng imkoniyatlar yaratilib berilmoqda va muloqot davridagina yangi so`zlarni o`rganish ehtiyoji tug`ilib borishini va ularni o`rganishga bo`lgan ishtiyoqning oshib borishini kuzatishimiz mumkin. Bunga erishish uchun o`quvchini dastlab motivatsiyani, ya'ni qiziqishini yanada oshirish kerak. Hozirgi kunda olimlar tadqiqotlar natijasida o`rganishning usullari to`rt turdan iboratligi aniqlandi:

1. "Kinesthetic" (aktiv, o`yinlar orqali faol qatnashib o`rganish turi).
2. "Tactile" (yozish orqali yoki yozuvdan foydalanib o`rganish turi).
3. "Visual" (ko`rish, kuzatish orqali o`rganish turi).
4. "Auditory" (eshitish, quloq solish orqali o`rganish turi).

Yuqorida berilgan o`rganishning to`rt turi hozirgi zamonaviy dars jarayonida keng qo`llaniladigan interfaol o`yinlarni o`z ichiga oladi va ingliz tilini o`qitishda o`zining samarali natijalarini bermoqda.

1. O`quvchilar orasida eng qiziqishi ko`p bo`lgan turlaridan biri **"kinesthetic"**, ya'ni dars davomida aktiv bo`lib, o`yinlar orqali faol qatnashib yod olish turidir. Misol uchun, ***WHAT AM I THINKING OF? (Men nima haqida o`ylayapman?)*** o`yini. Bu o`yin turida o`quvchilar juftliklarga ajratiladi. Har bir o`quvchi bir varaq qog`ozga biror buyumni tasvirlab 5-10 ta so`z yozishi kerak bo`ladi. Qachonki vaqt tugaganida, o`quvchilar varoqlarini almashishadi va sherigi nimani tasvirlamoqchiligini topishga harakat qiladi. So`zlarni topgan birinchi jamoa g`olib bo`ladi. Yana bir harakatli o`yinlardan biri ***COLOURS (Ranglar).*** Bu o`yinda uchta rang va birga uchta harakat mavjud bo`lib, quyidagi ranglar ko`rsatilganda o`quvchilar ranglar qarshisidagi harakatlarni bajarishlari kerak bo`ladi.

red (qizil) - Stand up (o`rningizdan turing)
yellow (sariq) - Sit down (o`tiring)
green (yashil) - Run (yuguring)

2. “Tactile”, ya’ni o`rganishning yozish orqali yod olish turi bo`lib, bu turdagi o`quvchilar yangi so`zlar yoki she’rlarni yozish orqali o`rganishadi.

3. Samarali natija berayotgan yana bir interfaol usullardan biri bu o`quvchilarga ingliz tilidagi videolar, multfilmlar, qiziqarli suhbatlarni ko`rsatish orqali o`qitishdir. Bu turdagi o`rganish **“visual”**, ya’ni o`rganishning ko`rish yoki kuzatish orqali yodlash turi hisoblanadi.

4. “**Auditory”**, eshitib o`rganish. O`quvchilar ingliz tilidagi quvnoq qo`shiqlarni birga aytish va raqs tushish orqali o`rganishadi.

Dars davomida bu kabi o`yin texnologiyalaridan foydalanish chet tilini o`rganishda eng samarali usuldir. Jumladan, ta’lim mazmunining zamonaviy yondashuvida axborotlarni o`zlashtirish, saqlash va uzatish vositasi sifatida chet til o`rgatishning yangi texnologiyalarini o`rganish talab etiladi. Bo`lajak mutaxassislarni tayyorlashning umumiy masalalari insondan mustaqil o`z-o`zini rivojlantirish, madaniy sohadan kengroq bilimga ega bo`lish, qadriyatlar, sub’yektlararo munosabatlar, bilimlar va qobiliyatlarni o`zaro uzatish kabi ko`p kasbiy vazifalarni hal qilishni taqazo etadi.

Xulosa qilish kerakki, o`yin texnologiyalaridan foydalanishda ingliz tilini o`qitishning pedagogik asoslari chet tili darslarida o`quvchilarni kasb-hunarga yo`naltirish dolzarb masalalardan ekanligi isbotlandi. Zamonaviy pedagogik texnologiyalar hozirgi davr ta’lim jarayonini yangi sifat bosqichiga olib chiqmoqda. Shuningdek, ingliz tilini o`qitishda o`yin texnologiyalaridan foydalanishning pedgogik asoslari bugungi kunda muhim rol o`ynamoqda. Shuning uchun o`yin texnologiyalaridan foydalangan holda ingliz tilini o`qitishning ijobiy samarasini beradi. Bugungi kunda zamonaviy ta’lim tizimida o`yin texnologiyalari o`z o`rniga egaligi bilan alohida ajralib turadi.

ADABIYOTLAR

1. I.A.Karimov “Ona yurtimiz baxtu iqboli va buyuk kelajagi yo`lida xizmat qilish-eng oliy saodatdir”. T.: “O`zbekiston”, 2015 y, 252-bet.
2. Sh.M.Mirziyoyev “Milliy taraqqiyot yo`limizni qat’iyat bilan davom ettirib, yangi bosqichga ko`taramiz”. T.: “O`zbekiston”, 2017 y, 31-32-betlar.
3. “O`zbekiston milliy ensiklopediyasi 12”. Toshkent, Davlat ilmiy nashriyoti, 2006 y, 386-bet.
4. N.Q. Xatamova, M.N.Mirzayeva “Ingliz tili darslarida qo`llaniladigan interfaol usullar” (uslubiy qo`llanma). “Navoiy”, 2006 y, 40-bet.
5. “Uzluksiz ta’lim” ilmiy-uslubiy jurnali. Toshkent, №3 2015 y, 114-bet
6. “Ta’lim texnologiyalari” ilmiy-uslubiy jurnali. №2, 2018 y, 16-37-betlar.
7. “Maktab va hayot” jurnali. Toshkent, №3 2019 y, 29-30-betlar.
8. “Tafakkur” jurnali. T.: “Sharq”, №1 2019 y, 22-bet.
9. “Xalq ta’limi” ilmiy-metodik jurnali. №1 2019 y, 6-bet.
10. Moluch.ru

ХОРАЗМ ВОҲАСИ АҲОЛИСИ ОРАСИДА ДАРАХТЛАРНИНГ МУҚАДДАСЛАШТИРИШ БИЛАН БОҒЛИҚ ҚАРАШЛАР

Абидова З.Қ.

ТТА Урганч филиали

Аннотация: Мақолада Хоразм воҳаси аҳолиси орасида дарахтлар муқаддаслаштириш билан боғлиқ қарашлар, уларни инсонлар ҳаётидаги ўрни ва аҳамияти дала тадқиқотлар асосида ёритилган.

Калит сўзлар: Дарахт, культ, авлиё, тут, гужум, зиёратгоҳ, сиғиниш, қурбонлик.

Resume: The article examines the views of the residents of the Khorezm oasis on the consecration of trees, their role and significance in people's lives.

Keywords: tree, cult, saint, mulberry, pilgrimage, worship, sacrifice.

Қадимдан ҳозирга қадар Хоразм воҳасида қадимий эътиқодлар, хусусан, ота-боболар культларига, ҳайвонот ва ўсимлик дунёсига ўлиб қайта тирилувчи табиат кучларига эътиқод қилиш кенг тарқалган. Хоразм зардуштийлик динининг ватани сифатида ўзида одинги эътиқодлар қолдиқларини сақлаган ҳолда исломни қабул қилган. Энг қадимий даврларга оид табиат кучларига сиғиниш билан боғлиқ ашёлар (ғайритабиий шаклдаги тошлар, ерга қадалган таёқ ёки мато бўлаклари осилган якка дарахтлар) ҳозиргача кўп жойларда учрайди. Асосан, дарахт культи, уларнинг баъзи турлари, турли хил шаклда намоён бўлиб, маросимий ҳаракатлар, сиғиниш ва у ердаги дарахтларга турли мато бўлакларини осиб қўйиш, муқаддас дарахт тагида қурбонлик келтириш каби ўзига хос маросимлар билан якунланади [Горшунова 2008: 71–82].

Дарахтга ва унинг таёғига ўз кийимидан қирқиб боғлаш ва уни сийпалаш маросимнинг бир қисми бўлиб, зиёратчилар бу орқали авлиё билан илоҳий алоқа ўрнатишга ишонганлар. Ғайритабиий шаклдаги ғорлар ва қоялар, шифобахш булоқлар ва кекса дарахтлар ҳам зиёратгоҳларга айланган [Жабборов 1994: 236]. Айнан бундай ҳолатларнинг исботи тарзида Султон Увайс тоғидаги «муқаддас» тош қояларига сиғинишни келтириш мумкин. Тадқиқот манбаи бугунги кунда Хоразм воҳаси мусулмонлар анъанавий ҳаётида яшаб келаётган табиат кучлари, яъни дарахи, ўсимлик билан боғлиқ зиёратгоҳлар ҳисобланиб, Марказий Осиёнинг бошқа ҳудудларига нисбатан жуда кам сақланиб қолган. Сақланиб қолгани ҳам авлиё зиёратгоҳининг ажралмас бир қисмига айланган.

Хоразмликлар орасида дарахтлар жонли ва уларда инсонлар руҳи яшашига ишониш билан боғлиқ қадимги анимистик қарашлар ҳозирга қадар сақланиб қолган. Зиёратгоҳлардаги дарахт ва ўсимликлар муқаддаслаштирилганлиги боис уларни кесиш, юлиш кишиларга зиён олиб келади деб қаралган. Улар жумласига гужум, тут, жийда, юлғун, туронғил сингари дарахт ва буталарни киритиш мумкин. Хоразм воҳасидаги Муқаддас жойлар “Гулбозор Бува”, “Йилғинли Бува”, “Таранғи Бува” (Питнак), “Зайтун бобо”, “Яккагужум авлиё”, “Қоромон бобо” (Кўшкўпир), “Яккатутгужум авлиё” (Боғот) ва “Чинор бобо” (Султон Увайс) сингари дарахтлар номи билан аталиб келинган ва ўз навбатида жой номлари билан боғлиқ бўлган**.**

Дарахтлар инсонларни биринчи меҳнат қуроли ва олов каби инқилобий куч ҳам улар билан боғлиқ ва дарахтлар инсонларнинг илк озиқ-овқати ҳисобланган мевалар билан таъминлаган [Снесарев 1969: 195–196].

Қадимдан дунё халқларида “одамлар руҳи дарахтларда яшайди, агар марҳумга бағишлаб дарахт экилмаса, унинг руҳи азобда қолади”, деган тушунчалар мавжуд эди. Қабристонларда қадимдан қабр бошига дарахт экиш ҳам шу нуқтаи назар замирида юзага келган. Шу боисдан одамлар дарахтларни бекордан-бекорга кесишдан қўрққанлар[Фрезер 1983:136]. Дарахт культига топиниш элементлари табиат кучларига сиғиниш барча диний маросимларда учрайди, аммо исломнинг тарқалиши билан бу культ ўз аҳамиятини йўқотди ва мусулмон дунёсига машҳур авлиёларнинг қадамжолари бир элементига айланди. Хоразм воҳаси аҳолиси орасидаги тасаввурларга кўра, илоҳий кучга эга бўлган дарахтлар тут, гужум, жийда ва туронғил дарахти саналади.

Тут дарахти. Хоразмда тут дарахти ўсган ҳовли файзли, баракали ва омадли саналган бўлиб, маҳаллий аҳоли қарашларига кўра у ҳосилдорлик тимсоли ҳисобланган [Снесарев 1969: 197–198.]. Дарахт культига топиниш ва уларда яшайдиган “жонларни овлаш” билан боғлиқ ҳаракатлар фарзандсиз аёлларни мозорлардаги муқаддас дарахтлардан чилла тут (*Хонқа, Гулли Биби*)ни бутун гавдаси билан қучоқлаб олиш (чилласини тушириб ҳомиладор бўлиш) танасига дарахт ширасини суртиш ва уни ўзи билан олиб кетиш каби амалларни бажарган бўлиб, бундай даволаш усулларининг ислом дини билан алоқаси йўқ [Снесарев 1969: 197–198]. Айнан бу даволаш усуллари асосида табиат культи, хусусан, дарахтларга топиниш билан боғлиқ эътиқодий қарашлар мужассамлашган. Ҳонқа тумани марказида 500 йиллик “Чилла тут” дарахти бўлиб, ахборотчиларнинг таъкидлашича , ушбу тут дарахти илоҳий кучга эга бўлиб, агар болаларининг юзига чилла (*диатез*) чиқса, оналар келиб юзига тутнинг тупроғидан суртиб, тузалиб кетишига ишонишади. Шунингдек, фарзандсиз аёллар ҳам тутнинг тагига келиб етти марта ҳар жума бўғирсоқ пишириб, ният қилашар ва дуо ўқиб Оллоҳдан фарзанд сўраб илтижо қилишади, шу орқали фарзандли бўлишига ишонишади [Дала ёзувлари: Ҳонқа 2017].

Кўҳна Урганчдаги Исмомут ота зиёратгоҳи ҳовлисидаги тут дарахтининг илоҳийлиги тўғрисида маҳаллий халқ орасида кўплаб ривоятлар тарқалган [Дала ёзувлари: Тошҳовуз шаҳри 2017]. Хоразмликларда тут ва шотут кесиш таъқиқланган. Дарахтларни кесишдан аввал қурбонлик қилиб, Қуръон оятларидан тиловат қилингандан сўнг махсус белгиланган одамлар томонидан дарахтлар кесилган. Агар бошқа одам дархатларни кесса ёки қурбонлик қилинмасдан дарахтни кесишса, кесган одам бирор дардга чалинар экан [Дала ёзувлари: Урганч 2017]. Лекин аҳоли орасида бундай қарашлар мустахкам сақланиб қолмаган.

Гужум дарахти. Хоразмлик кексалар ёшларни алқаганда “Гужумдек униб-ўсинглар”, дея дуо қилишади. Бу бежиз эмас, албатта. Чунки воҳада азал-азалдан ўсадиган гужум дарахти ўта чидамли бўлиб, юз йилдан ортиқ умр кўради. Уни чопиш мумкин эмас, шохларини фақат қариялар кесиши мумкин. Бу дарахтни эккан одам ҳаёт экан дарахт ўсмайди, у дунёдан ўтгач, барқ уриб ривожланиб кетади деган қарашлар мавжуд. Бу қарашларнинг барчаси ҳам ҳақиқатга яқин бўлмасада, лекин аждодларимиз билан одамлар руҳи жойлашадиган дарахтлар билан инсон ўртасидаги илоҳий боғлиқликни кўрсатишга интилганлар [Снесарев 1969: 203]. Хоразм воҳасининг иқлим шароитини ҳисобга олганда гужум дарахти қум кўчкиларини олдини олиш, шамол йўлини тўсиш, тупроқни эрозиядан асрашдан ташқари, иқлимни мўътадил сақлашда қўл келади. Айниқса, ёзнинг

жазирамасида қуюқ соя бериб, офтобнинг тангадек нурини ҳам ўтказмайди. Шунинг учун бўлса керак, воҳада гужум ўстирилмаган ҳовли ва зиёратгоҳни топиш қийин[Шайх Муҳтор Валий (Янгиариқ туман), Саид Ота (Ҳонқа туман) ва Юсуф Ҳамадоний (Шовот туман) зиёратгоҳлари.]. Зиёратгоҳларнинг кўпчилигида авлиёларнинг гужуми билан боғлиқ муқаддас жойлар мавжуд. Шундай жойлардан бири Хивадаги Тўрт Шоббоз зиёратгоҳининг орқа томонида қадимги гужум дарахти бўлиб, у қуриб қолган бўлса ҳам, аҳоли унга эътиқод қилиб, чироқ ёқиб ният қилишади.

Исмамут ота зиёратгоҳининг жануб томонида ариқ бўйида гужум дарахти бўлиб, бу жой ҳам муқаддас ҳисобланади. Маҳаллий аҳоли тутни илоҳий санаб, тагида қурбонлиқ қилади. 1972 йилда канални кенгайтириш мақсадида гужумни кўпориб ташламоқчи бўлишган, аммо экcковатор қанча ҳаракат қилмасин, гужумни кўпора олмаган, аммо дарахт қийшайиб қолган. “*Авлиё гужум*” номини олган дарахт ҳозирги кунда ҳам қия ҳолда ўсиб, барг ёзиб турибди [Қодир Карим ўғли 1997: 28].

Хуллас, Хоразм воҳаси аҳолиси ўртасидаги муқаддас жойлар билан боғлиқ қарашларда исломдан аввалги диний эътиқолар қолдиқлари сақланиб қолган. Буларни аҳолининг зиёратгоҳлардаги мавжуд дарахтлар тўғрисидаги қарашларида кўриш мумкин. Шунингдек, бу қарашлар воҳа табиий шароити ва иқлими билан боғлиқ ҳолда ривожланган. Шунингдек, Ҳазрати Али культи ҳам ўзидан олдинги Ҳубби ва Сиёвуш культини ўзида мужассамлаштириб, ҳақиқат ва адолат йўлида жасорат кўрсатувчи баҳодир, Анахита эса Анбар она, Мушкуликушод сифатида намоён бўлиб, инсон ҳаётида аҳамиятли бўлган дарахтларда инсон руҳи яшаши ва илоҳий хусусиятларнинг мавжудлиги тўғрисидаги қарашлар мустаҳкам сақланиши аста-секин ислом олами авлиёлари зиёратгоҳларининг ажралмас қисмига айланишига сабаб бўлган.

Фойдаланилаган адабиётлпар

1.Горшунова О. Священные деревья Ходжи–Барора. Фитолатрия и культ женского божества в Средней Азии. Этнографические исследования Средней Азии. / ЭО. 2008. – №1. – С.71–82. [Электронный ресурс] http://naukarus.com. // (мурожаат 20.11.2016 йил)

2. Ўзбек халқи этнографияси. –Тошкент: Ўқитувчи,1994. –312 б.

3.Снесарев Г. Реликты домусульманских верований и обрядов у узбеков Хорезма. – М.: Наука, 1969. –369 с.

4.Фрезер Дж. Золотая ветвь: иследований магий и религий. – М.: Политиздат, 1983. –703 с.

5. Қодир Карим. Исмомут ота. – Урганч: Мураббий, 1997. –32 б.

6.Дала ёзувлари. Ҳонқа тумани Андалиб маҳалласи, 2017 йил.

7.Дала ёзувлари. Туркманистон республикаси, Тошҳоуз вилояти, Тошҳовуз шаҳри 2017 йил.

8. Дала ёзувлари. Урганч шаҳри, 2017 йил.

9.Дала ёзувлари. Қўшкўпир тумани, Ўртаёп қишлоғи. 2016 йил